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1132-01



— 영유아 문제행동지도 프로그램 개발 —
**영유아 문제행동지도를 위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침서**

2013

보 건 복 지 부
육아정책연구소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1132-01

- 영유아 문제행동지도 프로그램 개발 -
영유아 문제행동지도를 위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침서

연구책임자: 이미화(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의향(한국보육진흥원 국장) 김은기(푸르니보육지원재단 상무)
 심미경(인제대학교 교수) 강지현(동덕여자대학교 교수)
 유희정(광주대학교 교수) 최혜영(창원대학교 교수)
 장명림(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은설(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이정림(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장혜진(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권미경(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엄지원(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서원경(서울청사한빛어린이집 원장) 손승희(대전청사새롬어린이집 원장)
 안현숙(안산삼성어린이집 원장) 유주연(CJ키즈빌어린이집 원장)
 정혜원(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민미희(서경대학교 대우교수)
 김수진(한국보육진흥원 대리) 김영란(한국보육진흥원 사원)
 윤지연(육아정책연구소 인턴)

보 건 복 지 부
육아정책연구소

본 보고서는 육아정책연구소가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보건복지부의 공식적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제 출 문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문제행동지도 프로그램 개발: 영유아 문제행동지도를 위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침서』에 관한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3년 11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이 영

차 례

제 1부. 총론

I. 보육교사 지침서 개발 목적 및 필요성	1
1. 개발의 필요성	1
2. 개발의 목적	3
II. 보육교사 지침서 개발 배경	4
1. 보육교사 지침서 개발과정	4
2. 선행연구 분석	6
III. 보육교사의 요구 분석	15
1. 문제행동지도 실태	15
2. 보육교사의 요구	24
IV. 보육교사 지침서 구성 체계	40
1. 총론 및 각론 개요	40
2. 총론의 구성	40
3. 각론의 구성	41
V. 보육교사 지침서 활용 및 교육계획안	51
1. 필요성 및 목적	51
2. 추진방법	51
3. 사업기간 및 추진일정	52
4. 사업추진체계	52
5. 사업추진과정	53
6. 교사교육 세부추진내용	53
참고문헌	55
부록	56
부록 1. 보육교사 요구분석 설문지	56

제 2부. 각론 : 기본생활영역

I. 「기본생활영역」 문제행동 지도	65
1. 기본생활영역 문제행동의 이해	65
2. 기본생활영역 문제행동 사례목록	69
3. 기본생활영역 교사 지도 방안	70
II. 「기본생활영역」 문제행동지도의 실제	73
1. 이유식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73
2. 젖병을 떼지 못하는 경우	75
3. 공갈젖꼭지에 집착하는 경우	77
4. 편식 : 고기만 먹고 채소를 먹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80
5. 편식 : 과자 등 군것질만 먹는 경우	84
6. 새로운 음식을 거부하는 경우	86
7. 잘 먹지 않거나 먹기 싫으면 입에 물고 있는 경우	89
8. 제자리에서 먹지 않고 돌아다니는 경우	92
9. 스스로 먹지 않는 경우	94
10. 식사예절이 부족한 경우	96
11.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	98
12. 잠을 자는 동안 소변 실수를 자주 하는 경우	104
13. 소변을 참다가 자주 옷에 실수하는 경우	108
14. 어린이집에서 잠자기 어려워하는 경우	111
15. 씻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113
16. 이를 닦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118
17. 지나치게 청결한 경우	122
18. 계절이나 상황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려고 하는 경우	124
19. 옷이나 신발을 입고 벗지 못하는 경우	128
20. 스스로 옷이나 신발을 입고 벗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131
21. 자기 물건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	134
22. 정리정돈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137
23. 차레를 지키거나 기다리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우	141
24. 어린이집에서 위험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143

25. 어린이집 버스에서 심하게 장난을 치거나 의자에 앉아 있지 않는 경우	146
26. 어린이집 하루일과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	149
참고문헌	151

제 3부. 각론 : 신체운동발달영역

I. 「신체운동발달영역」 문제행동지도	155
1. 신체운동발달영역 문제행동의 이해	155
2. 신체운동발달영역 문제행동 사례 목록	161
3. 신체운동발달영역 교사 지도 방안	162
II. 「신체운동발달영역」 문제행동지도의 실제	164
1. 걷지 못하는 경우	164
2. 걸을 수 있는데 걷지 않고 항상 안아달라고 하는 경우	167
3. 엄지, 검지를 쓰지 않고 크레파스를 손 전체로 잡는 경우	171
4. 손가락을 사용할 때 많이 흘리는 경우	173
5. 블록을 3개 이상 쌓지 못하는 경우	175
6. 다리 힘이 약하여 자전거 페달을 돌리지 못하는 경우	178
7. 점핑(jumping) 등과 같은 대근육 동작을 하지 못하는 경우	182
8. 팔의 힘이 약해 공을 던지지 못하는 경우	185
9. 계단, 정글짐과 같은 기구에 오르내리기 힘들어하는 경우	188
10. 가위를 사용해 도형 오리기를 잘 못하는 경우	192
11. 동작이 너무 느린 경우	193
12. 걸음걸이나 뛰는 자세가 불안정하여 자주 넘어지고 부딪히는 아이	196
13. 항상 기대어 앉거나 누워서 활동에 참여하는 아이	200
14. 움직이기를 싫어하거나 거의 움직임이 없는 아이	203
15. 쉬지 않고 심하게 많이 움직이는 아이	206
16. 눈을 찡그리거나 비비고, 사물을 가까이 보려는 아이	209
17. 코를 자주 파고 쿵쿵거리는 아이	211
18. 소리를 잘 못 듣는 아이	213
19. 입에서 구취가 나는 경우	215

20. 두통을 자주 호소하는 경우	217
21. 심한 변비	219
22. 잦은 소변(빈뇨)	221
23. 비만인 경우	223
24. 체격이 심하게 왜소한 경우	227
참고문헌	229
부록	230
부록 1. 소아 청소년 표준 성장도표(2007)	230
부록 2. 영유아의 대·소근육 운동발달	232

제 4부. 각론 : 사회성발달영역

I. 「사회성발달영역」 문제행동지도	237
1. 사회성발달영역 문제행동의 이해	237
2. 사회성발달영역 문제행동 사례목록	244
3. 사회성발달영역 문제행동에 대한 교사 지도 방안	245
II. 「사회성발달영역」 문제행동지도의 실제	254
1. 무는 경우	254
2. 교사를 밀쳐내는 경우	257
3. 할퀴는 경우	260
4. 놀잇감을 던지는 행동	263
5. 놀잇감을 찢는 경우	265
6. 짜증내는 경우	268
7. 교사에게 매달리는 경우	271
8. 자기의 관심에만 몰두된 경우	274
9. 때리는 경우	276
10. 같이 안 논다고 말하는 경우	280
11. 신경질적으로 말하는 경우	284
12. 떼쓰는 경우	286
13. 자기 싫어하는 경우	289

14. 친구를 귀찮게 하는 경우	293
15. 힘 조절을 못하는 경우	295
16.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	298
17. 선호하는 또래가 제한된 경우	300
18. 부끄러움이 많은 경우	303
19. 의존적인 경우	306
20. 같은 것을 반복하는 경우	308
21. 또래를 따돌리는 경우	310
22.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313
23. 반항하는 경우	315
24. 고자질하는 경우	319
25. 거짓말 하는 경우	322
26.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	323

제 5부. 각론 : 정서발달영역

I. 「정서발달영역」 문제행동지도	329
1. 정서발달영역 문제행동의 이해	329
2. 정서발달영역 문제행동 사례목록(표)	336
3. 정서발달영역 교사 지도 방안	337
II. 「정서발달영역」 문제행동지도의 실제	344
1. 양육자와 헤어져도 만나도 힘든 경우	344
2. 교사와 궁합이 잘 맞지 않는 경우	347
3. 아직 어려서 헤어지기가 어려운 경우	351
4. 아기 때부터 쓰던 물건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경우	353
5. 갑작스러운 변화에 불안해하는 경우	355
6. 무조건 울어 버리는 경우	357
7. 늘 기분이 좋지 않은 경우	360
8. 아직 어려서 화를 참을 수 없는 경우	363
9. 선천적으로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경우	365
10. 우연한 반복으로 인한 즐거움이나 위안 받고 싶은 욕구를 자위로 표출하는 경우 ..	368

11. 이전 기관에서 좋지 않은 경험을 한 경우	372
12. 울어서 얻고 싶은 것을 해결하는 경우	375
13. 잘 할 수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경우	378
14. 주위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에 자신감을 잃는 경우	380
15.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일에 너무 부끄러운 경우	383
16. 특별한 사건 때문에 자신감을 잃은 경우	386
17. 강박 성향을 가진 경우	388
18. 통제해야 안심이 되는 경우	390
19. 불안감과 긴장으로 틱(tic) 현상을 보이는 경우	392
20. 늘 기분이 좋지 않은 경우	394
21. 기분 변화가 심한 경우	398
22. 정서 발달이 또래에 비해 늦은 경우	400
23. 분노 폭발로 관심을 받고 싶은 경우	402
24. 잘못에 대해 제지 받은 경험이 없어 잘못하지 않았다고 우기는 경우	405
25. 이후 상황이 두려워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407
26. 마음속에 가득 찬 화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409
27. 겁이 많아서 새로운 활동을 지나치게 거부하는 경우	411
28. 환경변화로 인해 산만해진 경우	413
29. 심리적 문제 때문에 산만한 경우	414
30. 성관계 장면을 따라하거나 다른 성의 친구를 궁금해 하는 경우	417
참고문헌	421
부록	423
부록 1. 정서발달 관련 검사	423

제 6부. 각론 : 언어발달영역

I. 「언어발달영역」 문제행동지도	427
1. 언어발달영역 문제행동의 이해	427
2. 언어발달영역 교사 지도 방안	432
3. 언어발달영역 문제행동 사례목록	434

II. 「언어발달영역」 문제행동 지도의 실제	435
1. 또래에 비해 상대방이 이해하기 어려운 발음으로 말하는 경우	435
2. 또래와 달리 상대방의 말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437
3. 또래에 비해 질문 또는 지시에 대한 반응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440
4. 또래와 달리 의사표현(표정·몸짓·언어)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	444
5. 또래와 달리 울음 또는 몸짓을 이용한 의사표현을 주로 하는 경우	447
6. 또래에 비해 자신이 만들어낸 어휘(음운적 신어) 사용이 빈번한 경우	451
7. 또래에 비해 주로 한 단어말로 의사표현 하는 경우	454
8. 또래와 달리 징징거리거나 소리 지르는 말투를 주로 사용하는 경우	456
9. 또래에 비해 대화 시 상대방을 응시하지 못하고 진행되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경우	459
10. 또래에 비해 그림책이나 인쇄글자에 흥미를 보이지 않는 경우	461
11. 또래에 비해 쓰기도구 및 사용(끼적이기)에 대해 흥미를 보이지 않는 경우 ..	464
12. 아기식 발음으로 말하거나 알아듣기 힘들 만큼 명확하지 않은 발음으로 말하는 경우	467
13. 말할 때 말소리 크기가 지나치게 크거나 작은 경우	469
14. 지나친 군말사용이나 말더듬 현상으로 말의 흐름이 순조롭지 못한 경우 ..	472
15. 또래에 비해 대화 및 이야기 나누는 상황에서 맥락·지시·주제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	475
16. 또래에 비해 주변 글자 및 책읽기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없는 경우	477
17. 또래에 비해 문학작품 내용에 대한 이해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480
18. 또래에 비해 사용 어휘수가 매우 적은 경우	482
19. 또래에 비해 언어적 의사표현이 매우 적은 경우	484
20. 사람들 앞에서 말하려 하지 않는 경우	486
21. 또래에 비해 말한 내용이 정리되지 않아 이해가 어려운 경우	489
22. 초보적 쓰기를 통한 표현 행동이 전혀 없는 경우	492
23. 다른 사람의 말을 집중하여 듣지 못하는 경우	494
24. 말하기 순서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말만 하려는 경향이 심한 경우	496
25. 유행어 및 비속어를 매우 빈번하게 사용하는 경우	498
26. 불필요한 말대꾸를 하거나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	500
27. 또래에 비해 책에 대한 관심이 매우 저조한 경우	503

28. 또래에 비해 쓰기를 위한 도구 사용에 관심이 없거나 도구사용이 매우 미숙한 경우	505
참고문헌	507
부록	509
부록 1. 영아언어발달지표	509
부록 2. 포테이지 아동발달지침: 언어영역	511

제 7부. 각론 : 인지발달영역

I. 「인지발달영역」 문제행동지도	517
1. 인지발달영역 문제행동의 이해	517
2. 인지발달영역 문제행동 사례목록	520
3. 인지발달영역 교사 지도 방안	521
II. 「인지발달영역」 문제행동 지도의 실제	524
1. 성인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경우	524
2. 물건을 보여주거나 소리를 들려주어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행동	526
3. 낯선 사람에게 쉽게 안기고 따라가려는 경우	528
4. ‘까꿍’ 하면 고개를 돌리는 경우	530
5. 새로운 사물이나 놀이감을 제시해도 관심 없거나 피하는 경우	533
6. 대상의 영속성이 생길 연령에서 놀이감이 사라져도 찾지 않는 경우	535
7. 팔, 다리(또는 소리)를 이용한 간단한 동작을 모방하지 않는 경우	537
8. 영아에게 물건이나 놀이감을 손에 쥐어주기 전에는 탐색하지 않는 경우	539
9. 또래와 비교하여 지연모방이나 상징놀이를 하지 못하는 경우	541
10. 교사나 또래의 놀이 행동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우	543
11. 끼적거리기 단계가 변화되지 않는 경우	545
12. 익숙한 모양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	547
13. 일상생활용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549
14. 촉각으로 물건을 구분하여 알아맞히지 못하는 경우	552
15. 간단한 동화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554
16. 소개된 활동의 순서를 몰라 망설이는 경우	557

17. 환경의 변화를 알아보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560
18. 질문하는 맥락에 관계없이 대답하는 경우	562
19. 주의집중하지 못하고 행동이 산만한 경우	565
20. 동화를 들을 때 동화 내용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	567
21. 간단한 지시를 따라하지 못하는 경우	570
22. 역할놀이때 정해진 역할을 표현하지 못하고, 단순한 행동을 반복하는 경우 ..	572
23. 놀이감을 정리할 때 뒤섞어서 정리하거나 다른 영역에 정리하는 경우	575
24. 자신의 물건과 남의 물건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주 바뀌가는 경우	577
25. 또래에 비하여 수세기를 못하는 경우	580
26. 자기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여 토론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582
27. 이야기의 내용을 순서대로 회상하지 못하거나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	584
참고문헌	587
부록	588
부록 1. 인지발달지표	588

표 차례

제 1부. 총론

〈표 I-1-1〉 ADHD 연도별 추이	2
〈표 II-2-1〉 문제행동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지원전략의 설명 및 사용 시기 예시 ·	12
〈표 III-1-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5
〈표 III-1-2〉 영유아 문제행동지도와 관련한 교사의 인식	16
〈표 III-1-3〉 영역별 문제행동지도의 어려움 정도 및 학급 내 문제행동 영유아 현황 ·	17
〈표 III-1-4〉 영유아 문제행동지도가 어려운 이유	17
〈표 III-1-5〉 영유아 문제행동지도를 위해 정기적으로 지원 받는 인력 현황	18
〈표 III-1-6〉 문제행동지도를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1+2순위)	18
〈표 III-1-7〉 영유아 문제행동지도 관련 보수교육 경험 유무	19
〈표 III-1-8〉 영유아 문제행동지도 관련 보수교육의 실제 도움 정도	19
〈표 III-1-9〉 받았던 보수교육이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	20
〈표 III-1-10〉 문제행동지도와 관련된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	20
〈표 III-1-11〉 문제행동지도를 위한 보수교육의 필요성	21
〈표 III-1-12〉 문제행동지도를 위한 보수교육이 필요한 이유	21
〈표 III-1-13〉 문제행동지도와 관련된 교육기회가 있을 시 참여 여부	22
〈표 III-1-14〉 문제행동지도 관련 교사교육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1+2순위)	23
〈표 III-2-1〉 문제행동지도 교사용 지침서에서 다루기를 원하는 중점 내용(1+2순위) ·	24
〈표 III-2-2〉 기본생활, 신체운동발달 영역 문제행동사례별 교사용 지침서 필요 정도 ·	25
〈표 III-2-3〉 교사용 지침서에서 다루기 원하는 문제행동사례 1+2순위: 기본생활(영아) ·	26
〈표 III-2-4〉 교사용 지침서에서 다루기 원하는 문제행동사례 1+2순위: 기본생활(유아) ·	27
〈표 III-2-5〉 교사용 지침서에서 다루기 원하는 문제행동사례 1+2순위: 신체운동발달(영아) ·	28
〈표 III-2-6〉 교사용 지침서에서 다루기 원하는 문제행동사례 1+2순위: 신체운동발달(유아) ·	28
〈표 III-2-8〉 사회성발달, 정서발달 영역 문제행동사례별 교사용 지침서 필요 정도 ·	30
〈표 III-2-9〉 교사용 지침서에서 다루기 원하는 문제행동사례 1+2순위: 사회성발달(영아) ·	31
〈표 III-2-10〉 교사용 지침서에서 다루기 원하는 문제행동사례 1+2순위: 사회성발달(유아) ·	32

〈표 III-2-11〉 교사용 지침서에서 다루기 원하는 문제행동사례 1+2순위: 정서발달(영아)	33
〈표 III-2-12〉 교사용 지침서에서 다루기 원하는 문제행동사례 1+2순위: 정서발달(유아)	34
〈표 III-2-13〉 언어발달 및 인지발달 영역 문제행동사례별 교사용 지침서 필요정도	35
〈표 III-2-14〉 교사용 지침서에서 다루기 원하는 문제행동사례 1+2순위: 언어발달(영아)	37
〈표 III-2-15〉 교사용 지침서에서 다루기 원하는 문제행동사례 1+2순위: 언어발달(유아)	37
〈표 III-2-16〉 교사용 지침서에서 다루기 원하는 문제행동사례 1+2순위: 인지발달(영아)	38
〈표 III-2-17〉 교사용 지침서에서 다루기 원하는 문제행동사례 1+2순위: 인지발달(유아)	39
〈표 IV-3-1〉 6개 영역별 문제행동 사례목록수	43
〈표 IV-3-2〉 기본생활 영역 문제행동 사례목록	43
〈표 IV-3-3〉 신체운동 발달영역 문제행동 사례 목록	45
〈표 IV-3-4〉 사회성 발달영역 사례목록	46
〈표 IV-3-5〉 정서발달 영역 문제행동 사례 목록	47
〈표 IV-3-6〉 언어발달영역 문제행동 사례목록표	48
〈표 IV-3-7〉 인지발달영역 문제행동 사례목록표	49
〈표 V-3-1〉 보육교사 지침서 교사교육 사업추진일정	52

제 2부. 각론 : 기본생활영역

〈표 I-1-1〉 연령에 따른 식사능력의 발달	66
〈표 I-1-2〉 연령에 따른 배설 기능의 발달	67
〈표 I-1-3〉 연령에 따른 휴식시간	67
〈표 I-1-4〉 청결습관 지도의 내용	68
〈표 I-1-5〉 연령에 따른 청결 기능의 발달	68
〈표 I-2-1〉 기본생활영역 문제행동 사례목록	69
〈표 II-11-1〉 배설 관련 문제행동	103
〈표 II-11-2〉 배설 관련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바람직한 대소변 훈련 방법	103
〈표 II-12-1〉 배설 관련 문제행동	107
〈표 II-15-1〉 연령에 따른 청결습관 지도 방법	117
〈표 II-16-1〉 연령에 따른 이 닦기 지도 방법	121
〈표 II-17-1〉 지나치게 청결한 영유아의 행동 특성	122
〈표 II-18-1〉 연령에 따른 날씨에 맞게 옷 입기 지도 방법	126

〈표 II-19-1〉 영아반에서의 잘못된 지도 사례	129
〈표 II-22-1〉 연령에 따른 놀잇감 정리하기 지도 방법	138
〈표 II-22-2〉 지나치게 정리정돈을 강조하여 놀이의 활성화를 방해한 예	140
〈표 II-22-3〉 가정에서의 정리정돈 지도 방법	141

제 3부. 각론 : 신체운동발달영역

〈표 I-2-1〉 신체운동발달영역 문제행동 사례 목록	161
-------------------------------------	-----

제 4부. 각론 : 사회성발달영역

〈표 I-2-1〉 사회성발달영역 사례목록	244
------------------------------	-----

제 5부. 각론 : 정서발달영역

〈표 I-2-1〉 영아·유아 정서발달 영역 문제행동 사례 목록	336
〈표 II-2-1〉 교사의 일일보육일지를 통한 점검의 예	349

제 6부. 각론 : 언어발달영역

〈표 I-3-1〉 언어발달영역 문제행동 사례목록표	434
-----------------------------------	-----

제 7부. 각론 : 인지발달영역

〈표 I-2-1〉 인지발달영역 문제행동 사례목록	520
----------------------------------	-----

그림 차례

제 1부. 총론

[그림 II-1-1] 문제행동지도 보육교사 지침서 개발과정	5
[그림 II-1-2] 사업수행체계	5
[그림 II-2-1]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8
[그림 II-2-2] 사회적 유능감과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지도 방안 피라미드	14
[그림 III-1-1] 문제행동지도를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1+2순위)	18
[그림 III-1-2] 관련 보수교육 경험유무	19
[그림 III-1-3] 관련 보수교육의 실제 도움 정도	19
[그림 III-1-4] 받았던 보수교육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	20
[그림 III-1-5] 문제행동지도와 관련된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	20
[그림 III-1-6] 문제행동지도를 위한 보수교육의 필요성	21
[그림 III-1-7] 문제행동지도를 위한 보수교육이 필요한 이유	22
[그림 III-1-8] 문제행동지도와 관련된 교육기회가 있을 시 참여여부	22
[그림 III-1-9] 문제행동지도 관련 교사교육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1+2순위)	23
[그림 III-2-1] 문제행동지도 교사용 지침서에서 다루기를 원하는 중점 내용(1+2순위)	24
[그림 III-2-3] 교사용 지침서에서 다루기 원하는 문제행동사례 1+2순위: 기본생활(영아) ..	26
[그림 III-2-4] 교사용 지침서에서 다루기 원하는 문제행동사례 1+2순위: 기본생활(유아) ..	27
[그림 III-2-5] 교사용 지침서에서 다루기 원하는 문제행동사례 1+2순위: 신체운동발달(영아) ..	28
[그림 III-2-7] 교사용 지침서에서 다루기 원하는 문제행동사례 1+2순위: 신체운동발달(유아) ..	29
[그림 III-2-8] 교사용 지침서에서 다루기 원하는 문제행동사례 1+2순위: 사회성발달(영아) ..	31
[그림 III-2-9] 교사용 지침서에서 다루기 원하는 문제행동사례 1+2순위: 사회성발달(유아) ..	32
[그림 III-2-10] 교사용 지침서에서 다루기 원하는 문제행동사례 1+2순위: 정서발달(영아) ..	33
[그림 III-2-11] 교사용 지침서에서 다루기 원하는 문제행동사례 1+2순위: 정서발달(유아) ..	34
[그림 III-2-12] 교사용 지침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기를 원하는 항목: 언어발달(영아) ..	36
[그림 III-2-13] 교사용 지침서에서 다루기 원하는 문제행동사례 1+2순위: 언어발달(유아) ..	37
[그림 III-2-14] 교사용 지침서에서 다루기 원하는 문제행동사례 1+2순위: 인지발달(영아) ..	38

[그림 III-2-15] 교사용 지침서에서 다루기 원하는 문제행동사례 1+2순위: 인지발달(유아) ..	39
[그림 IV-2-1] 보육교사 지침서 총론 구성	41
[그림 IV-3-1] 보육교사 지침서 각론의 구성	42
[그림 IV-3-2] 보육교사 지침서 각론 구성	42
[그림 V-4-1] 보육교사 지침서 교사교육 사업추진체계	52
[그림 V-5-1] 보육교사 지침서 교사교육 사업추진과정	53

제 3부. 각론 : 신체운동발달영역

[그림 I-1-1] 성장곡선	155
[그림 I-1-2] 손으로 붙잡기	158
[그림 I-1-3] 입방체 쌓아올리기(building)	158
[그림 I-1-4] 그림보고 그리기(copying)	159
[그림 I-1-5] 소아의 성장곡선유형	159
[그림 II-1-1] 걷지 못하는 영아	164
[그림 II-2-1] 걷지 않고 안아달라고 하는 영아	168
[그림 II-3-1] 크레파스를 손 전체로 잡는 영아	171
[그림 II-4-1] 정교한 손가락질을 하지 못하는 영아	173
[그림 II-4-2] 손가락 힘을 길러줄 수 있는 놀잇감의 예	174
[그림 II-6-1] 자전거를 잘 타지 못하는 유아	178
[그림 II-8-1] 공을 잘 던지지 못하는 유아	185
[그림 II-9-1] 계단 오르내리기가 어려운 유아	188
[그림 II-10-1] 가위질을 하고 있는 유아	192
[그림 II-12-1] 걸거나 떨어질 때 잘 넘어지는 영아 또는 유아	196
[그림 II-13-1] 정상척추와 척추측만증이 있는 아동의 모습	202
[그림 II-23-1] 한국남아의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곡선	225
[그림 II-23-2] 한국여아의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곡선	225

제 4부. 각론 : 사회성발달영역

[그림 I-1-1] 사회적 유능성 발달에 있어 자기 인식에서 사회적 이해로의 발달 ..	239
[그림 I-1-2] 자기 조절의 발달(Marjorie, 2009)	241

제 5부. 각론 : 정서발달영역

[그림 I-1-1] 영유아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30
[그림 I-3-1] 교사의 영유아 문제행동 지도 방안	342

부록 표 차례

제 3부. 각론 : 신체운동발달영역

<부록 표 1> 만 0~1세 영아의 대·소근육 운동발달	232
<부록 표 2> 만 2세 영아의 대·소근육 발달	233
<부록 표 3> 만 3세 유아의 대·소근육 발달	233
<부록 표 4> 만 4세 유아의 대·소근육 발달	234
<부록 표 5> 만 5세 유아의 대·소근육 발달	234

부록 그림 차례

제 3부. 각론 : 신체운동발달영역

[부록 그림 1] 소아 발육 표준치(체중, 신장, 체질량지수, 머리둘레)	231
--	-----

제 1부. 총론

I. 보육교사 지침서 개발 목적 및 필요성

1. 개발의 필요성

영유아 문제행동 지도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

- 신체적·정서적 불안 증세를 보이는 문제행동(ADHD, 공격적 행동, 등원거부, 거짓말 등) 영유아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도하기 위한 가정, 보육교사 지원 정책이 미비함. 이에 문제행동 지도를 위한 교사용 지침서 및 부모 교육용 안내서 개발이 필요함.
- 2013년 보건복지부는 '국민 100% 행복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아동을 위한 전략으로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사회환경' 마련과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지원'을 표방하고 있음.
 - － 보육정책의 최우선은 영유아의 행복한 삶이어야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영유아의 가장 밀접한 환경인 부모와 보육교사를 지원하는 체제를 마련하고, 장기적이고 꾸준한 교육시스템을 국가가 책임지고 담당해야 함.
- 최근 우리나라에서 취업모 증가, 출산율 감소, 이혼율 증가와 같은 가족 변동 및 해체와 경쟁적 분위기를 조장하는 상황들이 영유아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고, 좌절과 통제 경험이 이전보다 증가하면서 영유아의 문제행동을 유발하고 심각한 발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
 - － 영유아의 문제행동은 개인 및 가족이 경험하는 일상생활의 어려움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면에서도 비용을 유발함. 보건·교육·정신건강·사법체계 분야에 지불되는 비용과 이 과정에서의 생산성 감소, 아동과 가족 나아가 지역사회가 겪는 고통을 추계하면 높은 비용이 발생함(안동현, 2005).

영유아기 문제행동의 증가현황

- 우리나라 아동기의 잠재적 공격행동 발현 성향은 매우 높은 편임.

- 배승민, 신동원, 이수정(2009)의 문헌에 의하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는 초등학교 중 8-12%가 경험하고 있을 정도로, 소아에게 나타나는 가장 흔한 장애 중 하나임.
- 2003년부터 2009년까지의 ADHD, 즉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의 수는 0-4세는 34.4% 줄었으나 5-9세는 112.8% 증가하고 10-14세는 37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표 I-1-1 참조).

〈표 I-1-1〉 ADHD 연도별 추이

단위: 명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증감률
계	18,967	24,170	33,824	51,087	62,044	59,511	64,066	237.8%
20대 미만	18,800	23,976	33,546	50,643	61,150	58,341	62,619	233.1%
0-4세	1,014	975	890	1,186	1,035	827	665	-34.4%
5-9세	10,368	12,836	16,692	23,581	25,862	22,397	22,068	112.8%
10-14세	6,239	8,574	12,914	20,170	26,346	26,670	29,679	375.7%
15-19세	1,179	1,591	3,050	5,706	7,907	8,447	10,207	765.7%
20대 이상	167	194	278	444	894	1,170	1,447	766.5%

- 2013년 현재 4만개소가 넘는 어린이집에서는 특수교육 대상은 아니지만, 그 경계 선상에 있으면서, 전체적인 발달 영역(언어, 인지, 사회, 정서, 신체 등) 또는 특정한 한 두 영역에서 정상적인 영유아의 발달 수준에 이르지 못하거나 문제 행동을 하는 영유아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 급증하고 있는 주의력결핍 과잉 행동장애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2009년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가 특화 전환됨.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매뉴얼을 개발함. 2010년 전국적으로 56개 사업이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라는 명칭으로 시행되었고 10,506명이 서비스를 이용하였음(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자료 기준).
 - 최근에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발달 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게 대근육·소근육 운동, 언어발달, 감각운동에 기초한 인지발달, 정서·사회성발달을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각 반의 보육교사는 반 전체 원아를 책임지면서 개별적인 배려와 지원이 필요한 문제행동을 지닌 영유아를 동시에 보육하기에는 어려움이 매우 크므로 이를 위한 교사용 지침서가 필요함.

2. 개발의 목적

- 제 1과제 : 영유아 문제행동지도를 위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침서 개발
 - 어린이집 영유아의 부적응 행동 현황 파악과 이에 대한 보육교사의 어려움 및 지원에 요구 조사 분석을 통해 보육교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의 근거 지침 제공하고자 함.
 - 6개 영역별(기본생활영역, 신체운동발달영역, 사회성발달영역, 정서발달영역, 언어발달영역, 인지발달영역) 문제행동 사례를 제시하고 개별 사례에 따른 원인 분석, 지도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제시함으로써 영아와 유아의 문제행동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지도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고자 함.
 - 개발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침서 보급을 위한 교사교육 계획안을 제시함.

Ⅱ. 보육교사 지침서 개발 배경

1. 보육교사 지침서 개발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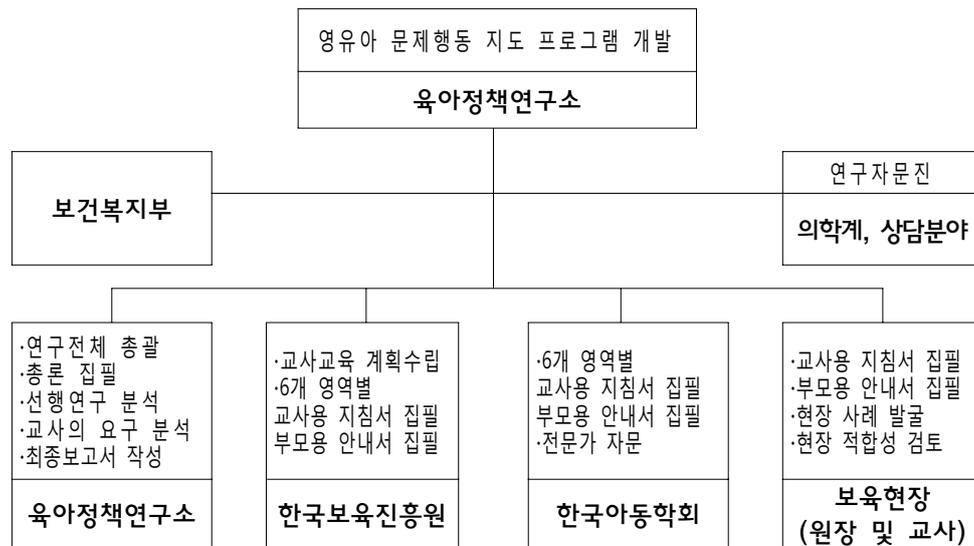
연구단계	주요 내용 및 활동
↓	
연구계획 수립	연구목적 및 기본방향 설정 본 연구를 위한 문제행동의 조작적 정의
↓	
문헌연구	문제행동지도 관련 선행연구 분석
↓	
영역별 문제행동 현장 사례 발굴	6개 영역별 교사가 지도하기 어려운 문제행동 사례 발굴
↓	
문제행동지도 교사용 지침서 요구 조사 및 분석	어린이집 문제행동지도 실태 분석 문제행동지도 교사용 지침서 요구 파악
↓	
문제행동지도 교사용 지침서 집필	6개 영역별 문제행동지도의 이해, 문제행동사례 지도에 관한 교사용 지침서 집필
↓	
의학·상담·아동학분야 전문가 검토	전문가 자문회의 및 서면검토 실시 - 전문분야에 따른 내용의 타당성 검토 - 어린이집 현장적합성 검토 - 수정보완의견 수렴
↓	
교사용 지침서 및 부모교육용 안내서 최종 확정	전문가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	
교사교육 계획 수립	어린이집에서의 활용방안 도출 보육정보센터를 활용한 교육계획 수립

(그림 II-1-1 계속)

연구단계	주요 내용 및 활동
총론 집필	개발된 교사용 지침서를 바탕으로 총론 구성
최종보고서 완성	교사용 지침서 7종 - 총론(1), 6개 영역별 교사용 지침서(6)

[그림 II-1-1] 문제행동지도 보육교사 지침서 개발과정

□ 사업수행체계



[그림 II-1-2] 사업수행체계

- 육아정책연구소가 주관하고, 공동연구진으로 교사교육 및 부모교육 담당하는 한국보육진흥원(보육인력국, 중앙보육정보센터)과 아동·부모상담 및 교육 관련 학계 전문가(한국아동학회, 상담소 등) 다수가 참여하여 추진함.

□ 공동연구로 수행해야 할 필요성

- 영유아 문제행동 지도 프로그램 개발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일상적인 보육일과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행동에 대한 적절한 지도가 요구되므로 이를 위해 육아정책연구소가 주축이 되어 다양한 관련 분야 전문가 및 현장전문가와 공동연구가 요구됨.
- 기본적으로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요청으로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된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 교사용 지침서와 연령별 보육프로그램(교사용 지도서)이 기준이 됨. 또한 육아정책연구소에서 개발된 부모교육 프로그램, 발달지연아를 위한 언어·인지·사회·정서 지원 프로그램 개발 연구(교육과학기술부·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08), 문제행동 아동 심리·정서치유서비스 연구 등을 참고할 수 있음.
- 한국보육진흥원은 보육인력개발국과 중앙보육정보센터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보육관련 사업을 수행하며, 체계적으로 보육교직원을 위한 보수교육 계획 수립하고 실행하며, 전국의 보육정보센터를 통해 복지부에서 새롭게 개발하는 보육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운영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체계를 통해 본 연구에서 개발되는 '영유아 문제행동 지도 프로그램'을 전국의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에 보급하고 교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특히 어린이집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영유아 문제행동 사례를 보육현장에서 직접 의견수렴하여 문제행동을 진단하고 판단한 후, 그 수위에 따라 보육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단계와 이보다 더 개별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된 의학과 및 아동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단계로 구별할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의학과 아동상담분야와의 연구 협력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들에게 지속적인 자문을 받음.

2. 선행연구 분석

가. 문제행동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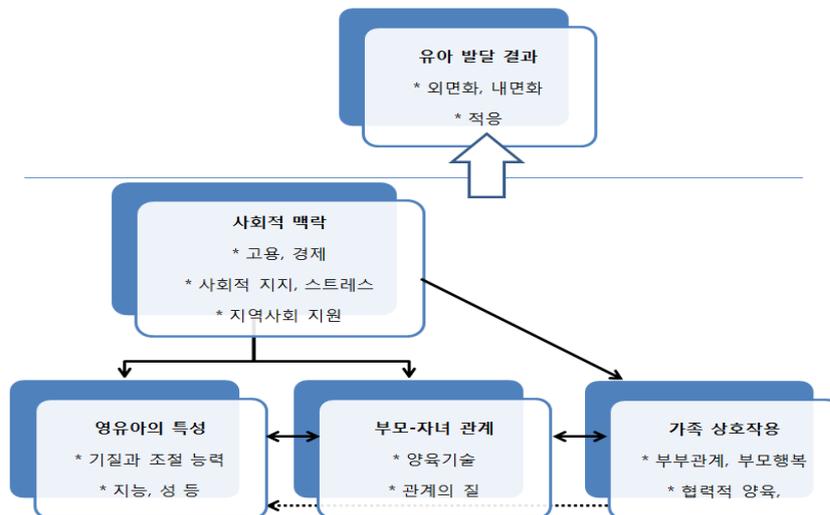
- Department of Education and Science(1989)는 유아의 문제행동이란 유아의 연령에 기초한 규범적 행동으로 보기에 부적절한 행동이나 정상적인 적응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행동으로서, 일반 부모나 교사의 일상적인 지도 범위를 벗어나 어려움을 야기하는 행동으로 보았음(황혜정, 2006 재인용).

- 사회 및 정서 발달상에 나타나는 내재화된 또는 외현화된 역기능을 지칭
 - 일반 유아들도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수용되지 않는 역기능을 특정시기에 어느 정도 나타낼 수 있으나 문제행동을 가진 유아는 신체적, 사회적, 개인적 상황의 여러 측면에서 적응상의 문제를 나타내며 이들은 부적절하고 공격적이며 기괴하거나 또는 위축된 행동들을 통해서 그들 자신과 그들의 학습 환경 사이에 장벽을 만들기도 함.
- 문제행동은 크게 외현적인 문제행동과 내재적인 문제행동으로 구분됨.
 - 외현적인 문제행동이란 사회 및 정서발달상에 나타나는 역기능, 즉 갈등이 밖으로 표출되는 행동(공격성, 과잉운동, 거짓말, 도벽, 다른 사람을 못살게 구는 등) 등 행동적인 문제행동을 말함(Achenbach & Edelbrock, 1983; Achenbach & McConaughy, 1987; 황혜정, 2006 재인용).
- 송의열과 이미자(2001)는 문제행동의 개념을 일상생활에서 아동이 보이는 인지적, 정서적, 심리운동기능적 발달 측면의 행동이 정상적인 아동들이 보이는 범주의 행동과는 달리 발달적 또는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나는 행동상의 비정상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환경에서 유발된 부적응 상태의 행동 양식이라고 정의함.
- ‘영유아 문제행동’에 대한 본 연구의 조작적 정의
 - 연령에 기초한 규범적 행동으로 보기에 부적절한 행동
 - 보육교사나 부모의 일상적인 지도범위를 벗어나 어려움을 야기하는 행동
 - 단, 특수교육 대상 행동은 아님.

나. 문제행동의 원인

- 영유아기 문제행동의 원인
 - 이런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영유아 문제를 일으키는 발달 단계와 개인적 특성, 심리적 원인 등에 대해 인식하고 현황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 특히 최근 들어 증가하는 영유아들의 문제 행동의 증가와 심신의 건강 수준의 심각성을 더욱 전문화된 서비스와 정책 수립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 발달심리학적 관점에서 문제행동이란 영유아가 특정 발달단계에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받아 해당된 발달단계를 성취하지 못하고 고착되거나 왜곡, 퇴행 되었을 때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봄. 영유아의 문제행동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유아가 직면하고 있는 발달과제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홍강의, 2005).
- 발달정신병리학(Developmental psychopathology)관점에서는 영유아의 정상 발달을 기준으로 개인차에 따라 발달이 왜곡되어 문제행동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으며, 문제 행동에 원인이 되는 요인들을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측면에서 살펴봄.



자료: Campbell, S. B.(2007). 유아의 문제행동. p32 그림을 참조함

[그림 11-2-1]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또한 영유아가 문제 행동의 전조를 보일 때 그 결과는 위험요인(risk factors)과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s)의 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조숙아로 태어났거나 학대, 방임, 빈곤, 부모의 이혼 등 불리한 환경적 경험을 한 영유아들이 유리한 환경적 경험을 하는 영유아보다 적응의 가능성이 낮아짐. 그러나 위험요인이 있다고 해서 바로 문제행동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어떤 요인들이 상호작용 하여 현재의 결과가 나타났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함.

- 첫째, 영유아의 특성은 기질과 정서 조절 능력 등으로 부모-자녀 관계와 상호작용함. 영유아의 까다로운 특성이 부모-자녀의 관계의 질을 낮출 수 있으며, 부모의 양육기술이 부족할 경우 자녀가 바람직한 정서 조절 능력을 기르지 못함.
- 둘째, 부부관계가 좋고 양육에 대해 서로 협력하는 것 등의 가족 상호작용 유형은 부모의 자녀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영유아의 특성에 까지 간접영향을 미침.
- 셋째, 유아특성과 부모 특성의 결합은 문제 행동의 주 결정요인으로 보이며, 가족과 사회적 맥락 효과는 그것을 더 확대시키고 유지하는 효과가 있음.

다. 조기개입의 중요성 및 교사 역할

□ 영유아기 적절한 개입의 중요성

- 영유아기는 생애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로서 영유아기의 경험은 성인기 행동의 여러 특성을 결정하는 원인이 됨. 발달영역에 따라 영유아는 여러 문제를 갖게 되며, 영유아기에 경험하는 욕구좌절이나 빈곤에 따른 물리적 박탈감 또는 문화적 결핍에 의한 정서불안이나 신체적 증상 등 여러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
 - 영유아기에 겪는 부정적인 경험은 분노, 과잉행동, 파괴적 행동, 거짓말하기 등 문제행동과 학습장애, 신경장애, 신경증, 우울증, 열등감 등으로 이후 정신병리를 발달시키게 되므로 조기에 적절한 대처와 지원이 필요함.
 - 한편, 영유아들에게서 쉽게 볼 수 있는 문제행동들이 사실상 특정 발달기에는 보편적인 것으로 영유아의 문제라기보다는 다루기 어려운 행동일 수도 있다는 것이 밝혀짐. 그러므로 영유아기의 발달 상황을 고려하여 임상적으로 함의를 가진 문제행동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함.
 - 문제행동의 정의는 정상과 비정상 두 분류로 구분되는 문제 행동자체를 다루기보다는 빈도, 강도, 만성성, 연합성, 그리고 사회적 맥락을 고려해야함.
 - 문제행동을 외현화된 문제행동과 내현화된 문제행동으로 나뉨. 외현화된 문제행동은 부정적 정서 표출, 충동적 행동, 주의력 결핍, 조절능력 부족, 공격성, 거짓말 등으로 구분되고, 내현화된 문제행동은 불안이나 위축, 두려움, 슬픔 등의 정서가 과도한 것임.

- 영유아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행동은 신체적 질병과 마찬가지로 심각할 수 있으며, 생애 초기에 발견하여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고 개선해나가야 함.
 - 영유아의 특성은 스트레스 관리 시스템이 성숙하면서 대처능력을 발달시키는 시기임. 행동반응이 제한되고 양육자에 대한 의존이 높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하지 못할 경우 스트레스 요소가 됨. 특히 모성 분리 스트레스는 다수의 부정적인 결과와 연관이 있음.
 - 스트레스가 기억, 주의력과 같은 실행기능을 담당하는 뇌의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일관적으로 밝혀짐. 긍정적인 보살핌은 자녀의 일생 동안 지속적인 이점을 제공하고, 가벼운 스트레스로부터 완충작용을 함. 영유아기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초기 중증 스트레스의 영향을 개선할 가능성을 높임(Watamura, 2007).
- 영유아기 문제행동 지도 프로그램
 - 영유아의 부적응 행동(문제 행동)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에서는 교사가, 가정에서는 부모가 함께 지원해야만이 점진적으로 변화할 수 있으므로 교사교육과 함께 부모교육이 병행되어야 하므로 기 개발된 부모지원 프로그램 중 일부를 부모교육용 안내서로 개발하고 중앙보육정보센터를 통해 전국의 보육정보센터를 거점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할 계획과 내용을 마련하여야 함.
 - 영유아의 문제행동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고위험군 영유아를 대상으로 사회, 정서적 발달을 증진시키고 문제는 완화하는 예방프로그램과 ADHD나 반항행동을 보이는 특정 유아들의 대상으로 부모와 함께 가족체계 수준에서 개입하는 프로그램이 있음(Campbell, 2007).
 - 첫 번째, 영유아 문제행동에 대한 생물학적 접근에서는 ADHD, 우울, 불안 등 영유아의 정서적 문제에 대해 항정신성 약물을 사용해왔음. 그러나 최근에는 약물이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자극적이어서 장기적으로 약물효과를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영유아에 대한 임상 진단 자체가 정확히 힘든 상황에서 가족에 대한 개입 없이 약물만이 처방되는 것은 지양해야함.
 - 두 번째, 영유아 문제행동에 대한 심리내적 작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유아의 어떤 행동을 문제 행동으로 규정할 것인지, 영유아가 자신의 어려움을 표현할 수 있는지, 영유아가 지도개입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지를 고려해야함.

- 세 번째, 영유아의 곁으로 들어나는 문제 행동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일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임. 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특정시기에 보이는 특정행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정상발달에 대한 부모의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함.
 - 네 번째, 가족 체계적 접근에서는 가족 내 대인 간 과정에 초점을 두고 영유아가 문제행동을 보일 경우에도 그것이 가족 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요인일 수 있다고 봄. 실제로 영유아의 문제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부모와 가족 관계이므로 이에 대한 탐색이 필요함.
 - 다섯 번째, 사회문화적 혹은 지역사회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에서 어린이집이 역할을 할 수 있음. 영유아의 정신 병리를 강조하지 않고 그들의 유능성과 적응을 증진시키는데 초점을 두는 지역사회 개입 및 예방프로그램을 진행함.
- 영유아 행동지도의 목표는 영유아 개개인의 자율적인 성장과 발달 가능성을 실현시키는 것이며, 영유아가 속한 집단 속에서 적절한 관계를 맺도록 돕는 것임. 영유아의 무한한 가능성과 독특성을 존중하는 생활 및 행동지도를 통해 전인적이고 통합적인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함(김경희, 2012). 이러한 영유아 행동지도의 목표 및 인간관과 맥락을 같이하는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을 근거로 하여 영유아 문제행동 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함.
- 개정된 표준보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인간상은 심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사람,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 자연과 우리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 다양성을 인정하는 민주적인 사람임.
 - 표준보육과정의 기본전제에 따르면 영유아는 민감하고 반응적인 성인과의 신뢰로운 관계 속에서 최적의 발달을 이루며, 영유아가 속한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할 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12). 영유아의 문제행동 지도에 있어서도 부모 뿐 아니라 보육교사와의 신뢰감 있고 긍정적인 애착관계 형성이 중요하며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고 심리적으로 수용해 주는 환경이 필요함. 또한 영유아와 부모, 가족, 지역사회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영유아는 건강한 자아감 및 사회적 다양성을 인정하게 됨.

- 영유아 문제행동 지도 프로그램은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의 영역을 기반으로 영유아의 전인 발달, 즉 신체·사회·정서·인지발달영역과 기본생활습관 등 6개 영역을 근거로 하였음.
-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을 근거로 한 영유아 문제행동에 부모면담 프로그램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음1).
 - 영유아 문제행동의 특성은 무엇이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이 행동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이 행동의 원인은 무엇인지 등.
 - 영유아 문제행동에 대한 면담은 한 번의 면담으로 행동이 소거되기 어려우므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면담을 수행하며, 해당 행동에 대한 관찰 기록이 필요함. 진행된 면담 내용을 교사회의를 통해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발달 검사 및 외부 전문 인력의 조력이 필요하면 받도록 도움.
 - 부모면담 프로그램에서 포함할 수 있는 영유아 문제행동 영역은 영아를 대상으로는 또래 물기, 급식 거부, 공격 행동, 유아를 대상으로는 등원 거부, 성기 노출, 자유선택활동 시 비놀이 등임. 일상생활과 관련해서는 배변 실수, 매일 동일한 옷을 입고 등원함, 공격적 행동, 게임에서 졌을 때 나타나는 부정적 감정 등이 있음.

〈표 II-2-1〉 문제행동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지원전략의 설명 및 사용 시기 예시

지원전략	설명	사용 시기/상황
1. 관심 끌기	• 자리 배치, 집단 구성, 매력적인 교재·교구 활용 등으로 대상 유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마음을 유발하는 전략(교수 환경 지원의 일환임)	• 주의집중이 필요한 활동을 전개하거나 대상 유아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할 경우에 사용
2. 사전 경험	• 본 활동 전에 그 활동과 관련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대상 유아들이 본 활동을 할 때 낯설지 않고 좀 더 익숙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	• 익숙하지 않은 주제 또는 활동 진행 시 사용
3. 시각적 단서	•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물, 그림, 교사의 몸짓 등을 단서로 제공함으로써 대상 유아의 활동을 지원하고 반응을 이끌어 내는 전략	• 대상 유아가 직접 보지 않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과제 수행 시 사용

1) '이미화·황혜정·양미선·장혜진·엄지원(2013). 누리과정 가정연계 어린이집부모지원프로그램 개발. 유아정책연구소'를 참고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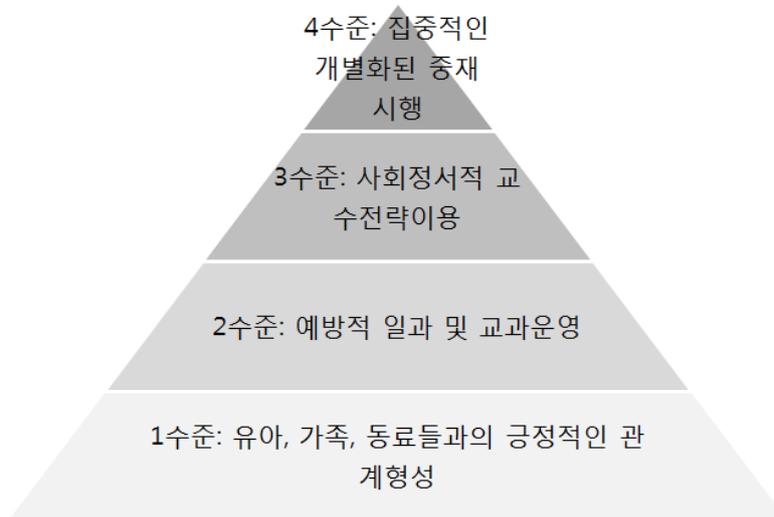
(표 II-2-1 계속)

지원전략	설명	사용 시기/상황
4. 교사 모델링	• 교사가 먼저 해당 행동을 시범적으로 하여 대상 유아로 하여금 따라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	• 활동 전개 시 대상 유아가 적절하게 반응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
5. 또래 모델링	• 또래의 행동을 보거나 말을 듣고 따라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	• 활동 전개 시 대상 유아가 적절하게 반응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
6. 활동 단순화	• 복잡하거나 여러 단계를 거치는 활동을 간략히 하거나 한 두 단계 생각하여 단순화한 후 활동을 제공하는 전략	• 활동이 대상 유아에게 다소 복잡한 경우에 사용
7. 과제 세분화	• 수행해야 하는 과제를 작게 나누어 제시함으로써 대상 유아들이 한 과제씩 쉽게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전략	• 대상 유아가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어려워져 잘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사용

자료: 교육과학기술부·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08). 언어·인지·사회·정서 발달 지원 프로그램을 참고로 함.

- Fox 등(2003)이 제시한 사회적 유능감과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지도 방안을 수준 별로 제시하면 다음[그림 II-2-2]와 같음(김경희, 2012 재인용).²⁾
 - 첫째, 영유아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지도 프로그램의 기본이 됨. 영유아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허용적인 학습 분위기를 형성하며,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음.
 - 둘째, 문제행동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예방적으로 일과 및 교과운영을 신중하게 계획함. 교수매체 및 교재교구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배열, 배치함. 단위 활동의 길이를 조정하고, 정적활동과 동적활동을 균형적으로 배치함.
 - 셋째, 영유아의 사회정서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교수전략을 적용함. 감정과 관련된 단어학습, 타인의 감정 알아내기 학습, 타인과의 갈등 해결 학습, 우정을 포함한 사회적 기술 학습 등이 있음.
 - 넷째, 영유아의 4% 정도에 해당하는 특별한 개입이 필요한 영유아의 경우에는 집중적인 중재의 실행이 필요함. 가정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전문가(의사, 치료사, 상담사 등)들과의 협력이 필요함.

2) 김경희(2012). 영유아 문제행동에 대한 유아교육적 접근.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을 참고함.



자료: Fox, Dunlap, Hemmeter, Joseph, & Strain. (2003). The teaching pyramid. 김경희 (2012) 재인용.

[그림 11-2-2] 사회적 유능감과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지도 방안 피라미드

- 마지막으로 교사는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대해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이를 토대로 부모와 내용을 나누어 가정에서의 행동과 기관에서의 행동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함(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12).
 - 구체적인 방법³⁾으로는 빈도표집, 지속시간 기록, 간격기록 등을 포함한 문제행동 관찰법을 활용할 수 있음. 이는 문제행동 지도가 실행되는 동안 그 효과를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됨(김경희, 2012).
 - 행동문제 지도를 위해 부모와 협력하기 위해서는 상호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솔직함을 바탕으로 함. 가족의 특성을 파악하여 가족의 기대나 성향을 존중하며 협력을 구하고 부모의 특성에 맞는 의사소통 방법을 선정함. 행동문제 중재를 위한 모든 과정에 가족을 참여시키고 동의를 구해야함.

3) 김경희(2012). 영유아 문제행동에 대한 유아교육적 접근.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을 참고함.

Ⅲ. 보육교사의 요구 분석

1. 문제행동지도 실태

가. 조사대상자의 특성

소속 어린이집 및 담당반 특성

- 설립유형은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이 36.4%, 민간, 가정이 63.6%임.
- 담당반 연령은 만0세~2세 73.2%, 만3세~5세 19.2%, 혼합연령 7.6%임.

〈표 Ⅲ-1-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계	구분		계
전체		100.0(306)	연령	20대	30.1
설립 유형	국공립 외 ^{주)}	36.4		30대	19.3
	민간·가정	63.6		40대 이상	29.7
	담당반 연령		담당반 경험	영아반만 경험함	46.3
만 0세	15.2	유아반만 경험함		9.5	
만 1세	29.0	영·유아반 모두 경험		44.3	
만 2세	29.0	소지 자격		보육교사 1급	9.9
만 3세	10.6			보육교사 2급	68.2
만 4세	5.3			보육교사 3급	21.9
만 5세	3.3			교사 경력	1년 이내
혼합연령	7.6		2~3년	49.6	
고졸	15.0		4년 이상	46.7	
최종 학력	2-3년제 대졸	44.8			
	4년제 대졸	36.0			
	대학원졸	4.2			

주: 국공립 외는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등+직장 어린이집 임.

조사대상 보육교사의 특성(표 Ⅲ-1-1 참조)

- 교사 연령은 20대 30.1%, 30대 19.3%, 40대 이상 29.7%로 평균 35세임.
- 소지자격은 보육교사 1급 9.9%, 2급 68.2%, 3급 21.9%로 2급이 가장 많았음.

- 교사 경력은 2~3년이 49.6%로 가장 많고, 4년 이상 46.7%, 1년 이내 3.7%임.
- 담당반 경험은 영아반만 경험 46.3%, 영유아반 모두 경험 44.3%, 유아반만 경험 9.5% 순이었음.
- 최종 학력은 2~3년제 대졸 44.8%, 4년제 대졸 36.0%, 고졸 15.0%의 순임.

나. 영유아 문제행동 지도 실태

영유아 문제행동지도 관련 교사 인식

- 연령별 발달수준에 벗어난 문제행동의 특성에 대한 인지도가 보통 이상임.
 - 인지도 높음 24.6%, 낮음 5.6%, 평균 3.19점
- 문제행동을 보이는 영유아가 학급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은 높은 편임.
 - 부정적 영향력 높음 77.4%, 낮음 4.3%, 평균 3.89점
- 현재 실행하고 있는 문제행동지도에 대한 교사의 만족도는 보통 이하임.
 - 만족도 낮음 18.6%, 높음 17.9%, 평균 2.98점
- 현재 실행하고 있는 문제행동지도의 적합성에 대한 자신감은 보통 이하임.
 - 자신감 낮음 20.3%, 높음 17.3%, 평균 2.98점
- 영유아 문제행동지도를 위한 추가적인 교육의 필요성은 매우 높음.
 - 필요성 높음 77.1%, 낮음 2.3%, 평균 3.97점

〈표 III-1-2〉 영유아 문제행동지도와 관련한 교사의 인식

단위: %(명)

구분	매우 낮음					계	평균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연령별 발달수준에 벗어난 문제행동의 특성에 대한 인지도	0.0	5.6	69.8	24.3	0.3	100.0(305)	3.19
문제행동을 보이는 영유아가 학급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	0.7	3.6	18.3	61.1	16.3	100.0(306)	3.89
현재 실행하는 문제행동지도에 대한 교사의 만족도	1.3	17.3	63.5	17.6	0.3	100.0(300)	2.98
현재 실행하는 문제행동지도의 적합성에 대한 교사의 자신감	0.0	20.3	62.4	16.3	1.0	100.0(306)	2.98
영유아 문제행동지도를 위한 추가적인 교육의 필요성	0.0	2.3	20.6	54.6	22.5	100.0(306)	3.97

주: 5점 척도 문항임(매우 낮음 1점 ~ 매우 높음 5점).

영역별 문제행동지도의 어려움 정도

- 지도가 가장 어려운 영역은 정서발달(평균 3.4점)이며, 사회성발달(평균 3.19점)임.

- 기본생활(평균 2.75점), 신체운동발달(평균 2.32점)임.
- 학급 내 문제행동 영유아 현황
 - 문제행동을 보이는 영유아 있다는 응답이 60% 이상인 영역은 정서발달(67.3%), 사회성발달(65.4%), 기본생활(66.3%)임.
 - 문제행동 영유아가 학급 내 가장 많은 경우 10명(사회성 발달)이 보고됨.
- 정서발달, 사회성발달 및 기본생활 영역이 보육교사가 문제행동 지도를 하기에 어려운 영역으로 사료됨.
 - 세 영역이 교사가 지도하기 가장 어렵다고 인식되며, 문제행동을 보이는 영유아가 다소 많으며, 해당 영유아가 있는 경우가 60%이상으로 나타남.

〈표 III-1-3〉 영역별 문제행동지도의 어려움 정도 및 학급 내 문제행동 영유아 현황
단위: 점, %, (명)

구분	지도 어려움		학급 내 문제행동 영유아		계
	평균	표준편차	있음	해당영유아 수 범위	
정서발달 문제행동	3.40	1.05	67.3	(1~8)	(288)
사회성발달 문제행동	3.19	1.04	65.4	(1~10)	(289)
기본생활 문제행동	2.75	0.98	66.3	(1~9)	(296)
언어발달 문제행동	2.73	0.95	49.3	(1~6)	(284)
인지발달 문제행동	2.66	0.91	32.7	(1~6)	(275)
신체운동발달 문제행동	2.32	0.90	37.3	(1~7)	(284)

주: 지도의 어려움은 5점 척도 문항임(전혀 어렵지 않음 1점 ~ 매우 어려움 5점).

〈표 III-1-4〉 영유아 문제행동지도가 어려운 이유

단위: %(명)

부모의 인식 부족으로 인한 갈등	문제행동 관련 교육의 기회 부족	체계적인 문제행동지도 자료 부족	보육현장 내 보조인력 부족	전문가 지원 부족	원장의 인식 부족	계
47.9	17.4	16.7	11.8	3.6	2.6	100.0(305)

- 문제행동지도가 어려운 이유(표 III-1-4 참조)
 - 부모의 인식 부족으로 인한 갈등(47.9%), 문제행동 관련 교육기회 부족(17.4%), 체계적인 지도 자료 부족(16.7%), 보조인력 부족(11.8%)의 순으로 나타남.
 - 부모 인식개선, 보수교육 기회 확대, 자료 개발, 보조인력 지원 필요 시사

□ 문제행동지도를 위해 정기적으로 지원 받는 인력 현황

- 지원인력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임(82.8%).
- 지원인력이 있는 경우 보조교사가 가장 많고, 특수교사, 원장 및 동료, 치료사의 순임.

〈표 III-1-5〉 영유아 문제행동지도를 위해 정기적으로 지원 받는 인력 현황

단위: %(명), (명)

지원인력 없음	지원인력 있음	계	지원인력 종류			
			특수교사	치료사	보조교사	원장 및 동료
81.8	18.2	100.0(292)	(10)	(7)	(37)	(9)

주: 지원인력 종류는 중복응답 문항이며, 사회복지사는 빈도가 0으로 나타남.

□ 문제행동지도를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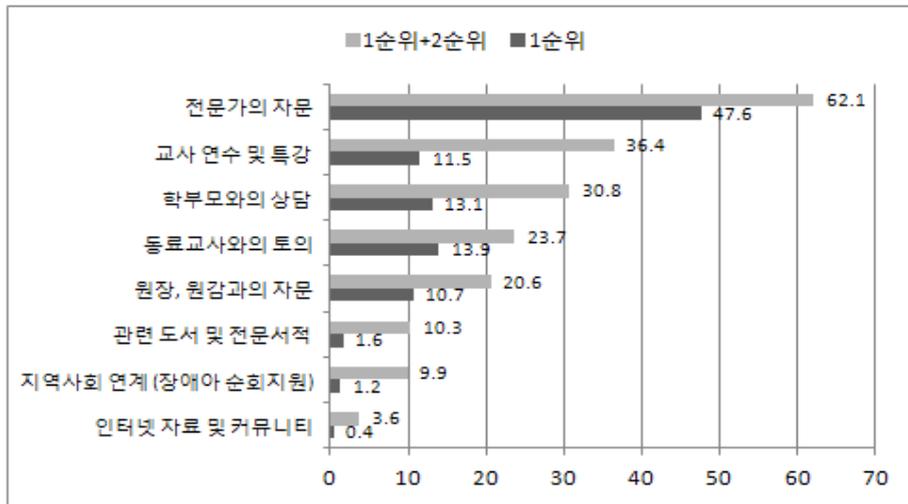
- 전문가의 자문(62.1%)을 1~2순위로 뽑은 경우가 가장 많고, 교사연수 및 특강(36.4%), 학부모 상담(30.8%), 동료교사와의 토의(23.7%) 등의 순임.
- 전문가 자문 및 교사연수 확대, 학부모 상담 및 원내 자문 강화 등 필요

〈표 III-1-6〉 문제행동지도를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1+2순위)

단위: %(명)

전문가의 자문	교사연수 및 특강	학부모와의 상담	동료교사와의 토의	원장(감), 관련 도서 및 자문	지역사회 전문서적 자문	지역사회 연계 ^{주)} 및 연계	인터넷자료 및 커뮤니티	계
62.1	36.4	30.8	23.7	20.6	10.3	9.9	3.6	100.0(499)

주: 지역사회 연계는 장애아 순회지원 등을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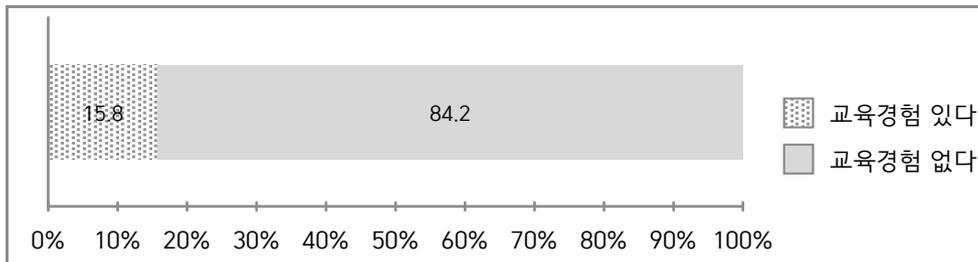
[그림 III-1-1] 문제행동지도를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1+2순위)

□ 문제행동지도 관련 보수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84.2%)

〈표 III-1-7〉 영유아 문제행동지도 관련 보수교육 경험 유무

단위: %(명)

교육경험 있다	교육경험 없다	계
15.8	84.2	100.0(3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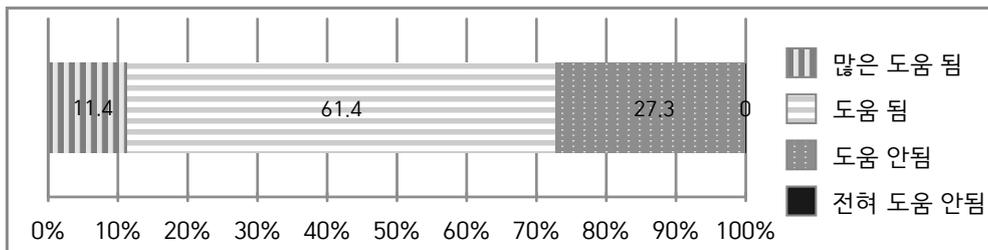
[그림 III-1-2] 관련 보수교육 경험유무

□ 문제행동지도 관련 보수교육에 참여한 경우 도움이 된 경우가 대다수임(72.8%)

〈표 III-1-8〉 영유아 문제행동지도 관련 보수교육의 실제 도움 정도

단위: %(명)

많은 도움 됨	도움 됨	도움 안됨	전혀 도움 안됨	계	평균
11.4	61.4	27.3	0.0	100.0(44)	2.84



[그림 III-1-3] 관련 보수교육의 실제 도움 정도

□ 문제행동지도 관련 보수교육에 참여하였으나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

- 수박 겉핥기식의 1회성 교육(38.5%), 비효과적인 이론위주 교육(30.8%), 너무 많은 인원의 대규모 교육(19.2%) 순으로 나타남.
- 실제 사례중심의 지속적인 교육이 소규모로 진행됨이 필요

〈표 III-1-9〉 받았던 보수교육이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비효과적인 이론위주 교육	현장 경험 없는 강사진	수박 겉핥기식의 1회성 교육	너무 많은 인원의 대규모 교육	기타	계
30.8	7.7	38.5	19.2	3.8	100.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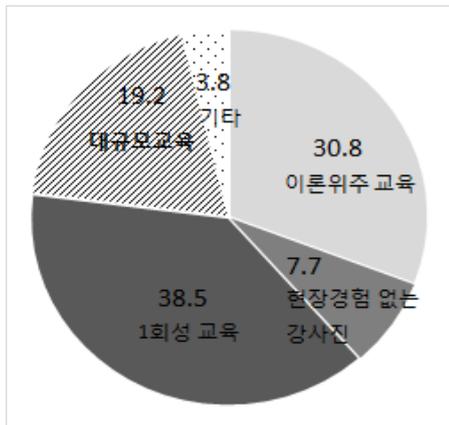
□ 문제행동지도 관련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

- 교육 기회가 없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남(70.3%)
 - 문제행동지도 관련 보수교육 확대 실시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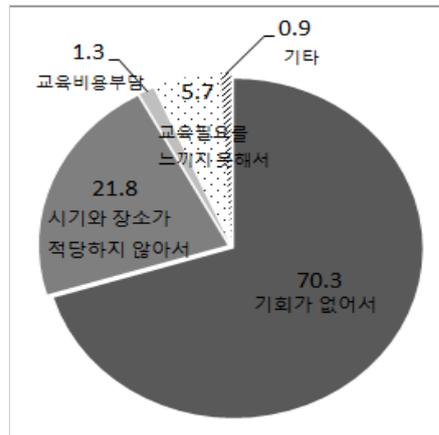
〈표 III-1-10〉 문제행동지도와 관련된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

단위: %(명)

교육 기회가 없어서	교육 시나 장소가 적당하지 않아서	교육비용 부담 때문에	문제행동지도에 대한 교육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기타	계
70.3	21.8	1.3	5.7	0.9	100.0(229)



[그림 III-1-4] 받았던 보수교육이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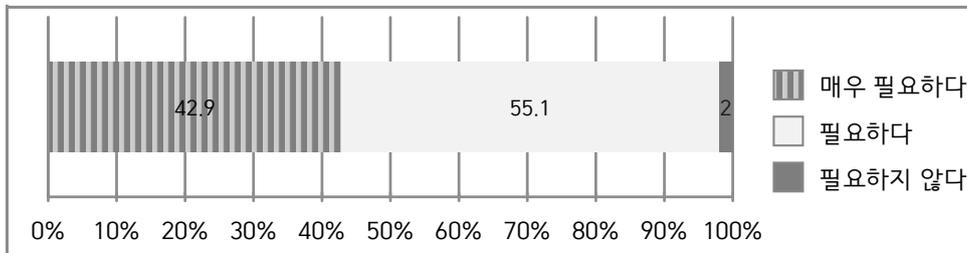
[그림 III-1-5] 문제행동지도와 관련된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

- 문제행동지도를 위한 보수교육의 필요성
 - 필요하다는 의견이 98.0%로 매우 높음
 - 문제행동지도 관련 보수교육 확대 실시 필요.
- 문제행동지도를 위한 보수교육이 필요한 이유
 - 대처 및 실제적인 지도방법 습득(70.0%)이 가장 높고, 문제행동을 보이는 영유아의 증가(31.7%), 문제행동 관련 지식·정보습득, 문제행동을 보이는 영유아의 부모와의 상담(29.0%) 순임.
 - 문제행동을 보이는 영유아가 늘어나고 있는 현장에서 교사들이 실제적인 지도방법과 관련정보를 습득하여 부모와의 상담을 도울 수 있는 보수교육이 필요함을 시사

〈표 III-1-11〉 문제행동지도를 위한 보수교육의 필요성

단위: %(명)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계
42.9	55.1	2.0	100.0(2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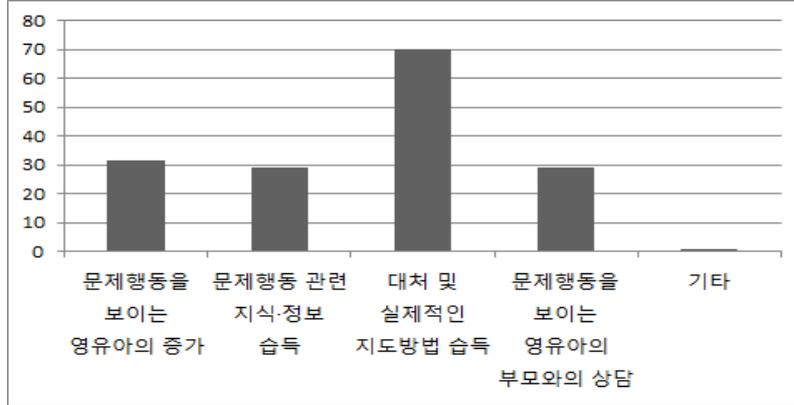


〔그림 III-1-6〕 문제행동지도를 위한 보수교육의 필요성

〈표 III-1-12〉 문제행동지도를 위한 보수교육이 필요한 이유

단위: %(명)

문제행동을 보이는 영유아의 증가	문제행동 관련 지식·정보습득	대처 및 실제적 지도법 습득	문제행동을 보이는 영유아 부모와의 상담	기타	계
31.7	29.3	70.0	29.0	1.0	100.0(467)



[그림 III-1-7] 문제행동지도를 위한 보수교육이 필요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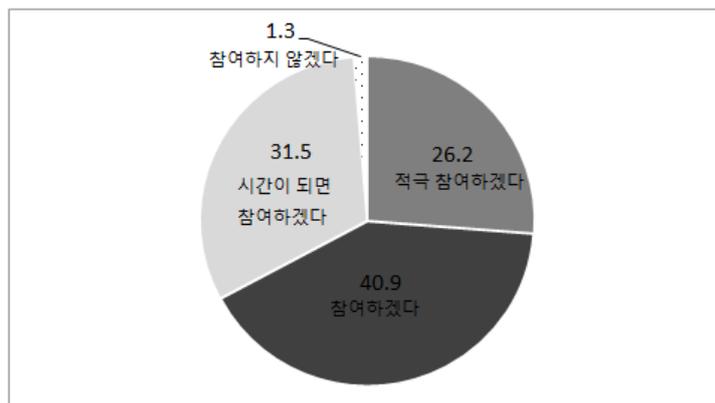
□ 문제행동지도와 관련한 교육기회 참여여부

○ 참여의사를 밝힌 응답자가 전체의 98.6%로 매우 높음.

<표 III-1-13> 문제행동지도와 관련된 교육기회가 있을 시 참여 여부

단위: %(명)

적극 참여하겠음	참여하겠음	시간이 되면 참여하겠음	참여 않겠음	계
26.2	40.9	31.5	1.4	100.0(298)



[그림 III-1-8] 문제행동지도와 관련된 교육기회가 있을 시 참여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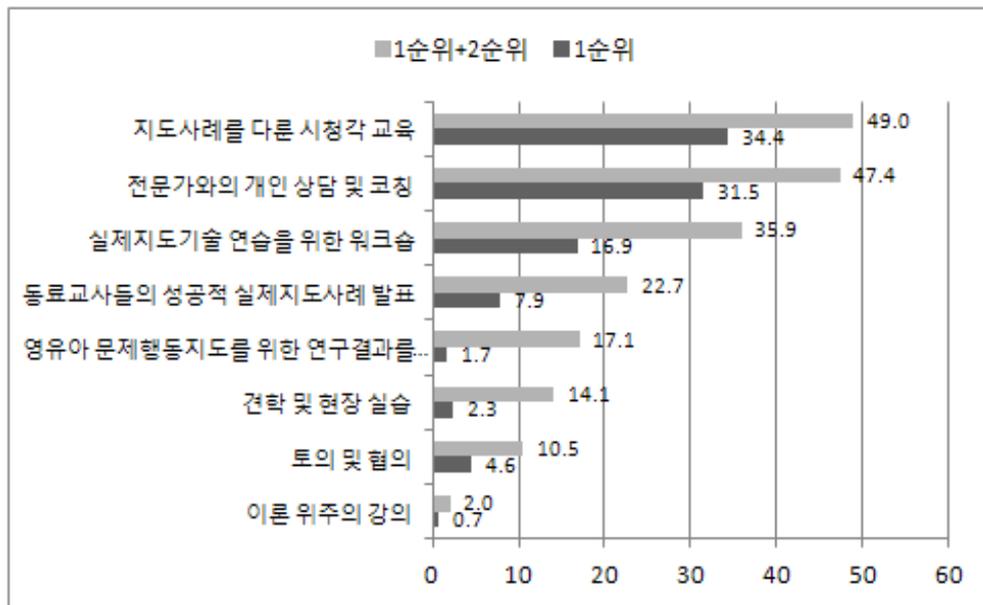
□ 문제행동지도 관련 교사교육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

- 지도사례를 다룬 시청각교육(49.0%)을 1~2순위로 뽑은 경우가 가장 많고, 전문가와의 개인 상담 및 코칭(47.4%), 실제지도기술 연습을 위한 워크숍(35.9%), 동료교사들의 성공적 지도사례 발표(22.7%) 등의 순임.
- 사례중심의 시청각교육 확대, 전문가 상담 기회 확대, 워크숍과 동료교사의 사례발표 등의 지원 필요

<표 III-1-14> 문제행동지도 관련 교사교육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1+2순위)

단위: %							
지도사례를 다룬 시청각교육	전문가와의 개인상담 및 코칭	실제 지도기술 연습을 위한 워크숍	동료교사들의 성공적 지도사례 발표	문제행동 지도 관련 연구세미나, 학술발표	견학 및 현장실습	토의 및 협의	이론 위주의 강의
49.0	47.4	35.9	22.7	17.1	14.1	10.5	2.0

주: 1순위와 2순위를 더한 수치임.



[그림 III-1-9] 문제행동지도 관련 교사교육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1+2순위)

2. 보육교사의 요구

가. 문제행동지도를 위한 교사용 지침서 개발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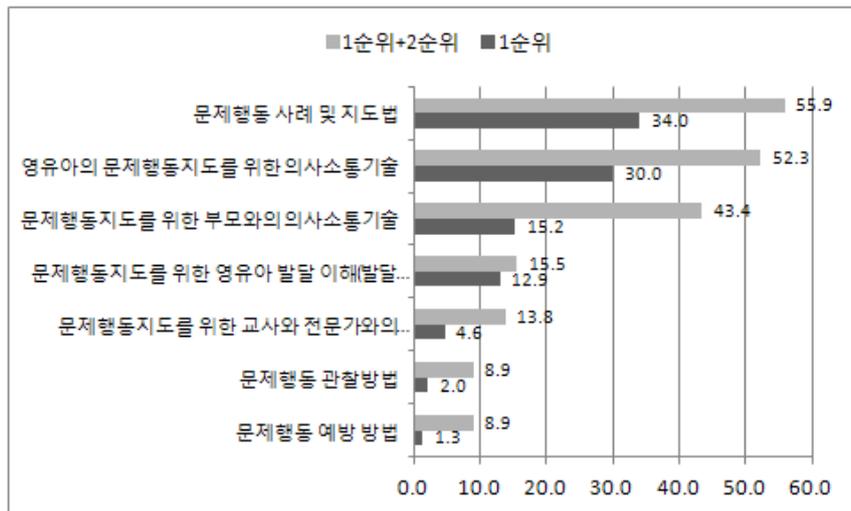
□ 문제행동지도를 위한 교사용 지침서 개발 요구

- 문제행동 사례 및 지도법(55.9%)을 1~2순위로 뽑은 경우가 가장 많고, 영유아의 문제행동 지도를 위한 의사소통 기술(52.3%), 문제행동 지도를 위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기술(43.4%) 등의 순임.
- － 문제행동의 지도법에 대한 지침과 더불어 문제행동 지도를 위해 영유아 부모와의 의사소통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함을 시사

〈표 III-2-1〉 문제행동지도 교사용 지침서에서 다루기를 원하는 중점 내용(1+2순위)

단위: %						
문제행동 사례 및 지도법	영유아의 문제행동 지도를 위한 의사소통 기술	문제행동 지도를 위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기술	문제행동 지도를 위한 영유아 발달 (발달이론)	문제행동 지도를 위한 교사와 전문가와의 협력방법	문제행동 관찰방법	문제행동 예방방법
55.9	52.3	43.4	15.5	13.8	8.9	8.9

주: 1순위와 2순위를 더한 수치임.



[그림 III-2-1] 문제행동지도 교사용 지침서에서 다루기를 원하는 중점 내용(1+2순위)

나. 기본생활 및 신체운동발달 영역 문제행동 사례별 요구

- 기본생활, 신체운동발달 영역 문제행동사례별 교사용 지침서 필요정도
 - 기본생활영역 중 위험한 행동을 자주함(평균 4.02)이 매우 높고, 특정 음식만 선호하거나 거부하는 등 편식을 함(평균 3.71), 제자리에서 먹지 않고 돌아다님(평균 3.54), 배변 시기가 지났는데 대소변을 가리지 못함(평균 3.49) 순으로 높음.
 - 위험한 행동, 식습관, 배변 등에 대한 지침이 필요함을 시사
 - 신체운동발달영역 중 움직임이 너무 많음(평균 3.80), 조절을 잘 못하여 빈번하게 부딪히거나 넘어짐(평균 3.58), 항상 기대어 있고 바르게 앉지 못함(평균 3.33), 눈과 손의 협응이 잘 안됨(평균 3.28) 순으로 높음.
 - 과잉행동, 대근육발달, 자세, 협응력에 등에 대한 지침이 필요함을 시사

〈표 III-2-2〉 기본생활, 신체운동발달 영역 문제행동사례별 교사용 지침서 필요 정도

		단위: 점
		평균
기본생활	위험한 행동을 자주함	4.02
	특정 음식만 선호하거나 거부하는 등 편식을 함	3.71
	제자리에서 먹지 않고 돌아다님	3.54
	배변 시기가 지났는데 대소변을 가리지 못함	3.49
	차례를 지키거나 기다리는 것이 어려움	3.37
	정리정돈을 하지 않으려고 함	3.30
	어린이집 하루 일과에 적응하지 못함	3.29
	지나치게 청결하여 더러운 것을 참지 못함	3.04
	어린이집에서 잠자기 어려워 함	3.03
	잘 씻지 않으려고 함	2.94
신체운동발달	움직임이 너무 많음	3.80
	조절을 잘 못하여 빈번하게 부딪히거나 넘어짐	3.58
	항상 기대어 있고 바르게 앉지 못함	3.33
	눈과 손의 협응이 잘 안됨	3.28
	간단한 동작을 따라하지 못함	3.23
	손힘이 약하거나 소근육 조절이 잘 안됨	3.19
	대근육 발달이 느려 운동능력이 떨어짐	3.17
	눈을 자주 비비고, 계속 깜박거림	3.07
	자주 코를 파고 반복적으로 쿵쿵거림	2.99
	허약한 체질로 움직임이 거의 없음	2.92
비만이 심하고 움직임이 둔함	2.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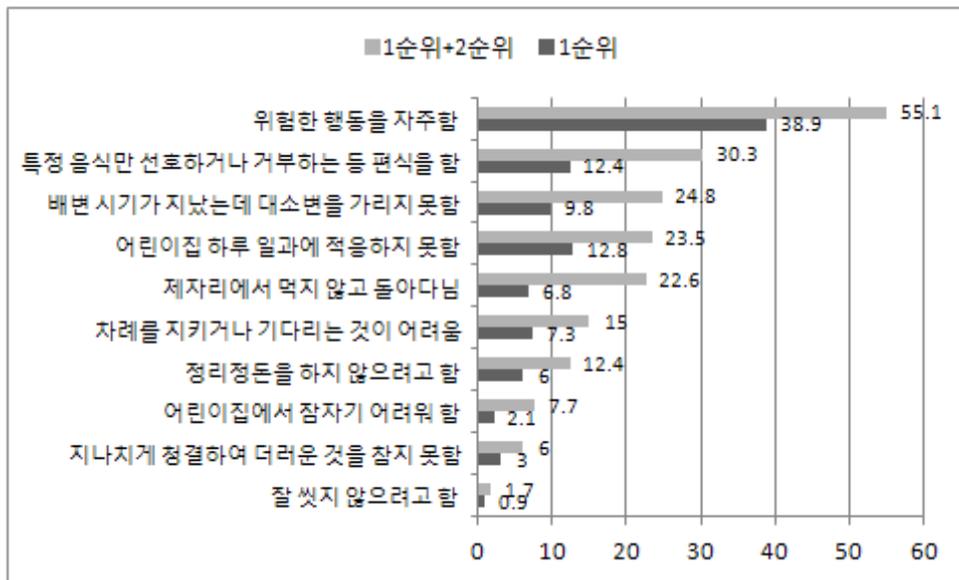
주: 5점 척도 문항임('전혀 필요치 않음' 1점 ~ '매우 필요함' 5점).

□ 기본생활영역 교사용 지침서에서 다루기 원하는 문제행동사례

- 영아의 경우 위험한 행동을 자주함(55.1%), 특정 음식만 선호하거나 거부하는 등 편식을 함(30.3%), 배변 시기가 지났는데 대소변을 가리지 못함(24.8%) 순으로 높음.
- 유아의 경우 위험한 행동을 자주함(69.6%), 차례를 지키거나 기다리는 것이 어려움(29.7%), 특정 음식만 선호하거나 거부하는 등 편식을 함(21.7%), 배변 시기가 지났는데 대소변을 가리지 못함 순으로 높음.

〈표 III-2-3〉 교사용 지침서에서 다루기 원하는 문제행동사례 1+2순위: 기본생활(영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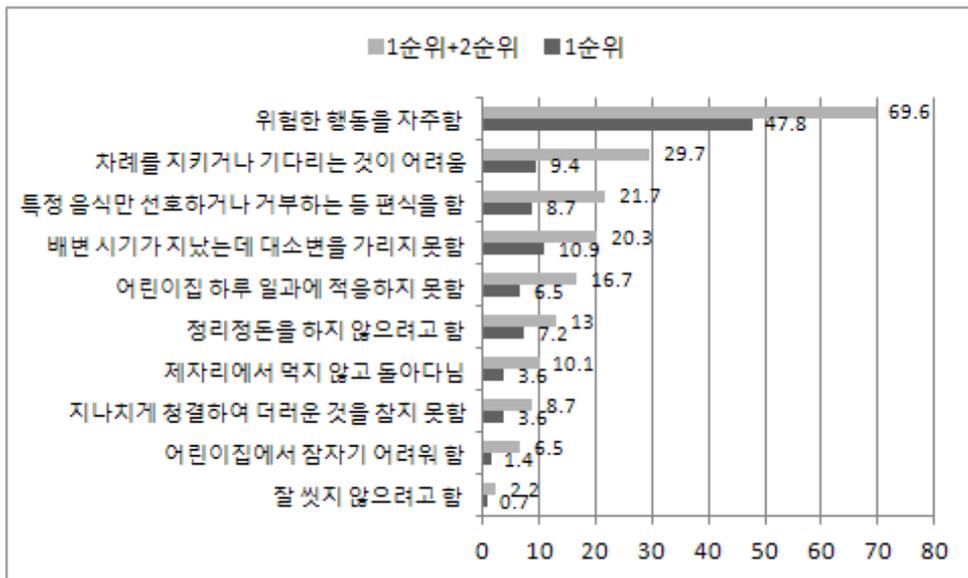
기본생활영역 문제행동 사례	1+2순위
위험한 행동을 자주함	55.1
특정 음식만 선호하거나 거부하는 등 편식을 함	30.3
배변 시기가 지났는데 대소변을 가리지 못함	24.8
어린이집 하루 일과에 적응하지 못함	23.5
제자리에서 먹지 않고 돌아다님	22.6
차례를 지키거나 기다리는 것이 어려움	15.0
정리정돈을 하지 않으려고 함	12.4
어린이집에서 잠자기 어려워 함	7.7
지나치게 청결하여 더러운 것을 참지 못함	6.0
잘 씻지 않으려고 함	1.7



[그림 III-2-3] 교사용 지침서에서 다루기 원하는 문제행동사례 1+2순위: 기본생활(영아)

〈표 III-2-4〉 교사용 지침서에서 다루기 원하는 문제행동사례 1+2순위: 기본생활(유아)
단위: %

기본생활 영역 문제행동 사례	1+2순위
위험한 행동을 자주함	69.6
차례를 지키거나 기다리는 것이 어려움	29.7
특정 음식만 선호하거나 거부하는 등 편식을 함	21.7
배변 시기가 지났는데 대소변을 가리지 못함	20.3
어린이집 하루 일과에 적응하지 못함	16.7
정리정돈을 하지 않으려고 함	13.0
제자리에서 먹지 않고 돌아다님	10.1
지나치게 청결하여 더러운 것을 참지 못함	8.7
어린이집에서 잠자기 어려워 함	6.5
잘 씻지 않으려고 함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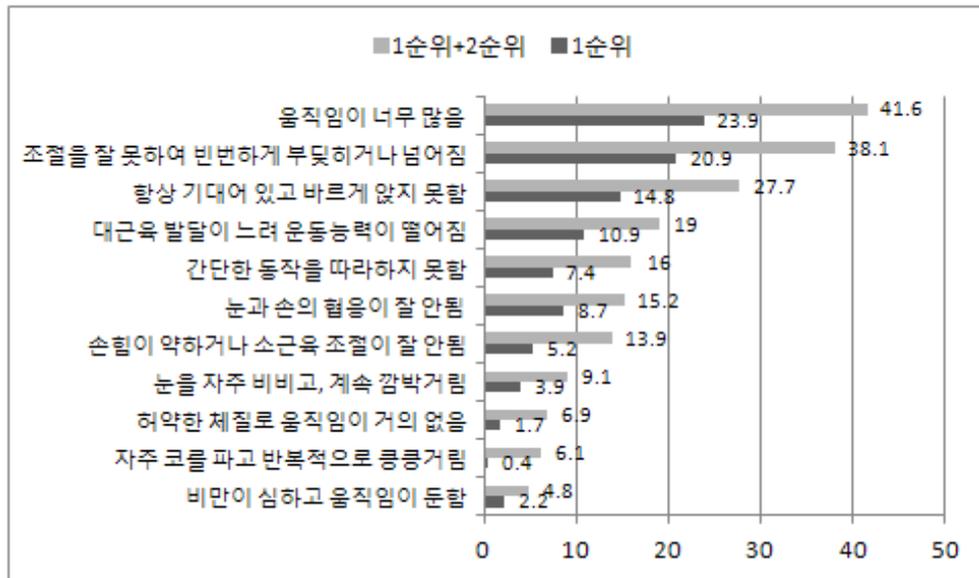


[그림 III-2-4] 교사용 지침서에서 다루기 원하는 문제행동사례 1+2순위: 기본생활(유아)

- 신체운동발달영역 교사용 지침서에서 다루기 원하는 문제행동사례
 - 영아의 경우 움직임이 너무 많음(41.6%), 조절을 잘 못하여 빈번하게 부딪히거나 넘어짐(38.1%), 항상 기대어 있고 바르게 앉지 못함(27.7%) 순으로 높음.
 - 유아의 경우 움직임이 너무 많음(47.8%), 항상 기대어 있고 바르게 앉지 못함(29.7%), 대근육 발달이 느려 운동능력이 떨어짐(23.9%) 순으로 높음.

〈표 III-2-5〉 교사용 지침서에서 다루기 원하는 문제행동사례 1+2순위: 신체운동발달(영아)
단위: %

신체운동발달 영역 문제행동 사례	1+2순위
움직임이 너무 많음	41.6
조절을 잘 못하여 빈번하게 부딪히거나 넘어짐	38.1
항상 기대어 있고 바르게 앉지 못함	27.7
대근육 발달이 느려 운동능력이 떨어짐	19.0
간단한 동작을 따라하지 못함	16.0
눈과 손의 협응이 잘 안됨	15.2
손힘이 약하거나 소근육 조절이 잘 안됨	13.9
눈을 자주 비비고, 계속 깜박거림	9.1
허약한 체질로 움직임이 거의 없음	6.9
자주 코를 파고 반복적으로 킁킁거림	6.1
비만이 심하고 움직임이 둔함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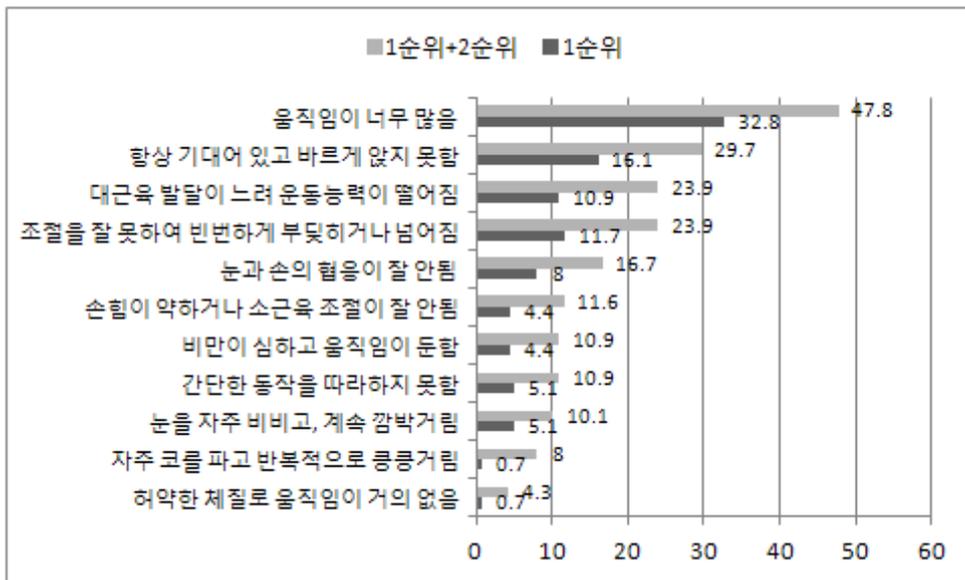
[그림 III-2-5] 교사용 지침서에서 다루기 원하는 문제행동사례 1+2순위: 신체운동발달(영아)

〈표 III-2-6〉 교사용 지침서에서 다루기 원하는 문제행동사례 1+2순위: 신체운동발달(유아)
단위: %

신체운동발달 영역 문제행동 사례	1+2순위
움직임이 너무 많음	47.8
항상 기대어 있고 바르게 앉지 못함	29.7
대근육 발달이 느려 운동능력이 떨어짐	23.9

(표 III-2-6 계속)

신체운동발달 영역 문제행동 사례	1+2순위
조절을 잘 못하여 빈번하게 부딪히거나 넘어짐	23.9
눈과 손의 협응이 잘 안됨	16.7
손힘이 약하거나 소근육 조절이 잘 안됨	11.6
간단한 동작을 따라하지 못함	10.9
비만이 심하고 움직임이 둔함	10.9
눈을 자주 비비고, 계속 깜박거림	10.1
자주 코를 파고 반복적으로 쿵쿵거림	8.0
허약한 체질로 움직임이 거의 없음	4.3



[그림 III-2-7] 교사용 지침서에서 다루기 원하는 문제행동사례 1+2순위: 신체운동발달(유아)

다. 사회성발달 및 정서발달 영역 문제행동 사례별 요구

□ 사회성발달, 정서발달 영역 문제행동사례별 교사용 지침서 필요정도

- 사회성발달영역 중 소리를 지르거나 때리고 부수는 등 공격적인 행동(평균 4.18)이 매우 높고, 소심하거나 사회적 기술 부족으로 또래와 어울리기 어려움(평균 3.82), 집단행동을 방해함(평균 3.73), 규칙을 따르지 않음(평균 3.51) 순으로 높음.

- 공격적인 행동, 또래와 어울리지 못하거나 방해하는 행동, 규칙을 지키지 못하는 행동 등에 대한 지침이 필요함을 시사
- 정서발달영역 중 분노를 폭발 하거나 감정 조절이 어려움(평균 3.97), 부주의하거나 산만한 행동을 많이 나타냄(평균 3.96),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지나치게 고집 부림(평균 3.88),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으로 분리 불안 보임(평균 3.69) 순으로 높음.
- 감정조절, 산만한 행동, 고집부리는 행동, 애착 등에 대한 지침이 필요함을 시사

〈표 III-2-8〉 사회성발달, 정서발달 영역 문제행동사례별 교사용 지침서 필요 정도

		단위: 점	
사회성발달 및 정서발달 영역 문제행동 사례		평균	
사회성발달	소리를 지르거나 때리고 부수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함	4.18	
	소심하거나 사회적 기술 부족으로 또래와 어울리기 어려움	3.82	
	집단행동을 방해함	3.73	
	규칙을 따르지 않음	3.51	
	교사나 친구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혼자 있음	3.48	
	거짓말을 자주함	3.44	
	특정 또래를 따돌리거나 놀지 않겠다고 위협함	3.43	
	놀이에 참여하지 않고 방관함	3.31	
	교사를 독점하려고 함	3.26	
	친구 물건이나 어린이집 물건을 가져감	3.22	
	정서발달	분노를 폭발 하거나 감정 조절이 어려움	3.97
		부주의하거나 산만한 행동을 많이 나타냄	3.96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지나치게 고집 부림		3.88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으로 분리 불안 보임		3.69	
위축되거나 강박적인 행동을 나타냄		3.67	
손발톱 물어뜯기, 손가락 빨기 등 반복적인 행동을 함		3.50	
자주 우는 행동 보임		3.48	
자위행동을 함		3.39	
기술과 능력부족으로 인한 자신감 없음		3.21	
지나치게 수줍어함	3.13		

주: 5점 척도 문항임(전혀필요치 않음 1점 ~ 매우필요함 5점).

□ 사회성발달영역 교사용 지침서에서 다루기 원하는 문제행동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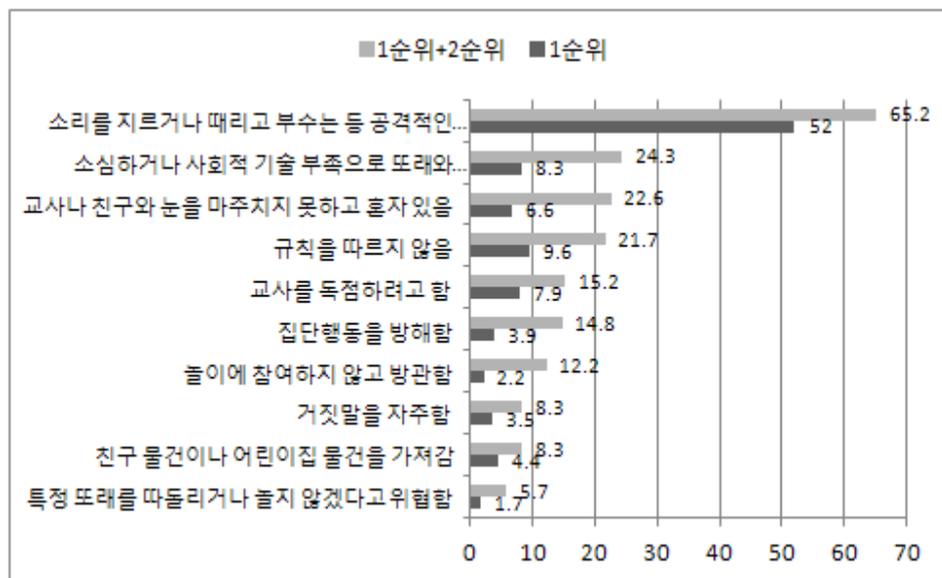
- 영아의 경우 소리를 지르거나 때리고 부수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함(65.2%), 소심하거나 사회적 기술 부족으로 또래와 어울리기 어려움(24.3%), 교사나 친구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혼자 있음(22.6%) 순으로 높음.

- 유아의 경우 소리를 지르거나 때리고 부수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함(59.9%), 특정 또래를 따돌리거나 놀지 않겠다고 위협함(35.0%), 소심하거나 사회적 기술 부족으로 또래와 어울리기 어려움(24.8%) 순으로 높음.

〈표 III-2-9〉 교사용 지침서에서 다루기 원하는 문제행동사례 1+2순위: 사회성발달(영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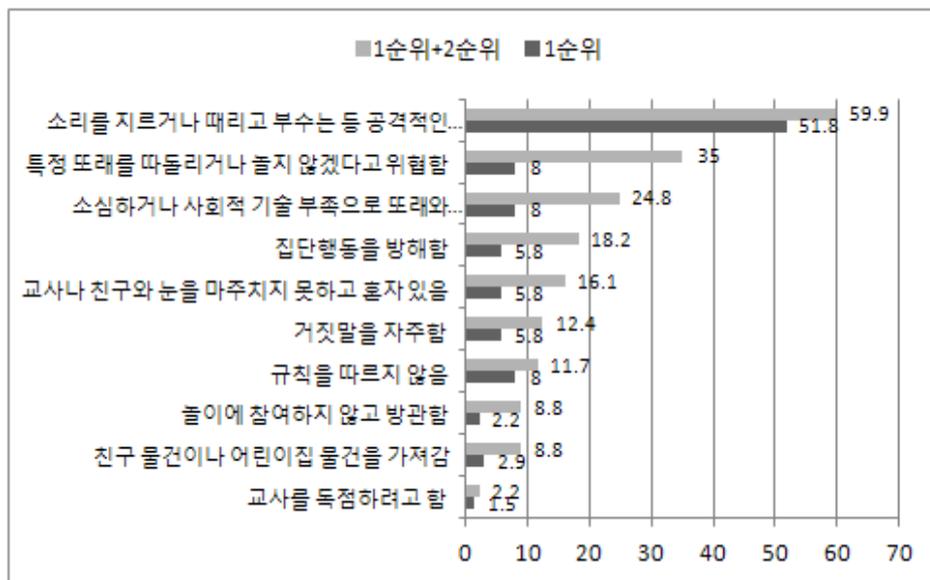
	1+2순위
소리를 지르거나 때리고 부수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함	65.2
소심하거나 사회적 기술 부족으로 또래와 어울리기 어려움	24.3
교사나 친구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혼자 있음	22.6
규칙을 따르지 않음	21.7
교사를 독점하려고 함	15.2
집단행동을 방해함	14.8
놀이에 참여하지 않고 방관함	12.2
거짓말을 자주함	8.3
친구 물건이나 어린이집 물건을 가져감	8.3
특정 또래를 따돌리거나 놀지 않겠다고 위협함	5.7



[그림 III-2-8] 교사용 지침서에서 다루기 원하는 문제행동사례 1+2순위: 사회성발달(영아)

〈표 III-2-10〉 교사용 지침서에서 다루기 원하는 문제행동사례 1+2순위: 사회성발달(유아)
단위: %

	1+2순위
소리를 지르거나 때리고 부수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함	59.9
특정 또래를 따돌리거나 놀지 않겠다고 위협함	35.0
소심하거나 사회적 기술 부족으로 또래와 어울리기 어려움	24.8
집단행동을 방해함	18.2
교사나 친구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혼자 있음	16.1
거짓말을 자주함	12.4
규칙을 따르지 않음	11.7
친구 물건이나 어린이집 물건을 가져감	8.8
놀이에 참여하지 않고 방관함	8.8
교사를 독점하려고 함	2.2



[그림 III-2-9] 교사용 지침서에서 다루기 원하는 문제행동사례 1+2순위: 사회성발달(유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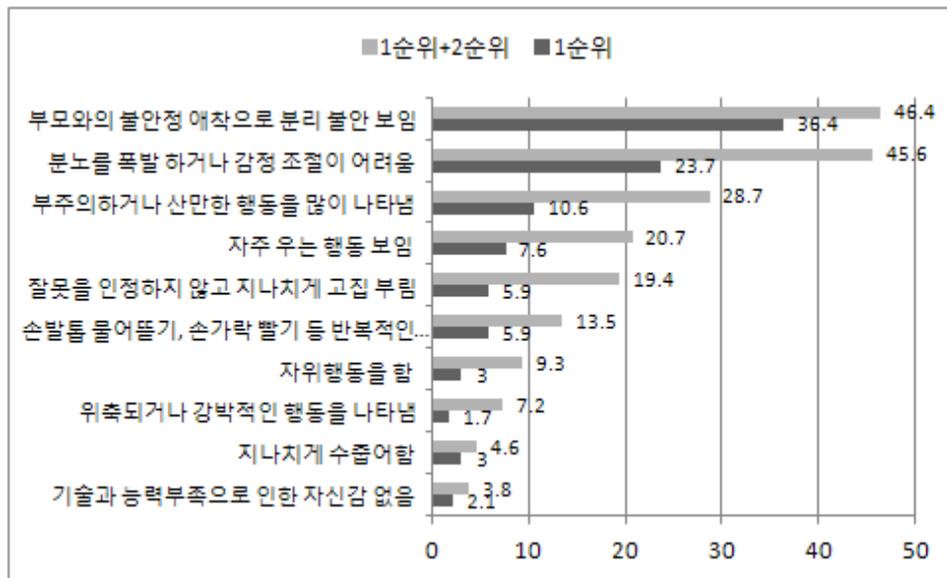
- 정서발달영역 교사용 지침서에서 다루기 원하는 문제행동사례
- 영아의 경우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으로 분리 불안 보임(46.4%), 분노를 폭발 하거나 감정 조절이 어려움(45.6%), 부주의하거나 산만한 행동을 많이 나타냄(28.7%) 순으로 높음.

- 유아의 경우 분노를 폭발 하거나 감정 조절이 어려움(60.3%), 부주의하거나 산만한 행동을 많이 나타냄(38.3%),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지나치게 고집 부림(24.1%) 순으로 높음.

<표 III-2-11> 교사용 지침서에서 다루기 원하는 문제행동사례 1+2순위: 정서발달(영아)

단위: %

	1+2순위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으로 분리 불안 보임	46.4
분노를 폭발 하거나 감정 조절이 어려움	45.6
부주의하거나 산만한 행동을 많이 나타냄	28.7
자주 우는 행동 보임	20.7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지나치게 고집 부림	19.4
손발톱 물어뜯기, 손가락 빨기 등 반복적인 행동을 함	13.5
자위행동을 함	9.3
위축되거나 강박적인 행동을 나타냄	7.2
지나치게 수줍어함	4.6
기술과 능력부족으로 인한 자신감 없음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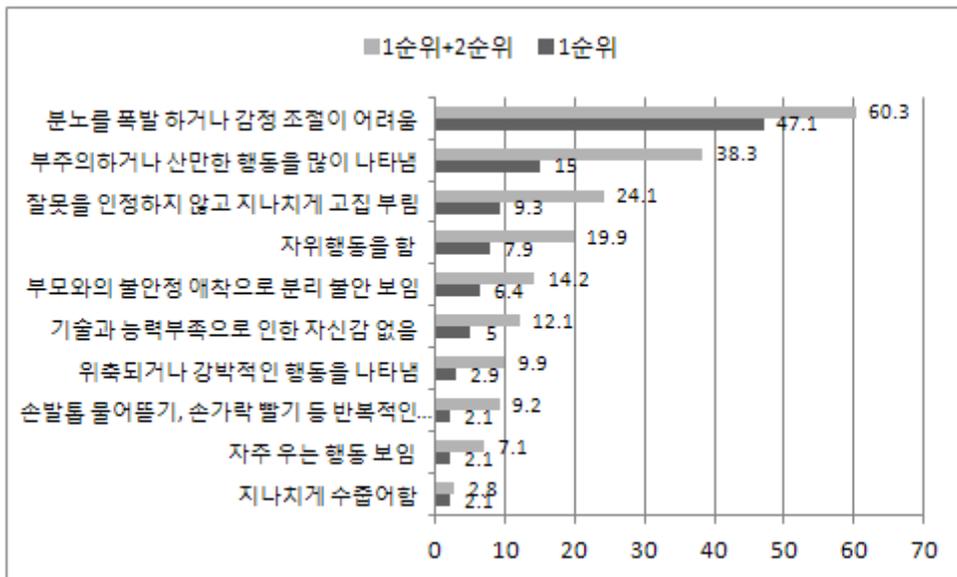


[그림 III-2-10] 교사용 지침서에서 다루기 원하는 문제행동사례 1+2순위: 정서발달(영아)

〈표 III-2-12〉 교사용 지침서에서 다루기 원하는 문제행동사례 1+2순위: 정서발달(유아)

단위: %

	1+2순위
분노를 폭발 하거나 감정 조절이 어려움	60.3
부주의하거나 산만한 행동을 많이 나타냄	38.3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지나치게 고집 부림	24.1
자위행동을 함	19.9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으로 분리 불안 보임	14.2
기술과 능력부족으로 인한 자신감 없음	12.1
위축되거나 강박적인 행동을 나타냄	9.9
손발톱 물어뜯기, 손가락 빨기 등 반복적인 행동을 함	9.2
자주 우는 행동 보임	7.1
지나치게 수줍어함	2.8



[그림 III-2-11] 교사용 지침서에서 다루기 원하는 문제행동사례 1+2순위: 정서발달(유아)

라. 언어발달, 인지발달 영역 문제행동 사례별 요구

□ 언어발달영역 문제행동사례별 교사용 지침서 필요정도

- 영아의 경우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하지 않음(평균 3.64), 울음 또는 몸짓으로 의사를 표현함(평균 3.57), 질문 또는 지시에 대한 반응이 적절치 않음(평균 3.42) 순으로 높음.

- 영아의 경우 상대의 말을 듣지 않는 행동, 자신의 의사를 적절히 표현하지 않는 행동, 질문과 지시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는 행동 등에 대한 지침이 필요함을 시사
 - 유아의 경우 다른 사람 말을 집중하여 듣지 못함(평균 3.81),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려 하지 않음(평균 3.54), 말을 더듬거나 속도와 크기 조절을 어려워함(평균 3.52) 순으로 높음.
 - 유아의 경우 상대의 말을 집중하여 듣지 않는 행동, 말하지 않는 행동, 말을 유창하게 하지 못하는 등에 대한 지침이 필요함을 시사
- 인지발달 영역 문제행동사례별 교사용 지침서 필요정도
- 영아의 경우 눈을 마주치지 못함(평균 3.50), 물건을 보여주거나 소리를 들려주어도 반응을 하지 않음(평균 3.46), 교사나 또래의 놀이행동에 관심을 보이지 않음(평균 3.39) 순으로 높음.
 - 영아의 경우 눈맞춤, 물건이나 소리에 대한 반응, 놀이 시 방관 등에 대한 지침이 필요함을 시사
 - 유아의 경우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함(평균 3.76) 이야기나 동화의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함(평균 3.53), 일상생활용품용도를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못함(평균 3.43) 순으로 높음.
 - 유아의 경우 문제해결, 내용파악능력, 도구사용능력 등에 대한 지침이 필요함을 시사

〈표 III-2-13〉 언어발달 및 인지발달 영역 문제행동사례별 교사용 지침서 필요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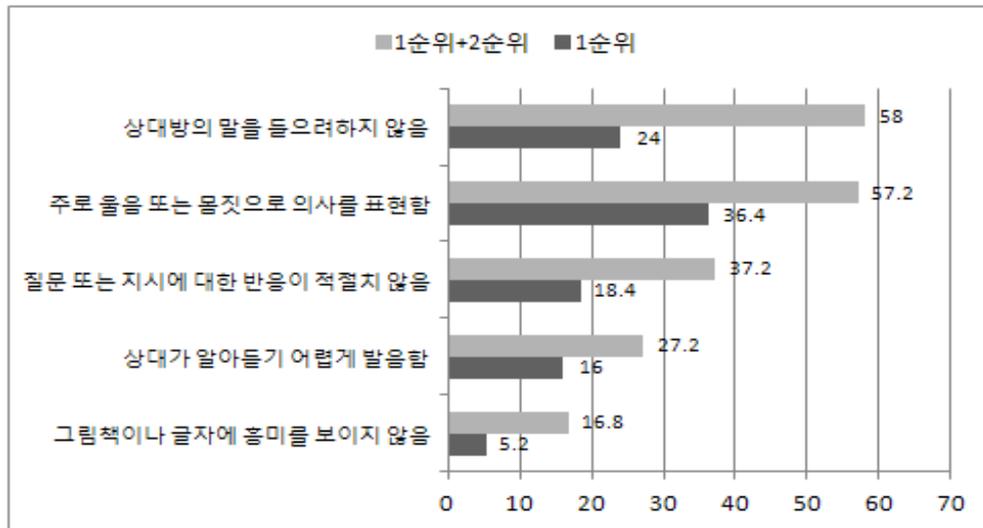
		단위: 점
언어발달 및 인지발달 영역 문제행동 사례		평균
언어발달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하지 않음	3.64
	주로 울음 또는 몸짓으로 의사를 표현함	3.57
	영아 질문 또는 지시에 대한 반응이 적절치 않음	3.42
	상대가 알아듣기 어렵게 발음함	3.36
	그림책이나 글자에 흥미를 보이지 않음	3.14
	다른 사람 말을 집중하여 듣지 못함	3.81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려 하지 않음	3.54
	유아 말을 더듬거나 속도와 크기 조절을 어려워함	3.52
	유행어나 비속어를 자주 사용함	3.43
	쓰기에 관심 없거나 도구사용 적절치 않음	3.32

(표 III-2-13 계속)

		평균
영아	눈을 마주치지 못함	3.50
	물건을 보여주거나 소리를 들려주어도 반응을 하지 않음	3.46
	교사나 또래의 놀이행동에 관심을 보이지 않음	3.39
	신체 부위를 짚어도 반응이 없음	3.37
	간단한 동작을 모방하지 못함	3.32
인지발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움	3.76
	이야기나 동화의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함	3.53
유아	일상생활용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못함	3.43
	색깔이나 모양 등 기준에 따라 분류하기 어려움	3.43
	활동의 순서를 기억하지 못함	3.37
	역할놀이가 아주 단순하고 반복적임	3.35

주: 5점 척도 문항임(전혀필요치 않음 1점 ~ 매우필요함 5점).

- 언어발달영역 교사용 지침서에서 다루기 원하는 문제행동사례
- 영아의 경우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하지 않음(58.0%), 주로 울음 또는 몸짓으로 의사를 표현함(57.2%), 질문 또는 지시에 대한 반응이 적절치 않음(37.2%) 순으로 높음.
- 유아의 경우 다른 사람 말을 집중하여 듣지 못함(64.6%), 유행어나 비속어를 자주 사용함(39.1%), 말을 더듬거나 속도와 크기 조절을 어려워함(37.5%) 순으로 높음.



[그림 III-2-12] 교사용 지침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기를 원하는 항목: 언어발달(영아)

〈표 III-2-14〉 교사용 지침서에서 다루기 원하는 문제행동사례 1+2순위: 언어발달(영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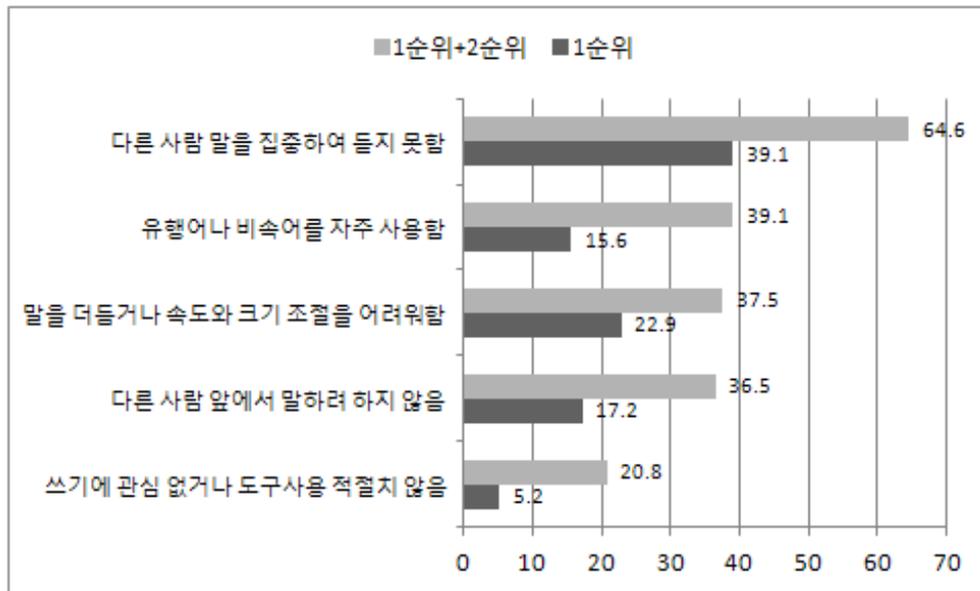
단위: %

	1+2순위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하지 않음	58.0
주로 울음 또는 몸짓으로 의사를 표현함	57.2
질문 또는 지시에 대한 반응이 적절치 않음	37.2
상대가 알아듣기 어렵게 발음함	27.2
그림책이나 글자에 흥미를 보이지 않음	16.8

〈표 III-2-15〉 교사용 지침서에서 다루기 원하는 문제행동사례 1+2순위: 언어발달(유아)

단위: %

	1+2순위
다른 사람 말을 집중하여 듣지 못함	64.6
유행어나 비속어를 자주 사용함	39.1
말을 더듬거나 속도와 크기 조절을 어려워함	37.5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려 하지 않음	36.5
쓰기에 관심 없거나 도구사용 적절치 않음	2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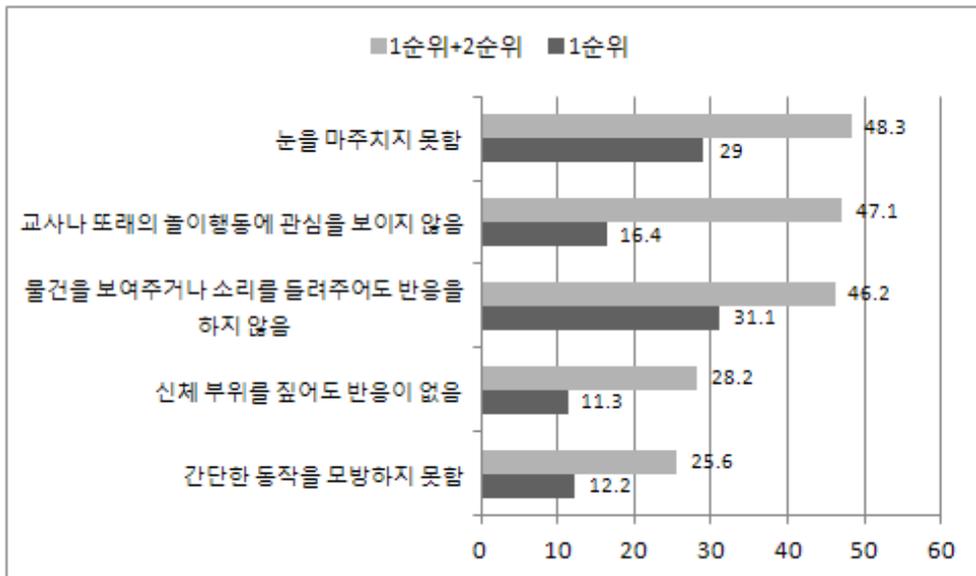


[그림 III-2-13] 교사용 지침서에서 다루기 원하는 문제행동사례 1+2순위: 언어발달(유아)

- 인지발달영역 교사용 지침서에서 다루기 원하는 문제행동사례
 - 영아의 경우 눈을 마주치지 못함(48.3%), 주교사나 또래의 놀이행동에 관심을 보이지 않음(47.1%), 물건을 보여주거나 소리를 들려주어도 반응을 하지 않음(46.2%) 순으로 높음.
 - 유아의 경우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함(51.0%), 이야기나 동화의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함(38.8%), 일상생활용품용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못함(37.2%) 순으로 높음.

〈표 III-2-16〉 교사용 지침서에서 다루기 원하는 문제행동사례 1+2순위: 인지발달(영아)

	단위: %
	1+2순위
눈을 마주치지 못함	48.3
교사나 또래의 놀이행동에 관심을 보이지 않음	47.1
물건을 보여주거나 소리를 들려주어도 반응을 하지 않음	46.2
신체 부위를 짚어도 반응이 없음	28.2
간단한 동작을 모방하지 못함	2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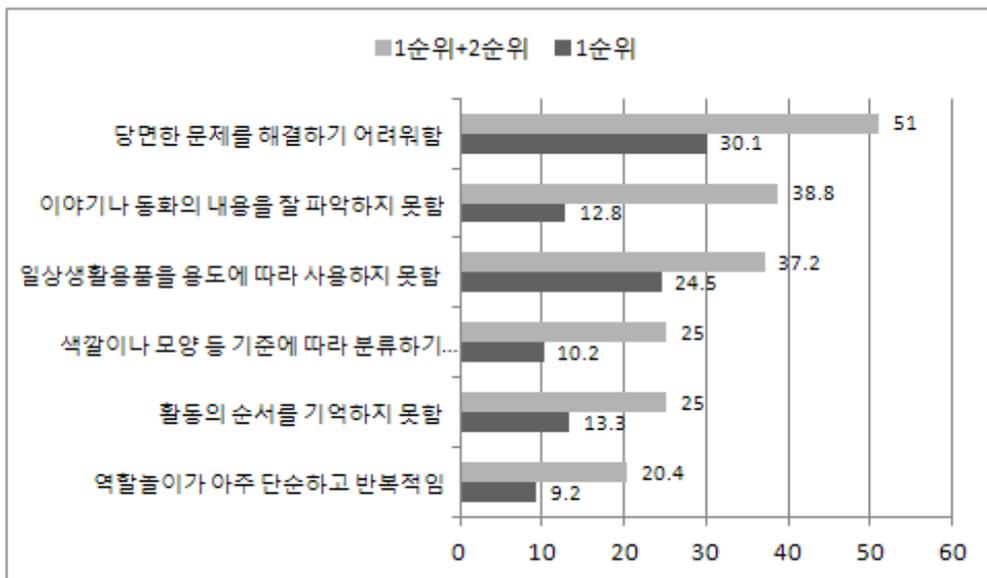


[그림 III-2-14] 교사용 지침서에서 다루기 원하는 문제행동사례 1+2순위: 인지발달(영아)

〈표 III-2-17〉 교사용 지침서에서 다루기 원하는 문제행동사례 1+2순위: 인지발달(유아)

단위: %

	1+2순위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움	51.0
이야기나 동화의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함	38.8
일상생활용품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못함	37.2
활동의 순서를 기억하지 못함	25.0
색깔이나 모양 등 기준에 따라 분류하기 어려움	25.0
역할놀이가 아주 단순하고 반복적임	20.4



[그림 III-2-15] 교사용 지침서에서 다루기 원하는 문제행동사례 1+2순위: 인지발달(유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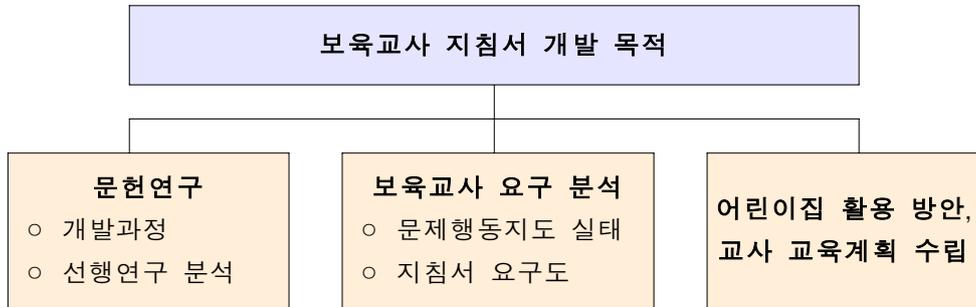
IV. 보육교사 지침서 구성 체계

1. 총론 및 각론 개요

- 보육교사 지침서는 총론 1권(제1부)과 각론 6권(제2부~제7부), 총 7권으로 구성
 - 제1부. 총론
 - 제2부. 각론 : 기본생활영역 교사용 지침서
 - 제3부. 각론 : 신체운동발달영역 교사용 지침서
 - 제4부. 각론 : 사회성발달영역 교사용 지침서
 - 제5부. 각론 : 정서발달영역 교사용 지침서
 - 제6부. 각론 : 언어발달영역 교사용 지침서
 - 제7부. 각론 : 인지발달영역 교사용 지침서

2. 총론의 구성

- 제1부. 총론의 구성(그림 IV-2-1 참조)
 - 보육교사 지침서의 개발 목적 및 필요성 제시
 - 보육교사 지침서 개발의 배경 제시
 - 보육교사 지침서 개발과정 제시
 - 선행 연구 분석
 - 보육교사 지침서 활용 및 교육계획 수립
 - 어린이집에서의 활용 방안 제시
 - 보육정보센터(육아지원종합센터)를 통한 교육계획 수립



[그림 IV-2-1] 보육교사 지침서 총론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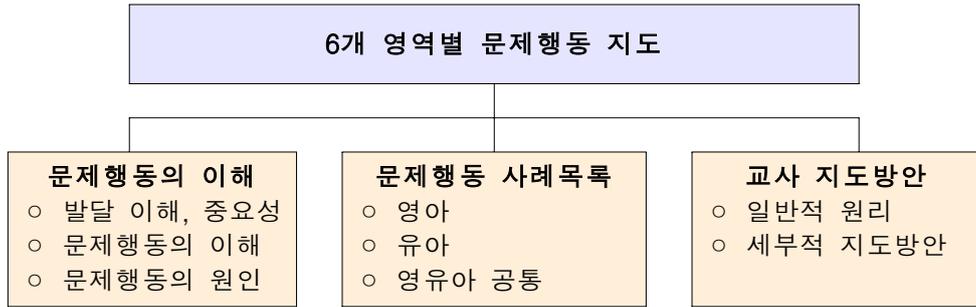
3. 각론의 구성

1) 6개 영역별 문제행동지도

□ 제2부에서 제7부 6개 영역별 문제행동지도는 크게 3가지로 구성(그림 IV-3-1 참조)

- 영역별 문제행동의 이해
 - 영역별 발달에 대한 이해
 - 영역별 문제행동에 대한 이해
 - 기본생활영역의 경우, 발달영역이 아니라 지도영역에 해당되므로 기본생활지도의 개념과 중요성과 문제행동 유형별 발달 특성을 제시함.
- 문제행동 사례목록 제시
 - 영역별로 25개~30개 문제행동 사례 제시
 - 사례의 연령 구분(영아, 유아, 영유아 공통)을 기재
 - 사례의 문제행동의 원인에 따른 유형 기재
- 문제행동 지도방안
 - 영역별 지도의 일반적 원리 혹은 중점사항
 - 영역별 세부적 지도방안

- 사회성발달영역의 경우,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주를 이루므로 교사가 문제행동 발생 상황에 즉시 개입하는 '즉각적 개입'과 문제행동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예방하는 '예방적 접근'으로 나누어 지도방안을 제시함.



[그림 IV-3-1] 보육교사 지침서 각론의 구성

2) 6개 영역별 문제행동지도의 실제

□ 제2부에서 제7부 6개 영역별 문제행동지도의 실제는 크게 4가지로 구성

- 영역별 문제행동지도의 실제(그림 IV-3-2 참조)
 - 문제행동 구체적 사례 제시
 - 사례에 대한 원인 분석(이론적 근거를 포함)
 - 사례에 대한 지도 방법(지도방향, 지도법, 발문)
 - 지도시 유의사항(가정연계, 참고자료 등)



[그림 IV-3-2] 보육교사 지침서 각론 구성

3) 6개 영역별 문제행동 사례목록

- 6개 영역별로 문제행동 사례를 25~30개 제시하고 있고, 영아 48개, 유아 78개, 영유아 공통 36개, 총 162개 사례를 수록함.
 - 기본생활영역 문제행동 사례(총 26개 사례, 표 IV-2 참조)
 - 신체운동발달영역 문제행동 사례(총 25개 사례, 표 IV-3 참조)
 - 사회성발달영역 문제행동 사례(총 26개 사례, 표 IV-4 참조)
 - 정서발달영역 문제행동 사례(총 30개 사례, 표 IV-5 참조)
 - 언어발달영역 문제행동 사례(총 28개 사례, 표 IV-6 참조)
 - 인지발달영역 문제행동 사례(총 27개 사례, 표 IV-7 참조)

〈표 IV-3-1〉 6개 영역별 문제행동 사례목록수

구분	기본생활 영역	신체운동발달 영역	사회성발달 영역	정서발달 영역	언어발달 영역	인지발달 영역	계
영아	3	5	8	10	11	11	48
유아	0	7	18	20	17	16	78
영유아 공통	23	13	0	0	0	0	36
계	26	25	26	30	28	27	162

가) 기본생활 영역 문제행동 사례목록

- 식사, 배설, 휴식, 청결, 공동생활의 5가지 유형, 총 26가지 사례로 구분됨
- 영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식사 관련 문제 행동을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그 외 문제행동은 영유아 공통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행동에 해당함

〈표 IV-3-2〉 기본생활 영역 문제행동 사례목록

구분	번호	문제행동 사례	유형
영아	1	- 이유식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A. 식사
	2	- 젓병을 떼지 못하는 경우	
	3	- 공갈젓꼭지에 집착하는 경우	

(표 IV-3-2 계속)

구분	번호	문제행동 사례	유형
영 유 아	4	- 편식 : 고기만 먹고 채소를 먹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A. 식사
	5	- 편식 : 과자 등 군것질만 먹는 경우	
	6	- 새로운 음식을 거부하는 경우	
	7	- 잘 먹지 않거나 먹기 싫으면 입에 물고 있는 경우	
	8	- 제자리에서 먹지 않고 돌아다니는 경우	
	9	- 스스로 먹지 않는 경우	
	10	- 식사 예절이 부족한 경우	
	11	-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	B. 배설
	12	- 잠을 자는 동안 소변 실수를 자주 하는 경우	
	13	- 소변을 참다가 자주 옷에 실수하는 경우	
	14	- 어린이집에서 잠자기 어려워하는 경우	C. 휴식
	15	- 씻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D. 청결
	16	- 이를 닦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17	- 지나치게 청결한 경우	
	18	- 계절이나 상황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려고 하는 경우	
	19	- 옷이나 신발을 입고 벗지 못하는 경우	
	20	- 스스로 옷이나 신발을 입고 벗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21	- 자기 물건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	
	22	- 정리정돈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23	- 차례를 지키거나 기다리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우	E. 공동생활
	24	- 어린이집에서 위험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25	- 어린이집 버스에서 심하게 장난을 치거나 의자에 앉아 있지 않는 경우	
	26	- 어린이집 하루일과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	

나) 신체운동 발달영역 문제행동 사례목록

- 대근육, 소근육, 움직임특성, 질병의 4가지 유형, 총 25가지 사례로 구분됨
- 영아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대근육, 소근육 관련 문제행동을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유아는 대근육, 소근육, 움직임특성 관련 문제행동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그 외 문제행동은 영유아 공통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행동에 해당함

〈표 IV-3-3〉 신체운동 발달영역 문제행동 사례 목록

	문제행동 사례	문제행동 관련유형
영아	1 견지 못하는 경우	A. 대근육
	2 걸을 수 있는데 견지 않고 항상 안아달라고 하는 경우	
	3-1 소근육 통제: 엄지검지 손가락을 이용하지 않고 크레파스를 손전체로 잡는 경우	B. 소근육
	4 손가락을 사용할 때 많이 흘리는 경우	
	5 블록을 3개 이상 쌓지 못하는 경우	
유아	6 다리 힘이 약하여 자전거 페달을 돌리지 못하는 경우	A. 대근육
	7 점핑 등과 같은 대근육 동작을 못하는 경우	
	8 팔의 힘이 약해 공을 던지지 못하는 경우	
	9 사다리, 정글짐과 같은 기구에 오르내리기 힘들어하는 경우	B. 소근육
	3-2 소근육 통제: 손가락 힘이 없어 연필 쥐고 글씨 쓰기를 어려워하는 경우	
	10 가위를 사용해 도형오리기를 잘 못하는 경우	
11 동작이 너무 느린 경우	C. 움직임 특성	
영유아	12 걸음걸이나 뛰는 자세가 불안정 하여 자주 넘어지고 부딪히는 아이	A. 대근육
	13 항상 기대어 앉거나 누워서 활동에 참여하는 아이	C. 움직임 특성
	14 움직이기를 싫어하거나 거의 움직이지 않는 아이	
	15 쉬지 않고 심하게 많이 움직이는 아이	
	16 눈을 찡그리거나 비비고 사물을 가까이 보려는 아이	D. 질병관련
	17 코를 자주 파고 쿵쿵거리는 아이	
	18 소리를 잘 못 듣는 아이	
	19 입에서 구취가 나는 경우	
	20 두통을 자주 호소하는 경우	
	21 심한 변비	
	22 잦은 소변(빈뇨)	
	23 비만인 경우	
24 체격이 심하게 왜소한 경우		

다) 사회성 발달영역 문제행동 사례목록

- 공격행동, 위축/단절, 기타 갈등유발행동의 3가지 유형, 총 26가지 사례를 제시함
- 영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공격행동, 위축/단절 관련 문제행동을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그 외 문제행동은 유아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행동에 해당함

〈표 IV-3-4〉 사회성 발달영역 사례목록

구분	유형	번호	행동 사례
영아	A. 공격행동	1	무는 경우
		2	교사를 밀쳐내는 경우
		3	할퀴는 경우
		4	놀잇감을 던지는 경우
		5	놀잇감을 뺏는 경우
		6	짜증내는 경우
	B. 위축/단절	7	교사에게 메달리는 경우
		8	자신의 관심에만 몰두된 경우
유아	A. 공격행동	9	때리는 경우
		10	같이 안 논다고 말하는 경우
		11	신경질적으로 말하는 경우
		12	떼쓰는 경우
		13	지기 싫어하는 경우
		14	친구를 귀찮게 하는 경우
		15	힘 조절이 안되는 경우
	B. 위축/단절	16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
		17	선호하는 또래가 제한된 경우
		18	부끄럼이 많은 경우
		19	의존적인 경우
		20	같은 것을 반복하는 경우
	C. 기타 갈등유발행동	21	또래를 따돌리는 경우
		22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23	반항하는 경우
		24	고자질하는 경우
		25	거짓말하는 경우
		26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

라) 정서발달영역 문제행동 사례목록(표)

□ 정서발달영역 문제행동 사례는 주제별로 12개로 분류되었음.

- 분리불안, 대물애착, 자주 우는 행동, 지나친 수줍음, 강박성향, 틱, 우울, 분노 폭발 및 감정조절 불가, 지나친 고집, 부주의와 산만함, 자위로 나누어지며 이 중에서 분리불안, 자주 우는 행동, 우울, 분노 폭발 및 감정조절 불가, 자위는 영유아 공통 주제임.

－ 각 주제에 따라 영아, 유아에 해당하는 사례를 30가지 제시하였음.

〈표 IV-3-5〉 정서발달 영역 문제행동 사례 목록

	번호	문제행동 사례	유형
영아	1	- 양육자와 헤어져도 만나도 힘든 경우	A. 분리불안
	2	- 교사와 궁합이 잘 맞지 않는 경우	
	3	- 아직 어려서 헤어지기가 어려운 경우	
	4	- 아기 때부터 쓰던 물건을 과도하게 집착하는 경우	B. 대물애착
	5	- 갑작스러운 변화에 불안해하는 경우	C. 자주 우는 행동
	6	- 무조건 울어 버리는 경우	
	7	- 늘 기분이 좋지 않은 경우	D. 우울
	8	- 아직 어려서 화를 참을 수 없는 경우	E. 분노폭발 및 감정조절 불가
	9	- 선천적으로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경우	
	10	- 우연한 반복으로 인한 즐거움이나 위안 받고 싶은 욕구를 자위로 표출하는 경우	F. 자위
유아	11	- 이전 기관에서 좋지 않은 경험을 한 경우	G. 분리불안
	12	- 울어서 얻고 싶은 것을 해결하는 경우	H. 자주 우는 행동
	13	- 잘할 수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경우	I. 지나친 수줍음
	14	- 주위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에 자신감을 잃는 경우	
	15	-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일에 너무 부끄러운 경우	
	16	- 특별한 사건 때문에 자신감을 잃은 경우	
	17	- 강박 성향을 가진 경우	J. 강박 성향
	18	- 통제해야 안심이 되는 경우	K. 틱
	19	- 불안감과 긴장으로 틱(tic) 현상을 보이는 경우	
	20	- 늘 기분이 좋지 않은 경우	L. 우울
	21	- 기분 변화가 심한 경우	
	22	- 정서 발달이 또래에 비해 늦은 경우	M. 분노폭발 및 감정조절 불가
	23	- 분노 폭발로 관심을 받고 싶은 경우	
	24	- 잘못에 대해 제지 받은 경험이 없어 잘못하지 않았다고 우기는 경우	N. 지나친 고집
	25	- 두려워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26	- 마음속에 가득 찬 화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27	- 겁이 많아서 새로운 활동을 지나치게 거부하는 경우	
	28	- 환경변화로 인해 산만해진 경우	O. 부주의와 산만
	29	- 심리적 문제 때문에 산만한 경우	
	30	- 성관계 장면을 따라하거나 다른 성의 친구를 궁금해하는 경우	P. 자위

마) 언어발달영역 문제행동 사례목록

- 말소리(발음, 발성, 유창성), 이해, 표현, 태도의 4가지 유형, 총 28가지 사례를 제시함.
- 영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발음, 이해, 표현, 태도 관련 문제행동을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그 외 문제행동은 유아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행동에 해당함.

〈표 IV-3-6〉 언어발달영역 문제행동 사례목록표

구분	번호	문제행동사례	유형	
영아	1	- 또래에 비해 상대방이 이해하기 어려운 발음으로 말하는 경우	A. 발음	
	2	- 또래와 달리 상대방의 말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B. 이해	
	3	- 또래에 비해 질문 또는 지시에 대한 반응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4	- 또래와 달리 의사표현(표정·몸짓·언어)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	C. 표현	
	5	- 또래와 달리 울음 또는 몸짓을 이용한 의사표현을 주로 하는 경우		
	6	- 또래에 비해 자신이 만들어낸 어휘(음운적 신어) 사용이 빈번한 경우		
	7	- 또래에 비해 주로 한 단어말로 의사표현 하는 경우	D. 태도	
	8	- 또래에 비해 대화 시 상대방을 응시하지 못하고 진행되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경우		
	9	- 또래와 달리 징징거리거나 소리지르는 말투를 주로 사용하는 경우		
	10	- 또래에 비해 그림책이나 인쇄글자에 흥미를 보이지 않는 경우		
	11	- 또래에 비해 쓰기도구 및 사용(끼적이기)에 대해 흥미를 보이지 않는 경우		
유아	12	- 아기식 발음으로 말하거나 알아듣기 힘들 만큼 명확하지 않은 발음으로 말하는 경우	A. 말소리	발음
	13	- 말할 때 말소리 크기가 지나치게 크거나 작은 경우		발성
	14	- 지나친 군말 사용이나 말더듬으로 말의 흐름이 순조롭지 못한 경우		유창성
	15	- 또래에 비해 대화 및 이야기 나누는 상황에서의 맥락, 지시, 주제를 따라 가지 못하는 경우	B. 이해	
	16	- 또래에 비해 주변 글자 및 책 내용에 관심이 없는 경우		
	17	- 또래에 비해 문학작품 내용에 대한 이해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표 IV-3-6 계속)

구분	번호	문제행동사례	유형
유아	18	- 또래에 비해 사용 어휘수가 매우 적은 경우	C. 표현
	19	- 또래에 비해 언어적 의사표현이 매우 적은 경우	
	20	- 사람들 앞에서 말하려 하지 않는 경우	
	21	- 또래에 비해 말한 내용이 정리되지 않아 이해가 어려운 경우	
	22	- 초보적 쓰기를 통한 표현 행동이 전혀 없는 경우	
	23	- 다른 사람의 말을 집중하여 듣지 못하는 경우	D. 태도
	24	- 말하기 순서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말만 하려는 경향이 심한 경우	
	25	- 유행어 및 비속어를 매우 빈번하게 사용하는 경우	
	26	- 불필요한 말대꾸를 하거나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	
	27	- 또래에 비해 책에 대한 관심이 매우 저조한 경우	
	28	- 또래에 비해 쓰기를 위한 도구 사용에 관심이 없거나 도구사용이 매우 미숙한 경우	

바) 인지발달영역 문제행동 사례목록

- 식사, 배설, 휴식, 청결, 공동생활의 5가지 유형, 총 26가지 사례로 구분됨
- 영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식사 관련 문제 행동을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그 외 문제행동은 영유아 공통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행동에 해당함

〈표 IV-3-7〉 인지발달영역 문제행동 사례목록표

구분	번호	행동 목록	유형
영아	1	- 성인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경우	A. 자극과 반응
	2	- 물건을 보여주거나 소리를 들려주어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	
	3	- 낯선 사람에게 쉽게 안기고 따라가려는 경우	
	4	- '까꿍' 하면 고개를 돌리는 경우	B. 사람과 사물 인식과 대상영속성
	5	- 새로운 사물이나 놀이감을 제시해도 관심 없거나 피하는 경우	
	6	- 대상영속성이 생길 연령에서 놀이감이 사라져도 찾지 않는 경우	

(표 IV-3-7 계속)

구분	번호	행동 목록	유형
영아	7	- 팔 다리(또는 소리)를 이용한 간단한 동작을 모방하지 않는 경우	C. 모방행동 및 표상행동
	8	- 영아에게 물건이나 놀이감을 손에 쥐어주기 전에는 탐색하지 않는 경우	
	9	- 또래와 비교하여 지연모방이나 상징놀이를 하지 못하는 경우	
	10	- 교사나 또래의 놀이행동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우	
	11	- 끼적거리기 단계가 변화되지 않는 경우	
유아	12	- 익숙한 모양(동그라미, 세모, 네모)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	D. 대물인지
	13	- 또래와 비교해서 수저나 가위처럼 일상생활용품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14	- 촉각으로 물건을 구분하여 알아맞히지 못하는 경우	
	15	- 간단한 동화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E. 기억행동
	16	- 소개된 활동의 순서를 몰라 망설이는 경우	
	17	- 환경의 변화를 알아보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18	- 질문하는 맥락에 관계없이 대답하는 경우	F. 주의력
	19	- 주의집중하지 못하고 행동이 산만한 경우	
	20	- 동화를 들을 때 동화내용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	
	21	- 간단한 지시를 따라하지 못하는 경우	G. 표상행동 및 예측행동 (가상놀이)
	22	- 역할놀이 때 정해진 역할을 표현하지 못하고, 단순한 행동을 반복하는 경우	
	23	- 놀이감을 정리할 때 뒤섞어서 정리하거나 다른 영역에 정리하는 경우	H. 분류
24	- 자신의 물건과 남의 물건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주 바뀌가는 경우		
25	- 또래와 비교하여 수세기를 못하는 경우		
26	- 자기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여 토론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I. 문제 해결력	
27	- 이야기의 내용을 순서대로 회상하지 못하거나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	J. 이해력	

V. 보육교사 지침서 활용 및 교육계획안

1. 필요성 및 목적

- 보육교사에게 기대되는 역할은 사회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만나게 될 영유아의 연령이나 보육경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에 따른 보육교사에게 요구되는 역할에 부합하는 실질적 재교육이 필요함
 - 보육교사가 자격을 취득한 후 현장에서 보육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전에 이론적으로 배운 바를 검증하고 보완하도록 하기 위해 재교육이 필요함
- 교사는 유아의 문제행동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영유아의 발달 수준과 특성에 맞는 전략을 통해 유아의 문제행동을 지도해야 함
 - 보육현장은 다양한 특징을 지닌 유아들이 집단생활을 하므로 현장의 역동적이고 시시때때로 변화되는 환경에 놓이면 문제행동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하거나 유아들에게 적절한 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이 따름
- 따라서 영유아문제행동지도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강사진 양성을 통해 해당 지역의 보육교사들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사들이 영유아 문제행동지도를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궁극적으로 보육교사의 전문성 제고 및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추진방법

- 문제행동 지도 프로그램 교육을 위한 교육자료(교사용 워크북, 강사용, 강의용 PPT) 제작
- 문제행동 지도 프로그램 보급을 위한 교육으로 강사진 세미나 및 교사교육 진행
- 문제행동 지도 프로그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교육효과분석

3. 사업기간 및 추진일정

- 사업기간 : 6개월
- 교사교육 자료제작 : 2개월
 - 강사진 세미나 : 1개월
 - 교사교육 : 3개월
 - 교육효과 분석 : 2개월
- 사업추진일정

〈표 V-3-1〉 보육교사 지침서 교사교육 사업추진일정

구분	추진일정					
	1	2	3	4	5	6
교사교육 자료제작						
강사진 세미나						
교사교육						
교육 효과분석						
사업결과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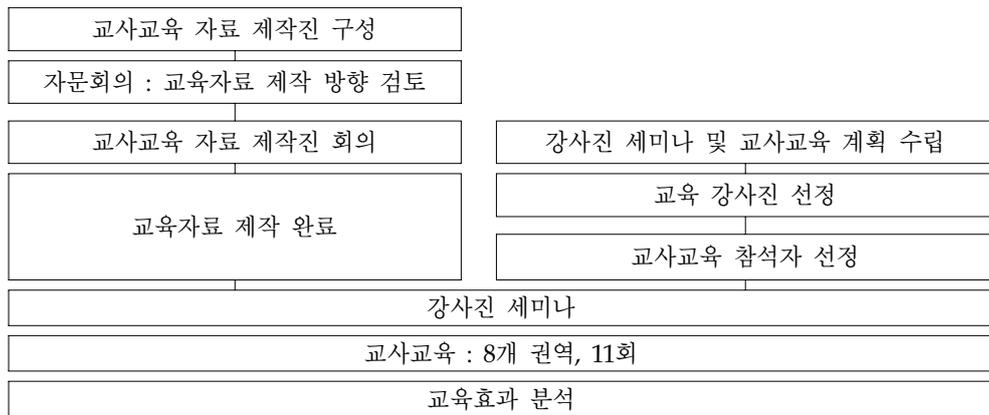
4. 사업추진체계

구분	운영주체	업무내용	비고
교사교육자료 제작	한국보육 진흥원	· 총 사업계획 및 결과보고 · 문제행동지도 프로그램 교사교육자료 제작	제작진 구성
강사진세미나		· 교육강사진 모집 및 구성 · 강사진 세미나 준비 및 진행	
교사교육	시도 보육정보센터	· 교사교육 대상 선정 · 교사교육 준비 및 진행	
교육효과분석	한국보육 진흥원	· 교육효과 분석 및 결과보고	

〔그림 V-4-1〕 보육교사 지침서 교사교육 사업추진체계

5. 사업추진과정

- 제작된 교육자료를 바탕으로 교사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강사진 세미나 및 교사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또한 교육효과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문제행동지도 프로그램 보급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그림 V-5-1] 보육교사 지침서 교사교육 사업추진과정

6. 교사교육 세부추진내용

- 교사교육 자료제작
 - 영유아문제행동지도 프로그램을 근거로 하여, 보육교사들에게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강사진 매뉴얼 및 교사워크북 제작

- 강사진 세미나
 - 문제행동지도 프로그램 교육을 담당할 강사진 및 시·도(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상으로 문제행동지도 프로그램의 내용과 교수방법에 대해 세미나를 진행함으로써 전국단위의 문제행동지도 프로그램 보급

□ 교사교육

- 보육현장의 교사들이 영유아 문제행동 지도 프로그램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권역별 교사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보육활동 개선 및 전문성 강화로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 8개 권역 : 서울·인천, 경기, 대전·충청, 경기북부·강원, 대구·울산·경북, 광주·전라, 부산·경남, 제주
 - 11회 : 각 권역별 1회(서울, 경기 각 2회, 전국 1회)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08). 언어·인지·사회·정서 발달 지원 프로그램.
- 김경희(2012). 영유아 문제행동에 대한 유아교육적 접근.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춘계 학술대회 자료집.
- 배승민·신동원·이수정(2009).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에서 감정인식능력 및 충동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소아·청소년정신의학, 20(1), 17-22.
-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2012). 제2차 표준보육과정 개정방안 연구.
-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2013). 누리과정 가정연계 어린이집 부모지원프로그램 개발.
- 보건복지부·한국사회서비스연구원(2010).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매뉴얼 개발.
- 송의열·이미자(2001). 유아의 문제행동과 양육태도. 공주영상정보대학 논문집, 8, 153-177.
- 안동현(2005). 영유아 정신건강. 제 13회 국제학술대회자료집. 삼성복지재단.
- 이미화·황혜정·양미선·장혜진·엄지원(2013). 누리과정 가정연계 어린이집부모지원 프로그램 개발. 육아정책연구소
- 홍강의(2005). 발달학적 견해. IN: 소아정신의학, 홍강의 편, 서울: 중앙문화사, 16-37.
- 황혜정(2006).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와 교사 평가간의 관계. 한국영유아보육학, 6(5), 339-359.
- 황혜정·윤명희·강성빈·성낙운·황혜신(2002). 유아용 문제행동 진단검사의 개발 연구. 유아교육연구, 22(1), 73-88.
- Campbell, S. B. (2007). 유아의 문제행동 (민성혜 옮김). 서울: 시그마프레스.
- Watamura, S. (2007). Effects of stress on the brain. 제15회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삼성복지재단.

부 록

부록 1. 보육교사 요구분석 설문지

「영유아 문제행동지도 교사용 지침서」 개발을 위한 보육교사 설문 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을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가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설문지는 「영유아 문제행동지도 교사용 지침서」 개발을 위해 보육 현장에서 문제행동지도에 대한 교사의 의견을 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자료 작성 및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며, 개인정보 및 비밀이 보장됩니다.

2013년 10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이 영

본 설문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화 선임연구위원 (02) 398-7720 mhlee@kicce.re.kr
엄지원 연구원 (02) 398-7751 gracejiwon@kicce.re.kr
윤지연 인턴연구원 (02) 398-7758 sunflower@kicce.re.kr

A. 일반배경

어린이집	소재지	<input type="checkbox"/> ① 서울 <input type="checkbox"/> ② 경기 <input type="checkbox"/> ③ 대구 <input type="checkbox"/> ④ 대전			설립유형	<input type="checkbox"/> ① 국공립 <input type="checkbox"/> ② 사회복지법인 <input type="checkbox"/> ③ 법인·단체 등 <input type="checkbox"/> ④ 민간 <input type="checkbox"/> ⑤ 직장 <input type="checkbox"/> ⑥ 가정 <input type="checkbox"/> ⑦ 부모협동
담당반	담당 연령	<input type="checkbox"/> ① 만 0세 <input type="checkbox"/> ② 만 1세 <input type="checkbox"/> ③ 만 2세 <input type="checkbox"/> ④ 만 3세 <input type="checkbox"/> ⑤ 만 4세 <input type="checkbox"/> ⑥ 만 5세 <input type="checkbox"/> ⑦ 혼합연령(_____세)				
	담임교사	총 <input type="text"/> 명	일반교사	<input type="text"/> 명	장애통합 여부	<input type="checkbox"/> ① 통합 <input type="checkbox"/> ② 통합아님
	영유아	총 <input type="text"/> 명	일반영유아	<input type="text"/> 명		
			장애아	<input type="text"/> 명		
교사	연령	만 <input type="text"/> 세			성별	<input type="checkbox"/> ① 남 <input type="checkbox"/> ② 여
	직책 (복수응답 가능)	<input type="checkbox"/> ① 원감 <input type="checkbox"/> ② 주임교사 <input type="checkbox"/> ③ 담임교사 <input type="checkbox"/> ④ 비담임(시간제)교사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_____)			최종학력	<input type="checkbox"/> ① 고졸 <input type="checkbox"/> ② 2-3년제 대졸 <input type="checkbox"/> ③ 4년제 대졸 <input type="checkbox"/> ④ 대학원 졸업
	경력	총 <input type="text"/> 년 현 어린이집 <input type="text"/> 년			최종전공	<input type="checkbox"/> ① 아동(복지)학 <input type="checkbox"/> ② 보육학 <input type="checkbox"/> ③ 사회복지학 <input type="checkbox"/> ④ 유아교육학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 (보육교사교육원 포함)
	영유아 반 경험	<input type="checkbox"/> ① 영아반만 경험함 <input type="checkbox"/> ② 유아반만 경험함 <input type="checkbox"/> ③ 영아반, 유아반 모두 경험함			장애통합반 담당경험	<input type="checkbox"/> ① 경험 있음 <input type="checkbox"/> ② 경험 없음
	소지자격 (복수응답 가능)	<input type="checkbox"/> ① 보육교사1급 <input type="checkbox"/> ② 보육교사2급 <input type="checkbox"/> ③ 보육교사3급 <input type="checkbox"/> ④ 유치원 정교사 1,2급 <input type="checkbox"/> ⑤ 어린이집 원장 <input type="checkbox"/> ⑥ 특수교사 <input type="checkbox"/> ⑦ 사회복지사 <input type="checkbox"/> ⑧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input type="checkbox"/> ⑨ 기타(_____)				

영유아 문제행동이란 연령에 기초한 규범적 행동으로 보기에 부적절한 행동이나 보육교사나 부모의 일상적인 지도범위를 벗어나 어려움을 야기하는 행동으로 정의하며, 특수교육 대상 행동은 아닙니다.

B. 영유아 문제행동 현황

1. 다음은 영유아 문제행동에 대한 선생님의 인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것에 V표해 주십시오.

내용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1) 연령별 발달수준에 벗어난 문제행동의 특성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2) 문제행동을 보이는 영유아가 학급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3) 현재 실행하고 있는 영유아 문제행동지도에 대한 선생님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4) 현재 실행하고 있는 영유아 문제행동지도의 적합성에 대한 선생님의 자신감은 어느 정도입니까?					
5) 영유아 문제행동지도를 위한 추가적인 교육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2. 선생님께서 각 영역별로 문제행동을 지도 할 때 느끼는 어려움은 어느 정도이며, 현재 맡고 계신 반을 기준으로 지도하기 어려운 영유아는 몇 명입니까?

영역	지도 어려움 정도					해당 영유아 없음	해당 영유아 유무			
	① 매우 어려움	② 조금 어려움	③ 보통	④ 별로 어렵지 않음	⑤ 전혀 어렵지 않음		영아(만0-2세)		유아(만3-5세)	
							남아	여아	남아	여아
1) 기본생활습관 문제행동 (식사, 배변, 청결, 안전 등)						<input type="checkbox"/> 명	<input type="checkbox"/> 명	<input type="checkbox"/> 명	<input type="checkbox"/> 명	
2) 신체운동발달 문제행동 (대근육, 소근육, 질병 등)						<input type="checkbox"/> 명	<input type="checkbox"/> 명	<input type="checkbox"/> 명	<input type="checkbox"/> 명	
3) 사회성발달 문제행동 (공격, 위축, 갈등, 규범위반 등)						<input type="checkbox"/> 명	<input type="checkbox"/> 명	<input type="checkbox"/> 명	<input type="checkbox"/> 명	
4) 정서발달 문제행동 (감정조절, 부주의, 산만 등)						<input type="checkbox"/> 명	<input type="checkbox"/> 명	<input type="checkbox"/> 명	<input type="checkbox"/> 명	
5) 언어발달 문제행동 (발음, 이해, 표현, 태도 등)						<input type="checkbox"/> 명	<input type="checkbox"/> 명	<input type="checkbox"/> 명	<input type="checkbox"/> 명	
6) 인지발달 문제행동 (자극과 반응, 기억, 표상 등)						<input type="checkbox"/> 명	<input type="checkbox"/> 명	<input type="checkbox"/> 명	<input type="checkbox"/> 명	

3. 보육현장에서 영유아 문제행동지도를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가지만 선택)

- ① 문제행동 관련 교육의 기회 부족
 ② 체계적인 문제행동지도 자료 부족
 ③ 부모의 인식 부족으로 인한 갈등
④ 원장의 인식 부족
 ⑤ 보육현장 내 보조인력 부족
 ⑥ 전문가 지원 부재

4. 현재 보육현장에서 영유아 문제행동지도를 위해 정기적으로 지원 받는 인력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가능)

- ① 없음
 ② 특수교사
 ③ 치료사
 ④ 사회복지사
 ⑤보조교사
 ⑥기타_____

5. 선생님께서 문제행동을 지도할 때 받고 있는 지원은 무엇이며, 그 도움은 어느 정도입니까? 제시된 항목 중에서 문제행동지도를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지원 방법 (복수응답 가능)	지원여부		도움이 된 정도					지원 필요순위
	① 지원 받음	② 지원 받지 않음	① 전혀 도움 되지 않음	② 도움 되지 않음	③ 보통	④ 조금 도움됨	⑤ 많이 도움됨	
1) 동료교사와의 토의								1순위 ___ 번 2순위 ___ 번
2) 원장/ 원감과의 자문								
3) 학부모와의 상담								
4) 전문가의 자문								
5) 지역사회 연계 (장애아 순회지원)								
6) 관련 도서 및 전문서적								
7) 교사 연수 및 특강								
8) 인터넷 자료 및 커뮤니티								

C. 영유아 문제행동과 관련된 보수교육

1. 영유아 문제행동과 관련된 보수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교육 경험 있다(☞문 1-1번으로 이동) ② 교육 경험 없다(☞ 문 1-4번으로 이동)

1-1. 받았던 보수교육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작성해주세요: _____)

1-2. 받았던 보수교육이 영유아문제행동지도에 실제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많은 도움이 되었다 ② 도움이 되었다 ③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1-3. 받았던 보수교육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비효과적인 이론위주 교육 ② 현장 경험 없는 강사진 ③ 수박 겉핥기식의 1회성 교육
 ④ 너무 많은 인원의 대규모교육 ⑤ 기타_____

1-4. 문제행동지도와 관련된 보수교육을 받으신 적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교육기회가 없어서 ② 교육 시기나 장소가 적당하지 않아서 ③ 교육비용 부담 때문에
 ④ 문제행동지도에 대한 교육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⑤ 기타_____

2. 영유아문제행동지도를 위한 보수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문 2-1번으로 이동) ② 필요하다(☞문 2-1번으로 이동) ③ 필요하지 않다(☞문 3번으로 이동)

2-1. 문제행동지도를 위한 보수교육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가능)
 ① 문제행동을 보이는 영유아가 증가하고 있어서 ② 문제행동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
 ③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 및 실제적인 지도방법 습득을 위해서 ④ 문제행동을 보이는 영유아의 부모 상담을 위해서
 ⑤ 기타_____

3. 문제행동지도와 관련된 교육기회가 주어진다면 참여하시겠습니까?
 ① 적극 참여하겠다 ② 참여하겠다 ③ 시간이 되면 참여하겠다 ④ 참여하지 않겠다

4. 영유아 문제행동지도를 위한 교사교육의 방법으로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2가지 항목을 선택하여 해당 번호를 작성해 주십시오.

1순위 ()번

2순위 ()번

① 이론 위주의 강의 ③ 지도사례를 다룬 시청각 교육 ⑤ 전문가와의 개인 상담 및 코칭 ⑦ 동료교사들의 성공적 실제지도사례 발표 ⑨ 기타()	② 토의 및 협의 ④ 실제지도기술 연습을 위한 워크숍 ⑥ 견학 및 현장 실습 ⑧ 영유아 문제행동지도를 위한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세미나, 학술발표회의 참석
--	--

D. 문제행동지도를 위한 교사용 지침서

다음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에게서 자주 관찰되는 문제행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문제행동지도를 위한 교사용 지침서를 개발하기 위해 교사의 요구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1. 다음 중 영유아 문제행동지도를 위한 교사용 지침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기를 원하는 2가지 항목을 선택하여 해당 번호를 작성해 주십시오.

1순위 ()번

2순위 ()번

- | | |
|-------------------------------|--------------------------|
| ① 문제행동지도를 위한 영유아 발달 이해(발달 이론) | ② 영유아의 문제행동지도를 위한 의사소통기술 |
| ③ 문제행동지도를 위한 부모와의 의사소통기술 | ④ 문제행동 관찰방법 |
| ⑤ 문제행동 사례 및 지도법 | ⑥ 문제행동 예방 방법 |
| ⑦ 문제행동지도를 위한 교사와 전문가와의 협력방법 | ⑧ 기타 () |

2. 지금까지의 보육경험을 토대로 각 문제 행동별 교사용 지침서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느끼시는지 해당 칸에 √ 표 해주시고 교사용 지침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기를 원하는 2가지 항목을 선택해 주십시오.

	문제행동 사례	지침서 필요정도					우선순위	
		1	2	3	4	5	영아	유아
		전혀 필요 하지 않음	거의 필요 하지 않음	보통	약간 필요 함	매우 필요 함		
기본 생활 습관	① 어린이집 하루 일과에 적응하지 못함						1순위 ___ 번 2순위 ___ 번	1순위 ___ 번 2순위 ___ 번
	② 차례를 지키거나 기다리는 것이 어려움							
	③ 위험한 행동을 자주함							
	④ 정리정돈을 하지 않으려고 함							
	⑤ 지나치게 칭결하여 더러운 것을 참지 못함							
	⑥ 잘 씻지 않으려고 함							
	⑦ 특정 음식만 선호하거나 거부하는 등 편식을 함							
	⑧ 계자리에서 먹지 않고 돌아다님							
	⑨ 배변 시기가 지났는데 대소변을 가리지 못함							
	⑩ 어린이집에서 잠자기 어려워 함							
신체 운동 발달	① 대근육 발달이 느려 운동능력이 떨어짐						1순위 ___ 번 2순위 ___ 번	1순위 ___ 번 2순위 ___ 번
	② 항상 기대어 있고 바르게 앉지 못함							
	③ 움직임이 너무 많음							
	④ 조절을 잘 못하여 빈번하게 부딪히거나 넘어짐							
	⑤ 간단한 동작을 따라하지 못함							
	⑥ 눈과 손의 협응이 잘 안됨							
	⑦ 손힘이 약하거나 소근육 조절이 잘 안됨							
	⑧ 비만이 심하고 움직임이 둔함							
	⑨ 허약한 체질로 움직임이 거의 없음							
	⑩ 눈을 자주 비비고, 계속 깜박거림							
	⑪ 자주 코를 파고 반복적으로 쿵쿵거림							

	문제행동 사례	지침서 필요정도					우선순위	
		1	2	3	4	5	영아	유아
		전혀 필요하지 않음	거의 필요하지 않음	보통	약간 필요함	매우 필요함		
사회성 발달	① 소리를 지르거나 때리고 부수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함						1순위 ___ 번 2순위 ___ 번	1순위 ___ 번 2순위 ___ 번
	② 소심하거나 사회적 기술 부족으로 또래와 어울리기 어려움							
	③ 거짓말을 자주함							
	④ 친구 물건이나 어린이집 물건을 가져감							
	⑤ 규칙을 따르지 않음							
	⑥ 교사를 독점하려고 함							
	⑦ 놀이에 참여하지 않고 방관함							
	⑧ 교사나 친구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혼자 있음							
	⑨ 집단행동을 방해함							
	⑩ 특정 또래를 따돌리거나 놀지 않겠다고 위협함							
정서 발달	①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으로 분리 불안 보임						1순위 ___ 번 2순위 ___ 번	1순위 ___ 번 2순위 ___ 번
	② 지나치게 수줍어함							
	③ 기술과 능력부족으로 인한 자신감 없음							
	④ 자주 우는 행동 보임							
	⑤ 분노를 폭발 하거나 감정 조절이 어려움							
	⑥ 위축되거나 강박적인 행동을 나타냄							
	⑦ 부주의하거나 산만한 행동을 많이 나타냄							
	⑧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지나치게 고집 부림							
	⑨ 자위행동을 함							
	⑩ 손발톱 물어뜯기, 손가락 빨기 등 반복적인 행동을 함							

언어·인지 발달 문제행동은 연령에 따른 차이가 큰 영역으로, 영아와 유아를 구분하여 사례 제시합니다.

	문제행동 사례	지침서 필요정도					우선순위		
		1	2	3	4	5			
		전혀 필요하지 않음	거의 필요하지 않음	보통	약간 필요함	매우 필요함			
언어 발달	영아	① 상대가 알아듣기 어렵게 발음함						1순위 ___ 번	
		② 질문 또는 지시에 대한 반응이 적절치 않음							
		③ 주로 울음 또는 몸짓으로 의사를 표현함							
		④ 그림책이나 글자에 흥미를 보이지 않음							2순위 ___ 번
		⑤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하지 않음							
	유아	① 말을 더듬거나 속도와 크기 조절을 어려워함						1순위 ___ 번	
		②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려 하지 않음							
		③ 쓰기에 관심 없거나 도구사용 적절치 않음							
		④ 다른 사람 말을 집중하여 듣지 못함							2순위 ___ 번
		⑤ 유행어나 비속어를 자주 사용함							
인지 발달	영아	① 물건을 보여주거나 소리를 들려주어도 반응을 하지 않음						1순위 ___ 번	
		② 눈을 마주치지 못함							
		③ 간단한 동작을 모방하지 못함							
		④ 신체 부위를 짚어도 반응이 없음							2순위 ___ 번
		⑤ 교사나 또래의 놀이행동에 관심을 보이지 않음							
	유아	① 활동의 순서를 기억하지 못함						1순위 ___ 번	
		② 일상생활용품용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못함							
		③ 역할놀이가 아주 단순하고 반복적임							
		④ 색깔이나 모양 등 기준에 따라 분류하기 어려워함							2순위 ___ 번
		⑤ 이야기나 동화의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함							
⑥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함									

3. 위에 제시된 문제행동 사례 외에 영유아 문제행동지도를 위한 교사용 지침서에서 특히 다루기를 원하는 문제행동 사례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역	추가 문제행동 사례

♣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제 2부. 각 론 : 기본생활영역

I. 「기본생활영역」 문제행동 지도

1. 기본생활영역 문제행동의 이해

가. 기본생활 영역 지도의 개념과 중요성

□ 기본생활의 개념과 내용

- 기본생활은 영유아가 건강을 유지하고 사회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몸에 익히고 지켜야 할 생활 태도를 의미함.
- 영유아 기본생활 지도는 자신의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식사, 배설, 휴식, 청결과 공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내용으로 안전, 절제, 질서, 예절 등이 포함됨.

□ 영유아기 기본생활 지도의 중요성

- 영유아기는 발달이나 성숙이 급속하게 진행되며 일상생활의 기본 습관과 태도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임.
- 영유아기에 형성된 기본생활습관은 이후의 신체 발달, 지적 발달, 인격 형성과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함.
- 영유아기에 형성된 일상생활의 기본 습관과 태도는 이후에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고, 잘못된 습관은 이와 관련하여 또 다른 나쁜 습관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기본생활습관은 영유아기의 중요한 보육 내용으로 다루어져야 하고, 교사는 영유아가 일상생활 속에서 바람직한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함.
- 특히 바른 생활습관을 형성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어려움이 있는 영유아의 경우 더 많은 관심과 지도가 요구됨.

□ 기본생활 영역의 문제행동 유형

- 기본생활습관은 영아기부터 형성되는 것이나 문제행동으로 여겨지는 것은 주로 유아기부터 해당됨.

-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이 지도에 어려움이 있는 문제행동과 지도 방법을 식사, 배설, 휴식, 청결, 공동생활의 5가지 유형, 총 26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함.

나. 기본생활 영역의 문제행동 유형별 발달 특성

□ 식사

- 영유아가 습득해야 하는 식사습관은 균형잡힌 식사습관, 규칙적인 식사습관, 예절바른 식사습관으로 구분됨.
- 영유아는 다음과 같이 연령에 따라 식사능력이 발달함.

〈표 1-1-1〉 연령에 따른 식사능력의 발달

연령	식사능력
0~1세	- 모유나 인공유만 하던 영아가 6개월부터 반유동식도 맛볼 수 있게 되며 일정 시간에 이유식을 먹음 - 8개월 이후부터 고형식을 맛볼 수 있게 되면서 수저를 이용해 스스로 먹는 연습을 시작함
1~3세	- 소근육 발달이 이루어져 혼자서도 숟가락이나 포크를 잡고 음식을 먹을 수 있음 - 음식을 스스로 먹는데 즐거움을 느끼지만 아직 음식을 먹다 흘리는 경우가 종종 있음 - 다양한 맛을 즐기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많아지지만 맛이나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생김
3~4세	- 신체활동량이 많아지고 신진대사와 소화흡수기능이 좋아지면서 식욕이 증가하고 식사량도 늘어남 - 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지만 아직 능숙하지는 않음 - 바르게 앉아서 올바른 태도로 식사에 임할 수 있음
4~5세	- 다양한 식재료나 음식에 대한 이해수준도 점차 높아지고 관심도 많아지며, 골고루 먹는 것이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명확하게 알게 됨 - 식사도구 사용도 능숙해지고 다양한 맛과 음식에 익숙해지면서 식사시간을 보다 편안하게 즐길 수 있음 - 식사 규칙이나 예절을 구체적으로 배우고 실천할 수 있음

자료 : 이순형 외 (2013). 아동생활지도. 학지사.

□ 배설

- 영유아가 습득해야 하는 배설 관련 과업은 성공적으로 대소변 훈련을 마쳐서 주간, 야간에 화장실을 이용하여 배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임.

- 영유아는 다음과 같이 연령에 따라 배설 기능이 발달함.

〈표 1-1-2〉 연령에 따른 배설 기능의 발달

연령	배설 기능 발달
0~6개월	- 방광에 소변이 쌓이면 반사적으로 소변을 배설하지만, 소변보는 간격은 점차 1~2시간 정도 길어짐
6~10개월	- 영아의 방광은 점차 커져서 어느 정도 소변을 참을 수 있음
10~18개월	- 신경 및 뇌가 발달하여 방광의 감각을 느낄 수 있음 - 한두 마디 말을 할 수 있고, 걸을 수 있어서 대소변 훈련을 준비할 수 있는 시기임 - 젖은 기저귀나 옷을 가리키거나 만지며 불편함을 표현함 - 변기에 배설하는 것을 싫어할 수 있음
18~24개월	- 방광이 좀 더 커져서 보다 많은 양의 소변을 모을 수 있음 - 대변이 나오는 느낌을 지각할 수 있어서 대소변 훈련을 시작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로 대소변과 관련된 간단한 용어를 이해하여 사용할 수 있음
24~30개월	- 소변이 마려워도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을 만큼 방광의 조절능력이 발달하여 스스로 화장실 변기에 가서 소변을 볼 수 있음
30~36개월	- 배설 의사를 표현하고 화장실에 가고 싶음을 말할 수 있으며, 밤에도 소변을 보지 않을 정도의 통제 능력이 생김

자료 : 조운주, 최일선 (2013).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유아생활지도(제3판). 창지사.

□ 휴식

-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요구되는 휴식시간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이중 1~2시간은 낮잠으로 보충함.
- 영유아는 다음과 같이 연령에 따라 필요로 하는 휴식시간에 차이가 있음.

〈표 1-1-3〉 연령에 따른 휴식시간

연령	전체 휴식시간	낮잠시간
2개월 이전	18~20시간	1시간 30분 ~ 2시간
2~6개월	16~18시간	
6~12개월	14~16시간	
1~2세	12~14시간	
3~4세	10~12시간	1시간 ~ 1시간 30분
5세	10시간	30분 ~ 1시간

□ 청결

- 영유아가 습득해야 하는 청결습관은 자기 몸에 대한 청결과 주변 환경에 대한 청결로 구분됨.

〈표 1-1-4〉 청결습관 지도의 내용

구분	지도 내용
자기 몸에 대한 청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밖에서 놀다가 실내로 들어오거나 식사 전후, 용변 후에 손 씻기 - 식사를 한 후와 잠자기 전에 이 닦기 -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세수하고 규칙적으로 목욕하기 - 규칙적으로 손, 발톱 깎기 - 머리를 단정하게 손질하기 - 옷차림을 깨끗이 하고, 속옷 자주 갈아입기 - 용변 후 깨끗이 처리하기
주변 환경에 대한 청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물건과 사용한 놀잇감 스스로 정리하기 - 사용한 물건 제자리에 놓기 - 휴지 함부로 버리지 않기 - 벽이나 공용 물품에 낙서 하지 않기 - 화장실 등 공공 시설물을 깨끗하게 사용하기

- 영유아는 다음과 같이 연령에 따라 청결 능력이 발달함.

〈표 1-1-5〉 연령에 따른 청결 기능의 발달

연령	발달특성
0~2세	- 돌이 되기까지는 더럽고 깨끗한 것을 구분할 줄 모르지만, 돌 이후에는 점차 언제 씻어야 하는지를 알게 됨
3세	- 어느 정도 씻는 것에 익숙해지고, 서툴지만 혼자서 양치질을 할 수 있고 손을 닦을 수 있음
4~5세	- 혼자서 양치질과 세수를 할 수 있음

□ 공동생활

- 3세경에 유아는 질서를 이해하기 시작함.
- 영유아는 발달 특성상 주변의 사물이나 환경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탐구하려는 충동이 강한 반면, 신체 운동 능력의 발달이 충분하지 않고, 상황 판단 및 대처 기술도 미흡하여 성인들에 비해 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많음.
- 안전습관 지도의 내용으로 생활안전, 놀이안전, 교통안전, 재난안전, 대인안전, 약물안전 등으로 구분됨.

2. 기본생활영역 문제행동 사례목록

- 식사, 배설, 휴식, 청결, 공동생활의 5가지 유형, 총 26가지 사례로 구분됨.
- 영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식사 관련 문제행동을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그 외 문제행동은 영유아 공통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행동에 해당함.

〈표 1-2-1〉 기본생활 영역 문제행동 사례목록

구분	번호	문제행동 사례	유형	
영아	1	- 이유식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A. 식사	
	2	- 젓병을 떼지 못하는 경우		
	3	- 공갈젓꼭지에 집착하는 경우		
영유아	4	- 편식 : 고기만 먹고 채소를 먹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A. 식사	
	5	- 편식 : 과자 등 군것질만 먹는 경우		
	6	- 새로운 음식을 거부하는 경우		
	7	- 잘 먹지 않거나 먹기 싫으면 입에 물고 있는 경우		
	8	- 제자리에서 먹지 않고 돌아다니는 경우		
	9	- 스스로 먹지 않는 경우		
	10	- 식사 예절이 부족한 경우		
	11	-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		B. 배설
	12	- 잠을 자는 동안 소변 실수를 자주 하는 경우		
	13	- 소변을 참다가 자주 옷에 실수하는 경우		
	14	- 어린이집에서 잠자기 어려워하는 경우	C. 휴식	
	15	- 씻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D. 청결	
	16	- 이를 닦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17	- 지나치게 청결한 경우		
	18	- 계절이나 상황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려고 하는 경우		
	19	- 옷이나 신발을 입고 벗지 못하는 경우		
	20	- 스스로 옷이나 신발을 입고 벗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21	- 자기 물건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		
	22	- 정리정돈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23	- 차례를 지키거나 기다리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우		E. 공동생활
	24	- 어린이집에서 위험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25	- 어린이집 버스에서 심하게 장난을 치거나 의자에 앉아 있지 않는 경우		
	26	- 어린이집 하루일과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		

3. 기본생활영역 교사 지도 방안

□ 기본생활 지도의 일반적 원리

- 영유아의 자율성을 키워주어 영유아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어 지도함.
- 잘못된 행동에 대한 꾸중보다는 행동의 의도나 노력에 대한 긍정적 강화 등을 통해 영유아가 스스로 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도록 함.
- 언어를 통한 지시나 훈육보다는 교사가 기본생활에 대한 모범을 보여 주어서 영유아가 이를 보고 배워서 습관을 몸에 익히도록 함.
- 반복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져야 함
- 영유아의 발달단계와 개인차를 고려하여 지나치게 빨리 기본생활 관련 자조능력을 갖추도록 강요하지 않음.
- 가정과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어린이집에서의 지도가 가정과 지역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효과적임.

□ 식사 지도 방안

- 영유아의 발달 수준과 건강 및 기분 상태 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지도함.
- 지나치게 모든 음식을 다 먹어야 한다는 점, 교사의 도움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먹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도록 함.
- 영유아의 식욕이 쉽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함.
- 무엇보다도 식사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함. 식사시간에 항상 늦게 먹거나 못 먹는 것이 많았던 경험은 영유아로 하여금 식사에 대한 부정적 개념을 심어주고, 영유아의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교사나 부모가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먹고 즐겁게 식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올바른 식습관의 모델이 되어주도록 함.
- 정신적 스트레스가 식욕과 식사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함.

□ 배설 지도 방안

- 배설의 문제는 영유아에게 수치심이나 죄의식 등을 느끼게 하고, 자신감을 상실하게 하는 등 정서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음.

- 배설장애를 보이는 영유아는 정서적으로 쉽게 긴장하고 예민하며 심한 경우 불안 증세를 동반하기도 함. 또한 자신감이 부족하고 열등감이 있어 대인관계에서 위축되거나 놀림당하는 대상이 되기 쉬움.
- 실수한 영유아를 꾸중하여 영유아에게 열등감이나 죄악감, 노여움을 일으키게 해서는 안 되고, 실수한 경우에도 야단을 치거나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보다 영유아를 감정적으로 안심시켜야 함.
- 실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칭찬하고 격려함.
- 배설 실수 시기, 실수 횟수, 실수 장소, 영유아의 반응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하여 문제 상황 및 원인을 명확히 파악한 후 관찰된 결과를 기초로 지도 방향을 설정함.
- 신체적으로 결함이 없는 경우 성장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심각한 문제로 삼기보다는 교사가 여유로운 태도를 가짐으로써 영유아로 하여금 편안함을 줄 필요가 있음.
- 배설 관련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소변 훈련을 할 때 어린이집과 가정의 절대적인 협력 하에 일관성 있는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휴식 지도 방안

- 부모들이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재우면 밤잠을 방해한다고 휴식시간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영유아는 낮에 충분한 휴식, 즉 낮잠을 자야 피로가 풀리고 면역력을 높여주어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매일의 생활을 할 수 있음.
- 개별 영유아의 체질 및 생활리듬이나 수면습관을 잘 알고 개별적인 배려를 통해 융통성 있게 적용해야 함.
- 충분한 낮잠시간이 꼭 필요한 영유아에게는 다른 영유아보다 더 오랜 시간 낮잠 및 휴식을 취하도록 배려해야 하지만, 반대로 낮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영유아에게 낮잠을 강요해서는 안 됨.
- 4~5세 유아의 경우 잠자기 싫어하는 유아를 강제로 재우기보다는 다른 유아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면서 쉬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영유아들이 하루일과 중 필요한 경우는 언제나 개별적으로 휴식을 취하도록 공간을 마련해주고 설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줌.

□ 청결 지도 방안

- 성인의 관점에서 강제적이고 지시적인 청결 지도를 하기 보다는 영유아에게 청결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여 청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함.
- 영유아의 개인적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지도해야 함. 영아의 경우 교사가 씻겨 주거나 보육실의 놀잇감을 정리해 주는 것이 적절하고, 2세경부터 스스로 해보도록 시도를 격려하며 3세 이후에는 영유아가 먼저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후 교사가 도움을 주는 것이 적절함.
- 억지로 씻기거나 씻게 하면 청결에 대한 거부감을 가질 수 있으며, 물이나 비누 등에 대해 두려움이나 공포감을 갖게 될 수 있으므로 씻는 행위를 즐거운 놀이로 여길 수 있도록 함.
- 정리정돈을 하기 쉽도록 환경을 구성하여 영유아가 정리정돈에 대해 지나치게 부담감을 갖지 않고 정리정돈 자체도 놀이로 생각할 수 있도록 지도함.

□ 공동생활 지도 방안

- 영유아의 자기중심적 사고 경향을 이해하며 지도함.
- 영유아의 욕구, 발달단계, 개인차를 고려하여 발달에 적합하게 지도함.
- 질서 및 안전규칙을 교사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알려주기보다 영유아와 함께 논의하여 정하는 것이 규칙의 내용 인지 및 실천에 더 효과적임.
- 이론중심이 아니라 실천적인 경험을 통해 안전 지식과 안전한 행동 등을 몸으로 익힐 수 있도록 함.
- 시설 설비의 안전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영유아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함.

II. 「기본생활영역」 문제 행동지도의 실제

1. 이유식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11개월 여아>

○○은 이유식 초기에는 먹는 양이 많았다. 이유식 먹는 것도 즐기고, 이유식 중간에 분유도 다른 영아들보다 더 많은 양을 먹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유식을 입에 넣어주어도 먹지 않고 자꾸 뱉어내기만 한다. 분유는 여전히 이전과 비슷한 양을 먹지만 이유식의 경우 양이 이전에 비해 반도 안 되어 보인다. 교사가 주의를 끌며 재미있게 먹여보려고 노력하지만 어떤 종류의 이유식이든 숟가락이 입에 닿으면 입을 다물어 버리고, 조금이라도 입안에 들어가면 그대로 뱉어내며 울음을 터뜨린다.

가. 원인 분석

- 신체적 질병이나 상태
 - 입안이 헐거나 구내염이 있는 경우
 - 감기 등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특정 영양분 부족으로 인한 식욕 저하
(육류 섭취가 부족한 경우, 철결핍성 빈혈로 식욕 저하 됨)
- 이유식 외의 음식량 과다
 - 이유식 외에 모유나 우유, 간식의 양이 많아 필요한 에너지가 충족되는 경우
- 발달과정적인 특성
 - 일반적으로 생후 10개월이 넘으면 이전보다 노는 시간이 많아지고 외부환경에 대한 호기심 증가로 이유식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수 있음.
- 이유식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

- 먹이는 사람이 먹는 것을 강요하여 힘으로 제압당했거나 억지로 먹었던 경험으로 인한 이유식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

나. 지도 방법

- 영아의 건강상태 점검하기
 - 영아의 건강상태로 인해 식욕이 저하된 경우가 아닌지 자세히 관찰하고, 이에 대해 지도가 어려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과학적인 원인을 찾도록 함.
- 이유식 먹는 것에 집중하도록 하기
 - 발달적으로 외부자극에 호기심이 많아진 영아가 이유식 먹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먹는 시간에는 최대한 외부자극(놀잇감, 다른 활동 소음 등)이 없도록 함.
- 즐겁게 먹도록 하기
 - 영아가 이전의 부정적 경험을 잊을 수 있도록 이유식 먹는 시간의 분위기를 전환해보기(음악 들려주기, 식기와 숟가락을 다른 재질로 바꾸어 주기 등)
 - 이유식을 숟가락으로 떠먹는 형태 외에 손으로 집어 먹을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해 주어, 영아가 직접 손으로 만지고 입에 넣어보며 탐색하도록 하여 음식 먹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도록 하기
 - 영아가 즐겁게 놀이한 후 기분이 좋을 때 먹도록 하여 먹는 것에 대해 좋은 감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
- 먹는 양 점검하기
 - 하루에 섭취하는 이유식, 우유, 간식의 양을 점검하고 기록하여 영아가 먹고 있는 음식의 종류와 양을 파악하여 조절하도록 함.

다. 유의사항

- 가정에서의 지도 방법
 - 영아에게 제공하는 이유식의 종류와 조리형태, 질감 등이 월령에 적절한지 점검하기
 - 다양한 재질, 색의 식기와 숟가락으로 영아가 호기심을 가지도록 하기

- 먹여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아가 먹는 시간에 손으로 집어먹고 숟가락으로 음식을 뜨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 영아가 먹고 싶지 않아할 때는 인정해 주고 잠시 후에 다시 시도해 보기
- 먹지 않는 것이 지속되어 영양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원인 찾아보기

□ 참고자료

※ 이유식 단계별 형태		
구분	월령	이유식 형태
꿀꺽기	4-5개월	수분이 많고 주르륵 흐르는 미음 상태 (사과: 잘게 썰어 삶은 후 으갠 상태)
오물오물기	6-8개월	숟가락을 기울였을 때 푹 떨어지는 상태 (사과: 0.5cm 네모로 썰어 부드럽게 삶은 상태)
남남기	9-10개월	수분이 많고 진득진득한 진밥 상태 (사과: 0.7cm 네모로 썰어 살짝 삶은 상태)
아삭아삭기	12-17개월	약한 불에서 몽근하게 끓인 진밥 상태 (사과: 1-2cm 네모로 썰어 살짝 삶거나 날것 상태)

자료 : 성동구 보건소(2007). 튼튼한 우리 아기를 위한 영양 만점 이유식.

2. 젖병을 떼지 못하는 경우

<20개월 남아>

○○은 아침에 등원 길에 젖병에 물을 담아 먹으면서 등원한다. 하루일과 중에도 잠이 오거나 심심한 기분이 들 때면 젖병을 빨고 싶어한다. 간식시간에는 주스나 우유는 컵에도 잘 마신다. 특히 낮잠시간에 잠이 들기 전이나 자고 일어난 후에는 젖병을 찾으며, 없는 경우에는 심하게 울며 불안해한다.

가. 원인 분석

부모의 양육태도

- 일반적으로 돌 무렵이 되면 서서히 수유량을 줄이다가 15개월 경에는 완전히 젖병을 떼는 것이 좋음.
- 돌 이후에도 영아가 컵으로 먹거나 빨대를 사용하는 등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돌 이후에도 영아가 울거나 보챌 때 무조건 젖병을 주었던 경우

정서적인 불안

-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 빠는 것으로 불안을 해소하고자 함.

나. 지도 방법

젖병 외의 도구 사용 기회 주기

- 젖병 외에 컵이나 빨대 등을 사용하게 하여 젖병이 아닌 다른 도구를 이용하여 음식을 먹도록 하기

정서적 안정을 위한 대체물 제공하기

- 낮잠시간이나 불안할 때 젖병을 찾는 경우 젖병 외에 영아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체물 제공하기(좋아하는 인형, 어릴 때 덮던 이불, 엄마 사진 등)

다. 유의사항

가정에서의 지도 방법

- 울거나 보챌 때 무조건 젖병 주지 않기
- 밤에 잘 때 젖병을 물고 자지 않도록 하기
- 젖병 외에 여러 가지 형태의 빨 수 있는 컵(빨대컵, 스파우트 컵 등)을 제공하여 영아가 빨고 싶어하는 욕구 충족시켜주기

□ 참고자료

※ 젓병과 치아우식증과의 관계

△ 유치 충치 방치하면 영구치와 성장 발육에 악영향 = 유치는 생후 6개월 무렵 아래턱 앞니가 나오는 것을 시작으로 24개월까지 모두 20개나 나온다. 이런 유치는 음식 씹기, 발음, 잇몸뼈와 턱뼈 성장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유치 밑에는 영구치의 싹이 자라고 있어 충치를 치료하지 않으면 영구치와 잇몸에 악영향을 미친다. 또 충치가 심하면 영양섭취를 방해해 성장발육에도 지장을 준다. 게다가 충치 때문에 유치가 일찍 빠지면 인접 치아들이 빈 공간으로 쓰러져 영구치가 제자리를 차지 못하고 입모양이 변할 수 있다. '곧 빠질 치아'라고 해서 유치를 소홀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유치 관리를 위해서는 처음 이가 난 후 6개월 안에 치과를 방문하고 이후에는 3개월마다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 젓병 물고 잠드는 습관 고쳐야 = 유치의 맨 바깥층 법랑질은 영구치의 절반 두께밖에 되지 않아 당분과 산 등에 쉽게 상한다. 젓병을 입에 물고 자거나 모유수유 중 잠들면 충치가 생길 수 있다. 이를 '우유병우식증'이라고 한다. 2세 이하 영아의 위쪽 앞니 4개에 주로 생기는 우유병우식증은 우유나 모유가 윗입술과 치아 사이에 고여 윗니 앞쪽부터 이가 하얗게 변하는 것이 특징이다.

자료 : 연합뉴스(2013, 3, 15). 젓니 건강.우유병 우식증 막고 치발기는 깨끗하게

3. 공갈젓꼭지에 집착하는 경우

<18개월 여아>

○○은 공갈젓꼭지를 목에 걸고 등원한다. 하루일과 중에도 거의 모든 시간에 공갈젓꼭지를 빨고 싶어 한다. 밥을 먹거나 간식을 먹는 시간, 실외에서 신체 놀이를 하거나 ○○가 좋아하는 소꿉놀이를 할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공갈젓꼭지를 빨고 있다. 교사가 공갈젓꼭지를 입에서 빼려고 시도하면 이빨로 짹 물어 못 빼게 하고 빠지는 경우에는 울음을 터뜨리며 힘들어한다. 특히 낮잠시간, 놀이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흥미를 찾지 못한 경우에는 공갈젓꼭지 빠는 것에 열중하기도 한다.

가. 원인 분석

부모의 양육태도

- 습관적으로 입에 물고 있는 공갈젓꼭지를 빼고, 다른 상호작용을 시도하지 않은 경우
- 영아가 울거나 보챌 때 무조건 공갈젓꼭지를 물려주었던 경우

영아의 발달과 흥미에 적절한 외부자극 부족

- 생후 6-7개월까지는 빨고 싶은 욕구가 강함. 그 이후로는 다른 욕구로 옮겨가며 사용횟수가 줄어들음.
- 영아가 관심을 가질 만한 외부자극이나 상호작용이 부족하여 빠는 욕구가 다른 욕구로의 전이가 어려운 경우

나. 지도 방법

부모와 긴밀히 협조하기

- 가정에서 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공갈젓꼭지 사용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함께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기

영아에게 발달에 적절한 흥미 있는 활동 제공하기

- 영아의 발달이나 흥미수준을 파악하여 영아가 호기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적절하고 지속적인 자극 제공하기
- 영아가 놀이를 못 찾거나 지루한 시간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교사가 놀이를 제안하고 함께하기

다. 유의사항

가정에서의 지도 방법

- 울거나 보챌 때 혹은 보상의 개념으로 공갈젓꼭지를 제공하지 않기
- 영아가 흥미 있는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함께 놀이하고, 대화하면서 영아가 다른 외부자극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도록 하기

□ 참고자료

[잘못된 육아상식] 공갈젓꼭지를 물리면 이점이 많다?

당연히 아닙니다!

공갈젓꼭지를 사용하면 부모들이 아이를 달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아이가 젖을 먹는 사이에 조용해지며 만족하게 만들 수 있어서 전세계적으로 애용되고 있습니다.

모유 수유를 하고 엄마들은 자신의 젓꼭지가 공갈젓꼭지로 이용되지 않기 위해 공갈젓꼭지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공갈젓꼭지는 편리한 반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의도하지 않게 모유수유를 중단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중이염이 발생하며, 아구창과 충치가 발생합니다. 또한 젖을 빠는 패턴이 바뀌게 됩니다. 모유수유를 하는 엄마에게는 모유수유로 인한 피임기간이 짧아지고 유선염이 걸리게 됩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모유 수유하는 기간이 짧아집니다. 이것은 브라질, 뉴질랜드, 스웨덴, 미국 등지에서 많은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이것의 원인은 공갈젓꼭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모유 수유를 하는 엄마가 젖을 물리는 횟수를 줄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자주 공갈젓꼭지를 물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공갈젓꼭지가 먼저일까요 아니면 엄마의 모유수유를 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부족해서가 먼저일까요?

둘째, 공갈젓꼭지를 출생 후 얼마 되지 않아 물리게 되면 모유 수유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가 젖을 빠는 기술을 공갈젓꼭지 때문에 잘못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생 직후 젖을 물리지 않고 젖병으로 주었을 때 모유 수유를 실패하는 경우와 유사합니다. 아이가 공갈젓꼭지나 젖병의 젓꼭지를 빨다보면 아이는 엄마 젖을 물렸을 때 똑같은 방식으로 물게 되고 이렇게 되면 엄마의 젓꼭지를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규칙적으로 공갈젓꼭지를 사용하면 체중 증가가 늦습니다. 초기에 아이가 공갈젓꼭지를 물게 되면 엄마 젖을 효과적으로 빨지 못하며 이는 아이가 모유를 잘 먹지 못하고 따라서 체중 증가가 늦게 됩니다. 이런 경우 칼로리와 지방이 많은 후유(後乳)를 먹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아이들은 배고플 때 울면 엄마가 젖을 물려야 하는데 공갈젓꼭지를 물고 있으면 배가 고파도 잘 울지 않습니다. 따라서 젖을 먹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넷째, 공갈젓꼭지는 중이염과 관련이 있습니다. Pediatric Dentistry에 1999년과 2001년에 실린 논문을 보면 공갈젓꼭지를 사용한 경우 ear infection(중이염)의 발생이 높다고 합니다. 이것은 공갈젓꼭지를 빨면 침이 많아지고 Eustachian tube(유스타키오관)로 많이 전달기 때문이라는 가설과 공갈젓꼭지를 빨면 Eustachian tube(유스

타키오관)의 정상 기능에 변화를 초래하게 되고 따라서 구강내 균들이 증이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섯째, 공갈젓꼭지를 사용하면 아구창에 잘 걸립니다. 아구창을 일으키는 진균은 습기가 있는 표면에 적당한 온도에서 잘 자랍니다. 따라서 공갈젓꼭지는 이런 진균을 아이에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핀란드의 한 연구에서 candida(칸디다균)의 발생이 공갈젓꼭지를 사용하는 아이들에게 많다는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만약 아구창이 생긴 아이가 공갈젓꼭지를 사용한다면 매일 5분간 젓꼭지를 삶아야 하고 치료가 된 1주 후에는 새 공갈젓꼭지를 사야합니다.

여섯째, 공갈젓꼭지는 충치가 발생할 수 있고 치과 교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규칙적으로 공갈젓꼭지를 사용하면 이가 자라는 것과 입의 모양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따라서 나중에 치과 교정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핀란드의 한 연구에 의하면 공갈젓꼭지를 사용하면 구강내 세균이 늘어나고 이는 충치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일곱째, 공갈젓꼭지를 사용하면 엄마에게 유선염을 초래합니다. 이것은 아이가 젖을 무는 횟수와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여덟째, 아이가 공갈젓꼭지를 규칙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엄마의 모유수유로 인한 피임기간이 짧아집니다. 공갈젓꼭지는 아이의 sucking reflex(빨기반사)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엄마의 젖을 빠는 시간이 줄어들고 피임과 관련된 호르몬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오히려 아이를 빨리 갖고 싶은 엄마는 공갈젓꼭지를 아이에게 물리면 됩니다.

자료 : 대한 소아청소년과 개원 의사회

4. 편식 : 고기만 먹고 채소를 먹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2세반>

○○이는 점심시간에 고기 이외의 반찬이 나오면 전혀 먹지 않는다. 특히 채소 종류의 반찬이 나오면 교사가 권유해도 먹어보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거나, 시도를 하다가도 그대로 뱉어버린다. 고기 반찬에 다른 채소 반찬을 잘 보이지 않도록 섞어 주더라도 입 안에서 다른 감촉이 느껴지면 바로 뱉어낸다. 교사의 권유로 어쩔 수 없이 채소를 삼켰다가도 헛구역질을 하거나 실제로 토하는 경우도 있다.

가. 원인 분석

발달적 특성

- 아기는 성인의 3배 정도 더 많은 수치인 대략 1만 개의 미뢰를 갖고 태어남
- 미뢰가 많아 맛을 더욱 강렬히 느끼게 되는데, 미뢰 수가 줄어드는 8세 이전의 영유아에게 편식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됨.
- 낯선 음식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하는 음식 네오포비아가 2~5세경에 두드러지게 나타남.

이유식의 실패

- 적절하지 않은 질감과 냄새, 조리방법 및 선호하는 음식만을 제공

부모의 양육태도

- 무분별하게 간식을 주거나 원하는 음식만을 제공

부모의 편식으로 인한 다양한 음식 경험 부족

부정적 경험

- 먹기 싫은 음식을 억지로 먹고 구토를 했거나 먹기를 지속적으로 강요당해 위축된 경험이 있는 경우

나. 지도 방법

억지로 먹이지 않기

- 영유아가 먹지 않는 음식의 종류와 조리방법에 따른 선호 등을 상세히 관찰함
- 억지로 음식을 먹이는 경우 영유아들이 식사시간이나 음식에 대해 거부감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억지로 먹이지 않도록 함.
- 영아의 경우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음식을 시도할 수 있게 해주거나 조리방법을 바꾸어 영아가 먹는 것을 시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예) 음식 크기 : 작은 것 → 큰 것
- 유아의 경우에는 음식이 먹기 힘든 이유를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음식의 모양과 색, 자라는 과정 등의 특징과 좋은 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서 영유아가 관심을 가지도록 함.

예) 오늘 먹은 음식 색깔에 맞추어 활동지(무지개색) 색칠하기

- 교사가 채소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

□ 스스로 시도할 수 있도록 하기

- 유아의 경우 또래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먹기 힘들었던 것에 대해 스스로 목표를 세워보도록 함.
- 교사는 목표를 달성한 것 자체 보다는 유아의 시도 자체를 격려하도록 함.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는 오늘 당근을 몇 개 먹어볼까요? ○○가 떨어볼래?”

“○○는 브로콜리 먹기가 좀 힘들었는데, 오늘은 직접 떨어진 브로콜리를 다 먹었네요.”

□ 채소에 대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 각 계절마다 나는 제철 채소와 과일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육실의 환경을 구성하고 관련된 활동을 계획함.
- 제철에 나는 채소와 과일을 맛 볼 수 있는 요리 활동이나 맛보기 활동을 실시함
- 어린이집의 텃밭 또는 보육실 내에서 화분을 이용해 여러 가지 채소를 함께 키우면서 영유아가 채소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
- 편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동화, 노래, 동영상 등을 영유아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함.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은 브로콜리 먹기가 좀 힘들었군요. 선생님이 자세히 보니까 브로콜리가 우리 어린이집 앞에 있는 나무처럼 생겼네요.”

“우리 반에 토마토 화분이 생겼어요. 우리가 물도 주고 잘 돌봐주면 정말 먹을 수 있는 빨간 토마토가 열린대요. 우리 반 화분에 열린 토마토는 어떤 맛일까요?”

□ 푸드브릿지(Food Bridge) 기법 사용하기

- 푸드브릿지 기법이란, 같은 재료를 이용해 단계별로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여 싫어하는 음식을 친숙하게 만드는 방법
- 싫어하는 음식을 영유아가 좋아하는 데는 최소 8번 이상의 노출이 필요함.

단계	내용	예시
1단계	싫어하는 재료를 놀이도구나 식기로 활용해 시각적으로 친숙하게 만들기	파프리카를 용기로 하여 계란찜 만들기
2단계	재료를 알아볼 수 없게 하되 모양이나 색 등으로 호기심을 자극하기	파프리카로 만든 칼국수
3단계	영유아가 거부감을 갖거나 골라내지 않도록 다른 재료와 섞어서 주기	파프리카 고기전
4단계	셰이크나 셔벗 등으로 만들어 재료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파프리카 셰이크

다. 유의사항

□ 가정에서의 지도 방법

- 싫어하는 음식에 대한 강요가 식사시간에 계속되다 보면 영유아는 점점 더 해당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심해지게 됨.
- 어린이집과의 긴밀한 대화를 통해 동일한 목표와 기준으로 지도하도록 함.
- 조리 시 채소를 이용한 육수를 사용하거나 채소를 곱게 다져 좋아하는 고기나 다른 재료와 섞어 조리하는 등 다양한 조리방법을 사용하여 영유아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함.
- 부모가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는 것을 보게 하거나 자녀와 함께 식사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됨.
- 채소를 썰거나 씻는 등 영유아가 할 수 있는 부분에 함께 참여하도록 함.

5. 편식 : 과자 등 군것질만 먹는 경우

<3세반>

○○은 아침에 등원길에도 늘 과자를 먹으면서 등원한다. 간식시간에는 빵이나 주스 같은 단 맛이 나는 간식은 잘 먹지만, 다른 음식은 교사가 권유해도 먹는 시늉만 한다. 그리고도 점심시간에는 밥을 먹는 등 마는 등 한다. 부모도 밥을 잘 먹지 않으니 배가 고플 것이라고 생각해 ○○을 데리러 오는 길에 좋아하는 간식류를 사오는 경우가 많다.

가. 원인 분석

- 부모의 양육태도
 - 밥을 안먹는 영유아가 안쓰러워 간식을 주거나 영유아가 원하는 것을 거절하지 못함.
- 불규칙한 식사습관
 - 불규칙한 식사시간이나 장소, 불규칙한 생활습관으로 인해 쉽게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음식을 주로 먹는 경우

나. 지도 방법

- 간식 양 조절하기
 - 간식 양을 조절할 때는 다른 영유아들에게도 함께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함.
- 조리법 조절하기
 - 점차 간식을 줄이면서 당이나 나트륨이 많이 든 음식, 기름에 튀기는 조리법 대신 천연 조미료를 사용하고 찌거나 굽는 등의 조리방법을 사용하여 자연식품을 이용한 간식을 먹도록 함.

다. 유의사항

□ 가정에서의 지도 방법

- 영유아가 해야 할 행동에 대해 ‘~하면 과자 줄게’ 등의 협상을 하면서 과자(군것질)를 협상의 수단으로 삼지 않기
- 과자나 간식을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기 시작하면 영유아는 다시 같은 상황을 만들어 과자나 간식을 상으로 받으려고 하는 일이 반복될 수 있음.
- 과자나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는 경우 당분이나 기름의 섭취가 많아져 점점 더 자연재료로 만든 음식의 맛을 느끼지 못하게 되므로 가능한 한 천연재료를 이용하여 간식 만들어주기
- 식재료 그대로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찌거나 삶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음식을 조리해 주기

□ 참고자료

※ 간식 선택 방법

△ 간식을 선택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 수분과 무기질, 비타민을 공급해줄 수 있는 식품으로 한다.
- 소화가 용이한 것. 정규 식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 유아의 시각적, 미각적 감각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한다.
- 계절 식품으로 신선미가 있는 것으로 한다.

△ 반면에 시판되는 과자, 음료수 등을 간식으로 주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것은 적당하지 않으므로 주지 않도록 한다.

- 착색 음료를 많이 사용해 색이 짙은 것
- 인공 감미료, 방부제 등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것
- 재료나 제조 방법이 명확하지 않은 것
- 제조일자나 생산 회사의 표시가 명확하지 않은 것
- 용기나 봉지가 깨끗하지 않은 것
- 위생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것

자료 : 이영 외(2011). 좋은 부모되기 첫걸음. 굿네이버스.; 허혜경·김성희(2008). 아동발달과 교육. 학지사.

6. 새로운 음식을 거부하는 경우

<3세반>

○○는 점심시간에 나오는 반찬 중 눈으로 보기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먹기 힘들어한다. 그동안 늘 먹었던 김이나 고기 반찬 만으로 밥을 먹기 일쑤이다. 교사가 한번만 먹어볼 것을 권유해도 모양이나 색깔, 질감이 이상하다는 말을 하며 절대 시도하지 않는다. 결국 낯선 재료로 만들어진 반찬은 그대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

가. 원인 분석

발달적 특성

- 3~5세경 좋고 싫음이 분명해지는 발달적인 특성
- 낯선 음식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하는 음식 네오포비아가 2~5세경에 두드러지게 나타남

부모의 양육태도

- 익숙한 음식만을 선호하는 영유아에게 좋아하는 음식만을 제공한 경우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기 어려움
- 부모의 편식으로 인해 다양한 음식에 대한 경험 부족

음식에 대한 다양한 경험 부족

- 이유식 시기부터 부모가 다양한 재료와 조리방법을 사용한 음식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영유아의 음식에 대한 기본적 경험이 부족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영유아의 기질적인 특성

새로운 음식에 대한 이전의 부정적 경험

- 새로운 음식을 먹고 목에 걸렸거나 억지로 먹어서 구역질을 하거나 토한 경험이 있는 경우

나. 지도 방법

□ 영유아의 정서 이해하기

- 영유아가 익숙하지 않은 것을 먹기 힘들어 할 수 있다는 것을 언어적으로 표현해 주고, 새로운 것에 대해 교사도 그러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기 힘들어하는 것을 나쁜 특성으로 단정 짓거나, 잘 시도하는 영유아가 우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지 않도록 주의하기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선생님도 멸치를 처음 봤을 때는 먹기 힘들었는데, 한 입 먹어보니까 바삭 바삭하고 짹짹해서 맛이 있었어요.”

□ 새로운 음식에 대한 소개하기

- 점심시간에 나온 반찬들에 대해 영유아들의 흥미와 발달수준에 맞게 설명해 주기
- 음식에 쓰인 재료가 어떻게 얻어지는지,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맛은 어떤 것과 비슷한지, 먹었을 때의 이점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오늘 나온 반찬 중에 이건 이름이 숙주나물이에요. 숙주나물은 모양이 우리가 많이 먹던 콩나물이랑 비슷하게 생겼네요. 맛도 비슷할까요?”
“숙주나물은 고소한 참기름이랑 소금을 넣어서 조물조물 무쳐서 만든 거예요.”

□ 숨겨진 식재료 알려주기

- 영유아가 먹기 힘들어하는 식재료가 보이지 않게 조리되어 제공된 경우 만약 그 음식을 잘 먹었다면, 다 먹을 때 즈음에 새로운 음식 재료가 영유아가 먹은 음식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 이러한 경험을 통해 영유아는 먹기 힘들었던 재료에 대한 선입견을 해소할 수 있고, 스스로 성취감도 느낄 수 있음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오늘 ○○가 스프를 맛있게 먹는구나. 그 스프에는 양파랑 감자가 들어있어요. 양파랑 감자로 이렇게 맛있는 스프를 만들 수 있어요”

□ 다양한 음식재료를 이용한 활동 실시

- 자르기 전의 채소나 식재료들을 영유아가 눈으로 보고 냄새를 맡아보고 만져 보는 등 감각적으로 익숙해 질 수 있도록 하기
- 낫선 음식으로 익숙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 다양한 채소를 이용해 도장찍기 놀이를 하거나 여러 가지 색 채소로 그림 그리기, 채소를 소재로 한 동화 들려주기 등의 활동 등을 실시할 수 있음
- 가능하다면 조리실에서 조리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하기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파프리카는 알록달록 여러 가지 색깔이네요. 파프리카에서는 어떤 냄새가 날까요?”

“가지는 이렇게 길쭉하고 ○○ 옷 색깔이랑 똑같은 보라색이네. 손으로 만져보니까 보들보들하네요.”

□ 푸드브릿지(Food Bridge) 기법 사용하기

- 푸드브릿지 기법이란, 같은 재료를 이용해 단계별로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여 싫어하는 음식을 친숙하게 만드는 방법
- 싫어하는 음식을 영유아가 좋아하는 데는 최소 8번 이상의 노출이 필요함

단계	내용	예시
1단계	싫어하는 재료를 놀이도구나 식기로 활용해 시각적으로 친숙하게 만들기	파프리카를 용기로 하여 계란찜 만들기
2단계	재료를 알아볼 수 없게 하되 모양이나 색 등으로 호기심을 자극하기	파프리카로 만든 칼국수
3단계	영유아가 거부감을 갖거나 골라내지 않도록 다른 재료와 섞어서 주기	파프리카 고기전
4단계	셰이크나 셔벗 등으로 만들어 재료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파프리카 셰이크

모델링하기

- 교사가 먹기를 권유만 하기 보다는 교사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기
- 새로운 음식을 잘 시도하는 영유아와 식사시간에 자리를 가깝게 해주어 또래의 모델링을 볼 수 있도록 해 주기

7. 잘 먹지 않거나 먹기 싫으면 입에 물고 있는 경우

<2세반>

○○은 무엇이든 잘 먹지 않는다. 등원할 때 무엇이랴도 먹이려는 엄마와 씨름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간식시간에는 좋아하는 메뉴가 나오면 적은 양이라도 먹지만 점심시간에는 먹고 싶지 않아하고, 밥 먹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다 보니 입에 음식을 그냥 물고 있는 경우가 많고, 적은 양도 교사가 먹여주면 억지로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먹는 양이 적다보니 또래에 비해 키도 작고 체중도 적은 편이며, 감기나 잔병치레가 잦은 편이다.

가. 원인 분석

가족적 경향

- 감각적으로 예민하여 음식의 질감이나 덩어리 혹은 냄새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함
- 가족적 특성으로 느린 성장패턴을 보이는 기간인 경우 정상적으로 식욕부진이 나타나기도 함.

활동성 낮음

- 잘 먹지 않는 영유아의 경우 활동적인 놀이를 거의 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부모의 과잉기대

- 영유아의 성장에 대한 부모의 과잉기대로 먹는 것을 지나치게 강요한 경우

이유식 실패로 인한 음식에 대한 거부감

- 이유식 시기에 적절한 크기의 질감이나 식사 분위기, 맛 등에서 불편함을 느꼈던 영유아의 경우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거부감이 생길 수 있음.
- 먹는 것에 대한 지나친 강요로 식사시간과 먹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

나. 지도 방법

- 영유아의 음식섭취에 대한 정보 수집하기
 - 영유아의 먹는 양, 선호하는 조리방법, 먹지 않는 이유, 가정에서 음식섭취 정도에 대해 관찰하고, 일주일 정도 영유아가 먹는 음식의 종류와 양을 자세히 기록해보기
 - ※ 일주일 정도 기록해보면 대부분은 그다지 적지 않은 양의 음식을 먹고 있음을 알게 됨.
- 단계별 목표 수립하기
 - 영유아의 음식섭취에 대해 이해하고 장기적으로 단계별 목표 세우기
 - 목표는 현재 상황에서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영유아가 성취감을 느끼고 목표를 달성하는 것 자체에 만족감을 느끼도록 하기
 - 연령이 높은 유아의 경우 교사와 함께 목표를 정하고 달성하게 하기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오늘은 ○○가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한 번 담아볼까요? 밥은 얼마나 담으면 좋을까요?”

“○○가 깨끗하게 다 먹었네요. 다 먹고 나니 기분도 좋아 보이는군요.”

- 음식에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활동 실시하기
 - 여러 가지 과일이나 채소 관찰하기, 직접 요리하기, 남겨진 밥이 하고 싶은 말 생각해보기 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실시하여 다양한 식재료와 음식을 경험하고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함.
 - 보육실 내에 음식과 관련된 자료(계절마다 나는 식재료들의 화보, 다양한 요리 사진, 영유아를 위한 요리책이나 음식에 대한 흥미를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림 책 등) 제공하기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여기 여러 가지 채소들이 있네요. 주황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색깔도 참 여러 가지예요. 손으로 한 번 만져볼까요? 선생님은 냄새도 맡아봐야겠어요.”

“선생님이 수수께끼를 낼 거예요. 이 채소는 주황색이고 길쭉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채소는 토끼가 좋아하는 채소예요. 무엇일까요?”

“그래요. 당근이에요. 당근은 어떤 맛이 날까요? 혹시 당근 먹어본 친구 있나요? 여기 당근이 있는데 손으로 만져보니까 보들보들하고 향긋한 냄새가 나네요. 먹으면 어떤 맛이 날까요? 먹을 때 아삭아삭 소리가 나는구나.”

다. 유의사항

□ 가정에서의 지도 방법

- 먹는 것으로 인한 부모와 영유아간의 갈등을 멈추고, 영유아에게 먹는 것에 대한 결정권을 온전히 맡기며 먹고 싶지 않다는 영유아의 몸의 느낌을 인정해 주기
- 식사시간에 대한 물리적인 환경(식기, 주방의 분위기 등)을 개선하도록 함
- 영유아가 직접 사용할 용기를 고르게 하거나 간단한 요리에 참여하게 하는 등 식사준비를 함께 하도록 함.
- 식기의 크기를 큰 것으로 하여 영유아가 음식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덜 느끼도록 함.
- 식사시간을 즐겁게 느껴지도록 식사시간에 가족 간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부모가 영유아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시간이 되도록 함.

□ 참고자료

※ 식욕 돋우기

△ 음식의 색 : 음식에 있어서 빨간색은 식욕을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크다. 오렌지색도 빨간색과 함께 식욕을 좋게 한다. 반면 녹색은 안정적인 느낌을 주나 보라색과 함께 식욕을 떨어뜨린다는 사실도 관찰된다. 그러나 빨간색과 녹색, 오렌지색의 조화는 맛을 즐기고 식욕을 돋우는데 아주 효과적인 배합이다.

△ 주변의 색상

식탁보는 흰색과 빨강색의 큰 체크무늬가 효과가 좋으며, 냅킨이나, 식탁 위의 장식품도 빨간색이나 오렌지색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

자료: 이영 외(2011). 좋은 부모되기 첫걸음. 굿네이버스; 덕성여자대학교 부속 유치원(2007). 유아영양과 요리활동. 창지사.

8. 제자리에서 먹지 않고 돌아다니는 경우

<2세반>

○○는 식사시간에 앉아있기 힘들어 한다. 밥을 몇 숟가락 뜨다가도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고 자리를 비운다. 혹은 밥을 먹다가 다른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러 돌아다니기도 한다. 교사가 자리에 앉아서 먹을 것을 알려주면 자리에 앉아 몸을 비비꼬며 힘들어하기도 한다.

가. 원인 분석

- 부모의 양육태도
 - 잘 먹지 않는 영유아에게 부모가 쫓아다니며 먹여주어 생긴 습관
- 불안정한 식사분위기와 환경
 - 지나치게 긴 식사시간
 - 식사시간 중 TV 시청이나 스마트 폰 사용 등으로 인한 식사에 대한 집중력 저하
- 수동적인 식사시간 경험
 - 스스로 밥 먹는 것을 시도할 기회를 주지 않고 먹여주어 식사하는 것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 경우
 - 영유아가 식사시간에 자신이 할 일이 없어져 다른 흥미거리를 찾아 돌아다니게 됨

나. 지도 방법

□ 식사준비에 참여시키기

- 식사시간에 수저 놓기나 컵 가져다주기 등 크고 작은 준비과정에 영유아를 참여시키기
- 연령이 높은 유아의 경우 유아와 의논하여 식사도우미의 역할을 정하고 차례로 역할을 해보면서 책임감을 가져보도록 하기

□ 친구와 함께 먹기

- 좋아하는 친구와 가깝게 자리를 앉게 하고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더라도 끝까지 앉아서 먹을 수 있도록 격려하기

□ 식사시간에 즐겁게 대화나누기

- 식사시간을 즐거운 시간으로 받아들이 수 있도록 식재료와 관련된 이야기나 하루일과 중 재미있었던 일, 혹은 식사 후 있을 흥미로운 만한 시간 등에 대해 즐겁게 이야기나누기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오늘 쌓기놀이에서 종이블록으로 자동차 길을 길게 만들었어요. 그 길에 터널도 만들고 주유소도 있어서 우리가 자동차 놀이를 재미있게 했어요. 오후 놀이 시간에는 블록으로 무엇을 만들어볼까요?”

“우리 밥 먹고 나서는 선생님이 ‘○○○○’이라는 책을 읽어줄 거예요. 그 책에는 아주 큰 괴물이 나오는데 어떤 괴물일까요?”

다. 유의사항

□ 가정에서의 지도 방법

- 부모가 쫓아다니며 먹이다 보면 영유아는 점점 더 식사시간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어 돌아다니는 행동이 강화될 수 있으므로 쫓아다니며 먹이지 말기
- 기관에서와 동일하게 적은 양을 먹더라도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하여 식사시간에 대한 개념이 생성되도록 하기
- 수저 준비하기나 밥이나 반찬 놓기 등의 식사준비에 참여시키기

- 준비 뿐 아니라 마실 물 가져다주기, 다 먹은 그릇 가져다 놓기 등 마무리할 때에도 역할을 주어 식사시간의 시작과 마무리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 식사시간에 영유아뿐 아니라 모든 가족 구성원이 TV 시청, 스마트 폰 조작, 책 보기 등 다른 활동을 함께 하지 말고 식사에만 집중하기

참고자료

- 건강송 동영상: 대구광역시 교육청 제작
-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소(<http://seogu.gwangju.kr/health/>): 자료실>건강증진 자료실> 어린이 건강체험터-재미있는 편식동화
- 서울특별시 식생활 정보센터(www.seoulnutri.co.kr)
- 식품의약품안전처(www.mfds.go.kr):정보자료>분야별정보>영유아제품정보>미취학 아동용 영양식생활 교육동영상, 유아식생활과 건강 교재
- 건강한 식생활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대한 지역사회영양학회 수행 www.mfds.go.kr/nutrition)
- 중앙보육정보센터(<http://central.childcare.go.kr>): 육아정보>영양정보
- EBS 다큐프라임 아이의 밥상

9. 스스로 먹지 않는 경우

<3세반>

○○는 식사시간에 음식을 앞에 두고도 가만히 앉아있는 경우가 많다. 가만히 앉아있거나 친구들과 이야기만 할 뿐 교사의 권유에도 스스로 거의 먹지 않는다. 보다못해 교사가 먹여주면 잘 먹지만 스스로 먹기를 권유하면 숟가락을 들고 뜨는 시늉만 할 뿐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한다.

가. 원인 분석

- 부모의 양육태도

- 잘 먹지 않는 영유아에게 부모가 쫓아다니며 먹여주어 생긴 습관
- 영유아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먹을 것을 사용하게 하는 양육태도
- 수동적인 식사시간 경험
 - 스스로 밥 먹기를 시도할 기회를 주지 않고 먹여주어 식사하기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 경우
- 소근육 조작 미숙
 - 소근육 발달이 미숙하여 음식을 스스로 떠먹기 힘들어 시도하지 않음

나. 지도 방법

- 적은 양부터 스스로 먹기를 시도하게 하기
 - 영유아가 적은 양부터 시도해 볼 수 있도록 목표를 제시하도록 함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오늘 이만큼은 혼자 먹어볼까요?”
“몇 숟가락 혼자 먹어볼까요? 오늘은 다섯 숟가락을 혼자 먹어보자.”
“○○가 다섯 숟가락 혼자 다 먹었네요.”

- 스스로 밥 먹기가 익숙해질 수 있는 연계활동 실시하기
 - 보육실 소꿉영역에서 음식을 차리고 먹는 놀이를 하면서 스스로 먹기를 연습해 보도록 함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우와 오늘 소꿉영역에 맛있는 음식을 많이 차렸네요. 숟가락도 있네요. 어떤 것부터 먼저 먹어볼까요? ○○은 뭐 먹어볼까요? 숟가락으로 떠 볼까요?”

- 소근육 발달을 돕는 활동하기
 - 소근육 발달이 미숙하여 스스로 먹기를 힘들어 하는 경우 보육실에서 소근육 발달과 협응 능력을 촉진할 수 있는 활동(숟가락으로 공 옮겨 담기, 그림그리기, 색종이 접기, 밀가루 반죽놀이, 점토 놀이 등)을 실시하여 참여하도록 함

다. 유의사항

가정에서의 지도 방법

- 부모가 쫓아다니며 먹이다 보면 영유아는 점점 더 식사시간에 스스로 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되므로 쫓아다니며 먹여주지 말기
- 기관에서와 동일하게 적은 양을 먹더라도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하기
- 영유아가 적은 양이라도 스스로 시도하는 모습을 보일 때 가족구성원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칭찬하고 격려해 주기

10. 식사에절이 부족한 경우

<3세반>

○○는 밥을 잘 먹고 가리는 음식도 거의 없다. 그런데 식사시간에 음식을 보면 손으로 집어서 먹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음식을 씹을 때 입을 벌리고 이야기를 하다가 입에 있던 음식물이 튀어 친구들이 불편해 하기도 한다.

가. 원인 분석

부모의 양육태도

- 영유아에게 식사시간에 식사 예절을 알려주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거나 무관심함

나. 지도 방법

정확한 한계 제시하기

- 영유아가 부족한 식사 예절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지켜야 하는 이유와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 정확하게 제시함.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음식이 입에 있는 데 이야기를 하면 입안에 있는 음식이 밖으로 튀어서 다른 친구들 음식에 튀고 기분이 안좋아질 수 있어요. 할 이야기가 있을 때는 입에 있는 음식을 다 삼키고 나서 하기로 하자.”

□ 식사 예절 교육하기

- 대집단 시간에 영유아들에게 그림 자료나 사진 자료를 이용하여 올바른 식사 예절 교육을 실시함.
- 식사 예절에 대한 그림책을 제공함.
- 식사 예절은 각 가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내용으로 교육하도록 함.

다. 유의사항

□ 급 간식 시간에 지도할 수 있는 식사 예절의 내용

음식을 먹기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 씻기 · 의자를 바르게 놓고 주변 정리하기 · 식사준비와 상차림 돕기 · 바른 자세로 앉기 ·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음식을 먹는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옷어른에 대한 예절 · 바른 자세로 앉아서 먹기 · 그릇과 수저를 바르게 사용하기 · 음식을 잘 씹어먹고 시끄러운 소리를 내지 않기 · 흘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흘린 음식 주워 먹지 않기 · 밥과 반찬은 고루 먹기 · 식사시간에는 제자리에 앉아있기 · 음식물을 입에 넣고 있을 때는 조용히 먹기 · 적당한 시간 내에 먹고 즐겁게 대화 나누기
음식을 먹은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 식탁과 주변 정리하기 · 사용한 식기 정리하기 · 양치하기

자료 : 이순형 외 (2013). 영유아 건강교육. 학지사.

11.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

<2세반, 남아> 대소변을 가릴 시기가 지났는데도 가리지 못하는 경우

○○는 현재 40개월인데 아직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 ○○부모님은 아빠가 늦게까지 기저귀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괜찮은 것인지 교사에게 물어보곤 한다. 3~4월에는 ○○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서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대소변 훈련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변기에 앉는 것을 싫어하고 변기에 앉아서 대소변을 보지 못한다. 대소변이 마렵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서 옷을 입히면 바로 옷에 실수를 하곤 한다. 반 영아들 중에 ○○만 아직 기저귀를 하고 있어 친구들이 ○○는 아가인지를 물어보기도 하여 내년엔 만 3세반이 되기 전에는 기저귀를 떼어야 할 것 같은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2세반, 여아> 대소변을 잘 가리다가 가리지 못하는 경우

○○는 이미 1세반 때 24개월 무렵에 기저귀를 떼었다. 그런데 최근 갑자기 옷에 대소변을 누는 등 실수를 하기 시작했다. ○○부모님은 ○○가 얼마 전 동생을 보면서 떼가 늘었다고 걱정을 하시며 ○○가 대소변 실수를 하게 되면 옷을 갈아입히고 다시 씻겨야 해서 너무 힘들어 자꾸 아이한테 짜증을 내게 된다고 하신다. 교사도 사실 7명의 영아들이 모두 대소변 훈련을 완료한 상황인데 ○○가 대소변 실수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 난감하다.

가. 원인 분석

- 배설의 문제는 발육의 지연, 방광 및 괄약근의 기능장애 및 신체적 질환, 유전적인 소인, 심리·정서적인 요인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함. 이중 실제 신체적 질환이 원인이 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고 대부분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생김.

□ 가족력

- 가족력이 있을 때 배설 문제가 더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가족 중에 늦게까지 대소변 실수를 한 사람이 있다면 영유아도 비슷한 경우일 확률이 높음.
- 즉 유전적으로 방광통제 능력이 천천히 발달되는 경우가 있는데, 남아들이 여아에 비해 2대 1 수준으로 발생률이 더 높다고 보고됨.

□ 신체적 요인

- 방광이나 항문, 대장의 신체적 문제가 있는 경우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의료적인 치료가 필요함.

□ 너무 이르거나 강압적인 대소변 훈련

- 영유아가 아직 생리적으로 대소변을 가릴 만큼 성숙하지 못했는데 너무 성급하게 일찍 대소변 훈련을 시작한 경우 처음에는 대소변 훈련에 성공해서 대소변을 잘 가리다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다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음.
- 지나치고 엄격하게 대소변 가리기를 강요할 때 무의식적으로 배설 실수를 하기도 하고, 이 때 꾸중을 하면 더욱 심해질 수 있음.
- 대소변 훈련을 안 시키고 무관심한 경우에도 습관이나 훈련 부족으로 배설 관련 부적응 행동이 생기기도 함.

□ 환경 변화

- 동생의 출생, 어린이집 입학, 부모의 불화, 이사, 가족의 사망 등 환경적 변화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로 대소변을 못 가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함.
- 특히 동생의 출생으로 대소변을 잘 가리던 영유아가 퇴행하여 대소변을 못 가리게 되기도 하는데 이는 부모의 애정과 관심을 되찾으려는 심리작용으로 볼 수 있음.

나. 지도 방법

□ 실수를 한 경우에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 영유아의 실수 그 자체가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더욱 심화될 수 있으므로 영유아가 갑자기 대소변을 보아 옷을 더럽히더라도 야단을 치거나 화를 내지 않도록 해야 함.

- 대소변 실수 시 교사가 야단을 치거나 화를 내면 영유아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음.
- 실수를 한 영유아 및 또래들에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상적인 일임을 인식시키고 실수를 한 영유아를 독립된 공간에서 빨리 씻기고 옷을 갈아입혀 주어 정서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배려해 주어야 함.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응, 오늘은 똥이 그냥 나와 버렸구나. 선생님이 얼른 치워 줄게요.”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선생님하고 옷 갈아입자.”

▶ 바람직하지 않은 상호작용 예

“(큰 소리로) 아유, 애가 또다시 똥을 썼네!”

“○○, 너 선생님 힘들게 하려고 작정했니? 잘 가리다가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 여유롭게 대처하기

- 교사는 잘 되던 대소변 훈련이 갑자기 망쳐진 것 같아 속이 상하게 되는데, 이런 마음은 다시 조급하게 대소변 훈련을 시키는 것으로 이어지게 됨.
- 영유아를 다그친다고 해서 빨리 대소변을 가리게 되는 것은 아님.
- 교사가 조급해지면 아이도 불안해하므로 영유아가 대소변을 잘 가리던 원래대로 돌아가게 하려면 교사부터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함.

□ 영유아의 배설물을 더럽다고 하지 않기

- 대소변 훈련을 시작하는 두 돌 무렵의 영유아들은 대변을 자신의 몸의 일부라고 생각함.
- 교사가 자신의 대변을 보고 인상을 쓰거나 지저분한 것을 보듯 하면 영유아는 자신의 몸의 일부를 더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여겨 상처를 입음.
- 교사는 바로 변기의 물을 내리기 보다는 영유아의 대변에 대해 칭찬하고 영유아로 하여금 물을 내리게 하는 것이 좋음.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건강한 똥을 누었구나. 우리 ○○가 밥과 채소를 잘 먹어서 그런가 보구나.”
“와, 오늘은 긴 똥하고 둥그란 똥을 누었네요.”
“응아야, 안녕~하고 우리 ○○가 물 내려 보겠니?”

▶ 바람직하지 않은 상호작용 예

“아이, 더러워!”
“(코를 막으며) 와, 냄새가 지독하다. (얼른 변기의 물을 내린다)”

□ 영유아의 성공에 대해 적극적 칭찬하기

- 영유아가 실수하지 않고 변기에 성공적으로 대소변을 본 것에 대해서는 아낌 없이 적극적으로 칭찬을 함.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가 오늘 바지에 쉬를 하지 않고, 변기에 쉬를 했구나. 참 잘했어요.”
“바지에 쉬를 하지 않으니까 축축하지 않고 좋지요? 다음에도 변기에 잘 해보자.”
“변기에 똥을 잘 누었네. 정말 멋지다.”

□ 스트레스 요인 제거하기

- 동생이 생기거나 부모에게 혼나는 등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스트레스 요인을 제거시켜 주고 영유아를 따뜻하게 수용해 줌
- 동생이 태어나서 일시적으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생이 예쁜지 물어보거나 동생을 예뻐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보다는 동생이 미숙한 존재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됨.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꼭 안아주며) 선생님은 우리 ○○가 세상에서 제일제일 좋더라.”
“○○는 썩~하고 무척 빨리 달릴 수 있는데, 아가는 아직도 기어 다니지요.”
“다음에는 똥 마려우면 선생님한테 조금 더 일찍 말해주렴.”

▶ 바람직하지 않은 상호작용 예

“○○는 아가 아니지요. 동생처럼 기저귀 할 거예요?”
“○○ 기저귀 다시 하고 동생반에 가야겠다.”

규칙적으로 대소변을 보도록 지도하기

-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대소변을 보게 하는데, 2~3시간 간격으로 화장실에 가도록 하고 낮잠을 자기 전에 화장실에 다녀오도록 함.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애들아, 우리 바깥놀이 가기 전에 화장실 다녀오자!”

화장실을 영유아가 친근하게 느끼도록 만들기

- 대개 화장실은 좁고 캄캄해 영유아들이 무서워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화장실을 영유아가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도록 노력해야 함.
- 화장실을 환하고 좋은 냄새가 날 수 있도록 하고, 영유아가 대소변을 보면서 좋아하는 인형을 만질 수 있도록 화장실에 인형을 놓아두는 것도 좋음.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화장실에서 좋은 냄새가 나네요. 우리 ○○, 변기에 앉아서 똥을 누어보자.”
 “아, 화장실이 조금 무섭구나. 선생님이 가지 않고 ○○앞에서 손잡고 있을게요.”

전문가의 진단 및 신체적인 문제해결하기

- 방광이나 항문의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의료적인 치료가 필요함.
- 계속해서 배설습관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서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여 지도하도록 함.

다. 유의사항

- 보통 생후 3년이 되면 유아들은 대부분은 대소변을 가릴 수 있게 되지만, 그 이후에도 실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4~5세까지는 가끔 실수를 한다고 해서 꼭 병적인 것은 아님을 유념해야 함.
- 배설 관련 문제행동은 다음과 같이 유뇨증, 유분증, 야뇨증으로 구분되는데, 일시적으로 대소변 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생후부터 4세 또는 5세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대소변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만 유분증, 유뇨증이라고 함.

〈표 II-11-1〉 배설 관련 문제행동

- 유뇨증 : 5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밤과 낮에 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
- 유분증 : 4세가 지나 대변을 가릴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가리지 못하는 경우
- 야뇨증 : 1주일에 2번, 3개월 이상 계속해서 밤에는 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

□ 배설 관련 문제행동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발달적으로 준비가 된 시기에 바람직한 방향을 대소변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함.

〈표 II-11-2〉 배설 관련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바람직한 대소변 훈련 방법

- 혼자서도 쉽게 입고 벗을 수 있는 간단한 옷을 입힘
- 영유아가 배설의사를 밝히면 즉시 대소변을 볼 수 있도록 해줌
- 대소변이 이루어지는 동안 약속된 의사소통 기제를 적절하게 사용함. 옆에서 '쉬'라고 발음해 주거나, 함께 힘을 주는 흉내를 내며 '응가'라고 말하는 것은 대소변을 쉽게 보도록 하는데 도움이 됨
- 영유아의 시도와 노력에 대해 항상 긍정적인 반응과 격려를 함. 실수를 했을 지라도 다음번에는 잘 할 수 있을 거라며 격려를 해 주어야 하며 벌을 주어서는 안 됨. 벌을 주게 되면 영유아에게 심리적 상처가 되어 이후 강박신경증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유아용 변기 및 깔개를 마련해 주고 밝고 쾌적하며 아늑한 화장실 분위기 조성을 통해 영유아가 대소변을 보는 것을 즐거운 활동으로 여길 수 있게 함
- 대소변을 보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충분히 제공하여 대소변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함
- 보육실과 화장실 사이를 개방시켜 놓아서 영유아들이 화장실에 있는 동안에 교실의 활동을 보고 들음으로써 안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함

12. 잠을 자는 동안 소변 실수를 자주 하는 경우

<4세반, 남아>

○○는 두 돌 무렵부터 낮에는 대변과 소변을 모두 가리게 되었지만, 만 5세가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밤과 낮잠 동안에 소변 실수가 잦다. 가정에서는 밤 시간이 길다보니 기저귀를 차고 재우는 경우도 많고, 아이가 기저귀 차는 것을 너무 싫어하면 그냥 재우기도 하는데 그런 날이면 어김없이 이불 빨래를 한다고 한다. ○○ 부모님은 그동안 ○○가 최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 뒤처리를 해왔다고 한다. 하지만 18개월이 지난 동생이 기저귀를 떼기 전에 ○○가 먼저 밤에 소변을 가려야 할 것 같아 이제는 조금 마음이 급해진다고 한다. ○○는 어린이집 낮잠시간에도 가끔 실수를 하는데, 낮잠을 적게 잘 때는 다행히 실수가 적지만 많이 피곤한 날은 소변 실수를 한다.

가. 원인 분석

- 배설의 문제는 발육의 지연, 방광 및 괄약근의 기능장애 및 신체적 질환, 유전적인 소인, 심리·정서적인 요인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함. 이중 실제 신체적 질환이 원인이 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고 대부분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생김.
- 가족력
 - 가족력이 있을 때 배설 문제가 더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가족 중에 늦게까지 대소변 실수를 한 사람이 있다면 영유아도 비슷한 경우일 확률이 높음
 - 태어난 이래 줄곧 자면서 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 주로 부모로부터 유전되는 경향이 있어서 양쪽 부모가 그러한 경우 자녀도 그러할 확률이 80%, 한쪽 부모만 그러한 경우 자녀도 그러할 확률이 44%라고 함.
- 신체적 요인
 - 방광염, 신염, 당뇨 등이 있는 경우 잠을 자는 동안에 소변을 가리지 못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의료적인 치료가 필요함.

- 너무 이르거나 강압적인 대소변 훈련
 - 영유아가 아직 생리적으로 대소변을 가릴 만큼 성숙하지 못했는데 너무 성급하게 일찍 대소변 훈련을 시작한 경우 처음에는 대소변 훈련에 성공해서 대소변을 잘 가리다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다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음.
 - 대소변 훈련을 안 시키고 무관심한 경우에도 습관이나 훈련 부족으로 배설 관련 부적응 행동이 생기기도 함.
- 환경 변화
 - 동생의 출생, 어린이집 입학, 부모의 불화, 이사, 가족의 사망 등 환경적 변화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로 대소변을 못 가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함
 - 특히 동생의 출생으로 대소변을 잘 가리던 영유아가 퇴행하여 대소변을 못 가리게 되기도 하는데 이는 부모의 애정과 관심을 되찾으려는 심리작용으로 볼 수 있음.
- 잠자기 전 수분 과량 섭취
 - 잠자기 전에 물이나 음료를 마시거나 수분을 많이 포함한 음식을 섭취하면 잠자는 동안 소변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짐.
- 성적 만족 추구
 - 잠을 자면서 소변 실수를 하면서 영유아는 성적 쾌감을 얻으며, 그 쾌감이 강화됨으로써 증상이 습관화되기도 함.

나. 지도 방법

- 편안한 마음과 자신감을 갖도록 하기
 - 영유아가 일부러 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는 동안 방광에 소변이 가득 차면 그 느낌을 인지하고 깨어나야 하는데 이러한 자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므로 벌을 주거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고 체벌을 해서는 안 됨.
 - 특히 또래와 함께 하는 어린이집에서는 잠 자면서의 소변실수가 큰 수치심을 가져와 자칫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영유아가 소변가리기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실수를 한 영유아 및 또래들에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상적인 일임을 인식시키고 실수를 한 영유아를 독립된 공간에서 빨리 씻기고 옷을 갈아입혀 주어 정서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배려해 주어야 함.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선생님하고 옷 갈아입자.”

▶ 바람직하지 않은 상호작용 예
 “(큰 소리로) 아유, 다 큰 형아가 자다가 쉬를 싸면 어떻게 해요?”

□ 영유아의 성공에 대해 적극적 칭찬하기

- 영유아가 실수하지 않은 경우 아낌없이 적극적으로 칭찬을 함.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가 쉬가 마려워서 자다가 일어났구나. 잘했어요.”

□ 스트레스 요인 제거하기

- 동생이 생기거나 부모에게 혼나는 등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스트레스 요인을 제거시켜 주고 영유아를 따뜻하게 수용해 줌.
- 동생이 태어나서 일시적으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생이 예쁜지 물어보거나 동생을 예뻐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보다는 동생이 미숙한 존재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됨.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꼭 안아주며) 선생님은 우리 ○○가 세상에서 제일제일 좋더라.”
 “○○는 썩~하고 무척 빨리 달릴 수 있는데, 아가는 아직도 기어 다니지요.”
 “다음에는 똥 마려우면 선생님한테 조금 더 일찍 말해주렴.”

▶ 바람직하지 않은 상호작용 예
 “○○는 아가 아니지요. 동생처럼 기저귀 할 거예요?”
 “○○ 기저귀 다시 하고 동생반에 가야겠다.”

- 잠자기 전 수분 섭취 줄이고 규칙적으로 소변을 보도록 지도하기
- 전문가의 진단 및 신체적인 문제해결하기
 - 방광 등의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의료적인 치료가 필요함.
 - 5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잠을 자는 동안에 소변 실수를 하는 경우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서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여 지도하도록 함.

다. 유의사항

- 보통 생후 3년이 되면 유아들은 대부분은 대소변을 가릴 수 있게 되지만, 그 이후에도 실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4~5세까지는 가끔 실수를 한다고 해서 꼭 병적인 것은 아님을 유념해야 함.
- 자면서 소변실수를 하는 것은 영유아에게 신체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대부분 영유아가 더 자랄 때까지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됨.
- 배설 관련 문제행동은 다음과 같이 유뇨증, 유분증, 야뇨증으로 구분되는데, 일시적으로 대소변 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5세 이후에도 잠을 자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소변 실수를 하는 경우를 야뇨증이라고 하며, 4세 이전의 것은 야뇨증이라고 하지 않음.

〈표 II-12-1〉 배설 관련 문제행동

- 유뇨증 : 5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밤과 낮에 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
- 유분증 : 4세가 지나 대변을 가릴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가리지 못하는 경우
- 야뇨증 : 1주일에 2번, 3개월 이상 계속해서 밤에는 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

13. 소변을 참다가 자주 옷에 실수하는 경우

<4세반, 여아>

○○는 매우 활발하고 적극적인 유아이다. 자유선택활동시간에 놀이에 흠뻑 빠져 놀이를 주도하고 또래들 간에도 인기가 많다. 그런데 이렇게 놀이를 하다가 소변이 다급해져서 교사를 부르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스타킹이라도 입고 온 날은 옷을 내리는데 시간이 더 걸려서 교사와 유아 모두 마음이 더 급해진다. 소변이 마려우면 참지 말고 바로 화장실에 가라고 이야기를 하여도 잘 되지 않는다. 교사가 결국 참지 못하고 살짝 옷에 소변을 지리는 날도 여러 번 있었는데, 어제는 옷이 흠뻑 젖어 결국 ○○가 엉엉 울어 버렸다.

가. 원인 분석

- 소변을 참다가 자주 옷에 실수하는 것은 소변이 찰 때까지 참았다가 싸는 경우를 말함.
- 주된 발생 시기
 - 대소변 훈련이 잘 되지 않는 초기 경우에는 적고, 배설이 자립화되었다고 생각하는 3~5세 즈음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음.
- 놀이 집중으로 인한 소변 실수
 - 일반적으로 영유아는 한 가지에 열중하면 다른 것에 주의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소변을 참다가 옷에 실수하는 경우는 놀이를 하거나 무엇에 너무 열중해서 화장실에 가지 않는 경우에 자주 발생함.
 - 배설습관이 미숙하기도 하지만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부주의에서 오는 실패일 가능성이 높음.

나. 지도 방법

- 영유아가 소변을 마려워하는 징후 파악하기

- 영유아들은 소변이 마려우면 특징적인 행동을 보이게 되므로, 교사는 영유아가 소변이 급할 때 어떤 징후를 보이는지 관찰을 통해 파악하도록 함.

▶ 소변이 급한 징후

평소보다 빠르거나 느리게 말하기, 말 더듬기, 발 동동 구르기, 다리 꼬기, 앉았다 일어났다 하기, 성기 주변에 손을 대거나 잡고 있기

□ 소변이 마려운 모습이 보이면 화장실에 다녀오도록 안내해 주기

-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를 관찰하면서 영유아가 소변이 마려운 것을 느끼면서도 놀던 것을 중단하지 못하는 모습이 보이면 화장실에 다녀오도록 안내해 줌.
- 이때 다른 영유아에게 들리지 않도록 작은 소리로 말하는 것이 좋으며 영유아에게 압박감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영유아가 화장실을 다녀오는 동안 다른 친구가 놀잇감을 가져갈 것이 걱정되어 화장실에 가지 못하는 것이라면 놀잇감은 교사에게 맡길 수 있고 놀이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음을 이야기해주어 안심하고 화장실에 갈 수 있도록 도움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급히 옆에 가서 어깨를 살짝 두드리며) ○○야, 화장실에 가렴”

“(놀이에 집중해 있는 영유아에게) 화장실 빨리 다녀와서 다시 놀이하자.”

“놀잇감이 걱정되서 그래요? 선생님에게 맡기고 다녀오려무나.”

▶ 바람직하지 않은 상호작용 예

“(멀리서 큰 소리로) ○○야, 그렇게 참다가 쉬 싸겠다. 얼른 화장실 가세요.”

“지난번처럼 또 쉬 싸려고 그러니? 얼른 화장실 다녀오세요.”

“쉬 자꾸 참으면 고추 아파져요.”

“이 놀잇감이 니꺼니? 다른 친구들도 놀이할 수 있는 거야.”

□ 대소변 실수를 혼내기 보다는 안심시켜 주기

- 영유아 자신도 대소변 실수를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으므로 자신도 놀라 충격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어린이집에서도 다른 영유아의 웃음거리가 되거나 화제에 오르는 경우도 있음.

-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리를 지르지 말고 즉시 영유아를 별실로 데리고 가서 하의를 갈아입히고 안심시키면서 괜찮다고 말해 주어야 하며 더러워진 하의를 집에 가져가게 할 경우 다른 영유아의 눈에 띄지 않도록 잘 싸서 가져가도록 신경을 써줄 필요가 있음.
- 조롱당하거나 비난당하면 기가 약한 영유아는 그 후 매우 긴장해서 자주 화장실에 가는 요의빈발(尿意頻發)이라는 문제로 발전할 수 있음.
- 규칙적으로 화장실에 다녀오도록 하되, 화장실 다녀오기를 강요하지 않기
 - 놀이에 집중하면 화장실 가기를 어려워하므로 하루일과 중 전이시간 등을 이용하여 규칙적으로 화장실에 가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음.
 - 하지만 무조건 그 시간에 화장실에 다녀오도록 강요하기 보다는 소변이 마렵지 않다고 말하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영유아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해주는 것이 바람직함.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애들아, 간식 다 먹은 친구들은 화장실 다녀와서 놀이를 시작하자.”

“(유아가 쉬가 안나온다고 말할 때) 쉬가 안마렵구나. 그럼 놀이하다가 쉬가 마려우면 선생님한테 다시 이야기하렴.”

▶ 바람직하지 않은 상호작용 예

“(유아가 쉬가 안나온다고 말할 때 강요하는 목소리로) 바깥놀이터에 나갔다가 쉬 마려우면 다시 교실에 들어와야 해. 그러니까 지금 쉬해.”

다. 유의사항

- 소변을 참다가 옷에 실수를 하는 것은 문제행동이라고 보기 보다는 영유아의 발달 특성상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영유아가 화장실에 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열중하는 놀이가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모습임.
- 다만 옷에 실수를 하게 되면 영유아가 수치스러워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음.

가정에서의 지도 방법

- 부모도 이런 영유아를 나무라지 말고 이것은 일시적인 문제이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주고 안심시켜 주어야 함.
- 영유아가 빨리 그 일을 잊도록 가정에서 반복해서 말하지 말아야 하며 가정에서도 같은 일이 발생하면 조그만 소리로 주의를 주어 영유아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해줄 필요가 있음.
- 급할 때 가능한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허리 부분이 고무줄로 된 바지 같이 스스로 입고 벗기 편한 옷을 입히도록 하고, 실수에 대비하여 여벌옷을 어린이 집에 보내도록 함.

14. 어린이집에서 잠자기 어려워하는 경우

<2세반>

○○은 낮잠시간이 되어 다른 또래 친구들이 모두 자리에 누운 뒤에도 눕고 싶어하지 않으며 보육실 안을 돌아다닌다. 교사가 권유하면 겨우 이불에 눕기는 하지만 누워서 칭얼거리거나 옆 친구를 건드리며 장난을 치기도 한다. 교사가 함께 누워 재워 주려고 하면 손가락을 빨거나 손톱을 물어뜯으며 손장난을 하거나 교사에게 계속 말을 걸면서 잠들지 않으려 한다.

가. 원인 분석

낮잠 분위기 조성

- 보육실의 조명이나 소음 등 분위기가 낮잠을 자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예민한 기질의 영유아가 잠자기 힘들어할 수 있음.

기질적 특성

- 영유아가 기질적으로 낮잠을 자지 않는 경우

정서적 문제

- 영유아는 특히 연령이 어릴수록 집이 아닌 곳에서 잠을 자야 할 때 불안감을 느낄 수 있음.

나. 지도 방법

정서적 안정감을 위해 지원하기

- 가정과의 연계를 통해 가정에서 영유아가 잠을 잘 때 행하는 특별한 행동이나 분위기 등에 대해 정보를 얻기
- 가능하다면 가정에서와 유사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거나 애착물을 가져오게 하여 영유아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가 아기였을 때 덮었던 이불이구나. 우리 이 이불 덮고 코 잘까요?”

낮잠시간 보육실 내의 분위기 점검하기

- 조명이나 소음, 적절한 온도와 습도 등 영유아의 낮잠에 방해되는 요소가 없는지 점검하고, 방해요소가 있다면 개선하기

융통성 있는 낮잠시간 운영하기

- 영유아에게는 하루일과 중 낮잠시간 혹은 휴식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기질적으로 낮잠을 자기 힘들어하는 영유아에게 자지 않더라도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다른 영유아들의 낮잠시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낮잠시간에 시간을 정해두고 (예를 들어 낮잠시간 시작 후 30분), 정해진 시간 동안에는 자지 않더라도 조용히 누워 휴식할 수 있도록 하기

다. 유의사항

참고자료

유아의 경우 매일 충분한 낮잠을 자야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매일의 생활을 할 수 있다. 잠에 빠져드는 시간, 잠자는 자세, 잠잘 때 필요한 요구, 잠자는 시간, 잠에서 깬 때의 기분상태 등은 개인차가 매우 크다. 교사는 개별 유아의 이러한 습관을 잘 알고 개별적인 배려를 최대한 해주어야 한다. 잠을 자기 위해서 커튼을 쳐 빛을 차단하고 조용한 음악으로 소리를 조절하며 온도와 습도를 적당히 유지하여 편안한 낮잠 분위기를 조성한다. 빨리 깨어난 유아가 다른 유아의 잠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용한 놀이를 하도록 한다.

유아들이 하루일과 중 필요한 경우는 언제나 개별적으로 휴식을 취하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고 설 수 있도록 따듯한 배려를 해 준다. 휴식은 유아가 긴 하루일과 중에서 중간중간 쌓인 피로를 풀어주고 활기차게 다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면역력을 높여준다. 매일 일정하게 휴식하는 시간을 정하되 개인차, 하루일과의 특성, 견학, 날씨 등을 고려한다.

자료 : 보건복지부 (2013). 누리과정에 기초한 어린이집 프로그램: 총론.

15. 씻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1세반, 남아>

○○는 교사가 얼굴에 물을 묻히려려고 하면 울음을 터뜨린다. 거울을 보여주며 음식을 먹어서 얼굴이 지저분해졌음을 충분히 설명해주고 천천히 씻어주려고 해도 물만 닿으면 자지러진다. 그래서 얼굴이 깨끗해지기보다는 다시 눈물과 콧물로 더 지저분해지기 일쑤다.

<4세반, 여아>

○○는 매우 활동적인 유아로 겨울에도 온몸이 땀이 흠뻑 나도록 뛰어다니며 놀이하러 가는 것을 좋아한다. 그런데 문제는 ○○가 잘 씻지 않고 어린이집에 온다는 것이다. 여름은 물론이거니와 겨울에도 머리에서 땀내가 나고 끈적끈적해서 낮잠 후에 머리를 묶어주고 나면 교사의 손에서도 냄새가 날 정도이다. 한참 예쁜 것과 공주 옷을 좋아하는 일부 여자 친구들은 ○○에게 냄새가 난다며 잘 놀지 않으려고 할 때도 있다.

가. 원인 분석

청결의 필요성 인식의 어려움

- 청결습관은 영유아에게 인식시키기 어려운 요소를 갖고 있는데, 영유아들에게는 청결에 대한 특별한 욕구가 없고 깨끗하다고 해서 기분이 좋다는 자각도 없음.

- 따라서 청결함으로 인해 기분이 좋다는 체험이나 청결 때문에 칭찬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 더러워지는 것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경향이 있음.

부모의 양육방법

- 대개 씻는 것을 싫어하는 영유아들의 경우 부모가 재미있게 노는 것을 중단시키고 씻기를 강요했거나 씻고 싶지 않을 때 강제로 씻기기를 반복했을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씻는 것은 영유아들에게 고역일 뿐임.
- 어떤 영유아는 씻을 때 눈에 비누가 들어간 바람에 씻는 것을 싫어하게 된 경우도 있고 눈을 감고서 숨을 참아야 하는 것을 무서워하거나 얼굴이 물에 젖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음.
- 부모가 청결에 대해서 지도를 하지 않고 무관심해서 씻지 않는 것이 위생이나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 잘 씻지 않으려고 할 수 있음

가정의 물리적 환경

- 욕실이 좁거나 온수공급이 잘 되지 않는 가정인 경우 영유아들이 씻는 것을 불편해하고 잘 씻지 않을 수 있음.

영유아의 정서 상태

- 영유아가 마음속에 있는 불만을 옷을 더럽히거나 지지분한 놀이를 하면서 해소하고자 하거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일부러 더럽히는 경우가 있음.

나. 지도 방법

청결습관 관찰하기

- 영유아의 청결습관 지도를 위해서 우선 교사는 영유아가 언제 씻는지, 하루에 몇 번 씻는지, 씻기 전후 영유아의 반응은 어떠한지를 청결습관 관찰지를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관찰할 수 있음.

씻어야 하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 영유아에게 왜 몸을 씻어야 하는 지를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해 주도록 함.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야, 손은 이것저것 만지거나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더러운 세균이 많이 묻어 있단다.”

“손을 깨끗이 씻으면 세균이 우리 몸 속으로 쉽게 들어오지 못하대요.”

“(손 씻기 전 후의 세균 사진을 보여주며) 이것 보세요, 손을 씻기 전에는 세균이 이렇게 많았는데, 손을 깨끗이 씻고 나니까 많이 줄어들었지요.”

□ 규칙적으로 씻는 경험 제공하기

- 어린이집 일과가 진행되는 동안에 규칙적으로 씻는 경험을 제공함. 즉 밖에서 놀다가 실내로 들어올 때, 식사 전후나 대소변 후에는 손을 씻도록 하고, 식사 후에는 이를 닦도록 함.
- 규칙적으로 씻기를 할 때 영유아에게 사전 예고를 할 필요도 있음.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이제 조금 있으면(시계 바늘이 5에 가면) 놀이를 마치고, 손 씻으러 갈 시간이 된단다.”

□ 놀이로 접근하기

- 영유아들에게는 씻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충분히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억지로 씻기면 씻는 것을 거부하고 물이나 비누 등에 공포감을 가질 수 있으므로 놀이로 접근하여 씻는 것을 즐겁게 받아들이도록 함.
- 영유아용 칫솔과 치약, 매력적인 양치 컵, 영유아의 키에 적절한 세면대, 소독기, 온수 등 청결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항상 편리하고 청결한 상태로 준비함.
- 세면대 앞에 손 씻는 방법을 단계별로 그린 그림카드나 사진을 붙여 스스로 씻을 수 있도록 도와줌.

□ 긍정적 언어로 지도하기

- 영유아의 더러운 상황이나 씻는 행동을 할 때 가능한 긍정적 언어로 지도하도록 함

- 영유아가 습득하기를 원하는 기술을 작은 단위로 세분화해서 나누고 매번 한 단계씩 긍정적이고 명확한 지시로 가르쳐 줌. 이 때 영유아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나 중단해야 하는 행동을 명령어나 지시어로 말하지 않도록 함.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손에 물을 묻히고 나면, 비누를 묻혀 거품을 내는 거지요.”

“손 씻기가 다 끝났으면 이제는 손을 말려야 할 차례예요.”

▶ 바람직하지 않은 상호작용 예

“아이, 더러워. 또 더럽혀졌구나.”

“온 몸이 밥풀 투성이구나.”

“어유, 손이 새카매졌네. 까마귀가 친구하자고 하겠다.”

“손바닥으로 물 뿌리지 말아요.”

□ 영유아의 정서 이해하기

-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거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자신과 주위를 더럽히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부모와의 상담을 통해서 영유아가 가진 불만을 파악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애정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함.

□ 교육활동을 통해 지도하기

- 교사는 매일의 생활 속에서 청결습관에 대한 태도를 지속적으로 지도함과 동시에 청결습관이 왜 필요한 지 필요성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동화나 이야기 나누기, 토의 등의 활동을 활용할 수 있음.
- 하루일과 속에서 반드시 씻어야 하는 때를 표를 만들어 제시하고, 씻은 경우 해당 칸에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됨.

□ 여벌 옷 준비하기

- 손을 씻거나 양치하는 과정에서 옷을 적실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 갈아입힐 수 있도록 부모에게 여벌옷을 준비하도록 하여 개인장에 비치하도록 함.

다. 유의사항

- 일반적으로 영유아는 왕성한 호기심과 활동력으로 흙장난이나 물놀이 등의 놀이에 흥미를 갖는 시기이므로 영유아들이 쉽게 더럽혀지는 것이 보통이며 대부분의 영유아들은 손 씻기, 세수하기 등을 놀이로 즐겁게 받아들임.
- 영유아에 따라 씻는 것을 귀찮게 생각하여 잘 씻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점차 성장하면서 청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청결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수 있음.
- 다른 영유아에 비해 특히 지저분하거나 씻지 않으려는 문제가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정확한 원인 파악을 근거로 한 적절한 지도가 요구됨.
- 잘 씻지 않으려고 하는 영유아에게는 무엇보다 몸을 깨끗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며, 이 때 영유아 스스로 행하도록 격려하고 칭찬함으로써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청결습관은 한번 또는 몇 번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일상생활 중이나 활동을 통해 꾸준히 지도하도록 함.
- 연령에 따른 청결습관 지도 방법

〈표 II-15-1〉 연령에 따른 청결습관 지도 방법

연령	지도 방법
0~2세	- 더러운 것을 만지거나 식사 전후로 손을 닦아 주어 물과 친해지게 하고, 식 후에는 잇몸을 닦아 줌 - 규칙적으로 손과 얼굴, 몸을 씻어 주어 언제 씻는 것인지를 알려줌
3세	- 스스로 씻는 것을 시도하도록 격려하고 칭찬해 줌 - 뒷마무리는 교사나 부모가 해주는 것이 좋음
4~5세	- 서툴더라도 혼자서 닦게 하는 것이 좋지만, 뒷마무리는 교사나 부모가 해주는 것이 좋음

- 가정에서의 지도 방법
 - 세수, 샤워, 목욕 등은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기관과 연계하여 가정에서 부모들이 아침, 저녁으로 세수하고 규칙적으로 샤워나 목욕을 하도록 함

16. 이를 닦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1세반, 여아>

○○는 14개월에 접어드는데, 이가 빨리 나서 벌써 어금니까지 다 났다. 어린 이집에서 영아들이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점심식사 후 낮잠 전 양치질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 ○○는 양치질을 무척 싫어한다. 액상치약은 과일향이 나서인지 쪽 잘 빨아먹기는 하는데, 칫솔질을 하지를 않으려고 한다. 이를 닦자고 하면 어느새 도망가 버리거나 손으로 입을 막고 울어버린다. 영아를 이렇게 울리면서 닦는 것도 한 두 번이지, 그렇다고 양치를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정말이지 양치시간이 전쟁 같다.

가. 원인 분석

- 부모나 교사의 이 닦기 지도 방법에 따른 부정적 경험
 - 영유아들은 양치질을 대개 싫어하는데 교사나 부모들은 억지로라도 이를 닦이려고 하여 영유아들은 교사나 부모가 강제로 이를 닦일수록 점점 더 이 닦는 것을 싫어하게 됨.
 - 교사나 부모의 지나친 깔끔함 때문에 영유아의 이를 구석구석 깨끗이 닦아준다고 잇몸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보아야 함. 이가 깨끗해졌을지는 모르지만 영유아는 잇몸이 아프고 힘들었던 기억 때문에 칫솔질을 싫어할지도 모름

나. 지도 방법

- 이를 닦는 것이 영유아에게 어려운 일임을 이해하기
 - 거품이 나는 치약을 입안에 물고 칫솔을 움직여야 하는 것 등이 모두 영유아에게 어렵고 괴로운 일일 수 있음을 이해해 주어야 함.
- 이를 닦아야 하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 이를 잘 닦지 않으면 세균막(플라그)이 형성되고, 이것을 닦아서 제거하지 않으면 충치가 발생하는 과정을 그림이나 사진 자료를 활용하여 설명함.

- 유아의 경우 치면착색제를 통한 플라그 테스트를 통해 잘 닦지 않은 부분이 붉게 변하는 것을 경험하도록 할 수도 있음.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음식을 먹고 나서 이를 닦지 않으면 이가 썩어서 많이 아프게 된단다.”

“(사진 자료 등을 보여주며) 이것처럼 잘 닦지 않으면 이가 썩게 되어요.”

“(플라그 테스트를 하며) 우리 ○○가 이 부분을 잘 닦지 않았나 보구나. 다시 잘 닦아서 빨간 색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보자.”

▶ 바람직하지 않은 상호작용 예

“이를 안 닦으면 이가 모두 빠져 버릴 거예요.”

“아유, 이 누런 이 좀 봐. 더러워라.”

“이를 닦지 않으면 경찰 아저씨가 혼내줄 거예요.”

□ 이를 닦는 것을 놀이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돕기

- 영유아가 모방할 수 있도록 교사가 영유아와 함께 거울을 보며 칫솔질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즐거운 경험을 하도록 함.
- 영유아에게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제시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영유아는 이 닦기를 놀이나 재미있는 활동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음.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노래를 부르듯이) 이를 닦자, 이를 닦자, 이를 닦자. 하마처럼!”

“선생님이 이 닦는 것을 보렴.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입 속을 깨끗이 청소하자.”

“모래시계가 다 내려올 때까지 이를 닦자.”

“오늘은 딸기맛 치약 쓸까요? 아니면 포도맛 치약을 쓸까요?”

□ 이를 닦는 과정과 닦은 후에 칭찬하고 격려하기

- 영유아가 자조기술을 처음 배울 때는 단계별로 항상 긍정적인 격려를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함.
- 꾸준하기 보다는 이를 닦는 모든 단계와 시도마다 칭찬을 해주고, 이를 닦은 후 영유아의 성취와 결과를 적극적으로 격려해줌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이 닦는 과정>

“(치약을 칫솔에 짰 후 칫솔을 입안에 넣는 대신 세면대를 닦으며 놀은 경우)에고, 칫솔이 ○○입안에 있어야 하는데 세면대에 있네요? 아하, 세면대가 ○○입속이구나? 그런데 치약 정말 잘 짰네요. 이거 하기 어려운데 말이야.”

“치약을 잘 짰네요.”

“칫솔이 입안에서 잘 움직이네요.”

“옆으로 안 닦고 위아래로 잘 닦네요.”

“양치컵에 물을 잘 받았구나.”

“양치물 삼키지 않고 잘 뱉었구나.”

<이 닦은 후>

“(이 닦기를 마치고 나서 영유아의 이를 보며) 아이 눈부셔라!”

“우리 ○○, 이 닦고 나니 이가 정말 하얗고 깨끗해졌구나.”

□ 교사가 도와줄 때는 아프지 않게 천천히 닦아주기

- 영유아가 이 닦는 걸 아프다고 느끼면 입을 다물어버리거나 칫솔을 물어버리는 수가 있으므로 영유아가 이를 닦고 나서 교사가 마무리를 해줄 때에는 영유아를 교사의 무릎에 눕어놓고 재미있는 얘기를 하며 아프지 않게 천천히 닦아주는 것이 좋음
- 앉아서 닦는 것보다 영유아를 눕어놓고 보면 이의 상태를 더 자세히 볼 수 있고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아프지 않게 잇몸을 문질러가며 닦아줄 수가 있음.

□ 영유아와 함께 칫솔과 치약 선택하기

- 영유아에게 이 닦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주고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영유아에게 바람직한 칫솔과 치약 선택 기준 범위 내에서 영유아로 하여금 칫솔 디자인, 치약 맛 등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좋음.

다. 유의사항

- 치아는 음식을 잘게 부수어 주어 음식을 통하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므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치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평소에 이를 잘 닦는 습관을 갖게 하여 충치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 유치가 손상되더라도 영구치가 나면 된다고 생각하여 유치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유치관리를 잘 못하면 영구치 손상과 치열의 비정상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 영유아가 이를 잘 닦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나 부모는 영유아가 너무 어렸을 때부터 칫솔질을 시키려는 욕심을 갖지 말아야 함.
- 즐겁고 재미난 것이라면 영유아가 싫어할 이유가 없으므로 영유아가 칫솔을 놀이기구로 생각하고 즐겁게 이를 닦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함.
- 영유아의 연령에 따른 이 닦기 지도 방법은 다음과 같음.

〈표 II-16-1〉 연령에 따른 이 닦기 지도 방법

연령	지도 방법
0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는 자기 자신이 칫솔질을 할 수 없으므로 성인이 해주어야 하는데, 아기의 몸을 안전하게 붙잡고 집게손가락에 젖은 천이나 가제를 싸서 하루에 한 번 정도 이와 잇몸을 닦아줌 - 치아가 많이 돋으면 부드러운 소형 칫솔을 사용하여 닦아주도록 함 - 빨는 능력이 부족하여 치약을 삼킬 우려가 있고 칫솔질을 해줄 때 시야를 방해하므로 치약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음
1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용 칫솔을 쥐어주고 양치질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함 - 아직 영아가 제대로 닦을 수 없으므로 꼭 마무리 칫솔질은 성인이 해주어야 함 - 매일 규칙적인 칫솔질 과정을 반복해 주는 것은 영유아에게 좋은 구강 습관을 키워줌 - 솔은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하고 치약을 사용해도 됨
2~3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단한 대화는 가능하므로 유아에게 칫솔질을 한 후 빨도록 하며, 이것이 가능하면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음 - 칫솔질에 흥미를 보이고 참여하고자 하므로 이러한 행동을 격려해주고 유아 스스로 칫솔질을 하도록 유도함 - 유아 혼자서도 닦을 수 있게 되지만 깊은 안쪽까지는 손이 미치지 않으므로 마무리는 성인이 해주도록 함
3~6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는 자신의 치아에 큰 흥미를 나타내고 자랑스러워하므로 유아 스스로 이를 닦을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함 - 말을 이해할 수 있으므로 알기 쉽게 칫솔질의 요령을 설명해 주고 매일 규칙적으로 이를 닦을 수 있도록 지도함 - 유아 자신의 칫솔을 보관할 장소를 마련하여 칫솔 관리를 지도하고 식사 후나 취침 전에 반드시 양치질을 하도록 하며 하루 3회 이 닦는 습관을 길러주도록 함 - 불소치약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이 좋지만 아직까지는 빨는 능력이 어른보다 미숙하여 불소치약을 반복하여 삼키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소량 사용하도록 함

17. 지나치게 청결한 경우

<2세반, 여아>

○○는 3월부터 어린이집을 처음 다니기 시작하였다. 이전에는 어린이집이나 교육기관에 다닌 경험이 없다. ○○는 손을 너무 자주 씻고, 옷에 더러운 것이 묻거나 물에 조금이라도 젖으면 바로 불편해하며 옷을 갈아 입혀달라고 한다. ○○는 어린이집에서 손을 씻고 나서도, 양치를 하고 나서도, 바깥놀이를 하고 나서도 어김없이 바로 울음을 터트리며 옷을 갈아 입혀 달라고 한다. ○○는 실외놀이 시 옷이나 신발 등에 흙이나 다른 이물질이 묻을까 움직임이 적다.

가. 원인 분석

부모의 양육태도

- 지나치게 청결한 영유아는 가정에서 부모가 지나치게 옷을 자주 갈아입히고 닦아주면서 청결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음.

강압적인 대소변 훈련

- 대소변 훈련을 할 때 부모가 강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면 영유아가 청결함에 집착할 수 있음.

나. 지도 방법

지나치게 청결한 영유아의 특성 파악하기

- 다음과 같은 지나치게 청결한 영유아의 행동 특성을 이해하고, 해당 영유아가 어느 수준으로 지나치게 청결한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표 II-17-1〉 지나치게 청결한 영유아의 행동 특성

- 손을 너무 자주 씻음
- 어린이집 화장실에 가는 것을 꺼려함
- 다른 친구들의 불결한 행동을 지적함
- 음식을 먹을 때에도 주변을 항상 정리하며 먹음
- 정리, 정돈에 신경을 집중하느라 다른 활동에 영향을 받음
- 실외놀이 시 옷이나 신발 등에 흙이나 다른 이물질이 묻을까 움직임이 적음

□ 영유아의 청결에 대한 기준 낮추어 주기

- 청결의 기준에 대해 영유아의 기준을 낮추도록 지속적으로 인식시켜 줌.
- 지나치게 청결한 영유아는 다른 친구들의 불결한 행동을 지적하므로 다른 친구들의 다소 지저분한 행동이나 습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괜찮아요, 옷에 조금 묻었지만 입고 있어도 괜찮아요.”

“이 정도 젖은 것은 놀이를 하다 보면 금방 마를 거예요. 너무 신경쓰지 않아도 된단다.”

“밥을 먹으면 음식을 흘리거나 밥풀이 옷이 붙을 수 있어요. 밥 다 먹고 나서 선생님이 닦는 걸 도와줄게요.”

▶ 바람직하지 않은 상호작용 예

“별로 더럽지도 않은 데 왜 그러니?”

“너 엄청 깔끔쟁이구나?”

□ 놀이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 영유아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주변을 청결한 환경으로 만들어 줌.
- 모래놀이나 물감놀이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활동을 다 마치고 나서 정리정돈을 하고 몸을 씻을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줌.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모래놀이를 하고 나서 손을 씻으면 되니까, 모래를 만져볼까요?”

“놀이를 다 하고 나서 정리해도 괜찮아요.”

다. 유의사항

- 영유아에 따라 지나치게 청결한 행동을 일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장기화되지 않는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음.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정확히 알고 손을 씻어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아는 바른 위생개념을 갖는 것 역시 중요함.
- 지나치게 청결한 문제가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정확한 원인 파악과 적절한 지도가 필요함.

□ 가정에서의 지도 방법

- 지나치게 청결한 영유아의 경우 부모의 양육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부모와 상담을 통해 영유아 행동의 원인을 알아보도록 함.
- 부모들 중에는 영유아가 지나치게 청결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교사가 도와주지 않아서 어린이집에서 영유아가 더러워진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불편해하는 부모가 있을 수 있음.
- 부모에게 지나치게 청결하게 영유아를 돌보는 것이 오히려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어느 정도의 더러움이 늘 존재할 수 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건강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오히려 무균무결함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함.
- 부모상담을 통해 바람직한 지도 방법을 공유하고 어린이집과 가정에서 일관된 방법으로 지도하도록 함.

18. 계절이나 상황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려고 하는 경우

<3세반, 여아>

○○는 공주 드레스와 왕관을 너무나 좋아한다. 드레스를 입고 오면 놀이를 하기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걸려 넘어질 수 있는데, 야외활동이나 소풍 등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 미리 바지를 입고 오도록 안내를 하여도 늘 치마만 고집한다. ○○ 부모님은 아침마다 옷을 가지고 실랑이를 하게 되고, ○○는 결국 자기가 입고 싶은 치마를 입지 못하면 영영 울고 떼를 써서 결국은 ○○가 입고 싶은 치마를 입히게 된다고 한다. ○○ 부모님은 더운 여름에는 거추장스러운 치마를 입어 땀띠가 날까 걱정을 했는데, 이제 날씨가 추워지는데 아이가 감기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하신다.

가. 원인 분석

□ 영유아의 발달특성

- 영유아도 자신의 선호가 있으며 특히 유아기에 옷이나 장식품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선호를 드러내게 됨.
- 또래가 가지고 있는 놀잇감과 동일한 것을 가지고 싶어 하고 교사나 부모가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고 싶어 함.
- 성정체감이 발달되어감에 따라 남아들은 파란색이나 로봇, 자동차 그림이 있는 옷만 입으려 하거나, 여아들은 공주 그림이 있는 옷, 치마 등만 입으려 하는 특성을 보임.

□ 주변의 지나친 관심과 강화

- 영유아가 입은 옷에 대해 교사나 부모, 주변 성인들이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고 칭찬을 하게 되면 강화되어 지속적으로 같은 옷만 입으려 할 수 있음.

나. 지도 방법

□ 발달과정상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이해하고 인정해주기

- 유아~초등 저학년 시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성이므로 성인의 관점으로 강요하기 보다는 영유아의 발달특성을 이해하고 위협하거나 건강을 해치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선에서는 허용하도록 함.
- 예를 들어 매일 치마만 입으려고 하는 여아가 어린이집에서 체육활동이나 야외 활동이 있는 날에도 여전히 치마를 입고 싶어 하면 치마를 입고 와서 그 시간에만 바지를 입도록 할 수도 있고, ‘우리반 친구들이 모두 바지 입는 날’이라고 해서 치마를 입는 여아들이 없도록 공통의 규칙을 만들어 적용할 수도 있음.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아, ○○는 치마 입는 것이 좋구나.”

“○○, 오늘 이 드레스 입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서 조금 추웠겠다. 교실에서는 괜찮은데 밖에 나갈 때는 점퍼를 입자.”

“아, 치마 입고 싶었구나.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체육활동을 할 거예요. 체육활동을 할 때 치마를 입으면 불편하거나 위험할 수 있어요. 체육활동 할 때만 바지로 갈아입고, 체육활동 끝나고 나면 다시 치마를 입자.”

“털 장화가 신고 싶었구나. 선생님 생각에는 조금 더웠을 것 같은데 괜찮았니?”

▶ 바람직하지 않은 상호작용 예

“야, 너는 만날 치마만 입냐?”

“(무서운 목소리로)선생님이 오늘은 소풍이라고 치마 입지 말라고 했지요?”

“치마만 입는 건 좋지 않은 거예요.”

“공주 드레스 하나도 안 예쁘거든요. 촌스럽다.”

“이 더운 날 그런 치렁치렁한 드레스를 입고 오면 어떻게 해요?”

“하하하, 털장화 신고 왔어요? 사람들이 웃었겠다.”

“뭣 내다가 얼어 죽는다.”

-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상황과 날씨에 적절하게 옷 입기 지도하기
 - 영유아의 선호를 존중하는 동시에 영유아에게 상황과 날씨에 맞는 옷을 입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음.
 - 날씨에 맞게 옷을 입는 것은 영유아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일상생활과 교육활동을 통해 날씨에 맞는 옷 입기를 지도함.
 - 특히 추운 날 옷을 따뜻하게 입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것이 좋는데,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기나 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짐을 말해줌.

〈표 11-18-1〉 연령에 따른 날씨에 맞게 옷 입기 지도 방법

연령	날씨에 맞게 옷입기 지도 방법
3세	날씨와 계절에 맞게 주어진 옷을 입고 생활하며 덥거나 추울 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게 함
4세	날씨와 계절에 알맞은 옷을 입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 여러 가지 옷 중에서 현재의 날씨와 계절에 적절한 옷을 직접 골라 입어보게 함
5세	날씨와 계절 뿐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 맞는 옷차림을 알아보고 적절히 입어보게 함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2013).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교사용 지침서.

-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거나 강화시켜주지 않기
 - 교사가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거나 강화를 하면 해당 영유아가 더 강화되고, 이를 지켜본 다른 영유아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객관적으로 영유아의 상태를 언급해주도록 함.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응, 그래. 오늘 치마 입었구나.”

“응, 오늘 분홍색 치마를 입었어요.”

▶ 바람직하지 않은 상호작용 예

“와, 오늘 ○○가 공주처럼 입고 왔구나. 진짜 참 예쁘다.”

다. 유의사항

- 영유아들이 특정 형태의 옷을 선호하는 것은 문제행동이라고 할 수 없음.
- 성인들도 자신이 좋아하는 옷이 있는 것처럼 영유아도 자신이 좋아하는 옷이 있음을 인정해 주도록 함.
- 다만 영유아가 입고 싶은 옷이 상황이나 계절에 맞지 않아 영유아의 건강이나 안전에 위협한 상황이라면 일부 상황에서는 제한을 할 필요가 있음.
- 가정에서의 지도 방법
 - 영유아가 공주 옷만 입으려 하는 것, 여름에 겨울 털 장화를 신으려 하는 것, 분홍색 옷만 입으려고 하는 것, 편하다고 고무줄 트레이닝 바지만 입으려고 하는 것 등은 지극히 정상적인 발달 특성임을 이해함.
 - 부모가 원하는 옷을 입도록 강요하지 말고 부모가 다소 부끄럽더라도 영유아의 선택을 존중해 주도록 함.
 - 어떤 시기가 되면 또 다른 특성을 보일 수 있으므로 하고 싶은 만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함.
 - 날씨에 맞지 않는 옷은 영유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영유아가 좋아하는 옷을 여름용, 겨울용으로 구분하여 해당 계절에만 입을 수 있도록 구분하여 정리하고 영유아에게 충분히 설명해 줌.

19. 옷이나 신발을 입고 벗지 못하는 경우

<4세반, 여아>

우리 반에서는 낮잠시간 전에 교사가 장에서 개별 침구를 꺼내어 주면 유아들이 스스로 침구를 깔고, 옷을 벗고 잠옷(내복 등)으로 갈아입는다. 낮잠을 자고 나서도 다시 옷을 갈아입을 수 있다. 아직 지퍼의 처음을 끼우는 것을 어려워하는 유아가 더러 있지만, 대부분은 교사가 처음에 조금만 도와주면 지퍼를 올리고 내릴 수가 있다. 바깥놀이를 하기 위해 준비할 때 유아들이 스스로 점퍼를 입고 신발을 신을 수가 있다. 그런데 ○○는 매번 옷을 갈아입고 점퍼를 입을 때, 못하고 그대로 앉아 있어서 교사가 도움을 주어야 한다.

가. 원인 분석

- 부모의 지나친 보호로 인한 습관 부족
 - 부모나 주위의 어른들이 늘 옷을 입혀주어서 스스로 할 기회가 없는 경우 영유아가 스스로 옷이나 신발을 입고 벗기 어려워할 수 있음.
- 발달 지체 등 신체적 결함
 - 발달이 다소 늦거나 손의 구조, 근육 등의 기형으로 스스로 옷이나 신발을 입고 벗는 것을 어려워할 수 있음.

나. 지도 방법

- 영유아의 발달특성과 기질을 이해하여 지나치게 일찍 강요하지 않기
 - 스스로 옷이나 신발 입고 벗기 등을 지도할 때 영유아의 발달 특성과 기질을 우선적으로 이해하여 그에 적절한 지도를 해야 함.
 - 어린이집에서 한 명의 교사가 많은 영유아를 돌보다 보니 영아들에게까지 발달 수준 이상으로 스스로 하기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영아가 스스로 옷이나 신발을 입지 못하는 것은 문제행동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함.

- 영아의 특성에 따라 어떤 영아는 다소 일찍 야무지게 스스로 옷 입기 등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영아는 스스로 옷이나 신발을 신는 것을 어려워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함.

〈표 II-19-1〉 영아반에서의 잘못된 지도 사례

한 선생님은 1세반 담임교사이다. 바깥놀이터에 나가기 위해 영아들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교사도 준비하다가 지쳐버리는 일이 잦다. 그래서 한 선생님은 적어도 신발만큼은 아이들 스스로 신을 수 있도록 하기 초부터 열심히 지도를 하였다. 교사의 노력 덕분인지 여름부터는 대부분의 영아들이 혼자 신발을 신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는 아직 신발을 혼자 신지 못해서 교사가 도와주어야 한다. 한 선생님은 ○○ 혼자 신발 신을 때까지 바깥놀이터에 나오지 못한다며, ○○를 신발장에 두고 다른 영아들을 먼저 데리고 바깥놀이터에 나갈 때가 있는데, 그러면 ○○는 영영 울어 버린다.

- 편한 옷이나 인형 등을 이용하여 자조기술 증진시키기
 - 입고 벗기 편한 옷이나 신발부터 스스로 해보도록 함.
 - 좋아하는 인형에게 옷이나 신발 입히고 벗기는 놀이를 통해 자조기술을 증진시킴
- 옷이나 신발 입고 벗기가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하기
 - 영아의 경우 자율감 발달로 스스로 하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하게 되는데, 교사는 영아의 시도를 격려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함.
 - 영유아가 다소 미숙하더라도 단계별로 조금씩 도움을 제공하여 영유아 스스로 시도해보도록 하고, 한 단계의 성취에 대해서도 칭찬을 하여 영유아로 하여금 성취감을 느끼도록 함.
 - 스스로 하지 못하는 영유아에게 그것을 하지 못하면 다른 놀이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협박의 도구로 삼지 않도록 함.
 - 또래에게 놀림이 되거나 좌절감을 경험하지 않도록 함.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우리 ○○가 혼자 옷에 손을 끼웠구나. 어유, 기특해라.”

“양말 신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발이 잘 안들어가는구나. 그럼 선생님이 발가락만 끼워주고 ○○가 다시 신어볼까요?”

“혼자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되었어요? 선생님이 지퍼 끝만 끼워주고, ○○가 다시 지퍼를 올려보자.”

“(엉터리로 옷을 입은 경우에도) ○○가 스스로 옷을 입었구나. 와 멋지다. 불편하지 않게 선생님이 조금만 도와줄게요. 정말 잘했어요.”

“와, ○○가 옷을 참 잘 입는구나.”

▶ 바람직하지 않은 상호작용 예

“(팬티가 바지 위로 튀어나오게 입은 경우) 아유, 이렇게 입으면 어떻게 하니. 선생님이 다시 입혀줄게요. (바지를 다시 내리고 팬티부터 차례차례 입혀준다)”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6살 형님이 양말도 못 신으면 안되지요.”

“혼자 신발 못 신는 친구는 신발장반 하면 되겠어요. 선생님은 도와주지 않을 거니까 다 신으면 놀이터로 나오렴. 애들아 우리 먼저 나가자.”

“신발을 바꾸어 신으면 어떻게 하니. 빨리 다시 신어요.”

□ 전문가의 도움받기

- 어린이집에서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였음에도 영유아 스스로 옷과 신발 입고 벗기를 잘하지 못하고, 다른 자조능력에서도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 의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함.

다. 유의사항

- 성인이 되어서까지 스스로 옷과 신발을 못 입고 벗는 사람은 거의 없음.
- 신체적이나 발달적으로 결함이 없는 경우 대부분의 영유아는 일정 시기가 되면 누구나 스스로 옷이나 신발을 입고 벗을 수 있으므로 교사가 마음의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음.
- 어린이집 영아반에서 스스로 하는 것을 지나치게 강요하지 않도록 함.

□ 가정에서의 지도 방법

- 부모 입장에서는 영유아가 말끔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비추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다소 미숙한 영유아가 스스로 옷이나 신발을 입고 벗게 하기 보다는 부모가 도와주는 경우가 많음.
- 영유아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되 강요하기 보다는 영유아가 스스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할 필요가 있음.
- 영유아가 입고 벗기 쉬운 옷을 제공해주어 스스로 시도하고 쉽게 성공할 수 있도록 함.

20. 스스로 옷이나 신발을 입고 벗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4세반, 남아>

○○는 옷을 갈아입어야 하거나, 바깥놀이나 산책을 위해 겹옷을 입어야 할 때 스스로 하기 보다는 교사 앞에 옷을 들고 와서 그냥 앉아 있거나 그 자리에 누워 버린다. 스스로 옷도리를 입어 보도록 하기 위해 머리만 넣어주면 교사가 도와줄 때까지 그대로 앉아 있거나, 그 상태로 돌아다니곤 한다. 교사도 ○○가 스스로 하도록 지도를 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그 다음 일과 진행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를 도와줄 때가 자주 있다. 그러면 친구들이 왜 ○○만 도와 주냐며 자기도 옷을 입혀달라고 한다.

가. 원인 분석

□ 부모의 지나친 보호로 인한 습관 부족

- 부모나 주위의 어른들이 늘 옷을 입혀주어서 스스로 할 기회가 없는 경우 영유아가 스스로 옷이나 신발을 입고 벗으려 하지 않을 수 있음.

□ 영유아의 기질과 교사나 부모의 조급함.

- 영유아가 다소 느린 기질의 아이라서 영유아는 조금 있다가 하려고 했는데 교사나 부모가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조급하게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음.

심리적인 불안정

- 영유아의 마음에 불만이 있어서 이를 부모나 교사에게 표출하거나 관심을 끌기 위해 하는 행동일 수 있음.

나. 지도 방법

영유아의 기질 이해하기

- 영유아의 기질이 느린 기질 유형인 경우 다소 행동이 굼뜰 수 있음을 이해함.

지금 옷이나 신발을 입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해주기

- 옷이나 신발을 입으라고 일방적으로 명령하기 보다는 지금, 또는 몇 시까지 옷이나 신발을 입고 준비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줌.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야, 우리 이제 옷 입고 바깥놀이터 나가자.”

“○○야, 우리 시계 긴 바늘이 6자에 가면 산책을 갈 거예요. 그 때까지 양말 신고 점퍼를 입으렴.”

조금해하지 않고 기다려 주기

- 옷이나 신발을 입으라고 하고 영유아가 바로 즉시 행동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도록 함.
- 옷이나 신발을 입을 시간을 촉박하게 두지 말고, 조금 더 일찍 이야기하여 영유아가 준비할 시간을 보다 많이 확보해줌.
- 답답하더라도 영유아에게 잠시 시선을 떼어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도록 함.

▶ 바람직하지 않은 상호작용 예

“○○야, 선생님이 옷 입으라고 말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빨리 입어요. 우리 시간 없어요.”

“옷 입는 거 하나도 후딱후딱 하지 못하면, 다른 일은 어떻게 할래요?”

□ 작은 성취에도 격려하기

- 평소 영유아가 교사가 도와줄 때까지 양말을 들고 다녔는데, 양말을 신으려고 시도하고 있거나 양말 한 짝을 신은 경우 다 신지 않은 것에 대해 비난하기 보다는 성취에 대해 아낌없이 격려를 함.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와, ○○가 오늘 양말을 참 잘 신었구나. 다음번에는 양쪽 다 신어보렴.”

▶ 바람직하지 않은 상호작용 예

“○○야, 아직도 양말 한 짝밖에 못 신었어요? 아이구.”

“다른 친구들은 옷 다 입었는데 아직까지 옷도리만 입으면 어떻게 하니.”

다. 유의사항

- 성인이 되어서까지 스스로 옷과 신발을 못 입고 벗는 사람은 없음.
- 신체적이나 발달적으로 결함이 없는 경우 대부분의 영유아는 일정 시기가 되면 누구나 스스로 옷이나 신발을 입고 벗을 수 있으므로 교사가 마음의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음.
- 교사가 보기에 영유아가 스스로 옷과 신발을 입은 모습이 어설피고 엉망이어도 비난하거나 수정하지 않도록 주의함. 반복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비난이나 수정을 받으면 더 이상 해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을 수 있음.
- 가정에서의 지도 방법
 - 부모는 영유아가 스스로 옷입고 벗기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영유아가 자신을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음.
 - 의존적인 아이를 키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옷 입고 벗기와 같은 생활 속의 작은 일부터 영유아의 능력을 인정하고 스스로 독립할 기회를 주어야 함.

21. 자기 물건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

<5세반, 여아>

○○는 바깥놀이터에 새로 산 점퍼를 놓고 들어오기도 하고, 이를 닦고 칫솔을 세면대에 놓고 그대로 보육실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교사가 이거 누구 거니? 라고 물어보면 어김없이 ○○의 물건이다. 서랍장에 넣어 둔 자기 놀잇감이 없어졌다며 당황스러워하고 울어 버리는 경우도 자주 있다. 특히 하원할 때는 놀잇감뿐만 아니라 양말, 점퍼 등을 어디에 두었는지 찾지 못해서 부모님과 함께 없어진 물건을 찾느라 정신이 없다. 교사는 자기 물건은 서랍장에 잘 넣어두거나 제자리에 두어야 한다고 여러 번 말해주었지만 큰 변화가 없다. 가정에서도 자기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잘 모르거나 잃어버려서 엄마한테 매번 자기 물건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거나 찾아달라고 한다고 한다.

가. 원인 분석

- 영유아의 발달특성
 - 영유아는 기억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성인에 비해 물건을 잘 챙기지 못함.
- 물건의 소중함을 모름
 - 가정에서 물건을 잃어버리면 곧바로 다시 사주어서 영유아가 물건을 잃어버리면 또 사면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음.
- 부모의 지나친 보호로 인한 습관 부족
 - 부모나 주위의 어른들이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챙겨주는 경우 영유아가 굳이 자신이 알아서 챙기거나 신경 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음.
- 심리적인 불안정
 - 영유아의 마음에 불만이 있어서 이를 부모나 교사에게 표출하거나 관심을 끌기 위해 하는 행동일 수 있음.

나. 지도 방법

- 물건을 잃어버리는 것을 탓하기 보다는 성장기의 특성으로 이해해 주기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바깥놀이에서 아주 신나게 놀이하느라 점퍼를 가지고 오는 것을 깜박했구나. 다음부터는 꼭 챙겨서 들어오자.”

▶ 바람직하지 않은 상호작용 예

“아유, 또 ○○가 칫솔을 두고 갔구나. 자꾸 이렇게 두고 가면 주인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선생님이 버릴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네가 잃어버리고 그렇게 울면 어떻게 하니? 자기 물건은 자기가 관리해야 하는 거예요.”

“봐봐,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서랍장에 넣어 두라고 했잖니.”

- 물건을 소중히 다루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기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야, 놀잇감을 가지고 놀이를 하면 제자리에 잘 두어야 한단다. 아무렇게나 두면 잃어버리게 되어서 다시 그 놀잇감을 가지고 놀이를 할 수 없게 된단다.”

“○○야, 우리가 물건을 사용하고 나서 제자리에 잘 두면, 나중에 다시 그 물건을 사용할 때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 정리정돈 습관 길러주기

- 어린이집에서 놀잇감이나 물건의 위치를 그림 등을 이용하여 알려주고, 매일의 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정리정돈하는 습관을 길러주도록 함.
- 개인 서랍장을 통째로 두기 보다는 양말을 담은 통(우유팩 재활용 등) 등을 준비하여 영유아가 서랍장 내에서도 물건을 잘 정리하고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줌.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야, 가위 다 쓴 거예요? 가위를 쓰고 나면 어디에 두었지요?”

“(양말을 담은 통을 가리키며) ○○야, 양말은 이 통에 담아 두자. 그러면 나중에 서랍장 전체를 찾아보지 않아도 금방 양말을 찾을 수 있단다.”

“(바깥놀이터에서 보육실로 들어올 때) 혹시 점퍼나 물건 챙기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자.”

□ 정서 상태 이해하고 심리적 안정감 지원해주기

- 영유아가 어린이집 생활이나 가정에서 스트레스가 크거나 불편감, 우울 및 불안 등을 경험하고 있어서 물건 관리에까지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인을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정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줌.

다. 유의사항

- 주의를 해도 자기 물건을 잘 잃어버리는 영유아는 장래 아무렇게 행동하거나 무책임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영유아기부터 자기 물건을 소중하게 다루는 법을 지도해야 함.
- 일반적으로 영유아는 자기가 잘 가지고 놀이하는 놀잇감을 소중하게 하는데, 특히 2~3세 영아는 놀잇감도 자기와 똑같이 마음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정도로 놀잇감에 대해 대단한 애정을 가지므로 영유아가 놀잇감부터 시작하여 점차 스스로의 물건을 관리할 기회를 주도록 함.
- 가정에서의 지도 방법
 - 영유아가 사달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사주게 되면 영유아가 언제든지 새로 사줄 것이라고 생각하여 물건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할 수 있으므로 잃어버린 물건을 사줄 때는 신중해야 함.
 - 가정에서도 영유아의 가방이나 옷, 신발 등을 일정한 곳에 놓아두어서 영유아가 항상 그곳에서 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함.
 - 물건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 잔소리를 하기 보다는 작은 것부터 영유아로 하여금 관리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여 정리정돈 습관을 길러줌.

22. 정리정돈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5세반, 남아>

○○는 자유선택활동시간에 여러 영역에서 즐겁게 놀이를 한다. 그런데 놀이 시간이 끝날 때가 되어 교사가 5분 후에는 정리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느새 보육실에서 사라진다. 어떤 날은 화장실에서 손을 씻거나 배회하고 있고, 또 어떤 날은 교사실에 가 있기도 한다. 정리시간을 유아들이 좋아하지는 않지만 ○○는 정리시간이 되면 늘 없어지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도 알아차리고, “선생님, ○○ 없어졌어요.”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이다.

가. 원인 분석

부모의 양육태도

- 부모의 과잉보호인 경우에는 영유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까지 부모가 대신 해주면 그것이 습관화되어 놀잇감이나 개인 물품을 정리정돈하지 않으려 할 수 있음.

보육실 환경구성

- 놀잇감을 영유아들이 쉽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흥미영역별로 놀잇감의 특성에 따라 수납장이 적절하게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영유아로 하여금 정리정돈에 부담을 갖게 할 수 있음.

영유아의 개인적 특성

- 영유아의 개인적 특성으로는 정리정돈하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는 영유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하지 않는 영유아, 정리는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영유아, 교사나 친구가 보고 있으면 정리하는 척하다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 슬그머니 손을 놓는 영유아 등이 있을 수 있음.

나. 지도 방법

□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리정돈 지도하기

- 3세 이하의 반에서는 영유아로 하여금 스스로 정리하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기 보다는 교사가 함께 도와서 정리를 하고, 4세반 이후에 스스로 정리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적절함.

〈표 II-22-1〉 연령에 따른 놀잇감 정리하기 지도 방법

연령	놀잇감 정리하기 지도 방법
3세	유아 자신이 놀이한 놀잇감을 교사와 함께 제자리에 정리함
4세	자신이 사용한 놀잇감과 주변의 놀잇감도 함께 정리함
5세	당번을 정하여 친구들에게 정리시간을 알려주고, 교실 여러 곳의 놀잇감을 서로 도와 정리해 보는 활동으로 확장함

자료: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2013).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교사용 지침서.

□ 정리정돈 시간의 사전 예고에 영유아를 참여시키기

- 영유아들의 놀이가 끝나기 전에 5분 후 놀이가 곧 끝날 것이라는 예고를 하는데, 영유아들이 5분을 측정할 수 있도록 시각적인 암시를 줄 수 있는 시계를 사용함.
- 5분이 지난 후, 영유아가 다른 영유아들에게 놀이를 정리할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방법으로 직접 종을 올리게 하는 등 영유아가 집중할 수 있도록 함.
- 이와 같은 과정을 따르는 것은 영유아들이 이런 전이가 교사가 제멋대로 정하는 것이 아닌 하루일과의 한 과정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며 놀이 끝의 실망감을 덜 느끼게 해줄 것임.
- 교사는 영유아들을 과도하게 통제하지 않고도 영유아들을 이끌 수 있는 적절한 권위를 유지시켜 줌.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지금 긴 바늘이 5에 가있구나! 이제 그 긴 바늘이 6에 가게 되면 놀이하던 것을 멈추어야 할 거예요!”

“(유아가 종을 올리며) 이제 곧 정리할 시간이다.”

□ 정리를 잘하는 영유아 격려하기

- 정리를 성실하게 잘하는 영유아에게는 구체적으로 칭찬을 하고 행동을 격려함
- 정리를 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영유아에게는 왜 안치우냐고 하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행동을 이끌도록 함.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는 무엇을 치우고 싶어요?”

“선생님한테 블록 좀 집어 줄래요?”

“○○는 어떤 것을 정리해 볼래요?”

“우리 교실을 놀 수 있도록 만드는 데에 힘이 드는데도 이렇게 열심히 정리를 해주니 정말 고맙구나.”

▶ 바람직하지 않은 상호작용 예

“이러다가는 우리 교실이 엉망진창이 되겠구나.”

“친구들은 모두 정리하고 있는데, ○○는 정리 안하고 무엇을 하고 있어요?”

□ 정리시간을 즐거운 게임 시간으로 구성하기

- 노래에 맞추어 정리를 한다든가, 정해진 규칙에 맞게 정해진 시간 안에 물건을 찾는 등 정리정돈을 놀이로 지도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
- 정리를 재미있게 하기 위해 정리하는 게임을 구성하는 것도 좋음. 즉 모든 영유아들이 로봇이 되거나 우주공간의 정리 괴물이 되어보기를 할 수도 있고,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게 정리하는 팀이 되어볼 수 있도록 격려할 수도 있음.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선생님은 정리 로봇이에요. 이번에는 무엇을 먹어치워 볼까요?”

“(목소리를 작게 하고, 놀잇감을 정리하는 것을 소리를 내지 않으며)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게 정리하는 팀이 되어 볼까요?”

□ 정리가 습관화될 수 있도록 지도하기

- 습관화를 위해서는 쉬운 것부터 하나씩 나누어 꾸준히 지도하는 노력이 필요함
- 처음에는 교사가 먼저 치우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 남겨 놓은 다음에 영유아가 치우게 하거나 옷걸기, 놀잇감 정리, 책 정리하기 등 하나의 영역으로만 한정하여 습관화시키는 것이 좋음.

- 정리를 쉽게 할 수 있는 환경 구성하기
 - 정리 공간을 만들어 구분 짓고, 정리할 물건에 이름표를 붙여둘 수도 있음.
 - 놀잇감의 종류에 따라 정리함을 다르게 준비하는 것이 좋는데, 블록영역의 경우 블록 놀잇감을 담을 수 있는 큰 통이 더 바람직하고, 조작영역의 경우 속이 보이고 낮은 통이 조작교구를 정리하는데 더 도움이 됨.
- 놀이의 활성화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 지나치게 정리정돈을 강조하게 되면 당장은 보육실이 깨끗해 질 수 있지만, 때로는 영유아의 놀이가 활성화 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표 11-22-2〉 지나치게 정리정돈을 강조하여 놀이의 활성화를 방해한 예

박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유니트 블록을 차곡차곡 교구장에 넣어 정리하라고 하였다. 아이들은 선생님 말에 따라 유니트 블록을 모양에 맞추어, 열까지 맞추면서 정리하였다. 자기네도 만족하였는지 흡족한 표정을 지었고 이를 본 박 선생님은 “그것 보렴. 좋지? 이제부터 깨끗이 정리하면서 놀도록 하자”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다음날부터 아이들이 유니트 블록을 가지고 놀지 않았다는 것이다. 며칠 동안 유니트 블록은 아이들에게 버림받았다.

다. 유의사항

- 영유아는 주의집중 시간이 짧고, 다양한 놀잇감에 관심이 많아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어지르는 행동을 보임. 특히 호기심이 많은 영유아들은 여러 가지 잡다한 물건들을 모으기 좋아해서 주변이 지저분한 경우가 많음.
- 정리정돈은 습관이므로 한 번에 영유아를 바꾸려고 시도하기보다는 성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완전히 습관화될 때까지 일관성 있게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지도하는 것이 중요함.
- 가정에서의 지도 방법
 - 집안을 정리정돈하지 않는 것이 영유아의 창의성 발달에 좋다고 생각해서 놀잇감이나 책을 치우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잘못된 습관임.

〈표 II-22-3〉 가정에서의 정리정돈 지도 방법

- 정리정돈을 잘하는 집안 분위기인지 확인함
깨끗한 거리에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이 없지만, 지저분한 거리에는 쉽게 쓰레기를 버리는 것처럼 집안이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을 때 영유아의 정리정돈 습관을 지도하기가 쉬움
- 정리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줌
놀잇감과 그림책 등 영유아의 물건에 적합한 수납장을 준비하고, 각 수납장에 어떻게 놀잇감을 정리할 수 있을 지 부모가 함께 정리해 봄. 또한 정리정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놀잇감 바구니나 수납장을 영유아와 함께 구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됨
- 놀잇감을 정리하는 시간을 정함
물건이 심하게 뒤죽박죽 섞여 있는 상태에서는 정리하기가 어려움. 가정에서도 어린이집에서 하는 것처럼 시간을 정해두고 한 번씩 놀잇감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함. 가령 낮잠을 자기 전, 저녁 먹기 전에 가지고 놀이한 놀잇감을 제자리에 정리하도록 함.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영유아를 재촉하지 말고 기다려 주어야 함
- 집에 있는 모든 놀잇감을 내주지 않고 적당량의 놀잇감만 제공함
너무 많은 놀잇감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은 놀이 활동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지만, 정리정돈에도 방해가 됨. 영유아가 놀이할 수 있는 적당량의 놀잇감을 제공해 주고 나머지는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해 두었다가 영유아가 충분히 놀이 흥미를 잃은 것처럼 보이거나 몇 개월이 지난 후에 교체해주는 것이 바람직함

23. 차례를 지키거나 기다리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우

<4세반>

○○은 놀이시간에 게임이나 친구들과 함께 하는 놀이를 할 때 차례를 기다리기 힘들어 한다. 자기 차례가 아닌데도 게임하는 동안 기다리지 못해 불쑥 끼어드는 경우가 많아 친구들이 불편해 하기도 한다. 친구들이 순서 지키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하면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거나 울음을 터뜨리기도 한다. 다른 친구나 교사와 이야기를 할 때에도 자신의 이야기만 하려고 하며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기다려주지 못하며 답답해한다.

가. 원인 분석

부모의 양육태도

- 부모가 모든 상황에서 영유아의 욕구만을 최우선으로 하여 성장과정에서 기다리는 경험 부족

자기중심적 사고

- 일반적으로 4세경이 되어야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생각을 이해하기 시작함
- 타인에 상황이나 입장에 대해 이해하기 힘든 경우

충동조절 능력 부족

- 상황이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그 과정에서 충동과 욕구가 올라와 조절이 힘들.

나. 지도 방법

기다리는 동안 다른 역할 부여하기

- 차례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영유아에게 다른 역할을 부여하여 기다리는 시간이 힘들지 않도록 배려하기
- 식사하기 전 줄서서 기다리는 동안 친구들에게 숟가락 나누어 주기, 양치질 기다리는 동안 친구들에게 치약 짜주기, 다른 친구들이 신체게임에 참여하는 동안 친구 응원하기 등 구체적인 역할 부여하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상호작용하기

- 놀이 중 다른 친구나 교사의 상황이나 마음에 대해 언어적으로 상호작용 해주기
- 갈등상황이 생겼을 때 상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설명하기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은 블록으로 집을 만들었나봐요. 집을 다 만들고 나니 기분이 좋은가보구나.”

“○○가 조금 힘들었을 텐데도 차례가 될 때까지 잘 기다리니까 선생님도 기분이 좋구나.”

“○○가 먼저 하고 있었는데, 가져가서 속상했구나. 저 친구도 이 책이 보고 싶었나 봐요.”

충동 조절에 도움이 되는 활동 실시하기

- 순서를 기다리며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신체게임, 규칙이 간단한 판게임 등)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하기
- 연령이 높은 영유아의 경우 대집단 시간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고 자신이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하기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도 할 이야기가 있구나. 그런데 지금은 다른 친구가 이야기하고 있으니깐 다 듣고 나서 ○○ 이야기도 들어볼게요.”

24. 어린이집에서 위험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3세반>

○○은 교사가 한 시도 눈을 뗄 수가 없다. 잠깐이라도 눈을 돌리면 위험한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실내에서는 계단에서 손잡이를 잡고 미끄러져 내려오거나 여러 칸 위에서 뛰어내리기도 하며, 실외에서도 미끄럼틀이나 높은 곳에서 뛰어 내리거나 높은 오르기 시설에 손을 잡지 않고 오르기도 한다. 교사가 위험한 상황과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만 잠시 후에는 또 같은 행동을 하여 교사의 가슴을 줄이게 한다.

가. 원인 분석

물리적 환경

- 보육실 내외의 구조나 시설물의 위치 등으로 인한 위험한 행동 발생

신체인식 및 조절력 부족

- 영유아의 신체발달적 특성으로 인해 자신의 신체를 인식하고 조절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껴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음.

신체에너지 발산 욕구

- 기질적으로 신체적 에너지가 많은 영유아의 경우 에너지가 충분히 발산되지 못했을 때 과격한 행동을 할 수 있음.

결과예측 능력 부족

- 위험한 행동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결과를 예측하는 능력이 부족함.

나. 지도 방법

물리적 환경 개선하기

- 보육실 내외에 위험한 요인이나 실내 구조 및 가구, 시설물 배치는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개선하기

대근육 발달을 돕는 활동 실시하기

- 영유아가 자신의 신체를 인지하고 조절할 수 있는 활동기회를 제공하기
- 실외에서의 놀이시간을 충분히 제공하여 신체를 조절하며 활동할 수 있도록 함
- 보육실 내에서 속은 유희실에서 오르기 시설을 이용한 활동, 평균대 건너보기, 큰 공 굴리기 등 영유아의 발달수준과 흥미에 맞는 대근육 활동을 계획하고 실시하기

에너지 발산할 수 있는 활동 실시하기

- 영유아가 신체적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시간을 매일 가질 수 있도록 하루 일과를 계획하기
- 신체를 움직이는 활동 뿐 아니라 밀가루 반죽놀이, 찰흙놀이, 물놀이, 물감놀이 등의 감각놀이를 통해서도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음.

원인-결과를 연결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하기

- 영유아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인식할 수 있도록 행동과 그에 따른 결과를 언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하기
- 위험한 행동을 할 때 뿐 아니라 자연스러운 상황에서도 원인과 결과를 연결할 수 있는 언어적 표현하기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바닥에 부딪혀서 다리를 다칠 수 있어요. ○○가 다치면 선생님도 속상할거 같아요.”

“우리가 화분에 물을 주었더니 화분에서 새싹이 자랐네요.”

“물 컵을 상 끝에 두었더니 팔로 쳐서 쏟아졌네요 다음에는 더 안쪽에 두어야 겠어요”

다. 유의사항

□ 영유아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실내외 안전규칙

구분		규칙
실내놀이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난감이나 물건을 던지거나 휘두르지 않는다. ● 블록, 작은 구슬 등 작은 놀잇감을 입이나 코에 넣지 않는다. ● 뾰족한 물건을 입, 코, 귀나 콘센트에 넣지 않는다. ● 끈을 목(목, 손)에 감지 않는다. ● 바늘은 사용 후 바늘꽂이에 안전하게 꽂는다. ● 점토나 크레용 등을 입에 넣지 않는다. ● 가위나 뾰족한 물건을 들고 다니지 않는다. ● 가위나 뾰족한 물건을 상대방에게 줄때는 손잡이 쪽으로 준다. ● 책상이나 높은 곳에 올라가지 않는다. ● 친구를 밀지 않는다.
실외놀이규칙	미끄럼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라가는 계단으로 올라간다. ● 손잡이를 잡고 올라간다. ● 앞 사람이 다 올라간 다음 올라간다. ● 앞 사람이 다 내려간 다음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온다. ● 다른 사람을 밀거나 당기지 않는다. ● 위험하게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는다.
	그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한 사람씩 탄다. ● 그네가 정지한 상태에서 타고 내린다. ● 그네와 떨어져서 안전선 밖으로 다닌다. ● 그네를 탈 때 손잡이를 꼭 잡는다. ● 엎드리고 줄을 꼬는 등 위험하게 타지 않는다. ● 그네 타는 친구를 밀지 않는다.
	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잡이를 반드시 잡는다. ● 내릴 때에는 친구에게 미리 말한다. ● 시소 위에서는 걷지 않는다.
	자전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된 길에서 정해진 방향으로 탄다. ● 사람이 지나갈 때 멈춘다.
	물모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이나 모래를 친구에게 뿌리지 않는다. ● 놀이도구를 던지거나 휘두르지 않는다.

구분		규칙
교통 규칙	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스는 정해진 장소에서 기다린다. • 버스를 타고 내릴 때 차례를 지키고 천천히 순서대로 타고, 내린다. • 버스 안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장난치지 않는다. • 버스 밖으로 손을 내밀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 버스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 버스 타고 내릴 때 옷이 걸리지 않도록 조심한다.
	길 건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길을 건널 때는 횡단보도로 건넌다. • 신호등이 있는 경우 초록불을 확인하고 손을 들고 건넌다. • 신호등이 없는 경우 어른과 함께 손을 들고 건넌다. • 차길에서 장난치거나 놀지 않는다.

자료 : 박성옥 외 (2003). 유아의 건강과 안전. 창지사.

참고자료

- 어린이 안전넷(www.isafe.go.kr): 재미있게 배워요> 어린이교실
- 소방방재청(www.nema.go.kr): 안전교육>연령별 안전교육>유아용 안전교육

25. 어린이집 버스에서 심하게 장난을 치거나 의자에 앉아 있지 않는 경우

<3세반>

○○은 등하원 할 때 차량이 올라타자마자 뛰면서 자리를 찾는다. 다른 유아들이 탑승하는 동안에도 자리에 앉지 않고 서서 이 자리 저 자리를 돌아다니기도 한다. 교사가 앉게 하고 안전벨트를 하고 나면 잠시 조용히 앉아있다가도 스스로 벨트를 풀어버리고 일어나버려 교사가 다시 벨트를 하도록 지도하면, 지나치게 큰 소리로 장난을 치고 옆 친구를 손으로 치는 등의 행동을 하기도 한다.

가. 원인 분석

부모의 양육태도

- 가정에서 차량으로 이동시 안전벨트를 하지 않거나 안전에 대해 부모로부터 설명을 듣지 못함.

안전에 대한 인식 부족

나. 지도 방법

정확한 한계 제시하기

- 영유아가 위험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되는 행동과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 정확하게 제시함.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차에 탔을 때는 안전벨트를 하고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안전벨트를 하지 않으면 차가 갑자기 멈추거나 출발할 때 넘어져서 다칠 수 있어요. 자리에 앉아서 안전벨트를 하자.”

대안제시하기

- 영유아가 차량으로 이동하는 동안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거나 함께 할 수 있도록 함.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집에 가는 동안 오늘 어떤 재미있는 놀이를 했는지 생각해서 엄마한테 이야기해 드릴까요?”

“같이 노래 부르면서 갈까요?”

“창문 밖으로 자동차들이 많이 지나가네. 어떤 색 자동차가 지나가고 있나 한번 볼까?”

안전교육 실시하기

- 어린이집에서는 가능한 등하원을 목적으로 한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부득이하게 운행해야 하는 경우 차량용 안전설비를 갖추고, 모든 탑승자가 개별 안전띠를 하고 반드시 운전자 외 책임있는 성인이 동승하여 지도해야 함.

- 차량운행을 실시하는 경우 영유아들에게 차량탑승 시 안전에 관련된 교육 영유아의 발달수준과 흥미에 맞는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함.
- 차량에 탑승하는 것부터 차량 내에서 지켜야 할 점을 사진이나 그림과 함께 보육실에 제시하여 영유아들이 반복적으로 접하면서 익히도록 함.
- 영유아들이 차 안에서 돌아다니거나 너무 시끄럽고 소란스럽게 할 경우, 운전자에게 방해가 되어 위험할 수 있음을 알려주기

다. 유의사항

- 영유아보육법령상의 차량관리 원칙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

라. 차량관리

- 1) 차량은 9인승 이상 자동차로 한정하며 「도로교통법」 제 52조에 따라 미리 어린이 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2) 운전기사는 채용 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어린이집에서 운행중인 모든 차량에는 차량내에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차량용 소화기 및 구급상자를 갖추어야 하며, 차량안전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 4) 차량 운행 시 보육교사 등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동승하여야 하고, 36개월 미만 영아를 탑승시키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동반하거나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5) 교사와 영유아는 차량운행이 시작되기 전에 안전벨트를 착용하여야 한다.
- 6) 운전자는 음주, 휴대전화 또는 이어폰 사용 등 운전판단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7) 등원·퇴원 차량 운행 시 운전기사와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은 영유아가 안전하게 담당 보육교사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영유아 등원·퇴원 일지를 작성하여 모든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참고자료

- 어린이 경찰청(www.kid.police.go.kr):교통교육관>유아안전학습 프로그램
- 어린이 교통안전공단(www.kid.kotsa.or.kr)
- 현대자동차- 폴리와 함께하는 교통안전(www.poli.hyundai.com): 폴리의 교통안전극장

26. 어린이집 하루일과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

<2세반>

○○는 어린이집에 다닌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어린이집의 하루일과에 적응하기 힘들어한다. 치우는 시간이 되어 교사가 알려주면 하던 놀이를 멈추지 않고 계속하겠다고 하거나 아무 반응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낮잠시간에도 교사가 알려주어도 큰 소리를 내며 이야기하여 낮잠시간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 실외놀이 시간에도 우선 실외에 나가면 즐겁게 놀이하지만 나가야 할 때 가지 않겠다고 하거나 들어올 때 더 놀고 싶어 하여 울음을 터뜨리고서야 들어오곤 한다.

가. 원인 분석

□ 하루일과의 구성 수준과 규칙성

- 영유아의 발달수준에 비해 구성이 복잡하거나 요일별 변화가 많은 하루일과

□ 언어이해능력 부족

- 교사가 일과에 대해 언어적으로 알려주는 것을 영유아가 이해하기 힘든 경우

□ 자기조절능력 부족

- 영유아가 기질적으로 자기조절능력이 또래에 비해 부족하여 한 활동에서 다른 활동으로의 전이가 어려울 때

나. 지도 방법

□ 하루일과의 변동 정도를 조절하기

- 하루일과 중 모이는 시간, 치우는 시간 등의 전이시간이 영유아의 발달수준에 비해 너무 많은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조절하기
- 일주일의 하루일과를 점검해보아 요일별로 변화가 너무 많아 영유아가 일과를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은 없는지 점검하고 조절하기

□ 영유아의 언어이해 능력에 맞게 말하기

- 영유아가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고 구체적인 언어로 일과와 영유아가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 알려주기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이제 우리 치우는 시간 하고 바깥놀이 나갈 거예요. 여기 있는 블록부터 하나씩 들어서 장 속에 정리해 볼까요? 이 인형은 어디에 정리하면 좋을까요? ○○가 자리에 가져다 놓아볼까요?”

“우리 반 친구들이 점심 먹을 시간이네요.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네요. 밥 먹으러 식당으로 갈 건데, 선생님 앞에 모여 볼까요?”

□ 일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예고하기

- 영유아가 예측할 수 있도록 다음 일과와 영유아가 해야 할 행동에 대해 미리 예고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 일과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영유아의 경우 다른 영유아들보다 조금 먼저 한번 더 예고해 주기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이제 긴 바늘 한 칸 지나면 낮잠시간이에요. 양치질 다하고 낮잠 잘 준비가 되면 선생님이 동화책을 읽어주실 거예요.”

“조금 있으면 우리 정리하는 시간인데 ○○가 만든 블록도 조금 있으면 자리에 넣어줄 거예요.”

□ 하루일과에 대한 활동 실시하기

- 보육실 내에 해당 반의 하루일과를 알 수 있도록 화보를 제시하거나 일과에 대한 동화책, 퍼즐 등의 자료를 제공하기
- 실제 영유아들의 사진을 이용하여 하루일과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면 더욱 효과적임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여기 우리 반 친구들이 맛있게 밥 먹는 모습이네요. 밥을 먹고 나서는 다같이 양치질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불 위에 누워서 코 자고 있구나.”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2013).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교사용 지침서.
- 권정윤·안혜준·송승민·권희경(2013). 유아생활지도. 학지사.
- 김경희(2007). 아동생활지도-사례를 중심으로. 창지사.
- 김일옥·최경순(2009). 아동건강교육(개정판). 양서원.
- 김일옥·최경순·이정실·권세영·이소영(2013). 영유아 교사를 위한 아동영양학. 양서원.
- 덕성여자대학교부속유치원(2007). 유아영양과 요리활동. 창지사.
- 박근주·송원호·김연진(2008). 선생님, 전 이렇게 상담했어요. 양서원.
- 박성옥·이영환·한유미·곽혜정·양연숙·이진숙·안은숙·김연주·이민경·장혜자(2003). 유아의 건강과 안전. 창지사.
- 박정옥·김태인(2013). 아동생활지도. 양서원.
- 보건복지부(2013). 3세 누리과정에 기초한 어린이집 프로그램: 총론.
- 보건복지부(2013). 4세 누리과정에 기초한 어린이집 프로그램: 총론.

- 보건복지부(2013).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교사용 지침서.
- 신의진(2013). 아이심리백과: 0-2세편. 걷는나무.
- 신의진(2013). 아이심리백과: 3-4세편. 걷는나무.
- 양옥승·정채옥·조유나(2011). 좋은 부모되기 첫걸음: 3-6세 미만 유아기편. 굿네이버스.
- 오은영(2011). 엄마표 마음 처방전. 중앙북스.
- 유재령·이영애(2013). 떼쓰는 아이 키우기. 마음상자.
- 이명희·정은정·황혜신·김정현·성미영·권기남(2009). 아동건강영양교육. 수학사.
- 이소은·이완정·성미영·권기남(2013). 아동생활지도. 교문사.
- 이순형·김유미·김은영·김진경·김태연·서주현·안혜령(2013). 아동생활지도. 학지사.
- 이순형·이성옥·민하영·이영미·한유진·장영은·최나아·김지현·김진경·정현심(2013). 영유아 건강교육. 학지사.
- 이영·강민주·우현경(2011). 좋은 부모되기 첫걸음: 0-3세 미만 영아기편. 굿네이버스.
- 임미혜·채혜선·이순자·안경일·심은희(2013). 아동건강교육. 양서원.
- 임종한(2013). 아이 몸에 독이 쌓이고 있다. 위즈덤하우스.
- 전도근·조효연(2010). 우리 아이 편식이 달라졌어요. 교육과학사.
- 조운주·최일선(2013).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유아생활지도(제3판). 창지사.
- 하정훈(2012). 뽀뽀뽀뽀 119 소아과(완전개정판). 그린비라이프.
- 허혜경·김성희(2008). 아동발달과 교육. 학지사.
- 현정완(2005). 아동 문제행동의 이해와 지도. 창지사.
- Babara, K. & Judy, S. R. (2013). 유·아동기 문제행동 예방 및 지도. 이병인, 윤미경, 이지예, 강성리 공역. 시그마프레스.
- Dinah, J. (2011). 어린이의 문제행동. 신의진 역. 아카데미아.
- EBS 생방송 60분 부모 제작팀(2011). EBS 60분 부모-성장 발달 편. 지식채널.
- EBS 생방송 60분 부모 제작팀(2013). EBS 60분 부모-행복한 육아 편. 경향미디어.
- EBS 생방송 아이의 밥상 제작팀(2010). 아이의 식생활. 지식채널.
- Susan, B. C. (2007). 유아의 문제행동. 민성혜 역. 시그마프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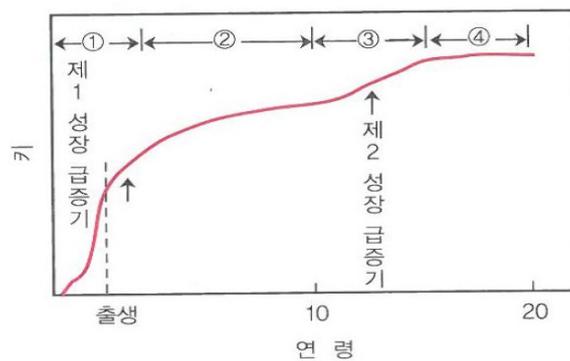
제 3부. 각 론 : 신체운동발달영역

I. 「신체운동발달영역」 문제행동지도

1. 신체운동발달영역 문제행동의 이해

□ 신체운동 발달에 대한 이해

- 신체운동 발달은 신체적 성장과 운동 기능의 발달로 이루어지지만 뇌와 신경계의 발달 및 감각과 지각의 발달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발달함.
- 신체운동 발달은 다른 영역의 발달 즉 언어 인지, 사회정서 발달과도 상호 영향을 주고 받음. 일례로 신체발달의 문제가 있거나 지연될 경우 영유아의 자존감에 손상을 주기 쉽고, 그로 인해 사회정서 발달에 영향을 주게 됨. 귀에 이상이 있을 경우 청력의 문제가 생기고, 언어발달까지도 영향을 주게 됨
- 신체적 성장은 신장과 체중의 변화 뿐 아니라 신체비율의 변화, 골격과 근육의 발달, 치아발달 등 다양한 부분으로 나타나며, 모든 부위가 똑같은 비율로 성장하기 보다는 신체의 각 부위에 따라 다른 시기에 다른 비율로 성장함
 - 키가 크고 몸무게가 늘어나는 등 신체적인 성장은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성장하나 연령에 따라 발달 속도가 다르게 나타남. 크게 두 번의 빠른 성장기가 있는데 영아기와 사춘기로 이 시기에는 매우 가파른 성장 속도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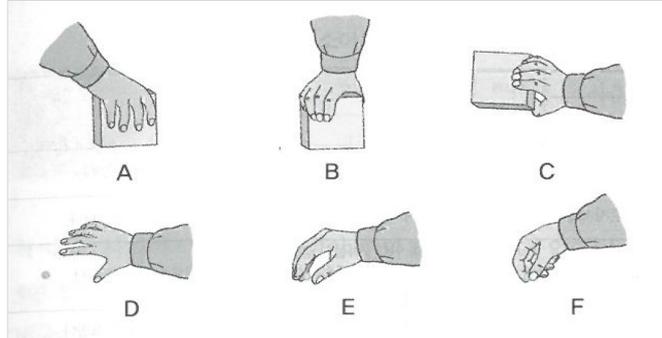
[그림 1-1-1] 성장곡선

- 생후 1년이 되면 출생 시 체중의 3배, 신장의 1.5배가 되며, 두 돌 무렵에는 성인 키의 절반이 되고, 출생 시 체중의 4배 정도로 성장함. 매년 약 7cm씩 자라서 6세경에는 약 115cm 정도로 성장함.
- 근육과 골격의 발달은 생후 1세까지는 근육이 기능을 할 수 있을 만큼 발달하지는 못하나 만 2세부터는 근육 섬유가 발달하여 점차 두꺼워지고 신경 조직도 분리됨. 영아의 골격은 성인의 골격보다 크기가 작고 수도 작을 뿐 아니라 유연하고 부드러움.
- 신체적 성장은 개인차가 존재하나 연령별 발육표준치를 기준으로 정상적인 범위 안에 들어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음.

<부록 1: 소아 청소년 표준 성장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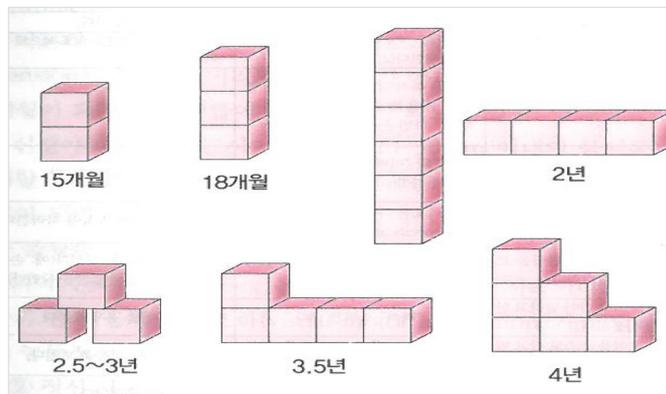
- 신체적 성장은 일차적으로는 유전적 요인에 영향을 받으나 영양공급, 규칙적인 생활 습관,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건강관리 등 외적요인에 의해서 차이가 나타나게 됨.
- 감각 발달은 시각, 후각, 미각, 촉각, 청각 등 오감각으로 세분화 됨
 - 시력은 출생후 4개월까지 급속히 발달하며, 유아가 성인의 정성 시력에 도달하는 연령은 5-6세 경임. 영아기에 일시적으로 사시와 유사한 증상을 보일 수 있는데 수개월 지속될 경우 안과 의사에게 정확한 진단을 통해 확인이 필요함
 - 후각은 신생아기에도 잘 발달되어 있으며, 젓 냄새를 구별 할 수 있음.
 - 미각은 신맛은 출생 시부터, 짠맛과 쓴맛은 4-6개월에 발달함.
 - 청각은 생후 1개월에는 엄마의 목소리를 구분하고, 4개월이 되면 소리나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림. 청력은 언어발달 및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주므로 청력 선별 검사 등을 시행하여 청력 장애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도록 해야 함
 - 촉각은 다른 감각에 비해 발달되나 입술과 혀는 출생 시부터 발달되어 있음
 - 감각발달은 영유아의 두뇌 및 신체 운동발달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상적인 감각발달의 확인과 발달촉진을 위한 다양한 경험 제공이 매우 중요함.
- 운동기능은 대근육 운동기능과 소근육 운동기능으로 발달하게 됨
 - 대근육 운동발달은 자세, 균형, 이동 등 전체적인 몸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음

- 머리가누기를 시작으로 앉기, 기기, 서기, 걷기, 뛰기, 한발로 서있기, 굽히기, 던지기, 뺨뛰기 등을 하기 위한 대근육 운동 기술은 팔, 다리, 몸통과 같은 대근육 발달과 관련이 있음
- 손을 뻗쳐 잡기, 손가락으로 물건 집기, 끼적거리기 등 손이나 손가락을 움직이는 소근육 운동 기술은 소근육과 눈과 손의 협응력 발달과 관련이 있음.
- 운동기능의 발달은 일정한 계열성을 갖고 있어서 기능별 발달 시기가 있으며, 일련의 순서에 의해 이루어짐.
- 영아기 운동기능 발달은 근육과 신경조직, 그리고 중추신경과 골격의 성숙에 기초하여 발달하게 되는데 특히 눈, 머리, 목 등의 상체 운동에서 팔, 다리 등의 하체 방향인 두미 방향으로 발달하며 신체의 중앙 부위에서 시작하여 말초 방향으로 발달함
- 유아기에는 달리기나 높이뛰기와 관련된 대근육 운동 기술과 단추 채우기나 그림 그리기 등의 눈과 손의 협응에 사용하는 소근육 운동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함. 이 시기의 운동 기술의 발달은 운동이나 춤추기 등 아동기의 다양한 신체 활동 능력의 기초가 됨.
- 연령 별 운동기능 발달 특성을 참고로 개별적인 운동기능의 발달 수준을 점검해 볼 수 있으며, 소근육발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를 알아두면 발달지연 등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소근육발달은 손으로 물건을 쥐는 모습, 입방체 쌓아올리기, 그림보고 그리기 등을 보고 평가할 수 있음(안효섭, 2012, p. 31). 다만 다른 발달과 마찬가지로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평가하도록 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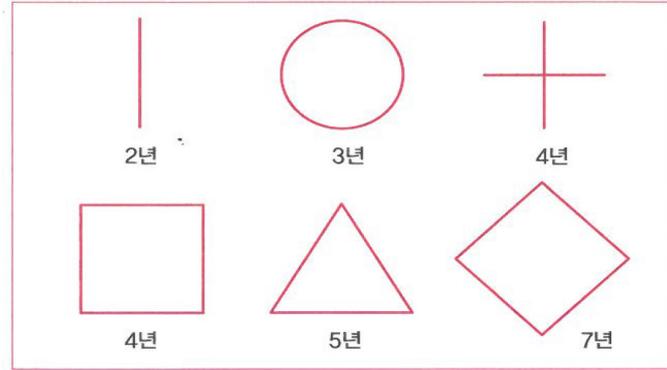


- 주: 입방체(cube)나 작은 알(pellet)을 주어 잡게 했을 때의 반응
- A. 생후 4~5개월 : 손바닥과 척골 측 손가락을 사용하여 잡는다
 - B. 생후 6~7개월 : 손바닥과 요골 측 손가락을 사용하여 잡는다
 - C. 생후 7~8개월 : 손바닥에 닿지않고 요골 측 손가락들로 잡는다
 - D. 생후 6~7개월 : 손바닥들로 바닥을 긁어 옮겨준다
 - E. 생후 7~9개월 : 엄지와 집게손가락 또는 다른 손가락의 일부로 잡는다
 - F. 생후 9~10개월 : 엄지와 집게손가락의 끝 부분으로만 잡는다

[그림 1-1-2] 손으로 붙잡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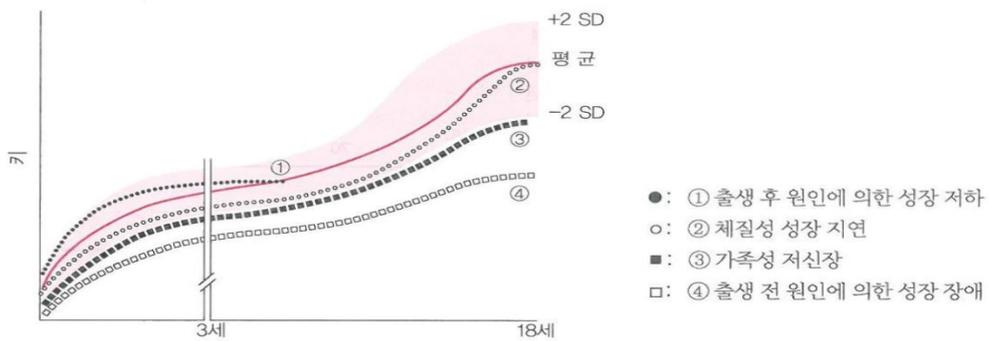
[그림 1-1-3] 입방체 쌓아올리기(building)



주. 연령별 운동 기능 발달은 부록 2(영유아의 대·소근육 운동발달) 참조.
 [그림 1-1-4] 그림보고 그리기(copying)

□ 신체운동 발달영역의 문제행동에 대한 이해

- 신체운동 발달영역의 문제행동은 신체발달이나 운동기능에 문제가 있는 행동으로 정의하기 보다는 주로 발달 지연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음.
- 신체운동 발달영역의 문제는 신체적 성장과 관련된 문제, 움직임 및 운동기술 발달 지연, 건강 이상으로 인한 문제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함
- 신체적 성장 관련 문제는 성장장애, 비만 등 성장부진과 과다성장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영유아들은 정상적인 발달을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음. 일 예로 성장 호르몬 부족이나 영양 결핍 등으로 인한 성장 장애가 생기게 되고, 과다 영양 섭취나 운동부족으로 인한 소아비만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음.



[그림 1-1-5] 소아의 성장곡선유형

- 운동기술 발달 지연은 연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신체적 성장 및 운동기술이 충분히 발달되지 못한 경우를 말함
 - 운동기술의 발달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서는 대근육이나 소근육 발달의 미숙과 움직임에 대한 경험의 부족 등을 들 수 있음. 그러나 간혹 뇌발달에 이상이 있는 경우도 운동기술의 발달에 장애가 생길 수 있음
 - 영유아들은 기본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기를 선호하는데 움직이기를 기피하고 싫어하는 영유아의 경우 심리적인 불안이나 움직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음
- 신체문제 중 건강과 관련하여 신체기관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거나 질병이 발생하면서 다양한 신체문제로 파생되는 경우가 있음.
 - 성장하는 과정에서 시력, 청력 등 신체 기관의 기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 신체발달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됨.
 - 신체 내부 기관에 이상이 있어 문제가 있었으나 증상이 없어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방치되다가 어린이집에서 간헐적으로 나타날 경우가 있음. 일예로 간질로 인해 갑작스런 경기를 할 수 있음.
 - 구강 위생 등과 같이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관리가 잘 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영유아는 자신의 신체 기능에 대한 인식과 표현이 예민하지 못하므로 문제를 조기 진단하고 치료할 시기를 놓칠 수 있음. 영유아기에 신체 각 기관이 정상적인 발달을 하고 있는지 정기적인 점검이 필수적임.
 - 신체 기관 이상으로 인한 증상은 영유아의 외현적 행동이나 증상으로 나타나므로 교사의 예민한 관찰이 신체 문제의 조기 발견에 매우 도움이 됨
 - 건강 및 질병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중요함

2. 신체운동발달영역 문제행동 사례 목록

□ 신체운동발달영역 문제행동 사례목록은 다음 <표 1-2-1>와 같으며 영아 5사례, 유아 6사례, 영유아 13개 사례로 구성되어 있음.

<표 1-2-1> 신체운동발달영역 문제행동 사례 목록

	문제행동 사례	문제행동 관련유형
영아	1 견지 못하는 경우	A. 대근육
	2 걸을 수 있는데 견지 않고 항상 안아달라고 하는 경우	
	3 엄지-검지를 쓰지 않고 크레파스를 손전체로 잡는 경우	B. 소근육
	4 손가락을 사용할 때 많이 흘리는 경우	
	5 블록을 3개 이상 쌓지 못하는 경우	
유아	6 다리 힘이 약하여 자전거 페달을 돌리지 못하는 경우	A. 대근육
	7 점핑 등과 같은 대근육 동작을 못하는 경우	
	8 팔의 힘이 약해 공을 던지지 못하는 경우	B. 소근육
	9 사다리, 정글짐과 같은 기구에 오르내리기 힘들어하는 경우	
	10 가위를 사용해 도형오리기를 잘 못하는 경우	
11 동작이 너무 느린 경우	C. 움직임 특성	
영유아	12 걸음걸이나 뛰는 자세가 불안정 하여 자주 넘어지고 부딪히는 아이	A. 대근육
	13 항상 기대어 앉거나 누워서 활동에 참여하는 아이	C. 움직임 특성
	14 움직이기를 싫어하거나 거의 움직이지 않는 아이	
	15 쉬지 않고 심하게 많이 움직이는 아이	
	16 눈을 찡그리거나 비비고 사물을 가까이 보려는 아이	D. 질병관련
	17 코를 자주 파고 콧물 흘리는 아이	
	18 소리를 잘 못 듣는 아이	
	19 입에서 구취가 나는 경우	
	20 두통을 자주 호소하는 경우	
	21 심한 변비	
	22 잦은 소변(빈뇨)	
	23 비만인 경우	
	24 체격이 심하게 왜소한 경우	

3. 신체운동발달영역 교사 지도 방안

- 연령별 신체운동 발달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함
- 영유아의 행동에 대한 교사의 세심한 관찰이 필요함
 - 일상생활 속에서의 신체운동 발달 관련 행동을 관찰해야 함
 - 급·간식을 잘 먹는지, 음식에 너무 집착하지는 않는지, 잠을 잘 자는지, 움직임이 활발한지 혹은 거의 잘 움직이지 않는지, 사물을 보는 자세나 소리에 반응하는 태도는 어떠한지 등
 - 놀이나 활동 속에서 영유아의 신체움직이나 운동기능을 관찰하고 파악해야 함. 즉 복합 놀이대에 오르기, 운동장에서 달리기 등 대근육 운동기술이 적절히 발달되었는지, 가위로 오리기, 구슬 꿰기 등 소근육 운동 기술이 적절히 발달되었는지 여러 장면에서 살펴보아야 함
- 매일의 시진을 통한 건강 점검과 키와 몸무게 측정 등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함
 - 점검 결과를 기록하고,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 문제로 예측될 경우 부모와의 면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 파악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신체운동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다양하게 마련해 주어야 함
 - 영유아들이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실내·외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함
 - 영유아의 발달 수준에 맞는 시설과 교구 등을 준비해야 함
 - 신체 움직임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제공된 시설 및 교구의 안전 상태를 반드시 점검 확인한 후 제공하도록 함
- 신체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주어야 함
 - 하루 일과 중 대근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최소한 30분 이상 마련해 주도록 함
- 신체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호작용을 해 주어야 함
 - 신체조절 능력이 충분히 발달되지 못한 연령이므로 도전과 숙달을 위한 교사의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함

- 움직임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심리적으로 위축된 아이의 경우 교사의 지지와 격려가 매우 큰 힘이 될 수 있음
- 신체운동 기능 발달에 지연이 있을 경우 지연된 행동을 발달시킬 수 있는 활동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개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 신체 건강과 관련된 이상 증후로 판단될 경우 부모와의 협력을 통해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고 조기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Ⅱ. 「신체운동발달영역」 문제행동지도의 실제

1. 걸지 못하는 경우

00이는 18개월이다. 00이는 옆에 있는 물건을 잡고 일어날 수는 있지만, 손을 떼고 걸음마를 시도하면 이내 넘어지고 스스로 걸을 수 없다.



[그림 Ⅱ-1-1] 걸지 못하는 영아

가. 원인 분석

대근육 능력 발달 미숙

- 일반적으로 12~13개월 정도의 영아는 성인의 도움 없이 혼자서 걸을 수 있음.

불안이나 두려움이 많은 성격

- 겁이 많은 영아는 매사에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며 걷다가 넘어 질까봐 또는 걷는 것에 대한 자신감 부족 등으로 인해 걷기를 시도하지 않을 수 있음.

- 급하거나 느긋한 성격
 - 성격이 급한 영아는 걷는 것 보다 기어가는 것이 빨라 걷기를 천천히 시도하기도 함. 반면 성격이 느긋한 영아는 매사에 급할 것이 없어 걷기 시도를 천천히 하기도 함.
- 뇌 발달 이상
 - 신체 발달은 뇌 발달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체적 문제가 아닌 뇌의 이상에 의해 걸지 못할 수 있음.
- 근육병
 - 근육병이란 점진적인 근력 감소로 인한 보행 능력의 상실과 호흡 근력의 약화, 심장 기능의 약화 등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임.

나. 지도 방법

- 영아들은 개인차가 심하기 때문에 다른 영아보다 몇 개월 늦게 걷는다고 해서 문제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움. 하지만, 생후 18개월이 지났는데도 혼자서 걸지 못한다면 전문의와의 상담이 필요함.
- 영아들을 유심히 관찰하여 영아가 걸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함. 교사의 도움으로 영아가 바로 걸을 순 없지만 영아가 스스로 걸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에 교사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기
- 영아의 대근육 능력 발달을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놀이를 계획하고 실천하기
 - 교사와 손잡고 스펀지 계단 오르내리기, 걸음마 보조기 잡고 걸음마 시도하기 등의 활동을 통해 영아의 대근육 발달을 증진시킬 수 있음.
 - “OO아~ 선생님이랑 함께 걸어보자. 선생님 손 잡고 한발~ 한발~”
- 결과보다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영아의 시도를 격려하기
 - 영아의 걸기 연습을 도와준다고 교사가 손을 잡고 억지로 걷게 하거나 걸기 연습을 강요하면 영아가 걸음마 자체에 거부감을 갖게 됨. 걷는 것에 대해 불안함을 갖고 있는 영아를 위해 교사는 편안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함. 영아가 걸기를 시도하다가 실패하더라도 결과 보다는 과정을 격려해주기

- 걸음마 보조기와 같이 영아가 혼자 잡고 일어서거나 걸을 수 있는 교구를 준비하여 영아가 부담 없이 걷기를 시도하도록 하기
 - “ 아이쿠! 00이가 혼자 걷다가 넘어졌구나. 선생님이 도와줄게요. ”
 - “ 00이가 걸을 수 있는 만큼 걸어보자. 와우~ 00이 혼자서도 열심히 하네~”
 - “00아~ 저기 빨간 책상까지 걸어볼까? 영차~ 영차~”
- 영아가 걷다가 부딪히거나 넘어져 다칠 만한 위험한 요소를 제거하여 영아가 느끼기에 안전한 환경 제공하기
 - 교구장은 벽 쪽으로 붙여 영아가 부딪히지 않고 걸음마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 확보하기
 - 창틀이나 교구장 등 튀어나와 있는 부분에 모서리 보호대 하기
- 영아의 기질과 성격을 인정하고 편안하고 개방적인 태도 갖기
 - 급한 성격의 영아는 서둘러 걷는 것보다는 기어가는 것이 빠르기 때문에 걷지 않을 수 있음.
 - 느긋한 성격을 가진 영아는 무슨 일에도 급할 것이 없어 걸음마가 늦기도 함. 이러한 경우 시간이 지나면 걸음마를 하게 되므로 크게 걱정할 일은 없음. 교사는 영아의 기질과 성격을 인정하고 영아가 편안하게 생활하도록 도와주기
 - “00이는 걸어가는 것 보다 기어가는게 편하구나. 선생님 손잡고 한번 걸어볼까?”
- 대근육 발달이나 뇌 발달 이상, 근육병과 같이 교사들이 해결할 수 없는 원인인 경우 학부모와의 긴밀한 의사소통 및 전문의의 도움이 필요함.

다. 유의사항

- 무리한 걸음마 연습은 영아가 걷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낄 수 있게 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음.
- 가정과의 연계
 - 걸음이 느린 경우 부모가 걱정하는 마음을 교사에게 표현하기도 함.
 - 또래와 비교하여 자신의 자녀가 걸음마를 못하는 것을 걱정하는 경우 아이들마다 발달의 속도가 다르므로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의 시도를 격려해줄 것을 부탁하기

- 결과보다는 아이가 걸음마를 시도하는 과정, 용기 등을 칭찬해줄 것을 부탁하기

참고자료

▶ 영아의 대근육 발달을 증진시켜줄 수 있는 활동의 예

- 걷기는 영아의 다리 근육 및 무릎의 힘 등이 협응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소 걸음마 연습 이외에 영아의 다리 근육 발달을 증진시켜줄 수 있는 활동을 실시하는 것이 좋음.

활동명: 공기매트 위에서 놀아요

활동자료: 공기매트(뽁뽁이: 물건이 깨지지 않게 싸는 비닐)

활동방법: 1. 길게 연결한 공기매트를 탐색한다.

2. 공기매트 위에 앉아서 엉덩이를 움직여보거나 손가락으로 눌러본다.

3. 공기매트 위를 다양한 방법으로 지나가본다.

- 거북이처럼 엉금엉금 기어볼까요?

- 살금살금 기어볼까요?

- 애벌레처럼 엮드려서 지나가볼까?

참고사항: 영아의 흥미와 걸음걸이를 확인한 후 반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자료: 보건복지부 (2013).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1세 영아 프로그램.

2. 걸을 수 있는데 걷지 않고 항상 안아달라고 하는 경우

00이는 28개월이다. 00이는 혼자서 잘 걸을 수 있지만 항상 교사에게 안아달라고 한다. 실외놀이, 산책 등과 같은 야외활동 뿐 아니라 화장실 가기, 영역을 이동하여 놀이할 때와 같이 실내에서 움직일 때도 항상 두 팔을 벌려 교사에게 안아달라고 요청한다.



[그림 11-2-1] 걷지 않고 안아달라고 하는 영아

가. 원인 분석

교사의 관심 끌기

- 다른 영아들보다 자신이 교사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은 영아의 자연스러운 욕구임. 특히, 한 반에 영아의 수가 많은 경우 또는 학기 초에 이러한 관심 끌기 행동은 더욱 강해짐.

불안한 마음 및 의존적인 성격

-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편하지 않거나 매사에 혼자서 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 하는 성격일 경우 안아달라는 요구를 많이 하게 됨.

게으른 성격

- 움직이거나 활동하는 것을 싫어하는 게으른 성격일 경우 교사에게 안아달라고 요구하기도 함.

나. 지도 방법

-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영아가 지낼 경우 걷지 않고 안아달라고 하는 행동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일 수도 있음. 하지만, 단체 생활을 해야 하는 어린이집의 특성상 특정 영아가 계속해서 안아달라고 요구하는 행동은 나머지 영아들을 돌보아야 하는 교사 입장에서 어려움을 느껴 문제 행동으로 인식될 수 있음.

- 영아의 문제가 아닌 단체 생활로 인한 교사의 어려움으로 인해 영아를 문제 있는 아이로 간주하는 것은 피해야함. 하지만, 걸을 수 있는 영아의 경우 스스로 걷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스스로 걸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건강한 영아의 경우 스스로 걸어 다니며 자유롭게 주변 환경을 탐색하는 것을 즐김
- 평소 교사가 영아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내기
 - 나이가 어린 영아들에게 단체생활은 어려운 일임. 다른 영아들보다 자신이 교사의 관심을 더 받고 싶은 마음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므로 교사는 평소 영아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도록 개별적으로 관심을 갖고 상호작용해야함.
 - 등·하원시 개별적인 관심을 보이며 반갑게 인사하기, 눈 맞추기, 스킨십 자주하기, 사랑해~ 자랑스러워~와 같은 긍정적인 반응하기
 - “00이 오늘 빨간색 나비가 그려진 옷을 입고 왔구나~”, “선생님은 00이를 사랑해~~”
- 영아의 시도 지원하기
 - 겁이 많고 의존적인 영아의 경우 영아가 스스로 걸어볼 수 있도록 교사가 개방적인 태도로 영아를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함. 일단, 혼자 걷는 것에 대해 영아가 느끼는 불안한 마음은 읽어주고 교사와 함께 서서히 혼자서 해볼 있도록 안내하기
 - “00이 선생님이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00이 손잡고 같이 걸어보고 싶은데.. 선생님 손잡고 걸어볼까?”
- 신체활동에 흥미 갖도록 하기
 - 게으른 성격으로 인해 걷기 싫어하는 영아는 평소 신체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여 신체활동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돕기. 혼자서 잘 걸을 때, 붕붕카를 타는 등 스스로 신체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영아가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기.
 - 신체 활동의 예 - 실외놀이터에서 걸어보기, 달리기, 자전거타기, 바람개비 날리기, 보육실에서 선 따라 걷기, 붕붕카 타기, 유니바 넘기, 공 던지고 받기
 - “와우~ 00이가 혼자서 잘 걷네. 혼자서 잘 하는 00이 참 멋지다~”
 - “00이가 유니바를 넘고 있구나. 힘들텐데 혼자서도 참 잘한다~”

다. 유의사항

- 영아가 혼자 걸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영아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면 영아는 교사에게 거부당했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영아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은 피해야 함. 안기고 싶어 하는 영아의 마음은 읽어주지만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영아가 혼자 걸어보도록 제안하기

▶ 바람직한 상호작용

- “00이 선생님이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00이 손잡고 같이 걸어보고 싶은데.. 선생님 손잡고 걸어볼까?”
- “00이 선생님한테 안기고 싶구나~(한번 꼭 안아준다). 선생님도 00이 계속 안아주고 싶은데 지금은 친구들 손 씻는거 도와줘야 하니까 00이가 한번 혼자 해볼까? ”

▶ 바람직하지 않은 상호작용

- “ (단호하게) 안돼! 00이 혼자 걸을 수 있잖아. 선생님 친구들 도와줘야 해서 00이 안아줄 수 없어요. 혼자 걸어봐!”

- 별다른 문제가 없는 영아라 할지라도 학기 초 적응 기간에는 새로운 환경이 낯설어 교사에게 안겨만 있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이러한 영아의 경우 새로운 반과 선생님, 또래, 하루 일과에 적응이 된 후에는 교사에게 안겨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놀이에 참여하게 됨.

□ 가정과의 연계

- 가정에서도 영아가 혼자 걸었을 때 충분히 격려해주기를 부모에게 안내하기
- 영아가 혼자 걸을 수 있는데 부모의 과잉보호로 인해 안겨서 생활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 만약, 부모의 과잉보호로 그렇다면 혼자 걸을 수 있는 아동의 경우 스스로 걸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이에게 더 유익한 것임을 부모에게 알리기

3. 엄지, 검지를 쓰지 않고 크레파스를 손 전체로 잡는 경우

- 만 1세인 ○○는 엄지와 다른 손가락을 이용하여 크레파스를 잡지 못하고 손가락 전체로 움켜쥐고 그림을 그린다.



[그림 11-3-1] 크레파스를 손 전체로 잡는 영아

가. 원인 분석

유전적·환경적 요인

- 유전적으로 소근육 운동 발달이 늦은 가계의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아이에게 주어진 자극이 부족한 환경 탓에 발달이 잠재되어 있고 발현이 늦어지는 것일 수 있음.

손의 힘이나 기술적 정교함의 부족

- 손동작 발달이 느린 현상적 문제만을 고려하여 직접적인 원인을 살펴본다면 첫째, 손에 힘을 모으는 신체적 작업이 서툴거나 둘째, 손가락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움직이는 기술적 정교함이 부족하기 때문임.

뇌 발달 이상

- 뇌 발달에 이상이 있을 수 있음. 손동작과 뇌의 발달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므로 손동작이 정밀하지 못하고 정상보다 발달이 많이 늦다면 뇌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 검사가 필요함.

나. 지도 방법

□ 손아귀 힘(악력)을 키워 주기

- 손에 힘을 모으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 힘을 모아서 목표를 성취하는 연습 기회를 자주 갖도록 함. 찰흙을 움켜쥐기, 한 손으로 신문 잡고 다른 손의 손가락으로 찢기. 신문지 격파 등의 활동이 도움이 됨.
 - “○○아, 이 공처럼 둥그란 찰흙을 한 손으로 잡고 꼭 힘을 쥐서 모양을 뭉그러뜨려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힘을 꼭 주는 거야.”
 - “△△이는 왼손으로 이 신문을 잡아 보자. 그리고 이렇게, 선생님처럼 두 손가락으로 이 끝을 잡고 꺾꺾 찢어보면 어떨까? 국수같이 꺾꺾 길게 찢어 보세요.”
- 유아용 철봉에 매달리는 운동을 자주 시킴. 매달려있는 시간을 점차 늘려갈 수 있도록 조금씩 자주 하도록 이끌어 줌.
 - “자, 지금부터 철봉 매달리기 놀이를 할 거예요. 누가 먼저 해볼까요? 우리 △△이부터 해볼까?”
- 조금 무게가 나가는 책이나 물건을 높은 곳에 올려놓는 놀이를 하게 함.

□ 손가락 운동을 자주 시켜주기

- 손가락을 하나하나 펴고 접고 하는 놀이를 많이 하도록 유도함.
- 손가락 접고 펴면서 수세기하기, 노래하면서 손가락 하나씩 접고 펴는 동작을 울동으로 따라하기 등 소근육 정교화를 위한 운동을 매일 하도록 함.
 - “○○아, 선생님이랑 이 노래하면서 울동해보자. ♪♪엄지 어디 있니, ~엄지 어디 있니, 여기 있어, ♪ ~”

다. 유의사항

- 시간을 두고 손가락 힘과 정교성을 높이는 연습을 꾸준히 하도록 지도함. 일시적으로 하는 것 보다 매일 조금씩 비슷한 놀이를 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음.
- 손가락과 손아귀 힘을 키워줄 수 있는 놀이의 정보를 부모에게 알리고 가정에서도 함께 해 볼 수 있도록 안내함.

- 교사가 판단할 때 다른 아이에 비해 매우 심하게 소근육 발달이 늦어진다는 생각이 들면 부모에게 상황을 알리고 검진을 받아볼 것을 권유해도 좋음. 이 경우 다른 아이보다 6~12개월 정도 발달이 느리다고 생각된다면 검진을 받아볼 만한 정도임.

4. 손가락을 사용할 때 많이 흘리는 경우

OO(만 2세)은 손가락을 사용하기 시작한 지는 꽤 오래되었으나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음식을 많이 흘리거나 자주 쏟는다. 손가락을 쓰는 모습이 편안해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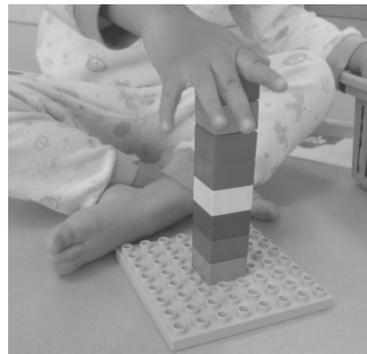
[그림 II-4-1] 정교한 손가락질을 하지 못하는 영아

가. 원인 분석

- 소근육 발달의 미숙
 - 소근육 협응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해 손가락 근육을 이용하여 손가락을 잡은 동작이 정확하지 않거나 입으로 가져가는 손 이동 동작이 정교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임.
 - 연령이 많아지면 당연히 좋아질 것이지만 또래에 비해 손가락을 잡고 떠먹는 동작이 어색하다면 바로잡아 주는 도움이 필요함.

나. 지도 방법

- 손바닥과 주먹이 아니라 엄지와 다른 손가락들을 이용한 정상적인 손가락 잡기 방식을 쓸 수 있도록 지도함.
 - 손가락을 고쳐 잡도록 도와주면 처음에는 하기 싫어하고 오히려 더 많이 흘리고 쏟을 수 있음. 교사가 인내심을 가지고 느린 변화를 기다려 줄 수 있어야 함. 손가락 잡는 방식을 바꿀 수 있도록 매일 조금씩 연습 시간을 늘려 줌.
 - “이게 첫째 손가락, 둘째 손가락, 셋째 손가락이야. 손가락은 첫째가 위로 오게 이렇게 (시범보임) 잡아야 한단다. 선생님이 도와줄게, 한 번 해보자.”
- 다른 소근육 발달 지체 문제와 마찬가지로 손가락의 힘과 팔의 힘을 길러줄 수 있는 놀이 활동을 하도록 지도함.
 - 엄지와 다른 손가락을 이용해 조각을 집고 맞는 위치에 끼워 넣는 (연령에 맞는) 퍼즐 놀이를 자주 하도록 유도함.
 - 블록 쌓기를 하면서 무너뜨리지 않고 조심해서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주의력을 길러 줌.
 - 건반 악기 모형의 장난감을 검지, 중지, 약지 손가락 각각으로 눌러서 소리가 나도록 놀이방법을 알려주고 함께 놀아줌.
 - “이건 피아노야. 피아노는 요 건반 하나에 손가락을 하나씩 얹고 쳐야 하는 거란다. 선생님 손가락 볼까?(시범). 이 똥똥이, 길쭉이, 훌쭉이(검지, 중지, 약지 손가락 이름)로 피아노를 하나씩 눌러야 해. 여기 건반 많으니까 우리 한 손가락으로 하나씩 눌러보자.”



[그림 11-4-2] 손가락 힘을 길러줄 수 있는 놀잇감의 예

- 음식물 담은 숟가락을 입까지 옮겨가는 데 걸리는 시간과 거리를 최소한으로 줄여주는 환경 만들기. 이러한 환경을 통해 덜 쏟는 경험을 하게 되면 아이에게 자신감을 줄 수 있음.
 - 아이가 식탁에 바짝 붙어 앉도록 자리를 정리해주고 그릇을 몸 가까이로 당겨줌.
 - 식탁의 높이가 앉은키에 비해 너무 낮거나 높은지 확인하고 적절한 높이로 맞추기
 - “우리 OO이~ 조금 밖에 안 흘리고 잘 먹는구나. 계란이 OO이 입 속으로 쓱 들어가네~ . OO이도 선생님처럼 숟가락질 하는구나. 너무 너무 잘 했어.”

다. 유의사항

- 자기가 편한 방식으로 숟가락을 잡는 행동을 의도적으로 바꿔주는 것은 불편함을 감수하도록 시키는 일이므로 아이가 힘들어 할 수 있음. 억지로 하도록 강요하는 느낌을 주지 말고 더 쉽고 재미있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해주며 매일 조금씩 연습하여 자연스럽게 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교사가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주는 것이 필요함.

5. 블록을 3개 이상 쌓지 못하는 경우

OO이(18개월)는 블록 쌓기를 잘 하지 못한다. 또래 영아들은 한 손으로 블록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블록을 쌓아올리는 동작에 재미를 붙이고 잘 하는 반면, OO이는 두 손으로 블록을 잡고 쌓기를 하며 균형을 잘 잡지 못해 3개 이상 쌓지 못하고 무너뜨리고 만다.

가. 원인 분석

- 소근육 및 손과 눈의 협응력 발달 미숙
 - 소근육과 손과 눈의 협응력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해 한 손으로 블록을 잡고 다른 손으로 모양을 맞추어 위에 하나씩 올려놓아야 하는 쌓기 방법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임.

나. 지도 방법

- 블록의 크기가 영아가 잡기에 적절하고, 정육면체 등과 같이 굳이 모양을 맞추지 않아도 쉽게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블록으로 쌓기 연습을 하도록 함.
 - 이후 직육면체나 오각기둥 등 모양을 맞추는 기술이 필요한 다양한 모양의 블록으로 진행하도록 함.
 - 블록 쌓기에 자신감을 가진 후 모양뿐 아니라 크기 또한 다양한 블록을 준비하여 쌓아보도록 격려함.
- 한 손으로 블록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블록을 쌓아올리는 모습을 시범 보이고 따라하도록 지도하기
 - 이 때 블록이 아동의 가까이에 있어 몸을 기울이지 않고도 한 손으로 잡고 있을 수 있는 간격이어야 함. 아이의 편에서 무게 중심을 흐트리지 않고 쉽게 몸의 상체를 좌우로 움직일 수 있게 블록을 팔이 닿는 거리 안쪽에 두고 쌓기를 하도록 지도함.
 - “자, 블록을 ○○이 가까이 놓고 쌓아보자. 너무 멀리 놓고 하면 잡고 있기가 힘들거든.”
 - “○○야, 이렇게 왼손으로 이 빨간 블록을 잡고 오른손으로 요기 노란 색 블록을 집어서 빨간 색 위에 올려놓는 거야. 왼손으로 이 빨간 색을 먼저 잡고 있어야 해. 그래야 안 넘어 지거든. 그렇지 않으면 다 무너져 버려요. 자, 꼭 이 손으로 바닥에 있는 블록을 먼저 잡고 쌓아 올리기다. 그렇지, 잘 했어요.”
- 눈과 손의 협응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놀이들을 해 봄.
 - 막대기에 고리를 거는 놀이를 하게 함. 기다란 막대기에 둥근 고리를 걸어 보게 해서 협응 훈련을 할 수 있음.
 - 처음에는 가는 막대기에 큰 고리를 걸어 쉽게 걸 수 있게 하고 점차 막대기는 굵어지고 길이도 작아지고 고리의 구멍 또한 작아지도록 하여 막대기를 구멍에 맞출 수 있는 연습이 되도록 함.
 - “자, 이 막대기를 왼손으로 들고 오른손은 이 둥그런 고리를 잡아요. 그리고 선생님처럼 이렇게 막대기에 고리를 걸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 크레파스를 쥐고 꼬불꼬불 연결된 오솔길을 따라서 떼지 않고 선을 그어가는 연습을 해 봄.
- 선을 따라서 죽 같이 그려보고 마지막에는 원이나 사각형 등 큼직한 간단한 도형 모양도 같이 따라 덧그려볼 수 있는 놀이판을 준비하여 즐겁게 해보도록 지도함.

다. 유의사항

- 눈과 손의 협응 발달 속도는 아동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그것은 유전적 성향이나 인지발달, 운동능력의 발달 등 다양한 원인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발달 속도의 차이이므로 이러한 개인차를 교사가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요구됨.
- 앞서 제시된 몇 가지 놀이 외에 교사의 손 움직임을 따라서 그대로 해보기라든지 같은 모양 찾기라든지 다양한 방식의 지도 방법들을 교사가 생활 속에서 찾아보고 아이가 자주 따라해 볼 수 있도록 끈기를 갖고 지도하기

참고자료

- ▶ 영아의 소근육과 손과 눈의 협응력 발달을 증진시켜줄 수 있는 활동의 예

활동명: 길을 따라 드라이브해요

활동자료: 미니 자동차 장난감, 도로 그림이 그려진 전지(또는 카펫)

활동방법: 1. 자동차를 손가락으로 잡고 바퀴를 바닥에 대고 굴러본다.

2. 도로 그림을 바닥에 깔고 전체 모습을 탐색한다.

3. 자동차를 잡고 도로를 따라 바퀴를 굴려 앞으로 가도록 한다.

- 꼬불꼬불 도로로 드라이브 해 볼까요?

- 쪽 뻗은 도로에서 신나게 운전해 볼까요?

- 길옆에 집들이나 나무에 자동차를 부딪치면 안돼요. 그럼 다치겠지?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운전하기.

참고사항: 1. 영아가 자동차 놀이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 및 다양한 종류의 도로 그림을 준비한다.

2. 도로 옆선을 건드리지 않고 자동차 움직이는 모습을 선생님이 보여주고 영아 옆에서 정교하게 손을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 준다.

6. 다리 힘이 약하여 자전거 페달을 돌리지 못하는 경우

00이는 48개월이다. 00이는 혼자서 세 발 자전거 페달을 돌리지 못하고 교사에게 밀어달라고 하거나 다리를 땅에 끌며 자전거를 움직인다.



[그림 II-6-1] 자전거를 잘 타지 못하는 유아

가. 원인 분석

- 대근육 능력 발달 미숙
 - 일반적으로 36개월 정도면 능숙하지 못하더라도 혼자서 세 발 자전거를 탈 수 있고, 48개월 정도에는 능숙하게 탈 수 있음
- 경험 부족
 - 자전거를 타 본 경험 부족으로 연습할 기회가 없는 경우
- 뇌 발달 이상
 - 뇌 발달 이상으로 대근육 운동 발달 지연을 초래할 수 있음.

나. 지도 방법

- 세 발 자전거의 페달을 돌리기 위해서는 다리 근육의 힘이 있어야 함. 뇌발달 이상의 문제가 아닌 경우 다리 근육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다리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을 해야 함.
- 영아의 다리 근육 발달을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놀이를 계획하고 실천하기
 - 다리 근육의 힘을 길러줄 수 있는 활동으로는 걷기, 달리기, 계단 오르내리기, 정글짐 오르내리기 등이 있음. 실외놀이터에서 그냥 걷고 달리는 것도 유아에게 유익하고 재미있는 활동이 될 수 있지만 유아의 참여 동기를 높이기 위해 평소 해당 유아가 좋아하는 대상이나 사물, 주제 등을 민감하게 관찰하여 활동에 적용하면 더 좋음.
 - 예를 들어, 평소 영웅 만화 캐릭터(슈퍼맨, 파워레인저 등)를 좋아하는 유아라면 슈퍼맨처럼 뛰어보기, 슈퍼맨 되어 훈련하기(릴레이, 점프하기, 복합놀이대 올라가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음.
 - “00이 슈퍼맨처럼 저기 나무까지 뛰어 갔다 와볼까요?”
 - “슈퍼맨들! 달리기 시합 할 준비 되었나요? 준비 출발!”
 - 일반적인 걷고 달리기 뿐 아니라 선따라 걷기/ 달리기, 옆으로 걷기/달리기, 천천히 걷기/달리기, 빨리 걷기/달리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체활동 실행하기
 - 혼자서 걷고 달리는 활동 뿐 아니라 친구와 짝지어 걷기/달리기, 친구에게 부딪히지 않게 걷기/달리기 등 또래와 함께 활동할 수 있음.
- 세 발 자전거 타는 연습하기
 - 세 발 자전거를 혼자서 타 본 경험이 거의 없는 경우 연습 부족으로 자전거 페달을 돌리는 행동이 미숙할 수 있음. 이러한 경우 평소 실외놀이터에서 세 발 자전거 타기를 적극적으로 해 볼 수 있는 기회 마련하기
 - 만약, 실외놀이터에서 자전거 타기가 어렵다면 실내용 자전거를 이용하여 보육실, 강당, 유희실과 같은 장소에서 타 볼 수 있음.
- 유아가 실패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도록 긍정적인 강화하기

- 또래들은 혼자서 자전거를 잘 타는데 자신만 잘 타지 못 할 경우 좌절감을 느껴 자전거 타기를 시도하지 않을 수 있음. 비록 혼자서 하는 것이 미숙하다하더라도 교사가 유아의 시도와 노력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어야 함. 또래와 비교하여 유아를 비하하는 말은 바람직하지 않음.

▶ 바람직한 상호작용

- “00이 자전거 페달이 잘 안돌려지는구나. 선생님이 도와줄까? 한발은 오른쪽, 한발은 왼쪽에 올려놓고. 다리를 빙글빙글 돌려보자. 와우~ 00이 다리를 열심히 돌리고 있네”
- “00이가 열심히 돌려서 앞으로 자전거가 움직이네. 처음부터 잘 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 더 해볼까?”

▶ 바람직하지 않은 상호작용

- “00이 형아지? 이제 다 켜오니 혼자 타야지...”
- “00아 그렇게 하는게 아니라... 발을 여기 올려. 그리고 돌려.. 아니~ 그렇게 하는게 아니라~ 아유~ 넌 왜 그것도 못하니?”

- 뇌 발달의 이상이 있는 경우 대근육 발달이 미숙할 수 있으므로 자전거 타기 뿐 아니라 혼자 걷기, 달리기 등 다리 근육의 힘을 요하는 다른 행동들의 발달도 지연될 것임. 유아의 행동을 민감하게 관찰하여 이상이 느껴질 경우 전문의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음.

다. 유의사항

- 다리 근육의 힘이 부족하여 나타날 수 있는 상황으로 ‘자전거 타기’의 예를 들어 설명하였으나 자전거 타기 뿐 아니라 멀리뛰기, 달리기 등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다리의 대근육 힘이 부족한 경우 생기는 문제이므로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적용하여 유아를 지도할 수 있음.
- 가정과의 연계
 - 가정에서 자전거 타기 등 대근육 활동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지에 대해 부모에게 물어보고 만약 그러할 경우 주말 등을 이용하여 부모와 함께 자전거 타기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 부모가 또래와 비교하여 자전거를 혼자서 타지 못하는 것에 대해 유아를 혼내지 않도록 따뜻한 분위기에서 격려해줄 것을 부탁하기

참고자료

▶ 다리 대근육 발달을 증진시켜줄 수 있는 활동의 예

활동명: 누워서 자전거를 타요

활동자료: 낙하산, 자전거를 타는 다양한 모습의 사진(누워서 타는 자전거, 누워서 타는 2인용 자전거, 외발 자전거 등)

활동방법: 1. 동그랗게 모여앉아 자전거를 타는 다양한 모습을 살펴본다.

2. 자전거 타는 흉내를 내본다.

- 자전거 탈 때 다리를 어떻게 움직이지?

- 빠르게/느리게 달릴 때는 어떻게 움직일까?

3. 누워서 자전거 타는 흉내를 내본다.

- 누워서 자전거를 타볼까?

- 옆 친구와 부딪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다리를 들고 자전거 타는 것처럼 움직여볼까?

- 빨리/느리게 달리는 자전거가 되어 볼까?

4. 낙하산 아래 누워서 낙하산천을 발로 차며 자전거 타기를 해본다.

- 낙하산 끝을 잡고 자전거를 타볼까?

- 자전거를 타는 흉내를 내니 낙하산이 어떻게 움직이니?

5. 자전거 타 본 느낌을 이야기한다.

자료: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2013). 3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7. 점핑(jumping)⁴⁾ 등과 같은 대근육 동작을 하지 못하는 경우

가. 원인 분석

00이는 49개월이다. 00이는 점프할 때 두 발을 번갈아 굴러 위로 뛰거나 착지할 수 있지만, 두발을 동시에 디더 위로 점프 하거나 착지 하지 못한다.

대근육 발달 미숙

- 일반적으로 24개월: 두발을 모아 제자리에서 뛴.
36개월: 바닥에서 두발을 모아 앞으로 뛴.
48개월: 한발을 들고 뛴.
60개월: 한발을 번갈아 들고 뛴.

균형감 부족

- 머리가 큰 영유아의 신체 구조상 몸의 균형 잡기가 어려움. 균형감이 부족할 경우 점프(착지)할 때 두발을 모아 점프(착지)하지 못하고 시간차를 두고 두발을 엇갈려 점프(착지) 하게 됨.

나. 지도 방법

대근육 발달을 도와줄 수 있는 활동 실시하기

- 이동 동작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평소 기초적인 대근육 활동 실시하기
예) 걷기, 뛰기, 자전거 타기 등
- 점핑 등과 같은 대근육 동작을 재미있게 연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 해보기
예) 제자리에서 두발 모아 깡충 뛰기, 앞으로 전진 하며 깡충 뛰기, 최대한 높이 뛰기, 토끼처럼 뛰기, 트램폴린 위에서 뛰기, 음악에 맞추어 뛰기, 공차기
- “00아~ 다리를 붙이고 위로 뛰어볼까? 두발을 동시에 위로 올릴 수 있을까?”

4) 위로 높이 뛰기

□ 균형감 발달을 도와줄 수 있는 활동 실시하기

- 점핑과 같은 대근육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몸의 균형감이 발달하여야 함. 영유아의 경우 머리가 크기 때문에 무게 중심을 잡기 어려워 성인에 비해 균형감이 떨어짐.
- 균형감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는 동작 해보기
- 예) 다섯 셀 동안 한발로 서있기, 발꿈치로 서기, 목을 하늘로 향하게 하고 발과 다리로 균형 잡기, 발을 붙이고 발끝으로 서기 등
- 균형감을 기르기 위해 눈을 감고 신체 동작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됨.
- 예) 눈감고 한쪽 발 들기, 눈감고 손 뺀어 만세하기 등
- “ 00아~ 선생님이 셋 셀 동안 한발로 서 있을 수 있겠니?”

다. 유의사항

□ 영유아는 개인차가 심하기 때문에 발달이 조금 늦는다고 해서 문제행동으로 간주하긴 어려움. 영유아 개인의 발달의 속도를 잘 관찰하여 또래에 비해 발달이 느린 영유아의 대근육 발달을 지원하는 교사의 개방적이고 허용적인 자세가 필요함. 하지만, 평균적인 발달지표에 비해 6개월 ~ 1년 이상 발달이 느린 경우는 전문의와의 상담이 필요함.

□ 점핑 뿐 아니라 호핑⁵⁾, 깎로핑⁶⁾과 같은 이동 동작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위에서 설명한 내용에 준하여 지도할 수 있음. 호핑, 깎로핑 능력 증진을 위하여 실시할 수 있는 활동의 예시는 아래와 같음.

호핑) 간단한 악기에 맞춰 호핑하기, 음악에 맞추어 호핑하기, 직선·곡선 등 다양한 선을 따라 호핑하기, 다양한 방향으로 호핑하기

깎로핑) 깎로핑 하다가 멈추기, 원 안에서 깎로핑하기, 짝과 함께 깎로핑 하기

5) 양감질이라고도 함. 한발로 뛰어 올라 같은 발로 착지하는 동작
6) 한발은 앞으로 걷고 다른 발은 달리듯 빨리 끌어다 내민 다리에 붙이는 동작(말이 뛰는 것처럼 엷박자로 뛰는 것)

참고자료

▶ 유아의 호핑, 깎로핑 발달단계

호핑	3세	편한 발로 3~5번 정도 호핑한다.
	4세	같은 발로 8~10번 호핑한다.
	5세	리듬에 맞추어 발을 바꾸어 가며 호핑한다.
깎로핑	3세	초보적인 수준의 깎로핑을 시작한다.
	5세	자연스럽게 깎로핑을 할 수 있다.

자료: 박영아 (2013). 유아동작교육. 교육과학사.

▶ 유아의 대근육 발달을 증진시켜줄 수 있는 활동의 예

- 점프와 같은 이동 동작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리 대근육을 이용하는 기본동작을 연습할 수 있는 활동들을 실시하는 것이 좋음.

활동명: 짹짹 늘어나는 내 몸

활동자료: 짹짹 늘어나는 내 몸 활동 예시 사진, 조용한 음악, 라텍스 밴드

활동방법: 1.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2. 밴드를 이용하여 몸을 늘리는 다양한 동작을 해본다.

- 밴드를 이용해서 어떻게 운동해볼까?
- 팔로 밴드의 양끝을 잡고 발가락에 닿게 할 수 있을까?
- 누워서 밴드를 끼우고 몸을 길게 늘려볼까?

3. 밴드를 이용하여 모양 만들기를 해본다.

- 모양에는 어떤 것들이 있니?
- 세모(네모) 모양을 만들려면 밴드를 어떻게 늘이면 좋을까?

4. 활동을 하고 난 후 느낌, 생각을 이야기해본다.

자료: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2013). 4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8. 팔의 힘이 약해 공을 던지지 못하는 경우

00이는 45개월이다. 00이는 공을 잡을 순 있으나 공을 던질 때 팔을 뻗어 일정거리를 던지지 못하고 아래로 내려치듯이 던져 공이 멀리 나가지 않는다.



[그림 II-8-1] 공을 잘 던지지 못하는 유아

가. 원인 분석

대근육 능력 발달 미숙

- 일반적으로 20개월 정도에 손을 어깨 뒤로 젖혔다가 공을 던질 수 있고, 만 3세 유아의 경우 팔을 고정시키고 몸을 회전하면서 팔을 뻗어 공을 던질 수 있음.

뇌 발달 이상

- 뇌 발달 이상으로 신체 운동 발달의 지연이 생길 수 있음.

나. 지도 방법

- 초보 단계의 던지기는 사물을 잡고 있다가 손가락을 펼치면서 바닥을 향해 떨어뜨리는 동작을 함. 점차 익숙해지면 팔을 어깨 위로 올려서 사물을 던질 수 있게 되고 그 후에는 팔을 뒤로 회전시킨 상태에서 멀리 던질 수 있게 됨.

□ 유아의 팔 근육 발달을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놀이를 계획하고 실천하기

- 공을 잡고 던지기 위해서는 팔 근육 발달이 선행되어야 함. 유아의 팔 근육 발달을 증진시켜 줄 수 있는 활동 실시하기. 예를 들어, 팔을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기, 팔 돌리기, 팔 굽혔다 펴기, 팔 꼬기, 친구와 마주보고 팔 밀기/당기기 등과 같은 맨손 체조도 도움이 됨. 팔 근육을 많이 사용하는 유아 체조를 개발하여 유아와 함께 노래나 구령에 맞춰 실시해보기
- 음률영역에서 개별 또는 소집단 활동으로, 대집단 활동시간에 모두 함께 또는 실내자유놀이를 정리하고 난 후 규칙적으로 팔 근육 증진 동작을 할 수 있음.
 - “손을 높이~ 손을 높이~ 쪽 쪽 올려볼까요?”
 - “00이 손이 선생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네~”

□ 교사가 시범 보이기

- 유아가 공 던지기를 어려워하면 교사가 공을 던지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모델링 할 수 있도록 하기. 공을 던지는 방법을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주고 개별적으로 지도하기

□ 유아가 또래와 비교하여 열등감을 갖지 않도록 격려하기

- 친구들과 비교하여 자신이 공을 잘 던지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유아는 열등감을 느낄 수 있음. 자신도 잘하고 싶어서 더 열심히 연습하는 유아가 있는 반면, ‘나는 왜 못하지? 해도 안될 거야...’ 라며 포기해 버리는 유아도 있음. 유아가 잘 하지 못하는 일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교사는 유아의 도전과 시도를 긍정적이고 따뜻한 태도로 격려 및 지원해주어야 함.

▶ 바람직한 상호작용

- “00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 00이가 연습하면 잘 할 수 있을 거야. 선생님은 00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 바람직하지 않은 상호작용

- “왜 이걸 못해. 이렇게 쉬운걸.. 자 선생님 보고 따라해 봐~. 아니~ 그게 아니라~ 팔을 위로 올리고..”

- “너가 못하니까 더 열심히 연습해야지. 다른 애들은 잘 하잖아.”

- 뇌 발달의 이상이 있는 경우 대근육 발달이 미숙할 수 있으므로 공 던지기 뿐 아니라 공 잡기, 팔 돌리기, 만세하기 등 팔 근육의 힘을 요하는 다른 행동들의 발달도 느릴 것임. 유아의 행동을 민감하게 관찰하여 이상이 느껴질 경우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음.

다. 유의사항

- 팔 근육 힘이 부족하여 나타날 수 있는 상황으로 '공 던지기'의 예를 들었는데, 공 던지기 뿐 아니라 공받기, 높이 있는 물건 잡기, 물건 들어올리기 등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팔 근육 힘이 부족하여 생기는 문제이므로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적용하여 유아를 지도할 수 있음.
- 가정과의 연계
 - 부모가 또래와 비교하여 자신의 아이가 잘 못하는 것에 대해 유아를 혼내지 않도록 따뜻한 분위기에서 격려해줄 것을 부탁하기
 - 결과보다는 아이가 놀이하는 과정, 용기 등을 칭찬해줄 것을 부탁하기

참고자료

- ▶ 유아의 대근육 발달을 증진시켜줄 수 있는 활동의 예
 - 공 던지기와 같은 동작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팔의 근육을 이용하는 기본동작을 연습할 수 있는 활동들을 실시하는 것이 좋음.

활동명: 부채춤 추세

활동자료: 부채, 부채춤 동영상

활동방법: 1. 유아들에게 부채를 보여준다.

2. 부채춤 동영상을 함께 본다.

3. 부채춤 동영상을 본 후 함께 동작을 익혀본다.

- 부채로 어떤 모양을 만들었니?

- 부채로 나비가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면 팔을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

4. 유아들과 함께 부채춤을 춰본다.
 - 너희들이 하고 싶은 동작을 마음껏 표현해보도록 하자.
 - ○○이는 팔을 둥글게 움직이고 있구나.
 - □□이는 팔을 흔들며 뱅글뱅글 도는구나.
5. 부채춤을 춰 본 후 유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참고사항: 팔근육의 힘이 약한 유아를 대상으로 하므로 처음부터 팔을 높이 들거나 어려운 동작으로 부채춤을 추지 않는다. 간단하고 쉬운 동작부터 실시한다.

자료: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2013). 4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9. 계단, 정글짐과 같은 기구에 오르내리기 힘들어하는 경우

○○이는 만 3세이다. 계단을 올라갈 때 두발을 번갈아 올라가지 않고, 한발을 올리고 다른 발을 그 옆에 놓고, 또 한발을 올리고 다른 발을 그 옆에 놓는 식으로 계단을 올라간다.

□□이는 만 5세이다. 실외놀이터에 있는 사다리나 정글짐에 기어서 올라가지 못하고 맨 아래 칸에 서서 다리와 팔을 어디에 둘 줄 모르며 위로 올라가는 것을 여러 번 시도하다가 포기한다.



[그림 II-9-1] 계단 오르내리기가 어려운 유아

가. 원인 분석

- 대근육 능력 발달 미숙
 - 만 3세가 지나면 사다리나 계단을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음
- 눈, 팔과 다리의 협응력 부족
 - 사다리나 정글짐을 오르내리기 위해서는 목표로 하는 높이의 봉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여 팔로 봉을 잡고 다리로 아래나 위에 있는 봉을 밟아야 함. 팔과 다리가 자연스럽게 움직이지 않는 경우 사다리나 정글짐에 오르내리기 힘들게 됨
- 겁이 많은 성격
 - 겁이 많아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을 두려워함.

나. 지도 방법

- 일반적으로 15개월에 층계를 기어오를 수 있으며, 18개월에는 서툴게 뛰고, 한 손으로 지지대를 잡고 층계에 오르기가 가능함. 24개월에는 혼자서도 잘 뛰며, 층계도 오르내릴 수 있음.
- 24개월 영아의 경우 성인이 손을 잡아주면 사다리와 같은 오르기 기구에 오르내릴 수 있고, 만 3세 이후의 유아는 오르기 기구를 자연스럽게 오르내리며 즐기게 됨. 영유아의 대근육 능력에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나 평균적인 발달수준에 비해 6개월 ~ 1년 정도 행동이 늦게 나타나는 경우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해야 함.
- 오르기 기구를 오르내리기 위해서는 팔의 힘과 다리의 힘이 있어야 함. 팔의 힘을 기르기 위해 팔 뻗기, 팔 구부리기, 팔 떨기, 팔 회전하기, 팔 흔들기, 팔 꼬기, 팔 당기기, 팔 밀기, 높고 낮은 곳에 있는 물건 내리기/들어올리기와 같은 동작을 평소에 연습하는 것이 좋음.
 - 음악에 맞춰 팔 운동 동작하기, 친구와 함께 하기, 다양한 도구(공, 리본테이프, 상자 등)를 이용하여 동작하기, 팀으로 나누어 게임하기 등의 방법으로 팔 운동을 재미있게 실시하기
 - 다양한 팔 동작이 들어간 간단한 체조를 만들어 일과 시간에 실시하기

- 다리의 운동 근육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엎드려 기기, 기어가기, 걷기, 달리기, 점프하기, 멀리뛰기, 점프, 호핑7), 깎로핑8) 등과 같은 동작을 자주 해주는 것이 좋음.
 - 음악에 맞춰 다리 운동 동작하기, 친구와 함께 하기, 다양한 도구(리본테이프, 유니바, 홀라후프 등)을 이용하여 동작하기, 두 팀으로 나누어 게임하기 등의 방법으로 다리 운동을 재미있게 실시하기
 - 다양한 다리 동작이 들어간 간단한 체조를 만들어 일과 시간에 실시하기
- 눈, 팔과 다리의 협응력을 기르기 위해 팔과 다리를 동시에 움직이는 동작 연습하기
 - 만세 하며 밧줄 뛰어 넘기, 엎드려 기어가기, 친구와 팔 흔들며 뛰기 등
- 교사가 시범 보이기
 - 계단 또는 오르내리기 기구를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교사가 설명하고 시범을 보이면 유아가 함께 해볼 수 있음.
- 대근육 발달에는 문제가 없으나 겁이 많은 성격으로 인해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유아도 있음. 유아가 어려워하는 상황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자극을 늘려 시도하기
 - 처음부터 정글짐의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것은 무리임. 처음에는 한 단 → 두 단 → 세 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점차 자극의 수준을 높이기
 - 처음에는 교사가 유아의 손을 잡고 도와주다가 점차 혼자서 하도록 하기

▶ 바람직한 상호작용

- “00아~ 선생님이 손 잡아줄게...괜찮아~~ 00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보자~ 와~ 00이가 혼자서도 정글짐 2층까지 올라 갔구나~ 00이가 겁이 났지만 용감하게 해냈구나~~ ”

▶ 바람직하지 않은 상호작용

- “뛰가 무섭다고 그래. 다른 친구들도 다 올라가는데.. 00이도 할 수 있지? 선생님이 보고 있을게. 한번 해봐~”

7) 양감질이라고도 함. 한발로 뛰어 올라 같은 발로 착지하는 동작

8) 한발은 앞으로 걷고 다른 발은 달리듯 빨리 끌어다 내민 다리에 붙이는 동작(말이 뛰는 것처럼 엷박자로 뛰는 것)

- 겁이 많은 유아의 성격을 고쳐주기 위해 처음부터 강도 높은 활동을 시도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음. 쉬운 수준부터 시도하여 성공하는 경험이 유아의 자신감을 높여 더 어려운 상황을 도전할 수 있게 함

다. 유의사항

- 오르내리기 기구는 영유아의 대근육 발달에 유익하기도 하지만, 떨어질 경우 크게 다칠 수 있으므로 특히, 오르내리기가 능숙하지 않은 영유아 혼자서 기구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교사의 관리가 중요함.

참고자료

- ▶ 영유아의 팔, 다리 근육 발달을 증진시켜줄 수 있는 활동의 예
 - 오르내리기와 같은 동작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팔과 다리 대근육을 이용하는 비이동 동작 및 이동 동작, 조작 운동을 연습할 수 있는 활동들을 실시하는 것이 좋음

활동명: 다양한 수영 방법 흉내 내기

활동자료: 언어영역에서 만든 수영방법 설명서

활동방법: 1. 언어영역에서 만든 '수영방법 설명서'를 보면서 여러 가지 수영 방법을 흉내내본다.

2. 유아들이 여러 가지 수영 방법을 표현해볼 수 있도록 한다.

- 개헤엄/돌고래 헤엄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 팔과 다리를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참고사항: 영유아가 다양한 팔 움직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동물들이 수영하는 방법을 흉내 내도록 격려한다.

자료: 보건복지부 (2012). 5세 누리과정에 기초한 어린이집 프로그램.

10. 가위를 사용해 도형 오리기를 잘 못하는 경우

OO(만 4세)은 선을 따라 자르는 가위질을 잘 하지 못하고 오리기 시간에 짜증을 자주 낸다. 가위 날로 종이를 정교하게 자르지 못하고 가위를 종이에 갖다 대고 뭉개듯이 집기 때문에 종이가 모양대로 잘라지지 않고 너털너털하게 찢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림 II-10-1] 가위질을 하고 있는 유아

가. 원인 분석

- 소근육과 눈과 손의 협응 발달 미숙
 - 소근육과 눈과 손의 협응이 발달하지 못해 시각적인 정보와 손 근육을 이용하는 작업이 조화롭게 이루어지지 않음.
- 뇌 기능 장애 또는 체내 물질 불균형
 - 두뇌 발달 지체나 뇌 기능 장애로 인해 또래 아이들보다 소근육 발달이 늦고 체내 물질 불균형으로 집중력 장애가 있을 수 있음.

나. 지도 방법

- 눈과 손의 협응 훈련을 꾸준히 하도록 함.

- 연필로 선을 따라 그대로 긋는 연습을 한 페이지씩 규칙적으로 하기. 이 때 심이 가는 색연필을 이용해 선긋기를 함으로써 정교함은 높이면서 지루함을 덜도록 함.
- 선생님이 굵은 사인펜이나 보드마커를 활용하여 종이에 일직선을 긋고 아이가 이를 따라 가위질을 하도록 연습시킴. 선이 굵을수록 실수가 덜 드러나고 자르기가 쉬움.
- 중간에 멈추지 않고 선의 끝까지 자르도록 하여 완성한 것에 대해 칭찬하기
 - “선생님이 이 빨간 색 보드마커로 선을 그을게. 선생님 손가락 끝을 같이 보자. 자, 여기서 종이 끝까지 그었지? 이제 ○○이가 가위를 들고 이 선을 따라 천천히 잘라 볼까?”
 - “와~, ○○이 잘 했구나. 이번엔 중간에 멈추지 말고 끝까지 잘라 볼까?”
- 가위질 하는 것에 재미를 붙여 간단한 오리기 과제들을 계속 연습할 수 있도록 활동 제공하기
 - 간단한 도형을 가위를 사용해 오려내는 모습을 시범해 줌.
 - 가위로 오리기가 재미있는 활동임을 알게 하고, 오려낸 모양으로 다양하게 놀 수 있는 활동 제공하기(붙이기, 접기, 꾸미기 등)

다. 유의사항

- 오리는 작업이 지루해지지 않도록 도형의 크기나 모양(단순한 모양의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함), 색깔, 종이의 재질 등을 다양하게 하여 오리는 연습을 꾸준히 하도록 격려하기
- 가정에서 연습할 수 있는 재료와 가위질을 할 수 있는 놀이를 부모에게 알려주어 가정에서도 재미있게 가위질을 할 수 있도록 하기
- 가위의 크기가 아이의 손가락에 꼭 맞는 것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하고 가위의 끝부분은 뾰족하고, 가위 날이 밖으로 나와 있지 않은 안전 가위를 사용하기

11. 동작이 너무 느린 경우

○○이(만 5세)는 다른 아이들과 같이 하는 활동에서 항상 제일 마지막까지 활동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바깥에 나갈 준비를 위해 외투를 입는 경우에 모든 아이들은 다 준비를 마쳐도 ○○이가 옷입기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아 선생님이 결국 다 해주게 된다.

가. 원인 분석

- 신체적 발달이 느림
 - 대·소근육 발달이 다른 아이보다 늦게 이루어져 손을 이용하여 하는 활동에서 속도가 늦을 수 있음.
- 기질적으로 꼼꼼함이 지나치거나 과도하게 느긋한 성격일 수 있음.
 - 무의식적으로 어떤 일이나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으며 일의 속도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빠뜨리지 않고 해야 한다는 과업 완성도에만 신경을 쓰는 성향을 가졌을 수 있음.
 - 성격이 느긋하여 매사에 천천히 함.
- 인지발달 지체 또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가 있을 수 있음.
 - 인지적 지체가 있으면 다른 아이보다 주의집중력이 떨어지고 문제해결력이 부족하여 어떤 활동도 끝까지 일정 속도로 마무리 할 수 없음. 주변 다른 아이들의 활동과 속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일을 마쳐야 한다는 개념이 없음. 집중력이 부족하여 주변으로 시선이 흩어지는 시간이 많고 대부분의 활동을 마무리하지 않고 그만두고 싶어 함.
 -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가 있는 경우도 위의 인지적 지체 경우와 마찬가지로 집중력 부족으로 활동을 끝까지 마무리하기 힘들고 속도가 느린 특성을 보임.

나. 지도 방법

- 소근육 발달이 느린 아이일 경우, 손가락 움직임과 눈과 손의 협응력 발달을 위한 놀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지도함.
 - 손의 힘을 키워 줄 수 있는 활동으로 즉, 철봉에 매달리기, 건반악기 장난감 손가락 하나씩 눌러서 연주하기, 큰 단추 끼우기 연습, 연령에 맞는 퍼즐 맞추기, 블록 쌓기, 가위로 모양 오리기 등을 자주 하게 함.
- 기질적으로 꼼꼼하거나 느린 성격의 아이인 경우, 작업의 속도에 대한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조금씩 빨리하도록 도와주고 속도에 대한 칭찬을 자주 함.

- 활동의 마무리 부분을 도와주기보다는 과업의 중간 부분에서 교사가 조금씩 개입하여 진행의 속도를 다른 아이와 맞추도록 지원해 줌.
 - (외투를 입으려 할 때 가장 먼저 OO에게 가서) “OO이 코트를 잘 입고 있구나. 선생님이 소매에 팔 넣는 것만 살짝 도와줄게. 옷이 무거워 보이니까.”
- 과업의 마무리를 본인이 스스로 하도록 기다려 주어 완성에 대한 자신감과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는 빼앗지 않도록 함. 적절한 속도로 일을 마친 것에 대해 반드시 칭찬해 줌.
 - (외투 입기를 마친 후) “단추까지 아주 잘 끼웠구나. 오늘은 OO이가 혼자 옷을 빨리 입었구나. 우리 OO이 점점 더 잘 하는 것 같구나.”
- 인지발달 지체 또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가 의심될 경우 부모에게 알리고 아이의 행동이 유지되도록 계속 주의를 집중시키고 지속하도록 도움을 줌.
 - 우선 부모에게 교사의 의견을 정중하게 전하고 관련 기관이나 병원을 찾아 검진을 받아보도록 안내함.
 - 한편 아이에게는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작은 행동에도 칭찬을 하고, 주의를 집중시키는 대화를 자주함.
 - 가능한 한 선생님 가까이에 아이가 위치해 있도록 유도하며 과업 행동을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도와주도록 함.
 - “선생님은 OO이 옆에 앉아야겠다. 이야, 재미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어, 그만 하고 싶어? 정말 잘 그렸는데 좀만 더 색칠하면 더 예뻐질 것 같은데. 선생님도 하고 싶어. 같이 해 보자.”

다. 유의사항

- 동작이 느린 아이는 동일한 행동임에도 다양한 원인으로 분석이 가능한 경우이므로, 교사는 아이가 어디에 해당하는 상태인지 면밀히 관찰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함. 많은 경우 위의 세 가지 원인 중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모두가 중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 이럴 때에는 지도법 또한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교사가 참을성 있게 보고 기다려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임. 그러나 아이의 자존감과 성취감을 다치지 않도록 하면서 눈에 띄지 않게 과업을 도와 단체 생활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잘 이끄는 것 또한 신경을 써야 함.

12. 걸음걸이나 뛰는 자세가 불안정하여 자주 넘어지고 부딪히는 아이

00이는 26개월이다. 걸을 때 뒤뚱뒤뚱 걸으며 자주 넘어져 이마, 얼굴, 무릎 등에 상처가 자주 난다. 특히 얼굴에 상처가 나는 것을 싫어하는 00이 엄마는 00이가 넘어져 다칠 때 마다 교사에게 불편한 심정을 전하는 통에 교사는 00이가 불안하게 걷다가 넘어지는 상황이 매우 힘들게 느껴진다.

△△는 52개월이다. 걸을 때 휘청휘청 넘어질 듯 걷고, 자주 넘어져 친구들이 만들어 놓은 블록을 무너뜨리거나 친구와 자주 부딪혀 분쟁이 생기곤 한다.



[그림 11-12-1] 걷거나 뛸 때 잘 넘어지는 영아 또는 유아

가. 원인 분석

- 대근육 능력 발달 미숙
 - 생후 15개월경 영아는 거의 넘어지지 않고 혼자 서고 걸을 수 있음.
- 균형감 부족
 - 머리가 큰 영유아의 신체 구조상 몸의 균형 잡기가 어려움.

□ 조절능력 미숙

- 걸거나 뛸 때 주변을 살피지 못하고 앞만 보고 걸거나 뛰는 경우 넘어지거나 부딪힐 확률이 높아짐

나. 지도 방법

□ 영아의 경우 개인차가 심하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걷는 시기는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 특히, 영아들의 신체 구조 상 머리가 크고 다리가 짧기 때문에 몸의 균형 잡기가 힘들어 불안정한 자세로 걷는 경우가 많음

□ 유아의 경우 영아에 비해 몸의 무게 중심이 어느 정도 균형 잡히긴 했으나 다리 힘이 부족하거나 시야가 좁아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걸거나 뛰어 자주 부딪히거나 넘어지는 경우가 있음

□ 자주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아이는 또래가 만든 구조물, 작품 등을 부서 트릴 수 있고 친구들을 다치게 하여 또래 간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함

□ 대근육 발달 증진을 도울 수 있는 신체활동 하기

- 다리 힘이 약해 휘청휘청 넘어질 듯 걸을 수 있기 때문에 다리 근육의 힘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하여 실행하기

- 예) · 기기 - 빠르게, 느리게, 앞으로, 뒤로, 에벌레처럼, 신호에 따라 등
- 걷기 - 세게, 약하게, 큰 보폭으로, 작은 보폭으로, 군인아저씨처럼, 신호에 따라, 손뼉을 치며 등
 - 달리기 - 빠르게, 느리게, 무릎을 높이 들고, 호랑이처럼, 원을 돌면서 등
 - 공차기 - 오른발, 왼발, 멀리, 가까이, 친구에게, 축구 선수처럼 등
 - 점프, 호핑9), 깎로핑10)과 같은 이동 동작을 활용한 활동
 - 강하게, 약하게, 앞으로, 뒤로, 옆으로, 신호에 따라, 말처럼, 토끼처럼 등
 - 미끄러지기 - 다리를 좁게/넓게 벌리고, 한번, 여러 번, 스케이트 타듯이 등

9) 양감질이라고도 함. 한발로 뛰어 올라 같은 발로 착지하는 동작

10) 한발은 앞으로 걷고 다른 발은 달리듯 빨리 끌어다 내민 다리에 붙이는 동작(말이 뛰는 것처럼 엇박자로 뛰는 것)

□ 균형감을 기를 수 있는 활동하기

- 균형감이 부족하여 자주 넘어질 수 있으므로 균형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활동 계획하고 실행하기

예) 다섯 셀 동안 한발로 서있기, 발꿈치로 서기, 목을 하늘로 향하게 하고 발과 다리로 균형 잡기, 발을 붙이고 발끝으로 서기, 블록 위 걸어보기, 평균대 걷기, 징검다리 건너기 등

- 균형감을 기르기 위해 눈을 감고 신체 동작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됨

예) 눈감고 한쪽 발 들기, 눈감고 손 뺀어 만세하기 등

- “ 00아~ 선생님이 셋 셀 동안 한발로 서 있을 수 있겠니?”

□ 주변을 살필 수 있도록 도움주기

- 시야가 좁고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걸어가는 습관을 가진 영유아를 도와주기 위해 걸을 때, 떨어질 때 지켜야 하는 약속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 걸을 때(떨 때) 앞/좌/우 상황 살피기, 너무 빠른 속도로 걸거나 뛰지 않기

다. 유의사항

- 영아의 경우 걸거나 떨어질 때 균형을 잡기가 더 어려우므로 교실에 불필요한 물건이나 교구장 등은 정리하여 넘어져서 다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 걸거나 뛰다가 넘어져 일어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모서리 보호대와 같은 안전용품 세팅하기

참고자료

▶ 영유아의 대근육 발달을 증진시켜줄 수 있는 활동의 예

- 걷기(뛰기)와 같은 이동 동작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리 대근육을 이용하는 기본동작을 연습할 수 있는 활동들을 실시하는 것이 좋음.

활동자료: CD 플레이어, 빠른 음악과 느린 음악이 연결된 CD
활동방법: 1. 행진하는 것처럼 보육실의 이곳 저곳을 걸어본다.
2. 음악을 들으며 리듬에 맞춰 걸어본다
- 빠른/느린 음악이 나오네. 어떻게 걸어볼까요?
- 00이는 다리를 천천히 움직여 느릿느릿 걷고 있네.
- □□이는 천천히 기어가는구나.
3. 음악에 맞춰 걷는 것이 익숙해지면 여러 가지 모습으로 걸어본다.
- 큰 걸음으로 걸을 때 팔은 어떻게 하면서 걸어볼까?
- 00이는 나비처럼 양 팔을 벌리고 걷고 있구나.
- 00이는 작은 걸음으로 걸을 때 몸을 웅크리고 걷는구나.

자료: 보건복지부 (2013).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2세 보육프로그램.

▶ 영유아의 균형감 발달을 증진시켜줄 수 있는 활동의 예

활동자료: 색테이프
활동방법: 1. 교실 바닥에 미리 색테이프로 직선, 곡선 모양의 선을 붙여주고 영아가 관심을 보이면 탐색한다.
- 여기 어떤 길이 있니?
- 빨간색 구불구불 꼬부라진 길이 있구나.
2. 선을 따라 걸어본다.
- 빨간색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넘어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나요?
- ○○이가 조심조심 팔을 벌리고 꼬부라진 길을 걸어가고 있네.
- 구불구불한 길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참고사항: 균형감 발달을 위해 눈을 감고 걸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단, 대근육 발달 및 균형감 발달이 미숙한 영유아이므로 넘어져서 다치지 않도록 교사의 감독이 요구됨.

자료: 보건복지부 (2013).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2세 보육프로그램.

13. 항상 기대어 앉거나 누워서 활동에 참여하는 아이

00이는 어린이집 일과 시간 중 거의 대부분을 교사나 벽, 쿠션 등에 기대어 앉아서 시간을 보낸다. 책을 보거나 놀이를 할 때는 물론 간식시간과 같이 음식을 먹을 때에도 바르게 허리를 펴고 앉기 보다는 무언가에 기대어 앉거나 누워서 주로 시간을 보내는 편이다.

가. 원인 분석

- 근육의 힘 부족
 - 일반적으로 생후 6개월 이후부터 스스로 앉기가 가능함
- 생활 습관의 문제
 - 평소 가정에서 누워서 생활하는 것에 익숙한 경우 또는 가정에서 부모가 누워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 누워서 생활하는 것이 습관이 된 경우
- 컨디션 조절 실패로 인한 피로감
 -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거나 쉬는 날도 없이 어린이집에 매일 등원하는 아이 또는 아픈 경우에도 쉬지 못하고 어린이집에 오는 아이들의 경우 누적된 피로감으로 인해 누워서 생활하고 싶어 할 수 있음

나. 지도 방법

- 영유아의 허리 근육 힘을 길러 줄 수 있는 활동 계획하고 실천하기
 - 영유아가 관심을 갖는 주제나 놀이, 교구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이들과 관련된 신체활동을 실시하여 영유아가 적극적으로 신체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허리 근육의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하기
 - 예)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영유아의 경우 실내, 실외에서 봉봉카 타기, 자전거 타기 등을 실시하기/영웅 만화 캐릭터를 좋아하는 영유아의 경우 영웅 캐릭터처럼 뛰어보기, 걸어보기 등의 활동을 실시하기

- 허리 근육 발달을 도와줄 수 있는 신체활동 :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붕붕카 타기, 훌라후프, 줄넘기 등
 - “00아~ 자전거 타볼까? 저기 있는 나무 앞까지 가보자~”
 - “00이 캥거루처럼 뛰어 볼 수 있겠니? 하나 둘 셋! ”
- 높이 올려져 있는 물건을 집어 올리는 운동, 쌓여져 있는 물건 내려놓기 등의 운동은 허리근육 강화에 특히 도움이 됨.

□ 영유아가 바르게 앉아 생활하는 경우 격려하기

- 가정에서 평소 누워서 생활하는 등의 생활 습관으로 인해 기대어 앉거나 누워서 활동에 참여하는 영유아의 경우 바르게 앉아 생활하여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바르게 앉았을 경우 칭찬과 격려하기

▶ 바람직한 상호작용

- “00아 벽에 허리를 구부정하게 기대어 앉아서 그림을 그리면 00이 허리가 삐뚤어져서 키도 크지 않고, 허리가 많이 아프게 된단다. 허리를 쭉 펴고 책상 앞에 앉아서 그림 그려볼까?”
- “00아, 00이가 쌓기 영역에 누워있으니까 친구들이 지나가는데 불편하겠구나. 친구들이 00이한테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00이가 친구들한테 밟힐 수도 있으니까 앉아서 놀이하자~”

▶ 바람직하지 않은 상호작용

- “00아, 바르게 앉아야지! 그렇게 누워있으면 어떻게! 친구들이 불편하잖아!”

- 가정에서도 기대어 앉거나 누워서 생활하지 않도록 학부모가 신경 써서 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 구하기
 - “ 00이가 바르게 앉아서 밥을 먹는구나. 와우~ 정말 멋지다~”
 - “ 00아, 누워서 책을 보면 눈이 아프데. 우리 앉아서 책볼까?”

□ 영유아가 정상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조절하기

- 잠이 부족하거나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하지 못한 경우 하루 종일 피로감을 느껴 기대어 앉거나 누워있고 싶어 할 수 있음.

- 영유아가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즐겁게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낮잠 시간의 양, 아침에 잠을 깨는 시간, 하루 일과 중 영유아의 활동량 조절 등을 통해 영유아의 피로감을 조절하도록 하기. 특히, 아침에 잠을 깨는 시간 등은 가정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므로 학부모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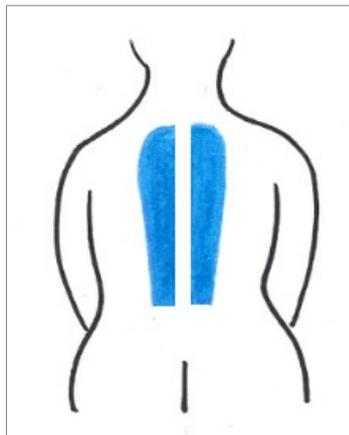
다. 유의사항

□ 가정과의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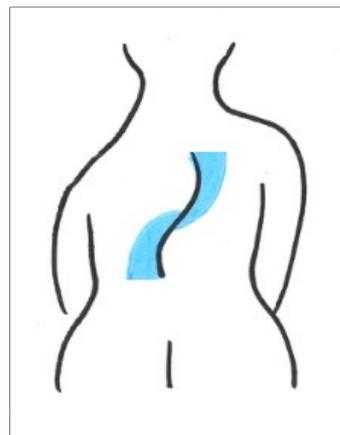
- 기대어 앉거나 눕는 습관은 가정에서 부모를 모방하여 형성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가정에서 부모가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협조 구하기
- 영유아의 컨디션 조절을 위해 귀가 후 가정에서 편안한 시간 보내기, 잠들고 잠깨는 시간 조절하기 등과 같은 점을 부모가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 교육 자료를 만들어 제공하거나 면담을 통해 알리기

- 누워서 생활하거나 바르지 않은 자세로 기대어 앉는 것이 장기간 습관이 될 경우 척추측만증에 걸리게 될 확률이 높아짐. 바르게 앉아 생활하는 자세의 중요성에 대해 교사들이 경각심을 갖고 영유아를 지도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교사가 좋은 자세의 모델을 보여주는 것도 매우 중요함.

정상의 경우 좌우 대칭



척추측만증의 경우 좌우 비대칭



[그림 11-13-1] 정상척추와 척추측만증이 있는 아동의 모습

14. 움직이기를 싫어하거나 거의 움직임이 없는 아이

○○이(4세)는 어린이집에 오면 마음에 드는 장난감 옆에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하루 종일 그 자리를 거의 떠나지 않는다. 대집단 활동 시간에도 완전히 일어서서 움직이지 않고 엉거주춤 기듯이 조금 자리를 옮길 뿐이다. 바깥놀이 시간에는 나가긴 하지만 한 쪽에 앉아 다른 아이들 놀이를 조용히 보고 있기만 하고 참여하려하지 않는다.

가. 원인 분석

- 신체적 측면: 허약함이나 비만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
 - 신체적으로 허약하여 쉽게 지친 경험이 쌓였거나 만성적인 수면부족으로 피로감이 누적되어 가능하면 적게 움직이려는 무의식적 태도를 갖게 될 수 있음.
 - 비만으로 인해 신체를 움직이는 활동에 쉽게 지치게 되거나 남들 앞에서 비만으로 인한 둔하고 느린 움직임으로 놀림을 받을까봐 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성격적 측면: 유난히 겁이 많거나 소심함, 경쟁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성격
 - 성격적으로 소심하여 움직임에 따른 결과, 즉 넘어지거나 긁힐 수 있는 경우를 두려워하여 움직이기를 주저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 이러한 경험이 쌓일수록 점차 동작을 하는데 자신감을 잃게 되어 움직임을 최소화하고자 함.
 - 과도하게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성격을 가진 아이일 경우 경쟁적인 놀이일 때 참여를 거부할 수 있음. 이기고는 싶으나 능력에 자신감과 확신이 없으면 아예 피함으로써 지는 상황을 대면하지 않으려고 함. 즉 경쟁 상황을 회피하고자 하는 성향의 표출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모든 움직임에 위축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음.
- 신체적 이상
 - 눈에 띄지 않는 신체적 이상 즉 심장이나 신장, 근육장애 등으로 움직이기를 불편해할 수 있음.

나. 지도 방법

- 신체적으로 허약하여 움직이기 싫어하는 아이: 생활 습관을 개선하기
 - 아이를 잘 관찰하여, 식사나 간식은 적절한 양을 잘 먹고 있는지, 기온에 맞는 옷차림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봄.
 - 부모님과 상의하여 가정에서의 생활습관, 특히 일찍 잠자리에 들 것과 충분한 양의 식사를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끝까지 하도록 조언함.
 - “천천히 먹어보자. 꼭꼭 씹어서 우리 ○○이, 맛있게 다 먹자. 남기지 않고 다 먹는 것이 좋은 행동이란다.”
 -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어린이가 건강한 어린이야. 밤에 일찍 자기, 약속!”
- 비만한 아이: 신체적 자신감을 북돋워주고 움직임 유도하기
 - 움직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줌.
 - “선생님이랑 저쪽으로 가서 놀아볼까? 우리 자리를 옮겨서 해보면 더 재미있을거야.”
 - “이것 좀 같이 들어 줄래? ○○이가 같이 들어 주면 참 좋겠다.”
 - 움직임과 외모에 대해 좋은 점을 발견하여 자주 칭찬함.
 - “○○이 걷는 모습이 참 씩씩하고 예쁘구나!”
- 성격적으로 소심하거나 겁이 많은 아이: 안전에 대한 신뢰감을 심어주고 경쟁놀이를 피하기
 - 쉬운 신체활동을 여러 가지 계획하여 조금씩 참여하도록 이끌어 줌.
 - “(놀이기구에서) ○○이는 오늘 여기까지만 올라가 볼까? 정말 잘 했어.”
 - 신체활동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주고 등수를 매기는 경쟁놀이를 피하도록 함.
 - “○○이도 같이 해보자. 누구든지 다 잘 할 수 있는 게임이야.”
 - 활동 공간 주변에 안전장치(예. 선생님이 지켜봄)가 있음을 확인시켜 줌.
 - “선생님이 ○○이 잘 지켜볼 테니까 걱정 하지 않아도 돼. 봐, 선생님 여기서 있지? 선생님이 보고 있을꺼야.”

- 부주의한 행동으로 실수를 하더라도 별일 아니라는 듯 넘어가 줌.
 - (물건을 떨어뜨린 경우) “다치지 않았니? 다시 해보면 돼. 괜찮아.” (“조심해야지”라는 말을 하지 않음.)
- 과도하게 경쟁심이 강한 성격의 아이: 협동하는 놀이를 통해 칭찬을 경험하게 함.
 - 교사의 지속적이고 섬세함 관찰을 통해 아이가 경쟁심 때문에 움직이기를 거부하는 유형임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임.
 - 아이는 자신의 속내를 표현하지 않으려 판청을 부리고 움직이지 않는 데 대한 변명을 하려할 수 있음. 아이가 가진 약점을 간파하고 성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세히 관찰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봄
 - “선생님이 보니까 우리 ○○이는 잘 할 수 있는데 같이 하고 싶어하지 않고 가만히 있구나. 다 같이 재미있게 해보려는 거니까 잘 하지 않아도 돼. 잘하고 못하고 그런걸 정하려고 하는건 아니야. 선생님이 도와줄게. ○○이도 같이 하자~.”
 - 경쟁적인 놀이를 피하고 협동하여 완성하는 놀이에 참여하도록 유도함. 이 때 교사가 모든 아이의 역할을 골고루 중요하게 느끼도록 격려하고 과정과 결과를 칭찬하는 것이 필요함. 협동 놀이 과정에서 조차도 자신의 분담에 불만을 가지거나 일의 속도에 경쟁을 보일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전혀 경쟁부담이 없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함.
 - “이 그림 재미있게 생겼지? 우리 ○○이, △△이, ◇◇이 다 같이 색칠해볼까? ○○은 파란색 칠할거야? 이 그림에 잘 어울리네. △△이는 꼼꼼하게 잘 칠하네. ◇◇이 색깔도 이 부분에는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다 같이 하니깐 더 재밌지? 우리 친구들 모두 잘 했어요.”
- (신체적 이상으로 인해) 가만히 있고 싶어 하는 아이: 신체적 이상 증후를 관찰·발견하기
 - 별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도 신체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아동은 불편한 데가 없는지를 물어보고 건강검진을 받아보도록 권유함.
 - 아동의 발달 상황에 대해 전문의와 상의해서 향후 건강관리 방안을 세우고 신체 발달 현황, 영양 섭취 수준에 대한 과학적 자료에 근거하여 생활지도를 함.

다. 유의사항

- 신체적으로 허약한 아이는 가능하면 일찍 잠자리에 들어 잠을 많이 잘 수 있게 하고 식사를 여유롭게 충분히 하도록 부모에게 조언함.
- 극도로 허약한 아이가 밥을 먹기 싫어하는 경우, 좋아하는 음식을 따로 준비하여 급식할 수 있게 하고, 가정에서는 밥을 떠 먹여서라도 충분한 양이 섭취 되도록 지도함.
- 이런 아이들은 위가 작고 약할 수 있으므로 한꺼번에 많은 양보다는 자주 조금씩 먹도록 함.

▶ 바람직한 상호작용

- “몸속에는 ○○가 아까 먹은 음식들이 들어 있는데, 너무 안 움직이고 ○○가 한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음식들도 가만히 웅크리고 있어서 배가 운동을 못한대 - 배가 운동을 안 하게 되면 소화가 안 되어서 약도 먹어야 하고 배가 아파진단다. 그럼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야 해요. 많이 움직여서 배 운동 시켜줄까? 그래야 우리 ○○이 건강해지지~.”

▶ 바람직하지 않은 상호작용

- “○○아, 다른 친구들처럼 움직이지 않으면 똥똥해 진다. 더 살찌게 되고 말 거야.”

15. 쉬지 않고 심하게 많이 움직이는 아이

○○이(만 3세)는 굉장히 움직임이 많아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자기 놀이를 하기도 하지만 금방 싫증을 내고 충동적으로 이것저것 건드려 보거나 대부분의 경우 다른 아이들의 놀이에 끼어들어 훼방을 놓고 별 목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인다. 대집단 활동 시간에도 혼자서 여기저기 돌아다닌다.

가. 원인 분석

□ 주의집중력 부족

- 주의집중력이 부족함으로 인해 과업 몰입이 안되고 각 활동에 흥미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뇌 손상이나 체액 성분의 불균형과 같은 생물학적인 원인에서 주의 집중력 부족이 생김.

□ 인지발달 장애

- 인지발달 장애로 인해 충동성 조절과 신체운동 조절이 잘 안될 수 있음.

나. 지도 방법

□ 아이가 가장 흥미 있어 하는 활동을 찾아내고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도록 함.

- 자유선택놀이 시간에 아이가 가장 놀고 싶어 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평소에 좋아하는 놀이가 무엇인지 교사가 관심을 갖고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
- 대집단 활동에 참여하기 힘들어하는 경우, 할 수 있는 놀이와 위치를 정해주고 움직임 반경을 줄이도록 지도함. 대집단 활동에서 제외되면 반의 일과에서 소외될 수 있으므로 대집단 시간을 힘들어하는 유아의 상황은 인정하지만, 일정한 한계를 정해주어 간접적으로 대집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줌.
 - “지금부터 다 같이 둘러 앉아 이야기 듣기를 할텐데.. ○○이는 같이 하고 싶지 않으면 그림 그리거나 책보기 중 한 가지 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을 할까요? 돌아다니면 다른 친구들한테 방해되니까 ○○이는 언어영역 쿠션에 앉아서 책보면서 선생님 이야기 들어보자.”

□ “멈춰!” 놀이 또는 신호등 놀이를 개발하여, 아이가 빨간 신호등이나 ‘멈춰’ 구령이 있으면 한 자리에 그대로 가만히 있도록 게임처럼 유도함.

- 선생님이 빨간색 신호등을 켜면(또는 ‘멈춰’라는 말이나 호루라기를 불면) 움직이던 것을 멈추고 ‘얼음’처럼 가만히 있기로 함.

- 한 아이에게만 적용한다면 불만이 생길 수 있으므로 당번을 만들어 돌아가면서 멈춰 또는 신호등 놀이에 참여할 기회를 줌. 그러나 눈의 띄지 않게 쉬지 않고 움직이는 ○○이는 더 많은 기회를 줘서 자주 놀이에 참여하도록 함.
- 빨간 신호를 지키지 않으면 경찰서(정해진 코너)에 가서 나오지 못하고 잠시 머무르도록 하거나 아끼는 것을 잠시 보관해 두도록 하는 어려움을 겪게 함.
 - “다 같이 우리 신호등 놀이 할까요? 지금 여기는 파란색 신호등입니다.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놀아도 돼요. 가고 싶은 데 마음껏 가도 되고요. 하지만 빨간 신호로 바뀌면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 멈춰 있어야 하는 거 알죠? 이번 시간 신호등 놀이 주인공은 ○○이니까 선생님이 ‘빨간 신호등’하면 떼 떼 가면 안되고 그 자리에 있어야 돼. 알겠지 ○○아?”
- 발달 장애의 경우 아이의 흥미와 이해도가 자신보다 낮은 연령의 아이들과 비슷한 수준일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아이의 반을 실제 연령보다 아이의 발달수준에 맞춰 편성하는 노력도 필요함
- 체액 성분의 불균형 등으로 인한 집중력 장애는 전문의의 진단과 약물 요법 치료로 좋아질 여지가 있는 증상이므로 이를 부모에게 잘 설명하여 병원을 찾아보도록 안내함.

다. 유의사항

- 부모에게 아이에 대한 정보를 줄 때 확인적인 판단을 이야기하기 보다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의논하는 입장으로 상담을 함.
 - 부모는 대부분 아이의 문제를 발달이 느린 정도의 정상 범위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음. 이에 대해 선생님의 경험과 전문적 식견으로 볼 때 다른 아이와의 행동 차이가 크다는 의견을 전하고 의학 전문가를 만나볼 것을 권유하기. 이 때 교사의 주관적인 생각보다 평소 꾸준히 적어온 관찰일지, 발달검사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부모가 자녀의 상태를 받아들이기 쉬움.
 - 보육실에 관찰경(one-way mirror)¹¹⁾이 있다면 부모가 와서 아이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안내함. 관찰경이 없다면 IP-TV나 CCTV 또는 3자의 동영상 촬영을 통해 부모에게 아이의 문제를 확인하도록 하는 기회를 줌.

11) 한쪽에서만 보이는 거울. 보육실에서는 관찰실이 보이지 않고, 관찰실에서만 보육실이 보이는 거울

- 아이의 움직임에 대해 다른 아이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크게 화를 내어서 아이의 자존감을 건드리는 것을 피할 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자신의 행동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강화효과를 갖고 오지 않도록 주의함.
- 가정에서의 아이의 행동과 기관에서의 행동이 차이가 있는지, 혹 차이가 있다면 기관에서 그러한 행동을 보이는 특별한 이유에 대해 찾아보고 가정과 함께 해결책을 찾도록 함.

16. 눈을 찡그리거나 비비고, 사물을 가까이 보려는 아이

만 4세 남아인 00는 책을 너무 가까이에서 보려고 고개를 앞으로 숙이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며, 사물을 볼 때 미간을 찡그려 눈을 가늘게 뜨기도 한다.
만3세 여아인 00는 놀이시간에 눈을 자주 비비며, 눈이 충혈되어 있다. 가끔씩은 눈물을 질금거리기도 한다.

가. 원인 분석

- 시력 문제
 - 눈을 찡그리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가장 흔한 원인은 시력에 문제가 있는 것임. 특히 책이나 사물을 가까이 보려는 아이의 행동은 시력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매우 크며 근시나 난시, 약시, 사시 등으로 인한 것임
 - 시력은 태어나는 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자라면서 천천히 완성되는 것인데 갓 태어난 아기의 시력은 매우 낮아서 사물을 어렵듯이 감지할 수 있는 정도이나 6개월이 지나면 0.1정도의 시력을 갖게 되고 두 살 때엔 0.3 정도가 되며 6살이 되어야 비로소 1.0 정도의 시력을 갖게 됨.
- 속눈썹 찢림 등 이물질 자극
 - 눈을 자주 비비고 충혈되어 있는 경우 원인은 주로 속눈썹이 찢려서 눈을 가렵게 만들거나 이로 인한 각막자극으로 인한 것임.

□ 심리적 문제 및 피곤함의 표현

- 간혹 심리적인 불안감, 피곤함과 졸림 등의 표출 방안일 수 있음

나. 지도 방법

□ 눈을 찡그리거나 사물을 가까이 보려는 행동, 눈을 비비는 등 아이의 외현적 행동은 원인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므로 주의 깊은 관찰이 가장 우선적임.

- 이러한 행동은 대부분 눈에 이상이 생긴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간혹 심리적인 불안감, 피곤함과 졸림 등의 표출 방안일 수 있으므로 행동의 빈도나 발생 시간 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문제 행동이 지속되면 가정에서의 아이 행동이나 반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고, 장소나 시간에 관계없이 비슷한 행동이 반복될 경우 부모와 면담을 통해 병원에서 안과 진료나 검사를 받아보도록 제안하는 것이 필요함.

□ 아이가 눈을 찡그리거나 비비는 행동이 발견되면 아이의 눈이 충혈되어 있는지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이러한 행동이 자주 나타나는지 주로 언제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해보도록 함

□ 이러한 행동이 여러 차례 관찰되면 가정에서도 일어나는지 부모에게 알아보고 문제행동 관련 자료 정리함

- 다른 영유아들이 볼 수 있는 그림을 같은 거리에서 식별하지 못하면 시력 저하를 의심해 볼 수 있음

□ 문제행동에 대해 부모와 면담하여 병원에서 진료 받아보기를 권유하도록 함

- 근시나 난시, 약시, 사시 등 다양한 유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안과 검사가 필수적임.
- 만약 시력에 문제가 있다면 의사의 처방이 내려지게 되고, 교정 치료를 시작해야 함.

□ 진료 결과에 대해 부모님으로부터 듣고, 어린이집에서의 지도방향 및 주의사항을 모색함.

- 아이가 시력을 교정하기 위해 안경을 쓰고 등원하게 되면 초기에는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찢기, 낫잡 자기 등 일상생활에서 안경을 잘 못 챙길 우려가 있으므로 안경을 착용하여 시력 교정을 할 경우 교사가 이에 대해 각별한 배려를 해 주도록 함.

- 눈을 자주 비비고 충혈 되어 있는 경우는 눈에 이물질이 각막을 자극해서 가려움을 유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속눈썹 찢림은 아이의 속눈썹이 눈에 닿아서 자극을 일으키는 현상으로 각막과 결막 부분에 상처를 내게 되며, 이럴 때마다 아이는 가렵거나 따가운 느낌을 느끼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손으로 눈을 자주 비비게 되는 것임.
 - 속눈썹 찢림은 교사나 부모가 세심하게 보지 않으면 아이가 단순히 눈을 비비는 행동이라 생각하고 간과하거나 방치할 수 있으며, 적기에 원인을 제거해 주지 않으면 각막에 염증을 유발할 뿐 아니라 시력에 다양한 장애를 일으키기도 함.
 - 영유아 얼굴의 측면에서 가까이 영유아 눈을 살펴보면 속눈썹이 안구에 닿는지 관찰할 수 있음.
 - 가끔은 졸립거나 지루할 경우 눈을 비비는 경우가 있으므로 눈을 비빌 때 하품을 하거나 피곤한 기색이 있으면 졸린지 물어보고 쉴 수 있게 도와주도록 함.

다. 유의사항

- 이 시기에 정상적인 시력발달은 매우 중요하므로 약간의 문제라도 느껴진다면 4~5세 이전의 조기 진단과 그에 따른 처치가 이루어져야 함.
- 어려서부터 정기적인 시력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함. 안과검진은 출생 후 3개월, 1살, 3살 때 받는 것이 좋으며, 아이가 세 살이 되면 말로써 의사표현을 할 수 있으므로 숫자나 그림을 이용하여 시력 검사가 가능해짐.

17. 코를 자주 파고 킁킁거리는 아이

만 3세 남아 00는 손가락을 콧구멍에 넣어 코를 자주 후비거나 킁킁거리려 놀이나 활동 시 산만한 경우가 종종 있으며, 가끔은 또래들에게 지저분하다고 놀림거리가 되기도 한다.

가. 원인 분석

- 코막힘, 건조, 간지러움 등 코 안의 상태 변화나 자극이 원인이 됨
 - 아이가 수시로 코를 비비거나 손가락으로 코딱지를 파거나 후비는 행동은 대부분은 코가 막혀 답답함을 느낄 때, 코 안이 건조하여 당기는 느낌이 있을 때, 여러가지 자극으로 간지러움을 느낄 때 아이는 반사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됨.
- 코 안에 생긴 염증이 원인이 됨
 - 손으로 코를 자주 후비면 코 점막을 건드리게 되고, 손톱으로 상처를 낼 경우 염증을 유발함.
 - 염증으로 인해 상처와 딱지가 생기면 더욱 코가 답답하게 느껴져 반복적으로 코를 건드려 헐게 만듦. 심하게 후빈 경우 실핏줄이 터져서 코피가 나기도 함.
- 호흡기에 알레르기나 비염으로 인함
- 심리적인 불안이나 강박증으로 인한 행동일 수 있음
 - 일종의 '틱'으로 코를 킁킁거리는 행동을 할 수 있음

나. 지도 방법

- 아이의 코 후비는 행동은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 한 단 시간 내에 줄어들지는 않음. 따라서 코에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을 파악하고 자극원을 점진적으로 없애주는 것이 치료방법임
- 코를 후빌 때 아이의 코를 잘 살펴보고 코가 헐었는지, 콧물이 고여 있는지, 코딱지가 가득 들어있는지 등 상태를 파악하도록 함.
- 보육실을 자주 환기하여 먼지를 제거하고 습도 유지에 주력해야 함
- 아이가 주로 손으로 코를 후비므로 손을 잘 씻기고 손톱을 짧게 잘라주어 이차상처가 나지 않도록 하고, 아이의 손 청결 관리에 힘쓰도록 함
- 코의 문제가 단시일 내에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코에 대한 불편함과 예민한 반응을 줄여주기 위해서 아이가 코를 후빌 때 재미있는 놀이나 활동에 참여하도록 아이의 관심을 자연스럽게 다른 곳으로 유도해 주도록 함.

- 부모와의 면담을 통해 어린이집에서의 아이의 행동을 전달하고, 소아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도록 권유함.
- 진단결과 및 치료방안을 부모에게 전해들은 후 어린이집에서의 지도방안 마련하여 실행하도록 함
- 쿵쿵거리는 행동과 관련하여 코에 이상이 아니라 '틱' 행동일 경우 단기간 후 사라질 수도 있음. 그러나 3개월 이상 지속되면 '틱' 행동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함

다. 유의사항

- 비염이 심한 아이의 경우 원인이 무엇인지 검사해서 원인이 아이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함. 예를 들면 심한 일교차가 잇는 날씨, 카펫, 꽃가루가 날리는 식물, 애완동물 등이 비염을 일으키는 될 수 있음.

18. 소리를 잘 못 듣는 아이

만 3세 여아 00는 최근 교사의 말에 반응이 느려졌다.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말하거나 멀리서 부르면 잘 못 듣는 것 같고, 교사의 말을 들을 때 가끔씩은 고개를 한쪽으로 돌리려는 행동을 하곤 한다. 낮잠 잘 때 다른 아이들에 비해 코고는 소리가 크다.

가. 원인 분석

- 청력 이상
 - 소리에 반응이 느리고 작은 소리를 잘 못 듣는 행동 등은 일단 귀에 문제를 의심해 봐야 함.
 - 병으로 인한 일시적 청력 이상과 근본적인 청력 이상 등 두가지 유형으로 원인을 알아볼 수 있음.

- 영유아기 청력 이상은 일시적이던 만성적이던 다른 사람과의 원활한 상호작용에 지장을 주며 언어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됨. 따라서 영유아의 청력 이상은 조기 발견과 치료가 매우 중요함.
 - 아이의 청력이 떨어져 소리를 잘 못 듣는데도 부모나 교사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방치하면 청력의 문제 뿐 아니라 말하기, 소통하기 등 전반적인 언어 발달에 지장을 주기 쉬움.
- 중이염과 같은 질병 후유증
- 영유아기 귀에 생기는 질병은 대부분 급성 중이염 혹은 만성 중이염 등이며, 중이염의 후유증으로 청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음. 급성중이염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리를 잘 못들을 수 있으며, 만성으로 진행될 경우 중이에 물이 차서 청력에 지장을 줄 수 있음.

나. 지도 방법

- 아이가 소리에 반응이 느리거나 소리를 못 듣는 것 같은 행동이 반복되면 다양한 상황에서 소리에 대한 아이의 반응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함.
- 아이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말을 건네고 반응을 관찰해 봄
 - 교사가 아이의 얼굴을 보고 말할 때와 보지 않고 말할 때 아이의 반응에 차이가 나는지 살펴봄
 - 크고 작은 소리를 들려주고 반응이 어떤지 살펴봄
 - 두 가지 이상의 소리를 들려주고 구별할 수 있는지 반응을 살펴봄
 - 교사가 귀를 살펴볼 때 조금만 건드려도 아프다고 못 만지게 하는지 등 아이의 반응을 살펴봄
- 여러 상황에 대한 아이의 반응에서 작은 소리를 잘 못 듣거나 얼굴을 보고 이야기 할 때와 보지 않고 이야기 할 때 반응에 차이가 있다면 일단 청력에 문제를 의심해 봐야함.
- 아이에게 귀가 아픈지, 귀가 아파서 병원에 간적이 있는지 물어보고, 부모에게도 아이의 귀 상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함

- 귀가 아픈 경우 중이염, 외이도염을 앓고 있을 경우가 많음
- 귀에 아픈 증상은 없지만 물이 차는 삼출성 중이염을 앓고 있는 경우도 있음
- 아이의 증상에 대해 부모가 잘 모르고 있을 경우 병원에서 귀에 대한 점검을 받아보도록 권유하기
- 중이염을 앓고 있으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치료하도록 함
- 청력 감소 현상이 심한 경우 청력검사를 통해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도록 하며, 치료방향에 대해 어린이집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듣고 참고하도록 함.
- 청력감소로 인해서 인지발달, 언어발달 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청력손실이 심할 때, 양쪽이 만성일 때, 고막에 변화와 어지러움, 화농성 호흡기 감염, 재발이 잘 될 때에는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 주어야 함

다. 유의사항

- 이 시기에 정상적인 청력발달은 매우 중요하므로 약간의 문제라도 느껴진다면 4~5세 이전의 조기 진단과 그에 따른 처치가 이루어져야 함.

19. 입에서 구취가 나는 경우

만 5세 남아 00는 부쩍 입에서 좋지 않은 냄새가 심하게 난다. 어린이집 점심 식사 후 양치질을 하나 그 때 뿐이고 몇 시간이 지나면 말할 때 다시 냄새가 나서 불쾌감을 느끼게 된다.

가. 원인 분석

- 구강이 청결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됨
- 입안에 음식물 찌꺼기가 깨끗이 제거되지 않아서 불결한 위생 상태가 되면 세균과 결합하여 휘발성의 좋지 않은 냄새를 유발하게 됨

- 입안의 염증 등 질병이 원인이 됨
 - 입안 혹은 편도의 염증이 있는 경우 염증으로 인한 냄새가 원인이 됨
- 입안의 건조 상태 등 컨디션에 따라 구취가 발생됨
 - 감기 비염 등 호흡기 질환이 있는 경우 입안이 건조해 지면서 냄새가 나게 됨
- 잘못된 수유 습관이나 식습관
 - 우유병을 오래 물고 있거나 물고 자는 경우 충치가 생기기 쉽고, 잇몸이 부은 경우에도 이로 인해 구취가 나게 됨.

나. 지도 방법

- 구취의 원인이 여러 가지이므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도록 해야 함
- 입에서 냄새가 날 경우 가장 먼저 구강 위생에 신경을 써야 함. 어린이집에서는 일반적으로 점심 식사 후에 양치질을 하게 되는데 구취가 있는 영유아의 경우 간식 등 음식물 섭취 후에는 양치를 하도록 도와주어야 함. 양치하기 싫어할 경우 물로 입안을 헹구거나 마시도록 함
- 양치질을 하는데도 입냄새 제거가 잘 되지 않을 경우 양치질을 적절한 방법으로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어야 함. 칫솔질을 잘못하여 양치 후에 음식찌꺼기가 입안에 그대로 남아있을 경우 입냄새가 여전히 생기게 됨.
- 아이가 음식물을 잘 씹지 않고 입에 물고 있는 시간이 긴 경우도 충치 발생과 구취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유식 시기부터 음식물을 잘 씹어서 먹는 습관을 들이도록 해야 함
- 가정에서도 구강 청결을 위해 양치와 물로 헹구기 등을 자주 하도록 안내하고, 양치 등 관리를 하는데도 구취가 쉽게 제거되지 않는 경우 치과에 가서 충치나 구강염 등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보도록 권유함.
- 감기나 비염, 축농증 등 다른 질병이 구취의 원인이 되었을 경우 원인이 되는 치료를 먼저 하도록 함

다. 유의사항

- 감기나 비염 등으로 인한 구취는 원인 치료를 먼저 하도록 해야 함.

- 영아의 경우 우유병을 빨아야 잠드는 경우가 많은데 충치의 원인이 되므로 수면 습관에서 먹으며 자는 습관을 고쳐야 함. 불가피 우유를 먹어야 자는 경우 우유 섭취 후 입안을 행구는 등 관리에 유념하도록 함

20. 두통을 자주 호소하는 경우

만 5세 여아 00는 자유놀이 시간에 가끔씩 머리가 아프다고 말한다. 열이 있는지 확인하면 대부분 열은 없었고, 양호 침대에서 쉬고 싶은지 물어보면 싫다고 한다. 두통을 매우 심하게 호소하지는 않아서 심심하거나 주의를 받고 싶어서 그런가 생각하게 된다.

가. 원인 분석

- 긴장, 스트레스, 수면부족 등이 원인이 됨.
 - 정밀검사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긴장성 두통, 편두통, 심인성 두통이 나타나기도 함.
 - 수면부족, 긴장, 피로 등으로 인해 두통이 생길 수 있음.
- 감기, 열, 뇌질환 등 신체에 이상이 생겼을 때 두통을 수반함.
 - 기질적 뇌 질환(뇌수막염, 두부 외상, 뇌종양 등), 감기 등 열을 동반하는 질환, 안과나 치과 질환 후유증 등과 같은 원인이 두통을 유발함.
 - 두통은 단단한 밴드가 머리를 둘러싸고 조이는 듯 아프지만, 간혹 한쪽 부위에 국한되어 나타날 수도 있음.
 - 가장 많이 발생하는 두통으로 편두통을 들 수 있으며 가벼운 외상, 질병 등 육체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 가능함.
- 심리적 문제
 - 환경 부적응, 또래와의 갈등, 스트레스 등 감정적 문제 등에 의해 유발될 수 있음.
 - 교사나 부모의 주의를 받고자 할 때 두통이 생길 수 있음.

나. 지도 방법

- 아이가 두통을 호소할 경우 일단 잠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두통의 원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함
- 앞서 설명한 육체적인 문제로 인한 두통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열을 재보기, 외상이 있는지 확인하기, 배탈이나 다른 질병 증세가 있는지 알아보기, 수면 부족 등 피로가 쌓였는지 등을 확인함.
- 아이의 심리적인 문제로 인한 두통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아이의 기분이 어떠한지, 또래와의 관계나 부모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확인함.
- 아이의 심리적인 문제로 인한 두통으로 판단되면 세부적인 원인 파악을 토대로 원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심리적인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함.
 - 아이를 잘 돌봐 줌으로써 잦은 두통을 줄일 수 있음.
 - 규칙적인 생활습관이 심리적인 원인으로 인한 아이의 두통을 예방할 수 있음.
 - 일정한 수면 시간 등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
 - 초코렛이나 카페인이 들어간 자극적 음식은 가급적 섭취를 줄임.
 - 스트레칭 등 가벼운 운동으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도록 도와줌.
- 육체적인 문제로 인한 두통으로 추측될 경우 전문의로부터 진단받을 수 있도록 부모에게 상황을 알려주도록 함.
- 아이가 수일이나 수주에 걸쳐 지속적으로 두통을 호소할 경우, 구도가 동반되고 구토증상이 점차 심해지는 경우, 팔, 다리에 힘이 없거나 몸의 균형을 잡기 힘들 때, 열이 나고 목이 뻣뻣하며, 전신 무기력이 있는 경우 부모에게 아이의 상태를 전하고 병원에서 전문의 진찰을 받아보도록 권함.

다. 유의사항

- 두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상황은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하므로 참고하도록 함.
 - 두통이 급성으로 발생한 경우

- 두통이 다른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발열, 경련, 구토 등)
- 최근 한 두 달 이내에 두통이 점점 심해지는 경우
- 머리둘레가 점차 증가되는 경우
- 머리를 다친 적이 있거나, 화학물질 등에 노출된 적이 있을 때

21. 심한 변비

만 1세 남아 00는 분유를 떼고 생우유를 먹기 시작했다. 워낙 분유 먹는 양이 많았던 아이라 생우유도 잘 먹는 편이다. 그런데 먹는 양에 비해 변의 횟수가 너무 적고 변 볼 때마다 온 얼굴이 새빨갳게 될 정도로 힘을 주어야 하며, 가끔씩은 이마저도 안 되어 울음을 터뜨리기도 한다. 배변 후 휴지로 항문을 닦은 후 살펴보면 항문에 상처가 났는지 약간의 피가 묻어있는 때도 있다.

만 5세 여아 00는 놀이시간에 가끔씩 아랫배가 아프다고 잘 놀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몸을 똑바로 하지 못하고 엉겨주춤하게 서있는 등 불안한 기색을 보인다. 교사가 먹은 음식이나 배변 여부에 대해서 물으면 대부분 화장실은 며칠 째 못한 상태이다. 아이와 화장실에 함께 가서 배변 시도를 해보지만 오랜 시간이 걸리고 배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가. 원인 분석

- 아이가 주로 섭취한 음식물에 따라 변비가 생길 수 있음.
 - 섬유질이 들어 있는 음식물을 거의 섭취하지 않았을 때, 영아의 경우 생우유 섭취가 과다할 경우 변비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잘못된 배변 훈련이나 습관이 원인이 될 수 있음
 - 아이가 배변 시의 통증이나 불편감으로 인해 변을 참는 것이 만성변비의 원인이 됨
 - 대소변 훈련을 강압적으로 할 경우 변비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질병으로 인해 변비가 생길 수 있음
 - 감기나 기타 질환으로 인해 음식섭취를 충분히 못했거나 식욕부진으로 인해 소량의 음식물 섭취가 지속될 때 변비가 생길 수 있음.
 - 아플 때 열이 나거나 수분이 부족하게 되어 일시적인 변비가 생길 수 있음.
- 갑작스런 환경 변화에 대한 부적응 등 심리적 스트레스
 - 동생의 출생, 어린이집 입학, 가족 간의 불화, 이사, 장기간 여행 등 아이와 관련된 생활환경에 변화가 생겨 스트레스를 느끼게 될 때 변비가 생길 수 있음.

나. 지도 방법

- 아이가 섭취하는 음식물을 점검하고, 변비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함.
 - 영아가 첫돌이 지나면 생우유 섭취량을 일일 500-700cc 정도로 줄이고 밥과 반찬을 주식으로 하는 습관을 들임.
 - 아이가 먹는 음식 중 과자류 등 인스턴트 식품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채소나 과일의 섭취량을 늘리도록 함.
 - 음식섭취량이 적은 아이의 경우 음식 섭취량을 늘릴 수 있도록 배식 시 양을 늘려주도록 함.
- 규칙적인 배변지도
 - 배변 시 불쾌감이나 두려움을 줄여주기 위해 교사가 적절한 상호작용을 해주도록 함.
 - “ 00야, 놀다가도 배에서 푹푹 신호가 오면 선생님한테 말해주렴. 00가 밥이랑 야채를 잘 먹었기 때문에 아마 똥이 잘 나올 수 있을 거야”
- 운동과 배변을 도와주는 마사지를 아이와 함께 주기적으로 실시함
 - 매일 규칙적으로 체조나 운동을 하면 장운동이 활발해져서 변비를 완화시킬 수 있으므로 하루일과 중에 체조나 운동의 기회를 마련함.
 - 변비가 있는 영아를 위해 잠깐씩이라도 장운동에 도움이 되는 자세와 마사지를 해주도록 함.

- 아기를 바로 눕히고 두 다리를 들어 배를 지국이 눌러주는 마사지를 하루에 몇 회씩 해주면 장운동에 도움이 됨.

□ 부모 상담과 병원 내원

- 변비 증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과 가정과의 협력이 중요하므로 부모와의 면담을 통해 음식 제공이나 배변 시 도움 주는 방법을 의논하도록 함
-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였음에도 배변을 오래 못해서 배가 차 있을 경우 병원에 내원하여 도움을 받도록 권할 수 있음.

□ 스트레스 원인 제거

- 변비의 원인으로 스트레스 요인이 예측된다면 원인을 제거해 주도록 노력하고, 아이가 마음이 편하도록 따뜻하게 대해주도록 함.

다. 유의사항

- 흔히 매일 변을 누지 않으면 변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가 매일 변을 보지 않고, 변이 크고 단단하게 보이더라도 아이가 통증 없이 잘 본다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음.
- 영유아가 변비에 걸리면 부모와 영유아 모두 변비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을 쓰게 되면 영유아의 불안감이 커지므로 변비는 해로운 것이 아니고 곧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어 안심하도록 해 주어야 함.

22. 잦은 소변(빈뇨)

만 4세 여아 00는 놀이시간 중 소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을 5회 이상 간다. 교사와 함께 하는 집단활동 시간에도 소변 마렵다고 하여 중간에 화장실을 가는 적도 있다. 잦은 소변으로 인해 놀이에 몰입하지 못하고, 친구들도 “** 또 화장실 간다고 놀려서 표정이 밝지 않다.”

가. 원인 분석

- 요로감염, 요실금, 야뇨증 등의 질병이 원인이 됨.
 - 빈뇨는 소변을 정상보다 자주 보는 것을 말함. 보통 생후 1세에 하루 12회, 7세경은 하루 7회, 12세경에는 4-6회 정도 배뇨함.
 - 다만 수분 섭취량에 따라 배뇨횟수가 달라지므로 정확히 몇 번이 정상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평소와 다르게 소변을 자주 보면 아이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함.
- 지나친 수분 섭취
 - 지나치게 수분을 많이 자주 섭취한 경우 빈뇨의 원인이 됨.
- 심리적 문제
 - 또래로부터 배척당하거나 외로움, 욕구불만 등이 원인이 됨.
 - 환경의 변화, 가족 내 문제 등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있을 때 빈뇨가 생기게 됨.

나. 지도 방법

- 아이가 소변을 지나치게 자주 보면 소변 횟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자유놀이 시간 1시간-1시간 30분 사이에 3회 이상 소변을 보지 살펴봄.
 - 빈뇨가 반복적으로 지속되는지 살펴봄.
- 아이의 수분 섭취 상황을 살펴봄.
 - 평소보다 물이나 음료 섭취가 많은지 살펴봄.
 - 물이나 음료 섭취가 많을 때 왜 그런지 알아봄. 단순히 물을 많이 마시는지, 혹은 열이 나서 목이 타서 마시는지, 그 외 몸에 이상이 생긴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함.
- 잦은 소변이 일시적이고 수분의 과다한 섭취로 인한 것이라면 염려하지 않아도 됨.
- 수분 섭취와 상관없이 소변을 자주 볼 경우 불안이나 심리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 내에서 문제가 있는지, 혹은 집에서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함.
 - 어린이집에서 아이의 또래관계나 교사에게 대하는 태도 등에 대해 살펴보고 아이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를 점검하도록 함.

- 부모와의 면담을 통해 집에서 혹은 아이에게 특별한 변화나 상황이 있었는지 알아봄.
- 스트레스 원인이 파악되면 원인을 제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아이가 마음이 편해질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따뜻하게 대해주도록 함.
- 빈뇨 증상이 지속되고 요도 관련 질환이 의심되면 병원 내원을 권유함.
 - 소변 검사 등 병원 진료를 통해 아이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증상 완화를 위해 어린이집에서 해 주어야 하는 내용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함.

다. 유의사항

- 빈뇨 현상의 대부분은 주로 심리적인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로부터 생기므로 빈뇨 증상 완화를 위해 아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부모에게 전달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중요함.

23. 비만인 경우

만 4세 남아 00는 또래의 다른 친구들에 비해 뚱뚱하고 체중이 많이 나간다. 평소 식탐이 많아 간식이나 점심 양이 또래에 비해 많으며, 항상 먹는 것에 관심이 많다. 기름진 음식을 선호하며, 좋아하는 음식이 간식이나 급식으로 제공될 때 특히 더 많이 먹으며, 양을 조절해 주기 위해 제한을 하면 화를 내거나 울먹거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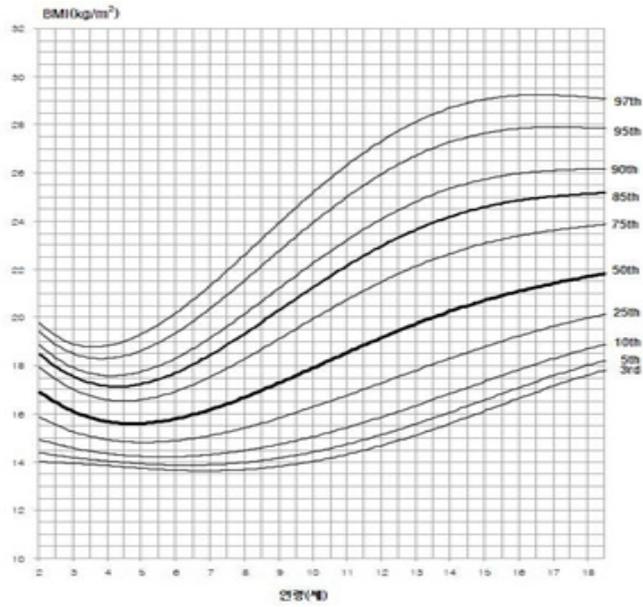
가. 원인 분석

- 과도한 열량 섭취
 - 비만은 필요한 열량보다 섭취하는 여량이 더 많거나 섭취하는 열량에 비해 소비되는 열량이 더 적어서 지방이 체내에 축적되는 상태를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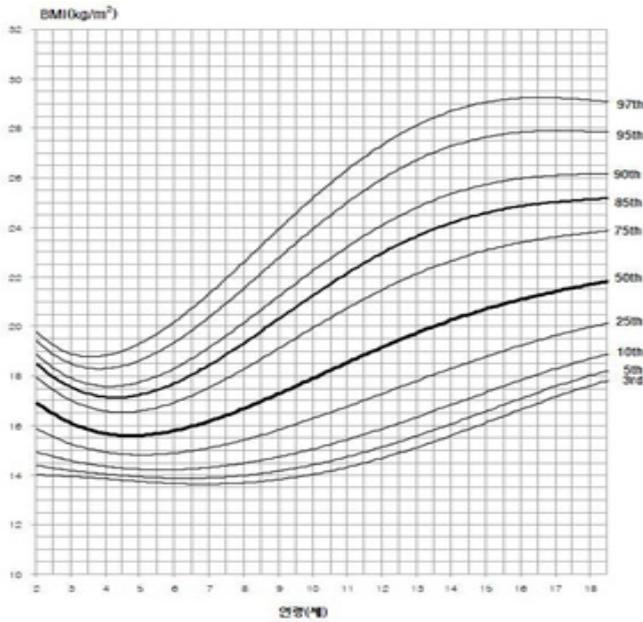
- 열량이 높은 음식의 과다 섭취가 비만을 초래할 수 있음.
- 영아 비만은 세포수를 증가시키고, 성인병을 유발하는 등의 신체적인 영향을 줌. 뚱뚱하다는 외모에 대한 열등감으로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으며, 또래 사이에서도 위축되어 원활한 또래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유전적인 요인
 - 부모가 모두 비만일 경우 80%가 비만으로 이어질 확률이 있음.
- 잘못된 식습관
 - 불규칙적인 식사가 비만을 초래할 수 있음.
 - 빨리 먹는 식습관이 비만의 원인이 됨.
- 활동량의 부족
 - 활동량이 음식섭취량에 비해 극히 적어 에너지 소비가 안 될 경우 비만이 될 수 있음.
- 정서적 불안감
 - 정서적 불안감이나 욕구불만을 음식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습관으로 인해 비만이 될 수 있음.
- 질병 및 질병 후유증
 - 원인 질환이 있는 증후성(이차성, 외인성) 비만, 즉 중추신경계 질환이나 내분비질환, 선천성 증후군, 약물치료 등으로 인해 비만이 될 수 있음.

나. 지도 방법

- 영유아가 현재 비만한 상태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함.
 - 표준체중을 이용한 영유아의 비만도 산출방법 1
 - 2세가 지난 후에는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가 피하지방과 체지방과의 상관성이 유의하게 좋아 선별검사로 가장 적합함. 체질량지수는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며 2세 이상에서 체질량지수 85-95백분위수의 경우 과체중, 95백분위수 이상을 비만으로 정의함.



[그림 II-23-1] 한국남아의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곡선



[그림 II-23-2] 한국여아의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곡선

○ 표준체중을 이용한 영유아의 비만도 산출방법 2

$$\text{비만도} = \frac{\text{실측체중} - \text{신장별 표준체중}}{\text{신장별 표준체중}} \times 100$$

- 체중미달: -20% 이하 · 저체중: -10% 이하 · 정상: -10% ~ +10%
· 과체중: +10% 이상 · 비만: +20% 이상

자료: 아동건강교육(임미혜 외 공저, 양서원)

- 비만으로 판정받은 영유아에게는 체중을 줄여서 비만을 벗어나도록 하는 것과 비만으로 위축된 정서 상태를 회복하는 것임
- 체중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식이조절, 운동, 행동조절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 식이조절을 위해 영유아의 음식의 내용 조절, 배식량 조절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가정과의 협조가 필수적임
 - 고칼로리, 당분이 많이 함유된 식품, 인스턴트 음식 등의 섭취를 줄이도록 가정의 협조를 요청함. 비만인 영유아일수록 기름진 음식을 선호하고, 양을 많이 섭취할 수 있으므로 급간식으로 이러한 음식이 제공될 경우 일정 양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격려함.
- 비만한 영유아의 운동량 증가를 위해 어린이집에서 다양한 신체활동 참여를 격려하고 신체활동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교사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 해 주도록 함
- 비만 영유아의 음식에 대한 집착이나 빨리 먹는 습관, TV를 보면서 음식을 먹는 습관 등 잘못된 식습관 등을 고치도록 해 주어야 함
 - 음식에 대한 집착을 보일 경우 교사가 미리 음식의 양을 조절해 주기보다는 유아 스스로 음식을 조절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점진적으로 양을 줄여갈 수 있도록 해 줌.
 - TV를 보면서 음식을 먹는 등 음식물 먹을 때 다른 일과 함께 하지 않도록 해야함

▶ 바람직한 상호작용 예

“○○가 많이 먹고 싶었구나. 선생님이 보기에 오늘 간식이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오늘 우리 반 친구들은 간식을 몇 개씩 먹으면 좋을까?”

“○○가 먹을 만큼 한 번 덜어볼까?”

- 비만으로 위축된 영유아에게 교사의 심리적 지지는 매우 중요함. 아이가 잘 하고, 즐겨하는 것을 발견하여 칭찬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여 똥똥한 외모에 대한 위축감을 다른 곳으로 전환시켜주는 것이 필요함.

다. 유의사항

- 영유아의 비만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바꿀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기관과 가정이 긴밀한 협조를 하는 것이 필수적임.
 - 음식을 보상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기
 - 가정의 식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 가족의 생활습관 개선하기
 - 미디어에 노출되는 시간 줄이기

24. 체격이 심하게 왜소한 경우

만 5세 남아 00는 또래의 다른 친구들에 비해 키가 작고 체격이 매우 왜소하다. 같은 반 친구들은 00가 동생이라고 놀리곤 해서 상당히 위축되어 있으며, 또래들과도 잘 못 어울린다.

가. 원인 분석

- 유전과 체질적 요인
 - 비정상적 저신장은 같은 나이, 같은 성별 어린이 100명 중에서 작은 순서로 3명안에 속할 때를 말함. 성장속도가 1년에 4cm이하로 자란다면 정밀한 검사가 필요함.
 - 가족성 또는 유전성 저신장증과 유전적 골격계 이형성증 등으로 인해 왜소증이 생길 수 있음

- 체격이 너무 왜소한 경우 자아개념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또래 사이에서도 위축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함.
- 불충분한 영양공급
 - 매우 불충분한 영양 공급이 정상적인 성장에 지장을 줄 수 있음
- 호르몬 이상
 - 성장호르몬 결핍, 갑상선 기능저하증, 당뇨병, 쿠싱 증후군 등 호르몬 관련 이상으로 왜소증이 생길 수 있음.

나. 지도 방법

- 아이의 키와 몸무게 등이 또래에 비해 현저히 작을 경우 표준발육치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살펴봄으로써 왜소증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고 왜소증 여부를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함.
- 적절한 식이습관과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함.
 - 균형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단백질, 칼슘 등은 특히 신체 구성에 중요하며 비타민, 무기질 등 등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하며, 인스턴트 식품은 가능한 피하도록 함.
- 좋은 잠 습관의 확립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도록 함.
 - 일찍 일정한 시간에 충분히 자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가능한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함. 성장 호르몬은 성장 호르몬 방출 호르몬과 성장 호르몬 방출 억제 호르몬의 특징적 분비에 의해 파동적으로 분비되며 수면기 중 비렘수면(non-rapid eye movement, NREM : 깊은 수면) 시기에 하루 성장 호르몬 분비량의 60% 이상이 분비됨.
- 성장에 도움이 되는 운동 및 스트레칭을 규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어야 함.
 -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적임. 어린이집 일과 중에도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함.
-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정서적 지원 필요함.

- 성장호르몬의 결핍 등 의료적인 문제도 가능할 수 있으므로 부모와의 면담을 통해 전문의를 통한 검사와 진료를 받아보도록 권유할 수 있음.

다. 유의사항

- 영유아의 왜소증은 기관에서 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영양섭취 및 생활습관에 신경을 써야 함. 왜소증에 대해 부모가 충분히 이해하고 집에서의 영양 섭취, 생활 습관, 규칙적 운동 및 스트레칭 등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 주도록 함.

참고문헌

- 박영아(2013). 아동 동작 교육. 교육과학사.
- 보건복지부(2013).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1세 영아 프로그램.
- 보건복지부(2013).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2세 영아 프로그램.
- 보건복지부·교육과학기술부(2013). 3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 보건복지부·교육과학기술부(2013). 4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 보건복지부(2012). 5세 누리과정에 기초한 어린이집 프로그램.
- 안효섭(2012). 흥창의 소아과학, 서울: 미래엔.
- 이영·이정희·김온기·이미란·조성연·이정림·유영미·이재선·신혜원·나종혜·김수연·정지나(2009). 영유아발달, 서울: 학지사.
- 정옥분(2004).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하정훈(2013). 뽀뽀뽀 119 소아과. 서울: 그린비라이프.

부 록

부록 1. 소아 청소년 표준 성장도표(2007)

남아				연령	여아			
체중 (kg)	신장 (cm)	체질량지수 (kg/m ²)	머리둘레 (cm)		체중 (kg)	신장 (cm)	체질량지수 (kg/m ²)	머리둘레 (cm)
3.41	50.12		34.70	출생시	3.29	49.35		34.05
5.68	57.70		38.30	1~2개월 ⁽¹⁾	5.37	56.65		37.52
6.45	60.90		39.85	2~3개월	6.08	59.76		39.02
7.04	63.47		41.05	3~4개월	6.64	62.28		40.18
7.54	65.65		42.02	4~5개월	7.10	64.42		41.12
7.97	67.56		42.83	5~6개월	7.51	66.31		41.90
8.36	69.27		43.51	6~7개월	7.88	68.01		42.57
8.71	70.83		44.11	7~8개월	8.21	69.56		43.15
9.04	72.26		44.63	8~9개월	8.52	70.99		43.66
9.34	73.60		45.09	9~10개월	8.81	72.33		44.12
9.63	74.85		45.51	10~11개월	9.09	73.58		44.53
9.90	76.03		45.88	11~12개월	9.35	74.76		44.89
10.41	78.22		46.53	12~15개월	9.84	76.96		45.54
11.10	81.15		47.32	15~18개월	10.51	79.91		46.32
11.74	83.77		47.94	18~21개월	11.13	82.55		46.95
12.33	86.15		48.45	21~24개월	11.70	84.97		47.46

(부록 그림 1 계속)

남아				연령	여아			
체중 (kg)	신장 (cm)	체질량지수 (kg/m ²)	머리둘레 (cm)		체중 (kg)	신장 (cm)	체질량지수 (kg/m ²)	머리둘레 (cm)
13.14	89.38	16.71	49.06	2~2.5세	12.50	88.21	16.34	48.08
14.04	93.13	16.29	49.66	2.5~3세	13.42	91.93	16.01	48.71
14.92	96.70	15.97	50.10	3~3.5세	14.32	95.56	15.76	49.18
15.91	100.30	15.75	50.43	3.5~4세	15.28	99.20	15.59	49.54
16.97	103.80	15.63	50.68	4~4.5세	16.30	102.73	15.48	49.82
18.07	107.20	15.59	50.86	4.5~5세	17.35	106.14	15.43	50.04
19.22	110.47	15.63	51.00	5~5.5세	18.44	109.40	15.44	50.21
20.39	113.62	15.72	51.10	5.5~6세	19.57	112.51	15.50	50.34
21.60	116.64	15.87	51.17	6~6.5세	20.73	115.47	15.61	50.44
22.85	119.54	16.06	51.21	6.5~7세	21.95	118.31	15.75	50.51
24.84	123.71	16.41		7~8세	23.92	122.39	16.04	
27.81	129.05	16.97		8~9세	26.93	127.76	16.51	
31.32	134.21	17.58		9~10세	30.52	133.49	17.06	
35.50	139.43	18.22		10~11세	34.69	139.90	17.65	
40.30	145.26	18.86		11~12세	39.24	146.71	18.27	
45.48	151.81	19.45		12~13세	43.79	152.67	18.88	
50.66	159.03	20.00		13~14세	47.84	156.60	19.45	
55.42	165.48	20.49		14~15세	50.93	158.52	19.97	
59.40	169.69	20.90		15~16세	52.82	159.42	20.42	
62.41	171.81	21.26		16~17세	53.64	159.98	20.77	
64.46	172.80	21.55		17~18세	53.87	160.42	21.01	
65.76	173.35	21.81		18~19세	54.12	160.74	21.13	

주: 1~2개월은 1개월부터 2개월 미만에 해당하며, 다른 연령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부록 그림 1] 소아 발육 표준치(체중, 신장, 체질량지수, 머리둘레)

부록 2. 영유아의 대·소근육 운동발달

〈부록 표 1〉 만 0~1세 영아의 대·소근육 운동발달

이동하기	3개월 4개월 6개월 8개월 12개월 16개월	엎드린 상태에서 가슴을 든다. 혼자서 몸을 뒤집는다. 혼자서 앉는다. 기어 다닌다. 혼자서 걷는다. 옆이나 뒤로 걸을 수 있다.
균형잡기	15개월 17개월 24개월	장난감을 밀고 당기면서 걷는다. 유모차를 밀고 다닌다. 박자에 맞춰 움직일 수 있다.
오르기, 내려오기	13개월 15개월 18개월 19개월	계단을 기어 올라간다. 계단을 뒤로 기어 내려온다. 도움을 받아서 계단을 걸어 올라간다. 침대나 의자를 기어오른다.
타기	6개월 12개월 22개월	보행기를 탄다. 붕붕카를 탄다. 그네 등 각종 놀이기구를 타는 것을 즐긴다.
차기, 던지기	16개월 20개월 23개월	공을 차려고 하지만 차지 못하고 공에 발을 얹어 놓는다. 공을 던질때 손을 어깨 뒤로 젖혔다가 던진다. 아동용 농구 골대에 공을 던져 넣는다.
소근육 통제	4개월 6개월 9개월 14개월 19개월	딸랑이를 움켜쥐고 입에 넣는다. 한 손으로 장난감을 쥔다. 바퀴나 레베 등 움직이는 부분을 조작한다. 한 손으로 2~3개의 물체를 쥔다. 양말이나 신발을 벗는다.
눈과 손의 협응	7개월 10개월 11개월 21개월	물체를 한 손에서 다른 손으로 옮긴다. 크레용을 쥐고 끼적거릴 수 있다. 엄지와 검지로 작은 물체를 집을 수 있다. 책을 한 페이지씩 넘길 수 있다.

자료: 박영아(2013). 아동동작교육. 교육과학사.

〈부록 표 2〉 만 2세 영아의 대·소근육 발달

이동하기	걸으면서 물건을 나를 수 있다. 빨리 걸을 수 있다. 달리기를 할 수 있다. 손을 잡아주면 호핑(hopping)을 할 수 있다. 위로 점프(jump)할 수 있다.
균형잡기	발가락 끝으로 걸을 수 있다. 움직이다가 멈추기, 방향 바꾸기, 장애물 피하기를 할 수 있다. 다리를 넓게 벌리고 걸을 수 있다.
오르기, 내려오기	난간을 잡고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다. 성인의 도움을 받아 사다리를 오를 수 있다. 손을 잡아주면 뛰어 내릴 수 있다. 오르기를 할 수 있는 구조물을 즐긴다.
타기	세 발 자전거의 발판을 밟아서 움직이지만 조종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차기, 던지기, 잡기	손을 잡아주면 공을 찬다. 발을 고정시키고 팔을 뻗어 던진다. 바닥에 앉은 채로 굴러오는 공을 팔이나 몸 전체를 이용하여 잡는다.
소근육 통제	신발을 정리할 수 있다. 도움을 받아 손을 씻을 수 있다.
눈과 손의 협응	말판 위의 말을 옮길 수 있다. 쌓아올린 블록이 넘어지지 않도록 한 손으로 붙잡으면서 다른 한손으로 블록을 위에 하나씩 올릴 수 있다.

자료: 박영아 (2013). 아동동작교육. 교육과학사.

〈부록 표 3〉 만 3세 유아의 대·소근육 발달

이동하기	여러 방향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달리기를 자유롭게 한다. 장애물을 피해서 달릴 수 있다. 앞으로 뛰어 넘기를 할 수 있으며, 이 때 대개 한 쪽 발을 먼저 뻗는다. 제자리에서 선호하는 발로 3~5회 호핑(hopping)할 수 있다. 계단이나 구조물 위에서 뛰어 내릴 수 있다. 초보적인 수준의 갈로핑(galloping)을 시작한다.
균형잡기	선을 따라 걷기를 시도하지만 종종 선을 벗어나기도 한다. 넘어지지 않고 몸을 구부린다.
오르기, 내려오기	기어오르기를 잘한다. 사다리를 오르내릴 수 있다. 계단을 자유롭게 오르내린다.
타기	세 발 자전거의 발판을 밟으며 전진한다. 자전거의 손잡이를 돌릴 때 크게 회전한다.
차기, 던지기, 잡기	발을 고정시키고 몸을 회전하면서 팔을 뻗어 공을 던진다. 서 있는 자세에서 정지되어 있는 공을 찬다. 팔을 앞으로 구부려 농구골대 모양으로 만들어 공을 받을 수 있다.
소근육 통제	단추를 끼운다. 가위를 사용한다. 엄지, 검지, 중지로 크레용을 쥔다.
눈과 손의 협응	줄로 구슬을 꿰어 목걸이를 만들 수 있다. 고무 찰흙을 굴리고 주무를 수 있다.

자료: 박영아 (2013). 아동동작교육. 교육과학사.

〈부록 표 4〉 만 4세 유아의 대·소근육 발달

이동하기	팔, 다리를 움직이면서 달릴 수 있다. 달리다가 두 발로 뛰어 넘기를 할 수 있다. 스킵핑(skipping)을 시도하지만 종종 갤로핑(gallop)으로 변하기도 한다. 한발로만 스킵핑(skipping)을 할 수 있다. 같은 발로 8~10회 호핑(hopping)할 수 있다. 5초 가량 한발로 서 있을 수 있다. 약 30 cm 가량 위로 점프(jump) 할 수 있다.
균형잡기	평균대를 따라 걸을 수 있다. 줄넘기를 할 수 있다.
오르기, 내려오기	사다리, 장애물을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다.
타기	장애물을 피해 자전거를 탈 수 있다. 자전거 손잡이를 돌릴 때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다.
차기, 던지기, 잡기	어깨 위로 손을 들어 공을 던진다. 튀겨주는 공을 잡을 수 있다. 굴러오는 공 쪽으로 움직여나가 찰 수 있다. 공을 차서 앞쪽으로 보낼 수 있다.
소근육 통제	빨래집게를 사용할 수 있다. 여러 모양의 선을 따라 가위로 오려낼 수 있다.
눈과 손의 협응	작은 구슬로 목걸이를 만들 수 있다. 깎대기를 이용하여 물을 따를 수 있다.

자료: 박영아 (2013). 아동동작교육. 교육과학사.

〈부록 표 5〉 만 5세 유아의 대·소근육 발달

이동하기	달리다가 재빠르게 방향을 전환시킬 수 있다. 갤로핑(gallop)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 10초 이상 한발로 서 있을 수 있다. 리듬에 맞추어서 발을 바꾸어가면서 호핑(hopping)을 할 수 있다. 능숙하게 스킵핑(skipping)을 할 수 있다. 자유롭게 점프(jump)할 수 있다.
균형잡기	평균대 위에서 앞으로 쉽게 움직일 수 있으며, 뒤로 걸을 수도 있다. 앞구르기를 할 수 있다.
오르기, 내려오기	경사로, 계단, 사다리, 미끄럼틀을 쉽게 오르내린다.
타기	속도나 방향을 자유롭게 조절하며 세 발 자전거를 탈 수 있다.
차기, 던지기, 잡기	목표점을 향해 던지고 차고 잡는 것이 정확해진다. 유연하게 움직이면서 공을 어깨 위로 들어 던질 수 있다. 공을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찰 수 있다. 크기가 작은 공을 손으로 잡을 수 있다.
소근육 통제	찰흙을 빚어 어떤 대상인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만들 수 있다. 여러 형태의 선이나 모양을 오리기 위해 가위를 사용할 수 있다.
눈과 손의 협응	빨대, 단추 등 작은 사물들을 끈으로 묶을 수 있다. 작은 블록으로 균형 잡힌 구조물을 만들 수 있다.

자료: 박영아 (2013). 아동동작교육. 교육과학사.

제 4부. 각 론 : 사회성발달영역

I. 「사회성발달영역」 문제행동지도

1. 사회성발달영역 문제행동의 이해

가. 사회성 발달에 대한 이해

- 사회성이란 한 개인의 사회 적응 정도나 대인관계의 원만성을 말함
- 애착이 특정한 사람과의 친밀감을 뜻한다면 사회성은 보다 다양한 사람과의 긍정적인 관계형성을 의미
- 사회성발달 영역에서의 문제행동은 사회적 관계에 어려움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사회성의 정도는 대부분의 장애진단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국립특수교육원, 2009)

1) 시기별 발달과업

- 영아기에는 다른 사람과의 애착을 형성하는 것이 주요한 발달 과업
 - 애착관계의 형성이 잘 이루어진 아동들은 부모와 격리되거나 낯선 상황에서 잘 적응하고 이후 긍정적인 사회성 발달의 토대가 됨
- 유아기에는 또래관계, 긍정적인 또래집단 경험이 주요한 발달 과업
 - 3~5세경이 되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가를 배우기 시작하며 또래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시기임
 - 또래집단을 통해서 사회적 기술, 자기 이해, 집단 의식을 기를 수 있음
 - 또래집단 경험은 유아의 입장을 배려하는 성인과의 경험과 달리 다양한 갈등 상황을 수반하지만, 이는 지적·정서적·사회적 발달에 필요한 탈중심화 촉진

*** 영아기 사회성의 특징***

- 주양육자와의 긍정적인 관계 경험이 이후 발달의 토대가 된다.
- 영아는 감각을 사용하여 기초적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나간다.
-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타인과 구별하기 시작한다.
- 집단양육을 경험하게 되면서 또래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된다.
- 18개월 이후부터 순대장기나 주고받기 와 같은 상호적 역할이 가능하다.
- 공통의 관심거리가 있으면 단순한 모임을 가질 수 있다.
- 언어습득과 표현기술이 발달하며 성인이나 또래에게 영향을 주기 위한 시도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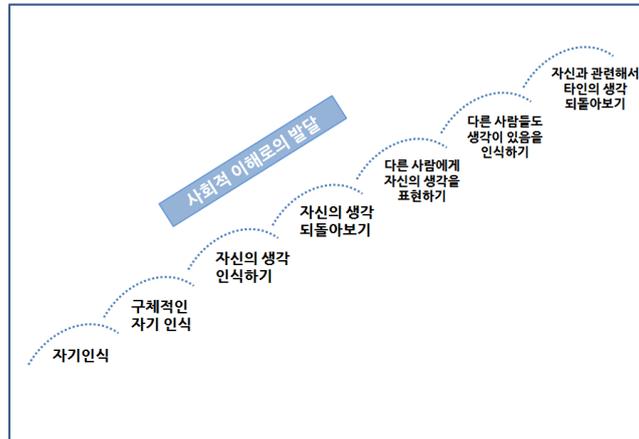
*** 유아기 사회성의 특징***

- 여러 친구와 어울리기 시작한다.
- 자기중심적이다.
- 놀이가 활발해해지지만 자아가 발달해가고 자기주장이 생긴다. 따라서 또래끼리 잘 싸우게 된다.
- 성역할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한다.
- 극놀이와 집단의 놀이를 즐긴다.
- 평행놀이가 감소하고 협동 놀이가 증가한다.
- 친구와 함께하는 긍정적이 경험의 반복이 중요하다.

자료: 최명선 외,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 돕기, 2012, 재구성

2) 사회적 이해와 자아개념 발달

- 아동의 사회적 행동의 뿌리는 사회적 세상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이해에 있으며, 이러한 이해는 아동의 자신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Lewis & Carpendale, 2004)
 - 아동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는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영향
 - 사회성발달과 관련된 문제행동을 해결하고 보다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건강한 자아개념 발달을 지원해야 함
- 자기인식과 사회적 이해
 - 타인과 구분되는 자신의 존재, 외부환경에서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는 자아를 이해하는 것



자료: 박경자 외, 영유아의 사회정서발달과 교육(2009); Marjorie J., Guiding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and Learning, 6th ed., 2009

[그림 1-1-1] 사회적 유능성 발달에 있어 자기 인식에서 사회적 이해로의 발달

□ 자아개념

- 유아가 자신을 나타내며 다른 사람과 자신을 구분 짓는 속성, 능력, 태도, 가치를 조합하여(Shaffer, 2006) 자신이 누구인지 정의하고 자신에 대한 태도와 가치를 형성하게 됨
- 12개월~24개월: “나는 엄마를 소리를 지르게 만들 수 있어!”
 - 자신과 타인을 분명하게 구분하며, 주변 사람이나 사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됨
 - 언어능력이 발달하며 자신에 대해 더 잘 생각하게 되며, 초기에는 주로 나이 나 성과 같은 속성으로 자신을 구분 (“나는 두 살”)
- 만 2세~3세: “나는 언니가 있고,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요!”
 - 자신을 매우 구체적이고 관찰 가능한 용어로 정의
- 만 4세~5세: “나는 철수보다 빨리 달릴 수 있어요!”
 - 자신의 특성을 예전 혹은 또래와 비교하여 정의

□ 자아존중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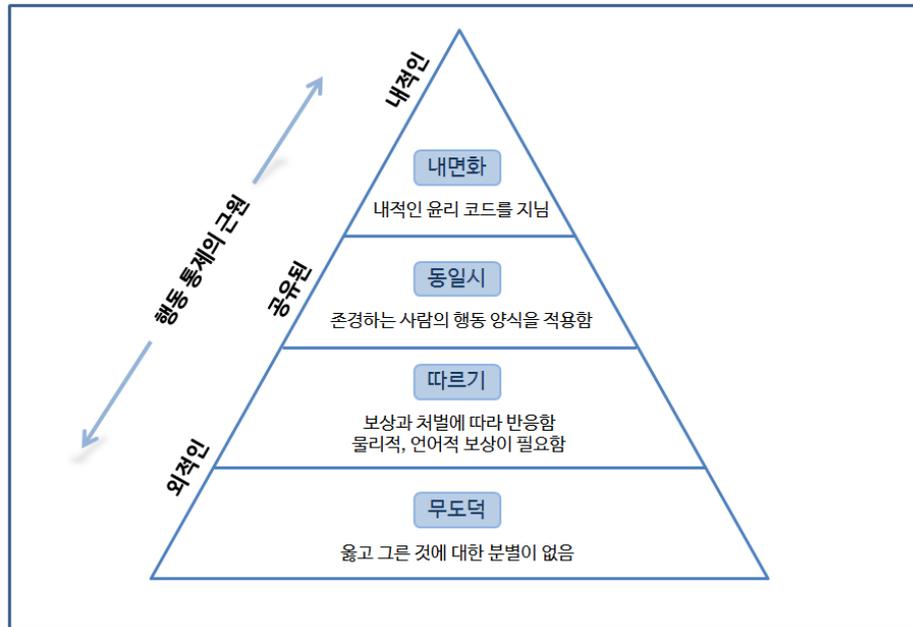
- 자신에 대해 알게 되며 자신의 가치, 능력, 통제에 대한 평가의 결과

- 가치: 나는 날 좋아해/ 사람들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 능력: 나는 무엇이든 잘할 수 있어/ 나는 잘 못 해
- 통제: 선생님은 내 생각을 이해하고 따라 주실꺼야
- 영유아기 아이들은 자신이 바라는 행동과 실제 자신의 행동을 구분하지 못해 일반적으로 지나치게 긍정적인 자기평가를 하고 자아존중감이 높음
-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은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
- 자기조절
 - 아동이 사회적 기대에 얼마나 잘 부합되는 행동을 하는지,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지는 자아개념, 대인관계 기술 그리고 자기조절능력과 관련
 - 옳고 그른 행동이나 친사회적 기술에 대해 가르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하므로, 사회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동이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Marjorie, 2009)

나. 사회성 발달 영역에서의 문제행동 원인

1) 원인 I: 아동관련 요인

- 인지적인 발달 특성 상 자기중심적임
 - 발달적으로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려운 시기임
 -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거나 다른 사람의 정서 표현을 읽는 능력이 부족하여 또래나 성인의 지시에 잘 반응하지 못함
- 자신의 행동이나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 부족
 - 사회관계는 유아가 자기 정서를 나타내고 조절하는 능력과 관련 있으며, 이는 자아와 타인에 대한 사회적 이해 발달과 관계됨
 - 미숙한 정서 조절능력으로 타인의 정서 표현에 대해 적절히 반응하기 어려움
 -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 부족으로 공격성 표출
 - “어릴수록 직접적 행동으로 공격성을 표현한다”
 - 어릴수록 신체적 공격성이나 물리적 공격성이 두드러짐



자료: 박경자 외, 영유아의 사회정서발달과 교육(2009); Marjorie J., Guiding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and Learning, 6th ed., 2009

[그림 1-1-2] 자기 조절의 발달(Marjorie, 2009)

- 사회적 기술의 부족
 - 대인관계 행동들· 자신 관련 행동들· 학업 관련 기술들 · 자기주장 행동· 또래 수용· 의사소통 기술 부족
- 신체 및 정서적 스트레스로 인한 짜증
 - 유아는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회피나 충동적 행동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를 통해 심리적인 불균형을 줄이지 못하면 짜증의 증가, 적대적인 태도 증가, 주위 산만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함
- 낮은 자아존중감 및 위축된 자아로 인한 의사 표현의 어려움
 - 자아존중감이 낮을 시 유아는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확신이 없어 표현에 두려움을 느낌

2) 원인 II: 부모 및 다른 성인들과의 관계 요인

□ 부모의 양육태도

- 부모의 강압적 태도
 - 부모가 지나치게 유아를 통제하여 유아가 위축되고 자신감이 떨어짐
- 부모의 과잉보호
 - 과잉보호를 받은 유아는 또래관계에서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게 되면 공격적인 행동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려고 할 수 있음
 - 또는, 과잉보호로 인해 스스로 해본 경험이 부족하여 자신감이 없고 소극적으로 될 수 있음
- 공격행동에 대한 부모의 허용 또는 묵인
 - 유아의 공격행동을 웃어넘기거나 어리광으로 받아주거나 묵인하면 유아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분별할 수 있는 기회를 잃고 행동을 지속
- 유아의 공격행동에 대해서만 부모가 유독 반응을 보임
 - 평소에는 무관심하다가 유아가 공격적 행동을 할 때마다 많은 관심을 보이면 유아는 성인의 관심을 얻기 위해 공격적인 행동을 반복적으로 사용함

□ 다른 성인들과의 상호작용 경험

- 다른 성인들로부터의 비난, 헐박, 억박지름 등 부정적인 언어경험 제공으로 인한 학습
- 유아에게 의미 있는 성인이 상호작용하는 방식 모델링
 - 성인이 유아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명령하거나, 유아의 생각이나 무시하는 경험
 - 부모가 자녀를 통제하기 위해 애정철회를 자주 사용한 경험
- 성인의 부정적인 상호방식이 유아에게 주었던 강력한 영향, 통제의 경험을 학습하여 또래에게 사용하게 됨

3) 원인 III: 환경적 요인

- 충분한 수의 놀잇감, 충분한 놀이 공간 및 활동 시간 제공 부족
 - 충분한 수의 동일한 놀잇감 제공 부족으로 소유로 인한 갈등
 - 36개월 이전 영아들이 생활하는 학급에서는 모양·색이 동일한 놀잇감을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을 시 소유로 인한 갈등 발생
 - 충분한 놀이공간이 확보되지 않음으로 인한 영유아의 신체 및 정서적 스트레스 유발
 - 충분한 활동 시간과 기회가 제공되지 않음으로 인한 영유아의 신체 및 정서적 스트레스 유발
- 영유아가 안정적으로 쉴 수 있는 공간의 부족
 - 영유아가 안정적으로 쉴 수 있지 않을 시 영유아의 신체 및 정서적 균형감이 깨어짐
- 부정적인 양육환경
 - 일관적인 양육자가 보살핌을 제공하지 않음
 - 돌보는 사람이 일관적인 양육을 통해 영아는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게 됨
 - 온정적이고 반응적인 양육 환경 제공 부족
 - 영아의 기본적인 신체 욕구 및 감정 욕구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적절하게 반응함을 통해 영아는 사회에 대한 신뢰, 자존감 등을 형성할 수 있음

2. 사회성 발달영역 문제행동 사례목록

〈표 1-2-1〉 사회성 발달영역 사례목록

구분	번호	행동 사례	유형
영아	1	무는 경우	A. 공격행동
	2	교사를 밀쳐내는 경우	
	3	할퀴는 경우	
	4	놀잇감을 던지는 경우	
	5	놀잇감을 뺏는 경우	
	6	짜증내는 경우	
	7	교사에게 메달리는 경우	B. 위축/단절
	8	자신의 관심에만 몰두된 경우	
유아	9	때리는 경우	A. 공격행동
	10	같이 안 논다고 말하는 경우	
	11	신경질적으로 말하는 경우	
	12	떼쓰는 경우	
	13	지기 싫어하는 경우	
	14	친구를 귀찮게 하는 경우	
	15	힘 조절이 안되는 경우	
	16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	
	17	선호하는 또래가 제한된 경우	
	18	부끄럼이 많은 경우	
	19	의존적인 경우	
	20	같은 것을 반복하는 경우	
	21	또래를 따돌리는 경우	C. 기타 갈등유발행동
	22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23	반항하는 경우	
	24	고자질하는 경우	
	25	거짓말하는 경우	
	26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	

3. 사회성발달영역 문제행동에 대한 교사 지도 방안

- 사회성발달영역에서의 문제행동은 관계에서의 갈등으로 볼 수 있음
- 영유아들이 집단생활을 하며 겪는 갈등상황을 긍정적인 교육의 기회로 바라보기
 - 갈등은 집단 속에서 함께 생활하고 일하는 자연스러운 부분임. 유아들은 갈등에 직면해 봄으로써 실제 삶과 연관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술들을 학습할 수 있으므로 교실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유익함(Crosser, 1992, p.28)¹²⁾
 - 갈등상황을 없애고, 갈등 유발의 원인이 되는 영유아를 벌을 주는 등 갈등을 부정적인 요소로 보지 않는 새로운 시각 갖기
 - 갈등은 감정 이입과 친사회적 행동의 힘을 경험할 있는 기회
 - 갈등은 교사에게도 좋은 학습의 기회가 됨
 - 갈등은 교사에게 영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발달 단계와 스스로 논쟁을 해결해 가는 유아의 능력에 대한 통찰 제공
- 갈등상황 지도는 갈등상황에서의 즉각적 개입 및 갈등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접근으로 구분함

가. 즉각적 개입: 문제행동 발생 상황에서 교사가 즉시 개입

- 문제행동으로 인해 갈등상황이 발생했을 때 교사가 즉시 개입
- 문제행동을 유발하는 영유아의 마음을 우선 인정하고 지지하면서 동시에 행동에 대한 제한과 적절한 대안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 지지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갈등상황에 즉각적으로 개입하는 상호작용 4단계

상호작용 단계 1	아동 감정을 수용하고 이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갈등상황에서 교사는 영유아의 감정을 수용하고 이해해 주는 것으로 시작하여야 함. - 감정이 격양된 상태일 때는 먼저 비언어적으로 수용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아주기 ▪ 등 토닥여주기 ▪ 고개를 끄덕이며 안아주기

12) Crosser, 2. (1992). Managing the early childhood classroom, Young Children, 47(2), 23-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의 감정과 상황을 읽어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결한 말로 상황을 표현해주기 ▪ 등 토닥여주기 ▪ 고개를 끄덕이며 안아주기
상호작용 단계 2	서로의 입장을 분명히 이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잘잘못을 가리기 보다는 서로가 원하는 것이 달라서 생긴 상황임을 인식시키기 - 각자의 입장을 말할 기회 주기 - 친구의 감정 읽어주기 - 친구의 행동 의도를 읽어주기
상호작용 단계 3	행동의 기준을 분명히 알려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되지 않는 행동을 분명하게 말하기 - 필요한 경우, 허용되지 않는 행동에 대해 책임지기
상호작용 단계 4	적절한 대안 방법 찾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로 해결방안을 제안해보기 - 서로 수용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적용하기

- 갈등상황 해결을 위한 상호작용 4단계는 갈등 상황에 따라 일부 단계만 적용해도 됨. 즉, 1단계, 2단계, 또는 3단계 까지만 적용할 수 있음

나. 예방적 접근: 문제행동이 일어날 수 상황을 미리 예방

- 문제행동으로 인한 갈등상황 발생 전에 미리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접근
- 수용적이고 공감하는 상호작용을 통해 유아가 자신을 긍정적으로 느끼게 함
- 허용되는 행동과 허용되지 않는 행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평소에 바르게 행동할 때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모델링과 설명을 통해 조절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기
- 나누기, 차례지키기, 경쟁을 게임으로 받아들이기 등 친사회적 기술을 놀이 활동 및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향상시키기
- 일과시간 구성, 놀이감의 수, 공간 배치, 놀이 환경 등 환경을 개선하기
- 가정과 연계하여 부모가 자녀의 특성을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돕기

1) 자아존중감 향상

- 수용적이고 공감하는 상호작용을 통해 유아가 자신을 긍정적으로 느끼게 함
- 감정 조절이 어려운 유아들 중 자아존중감이 낮은 유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유아의 높은 자존감 형성 돕기
 - 긍정적으로 지지하기
 - 유아 스스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언어적으로 지지하기
- 긍정적인 관계 형성하기
 - 교사가 경청하는 모델 보여주기
 - 안아주기
 - 등 토닥여주기
 - 고개를 끄덕이며 안아주기
 - 교사가 상호존중하는 태도 보여주기
 - 영아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 영아가 하는 말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기
 - 영아의 감정이나 행동 반영하기
 - 나-전달법으로 교사의 생각을 전달하는 모델 보여주기
 - 영아가 한 행동이나 일을 격려하기
- 유아가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 주기
 - 그림책 등을 통해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경험 제공
 - 언어표현이 보다 능숙한 유아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활동을 제공
 - 감정의 표현을 통해 타인이 느끼게 될 감정에 대해 생각해보기
 -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고 표출할 수 있는 놀이를 제공하기
 - 역할놀이, 창의적 미술활동, 신체활동 등을 통해 유아는 다양한 감정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됨
 - 베토벤의 '운명', 슈베르트의 '마왕' 감상하며 느껴지는 기분을 신체로 표현하기

□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대처 기술 지도하기

- 비언어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기
 - 유아의 얼굴 표정, 목소리 톤, 다른 언어적 속성을 통해 전달되는 정서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함
 - 교사는 유아에게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는 몸짓을 하고, 교사 자신의 정서와 행동 역시 조절하는 것이 필요함
- 유아의 스트레스를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해소할 기회 제공하기
 - 위축되거나 부정적 정서는 대놓고 표현하는 유아에게 주의를 기울이며 이러한 태도를 무시하기보다 좀 더 건설적인 대처 방식을 갖도록 지도해야함
- 일과에 휴식 시간을 포함하기
 - 스트레칭, 긴장 풀기, 근육 이완, 호흡을 이완하기 위한 운동과 같이 일정한 시간마다 모든 또래가 함께 참여하는 휴식 시간을 계획함

2) 자기조절력 증진

- 허용되는 행동과 허용되지 않는 행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평소에 바르게 행동할 때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모델링과 설명을 통해 조절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기
- 허용되는 행동과 허용되지 않는 행동에 대한 명확한 지침 제공하기
 - 분명한 규칙 마련하기
 - 유아들 스스로 규칙 정하기
 - 다양한 교실활동을 통해 규칙 설명하기
 - 규칙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 갖기
 - 교실의 규칙에 대한 유아의 생각, 느낌 이야기 하는 시간 갖기
 - 토의를 통해 규칙을 잘 지키기 위한 방법 의논하기
- 관심을 끌기 위해 공격적인 행동하지 않도록 지원
 - 영아에게 민감하게 반응하기

- 영아가 부정적인 조건을 잘못된 행동으로 표현하기 전에 신체적·정서적 조건을 민감하게 파악하고 반응해 주기
 - 영아의 잘못된 표현행동에 과하게 반응하지 않기
 - 맥락은 다양하지만 영아가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이유 중 많은 경우는 관심 끌기므로, 과하게 온정적으로 혹은 과하게 훈육적으로 영아와 상호작용하는 것은 공격 행동을 오히려 강화시킬 수 있음
 - 교사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지도하여 영아가 스스로 행동과 감정을 조절하도록 기다려 주는 것이 필요
- 자기 조절 기술 배워 나가도록 돕기
- 영아는 주변 성인의 반응이나 모델링을 통해 자기 조절 기술을 배워나감
 - 잘못된 행동이라고 심하게 훈육할 경우, 아이는 자신이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성인이 ‘안 돼!’라고 반응한다고 생각해 자신감을 잃고 위축될 수 있음
 - 행동의 의도를 보지 않고 결과에만 집중한 훈육을 반복할 경우 아이는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 욕심을 부리고,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질 수 있음
 - 유사한 행동을 거듭 할 때 성인이 반복해 설명하는 것이 필요
 - 영아는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이나 재미있는 것이 있다면 또 다시 잘못된 행동을 반복할 수 있음
 - 성인의 여유있고 반복적인 안내를 통해 영아는 자기주장과 자기 조절 기술을 배울 수 있음
- 신체적 긴장과 피로를 이완시키는 놀이 활동 계획하기
- 집단생활을 장시간하는 영아들을 위해 음악감상이나 스트레칭과 같이 신체적 긴장과 피로를 이완시키는 활동을 계획하여 실시
 - 돌 전후의 영영아의 경우 마사지와 같은 스킨십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 기저귀 갈이와 같은 일상적인 돌봄 시간에 교사가 일대일로 반응적인 상호작용을 충분히 하는 것도 안정감을 느끼는데 도움이 됨

3) 사회적 기술 향상

- 나누기, 차례지키기, 경쟁을 게임으로 받아들이기 등 친사회적 기술을 놀이 활동 및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향상시키기
- 친사회적 행동 모델링: 나누기
 - 아직 또래의 의도나 입장을 고려하기 힘든 영아이므로, 교사가 가지고 있는 놀잇감이나 간식 등을 나누어 주며 “같이 하자!”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줌
 - 영아들이 또래와 나란히 놀이하고 있거나 자신의 놀잇감을 선뜻 건네주는 상황을 보면 교사가 이를 읽어주고 지지하며 긍정적 행동 강화
- ‘나누기’ 경험하기
 - 좋아하는 또래에게 영아가 애착을 갖는 장난감이 아닌 것부터 또래에게 빌려주도록 유도하기
 - 자기중심적인 영아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물건을 나누는 것은 거부하므로 일상적인 용품이나 간식 등을 나누는 경험을 할 기회 제공
- 대물다툼 상황을 예방하기: 차례 정하기
 - 수량을 늘릴 수 없고 많은 유아들이 선호하는 놀이(컴퓨터 영역·피아노 등)라면 유아에게 순서를 지키며 즐겁게 활동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기회로 이용
 - 차례 정하기 방법
 - 모자에서 이름표 꺼내기(모든 유아의 참여를 가능하게 함)
 - 번호표(원하는 친구만 참여하게 함)
 - 시간을 제한하는 자명종 시계나 모래시계 비치
 - 차례 정하기를 통해 사회적기술·문제해결력을 배울 수 있으며 차례정하는 과정을 놀이보다 더 즐길 수도 있음
 - 차례 지키기는 통해 유아는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고 대물다툼으로 인한 갈등상황을 줄일 수 있으며 교사의 신뢰를 느끼게 할 수 있음
- 놀이경험에서 경쟁성 지도

-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승리를 조절
- 지는 것도 괜찮다는 것을 말로 표현
- 유아의 경쟁을 인위적으로 유도하지 않기
- 특별한 기술이나 사고 능력이 요구되는 게임이 아닌 운에 의해 승부가 나는 게임 방법을 정해 지나친 경쟁성 줄이기
- 유아들이 지나친 흥분이나 경쟁성을 보이면 흥분을 가라 앉히도록 돕기

4) 환경개선하기

- 일과시간 구성, 놀이감의 수, 공간 배치, 놀이 환경 등 환경을 개선하기
- 소유로 인한 갈등을 줄이는 물리적 환경 구성하기
 - 충분한 수의 동일한 놀잇감 제공
 - 36개월 이전 영아들이 생활하는 학급에서는 놀잇감을 다양하게 구비하기 보다 모양·색이 동일한 놀잇감을 충분하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 0-1세 영아 10명이 지내는 학급에 4개의 흥미영역이 구성되어 있다면, 흥미영역당 4명(학급별 아동수/흥미영역 * 1.5)의 영유아가 함께 놀이할 수 있는 수량의 놀잇감이 충분함의 기준
 - 충분한 놀이공간 확보
 - 영아는 자신의 놀잇감, 놀이에 집중하는 시간이 짧고 주변 사물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 옆 또래가 가지고 노는 놀잇감에 흥미를 보이는 경우가 잦음
 - 개별적인 놀이공간을 충분히 제공하고 영역간의 동선을 고려하여 환경구성
 - 충분한 활동 시간과 기회 제공
 - 일과에 충분한 놀이시간을 계획하여 영아들이 여유를 가지도록 함
- 또래나 교사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환경 제공
 - 만2세 영아의 경우 비슷한 활동을 각자하는 평행놀이를 즐김.
 - 점차 또래와 교류하는 놀이·생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함
 - 비슷한 기질이나 흥미를 보이는 아이들끼리 가까이 있게 하거나 교사가 놀이에 초대

- 교사가 '또래 친구'의 역할을 하며 영아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영아가 만들어내는 이야기를 이해하며 놀이에 개입함
- 두 아이가 각자의 놀이를 하고 있을 때, 교사가 놀이 과정이나 영아의 행동을 큰 소리로 묘사해주어 아이들이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게 해 줌

일과 중 영아가 휴식과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 보육실 내 휴식공간 마련하기

- 다른 영아의 움직임이나 활동에 방해 받지 않도록 독립적인 공간 구성
- 어린 영아는 혼자 휴식 취하기를 거부하거나 어려워하므로 아이들에게 매력적인 공간이 되도록 쿠션이나 봉제 인형 등으로 아늑하게 구성

○ 일과의 균형성 확인하기

- 영아의 신체적·정서적 상태를 고려하여 정적·동적인 활동을 균형있게 배치
- 영아의 경우 피로감이 극에 달할 때까지 이를 자각하지 못하므로 미리 교사가 조절하는 것이 필수적임
- 일과 운영시 활동과 활동 사이 전이시간을 충분히 가져 교사가 영아의 개별적인 요구나 필요를 받아줄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이 필요함

5) 부모와 협력하기

가정과 연계하여 부모가 자녀의 특성을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돕기

자녀의 발달적 특성 이해시키기

○ 자녀의 기질을 이해하기

- 영아의 기질에 맞는 부모의 적절한 양육태도가 매우 중요함

문제행동으로 인한 부모의 스트레스 공감하기

- 유아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해 스트레스 정보 공유하기
- 부모의 스트레스를 인정하고 격려하기

부모의 양육태도 개선시키기

- 일관적인 양육자가 보살핌을 제공함

- 돌보는 사람이 일관적인 양육을 통해 영아는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게 됨
- 온정적이고 반응적인 양육 환경 만들기
 - 영아의 기본적인 신체 욕구 및 감정 욕구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적절하게 반응함을 통해 영아는 사회에 대한 신뢰, 자존감 등을 형성할 수 있음
- 문제행동에 대한 가정에서의 지도방법 알려주기

II. 「사회성발달영역」 문제행동지도의 실제

1. 무는 경우

만 1세/ 여아

영아가 가지고 놀던 모형 컵을 책상 위에 두고 다른 놀잇감을 가지고 오기 위해 잠시 교구장으로 이동한다. 그 때 다른 친구가 책상 위에 있던 컵을 만지고, 그 모습을 본 영아를 빠르게 달려와 친구의 팔을 물며 컵을 세게 잡아당긴다. 친구가 소리를 지르자 '내꺼야!' 하며 얼굴을 밀치고 울음을 터뜨린다.

가. 원인 분석

- 자신이 원하는 컵을 지키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행동하고는 자신도 놀라서 울
- 아직 어려서 집단생활에서 필요한 '놀이감 나누어 쓰기'가 어려움
- 놀잇감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적절한 방법을 모름
-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아이의 경우 성인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행동이 되기 때문에 무는 행동을 지속하는 경우도 있음
- 돌 전후의 영아들은 이가 나기 시작하며 무언가를 깨물고 싶은 욕구를 느껴 또래에게 물거나 물리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함

나. 지도 방법

1) 즉각적 개입

- 자신에게 필요한 놀잇감을 뺏기기가 싫어서 무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그러한 영아의 마음을 읽어준 뒤 적절한 방법을 알려주는 상호작용을 함

- **상호작용 1단계:** 영아의 신체적, 정서적 상태를 읽어주기
 - 영아를 비언어적으로 수용하기
 - 두 아이를 우선 각각 안아준다.
 - 영아의 상태를 읽어주기
 - “놀고 있는 컵을 친구가 가져가는 줄 알았나보네.”
 - “ 친구가 놀잇감을 만지는 게 싫었구나.”
 - “ 친구가 옆에 오는 게 싫었구나.”
 - “친구를 물고 밀치고 나선 너도 놀랐구나.”
- **상호작용 2단계:** 서로의 입장을 분명히 이해하기
 - 교사가 밀친 행동에 집중하여 일방적인 가해자-피해자를 가리는 방식으로 개입하지 않도록 함
 - 서로가 원하는 것이 달라서 생긴 것에 초점
 - 공격 행동으로 인한 친구의 감정 읽어주기
 - “물어서 친구가 아프겠다.”
 - “소리를 질러서 친구가 놀랐겠다.”
 - 친구 행동의 의도를 읽어주기
 - “친구가 가져가려는 것이 아니라 같이 놀고 싶어서 컵을 만질 수도 있지.”
- **상호작용 3단계:** 행동의 기준을 분명히 알려주기
 - 단호한 태도로 전달하되 영아가 무서움을 느끼지 않게 함
 - 감정은 공감해주되 영아의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제한함
 - 낮은 목소리로, 다른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크기로 전달
 - “친구가 가져가더라도 물거나 때려서는 안돼.”
 - 교사가 자신의 손가락으로 입 위에 얹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 보임.
 - 물린 친구의 아픔을 상기시키기
 - (물린 상처를 보여주며) “물면 친구가 아파.”

- 무는 행동을 보일 때마다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강조

□ **상호작용 4단계:** 적절한 대안 행동 지도하기

- 나-전달법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연습시키기
 - “친구에게 내가 놀고 있는 거라고 말해주렴.”

2) 예방적 접근

- 정서적으로 불안한 경우에 성인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공격 행동을 하기도 함. 무는 행동에 대한 교사의 개입이 교사의 주의를 끌어냈다는 측면에서 무는 행동을 강화하여 지속시킬 수 있음. 따라서 평소에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영아에게 긍정적인 관심을 보여줌

- 영아의 말과 행동을 적극 반영하기
 - 영아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 영아의 감정이나 행동 반영하기
- 영아의 감정에 공감하기
 - 영아가 하는 말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기

- 발달적으로 아직 ‘나누기’가 어려운 시기이기는 하나 집단생활에서 필요하므로 나누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 교사가 모델링을 보여주기
 - 아직 또래의 의도나 입장을 고려하기 힘든 영아이므로, 교사가 가지고 있는 놀잇감이나 간식 등을 나누어 주며 “같이 하자!”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줌
- 나누는 행동을 할 때 격려하기
 - 영아들이 또래와 나란히 놀이하고 있거나 자신의 놀잇감을 선뜻 건네주는 상황을 보면 교사가 이를 읽어주고 지지하는 등 긍정적으로 강화
 - “우와~ 같이 하니깐 재밌겠다.”
 - “ 친구 하라고 빌려줬구나. 고마워!”

□ 물기 예방하기

- 돌 전후의 영아들은 이가 나기 시작하며 무언가를 깨물고 싶은 욕구를 느껴 또래에게 물거나 물리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함
 - 평소에 잇몸이 간지러워 장남감이나 인형을 무는 경우에도 물지 않도록 얘기하기
 - 치아발육기 등 물어도 되는 것을 주어 영아의 욕구를 수용하기

다. 유의사항/ 참고사항

□ 지도 Tip

- 허용되지 않는 행동을 언어적인 설명과 함께 교사가 행동으로 보여줌.
- 자신의 입장을 언어로 표현하는 동극활동 활용하기

□ 구강기 영아의 특성 이해하기

- 생후 1년 전후의 구강기
 - 프로이드의 성격 발달 단계중 제 1단계는 생후 1년 전후까지의 구강기
 - 이 단계에서는 입과 구강 부위에 쾌락을 추구하는 에너지가 몰려 있음
 - 손가락이나 젓꼭지를 빨거나 입에 닿는 것을 무는 것과 같은 구강 활동이 영아들에게 쾌감을 주게 됨
 - 이 시기 구강을 통한 쾌감을 적절하게 경험하지 못하면 다음 발달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고착 형상이 일어나므로 영아의 빨고 무는 욕구를 충족시켜 주려는 노력이 요구됨

2. 교사를 밀쳐내는 경우

만1세/ 남아

출근하는 엄마와 바쁘게 등원하느라 영아는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교실에 떠밀리듯 들어왔다. 교사가 “○○야, 어서와~” 하고 인사하며 안으려 하자 교사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버둥을 치며 “저리가!” 하고 소리를 지른다.

가. 원인 분석

- 엄마와의 헤어져 기분이 나쁜 것을 교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대신 표현함
- 때리는 행동을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사용
 - 말을 능숙하게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이 부족함.
 - 때리면 상대방에게 어떤 기분인지를 이해하는 인지적 능력이 부족함.
 - 영아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전형적인 행동임
 - 언어표현능력이 미숙하므로 때리는 행동을 통해 자신이 속상하다는 강력한 의사 표현
- 엄마에게 충분한 관심과 애정을 받지 못하여 화가 남
 - 어린이집에 적응을 잘 마친 후라도 영아들의 경우 그 날 그 날의 컨디션에 따라 등원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함
 - 등원 시 부정적인 정서를 자주 경험하면 일과 내내 힘들어하거나 어린이집 등원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등원과 맞이하기에서 부모와 교사의 관심이 요구됨
- 공격적인 행동으로 원하는 바를 얻었던 이전의 경험은 공격성을 강화시켜 영아가 습관적으로 공격 행동을 반복할 수 있음

나. 지도 방법

1) 즉각적 개입

- 엄마와 헤어져 기분이 나쁜 것을 교사를 때리고 밀치는 행동으로 표출
- 영아의 그러한 마음을 먼저 읽어준 뒤 적절한 방법을 알려주는 상호작용을 함
- 상호작용 1단계:** 영아의 기분을 알아보기
 - 교사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함
 - “엄마가 빠~이하고 가셔서 속상하구나. 선생님이 안아주는 것도 싫고.”
 - “엄마랑 헤어지는 게 속상해서 화가 났구나”

- **상호작용 2단계:** 도와주려는 선생님의 마음 전하기
 - “선생님은 ○○이 달래주고 싶어서 안으려고 한거야. ○○이 기분 나아지게 도와주고 싶어서.”
- **상호작용 3단계:**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거친 행동 제한하기
 - 아직 언어 표현 능력은 미숙하나 언어를 이해 능력은 이보다 훨씬 우수함
 - 12~18개월 된 영아는 타인이 정서적으로 불편함을 표현하는 단서를 이해하고 공감적인 표현과 반응을 보일 수 있음
 - 영아의 눈을 바라보며 교사의 상황과 마음을 ‘나 전달법’으로 분명하게 전달
 - “때리면 선생님이 아파.”
 - “○○이 때리니까, 선생님은 속상하고 아파”
 - “화가 나더라도 다른 사람을 때리면 안되는 거지.”
 - “싫을 땐 소리치지 않고 싫다고 말하는 거야.”
- **상호작용 4단계:** 적절한 다른 방법 찾기
 - “어떻게 하고 싶니?”
 - “○○이 참고 기다릴테니 엄마 늦지 말고 오라고 하자.”
 - 아이를 부드럽게 쳐다보며 잠시 그대로 둠

2) 예방적 접근

- 등원시 엄마와 헤어지더라도 여전히 엄마의 지속적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등원과 맞이하기를 일관적으로 함
 - 엄마가 시간여유가 좀 있는 날이라고 해서 책도 읽어주고 놀아주다 가면 영아는 매일 그럴 수 있다고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부정적인 행동(울기, 떼쓰기, 공격적인 행동하기 등)으로 관심 끌기를 시도하게 됨
 - 등원시 충분한 스킨십을 통해 애정을 확인하고 어린이집 생활을 격려하는 인사를 나눈 뒤 교사에게 맡기하도록 함
 - 일정한 등원 순서를 통해 엄마는 가고 자신은 남아서 어린이집에서 논다는 것을 예측 가능하도록 지도함

- 공격적인 행동으로 원하는 바를 얻었던 이전의 경험 때문에 영아가 습관적으로 공격 행동을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공격 행동을 해도 관심을 보이지 않음으로서 공격행동을 강화하지 않기
 - 영아의 잘못된 표현행동에 과하게 반응하지 않기
 - 맥락은 다양하지만 영아가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이유 중 하나가 관심끌기이므로 과하게 온정적으로 혹은 과하게 훈육적으로 영아와 상호작용하는 것은 공격 행동을 오히려 강화시킬 수 있음
 - 교사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지도하여 영아가 스스로 행동과 감정을 조절하도록 기다려 주는 것이 필요
- 일상생활에서 영아에게 민감하게 반응하여 영아가 관심을 받기 위해서 공격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기
 - 영아가 부정적인 컨디션을 잘못된 행동으로 표현하기 전에 신체적·정서적 컨디션을 민감하게 파악하고 반응해 주기

3. 할퀴는 경우

만2세/ 남아

○○이는 간식을 먹기 위해 교사 옆에 앉는다. 또래가 ○○이 옆자리에 앉자 ‘아니야!’ 하며 소리를 지르고 손을 뻗어 얼굴을 핥킨다. 교사가 또래를 얼른 떼어놓자 ○○이는 눈을 감고 소리를 지르며 울음을 터뜨린다.

가. 원인 분석

- 교사의 개별적인 돌봄을 원하는 상황에서 또래를 방해가 된다고 여김
 - 18개월경이 되면 동생이나 또래와 같은 경쟁자에게 자신의 애정대상을 빼앗겼거나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면서 질투정서가 나타남
 - 또래에게 교사의 관심을 빼앗긴 적이 있거나 동생이 태어나 부모님의 보살핌이 줄어든 상황 등의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음

- 집단생활을 하고 있지만, 발달적으로 아직 타인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음
- 기질적으로 예민하여 또래가 갑자기 다가오는 것을 싫어할 수 있음
-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력 부족
 - 또래가 그저 간식을 먹으려고 옆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함
 - 또래가 자신을 불편하게 하려거나 교사의 관심을 뺏으려는 의도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함
- 상황을 해결한 사회적 기술 부족
 - 또래의 행동이 싫을 때 적절하게 행동하는 방법 모름

나. 지도 방법

1) 즉각적 개입

- 교사의 개별적인 돌봄을 원하는 상황에서 또래를 방해가 된다고 여감
- 상호작용 1단계: 감정 반영하기
 - 영아들의 전형적인 발달단계에서 보일 수 있는 상황이므로 충분히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우는 영아를 앉아서 달래면서 할퀴 영아의 마음 읽어주기
 - "(등을 토닥이며) 아퍼서 어찌나~. ○○가 **이가 곁에 앉는 것이 싫었나보네."
 - 할퀴 영아의 관심 받고자 하는 욕구와 속상한 기분 읽어주기
 - "(울고 있는 영아를 토닥이며)○○가 선생님이랑만 있고 싶었구나."
 - "갑자기 친구가 옆에 앉아서 기분이 안 좋았구나."
 - "친구를 할퀴고는 ○○이도 혼날까봐 걱정이 되서 우나보네."
- 상호작용 2단계: 친구의 입장 설명하기
 - **도 간식 먹으려고 왔는데 ○○가 할퀴서 놀라고 아프겠다."
 - "***이는 ○○가 왜 그러는지 모를 거야."

□ **상호작용 3단계:** 허용되지 않는 행동을 분명히 알려주기

- 할퀴기와 같은 공격행동은 학습되기 쉬우므로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안 됨을 알려줌
 - “결에 오는 것이 싫어도 친구를 할켜서는 안돼.”
 - “그럼, 친구가 아파”

□ **상호작용 4단계:** 적절한 방법 제시하기

- 영아의 언어적 발달 수준에 맞추어 감정을 언어적으로 표현하게 함
 - “불편할 땐 ‘싫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 영아가 진정이 되면 친구들과 같이 앉아서 간식을 먹어야 함을 설명
 - “○○처럼 친구들도 배고파서 이렇게 같이 앉아 간식 먹어야 돼.”
- 같이 먹는 상황을 즐겁게 받아들이도록 돕기
 - “우리 ‘달팽이 집을 지읍시다’ 노래를 같이 부르며 죽을 식혀볼까?”

2) 예방적 접근

□ 함께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만2세 영아의 경우 비슷한 활동을 각자하는 평행놀이를 즐김
- 점차 또래와 교류하는 놀이·생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함
 - 비슷한 기질이나 흥미를 보이는 아이들끼리 가까이 있게 하거나 교사가 놀이에 초대
 - 교사가 ‘또래 친구’의 역할을 하며 영아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영아가 만들어내는 이야기를 이해하며 놀이에 개입함
 - 두 아이가 각자의 놀이를 하고 있을 때, 교사가 놀이 과정이나 영아의 행동을 큰 소리로 묘사해주어 아이들이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게 해 줌
 - “○○이는 죽이 뜨거워서 후후 불고 있구나. □□야, 우리도 불어보자.”

다. 유의사항/ 참고사항

- 영아의 손톱 상태를 가정과 연계하여 매일 확인

- 할퀴기, 꼬집기 등은 언어적 의사소통능력이 미숙한 영아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공격행동임
- 특히 영아의 손톱은 짧아서 더 날카로우므로 일상적으로 상태를 확인해야 함
- 할퀴기 행동이 반복될 경우에는 공감 후에 행동기준을 알려주는 일반적인 순서가 아닌 먼저 행동을 제지한 후에 공감해주는 순서로 바꾸어 할 필요가 있음. 영유아는 때로 훈육자의 첫 번째 긍정적 반응으로 자칫 제지의 전달이 불충할 경우가 있으므로 문제행동 반복될 경우에는 보다 단호한 제지 반응을 먼저해 줄 필요가 있음. 먼저, 즉각적으로 손을 잡고, 분명하고 단호한 어조로 “친구를 할퀴면 안돼”, “화가 나거나 속상해도 친구를 할퀴면 안돼는 거야.” 제지를 먼저하고 나서 “속상했구나. 그래도 할퀴면 안돼”라고 단순하고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함.
- 반복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에는 단계적인 접근의 순서를 바꾸어서 먼저 제지를 한 후 감정을 읽어주는 것이 필요함.

4. 놀잇감을 던지는 행동

만 1세/ 남아
주변의 놀잇감을 별 이유 없이 장난삼아 던진다. “친구가 맞으면 아프다”, “장난감 망가진다.” 하면서 행동을 제지해도 “던질 거야.”라고 하면서 보란 듯이 던지기를 계속한다. 교사가 던지지 못하도록 팔을 잡으면 교사를 발로 차며 공격한다.

가. 원인 분석 (이론적 근거 포함)

- 특별히 기분이 나쁘지 않은데도 재미삼아 던질 수 있음
- 던지면 어떻게 되는지, 던졌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궁금해서 반복적으로 던지고 싶어할 수 있음
 - 발달적인 측면에서 볼 때 나타날 수 있는 행동임
- 던지고자하는 욕구를 제지하자 계속 하고 싶어거나 속상해서 공격 행동을 보임

- 발달적으로 아직 자신의 행동에 대한 규범이나 가치가 형성되지 않는 시기임
 - 주변 환경이나 사람에게 자신의 행동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고려하지 못함

나. 지도 방법

1) 즉각적 개입

- 던지면 어떻게 되는지, 던졌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궁금해서 재미삼아 던질 수 있음
- **상호작용 1단계:** 감정 반영하기
 - 영아들의 전형적인 발달단계에서 보일 수 있는 행동임
 - 던지는 것을 재미있어 하는 것을 반영함
 - “○○는 던지는 것이 재미있나 보네.”
 - “재미있는데 선생님이 못하게 하니 계속 하고 싶어서 선생님을 때리는구나.”
 - “하고 싶은걸 선생님이 못하게 하니 속상해서 선생님을 때리는 거니?”
- **상호작용 2단계:** 다른 입장을 설명하기
 - “던진 걸 친구가 맞으면 아파.”
 - “장난감이 망가지면 가지고 놀지 못해.”
 - “선생님은 친구가 맞을까봐, 장난감이 망가질까봐 걱정이야.”
- **상호작용 3단계:** 허용되지 않는 행동을 분명히 알려주기
 - 물건을 던지는 행동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파손하게 하는 등 좋지 않은 행동임을 알려주기
 - “재미있더라도, 하고 싶더라도 장난감을 던지면 안돼.”
- **상호작용 4단계:** 적절한 대안활동 찾아주기
 - 던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는 재미있는 던지기 놀이 기회주기
 - 콩주머니 던지기, 스카프 던지기, 형겔 공 던지기

2) 예방적 접근

- 자신의 욕구나 행동을 조절하도록 격려하기
 - 차거나 때리며 함부로 행동하는 것은 상대방을 속상하고 화나게 한다고 알려주기
 - 하고 싶은 욕구를 조절해서 상황에 적절하게 행동할 때 격려하기
 - 교사의 권유나 설명을 받아들여 던지기를 중단하면 진심으로 격려해주기

5. 놀잇감을 뺏는 경우

만 2세/ 남아
놀잇감을 나누어 가지려 하지 않고, 친구가 가진 놀잇감도 자주 뺏는다. 또래들이 같이 놀이하고 있으면, 놀이에 참여하지 않고 소리를 지르거나 친구들을 불편하게 한다.

가. 원인 분석 (이론적 근거 포함)

- 친구와 놀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몰라서 친구 놀잇감을 빼앗거나 놀이를 방해할 수 있음
- 친구가 가진 장난감을 자신도 가지고 놀고 싶어서 뺏는 것일 수도 있음
- 친구 것을 빼앗거나 욕심을 부리는 것이 나쁜 행동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음
 - 발달적으로 자아중심적 사고를 하는 시기임으로 자신의 욕구와 감정에 몰입되어 있음
- 놀잇감 등 물건을 나누거나 요청해야 하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음
 - 모든 놀잇감을 혼자 소유하려고 함
 - 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갈등 중 소유에 대한 갈등이 90~10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Hay,1984)¹³⁾

- 물건 나누기는 또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믿음이 생기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므로 교사는 영아가 또래에 익숙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함(이영 외, 2006)¹⁴⁾

나. 지도 방법

1) 즉각적 개입

- 친구와 놀고 싶거나 또는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싶어할 수 있음
- 상호작용 1단계: 영아의 욕구 인정해주기
 - “친구가 갖고 놀고 있는 장난감을 너도 가지고 놀고 싶구나”
 - “친구와 같이 놀고 싶니?”
- 상호작용 2단계: 친구의 입장 설명하기
 - “친구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네가 가져오면 빼앗는 거야.”
 - “친구 것을 빼앗으면 친구가 속상해.”
 - “소리를 지르거나 친구를 불편하게 하면 친구들이 짜증나서 같이 놀자고 안해.”
- 상호작용 3단계: 용납 되지 않는 행동 설명해주기
 - 잘못에 대해 지적할 때 아이가 아니라 문제 행동에 초점을 두어야 함
 - 다른 사람에게 명백한 피해를 주는 행동은 나쁜 것이라는 것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알려주기
 - “놀고 싶다고 친구가 놀고 있는 장난감을 가져오면 안돼.”
 - “친구들이 놀고 있는데 소리 지르거나 불편하게 하는 것은 친구들 놀이를 방해하는 거야.”
- 상호작용 4단계: 적절한 대안 알려주기
 - “친구한테 나도 놀아도 되니 하고 물어보자.”
 - “돌아가면서 같이 놀자고 하자, 너 놀 동안 기다릴게 라고 얘기해보자”

13) Hay,D.F.(1984). Social Conflict in early childhood. Annals of Child Development, 1, 1-44

14) 이영, 김은기, 우현결(2006). 영아 놀이, 서울: 다섯수레

2) 예방적 접근

- 소유로 인한 갈등을 줄이는 물리적 환경 구성하기
 - 충분한 수의 동일한 놀잇감 제공
 - 36개월 이전 영아들이 생활하는 학급에서는 놀잇감을 다양하게 구비하기 보다 모양·색이 동일한 놀잇감을 충분하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 0-1세 영아 10명이 지내는 학급에 4개의 흥미영역이 구성되어 있다면, 흥미영역당 4명(학급별 아동수/흥미영역 * 1.5)의 영유아가 함께 놀이할 수 있는 수량의 놀잇감이 충분함의 기준
 - 충분한 놀이공간 확보
 - 영아는 자신의 놀잇감, 놀이에 집중하는 시간이 짧고 주변 사물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 옆 또래가 가지고 노는 놀잇감에 흥미를 보이는 경우가 잦음
 - 개별적인 놀이공간을 충분히 제공하고 영역간의 동선을 고려하여 환경구성
 - 충분한 활동 시간과 기회 제공
 - 일과에 충분한 놀이시간을 계획하여 영아들이 여유를 가지도록 함
 - “친구가 아직 다 안 놀았대. 우리가 조금 기다리자.”
- ‘나누기’ 경험하기
 - 좋아하는 또래에게 영아가 애착을 갖는 장난감이 아닌 것부터 또래에게 빌려주도록 유도하기
 - 자기중심적인 영아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물건을 나누는 것은 거부하므로 일상적인 용품이나 간식 등을 나누는 경험을 할 기회 제공
- 자기 조절 기술 배워 나가도록 돕기
 - 영아는 주변 성인의 반응이나 모델링을 통해 자기 조절 기술을 배워나감
 - 잘못된 행동이라고 심하게 훈육할 경우, 아이는 자신이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성인이 ‘안 돼!’라고 반응한다고 생각해 자신감을 잃고 위축될 수 있음
 - 행동의 의도를 보지 않고 결과에만 집중한 훈육을 반복할 경우 아이는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 욕심을 부리고,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질 수 있음

- 유사한 행동을 거듭 할 때 성인이 반복해 설명하는 것이 필요
 - 영아는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이나 재미있는 것이 있다면 또 다시 잘못된 행동을 반복할 수 있음
 - 성인의 여유있고 반복적인 안내를 통해 영아는 자기주장과 자기 조절 기술을 배울 수 있음

6. 짜증내는 경우

만2세/ 여아

아빠 품에 안겨 잠이 덜 깬 채로 등원한 영아는 교사에게 안긴다. 교사가 휴식영역의 매트에 눕히자 울먹이며 피곤한 기분을 표현한다. 옆에서 놀이를 하던 또래가 다가오자 큰 소리로 '하지 마!' 하고 소리 지른다. 또래가 옆에 앉자 영아는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고 발버둥을 치고 또래의 몸을 밀며 '저리가!' 한다. 교사가 진정시키려 해도 영아는 '아니야' 하며 소리를 지르고 옆에 보이는 놀잇감을 잡아 또래에게 던진다.

가. 원인 분석

- 피곤하여 소리치고, 밀치고, 던지는 등 공격 행동을 함.
- 수면부족 등 피로로 인한 짜증
 - 영아의 월령이 어릴수록 배고픔, 수면 등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 충족에 따라 신체적, 정서적 컨디션에 민감하게 영향 받음
- 친구가 다가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음.
 - 친구가 매트에 올라오는 것을 자신의 쉼터를 빼앗기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음.
 - 빼앗기기 싫어서 친구에게 소리치고 울고 던짐.
- 신체적, 감정적으로 불편한 상태를 적절하게 해소하거나 표현하는 방법을 모름

- 자신이 왜 불편한지 이해하지 못하고 현재 느끼는 부정적인 정서에 집중
- 울며 짜증을 내거나 물건을 던지고 주변 사람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음
- 설 수 있는 장소 마련이 부족한 환경요인이 있는지를 살펴봄.

나. 지도 방법

1) 즉각적 개입

- 수면부족 등 피로로 인해 짜증이 난 상태에서 다가오는 친구를 방해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음.
- **상호작용 1단계:** 영아의 신체적, 정서적 상태를 읽어주기
 - 먼저 던진 장난감에 친구가 맞지 않도록 보호하기
 - 영아를 비언어적으로 수용하기
 - 영아의 흥분을 진정시키는 일반적인 방법은 안아주기, 등을 쓸거나 토닥여주기 등이 있음
 - 영아에 따라 신체적인 접촉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런 경우 영아의 상태를 지켜보며 진정되기를 기다림
 - 영아의 상태를 읽어주기
 - “○○이가 자다가 깨서 기분이 안 좋구나.”
 - “친구가 옆에 오는게 귀찮나보네.”
- **상호작용 2단계:** 상황 설명하기
 - “친구는 ○○이랑 같이 놀고 싶었대”
 - “친구도 눕고 싶네”
- **상호작용 3단계:** 행동의 기준을 분명히 제시하기
 - 짜증나거나 방해받기 싫더라도 소리치거나 밀치거나 때릴 수 없음을 분명하게 설명함.
- **상호작용 4단계:** 바람직한 행동 설명하기
 - “친구에게 나 지금 기분 안좋아 이렇게 얘기해 주자.”
 - “매트에서 조금 더 쉴까?”

□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 마련하기

- 각자 누울 수 있도록 공간 구분해주기
- 매트를 각자 하나씩 마련해주기

2) 예방적 접근

□ 일과 중 영아가 휴식과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 보육실 내 휴식공간 마련하기
 - 다른 영아의 움직임이나 활동에 방해 받지 않도록 독립적인 공간 구성
 - 어린 영아는 혼자 휴식 취하기를 거부하거나 어려워하므로 아이들에게 매력적인 공간이 되도록 쿠션이나 봉제 인형 등으로 아늑하게 구성
- 일과의 균형성 확인하기
 - 영아의 신체적·정서적 상태를 고려하여 정적·동적인 활동을 균형있게 배치
 - 영아의 경우 피로감이 극에 달할 때까지 이를 자각하지 못하므로 미리 교사가 조절하는 것이 필수적임
 - 일과 운영시 활동과 활동 사이 전이시간을 충분히 가져 교사가 영아의 개별적인 요구나 필요를 받아줄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이 필요함
- 신체적 긴장과 피로를 이완시키는 놀이 활동 계획하기
 - 집단생활을 장시간하는 영아들을 위해 음악감상이나 스트레칭과 같이 신체적 긴장과 피로를 이완시키는 활동을 계획하여 실시
 - 돌 전후의 영영아의 경우 마사지와 같은 스킨십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 기저귀 갈기와 같은 일상적인 돌봄 시간에 교사가 일대일로 반응적인 상호작용을 충분히 하는 것도 안정감을 느끼는데 도움이 됨

다. 유의사항/ 참고사항

□ 지도 Tip

- 영아가 바라는 것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공격적인 행동이 줄 수 있음
- 짜증이 난 상태에서는 친구 입장에 대한 설명을 해도 받아들이기 힘 듬.
따라서, 상황을 이해시키기 보다는 우선 잠시 혼자 두는 것이 좋음.

- 피곤을 풀어주는 이완놀이 활동 활용하기
- 부모협조요청 및 정보제공하기
 - 부모님에게 영유아의 가정 내 수면시간 확인
 - 영아기 권장 수면시간은 돌 이전 아기가 14~15시간, 12개월~36개월 영아가 12~14시간임(국제수면학회, 2013)
 - 부모 위주의 생활패턴을 가진 가정의 경우, 영아의 수면이 부족한 경우가 많음
 - 영아기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기
 - 수면이 두뇌 및 정서 발달에 끼치는 영양, 일과에서보이는 문제를 충분히 설명하여 협조 구하기

7. 교사에게 매달리는 경우

만 1세/ 남아

엄마의 등 뒤에 숨어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온 영아는 엄마가 나가자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다 블록을 꺼내 놀이한다. 시간이 흐르고 하나, 둘 친구들이 등원하자 영아는 놀이를 멈추고 교사에게 다가가 안긴다. 일과 중에도 영아는 교사의 주변을 맴돌고 교사에게만 반응을 보인다.

가. 원인 분석

- 처음으로 겪는 집단생활에 대한 불안감으로 또래와 어울리지 못함
 - 주 양육자인 부모와 떨어져 낯설고 생소한 환경인 어린이집에 혼자 놓아지는 경험은 영유아로 하여금 견디기 힘든 불안감을 갖게 할 수 있음
 - 이 시기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분리에 대한 불안으로 또래에게 관심을 두지 못함.
- 교사를 애착대상인 엄마의 전이대상으로 느껴 교사에게 매달림
 -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상황에서 애착전이대상(교사) 역시 자신과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낄 수 있음

- 또래보다는 교사에게만 관심을 가짐
- 집단생활의 긴장에서 오는 불안감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어려움
- 또래 관계 맺기가 어려움
 - 아직 상호간에 의사표현이 서툴다보니 관계나 놀이를 지속하는 것이 어려움
 - 만2~3세경까지는 다른 아이에게 다가가려 하지 않고 혼자서 놀거나 또는, 자신이 참여하지는 않고 다른 아이들이 노는 것을 구경하는 방관자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은 일반적인 양상임¹⁵⁾

나. 지도 방법

1) 즉각적 개입

- 집단생활에서 오는 긴장이나 불안감을 적절히 표출하기 못하고 또래와 어울리는 것이 아직 어려움
- 자신의 불안감으로 친구를 불편하게 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상호작용 1단계인 감정 수용하기 까지만 적용함
- 영아의 불안감 수용하기
 - 엄마를 대신해서 안아서 토닥겨줌
 - 불안감 반영하기
 - “엄마가 가셨네. 끝나고 다시 오실거야.”
 - “친구들이 아직 낮설구나.”
 - 안기는 영아를 잠시 토닥여 주기

2) 예방적 접근

- 어린이집 생활에 대해 긍정적인 적응 돕기
 - 부모에게 영아가 겪게 되는 정서적 불안감 이해시키기

15) 황희숙 외(2008). 아동발달과 교육. 서울: 학지사

- 어린이집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지고 교사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게 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초기 적응을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함

□ 또래와 함께하는 즐거운 경험 제공하기

- 소유로 인한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또래에게 관심을 보일 수 있는 놀이 제시
 - 형태 변형이 쉬운 밀가루 반죽, 점토, 종이 등을 제공하여 함께 하되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놀이 제공
 - 다른 친구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 “00이는 빵을 만들었네. 우린 그릇을 만들었는데”

다. 유의사항/ 참고사항

□ 지도 Tip

- 등원시 엄마와 헤어질 때 인사를 나눌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데려오기
- 엄마를 대신할 물건을 가정에서 가져오는 것을 허용하기
 - 발달적으로 엄마와 헤어지는 것에 대한 분리불안을 느끼는 시기임으로 가정에서 영아가 좋아하는 인형이나 장난감 등을 가져오는 것도 도움이 됨

□ 적응 프로그램 기간 동안 일관적인 부모님의 협조 요청하기

- 일관적인 등, 하원 시간 지키기
 - 영아는 부모가 일을 하는 동안 어린이집에서 즐겁게 지내고, 일이 끝난 뒤 나를 데리러 올 것임을 이해하게 됨
- 어린이집과 교사에 대한 부모님의 신뢰 형성하기
 - 부모님이 어린이집과 교사에 대해 신뢰감을 갖기 못하고 불안해하면 부정적인 에너지가 영아에게 전달될 수 있음

□ 하원 후 가정에서 온정적인 시간 보내기

- 기분이나 건강 상태도 또래와 어울리기를 시작하는 영아에게 중요한 요인
- 가정에서의 충분한 휴식과 부모의 안정적인 지지 부탁하기

8. 자기의 관심에만 몰두된 경우

만 2세/ 남아

다른 또래들이 바깥놀이를 가기 위해 출입문 앞에 줄을 선다. 영아는 창문 앞에 서서 커튼 끝자락을 들었다 놓았다 반복하고 있다. 커튼이 움직일 때 마다 그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거나 배시시 웃는다. 교사가 다가가 '00이 뭐하고 있어?' 물어어도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 '00아, 다른 친구들이 모두 00이를 기다리고 있네' 교사가 말하자 영아는 다시 커튼을 잡고 들며 입으로 '뜨뜨뜨뜨뜨' 소리를 낸다.

가. 원인 분석

- 자기생각에 몰두되어 주변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음.
- 제한된 관심으로 단순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함.
 - 단순한 상동적인 움직임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영아들은 다른 것으로 관심을 전환하기 어려움
 - 상동 행동을 못하게 하면 저항이 심함.
- 분리불안이나 낯선 환경에 대한 불안감으로 일시적으로 제한된 행동이나 관심을 보이기도 함.
 - 정서적으로 긴장감이 고조되면 관심의 범위가 좁아지게 됨
 - 특정 행동이나 놀이의 반복을 통해 내적 불안과 긴장을 해소하려는 행동일 수 있음.
-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해 애착형성이 불안정할 가능성이 있음
 - 생후 초기 양육자와 애착이 형성되는 시기에 돌보는 사람이 빈번하게 교체되거나 민감하게 양육을 경험하지 못하면 애착장애가 나타날 수 있음
 - 영아기의 애착장애는 이후의 또래관계, 대인관계, 자기효능감, 자기정체감에 영향을 미치게 됨.
 - 양육 환경은 아이의 기질, 부모의 양육태도, 가정 형편 및 환경적 조건과 상호 영향을 주고받음.

- 생물학적, 유전적, 신경학적 원인으로 인한 자폐스펙트럼일 가능성도 있음

나. 지도 방법

- 제한된 관심이 불안정한 애착이나 기질적인 자폐스펙트럼에서 기인될 수 있으므로 유아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서 시작하기
- 친구를 괴롭히는 경우가 아님으로 상호작용 4단계를 순서적으로 적용하지 않음
- 영아의 관심 따라가기
 - 영아가 관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 함께 관심 갖기
 - “ 커튼을 놓으니 스프링 내려가는구나!”
 - 영아가 하는 행동 따라해보기
 - 영아가 내는 소리를 따라 내보기
- 관심을 적절하게 전환시켜주기
 - 영아가 내는 소리나 동작을 교사가 조금 변형하기 해보기
 - 영아가 흥미를 가지기 쉬운 방법으로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 “어? 00이가 좋아하는 노래를 친구들이 부르고 있네?”
 - 관심을 다른 곳으로 전환시키기
 - “친구들에게 한 번 가보자.”

다. 유의사항/ 참고사항

- 지도 Tip
 - 부모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 어린이집 생활 중 관찰된 에피소드를 객관적으로 전달함
 - 불안정한 애착감이나 일시적으로 불안감이 고조된 경우에는 편안한 태도로 바라봐주면서 앞서의 ‘아이의 관심 따라가기’와 같이 꾸준한 반영과 관심을 주면 아이의 긴장감을 완화시키고 관심 범위를 확대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양육환경이 원인인 경우, 부모가 가질 죄책감에 대해 격려하고 교사가 함께 적극적으로 문제를 돕는 태도보이기
- 양육환경, 보호자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 자녀의 기질을 이해하기
 - 영아의 기질에 맞는 부모의 적절한 양육태도가 매우 중요함
 - 일관적인 양육자가 보살핌을 제공함
 - 돌보는 사람이 일관적인 양육을 통해 영아는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게 됨
 - 온정적이고 반응적인 양육 환경 만들기
 - 영아의 기본적인 신체 욕구 및 감정 욕구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적절하게 반응함을 통해 영아는 사회에 대한 신뢰, 자존감 등을 형성할 수 있음
- 전문기관의 도움 받기
 - 자폐증은 3세 이전의 발견이 치료에 있어 가장 효과적이므로 조기 발견과 함께 그에 맞는 교육이 필요함
 - 성급한 진단을 내려서는 안 되며 교사는 적절한 전문기관을 소개시키거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함

9. 때리는 경우

만 5세/ 남아

유아는 피아노를 치고 있는 친구의 옆에 다가가 앉는다. 건반 위에 손을 올리며 친구에게 “야 나 좀 치자~옆으로 좀 비켜봐”한다. 친구가 “왜! 내가 먼저 왔잖아.”하고 대답하자 유아는 “너 아까부터 많이 쳤잖아”한다. 그래도 친구가 피아노 치기를 지속하자 유아는 친구를 세게 치고 의자 밖으로 밀어낸다.

가. 원인 분석

- 대물다툼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의 부족

- 자신이 알고 있는 사회적 기술을 다 사용하고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신체적인 공격성에 보이게 됨
- 갈등 상황에서 대안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아동은 공격성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음
- 공격적 행동에 대한 잘못된 경험·기대
 - 공격적 행동은 즉각적인 물질적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강화됨
 - 친구를 때려서 원하는 것을 얻었던 경험은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갖게 할 수 있음
 - 유아의 공격행동에 대한 부모의 반응이 공격행동을 강화함
 - － 평소에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던 부모가 때를 쓰면 들어주거나 공격행동을 제재할 때 부정적인 관심이라도 받기위해서 공격행동을 반복함
- 부모의 양육태도
 - 부모의 지나친 통제와 폭력적인 행동
 - － 통제가 지나치면 유아의 욕구불만이 높아져 공격적으로 행동하고, 이를 제재하는 과정에서 체벌 등을 사용할 때 오히려 모델링이 되어서 더 공격적으로 됨
 - 유아의 공격행동에 대한 부모의 허용적 태도
 - － 유아의 공격행동을 웃어넘기거나 어리광으로 받아주거나 묵인하면 유아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분별할 수 있는 기회를 잃고 행동을 지속
 - 부모의 과잉보호
 - － 과잉보호를 받은 유아는 또래관계에서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게 되면 공격적인 행동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려고 할 수 있음
 - 부모의 방임
 - －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해 정서가 불안정해지고 부모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공격 행동을 하기도 함

나. 지도 방법

1) 즉각적 개입

□ **상호작용 1단계:** 감정 인정하기

- 맞고 밀쳐진 유아를 일단 안아주고 마음 읽어주기
 - “이런~ 피아노 치는 것 때문에 친구가 밀쳐서 아프겠네.”
- 갈등상황에 대해 말하도록 도움
 - 일반적으로 유아들은 상황을 자기관점에서 바라보며 자기는 잘못이 없고 상대방이 나쁘다고 생각함
 -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밀친 유아에게 말하도록 요청하기
 - “○○아 무슨 일이 일어난 거니?”
- 꾸짖지 않고 유아의 말을 수용하기
 - 비난하거나 창피를 주지 않고 유아들이 말한 것을 수용하기
 - 누가 옳고 그른지 보다 유아들이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표현해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시킬 수 있는 기회 제공하기
 - “그래. 피아노를 치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친구가 비켜주지 않아 답답했나보네.”

□ **상호작용 2단계:** 친구 입장 이해하기

- 상대방에 대한 감정 이입을 조성하기
 - 다른 친구의 감정이 어떠할지 말하도록 요청하기
 - “그런데 친구 기분이 어떻게 한 번 말해보렴.”

□ **상호작용 3단계:** 공격적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지도하기

- 때리거나 던지기 등의 공격적 행동에 대해서는 행동을 발견한 직후 단호하게 대응하기
 - “아무리 화가 나도 말로 해야 돼”

□ **상호작용 4단계:** 친구와 화해 방법을 모색하도록 돕기

- 서로 더 나은 감정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도움주기
 - “○○이도 화가 났고 **이도 기분이 나쁜데, 어떻게 하면 서로 기분이 좋아질까?”

2) 예방적 접근

- 갈등상황카드를 활용하여 공격적 행동 대안 가르치기
 - 계획된 활동을 통해 유아가 공격성에 대해 사회적으로 적절한 대안을 찾고, 말하고, 제시하는 능력을 향상시킴
 - 손인형, 이야기책, 화이트보드, 개방형으로 끝나는 짧은 이야기를 통해 유아에게 자기주장과 협상에 관련된 기술을 가르침
 - "(개방형으로 끝나는 이야기를 들은 후)너라면 어떻게 해보겠니?"
- 대물다툼 상황을 예방하기: '차례 정하기' 규칙
 - 수량을 늘릴 수 없고 많은 유아들이 선호하는 놀이, 예를 들면 피아노나 컴퓨터 영역에서는 차례를 정해서 사용하는 규칙을 정해서 유아에게 순서를 지키며 즐겁게 활동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기회로 활용
 - 차례 지키기는 통해 유아는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고 대물다툼으로 인한 갈등상황을 줄일 수 있으며 교사의 신뢰를 느끼게 할 수 있음
 - 차례 정하기를 통해 사회적 기술 및 문제해결력을 배울 수 있으며 차례정하는 과정을 놀이보다 더 즐길 수도 있음
 - 차례 정하기 방법
 - 모자에서 이름표 꺼내기(모든 유아의 참여를 가능하게 함)
 - 번호표(원하는 친구만 참여하게 함)
 - 시간을 제한하는 자명종 시계나 모래시계 비치

다. 유의사항/ 참고사항

- 지도 Tip
 - 또래 간의 갈등상황에서 교사가 친구를 때렸다는 결과에만 집중하여 일방적인 피해자-가해자를 판결해주는 방식으로 개입해서는 안 됨
 - 갈등상황을 교육적 경험의 기회로 활용하여 갈등해결 능력을 길러줌
 - 갈등상황에서 유아들에게 타인을 존중하며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해결책을 찾게 하는 것은 친사회적 행동을 지도하는 가장 좋은 기회임

10. 같이 안 논다고 말하는 경우

만 4세/ 여아

유아가 친구와 엄마, 아빠 놀이를 하기 위해 역할을 정하고 있다. 유아는 큰 목소리로 "음, 나는 엄마고, 아기는 누구 할래?"한다. 함께 놀이하던 친구가 아무 대답 없자 유아는 "그럼 00이가 아기해! 할 사람이 없네~" 하고 말한다. 친구가 "나 아기하기 싫은데"하자 유아는 "그럼 난 너랑 안 놀래"하고 이야기 한다.

가. 원인 분석

-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려는 힘의 욕구가 강함
- 소꿉놀이에서 엄마 역할은 아이를 조절하는 힘있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함.
- 역할 자체보다 친구가 시켰기 때문에 안하고 싶을 수 있음.
- 유아가 놀이를 주도하고 원하는 역할을 얻기 위해 공격적 언어 사용함
 - 권리에 대한 도구적 공격성
 - 언어적인 공격은 유아의 목적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얻고 어떤 것을 지키기 위해 애쓰면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의 부산물임
- 자기 주장과 고집이 세서 타협과 조율을 하기 어려움
 - 만2세경 혼자 밥을 먹고 옷을 입으려 하는 등 점차 강해지는 자율성을 유아기를 거치며 점차 관계 속에서의 자기주장, 주도성으로 영역을 넓혀가게 됨
 - 자기주장은 강하고 타협과 조율 등의 사회적 기술은 미숙한 경우 또래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
 - 자율성이 친사회적인 주도성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또래간 갈등 상황을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사회적 기술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아야 함
- 부모나 교사가 비난, 협박, 억박지름 등 잘못된 언어경험 제공
 - 유아에게 의미있는 성인이 상호작용하는 방식 모델링

- 성인이 유아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명령하거나, 유아의 생각이 나 무시하는 경험
- 부모가 자녀를 통제하기 위해 애정철회를 자주 사용한 경험
- 성인의 부정적인 상호방식이 유아에게 주었던 강력한 영향, 통제의 경험을 학습하여 또래에게 사용하게 됨

나. 지도 방법

1) 즉각적 개입

- **상호작용 1단계:** 감정과 생각을 읽어주기
 - 갈등상황에 대해 말하도록 도움
 - 꾸짖지 않고 유아의 말을 수용하기
 - "00이는 친구가 아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구나!"
 - "우리가 엄마 하고 싶고, 그래서 예민이가 아기 했으면 하는구나."
 - "예민이는 우리가 하라는 아기 역할을 하기 싫구나. "
 - "아기 역할이 싫은 건지 우리가 시켜서 싫은 건지 모르겠네."
 - "엄마, 아빠 놀이를 못하게 돼서 우리가 속상하구나."
- **상호작용 2단계:** 상황 설명하기
 - 상대방에 대한 감정 이입을 조성하기
 - "엄마, 아빠 놀이를 하려는데 서로 하려는 역할이 맞지를 않아서 놀이를 못하네. 그래서 우리가 속상해서 예민이랑 놀지 않겠다고 하는 거니?"
 - "00이도 하고 싶은 역할이 있지 않을까?"
 - "같이 안 놀겠다고 하면 친구 마음이 상해."
- **상호작용 3단계:** 제한 행동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기
 - 허용되는 행동과 허용되지 않는 행동을 설명하기
 - "역할은 서로 의논해서 정하는 거지."

- “친구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은 하지 않는 거지.”
- “마음 상하게 하는 말은 친구를 말로 때리는 것과 같아.”
- 제한된 행동을 했을 때 귀납적 훈육 적용하기
 - 예를 들어 때린 친구가 사과하고, 맞은 친구의 소원 한가지 들어주기로 약속이 정해져 있다면 실행하기
 - “친구를 때렸을 때 하기로 약속한 행동을 해야겠네. 먼저 사과하기!”
 - “때린 친구의 소원 한가지 들어주기!”

□ **상호작용 4단계:** 적절한 대안 모색하기

- 서로 조율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돕기
 - “00이가 하고 싶은 것을 대답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 기다려주자”
 - “어떻게 하면 서로 재미있게 엄마·아빠 놀이를 할 수 있을까?”
 - “친구와 생각이 다를 때 어떻게 서로의 생각을 맞출 수 있다고 하였더라?”
 - “역할을 서로 바꿔서 하는 건 좋은 생각이구나.”
 - “친구와 서로 생각이 다를 땐 서로 조금씩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양보해야 해 ”
 - “하고 싶은 역할을 돌아가면서 해야 서로 속상하지 않지.”
 - “누가 먼저 할까?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
 - “두사람이 모두 좋아하는 방법으로 순서를 정해서 놀아보자.”
- 예상되는 결과를 알려주기
 - “화내고 같이 안놀다 보면 혼자서 노는 아이가 되는 거야.”
 - “서로 양보해서 같이 놀다보면 서로 친한 친구가 되는 거지.”

2) 예방적 접근

□ 부모나 교사가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요구를 듣는 모델링 보이기

- 유아와 놀이할 때나 생활 속에서 자신의 요구를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요구는 어떤지 물어보기
 - “선생님은 책을 읽고 싶은데, 00이는 무엇을 하고 싶니?”

- 상대방의 의사를 물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 요구는 다를 수 있음을 알게 하기
- 갈등을 줄이는 의사소통 기술 훈련하기: 제안하기
 - 타협이나 협상을 위해 어떻게 말하여야 되고 행동하여야 하는지 가르치기
 - 좋은 말로 부탁해보기
 - 타협점(조건부 거래)를 찾아 제안해보기
 - 일단 같이 놀아보기
- (또래에게 끌려 다니는 유아에게) 자기주장을 격려하기
 - 비합리적인 요구에 저항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아기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역할을 말해줄 수 있어."
 - "내가 아기 하기 싫다고 해서 너는 나랑 놀지 않을 거니?"
 -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보기
 - "그럼 이번엔 내가 아기 할 테니까 다음엔 네가 아기해."

다. 유의사항/ 참고사항

- 지도 Tip
 - 역할 정하는 다양한 방법 소개하기.
 - 순서 정해서 하는 활동 활용하기
- 부모에게 발달적 특성 정보제공 및 협조요청
 - 도구적 공격성은 전조나 의도가 없었다는 점에서 '공격 행동'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유아의 의도를 이해,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지도해야 함
 - 가정에서 역시 유아의 공격행동이 아닌 적절하게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
- 연령이 증가할수록 언어를 사용한 적대적, 관계적 공격행동이 증가
 - 언어적, 인지적 능력이 발달하며 언어를 사용한 공격행동 증가
 - 공격적 언어를 통해 원하는 것을 얻었던(도구적 공격) 경험은 이후 적대적, 관

계적 공격행동을 시도하고 강화시킬 수 있음

- 적대적인 공격성은 또래 간의 경쟁이 증가하면서 강화됨
 - 공격적인 전략으로 언어적 조롱, 놀리기, 별명 부르기 등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므로 부모와 교사는 이에 대해 눈여겨보아야 함

11. 신경질적으로 말하는 경우

만 3세/ 여아

유아가 인어공주 퍼즐을 맞추고 있다. 또래가 유아에게 다가가 "OO아! 퍼즐 몇 번하고 빌려줄 거야?" 하고 묻지만 유아는 대답이 없다. 다시 한 번 또래가 "OO아 이거 몇 번하고 빌려줄 거야? 나도 할래"하고 이야기 하자 유아는 또래를 노려보며 신경질적인 말투로 "아 몰라, 나 지금 하고 있잖아!"한다.

가. 원인 분석

- 친구가 빌려달라는 말에 주고 싶지 않은 것을 신경질적으로 표현함
- "나도 할래"라는 친구의 말이 친구에게 주어야하는 강한 압박으로 느껴져 저항이 강해짐.
- 미숙한 정서 조절능력으로 타인의 정서 표현에 대해 적절히 반응하기 어려움
 - 유아는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거나 다른 사람의 정서 표현을 읽고 그에 따라 잘 반응할 수 있을 때 더 많은 사회적 가능성을 열어 놓을 수 있음
 - 사회관계는 유아가 자기 정서를 나타내고 조절하는 능력과 관련 있으며, 이는 자아와 타인에 대한 사회적 이해 발달과 관계됨
- 신체 및 정서적 스트레스로 인한 짜증
 - 유아는 스트레스는 주는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회피나 충동적 행동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를 통해 심리적인 불균형을 줄이지 못하면 짜증의 증가, 적대적인 태도 증가, 주위 산만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함

나. 지도 방법

1) 즉각적 개입

□ 상호작용 1단계: 감정 인정하기

- 유아의 감정을 공감하고 유아는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기

- "00이가 퍼즐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친구가 계속 물어봐서 짜증이 났구나."

- "친구에게 빌려주지 않고 퍼즐 놀이를 계속 하고 싶구나."

□ 상호작용 2단계: 상황 이해하기

-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반응하기

- "00이가 하는 퍼즐이 너무 재미있어보여서 친구도 하고 싶었나봐."

- "화난 말투로 이야기해서 친구가 놀랐을 것 같아."

□ 상호작용 3단계: 행동의 기준을 분명히 알려주기

- 짜증이 난 경우에도 친구에게 신경질적으로 말하지 않는 나-전달법을 알려주기

2) 예방적 접근

□ 효과적인 스트레스 대처 기술 지도하기

- 유아의 스트레스를 민감하게 감시하고 유아의 대처 기술 관찰하기

- 위축되거나 부정적 정서는 대놓고 표현하는 유아에게 주의를 기울이며 이러한 태도를 무시하기보다 좀 더 건설적인 대처 방식을 갖도록 지도해야함

- 비언어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기

- 유아의 얼굴 표정, 목소리 톤, 다른 언어적 속성을 통해 전달되는 정서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함

- 교사는 유아에게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는 몸짓을 하고, 교사 자신의 정서와 행동 역시 조절하는 것이 필요함

□ 일과에 휴식 시간을 포함하기

- 스트레칭, 긴장 풀기, 근육 이완, 호흡을 이완하기 위한 운동과 같이 일정한 시간마다 모든 또래가 함께 참여하는 휴식 시간을 계획함

-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 익히기
 - 유아에게 적절하게 정서 조절할 수 있도록 돕기
- 부모와 협력하기
 - 유아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해 스트레스 정보 공유하기
 - 부모의 스트레스를 인정하고 격려하기

다. 유의사항/ 참고사항

- 교사는 아동의 행동에 대하여 지레짐작하지 않아야 함
 - 가정의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이 아동의 공격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다른 요인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12. 떼쓰는 경우

두 친구가 다툰 후 교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기를 시도하고 있다. 교사는 “무슨 일 때문에 서로 다투었는지 이야기 해줄래?” 라고 이야기한다. ○○는 “△△가 내가 가지고 있던 거 그냥 가져가서 그런 거 예요.”라고 이야기한다. ○○는 크기 소리를 지르며 “아니야! 그건 원래 내가 하던 거였어!” 라고 하며 울음을 터뜨린다. 교사는 ○○이에게 질문을 하려 하지만 ○○는 발을 동동 구르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라고 소리를 지르고, 교사를 노려본다.

가. 원인 분석

- 싸움이 일어난 상황을 자기 식으로 설명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음
- 울고 소리치는 것으로 자기가 맞다고 떼를 씀
- 흥분된 감정으로 인한 적절한 언어적, 비언어적인 표현이 어려움
- 사실대로 이야기했을 경우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

- 자신의 미안함에 대해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 거부감이 있는 유아의 경우 그 상황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음

나. 지도 방법

1) 즉각적 개입

- 상호작용 1단계: 유아의 정서적 상태를 읽어주기
 - 유아를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수용하기
 - 유아의 흥분 상태를 진정시킬 수 있도록 언어적으로 표현하기
 - 유아의 과격한 신체 표현으로 인한 결과를 유아 스스로 알 수 있도록 기다리기
 - 유아의 상태를 읽어주기
 - “○○이가 많이 속상했나보구나.”
- 상호작용 2-4단계: 상황을 이해하기와 대안 행동 제시하기
 - 때쓰는 행동의 부정적 결과 알려주기
 - “그런데 이렇게 울면서 소리지르며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이랑 친구가 ○○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 조금 진정하면서 천천히 이야기해보자.”
 - “울고 소리 지르니까 우리 모두 놀라고 속상하다”
 - 유아가 친구에게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기
 - “○○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 되.”
 - “선생님이 기다릴게. ○○이 마음이 진정되면 이야기 해줄래?”
 - “○○이가 △△이와 놀이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어?”
 - 대안 행동 탐색하고 제시해주기
 - “앞으로는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
 - “○○가 왜 속상했는지, 얼마나 속상했는지 말로 해주면 좋겠다, 말로 해보면 방법을 찾기가 더 쉽겠다.”

2) 예방적 접근

- 일상 생활에서 유아가 자신의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고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기
 - 유아의 감정이 올라왔을 때 유아가 소리를 지르거나 우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돕기
 - 다양한 이유로 유아의 감정이 폭발할 수 있으나 의사소통이나 또래 관계에서 이러한 감정 폭발 및 흥분은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많으므로 유아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편안한 마음을 갖고 표현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함
 - 또래 간의 의사소통에 있어 진정이 되지 않는다면 유아와 교사만 함께 감정을 추스릴 수 있도록 도와야함
 - 유아를 충분히 공감해주고 수용적이고 반응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함
 - 감정이 조금 누그러진 다음 유아에게 또래와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교사가 적절하게 개입하기
 - 유아가 이야기하는 것을 쫓느러워하거나 거부한다면 교사가 함께 이야기 나누어 상황을 마무리 지을 것
 - 유아 스스로 모든 상황과 이야기를 하기 힘들 수 있으므로 교사가 개입하여 질문과 지지하기 기술을 사용
- 감정 조절이 어려운 유아들 중 자아존중감이 낮은 유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유아의 높은 자존감 형성 돕기
 - 긍정적으로 지지하기
 - 유아 스스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언어적으로 지지하기

다. 유의사항/ 참고사항

- 교사가 유아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확보하기
 - 유아의 감정이 쉽게 누그러들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공감하고 지지하며 유아의 감정 조절에 도움을 주며 해결하기

- 교사도 마음을 여유 있게 갖고 접근하기

가정과의 연계를 통해 감정 조절 연습하기

- 부모님과 의 면담을 통해 유아의 감정 표현하기 방법을 공유하고 이러한 감정 폭발이 미치는 또래 관계 형성에 대한 영향과 정보 알리기

13. 지기 싫어하는 경우

만 5세/ 남아

유아가 친구와 누가 블록을 높게 쌓는지 내기한다. 친구 것이 점점 더 높아지자 유아는 당황스러워 한다. 유아는 조금 더 속도를 내어 블록을 쌓다가 “아 망했어”라고 소리치며 블록 쌓던 것을 부수어 버린다. 유아는 주먹을 쥐고 “이씨~ 이씨”하다 울어버린다.

가. 원인 분석

이겨야 한다는 부담감에 좌절이 더해져서 공격적으로 행동함.

지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함

- 지는 사람이 약자라고 생각함
-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기는 것을 좋아함. 하지만 지는 것을 건강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배우는 것 역시 유아기 발달 과업 중 하나임
- 4~5세가 되면 유아는 경쟁동기가 강하게 나타나며 패배를 경험하게 됨
- 놀이 중 패배나 실패를 거듭하거나 일을 해결하지 못할 때 스스로 대처하지 못하고 강한 좌절감 혹은 분노를 낄 수 있음

강한 좌절감과 분노를 공격성으로 표현함

-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인식·표현하고, 타인에게 끼칠 영향을 생각하며 감정을 조절하기 어려움

- 유아는 순간적으로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을 강하게 표출함으로써 받아왔던 관심을 통해 이러한 표현방법이 강화될 수 있음
- 스트레스 상황을 받아들이고 대처하는 자아탄력성이 낮음
 - 부모양육태도
 - 부모가 엄격하고 권위적인 양육태도나 반대로 과잉보호적 양육태도를 가진 경우 갈등과 경쟁 상황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사회기술 모델링이 어려움
 - 가족 환경
 - 동생에 대한 지나친 경쟁심과 질투심을 겪고 있는 경우 또래 간 경쟁 상황에서도 지는 것을 견디지 못할 수 있음
- 순간 속상해서 친구 것을 망가뜨렸지만 친구가 울자 걱정과 놀람으로 가만히 앉아 있음.

나. 지도 방법

1) 즉각적 개입

- 상호작용 1단계: 아동 감정을 수용하고 이해하기
 - 흥분한 상태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주기
 - 울고 있는 대상 유아를 안아서 달래주기
 - 또래와의 경쟁에서 좌절한 유아의 마음을 공감하고 격려하기
 - “친구보다 먼저 더 높게 쌓고 싶었는데 잘 안되어서 속상하구나.”
 - “선생님이 00이었어도 속상했을 거야. 빨리 더 높게 쌓으려다 무너져 버려서”
 - “속상한 마음에 친구 것도 부셔뜨렸는데, 친구가 우니까 미안하겠구나.”
- 상호작용 2단계: 서로의 입장을 분명히 이해하기
 - 친구의 감정 읽어주기
 - “친구가 속상해서 우네.”
 - “만약 친구가 00이가 열심히 쌓고 있는 블록을 망가뜨리면 어떻게 같으니?”

- 상호작용 3단계: 용납되지 않은 행동 일러주기
 - 행동의 기준을 분명히 설명해주기
 - “아무리 속상해도 친구가 쌓은 것을 부수뜨리면 안돼. 그러면 더 크게 지는 거야.”
- 상호작용 4단계: 적절한 대안 행동 지도하기
 - 실패를 받아들이는 태도 바꾸어주기
 - “내가 더 잘할 때도 있고 친구가 잘할 때도 있는거야.”

2) 예방적 접근

- 놀이경험에서 경쟁성 지도
 -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승리를 조절
 - 지는 것도 괜찮다는 것을 말로 표현
 - 유아의 경쟁을 인위적으로 유도하지 않기
 - 특별한 기술이나 사고 능력이 요구되는 게임이 아닌 운에 의해 승부가 나는 게임 방법을 정해 지나친 경쟁성 줄이기
 - 유아들이 지나친 흥분이나 경쟁성을 보이면 흥분을 가라 앉히도록 돕기
 - 유아가 시도 했던 과정에 대해 칭찬하기
 - “선생님이 봤을 때 00이는 블록을 하나씩 아주 튼튼하게 쌓아주던걸? ”
 - “끝까지 쌓아보려는 모습이 너무 멋졌어!”
- 유아가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 주기
 - 그림책 등을 통해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경험 제공
 - “주인공 기분이 어떤 것 같니?”
 - “왜 화가 났니?”
 -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 언어표현이 보다 능숙한 유아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활동을 제공
 - “지금 너의 기분이 어떤지 이야기해줄 수 있니?”
 - “이야기하기 어렵다면 그림을 그려도 좋아.”

- 감정의 표현을 통해 타인이 느끼게 될 감정에 대해 생각해보기
 -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친구는 왜 00이가 속상한지 알 수 있을까?”
-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고 표출할 수 있는 놀이를 제공하기
 - 역할놀이, 창의적 미술활동, 신체활동 등을 통해 유아는 다양한 감정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됨
 - 베토벤의 ‘운명’ 슈베르트의 ‘마왕’ 감상하며 느껴지는 기분을 신체로 표현하기

다. 유의사항/ 참고사항

□ 지도 Tip

- 게임을 통해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음을 경험시킴.
-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활동 활용하기

□ 부모의 양육태도 및 양육환경 점검하기

- 민주적이고 권위있는 양육태도인가
 - 실패했을 때도 부모에게 과정을 인정받고 수용받는 경험
- 형제관계에 갈등을 조장하거나 경쟁을 유도하는 양육방법을 사용하는가
 - “동생보다도 못하네.”

□ 부모님께 양육기술 알려드리기

- 유아가 노력한 것 또는 과정에 대해 격려하는 방법 안내
 - 유아가 한 활동의 결과에 대해 과도하게 칭찬하거나 격려하는 것이 오히려 유아가 쉽게 좌절하게 할 수 있음
 - “열심히 하고 있네.”
- 승패를 받아들이는 사회적 기술 모델링 기회 주기
 - 부모가 늘 일부러 유아에게 져 주거나 무승부 상황만을 연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또래관계에서 경험할 경쟁과 승패를 받아들이는 방식이나 기술을 부모를 통해 모델링하고 부모의 지지를 받으며 학습하는 것이 필요함

14. 친구를 귀찮게 하는 경우

만 5세/ 남아

대집단으로 모여 앉아있는 유아들에게 교사가 책을 읽어주고 있다. 유아는 앞에 앉아 있는 친구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킁킁' 작은 소리로 웃는다. 친구가 유아의 손을 밀쳐내며 "OO야! 하지마 불편해"하고 이야기한다. 유아는 계속 장난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또래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기를 반복한다.

가. 원인 분석

- 타인을 방해하는 신체적 행동을 통해 즐거움을 얻음
 - 공격자의 분노, 좌절, 적대적 감정이 없는 표현적 공격 행동임
 - 의도하지 않은 불행을 주는 것에서 즐거운 감각적 경험을 느낄 수 있음
- 사회적 기술 부족
 - 또래관계 형성을 위한 적절한 사회적 기술 부족으로 인해 관심을 끌기 위한 방법으로 신체적인 괴롭힘을 사용
 - 친구에게 접촉하기 위한 방법으로 참견하기, 위협하기, 무시하기, 비판하기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러한 방법은 종종 거부당할 수 있음. 이러한 실패가 습관이 되면 유아는 더욱 위축되거나 적대적으로 행동하게 되기도 함.

나. 지도 방법

1) 즉각적 개입

- 상호작용 1단계: 아동 감정을 수용하고 이해하기
 - 관심을 끌기 위한 욕구 때문이라면 이러한 마음 알아보기
 - "OO이가 △△랑 장난이 치고 싶었구나"
 - "OO이가 심심한 거야? 선생님 동화책이 재미가 없어?"

- **상호작용 2~3단계:** 행동의 기준 및 서로의 입장을 분명히 이해하기
 - 친구의 감정 읽어주기
 - “○○이는 장난치려고 한 건데, △△는 귀찮고 짜증이 난대”
 - “○○이 심심해서 한 거지만 △△도 귀찮고, 친구들도 모두 선생님이 책 읽는 걸 들을 수가 없네”
 - 친구의 행동 의도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기
- **상호작용 4단계:** 적절한 대안 행동 지도하기
 -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제안하기
 -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신체적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활동 제공하기
 - 샌드백 치기, 블록 넘어뜨리기, 트램폴린 등 신체적인 감각적 자극을 느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함
 - 다른 차원(정서, 사회 등)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의도적으로 제공함

2) 예방적 접근

- 친구에게 접촉하는 친사회적인 전략 가르치기
 - 또래에게 접촉하기
 - 예의바른 친사회적 행동이 좋은 결과를 낳으므로 인사하기, 관련 질문하기, 정보 제공하기, 놀이에 초대하기 등의 방법을 교사와 함께 경험함
 - 긍정적인 관계 유지하기
 - 관심 표현하기: 미소 짓기, 고개 끄덕이기, 눈 마주치기 등
 - 협력하기: 차례 지키기, 나눠 쓰기, 함께 작업하기 등
 - 수용 표현하기: 다른 아동의 생각에 귀 기울이기 등
 - 칭찬하기: "잘 했어.", "좋은 생각이야.", "예쁘다." 등

다. 유의사항/ 참고사항

- 가족과 의사소통하기

- 가족은 유아의 친구 관계를 이해하고 지지해줄 수 있음
 - 교사는 유아의 친구 관계의 정상적인 과정에 관해 설명함. 친구 관계의 발달 단계 중 현재 유아가 경험하고 있는 단계의 속성을 이해하면 부모는 유아의 행동을 발달적 맥락 내에서 볼 수 있음.
- 너무 빨리 참견하기 않기
 - 유아가 스스로 친구 관계 기술을 연습할 기회가 많을수록, 아동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더 빨리 배우게 됨
 - 유아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과 해결책을 스스로 해보는 기회를 제공.

15. 힘 조절을 못하는 경우

유아는 친구들과 술래잡기 놀이를 하고 있다. 술래가 된 유아가 흥분하여 뛰며 친구들을 잡으러 가고 가장 가까이 있던 유아의 등을 세게 치며 “잡았다!” 라고 이야기한다. 친구는 “아악!”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앉아 울기 시작한다. 술래인 유아는 민망한 표정을 지으며 “미안해.” 라고 하고 친구는 “아프잖아!” 라고 이야기하며 크게 운다. 술래인 유아가 민망한 표정으로 “세게 쳐서 미안해.” 라고 이야기한다. 유아는 스스로 힘 조절을 하기 어렵고 과장된 행동으로 친구들과의 놀이에서 당황스러운 상황이 잦다.

가. 원인 분석

- 힘이 센 신체적인 특성으로 인해 우발적인 친구를 아프게 함
 -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과 테스토스테론이 높으면 신체적인 공격성과 공격적인 충동이 높을 수 있음(Archer, 1994; Trembly et al., 1997)
 - 월령에 비해 발달된 신체 조건들로 인해 유아 스스로 힘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함

- 놀이에 빠져 흥분되면 힘 조절이 더욱 어려워짐.

나. 지도 방법

1) 즉각적 개입

- 상호작용 1~2단계: 유아의 신체적, 정서적 상태 및 친구의 입장을 읽어주기
 - 유아를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수용하기
 - 유아의 흥분 상태를 진정시킬 수 있도록 언어적으로 표현하기
 - 유아의 과격한 신체 표현으로 인한 결과를 유아 스스로 알 수 있도록 기다리기
 - 유아의 상태를 읽어주기
 - “ ○○이가 재미있게 놀이를 하다가 친구를 조금 세게 쳤나보구나.”
 - “ 친구가 어떻게 느꼈을까?”
- 상호작용 3~4단계: 행동의 기준 및 적절한 대안 행동 생각하기
 - 유아가 친구에게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함
 - “ ○○이가 △△이와 놀이하다가 이렇게 세게 치면 친구는 어떨까?”
 - “ 앞으로는 어떻게 놀이하면 좋을까?”
 - “ 우리 조금 천천히 놀이하자.”

2) 예방적 접근

- 일과 중 유아가 신체적 균형성을 이룰 수 있도록 활동 계획하기
 - 신체적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활동 실행하기
 - 집단생활을 장시간하는 유아들을 위해 신체 에너지를 적절하게 분해할 수 있도록 하루 일과를 계획하고 실행함
 - 유아의 적절한 에너지 발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격성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에너지 발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외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함

- 일과의 균형성 확인하기
 - 유아의 신체적·정서적 상태를 고려하여 정적·동적인 활동을 균형있게 배치
 - 유아 스스로 에너지를 분산하는 것을 힘들어 할 수 있으므로 교사가 적절하게 시간을 조절
- 휴식 시간 확보하기
 - 에너지의 양이 많다고 해서 휴식시간을 간과하지 않음
 - 충분한 에너지 발산 시간 후 휴식시간을 가져 신체적 긴장과 이완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움
- 신체 놀이 시 유아 스스로 자신의 힘을 조절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의사소통하기
 - 놀이 준비 함께 하기
 - 놀이 시작 전 놀이 규칙과 약속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눔
 - 유아 스스로 자신의 신체 조절을 시도할 수 있도록 도움
 - 만약 친구가 불편함을 호소할 경우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을 함께 공유하기
 - “ 친구가 아프거나 불편하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 “ 우리 서로 많이 흥분하지 말고 즐겁게 놀이하자.”
 - 적절한 신체 조절이 이루어졌을 때 긍정적으로 지지하기
 - 유아 스스로 힘을 조절했을 때 강화함
- 유아가 자신의 감정을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기
 - 흥분된 감정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기
 - 즐거운 감정을 언어적으로 표현하고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함

다. 유의사항/ 참고사항

- 부모협조요청 및 정보제공하기
 - 부모님에게 유아의 에너지 정도에 대해 알리고 가정에서의 협조 구하기
 - 유아의 에너지 양과 신체 조절에 대해 알리고 적절히 발산할 수 있도록 함께 계획함

- 주말에도 적절한 신체 활동을 권장하여 충분히 에너지를 발산하고 휴식할 수 있도록 도움
- 유아기 신체 조절이 또래 관계와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알리기
 - 부적절한 신체 조절로 인해 친구들과의 관계 형성의 어려움을 알리고 적절한 대처 방법을 전달함
 - 감정 표현의 다양한 방법을 공유하여 유아의 표현 능력의 발달을 도움

16.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

언어 영역에서 주말 지낸 이야기를 쓰고 있는 유아가 극화 놀이를 하고 있는 친구들을 바라본다. 역할을 정하고 있던 친구들이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교사가 “○○아, ○○이가 저 역할 하는거 어때?” 라고 묻는다. ○○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니예요.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교사는 “ 선생님도 같이 하려고 하는데 같이 하자.” 라고 한 번 더 제안한다. ○○이는 “안할래요.” 라고 이야기하며 음률 영역으로 가 혼자 피아노를 친다.

가. 원인 분석

- 자신감이 부족하여 혼자 노는 것이 더 편함.
- 낮은 자아존중감 및 위축된 자아로 인한 의사 표현의 어려움
 - 자아존중감이 낮을 시 유아는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확신이 없어 표현에 두려움을 느낌
 - 유아가 자신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교사의 개별적인 접근이 필요함
- 또래와 함께 하는 놀이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 부족
 - 예전에 함께 하는 놀이에서 좌절감을 경험했거나 성공 경험의 부재로 인해 유아가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음

- 여러명의 또래가 놀이를 하고 있는 중간에 개입하는 사회적 기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사의 도움이 필요함

나. 지도 방법

1) 즉각적 개입

- 상호작용 1~2단계: 유아의 분명한 의사 알아차린 후 읽어주기
 - 유아를 관찰하기
 - 유아와 의사소통하기
 - “ ○○아, 무엇을 하고 있니?”
 - “ ○○아, 같이 하자”
- 상호작용 3~4단계: 유아가 원하는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주기
 - 놀이에 초대하기
 - “ ○○아, 이 것 좀 도와줘.”
 - “ ○○이도 해볼래?”
 - 놀이 개입 도와주기
 - “애들아, 선생님이랑 ○○이랑 같이 하자”
 - “○○아, ○○이가 이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아.”

2) 예방적 접근

- 유아가 놀이나 일상생활에서 성공하였을 때 긍정적으로 지지하기
 -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표현하기
 - “ ○○이의 생각은 어때?”
 - “ ○○이가 이야기한 것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아”
 - “ ○○이가 혼자 만든 작품이구나.”
 - 얼굴 표정이나 손짓, 몸짓 등을 이용한 자존감 높이기

- 모델링 보이기
 -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 보이기

다. 유의사항/ 참고사항

- 유아 스스로 자신감을 갖고 의사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주기
 - 표현 자체를 힘들어 하는 유아의 경우 교사가 개별적으로 의사소통하며 친밀해진 후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돕기
 - 편안한 관계 속에서 유아들이 표현할 수 있음
 - 다그치거나 지나친 관심은 유아의 부담감을 가중시킴
 - 유아가 표현한 후 긍정적으로 지지해주어 성공을 경험할 수 있게 돕기
 - 또래들과 친밀해질 수 있는 활동들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 가정과의 연계를 통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기
 - 부모님께 유아의 의사 표현이 맞고 틀리는 것이 아님을 알리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지지하기를 전달하기
 - 유아 자신이 사랑받고 자신의 이야기에 귀기울인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온정적이고 일관적인 양육이 필요함을 공유함

17. 선호하는 또래가 제한된 경우

만 3세/ 여아

신체 활동을 하기 위해 두명 씩 짝을 지어본다. ○○이는 △△이에게 “나랑 하자.” 라고 이야기하며 손을 잡는다. 자유 놀이 시간에 ○○이는 언어 영역에서 책을 보고 있는 △△에게 다가가 “나랑 같이 보자.” 라고 이야기하며 함께 책을 본다. △△이가 수과학 영역으로 가 게임을 하자 “나도 게임할래. 같이 하자.” 라고 이야기한다.

가. 원인 분석

- 애착 형성에 어려움을 느껴 한번 애착이 맺어진 친구와의 관계에 집착
- 기질적으로 내성적이고 사람과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느껴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에 두려움을 갖게 됨
- 낮은 자존감으로 인한 유능한 유아와 함께 놀이하고 친밀하게 지냄으로써 대리 만족을 느낌
- 불안한 정서를 한 또래와의 지속적인 관계에서 안정을 찾음

나. 지도 방법

1) 즉각적 개입

- 유아가 자연스럽게 다양한 또래와 놀이하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기
- 상호작용 1단계: 유아의 놀이를 읽어주고 공감하기
 - 유아가 편안하게 놀이하는 것을 지지
 - “○○이는 △△이랑 놀이하는게 재미있겠다~”
 - “△△이가 이 역할을 맡아서 ○○이가 더 재미있나봐.”
- 상호작용 2단계: 교사가 유아의 놀이에 참여하기
 - 유아의 다양한 놀이 친구 관계 형성을 위해 교사가 먼저 적절하게 참여하기
 - “선생님도 ○○, △△이와 같이 해야겠다.”
 - 유아에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돕기
- 상호작용 3단계: 다른 또래들과 함께 놀이할 수 있도록 돕기
 - 놀이에 다른 또래들을 초대하기
 - “◇◇이도 같이 할래?”
 - “○○이랑 같이 이거 할 사람~?”
 - 유아가 선호하는 또래도 다른 친구들과 놀이할 수 있도록 돕기

- 다른 영역에 어떤 놀이가 있는지 알려주기
- 놀이와 활동을 통해 다양한 친구들과 함께 놀이할 수 있도록 돕기
- 억지스럽거나 교사의 의도가 보이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놀이에 참여하기
- **상호작용 4단계:** 교사와 단 둘이 상호작용할 때 한 친구랑만 놀이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 다른 친구들이랑 놀이하지 않는 이유와 불편함이 있는지 이야기 나누기
 - 친구가 해당 유아랑만 놀이하러 다른 친구와 놀이할 수 없음을 대해 이야기하기

2) 예방적 접근

- 여러 가지 놀이를 통해 유아의 다양한 또래 경험 늘리기
 - 둘이 하는 활동보다는 여러 명이 함께 하는 활동을 통해 유아의 다양한 또래 관계 경험을 돕기
 - 유아의 감정에 공감하기
 - 유아가 한 친구를 선호하는 감정을 읽어주기
- 다른 유아들과 놀이한 후 긍정적으로 지지하며 회상할 수 있도록 돕기
 - "오늘 이렇게 다른 친구들이랑 다 같이 하니까 정말 재밌다~"
 - 유아가 선호하는 유아와의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도록 돕기

다. 유의사항/ 참고사항

- 지도 Tip
 - 갑자기 다른 유아와 놀이하는 것이 힘들고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점차 가깝게 지낼 수 있도록 돕기
 - 성공적인 관계 맺기 경험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지하기
- 부모님께 알려드려 다양한 또래를 경험하고 관계 맺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돕기
 - 친구 초대하기
 - 부모와 함께 하는 활동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귄 수 있도록 참여 권유하기

18. 부끄러움이 많은 경우

만 5세/ 남아

월요일 아침, 친구들과 함께 주말 지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유아들이 손을 들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는 자리에 앉아 친구의 이야기를 듣는다. 이야기를 마친 친구가 ○○이가 주말에 어떻게 지냈는지 듣고 싶다고 하자 얼굴이 빨개지면서 고개를 좌우로 흔든다. 교사도 ○○이에게 앞으로 나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자 ○○이는 울음을 터뜨리려고 한다.

가. 원인 분석

- 기질적으로 느리거나 타고난 낯가림이 있어 다른 사람들에게 집중되는 것에 수줍음이 있음
- 새로운 환경이나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불편함이 있음
- 타인과의 교류 기회가 적어 불안함을 느낌
- 완벽주의 성향이 있고 자신감이 부족함
- 환경적이나 후천적으로 자기 자신이 집중 받았던 경험이 부정적인 경험일 경우 지나치게 수줍음을 느끼고 그 상황을 회피하려고 함
-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아이의 경우 불안감을 느껴 부끄러움을 느끼는 언어적,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대체 표현할 수 있음
- 익숙해질 때까지 충분한 시간과 천천히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

나. 지도 방법

1) 즉각적 개입

- 부끄러운 감정에 대해 지지하고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기

- **상호작용 1단계:** 유아의 부끄러움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지지하기
 - 유아에게 다른 친구들도 부끄럽고 긴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 “다른 친구들도 ○○처럼 부끄럽고 떨렸대.”
 - “선생님도 친구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 부끄러웠던 적이 있었어.”
 - 다른 친구들에게도 유아의 부끄러움에 대해 설명해주기
 - “너희들도 친구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 조금 떨렸었지?”
 - “○○이에게 힘을 주자. ○○아, 힘내서 이야기해줘~”
- **상호작용 2단계:** 유아에게 한 번 더 제안해보기
 - 다른 사람들이 유아의 생각이나 느낌을 궁금해 한다는 것을 이야기 나누기
 - “친구들이랑 선생님이 ○○ 이야기가 궁금한데 이야기해줄 수 있니? ”
 - “친구들도 ○○이의 이야기가 듣고 싶을 것 같아.”
- **상호작용 3단계:** 시도해 볼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 만들기
 - 다른 유아들이 다그치지 않도록 돕기
 - “우리 조금 기다려주자.”
 - 지나치게 집중되거나 유아가 긴장되지 않도록 돕기
 - 유아가 부담되지 않도록 교사다 다그치거나 강압적인 분위기 만들지 않기
 - 친구들이 유아에게 부정적인 표현을 하지 않도록 돕기
- **상호작용 4단계:** 유아의 말과 행동에 긍정적으로 지지해주기
 - 시도하거나 성공했을 때 긍정적으로 지지해주기
 - “ ○○이가 용기를 내어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이는 그랬구나.”
 - 하지 않더라도 격려하기
 - 상심하지 않도록 돕고 다음 기회에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교사가 적절한 상황에 시도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기
 - 친구들이 비난하지 않도록 상호작용하기
 - “괜찮아~ 다음에 해도 되~”

2) 예방적 접근

- 유아의 부끄러운 행동에 부정적인 반응 지양하기
 - 유아의 예민하고 감성이 풍부한 특징 인정하기
 - 타인을 민감하게 인식하는 잠재된 능력을 긍정적으로 지지하기
 - 유아에게 강요하지 않기
- 다른 사람 앞에서 유아가 위축되지 않도록 교사와 둘이 이야기 나누기
 - 유아가 스스로 시도할 수 있도록 교사가 자신감 불어넣어주기
 - 교사와 단 둘의 시간을 만들어 왜 부끄러운지 유아 스스로 생각해볼 수 있도록 돕기
 -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보기
 - 시도했을 때 교사가 지지하며 긍정적인 행동 강화
 - “우와~ 할 수 있구나.”
 - “이렇게 해보니 기분이 어때?”
- 익숙한 환경, 친근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경험을 증가시키기
 - 처음부터 지나치게 많은 수의 사람들 앞에서 유아의 행동 읽어주지 않기
 - 부정적인 강화가 될 수 있으므로 점점 긍정적인 경험의 정도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돕기

다. 유의사항/ 참고사항

- 지도 Tip
 - 유아의 행동에 지나치게 과장된 반응 지양하기
 - 시도하였을 때 적절한 긍정적인 반응을 통해 자신감 상승
 - 시도하지 않았을 때 무심한 듯 다음에 할 수 있는 여지 남기기
 - 다른 유아들이 해당 유아에게 부정적으로 표현하지 않도록 돕기

□ 기질 이해하기

- 유아 개별적 기질을 인정하고 기다려주기
- 부모에게 기질적 특성과 지양해야 할 행동이나 언어적 표현 정보를 알려 가정과의 연계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돕기
 - “왜 그러니?” 의 면박식 상호작용과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아이는 원래 부끄러움이 많아요,”의 낙인 시키는 것도 유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음
 - 부모가 외향적인 모습을 강요하거나 실수에 대해 야단을 치면 유아는 더욱 위축될 수 있음

19. 의존적인 경우

○○이가 미술영역에서 친구가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며 “△△야, 정말 잘 그린다.” 라고 이야기한다. △△는 “○○야, 너도 그릴 수 있어. 그려봐.” 라고 이야기한다. ○○는 “아니야. 나 혼자 못 그려. 니가 그려줘.” 라고 이야기하고 △△는 “니건 니가 그려야지. 왜 나한테 그려달라고 해. 니가 그려.” 라고 이야기한다. ○○는 “싫어. 나 못해. 니가 해줘. 빨리.” 라고 이야기하며 종이를 민다. △△는 이렇게 매번 자신이 하지 않고 친구에게 해달라고 하는 ○○이가 부담스럽다.

가. 원인 분석

- 위축되어 있고 자신감이 없으며 혼자 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낌
 - 낮은 자존감과 성공경험의 결여로 유아가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함
- 부정적인 지지나 강화로 인한 유아의 정서적 고립이 일어날 수 있음
 - 좌절감에 빠지지 않도록 활동과 놀이를 통해 긍정적인 경험이 필요함

나. 지도 방법

1) 즉각적 개입

- 유아가 스스로 시도한 후 긍정적으로 지지하기
 - 또래나 성인의 격려로 자신감 회복 가능
 - “ 혼자 할 수 있구나.”
 - “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
 - “ ○○이도 스스로 하네.”

2) 예방적 접근

- 유아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돕기
 - 처음 시작할 때 그 행동과 사실에 대해 객관적으로 지지하기
- 유아가 성인이나 또래를 도우며 자신감을 회복하기
 - 활동이나 놀이, 또는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 만들기

다. 유의사항/ 참고사항

- 내가 한 것에 대한 소중함과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하기
 - 잘한다/ 못한다, 맞다/ 틀리다의 인식을 갖지 않도록 돕기
 - 스스로 시도한 것부터 긍정적으로 지지하기
- 결과 중심의 강화는 지양해야함

20. 같은 것을 반복하는 경우

수과학 영역에서 같은 반 친구들 여럿이 윗놀이를 하고 있다. 그 옆에 있는 ○○이는 혼자 주사위를 던지며 큰 목소리로 “6!” 이라고 이야기한다. 친구들은 “○○아, 조용히 해. 우리 윗놀이하는데 방해되잖아.” 라고 이야기하고 ○○이는 “6은 여섯 개야. 나 양말 6개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 ○○이가 주사위를 다시 던지며 “2! 2는 두 개야. 나 오늘 떡 2개 먹었어.” 라고 이야기한다. 친구들이 “○○아, 목소리가 너무 커.” 라고 이야기하며 윗놀이를 계속하고 ○○이는 자신만의 주사위 놀이를 반복해서 한다. 이렇게 6개월째 변화 없이 하고 있다.

가. 원인 분석

- 자폐라는 발달상의 장애일 수 있음
 - 유아의 경우 자폐는 인지, 사회성, 정서 부분에 있어 어려움을 느낌

나. 지도 방법

1) 즉각적 개입

- 상호작용 1~2단계: 유아의 행동을 이해하고 다른 친구들의 입장을 설명하기
 - “○○이는 주사위 던지면서 나온 숫자를 읽는 것이 재미있나보네. 그런데 그 소리가 친구들 놀이를 방해하네.”
 - “○○이도 친구들과 윗놀이하고 싶니?”
- 상호작용 3~4단계: 행동의 기준 알려주고 적절한 대안 행동 지도하기
 - 서로 방해하지 않으면서 놀이를 해야 함을 설명하기
 - 교사가 유아와 함께 놀이하기
 - “○○아, 같이 할까?”
 - 유아가 또래와 함께 놀이할 수 있도록 교사가 돕기
 - “○○이도 친구랑 함께 놀고 싶을 때 나도 같이 하고 싶다고 말해보자”

2) 예방적 접근

- 유아와 친밀감 형성하기
 -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고 표출할 수 있는 놀이 제공하기
- 유아가 자신이 하는 놀이 외에 다른 놀이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돕기
 - 유아가 다양한 영역에서 놀이할 수 있도록 교사가 놀이에 초대하거나 놀이를 소개하기
 - 교사가 유아와 함께 활동하며 또래와의 긍정적인 경험주기
 - “ ○○이랑 같이 하니깐 좋다.”
 - “ △△아, ○○이한테 물어보자.”
- 또래들이 유아들에게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돕기
 - 함께 놀이하지 않거나 또래들의 놀이를 방해한다고 해서 유아를 배제하거나 배척하지 않도록 함
 - 또래와 1:1 로 유아를 도울 수 있는 경험을 주며 또래간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함

다. 유의사항/ 참고사항

- 유아의 경험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돕기
 - 자신이 하는 놀이 외에 또래와의 경험, 다양한 놀이 등이 증가할 수 있도록 교사가 적극적으로 돕기
 - 또래들과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유아일수록 놀이나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느끼므로 이 점을 교사가 개입하여 발달을 촉진함
- 가정 및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유아의 사회성 발달을 돕기

21. 또래를 따돌리는 경우

만 4세 / 여아

극화 놀이를 하는 여자 아이들이 역할을 정한다. 가위, 바위, 보를 하려고 하자 ○○이가 △△이에게 “△△이는 할 역할 없는데.” 라고 이야기한다. △△이는 언어 영역으로 가 책을 본다. 점심 식사 시간이 되고 ○○이가 친구들에게 “우리 여기 같이 앉아. 그런데 어떡하지? △△이 앉을 자리가 없네.” 라고 이야기한다.

가. 원인 분석

- 자기 중심적 태도를 현실에 맞게 변화시키지 못함
- 유아 자신의 감정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
- 또래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를 따돌림을 시킴으로써 자신의 유능함을 잘못 판단
- 자신이 주도함으로써 또래들을 평가함
- 또래수용도가 낮아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유아를 배척함
- 자신의 스트레스와 불만을 행동화
- 타인의 결함이나 어려움 고통에 대해 무감각 하며 열등의식이나 우월감을 갖고 있음
- 타인의 정서를 공감하지 못함으로 인한 따돌림을 당하는 유아의 감정 상태를 이해하지 못함
- 죄책감이나 수치심이 없으며 충동적이고 자기조절능력이 떨어짐
- 처벌이나 감정폭발이 포함된 부모의 양육 태도

나. 지도 방법

1) 즉각적 개입

- 또래를 배척하고 따돌리는 행동의 이유를 알아보고 그 행동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기

- **상호작용 1단계:** 유아가 또래를 따돌리는 이유 알아보기
 - 유아에게 친구에게 한 행동의 이유에 대해 묻기
 - “친구한테 왜 그렇게 이야기하니?”
 -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니?”
 - 해당 유아들이 모두 함께 이야기 나누기
 - 유아들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에 대해 함께 하기
- **상호작용 2단계:** 입장을 바꾸어 따돌림을 당하는 유아가 된다면 어떻게 생각해보기
 - 유아가 친구의 마음을 생각해볼 수 있도록 상호작용
 - “친구의 기분이 어떤 것 같니?”
 - “다른 친구가 ○○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행동한다면 ○○은 어떤 생각이 들 것 같니?”
 - 친구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보기
 - “친구와 이야기 해보는게 어떨까?”
 -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서로의 생각을 모를 수 있어. 함께 이야기 나누어보자.”
- **상호작용 3단계:** 옳고 그름에 대해 스스로 판단해보기
 - 친구에게 한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 생각해보고 실천하기
 -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할까?”
 - “어떤 친구만 못하게 하고 다른 친구들한테도 ○○이의 생각을 강요하는 것은 바른 행동이 아닌 것 같아.”
 - 따돌리는 행동이 보일 때마다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강조
- **상호작용 4단계:** 적절한 행동 지도하기
 - 사과하기
 - 나-전달법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연습시키기
 - 유아 자신의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때 “친구야, 네가 그렇게 해서 내가 속이 상했어. 앞으로는 함께 ~하자.”

- 다른 사람의 기분 생각해보기

2) 예방적 접근

- 유아가 우월감을 갖지 않도록 상호작용에 신경쓰기
 - 유아의 행동 유심히 관찰하기
 - 유아가 주동하거나 선동하지 않는지 관찰하기
 - 자존감과 타인이 자신을 보는 시선에 민감도를 관찰하기
 - 유아가 타인의 감정을 공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주기
 - 유아가 다른 또래들과 배려하며 놀이할 수 있도록 지지하기
- 또래와의 관계 속에서 또래 수용도 향상시키기
 - 놀이 속에서 다양한 사회적 경험하기
 - 또래 수용도가 높고 긍정적인 또래 관계의 친구들과 함께 놀이하며 모델링할 수 있도록 돕기
 - 유아가 바른 상호작용과 표현을 할 때 긍정적으로 지지하기
- 친사회적 기술 익히기
 - 극화 놀이에서 친사회적인 기술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기
 - 동화책 읽기와 이야기 나누기를 통해 사회적인 기술을 습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다. 유의사항/ 참고사항

- 지도 Tip
 - 친구들 사이의 서열이나 우월감, 열등감 등이 있는지 관찰하고 교사가 유아들의 기질 및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기
 - 따돌림을 당하는 유아에게도 수정해야할 언어나 행동이 있는지 관찰 후 함께 접근하여 해결하기
- 유아의 정서를 파악하고 공격의 대상의 변화를 피하기

- 물리적인 공격이 아닌 언어적, 행동적인 공격이 미치는 영향을 유아와 지속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 가정에서의 양육 태도에 따라 유아의 행동 수정을 돕기
 - 지속적으로 친구를 따돌렸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유아와 부모와 이야기 나누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리 예상해볼 수 있도록 하기

22.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한명 씩 친구들 앞에 나와 주말 지낸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한 친구가 나와 친구들에게 동물원 갔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는 “아~ 재미없어.” 라고 한다. 교사는 “○○야, 친구가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 라고 한다. 진수는 다른 쪽을 바라보며 노래를 부른다. 친구들은 “○○아, 안들려. 조용히 해 줘.” 라고 이야기하고 ○○는 “난 노래 부르고 싶은데?” 라고 이야기하며 노래를 계속 부른다.

가. 원인 분석

- 자기중심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집단 활동에 요구되는 태도를 하는 것이 어려운 발달적 특성이 나타남.
- 유아기에는 완전하게 발달하지 않은 타인 조망 수용 능력
 - 5세 이하의 아동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이것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거나 예측하려고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기 때문 (Berk, 2006; Berkowitz, 2002).
 - 자기중심성이 강해 다른 사람의 관점을 깨닫는 것에 어려움을 느낌
- 재미없는 활동을 따라가기 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활동을 하려는 욕구가 강함
- 자기 조절 능력의 발달 선상에 있으므로 성인의 도움 필요

- 자신의 언행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미처 생각하지 못함

나. 지도 방법

1) 즉각적 개입

- 상호작용 1~2단계: 감정을 읽어준 후 서로의 입장을 분명히 이해하기
 - 감정 읽어주기
 - “친구 이야기에 관심이 없나보네. ○○이는 지금 노래를 부르고 싶나봐.”
 - “친구들도 ○○처럼 같이 노래를 불렀으면 하나?”
 - 유아의 행동이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알려주기
 - “○○이가 친구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노래를 부르니까 친구들이 ○○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이야기 하는 거야.”
 - 유아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알려주기
 - “○○이가 친구 이야기를 듣지 않고 노래를 부르니까 친구들은 ○○이가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고 생각할 꺼야.”
- 상호작용 3단계: 용납되지 않은 행동 알려주기
 - 특정 행동 제한하기
 - “○○아, 친구들의 이야기 들어보자.”
 - “○○아, 친구가 이야기할 때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어.”
- 상호작용 4단계: 적절한 대안 행동 지도하기
 - 행동의 방향 바꿔주기
 - “○○아,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도 주말에 무엇을 했는지 들어보자.”
 - 기준을 충족시키는 방법에 대해 조언해주기
 - “○○아, 이야기 나누기 시간이 끝난 다음에 노래를 부르면 어떨까?”

2) 예방적 접근

- 유아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볼 수 있는 능력 배양하기

-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기분을 생각해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기
 - “ ○○이가 그렇게 행동하면 다른 친구들은 어떨까?”
 - “ ○○이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친구가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거나 노래를 부르면 ○○이는 기분이 어떨 것 같니?”
- 허용되는 행동과 허용되지 않는 행동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고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를 통해 조절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기
 - 유아에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스스로 생각해볼 수 있도록 돕기
 - “ ○○아, 친구들이 왜 ○○이에게 그렇게 이야기할까?”
 - 유아에게 기대되는 기준 알려주기
 - “ ○○아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다. 유의사항/ 참고사항

- 유아 스스로 생각해볼 수 있도록 교사의 상호작용 기술이 효과적
 - 적절한 발문으로 유아의 사회적 기술 발달
 - 유아의 긍정적인 경험 지지
- 가정과의 연계를 통해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고 다른 사람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 유지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
 - 부모님과 올바른 상호작용 기술을 공유

23. 반항하는 경우

만 5세/ 여아

정리 시간에 정리를 하고 있다. ○○이는 정리를 하지 않고 책을 본다. 교사가 “정리 한 후에 모일꺼예요. 부지런히 정리하자.”라고 이야기한다. ○○이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계속 책을 본다. 교사는 “○○아, 우리 정리 다 끝난 다음에 모여서 활동할꺼예요. ○○이가 색연필 정리해줄래?” 라고 이야기한다. ○○이는

“제가 한거 하한테요?” 라고 이야기하고 교사는 “○○이가 하지 않았어도 함께 정리하는게 좋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한다. ○○이는 “왜 나한테만 정리하라고 해요?” 라고 하며 색연필을 매우 세게 제자리에 놓아 색연필이 다 떨어진다. ○○이는 “에이씨, 짜증나.” 라고 하고 교사가 ○○이 가까이 다가가자 “선생님, 비켜요.” 라고 이야기한다.

가. 원인 분석

- 자신의 감정 표현의 방법을 무시나 무례한 방식으로 표현
- 자신의 주장만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중심적 사고 강화
- 교사에게 관심을 받기 위한 부정적인 경험 강화
- 선택의 결정권이 없는 양육 태도로 유아가 명령에 반감을 갖게 된 경우
- 일관적이지 않은 양육으로 인한 불안정한 애착 관계
- 완벽한 자아 확립이 되기 전이므로 유아는 자기 멋대로 표현
- 불안감이 있어 자신의 불안감을 잊기 위해 통제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로 말대꾸나 해야하는 것 하지 않기, 일부러 늦게 하기, 반대로 하기 등의 방법을 사용
- 평소 욕구 좌절에 대한 분노나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사소한 단서에도 적대적인 감정반응을 표출할 수 있음.

나. 지도 방법

1) 즉각적 개입

- 유아의 마음 상태를 읽어주고 왜 그런지 이야기로 할 수 있도록 돕기
- 상호작용 1단계: 유아의 마음 상태 읽기
 - 유아의 마음 읽어주기
 - “정리하고 싶지 않았구나.”

-“ 책을 보고 싶었구나.”

-“네가 하지 않은 걸 치우라고 해서, 너만 하라고 하는 것 같아 억울하구나”

□ 상호작용 2단계: 서로의 입장을 분명히 이해하기

○ 지금 현재 해야할 일과 그 다음 일과를 알려주기

- “ 그런데 지금 정리를 한 후에 친구들과 함께 활동을 해야한다.”

- “○○이가 놀이하지 않았어도 함께 정리하면 금방 정리를 마칠 수 있어.”

- “다른 친구들도 ○○처럼 더 놀이하고 싶고 정리하고 싶지 않지만 다음 활동도 하고 우리가 지켜야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정리하고 있었어.”

○ 교사의 의도를 설명하기

- “선생님은 ○○이가 친구들과 함께 정리하고 부지런히 마무리한 다음 재미 있는 활동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선생님이 ○○에게만 정리하라는 걸로 들렸구나. 우리 모두 다 같이 각각 맡아서 정리하는 거야. 다 같이 다음 활동을 하기위해 정리했으면 좋겠다”

□ 상호작용 3단계: 용납되지 않는 행동 알려주기

○ 일부러 못들은척 하거나 핑계를 대며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옳지않음을 대화를 통해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기울이는 것에 대한 중요성 이야기 나누기

- 하루 일과를 진행함에 있어 지켜야할 약속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 자신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기

-“ ○○이가 ○○이가 하고 싶은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하면 좋겠니?

○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 지켜야할 예의 알려주기

- 바른 언어 습관 지도하기

- 비속어 언어 사용에 대한 수정

- “화가 나더라도 바른 언어로 표현하는게 좋을 것 같아.”

○ 이러한 경우 반복해서 지도하기

□ **상호작용 4단계:** 적절한 대안 행동 지도하기

- 부드러운 언어로 자신의 표현하는 연습시키기
-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기
 - “이 책까지만 보고 정리하면 안될까요?” 등의 대안적 표현 활용

2) 예방적 접근

□ 명령의 어조가 아닌 부드러운 어조로 이야기하기

- 유아에게 조금 더 친절한 말투로 이야기하기
 - 해당유아가 더욱 민감할 수 있으므로 교사가 적절하게 조절
 - 유아의 감정 상태를 세심히 살피기
- 유아의 감정에 공감하기
 - 유아가 하는 말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기

□ 발달적으로 ‘참기’가 가능한 월령이므로 함께 연습해볼 것을 권유하고 교사가 돕기

- 교사가 긍정적인 면을 지지
 - “○○이가 약속을 지키는구나.”
- 바른 언어를 사용할 때 격려하기
 - “친절한 말로 이야기해주니 참 좋구나.”
- 또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며 자연스럽게 경험을 통해 또래의 사회적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기

□ 자신의 불만을 올바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하기

- 불만이나 스트레스를 교사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돕기
 - 교사와 둘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 유아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하기
 - 유아가 마음 속에 품은 진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하기

□ 동화책이나 활동을 통해 올바른 언어 습관 및 안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기

다. 유의사항/ 참고사항

□ 지도 Tip

- 교사가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고 안정된 자세 유지
- 표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 내면에 있는 불안과 그 정서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반응하기

□ 유아 시기 특성 알기

- 자신의 생각이 확립되는 시기
 - 자신의 생각대로 하고 싶은데 되지 않으면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날 수 있으나 그것을 사회적 통념에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승화할 수 있도록 교사가 돕기
 - 교사가 단호하게 할 경우 더욱 반감이 들 수 있으므로 '유아의 편'이라는 인식 주기
 - 부모의 양육 태도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보를 공유하고 유아들이 명령에 복종하는 형태가 아닌 선택을 하고 유아의 생각을 존중해주는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 부모에게 유아에 대한 애정 표현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권유하기

□ 반항 행동의 이면에 있을 수 있는 정서적 문제 이해하기

- 가정 내에서 빈번히 욕구가 좌절되거나 형제간에 지나친 양보나 책임을 강요받을 경우, 분노와 억울함이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탐색하여 가정과의 연계를 통해 평소 충족감을 가질 수 있는 양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24. 고자질하는 경우

○○이가 만들기를 하며 물레방아 테이프를 쓴다. 옆에 있던 △△가 “너 왜 테이프 막 써? 선생님이 그렇게 쓰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이야기한다. ○○이는 “나 많이 안썼어.” 라고 이야기하고 △△는 “엄청 많이 돌려서 썼잖아. 이렇게 많이 썼네.” 라고 이야기한다. ○○는 “아니야. 나 막 안썼어.” 라고 이야기하고 △△는 “선생님, ○○이가 테이프 막 써요.” 라고 이야기하며 선생님에게 간다.

가. 원인 분석

- 내가 친구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 중의 하나임
 - 친구를 지적하는 행동으로 힘을 행사하고 싶어 함
 - 부모, 교사 등 성인의 가르침을 많이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 힘이 있는 것으로 인식함
- 자신은 규칙을 잘 지키고 바른 아이라는 것을 인식시킴
 - 자아존중감이 높지 않을 경우 타인에게 바른 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드러낼 수 있도록 이르는 행동이 나타남
- 우연히 성인이나 선생님에게 타인의 잘못을 이야기했을 때 강화됨
 - 자신이 이야기한 것을 성인이나 선생님이 지지하며 잘못된 아이나 그 잘못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정하고 오히려 자신의 정당화가 인정된 경우

나. 지도 방법

1) 즉각적 개입

- 상호작용 1~2단계: 감정을 읽어주고 상대방의 입장 이해하기
 - “친구가 테이프를 필요이상으로 많이 쓴다는 생각이 드네. 그런데 친구는 그 만큼이 필요해서 쓴다고 하고.”
- 상호작용 3~4단계: 적절한 대안 행동 지도하기
 - 유아가 또래의 규칙위반이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직접 의사소통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 “00가 테이프를 너무 많이 쓸까봐 걱정이니? 그럼 00한테 친절하게 이야기해보렴”
 - “00도 테이프를 막 쓰면 안되는 걸 알고 있을 꺼야, 네가 물어보렴”
 - 또래를 지적하였을 때 유아가 한 말은 수용하되 그 것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 보고 친구와 직접 이야기 나누기

- “ ○○이가 만약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친구가 ○○이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면 ○○ 기분은 어떨까?”
- “ ○○이는 선생님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직접 친구한테 이야기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2) 예방적 접근

-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상호작용하기
 - 유아가 스스로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다리기
 - “ 친구의 생각을 물어보았니?”
 - “ ○○이는 친구한테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까?”
 - 유아가 직접 또래와 이야기 나누어 해결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하기
 - “ ○○이와 같이 이야기 나누어보자.”

다. 유의사항/ 참고사항

- 교사 스스로 유아들이 규칙위반이나 잘못을 이르는 행동에 강화를 한 것이 아닌지 돌아보고 반성적인 사고 해보기
 - 교사가 긍정적인 지지와 행동 강화 방법으로 상호작용하기
- 가정과의 연계를 통해 유아가 자신이 바른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강박이 있는지에 대해 함께 상의하고 이러한 것들을 지양할 수 있도록 함
 - 만약 형제아가 있을 경우 이르는 행동이 보편화 되고 또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정보 전달이 필요함

25. 거짓말 하는 경우

가. 원인 분석

아기 인형으로 놀이를 하던 ○○이는 친구에게 “내 동생 이름은 △△야.” 라고 이야기한다. 친구는 “너 동생 없잖아. 왜 없는데 있다고 해?” 라고 이야기하고 ○○이는 “아니야, 나 동생 있어. 집에 있어. 이름이 △△야.” 라고 이야기한다. 친구는 선생님을 부르며 “선생님, ○○이가 동생 없는데 동생 있다고 거짓말 해요.” 라고 이야기하고 ○○이는 울먹이며 “선생님, 나 동생 있는데 친구들이 없다고 해요.” 라고 이야기한다.

- 자신이 바라는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말함
 - 거짓말을 하려는 의도는 없음
- 자신이 경험한 것, 자신의 상상과 소망을 구분하지 못하는 인지적인 특성이 나타남
 - 발달적으로 상상 속의 일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느낄 수 있는 시기임.

나. 지도 방법

1) 즉각적 개입

- 상호작용 1단계: 아동 감정을 수용하고 이해하기
 - 유아를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지지하기
 - “ ○○아,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구나.”
 - “ ○○이는 동생이 있었으면 해서 말한 건데 거짓말이 되버렸네.
- 상호작용 2단계: 서로의 입장을 분명히 이해하기
 - 교사는 유아가 상상했던 것을 현실로 착각했음을 친구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 유아가 스스로 이야기 하는 것을 힘들어 할 경우 교사가 도움 주기
- 상호작용 4단계: 적절한 대안 행동 지도하기
 - 유아에게 사실과 상상을 구분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하기

- “ ○○이가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적 있니?”
- “친구들한테 어떻게 이야기 하는 게 좋을까?”
- “동생이 있었으면 해서 상상해 본거야, 그냥 말해서 거짓말이 되었어, 미안해 라고 말해볼까?”

2) 예방적 접근

- 자기 조절 기술 배워 나가도록 돕기
 - 행동의 의도를 보지 않고 결과에만 집중한 훈육을 반복할 경우 아이는 위축되거나 불안감을 가질 수 있음
 - 교사의 긍정적인 반응이나 모델링을 통해 아동이 자기 조절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돕기

다. 유의사항/ 참고사항

- 유아의 기억의 오류가 거짓말이 아니라 착각일 수 있다는 것을 알려두기
 - 유아 스스로 자신이 잘못했다고 느끼거나 또래들이 그 유아와의 관계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사가 적절한 대처
- 부모님께 거짓말이 아닌 기억의 오류임을 알려드리고 유아가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돕기

26.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

만 4세/ 여아

엄마와 하원을 하려고 하는 ○○이는 서랍에서 양말을 꺼내 신는다. 엄마가 “○○아, 이 편 뭐야?” 라고 묻고 ○○이는 △△이가 훔어.” 라고 이야기한다. 엄마는 “△△이가 훔어? 알았어.” 라고 이야기하고 교사에게 묻는다. “△△이가 우리 ○○에게 주었다고 하는데 맞나요?” 교사가 △△이에게 묻자 △△이는 “아닌데. 나 그거 잃어버려서 찾고 있었어요. 나 ○○에게 주지 않았어요. 제껴예요.” 라고 이야기한다.

가. 원인 분석

- 발달 상 소유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
- 갖고 싶은 친구 것에 대한 욕구가 인지적 오류로 인해 자신의 것으로 착각
- 정서적으로 불안한 아이의 경우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으로 나타남
- 애정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채워지지 않을 경우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데 그 중의 하나
- 소유에 대한 욕구가 크지만 만족이 되지 않아 나타남

나. 지도 방법

1) 즉각적 개입

- 소유의 개념이 명확한지 파악한 후 상호작용
- 상호작용 1단계: 유아에게 사실 확인하기
 - 유아와 의사소통
 - “다른 친구 물건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혹시 보았니?”
 - “그 물건 ○○이 것이니?”
- 상호작용 2단계: 유아가 사실대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돕기
 - 유아의 감정 이야기 나누기
 - “어떻게 된일이니?”
 - “△△이 것이 왜 서랍장에 있니?”
 - “△△이 것 가져갔니?”
 - “△△이 것이 갖고 싶었니?”
 - 친구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기
 - “○○이의 물건을 다른 친구가 말도 없이 가져가면 기분이 어떨 것 같니?”
- 상호작용 3단계: 용납되지 않는 행동 알려주기
 -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가면 안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친구의 물건이 예쁘고 가지고 싶어도 말없이 가져가면 안된단다”

- 물건의 소유에 대해 설명해주기
 - 자신의 물건, 친구의 물건, 부모의 물건, 어린이집 물건 등의 예를 들음

상호작용 4단계: 적절한 대안 행동 지도하기

-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 “예쁘다.”
 - “엄마, 갖고 싶어요.”
-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기

2) 예방적 접근

- 소유에 대한 개념을 알아두기
 - 극화 놀이나 동화책 속에서 소유에 대한 개념 명확하게 정의하기
- 유아가 친구의 물건을 가려가려고 하거나 눈치를 보면 교사가 적절하게 대응하기
 - 분위기 전환하기
 - 소유에 대한 것을 놀이로 표현
 - 놀이 중에 “제 것을 말도 없이 가져가면 어떡해요~ 이야기 하고 가져가셔야죠!”
 - “꼭 돌려주세요~” 등의 표현을 놀이에서 활용

다. 유의사항/ 참고사항

- 지도 Tip
 - 해서는 안되는 행동임을 교사가 객관적으로 이야기하기
 - 왜 그랬는지 유아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느낄 수 있도록 상호작용하기
- 만약 물건을 가져갔다하더라도 도둑처럼 느끼지 않도록 적절하게 상호작용하기
 - 잘못된 행동임을 단호하게 이야기하지만 친절한 어투로 표현하기
 - 지나친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으므로 실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앞으로 하지 않으면 된다고 일러두기

- 항상 관심으로 긍정적으로 지지하기
 - 채워지지 않는 애정 욕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 한번이 아니라 반복될 경우 부모님에게 알리고 함께 해결하기
 - 한번은 우발적일 수 있으므로 교사가 적절하게 대처하지만 반복될 경우 유아의 정서, 사회 발달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함께 해결하기

제 5부. 각 론 : 정서발달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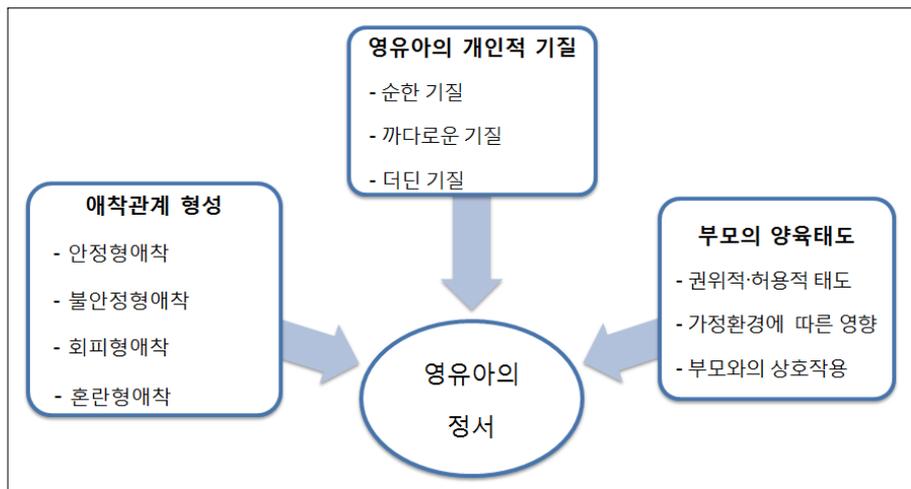
I. 「정서발달영역」 문제행동지도

1. 정서발달영역 문제행동의 이해

가. 영유아기 정서발달에 대한 이해

- 정서의 정의는 학자마다 다르지만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 또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기분이나 분위기를 말함(국어대사전, 2013).
 - 정서는 특정 장면이 유발하는 생리적 각성, 느낌, 인지 과정 및 행동 등 신체적·정신적 변화의 복합적 형태라고 정의함(임은미 외, 2013).
 - 정서란 분노, 공포, 환희와 같이 보다 분화된 기분 상태로서 개인이 관여하고 있는 특정 상황에서의 대인관계를 시작하고 규정하고 유지하거나 종결짓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 수행을 가능하게 함(오영희·우수경·천호숙, 2004).
- 정서의 기능은 정서를 표현하여 자신의 상황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여 특정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것임(임은미 외, 2013).
 - 영유아는 자신의 정서를 표현함으로써 부모나 교사, 또래에게 자신의 감정을 알리고 또한 주위 사람의 정서를 인식하고 그 상황에 맞게 행동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거나 상황에 적응하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게 함.
 - 특정한 자극에 대해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데 ‘분노’는 공격행동의 동기를 부여하고, ‘공포’는 회피 행동의 동기를 부여하는데 정서의 이러한 기능은 유기체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진화의 결과로 볼 수 있음(정옥분, 2004).
 - 정서적 발달은 보람 있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고 사회적 발달의 기초가 됨(박나영, 2012).
- 영유아기 정서표현은 연령이 올라가면서 점차 분화되어 감에 따라 복잡해짐.
 - 기본적인 정서는 출생 시 부터 존재하지만 아직 분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확실한 형태의 정서로 분화함(김유미, 2010).

- 영아는 여러 기본 정서들을 나타내는데 생후 1년 6개월~2년 정도가 되면 공감, 질투, 당황스러움 등이 표현되며, 2년 6개월이 지나면 자부심, 수치심, 죄책감 등의 정서로 분화됨(임은미 외, 2013).
 - 영유아의 일차적인 정서는 예를 들면 영아의 몇 가지 제한된 정서만을 말하는데 이는 생의 초기에 나타나고, 얼굴표정만 보고도 정서 상태를 쉽게 알 수 있는 특징이 있음(일차정서의 대표적인 예 : 기쁨, 분노, 공포, 호기심, 놀람 등).
 - 이차정서는 일차정서보다 늦게 나타나고, 좀 더 복잡한 인지능력을 필요로 하는데 자아인식은 이차정서로 중요한 요소임(이차정서의 대표적인 예 : 당황, 수치, 죄책감, 질투, 자긍심 등). 영유아의 자신에 대한 인식은 여러 정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자아에 대한 긍정적인 개념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영유아기의 정서는 개인적 기질, 주양육자와의 애착관계 형성,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받으므로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이해해야 함.



[그림 1-1-1] 영유아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영유아기 정서는 개인의 기질에 영향을 받으므로 영유아 개인의 기질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
- 영아와 양육자 간의 '조화의 적합성'이 중요하며 이는 양육자로부터 특정 양육 행동을 이끌어내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영유아의 문제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질에 기초한 개인차를 고려해야 함(Susan, 2007).

- 기질이 체질적, 유전적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지속성을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환경적 요인과 부모의 양육 스타일이 유아의 선천적인 행동 경향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음(Susan, 2007).
- 일찍이 Thomas와 Chess(1976)는 종단연구를 통해 '순한 기질', '까다로운 기질', '더딘 기질'을 확인하였으며, 이들의 분류가 최근에도 많이 적용되고 있음.
- 영유아의 기질은 부모-자녀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줌.
- 까다로운 기질의 영아는 주양육자로부터 까다로운 반응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음.
- 양육자의 같은 행동이라도 영유아의 기질에 따라 영유아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음.
- 순한 기질의 영유아의 특성(장세희·오정림·김경민. 2013).

- 항상 즐겁고 조용하며 낯선 사람을 만나도 미소 짓고, 낯선 음식을 쥐도 잘 먹음
- 아이가 순하다고 부모의 편의대로 키우다 보면 오히려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되어 언어 발달과 운동 발달이 늦어지고 자존감이 낮으며, 소심해서 정서적으로 상처를 받을 수 있음.
- 자기의 욕구보다 부모의 욕구에 따르는 경향이 있음.
- 평소 아이의 감정 상태에 대해 물어보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자주 함.
- 아이가 어렵게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표현했을 때 부모는 어떤 것이든 충분히 공감해 줘야 함.

- 까다로운 기질의 영유아의 특성(장세희·오정림·김경민. 2013).

- 신생아 때부터 먹고 자는 것이 일정하지 않고 시간에 맞춰 수유를 하는 것도 힘들.
- 예민하고 겁이 많아 위축되어 있지만 부모가 적절하게 양육하면 자신감 있고 사회성 있는 아이로 변함.
- 예민한 감각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함.
- 다른 아이들보다 스스로 해내려는 경향이 있어서 단추 끼우기, 숟가락질, 장난감 조립도 자신이 하고 싶어함.
-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부모가 관심 갖기를 바라고 자기가 잘하는 것을 부모가 인정해주길 바람.
- 양육자가 감정적, 본능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아이 때문에 화가 날 때는 하루 10분만이라도 아이와 떨어져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함.

- 더딘 기질의 영유아의 특성(장세희·오정림·김경민. 2013).

- 잘 짜인 상황이나 규칙적인 틀 안에 있는 것을 좋아해 무엇이든 습관이 되면 잘함.
- 보상에 대한 욕구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에게 보상을 하려면 아이의 의견을 반영하고 동의를 얻는 것부터 시작함.
- 양육자를 귀찮게 하거나 성가시게 하는 일이 적자만 양육자를 화나게 하고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것은 양육자가 자신의 입장에서 문제를 성취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음.
- 아이에게 적당한 주도권을 갖게 함.
- 부모가 주도하는 것은 더딘 기질이 가진 단점을 강화시킬 수 있음.
- 처음부터 잘하기를 요구하지 말고 아이가 위축될 수 있으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주도권을 주되 작고 쉬운 일부터 스스로 하도록 함.

□ 애착 관계의 질은 이후 사회정서적 발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됨 (Barbara & Judy, 2013).

- 영아와 걸음마기 유아의 불안정 애착과 이후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는 여전히 연구가 되고 있지만 영유아의 안정적인 애착 형성 여부는 모든 맥락에 걸친, 그리고 생애 내내 사회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침(Susan, 2007).

- 애착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욕구 중의 하나임.
- 영유아기의 애착 형성은 이후 살아가면서 요구되는 사회적 능력의 기초가 됨.
- 애착의 유형으로 양육자와 떨어지는 것을 몹시 불안해 떨어지려 하지 않는 불안정 애착, 양육자가 자신을 알아주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안았다가 내려놓을 경우에는 더 싫어하는 회피적 애착으로 구분함. 회피애착은 양육자가 있어도 가까이하지 않고, 양육자와 떨어져도 크게 영향받지 않는 철수하는(withdrawl) 유형임.
- 영유아기에 안정된 애착을 형성시키는 것은 앞으로 원만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출발점이며 바람직한 사회생활을 해 나가기 위한 매우 중요한 기초임.

- 부모와의 안정적인 정서적 유대를 이룬 영아는 성장함에 따라 부모와의 신체적 접촉보다는 탐색활동과 또래 집단에 더 흥미를 나타냄. 이들은 대개 자신감이나 자아존중감이 높고 어른에게 덜 의존함(이병준, 2013).
- 또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표현하는 것을 배우고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음(Barbara & Judy, 2013).
- 불안정형 애착을 형성한 유아는 자신 및 타인에 대한 신뢰감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에게 비협조적, 비순종적이며 공격적임. 또한, 유아기 후반까지도 부모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려하고 신체적 접촉을 요구함(이병준, 2013).

- 회피형 애착을 형성한 유아는 양육자로부터 자신의 욕구가 만족된 경험이 없어서 관계 자체에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음. 겉으로 보기에 매우 독립적으로 보이거나 이는 건강한 독립심이 아니라, 기대(욕구를 채워주거나 과한 감정을 진정시켜 주는 등)를 하게 되면 좌절하게 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갈등하지 않으려 차선책으로 선택한 방식임. 이런 유아는 향후 또래나 교사 등 다른 대인관계에서도 회피적 성향을 띠게 됨.
- 혼란형 애착은 엄마가 돌아와도 혼란되고 모순된 행동을 보여 어머니가 안아줘도 위로 받지 못하는데 어머니가 위로의 대상인지 또 다른 위협대상인지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임(한국아동학회, 2013).
- 영아의 애착 형성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병준, 2013)

- 양육자는 영아의 애착신호를 신속하게 받아들여야 함.
- 영아의 신호를 해석하고 그것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해줘야 함.
- 일관성 있게 애정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함.
- 영아가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친숙한 보육교사와 있도록 하며 영아의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최소화 함.

- 영유아의 정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받기도 함.
 - 부모가 지나치게 권위적이거나 혹은 허용적일 경우, 자기 통제를 발달시키지 못하고 문제행동을 나타낼 수 있음.
 - 영유아는 부모와의 상호작용 방식을 학습하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적절하지 못한 경우 유아는 잘못된 행동을 학습하기도 함.
 - 부모의 양육태도는 가정환경에 영향을 받는데 부모의 이혼, 실직, 형제자매 간의 차별, 부부 싸움으로 인한 갈등, 빈곤, 유아에 대한 비난, 무력감 등으로 인해 가정의 정상적 기능이 상실되는 경우 영유아에게 문제행동이 나타날 수 있음.
 - 영유아와 부모의 정서적 상호작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아이는 자신의 정서적 경험을 신뢰하고 바른 자아상을 키울 수 있음.

나. 영유아기 정서발달 문제행동에 대한 이해

1) 영유아기 문제행동

□ 문제행동의 범위(Barbara·Judy, 2013)

- 영유아의 인지발달, 사회발달, 정서발달을 방해하는 행동
- 영유아 자신이나 친구들 또는 성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
- 나중에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거나 학습 실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
- 부적응행동이라는 말로도 표현되는데 이는 영유아가 자신의 생활을 적응적으로 원만히 이끌어 가지 못하는 행동

2) 영유아기 문제행동의 원인

□ 영유아의 개인적 취약성

- 영유아의 기질, 지능, 그 외 생물학적 특성 자체가 특정 문제행동을 나타낼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개인적 취약성 중 대표적인 요인은 영유아의 기질임.
- 낮은 상황이나 자극에 겁을 많이 내고,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걱정이 많으며, 예민하고 낮가림도 심한 경우, 영유아의 타고난 성향 자체가 불안과 관련된 문제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증가됨.
- 충동 조절이 어렵고, 까다로우며, 새로운 자극이나 경험을 통해 유쾌감과 흥분을 하고자 하는 성향이 높은 영유아는 그로 인해 자신의 욕구가 좌절되는 상황에서 주변 성인이나 또래에게 화를 표현하여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아질 수 있음.

□ 환경적 요인

- 영유아의 문제행동 발생에 기여하는 환경적인 요인은 부모의 양육방식,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부모의 정신병리, 부부갈등, 한부모나 조손가정 등 가족의 구조적 결손, 빈곤 등을 찾아볼 수 있음. 이 중 영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은 부모와 관련된 변인임.

- 부모가 쉽게 불안이나 우울감이 많거나, 분노 통제가 안되는 경우 영유아는 관련 문제행동을 일으키기 쉬움.
- 부모, 특히 어머니와 영유아가 안정적이고 친밀한 애착관계를 맺지 못할 경우 영유아는 안정감이 부족하여 새로운 세계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자신있게 나아가지 못하게 됨(염숙경, 2002).
- 부모의 양육행동이 일관성 없을 때 영유아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불안을 느끼거나 반항심을 가질 수 있음.
- 성인의 지나친 보호와 통제는 스스로 자기통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여 문제행동을 강화시킬 수 있음(김광웅 외, 2011). 이로 인해 영유아는 스스로 하는 것에 대해 불안을 느낄 수도 있고, 좌절로 인해 분노감을 느낄 수도 있음.
- 부모와의 관계에서 적절한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면 불안이나 우울감이 쌓여, 이로 인해 쉽게 긴장하거나 침울해질 수도 있으며 좌절감을 외부로 쏟아내 또래와 교사에게 거친 행동을 할 수도 있음. 적절한 좌절이나 제한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자신의 충동이나 행동을 조절하지 못할 수 있음.

다. 영유아기 정서발달영역 문제행동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

- 정서발달 문제행동의 원인과 치료를 위해 영유아기에 관심을 가짐.
 - 사회부적응 행동 혹은 문제행동은 생의 매우 이른 시기 영아기에 시작됨.
 - 시간이 흐르고 영유아가 성장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도 많지만, 문제 양상과 빈도가 더욱 심각해지고 빈번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영유아기에 적절한 개입이 필요함.
 - 영유아기의 가벼운 적응 문제는 심각한 학령기의 문제행동의 기원(source)이 될 수 있음.
- 영유아기에는 사실적으로 문제가 확정된 대상을 진단하여 치료하기 보다는 부적응 현상을 보이는 것과 같은 위험대상을 적기에 발견하여 보다 심각한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더 적절한 접근임.
 - 영유아기의 정서적 안정감은 건전한 인격으로 성장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유아가 정서적인 문제를 갖게 되면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 영유아기 근접한 환경에서의 경험은 이 후의 성격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김광웅 외, 2011).

2. 정서발달영역 문제행동 사례목록(표)

〈표 1-2-1〉 영아·유아 정서발달 영역 문제행동 사례 목록

번호	문제행동 사례	유형
영아	1 - 양육자와 헤어져도 만나도 힘든 경우	A. 분리불안
	2 - 교사와 공감이 잘 맞지 않는 경우	
	3 - 아직 어려서 헤어지기가 어려운 경우	
	4 - 아기 때부터 쓰던 물건을 과도하게 집착하는 경우	B. 대물애착
	5 - 갑작스러운 변화에 불안해하는 경우	C. 자주 우는 행동
	6 - 무조건 울어 버리는 경우	
	7 - 늘 기분이 좋지 않은 경우	D. 우울
	8 - 아직 어려서 화를 참을 수 없는 경우	E. 분노폭발 및 감정조절 불가
	9 - 선천적으로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경우	
	10 - 우연한 반복으로 인한 즐거움이나 위안 받고 싶은 욕구를 자위로 표출하는 경우	F. 자위
유아	11 - 이전 기관에서 좋지 않은 경험을 한 경우	G. 분리불안
	12 - 울어서 얻고 싶은 것을 해결하는 경우	H. 자주 우는 행동
	13 - 잘할 수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경우	I. 지나친 수줍음
	14 - 주위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에 자신감을 잃는 경우	
	15 -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일에 너무 부끄러운 경우	
	16 - 특별한 사건 때문에 자신감을 잃은 경우	
	17 - 강박 성향을 가진 경우	J. 강박 성향
	18 - 통제해야 안심이 되는 경우	K. 틱
	19 - 불안감과 긴장으로 틱(tic) 현상을 보이는 경우	
	20 - 늘 기분이 좋지 않은 경우	L. 우울
	21 - 기분 변화가 심한 경우	M. 분노폭발 및 감정조절 불가
	22 - 정서 발달이 또래에 비해 늦은 경우	
	23 - 분노 폭발로 관심을 받고 싶은 경우	
	24 - 잘못에 대해 제지 받은 경험이 없어 잘못하지 않았다고 우기는 경우	N. 지나친 고집
	25 - 두려워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26 - 마음속에 가득 찬 화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27 - 겁이 많아서 새로운 활동을 지나치게 거부하는 경우	
	28 - 환경변화로 인해 산만해진 경우	O. 부주의와 산만
	29 - 심리적 문제 때문에 산만한 경우	
	30 - 성관계 장면을 따라하거나 다른 성의 친구를 궁금해 하는 경우	

- 정서발달영역 문제행동 사례는 주제별로 12개로 분류되었음.
 - 분리불안, 대물애착, 자주 우는 행동, 지나친 수줍음, 강박성향, 틱, 우울, 분노 폭발 및 감정조절 불가, 지나친 고집, 부주의와 산만함, 자위로 나누어지며 이 중에서 분리불안, 자주 우는 행동, 우울, 분노 폭발 및 감정조절 불가, 자위는 영유아 공통 주제임.
 - 각 주제에 따라 영아, 유아에 해당하는 사례를 제시하였음.

3. 정서발달영역 교사 지도 방안

가. 영유아에 대한 이해

- 영유아의 개인적 기질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먼저 필요함.
 - 개별 유아의 기질적 특성, 특성에 따른 변인을 이해해야 함.
 - 개별 유아의 기질적 특성을 수용해야 함.
 - 개별 유아의 기질적 특성에 따른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진행해야 함.
- 영유아의 스트레스 원인 찾아 대안 및 해결책을 계획해야 함.
 - 영유아 관찰 및 부모 면담을 통해 영유아의 정서 문제를 야기하는 스트레스 원인을 찾도록 노력해야 함.
 - 스트레스 원인을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 및 해결책을 찾아야 함.
 - 어린이집과 가정에서 대안 및 해결책을 함께 공유해야 함.
 - 어린이집과 가정에서 대안 및 해결책을 실행할 때 예상되는 어려움을 확인하고 대비책을 찾아보도록 함.
- 영유아의 특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알고자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척도를 이용할 수 있음(<부록 1> 참고).
 - 한국판 교사용 유아문제행동척도(K-Teachers Report Form: K-TRF; 오경자, 김영아, 2009)
 - 한국판 유아용 기질 및 성격검사(Korean Junior Temperament & Character Inventory: K-JTCI; 오현숙, 민병배, 2007)

- 두 검사 모두 유료검사이며, 필요시 소정의 교육을 받은 후 교사가 직접 실시하거나(K-TRF),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음(K-JTCI)
- 영유아의 행동을 판단할 때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음.

- 유아의 문제행동을 판단할 때는 객관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교사 혼자서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고 동료교사나 원장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음.
- 어떠한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됨.
- 영유아를 명명하거나 낙인찍는 행동은 금물임.
- 영유아의 가능성을 인정해주는 노력이 필요함.

나. 부모와의 협력

- 교사는 부모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함.
 - 부모와 맺은 긍정적 관계는 영유아에 대한 이해나 문제해결을 위한 개입에 있어서 기초가 됨.
 - 부모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먼저 부모의 입장에서 상황이나 사건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긍정적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됨.
 - 영유아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할 때에도 가능한 한 영유아의 장점과 자원을 먼저 언급하고 강조해야 됨.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장점이 많은 영유아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임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음.
- 교사는 부모 자신의 문제나 부모가 겪는 어려움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부모가 영유아를 키우면서 경험하는 양육 관련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반영 해주어야 함.
 - 지금까지 영유아의 양육을 위해 애써 온 부모의 노력과 애씀을 인정하고 격려해야 됨.
 - 영유아 양육 외에 부모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요소가 무엇인지 경청하고, 공감해 부모의 부정적 감정이 발산되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가능한 해결책도 함께 찾아볼 필요가 있음.
- 교사는 부모와 영유아간 긍정적인 상호작용이나 관계를 위해 부모 코칭 및 교육을 함께 진행해야 함.

- 부모 스스로 자신의 성격적 특성, 기질, 양육관 등에 대해서 생각해보도록 해야 함.
- 부모 자신의 성격 특성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인식하도록 진행해야 함.
- 자칫 지금까지 부모가 해 온 양육방식을 비판하는 자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됨. 긍정적인 부분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음.
- 부모가 자녀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도와주어야 함.
- 자녀의 특성에 따른 바람직한 양육태도 및 상호작용 코칭법을 알려주어야 함.
- 자녀가 나타내는 정서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함.
- 부모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어야 함(박재규, 1980).
 - － 사회적인 강화를 통하여 자신감을 길러 주면서 어떤 때는 행동의 기준이나 제한점을 제시해 주어야 함.
 - － 영유아의 시범이 될 수 있도록 행동을 하여 동일시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영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주어야함.

다.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교사의 지도

- 긍정적인 생활 지도를 위해 영유아-교사 간의 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함(권정윤 외, 2012).
 -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며 유아-교사 간의 긴밀한 애착 형성이 필요함(심숙영, 2013).
 - 영유아의 문제행동을 진단하는 것은 영유아의 상황이나 행동을 공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함.
 - 문제행동의 수정에서 유아-교사 간의 신뢰가 기본적인 바탕이 됨.
- 바람직한 영유아-교사 상호작용이 영유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이영훈·주연희·김성수, 2013).
 - 영유아의 사회적, 정서적, 언어적, 인지적 발달을 촉진시킴.
 - 교사 및 주변 성인들과 안정된 애착 관계를 형성함.
 - 주변환경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학습할 기회가 증진됨.
 - 또래와의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맺도록 도와줌.

-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심리적 건강을 증진시킴.
- 긍정적인 관계형성을 위한 의사소통이 중요함.
 - 교사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함(권정윤 외, 2012).
 - 유아의 문제 행동을 다룰 때 교사의 감정조절이 힘들어 교사의 감정이 강하게 표현되면 유아는 압도되고 죄의식을 갖게 됨. 교사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여 유아를 지도할 수 있어야 함.
 - 유아의 감정 다루는 5단계(권정윤 외, 2012)
 - 1단계 : 유아의 감정을 인식하기
 - 2단계 : 감정적 순간을 친밀감 조성의 기회로 삼기
 - 3단계 : 유아의 감정이 타당함을 인정하고 공감하고 경청하기
 - 4단계 : 유아가 자기 감정을 표현하도록 돕기
 - 5단계 : 유아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끌면서 행동에 한계 정해주기
- 교사와 영유아간 효율적인 대화전략(이영훈·주연희·김성수, 2013).
 - 반영적 경청하기
 - 영유아가 문제행동으로 교사나 또래를 힘들게 할 때에도 상호작용의 시작은 반영적 경청임.
 - 영유아가 어떤 표현이나 말을 할 때 가만히 귀 기울여 듣는 것은 대화의 기본적인 태도임.
 - 교사는 영유아의 말이나 표현에 관심을 갖고 듣고 있음을 알려주도록 ‘그렇구나’, ‘으응’ 등과 같은 언어적 표현이나 미소 짓거나 고개 끄덕이기와 같은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영유아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있음을 알도록 함.
 - 적극적 경청하기
 - 때로 단순한 경청이나 듣고 있다는 표시만으로 영유아는 아직 자기가 이해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기도 하므로 유아가 표현한 감정과 태도를 다른 말로 표현해주는 것을 뜻함.
 - 영유아의 말에서 직접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행동, 표정, 또는 말 뒤에 깔려 있는 감정을 되받아 표현해주는 것임.

- 영유아의 동기, 희망, 욕구를 읽어주고 받아줌. 예를 들어 ‘선생님이 먼저 책을 주기를 기다렸구나. 알았으면 더 일찍 주었을텐데.’ 라고 영유아의 마음을 읽어줌.

○ 나-전달법(I-message) 활용하기

- 교사가 영유아에게 무엇이 문제이고 그 문제 때문에 어떤 결과가 생기는데 대해 영유아를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
- 나-전달법을 통해서 영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해 비판이나 비난 없이 서술함.
- 영유아의 문제행동이나 이로 인한 구체적인 영향에 대한 교사의 감정이나 느낌을 서술함.
- 나-메세지의 형식은 다음과 같음.

- ▶ 유아의 행동: ~하면
- ▶ 교사의 느낌: ~라고 느낀다.
- ▶ 유아의 행동의 결과: 왜냐하면 ~하기 때문이다.

- 예를 들면, ‘자꾸 울기만 하지마’라고 하기보다는 ‘□□가 울기만 하면, 선생님이 너무 속상해. 선생님이 무엇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야’라고 표현할 수 있음.

□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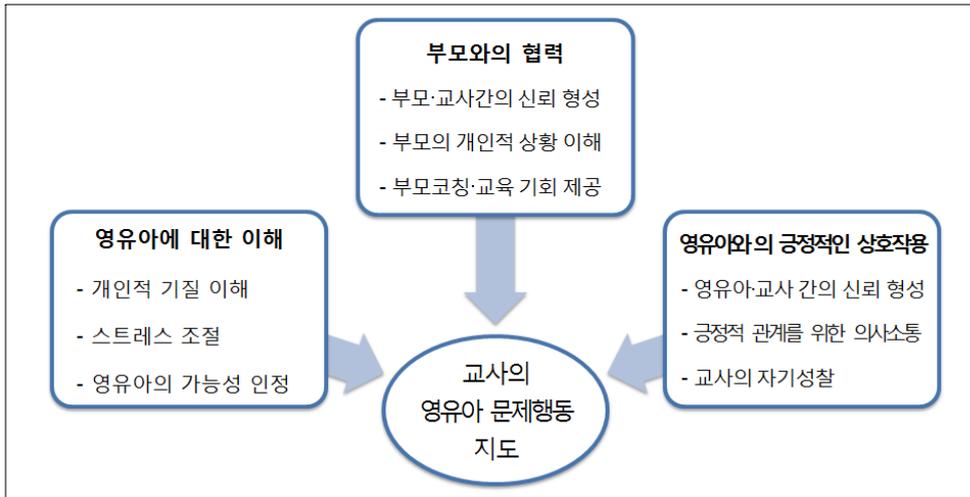
- 영유아가 만족감 및 성취감 등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영유아의 수준에 적합한 활동을 계획해야 함.
- 교사의 모델링이나 구체적인 격려로 성공의 경험을 맛보게 해야 함.

□ 부모와 함께 찾은 영유아의 스트레스 원인에 대한 대안 및 해결책을 실행함.

□ 영유아의 문제행동으로 교사가 영유아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영유아의 문제행동으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은 교사의 주의, 기억, 문제해결, 동기에 영향을 줌(Barbara·Judy, 2007).
- 교사가 영유아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영유아도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교사와 원만한 관계를 형성할 수 없음. 이러한 결과는 부정적인 감정을 증가시키는 악순환이 됨(Barbara·Judy, 2007).

- 교사의 자기 성찰이 영유아의 문제행동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됨.
 - 자기 성찰은 태도와 방법으로 자신의 기술을 발전시키는 전략임.
 - 자신과 자신의 일에 대해 깊이 파악하고 자신이 발견한 것을 실행하는 자발적인 의지임.
 - 자신의 감정, 가치, 믿음에 대한 생각과 이러한 것들이 자신의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생각할 때 유아와의 상호작용이 더 의미있을 것임.
- 다양한 개입 방안이 효과가 없고 영유아의 문제행동이 더 심화된다면 전문가를 찾아 종합적으로 평가를 받고 이후 개입을 계획할 것을 기관장 및 부모와 협의해 볼 필요가 있겠음.
- 요약하면, 교사가 영유아의 문제행동을 잘 지도하기 위해서는 부모 및 영유아와의 신뢰로운 관계가 뒷받침 되어야 하며 영유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
 - 추후 필요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게 될 경우 교사-부모 간 신뢰는 부모와 상담가와의 신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
 - 영유아와의 애착 형성이나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중요함.
 - 영유아의 개인적 기질이나 스트레스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문제행동을 보이는 영유아지만 긍정적인 측면과 가능성을 인정함.



[그림 1-3-1] 교사의 영유아 문제행동 지도 방안

라. 영유아 대상 아동학대 발견시 조치 요령

- 영유아의 문제행동이 아동학대에서 비롯될 수도 있음.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가혹 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함(보건복지부, 2013).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아동복지법 제 2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로서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신고해야 함.
 - 아동학대 신고 및 상담전화: 1577-1391(전국 동일), 129(복지부 콜센터)
 -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음.

II. 「정서발달영역」 문제 행동지도의 실제

<영아편>

1. 양육자와 헤어져도 만나도 힘든 경우

연령 : 만 1세

부모와 헤어질 때마다 경기를 일으키듯 소리를 지르거나 발버둥을 치며 울음을 보인다. 교사가 안아보려 하지만 발로 차며 거부한다. 부모와 헤어져 보육실에 들어오면 더 이상 부모를 찾지 않는다. 저녁에 부모가 데리러 오면 갑자기 보육실에서 놀이를 시작하며 부모를 쳐다보지 않는다. 부모가 보육실 밖에서 기다리다가 이제 가자며 교사의 도움을 받아 영아를 안으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을 친다. 부모의 신체 일부분을 주먹으로 때리기도 한다.

가. 원인 분석

- 보통 분리불안을 보이는 경우는 영아와 어머니의 애착관계가 약하고 영아가 도움을 청했을 때 양육자가 즉각 반응하리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임(김태자, 2008).
- 영아는 양육자와 분리 시에 불안감이 높아지나 하원 시에 양육자를 다시 만나도 그 불안감이 해소 되지 않고 양육자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임.
 - 영아가 양육자와 안정 애착을 형성하였다면 양육자와 분리 시에 힘들었다가도 일상생활은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으며 하원 후에 양육자를 다시 만났을 때 다가가 안기거나 기쁨을 표현함.
 - 그러나 양육자와 다시 만났을 때도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반대로 아무런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양육자와의 애착 형성이 불안정하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경우, 영아가 양육자와의 분리 시 보이는 불안은 양육자와의 불안정 애착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음.

나. 지도 방법

□ 영아-양육자 안정 애착 형성을 위한 상호작용 방법 활용하기

- 영아의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항상 관찰하고 살펴보아 영아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것을 불편해 하는지 파악하려고 노력하여 민감하고 반응적인 상호작용을 제공하기

민감하고 반응적인 상호작용의 예	
상황	영아가 우유를 보며 손을 내민다. 양육자는 “우유 줄까?”하면서 영아의 얼굴을 쳐다본다. 영아는 무표정한 얼굴로 양육자를 본다. 양육자는 작은 우유팩을 영아에게 쥐어 주려 한다. 영아는 손을 흔들고 “으응”소리를 내며 우유팩을 받지 않는다.
발문	“우유가 싫어? 그럼, 무엇을 줄까?”영아가 우유팩 옆의 빨대 상자를 가리킨다. “빨대를 줄까?” 라고 말하자 영아가 고개를 끄덕인다. 양육자가 영아에게 빨대를 쥐어 준다. 영아는 빨대를 손에 쥐고는 무언가를 더 원한다는 듯이 서 있다. 양육자는 “우유도 줄까?”라고 이야기하며 우유팩을 영아의 손에 쥐어 준다. 영아는 한 손에는 빨대를, 한 손에는 우유팩을 들고 미소 짓는다.

- 따뜻한 상호작용을 위해 부드럽고 낮은 목소리로 상호작용하기, 영아와 눈을 마주치며 상호작용하기, 안거나 무릎에 앉도록 하는 등 신체접촉을 하며 상호작용을 진행하기

따뜻한 상호작용의 예	
상황	목욕 후 잠을 자려고 영아와 양육자가 함께 침대에 눕는다. 영아는 아직 잠이 오지 않는지 침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뒹굴거린다.
발문	부드럽고 낮은 목소리로 “○○야, 토닥토닥해 줄까? 자장자장 노래도 불러줄게~” 이야기 한다. 영아가 다가오면 영아의 몸을 가볍게 토닥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장가를 부른다.

- 즐거운 감정을 공유하기 위해 자녀가 즐거워하는 놀이, 상황을 부모가 함께 느끼고 즐거워하기
- 자녀가 느끼기에 ‘우리 엄마, 아빠는 나랑 놀이하는 것을 좋아하는구나!’ ‘내가 표현하는 것을 우리 엄마, 아빠가 좋아 하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하기
- 아무리 어린 영아라도 양육자가 정말로 즐거워하는 것인지 아닌지 알아차리기 때문에 양육자는 영아의 놀이, 표현을 진심으로 즐기려고 노력하기

즐거움 감정 공유하기의 예	
상황	영아가 커다란 스폰지 블록을 2~3개 높이 쌓는다. 부모는 영아가 블록 쌓는 것을 보며 새로운 블록을 꺼내 옆에 놓아 준다. 스폰지 블록을 2~3개 쌓은 영아는 갑자기 손으로 블록을 친다. 블록이 무너지자 영아가 손뼉을 치며 웃는다.
발문	양육자는 영아가 블록을 쌓고 무너뜨리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블록이 무너졌네. 쿵! 소리가 나네~”라고 이야기하면서 웃음을 보인다.

교사의 부모 지원하기

- 일단, 양육자의 어려움을 잘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하기
- 양육자가 어려움을 겪는 구체적 사례를 가져오게 해 그 사례에 해당하는 바람직한 상호작용의 예를 제시하기

양육자와 사례 나누기의 예	
상황	영아가 밤잠을 잘 때 양육자가 토닥여 주는 행동을 거부한다. 양육자는 영아에게 따뜻한 상호작용을 시도하려 노력했으나 영아가 거부하자 당황한다. 양육자는 교사와 사례를 나누고 도움을 받고자 한다.
발문	교사는 양육자의 시도를 격려하고 양육자의 마음을 읽어 준다. “○○에게 따뜻한 상호작용을 하려고 노력하셨군요. 그런데 ○○가 토닥이는 것을 거부해서 속상하셨어요”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조언을 한다. “○○에게 토닥여줄까? 라고 물어 보시고 영아의 반응에 따라 상호작용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아가 싫다고 하면 “그래, 그럼 토닥이지 않을게. 그런데 ○○가 잘 잘 수 있도록 옆에 있을게”라고 말씀해 주세요.

- 눈 맞추기, 영아의 필요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신체접촉하기 등을 시범 보이기

시범 보이기의 예	
상황	양육자가 영아의 필요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에 대해 궁금해 한다.
발문	교사는 영아, 양육자와 함께 있을 수 있는 등하원 시간에 간단히 시범을 보인다. “지금, ○○가 갑자기 움직임을 멈추었죠. 무언가 불편한 것 같지요. 아, 앞을 보니 놀잇감이 바닥에 많아서 불편했나 봐요. 놀잇감을 치워주어 볼게요. 다시 움직이네요. 이렇게 항상 ○○의 언어적 표현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표현에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착을 돕는 가정환경 구성 유도하기

- 부드러운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 영아가 주로 생활하는 장소(거실 또는 방)에 파스텔 톤 색감의 쿠션, 매트를 배치하기, 영아가 만질 때 촉감이 부드러운 인형 등도 준비하여 매트 위에 함께 놓아주기
- 영아에게 시각적인 안정감을 주고 천정이 낮아 보이도록 캐노피 부착하여 아늑한 환경 구성하기

- 꽃, 나무 등 식물을 가정 곳곳에 배치하여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을 구성하기
- 양육자 면담을 통해 양육자가 스스로 수용성을 확대하도록 지원하기
 - 양육자가 면담을 통해서 스스로 수용성을 확대하고 자녀와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도록 도와주기
 - 가정의 화목이나 부부 간의 원만한 관계도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알려주기
- 양육자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지원하기
 - 양육자가 불안하거나 우울해하는 등 정서적으로 어려우면 자녀의 필요를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그에 맞게 반응하기 어려워지므로 혹시 양육자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양육자의 심리적 고충을 들어주고 공감해주어 부정적 감정이 발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결 방안에 대해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겠음.

2. 교사와 궁합이 잘 맞지 않는 경우

연령 : 만2세

등원 시간에 담임교사가 맞이하면 부모의 품을 파고들며 울음을 보인다. 부모는 해당 영아가 집에 와서 교사가 무섭고 밉다고 한다며 걱정을 한다. 교사는 영아와 특별히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나누지 않았는데 왜 영아가 교사에 대해 부정적으로 표현하는지 고민한다. 일과 시간 중에 교사가 해당 영아에게 상호작용을 시도하면 시무룩해 하거나 놀이를 중단한다.

가. 원인 분석

- 어린이집에서의 분리불안은 때로 영아와 교사 간의 심리적 부조화로 생길 수도 있음.
 - 교사의 성격이나 수용성, 민감성 정도 등 잠재적으로 지니고 있는 여러 요인과 영아가 맞지 않을 시 영아의 분리불안을 가져오거나 심화시킬 수 있음.
- 교사는 위의 사례에서 영아와 특별히 부정적 상호작용을 나눈 기억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영아는 교사에게 부정적 감정을 드러내고 교사가 자신을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 이는 교사가 특별히 다른 영아와 달리 해당 영아와 부정적 상호작용을 했다기 보다는 영아의 기질을 잘 이해하고 그에 적합한 상호작용을 하지 못했기 때문 일 수 있음.
- 영아의 기질은 순한 기질, 더딘 기질, 까다로운 기질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영아의 기질에 따라 영아에게 더 적절한 다른 교사가 있을 수도 있음.
 - 교사의 성격이나 수용성, 민감성 정도에도 개인차가 있는데 이는 타고난 유전적인 요인과 성장해 온 배경에 따라 달라짐.
 - 이와 같은 교사의 개인변인과 영아의 기질이 서로 '조화의 적합성'이 높을 때 영아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음.
- 교사가 제시한 어린이집에서의 규칙을 영아가 버거워하는 경우도 분리불안이 생길 수 있으므로(이영 외, 2011) 영아의 기관 생활 적응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영아의 분리불안이 교사와의 부조화 때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영아와 다른 교사의 상호작용, 영아에 대한 교사의 감정, 영아에 대한 다른 교사의 반응과 정서 등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함.
 - 같은 영아를 대하는 다른 교사들보다 유독 내가 더 힘들게 느껴지고 부정적 감정이 들거나 관계가 나쁘다면 교사와 영아 간 조화의 적합성이 어긋났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게 됨.

나. 지도 방법

- 교사 스스로 자신의 성격, 수용성, 민감성 등을 점검하기
 - 교사 자신의 성격적 특성과 취약점을 항상 점검하여 개별 영아의 기질적 특성을 이해하고 수용하려면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인식하기
 - 일일보육일지의 실행 기록을 작성할 때, 영아와의 놀이 및 일상생활 활동에서 영아가 보였던 반응, 교사 자신의 상호작용과 태도를 다시 떠올려 보고 자신의 상호작용과 태도가 영아의 기질에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 영아의 특성을 이해하고 수용하였는지 점검하기

〈표 11-2-1〉 교사의 일일보육일지를 통한 점검의 예

연번	내용
1	활동 전이가 쉽지 않은 영아가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하여 정리 시간을 다른 영아 보다 미리 지속적으로 알려 주었는가?
2	규칙적으로 하루 일과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영아는 그 욕구를 수용해 주었는가?
3	반응을 보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영아를 기다려 주었는가?
4	보다 민감하고 큰 반응을 보이는 영아를 수용해 주었는가?
5	기분의 변화가 급격한 영아를 수용해 주었는가?

- 교사도 특정 영아에 대해 싫은 느낌이 들 수 있는데 그 기분을 분석하지 않고 누르고, 감추고, 상대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김재은, 2013).
 - 자신의 기분을 분석해보고 적극적으로 영아에게 다가가는 노력을 해야 함.
 - 성격 중에 좋은 점이 보이면 칭찬도 해주고 그림을 그릴 때는 옆에서 도와주는 등 작은 것부터 실천함.
 - 영아가 ‘선생님이 나를 싫어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감정을 갖게 되면 긍정적인 감정을 상호 교류할 수 있음.
- 개별 영아의 기질적 특성에 적합하게 상호작용하는 방법 제시하기
 - 순한 기질의 영아에게는 일상적이면서도 따뜻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교사와의 친밀감 높이기

순한 기질 영아의 예	
상황	영아가 놀잇감 컵을 입에 가져가서 마시는 척 놀이하고 있다. 교사는 교사가 이동을 하면 울음을 보이는 까다로운 기질의 영아를 안고 있다.
발문	교사는 까다로운 영아를 데리고 멀리서 “○○가 컵으로 꿀꺽꿀꺽 마시고 있네”라며 눈을 마주쳐 준다.

- 까다로운 기질의 영아에게는 보다 수용적이고 민감한 상호작용을 제공해야만 안정감을 느낌.
- 그러므로, 까다로운 기질의 영아가 수용성과 민감성이 높은 교사와 만난다면 어린이집에서의 생활이 훨씬 원활할 것이므로 까다로운 기질의 영아에게는 교사의 보다 더 큰 수용성과 민감성을 보여주기

까다로운 기질 영아의 예	
상황	정리 시간을 힘들어 하고 정리 후 실내에서 실외놀이터로 이동한다든지 하는 공간의 변화를 어려워하는 영아가 있다. 실외놀이터에서 모래 놀이를 하고 있던 중 교사가 정리 시간을 알린다. “애들아, 조금만 있다가 놀이 정리하고 보육실로 들어갈거야.”라고 이야기한다. 해당 영아는 들은 척 하지 않는다. 5분 정도 후 교사가 “자, 이제 모래 놀잇감을 상자에 넣어 보자. 몸을 털고 보육실로 들어가자.”라고 이야기 한다. 해당 영아는 계속 모래 놀이를 한다. 교사가 영아에게 다가가 “○○야, 이제 정리하고 보육실 들어가자. 정리 해 주세요. 선생님이 도와줄까?” 하고 이야기하자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치기 시작한다.
발문	모래 놀이를 하던 중 다른 영아보다 먼저 해당 영아에게 개별적으로 정리 시간이 곧 올 것이라는 것을 알려 준다. 다른 영아는 정리 5분 전에 알려 주면 되지만 해당 영아의 경우 정리 15분전에 5분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이제 곧 정리 시간이란다”라고 알려준다. 즉, 정기적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해당 영아에게 정리 시간이 다가옴을 알려주어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성격이 급한 교사는 더딘 기질 영아를 불편해 하고 그 불편함은 영아에게 고스란히 전해서 영아 자신도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것이므로 더딘 기질의 영아가 모든 활동에서 자신의 속도대로 표현하는 것을 재촉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허용해주기

더딘 기질 영아의 예	
상황	영아가 스푼을 들고 이유식을 먹으려 한다. 스푼으로 이유식을 뜨고 입으로 가져가기까지 한참의 시간이 걸린다. 영아는 입에 넣은 후 입을 다무는데 시간이 걸려 입에서 이유식이 흘러내린다. 영아는 이유식이 흘러내리는 것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발문	교사는 “○○가 혼자서 이유식 먹고 싶구나! 그래, 먹어보렴. 선생님이 기다려 줄게”라고 반응하고 이유식이 흘러내리면 “입을 다물고 냠냠 먹어보자. 흘린 것은 선생님이 닦아줄게”라고 반응하며 영아를 재촉하지 않는다.

교사의 소진 방지하기

- 교사가 운동, 취미생활 영위 등을 통해 건전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 교사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는 바람직한 식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고, 인스턴트식품이나 나트륨, 콜레스테롤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지양하기

여러 가지 유형의 아이에게 유연하게 반응하기(김재은, 1993)

- 교사는 마음에 드는 어떤 한 가지 형의 아이에게만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 적극적으로 아이를 좋아해 주는 기법을 갖기
 - 교사를 무서워하는 아이에게는 상냥하게 대하고 그림그리거나 만들기 시간에 끝맺음을 잘하지 못할 때에 도와준다든지 자유놀이 시간에 손을 잡아주기
 - 교사에 대한 부모의 신뢰가 교사와 영아와의 애착 관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알려주고 교사와 부모 간의 신뢰를 쌓도록 하기

3. 아직 어려서 헤어지기가 어려운 경우

연령 : 만0세

등원할 때 양육자의 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교사가 안아주면 울음을 보인다. 교사의 품에서도 쉽게 안정되지 않고 문을 바라보며 울음을 보인다. 오전 이유식을 주자 머리를 좌우로 흔들며 이유식 숟가락을 피한다. “오늘은 맛있는 닭죽이야. 한번만 먹어보자”라고 교사가 권해도 입을 꼭 다물고 있다. 이유식을 정리하고 영아가 관심 있어할 만한 ‘누르면 소리나는 놀잇감’을 권하지만 흥미를 보이지 않으며 교사의 품에 안겨 있다. 교사가 “○○가 놀이하고 있으면 엄마(또는 아빠)가 회사 다녀 오실거야”라고 이야기해도 계속 교사의 품에 안겨 울음소리를 낸다.

가. 원인 분석

- 만0~1세 영아는 발달상 자연스러운 분리불안을 경험함.
 - 이 시기 영아는 시간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해서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하원 시간이 되고 부모가 데리러 온다는 것을 인식하기 어려움.
 - 영아는 유아에 비해 낯선 상황, 새로운 사건이나 자극 등에 더 큰 위협을 느끼고 무서워하며 이로 인해 심리적 안정감이 깨지기 쉬움.
- 분리불안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 발달 단계상 위의 두 가지 이유로 자연스러운 분리불안을 경험한다고 볼 수 있음.

나. 지도 방법

- 영아에게 일관된 방식의 설명 제공하기

- 교사는 분리불안으로 인해 영아가 부정적인 표현을 보일 때, 늘 부드러운 표정과 목소리로 영아의 감정을 읽어 주기.

영아의 감정 읽어주기의 예	
상황	영아가 자유놀이 시간에 누르면 소리 나는 놀잇감을 가지고 놀이하고 있다. 소리 나는데에 집중하던 영아가 갑자기 “엄마, 엄마”하며 울음을 터뜨린다.
발문	교사는 다가가서 “○○는 엄마가 보고 싶구나! 엄마가 보고 싶어 눈물이 나는구나!”라고 말하며 토닥여 준다.

- 양육자와의 분리 이유와 양육자가 돌아오는 시간을 영아가 이해할 수 있는 일과명을 넣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설명해 주기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설명의 예	
상황	영아가 자유놀이 시간에 누르면 소리 나는 놀잇감을 가지고 놀이하고 있다. 소리 나는 데에 집중하던 영아가 갑자기 “엄마, 엄마”하며 울음을 터뜨린다.
발문	교사는 “놀이하고 코 자고 일어나면 엄마가 오신데. 엄마 빨리 오세요. 하자”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 한다.

□ 영아의 발달 이해하기

- 영아가 새로운 환경과 낯선 성인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 것을 이해하고, 영아가 서서히 새로운 환경과 교사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영아가 원하는 수준에서 교사의 접근과 상호작용 조절하기

□ 불안함에서 벗어나 영아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흥미거리를 찾아 제공하기

- 끌고 다니는 놀잇감, 누르면 빛이 나는 놀잇감, 모양을 맞춰 놓는 놀잇감 등 영아가 흥미 있어할만한 놀잇감을 제공하여 영아의 반응을 유도하기
- 촉각, 시각, 후각, 미각, 청각을 이용하여 탐색할 수 있는 안전한 물질(여러 가지 종이, 두부, 요플레, 다양한 과일과 야채 등)을 제공하기

4. 아기 때부터 쓰던 물건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경우

연령 : 만 1세

영아가 손에 아기 때 쓰던 담요를 들고 부모님과 등원한다. 교사가 “안녕, ○○야, 어서와. 손에 담요를 들고 있네~”라고 이야기 한다. 영아가 보육실로 들어와 한 손에 담요를 들고 책을 보고 있다. 역할·쌓기 영역으로 이동해 블록을 쌓더니 불편한지 담요를 바닥에 놓는다. 영아가 계속 담요를 놓은 채 블록을 쌓는다. 교사가 다가가 “○○야, 담요를 서랍에 놓고 올라? 자꾸 밟히네~”라고 이야기하자 영아는 “으흥”하고 큰 소리를 내더니 담요를 얼른 집어 품에 안는다. 영아는 쉬는 영역으로 이동해 담요를 품에 꼭 안고 누워 있다.

가. 원인 분석

- 대물애착은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보는 경우가 더 많음.
 - 드물게는 초등학교 고학년까지의 대물애착도 정상적인 것으로 분류하기도 함.
 - 교사나 부모의 과도한 걱정은 오히려 영유아를 불안하게 할 수도 있음.
 - 대물애착이 정상적인 발달 과정상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심해질 경우, 적절한 지도가 필요함.
- 양육자와의 불안정 애착으로 특정 사물에 대한 과도한 애착이 형성될 수 있음.
 - 양육자가 영아에게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하지 못함.
 - 양육자가 수용적이지 않음.
 - 양육자가 영아에 대해 비일관적인 양육태도를 보이거나 영아의 욕구를 적절하게 충족시켜 주지 못함.
 - 위와 같은 경우,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영아는 특정 사물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함. 불안한 상황으로부터 해소하기 위하여 안전 기지를 탐색하게 되는데 그 대상이 편안함을 느끼던 물건이 대상이 됨.
- 가족 관계의 문제가 있음.
 - 가족 간에 원만하지 않은 관계형성으로 인해 영아에게 불안감 조성함.

나. 지도 방법

□ 영아의 반응 허용하기

- 해당 물건에 대한 집착을 허용하여 일과 중에 영아가 원할 때면 언제든지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하기

물건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의 예	
상황	영아는 등원하면서 손에 큰 목욕 수건을 들고 있다. 엄마가 “○○야, 선생님이랑 인사하고 수건을 사물함에 넣어 두자”라고 말하자 “이잉, 이잉”이라고 소리를 지른다.
발문	교사가 “○○가 수건을 들고 있고 싶구나. 그럼, 수건을 가지고 보육실로 들어올래? ○○가 들고 있고 싶은 만큼 수건을 가지고 있으렴”

- 담요, 스카프 등에 집착을 보이면 일과 중에 가지고 발로 밟아 넘어지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사가 도움을 주어 안전하게 일과를 보내도록 하기

안전에 유의하기의 예	
상황	영아가 애착을 보이는 큰 목욕 수건을 화장실 갈 때 손에 들고 이동한다.
발문	교사는 “○○야, 걸어갈 때 수건을 밟아 넘어질 것 같아. 선생님이 수건을 맡아줄게. 자, 수건을 안고 가자”라고 이야기한다.

- 새로운 물건 제시와 또래와의 관계 형성을 통해 다양한 자극에 노출시켜주기 (서명원 외, 2010)

다양한 자극에 노출시켜주기의 예	
상황	영아가 한 손에는 수건을 들고 한 손으로 자동차를 움직이고 있다.
발문	교사는 “○○가 자동차를 움직이고 있구나! 여기 블록이 있어. 블록으로 자동차길을 만들까?”라며 두 손으로 블록을 움직여 쌓도록 제안한다. 영아가 한 손으로 블록을 들어 움직이려다 잘 되지 않자 잠시 수건을 내려놓는다. 블록을 두 개 연결시키더니 주변을 살펴보고 다시 수건을 집어 든다. “수건을 찾았구나! 다시 들고 있고 싶어. 그래 수건을 들고 놀이해 볼까?”라고 이야기 한다.

□ 영아-양육자 안정 애착 형성을 위한 방법 제시하기

- 양육자와 헤어져도 만나도 힘든 경우에 「문제행동 사례 1」에 제시된 민감하고 반응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지도방법을 참조하여 부모교육을 진행하기
- 양육자가 영아의 기질적,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영아의 행동과 반응에 대한 일관성 있고 넓은 수용성을 증진시키도록 돕기
- 영아와 함께 있는 시간 동안은 온전히 영아에게 집중하고 자주 눈을 맞추며 이야기를 하고, 이외에 로션 발라주기, 과자 먹여주기, 서로 얼굴 만져보기 등 긍정적인 신체적 접촉을 통한 놀이도 도움이 됨.

- 가족 관계 문제 해결을 위한 조언하기
 - 가족 면담을 통해 가족 간의 원활하지 않은 관계가 영아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기
 - 교사가 조력해서 해결될 수 있는 가족 관계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전문상담 기관, 또는 전문 치료 기관을 소개하여 가족 관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5. 갑작스러운 변화에 불안해하는 경우

연령 : 만 2세 성별 : 여

어머니의 출산으로 가정에서 돌보아 줄 성인이 없어 할머니 택으로 영아가 보내진다. 할머니 손을 잡고 등원한 영아는 놀이를 하지 않고 눈물을 보인다. 교사가 평소 영아가 선호하던 놀잇감을 제시해도 관심을 보이지 않고 교사에게 안아 달라고만 요구한다. 교사가 영아의 바로 옆에 있지 않으면 바로 교사를 찾으며 울음을 보인다.

가. 원인 분석

- 가정에서 지내다가 기관에 처음 적응할 때 주위의 변화로 불안해할 수 있음.
 - 어린이집에 처음 등원하는 경우나 이사 등의 이유로 어린이집을 옮기는 경우가 속함.
- 어린이집에서 잘 적응을 했다가도 새로운 교사와의 만남으로 불안할 수 있음.
 - 새학기 교사와의 만남으로 불안할 수 있음.
 - 학기 중에 애착이 이미 형성된 교사와 헤어지고 새로운 교사를 만나는 경우가 속함.
- 가정에서의 변화가 기관 생활에 영향을 미쳐 기관에서 불안해 할 수 있음.
 - 이사로 인한 주위의 변화로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낌.
 - 동생 출생으로 인한 가정환경의 변화가 불안감을 야기함.
 - 부모의 불화로 인한 불안감이 조성됨.

- 모의 취업으로 인하여 어린이집을 처음 이용하거나 기관 이용시간이 늘어나는 경우 심리적 불안감을 느낌.

나. 지도 방법

영아의 반응 수용하기

- 갑작스러운 물리적, 인적 환경 변화 때문에 영아가 불안감을 보이고 그 불안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과도한 대물 애착을 보일 수 있음을 이해하기
- 불안한 마음을 따뜻하고 부드러운 태도와 언어로 읽어주기

불안한 마음 읽어주기의 예	
상황	등원해서 시무룩한 얼굴로 또래가 놀이하는 모습을 바라보던 영아는 자신의 사물함으로 뛰어가 엄마의 냄새가 베인 스카프를 가지고 온다.
발문	교사는 “○○야, 엄마가 보고 싶구나! 엄마가 보고 싶어서 스카프를 가지고 오고 싶었구나!”라고 이야기한다.

영아에게 불안을 조장하는 원인 찾아 해결하도록 부모와 협력하기

영아에게 흥미 있는 놀이 안내하기

- 특정 대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놀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영아의 발달에 적합하고 영아가 흥미를 보일 수 있는 다양한 놀이를 제공하고 함께 놀이하기
- 0세는 까꿍 놀이, 1세는 물 마시는 흉내 내기, 아기 안아주는 흉내 내기 등 간단한 모방행동과 관련된 놀이, 촉감길 걷기, 공놀이 등 신체 활동 놀이, 2세는 모형 자동차 놀이, 음식 만들기 놀이, 가위 놀이 등을 제공하기
- 개별 영아를 세심히 관찰하여 선호하는 놀잇감과 놀이를 파악하고 영아의 마음을 충분히 읽어주고 난 뒤, 영아가 놀잇감과 놀이로 관심이 전환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선호하는 놀잇감과 놀이 제공하기

개별적이며 특별한 보살핌 제공하기

- 교사가 자신을 다른 또래보다 더 특별하게 여긴다고 느끼도록 1:1 상호작용 시간을 늘리기
- 영아와 1:1로 놀이하기, 낮잠 자기 전 토닥이면서 상호작용하기, 기저귀 갈이하면서 개별 상호작용 하기 등을 실행하기

- 영아를 쓰다듬거나 안아주는 등의 신체 접촉 이외에 영아와 코 비비기를 한다던가, 이마를 마주 대어 본다든가, 간지럼 태우기를 하는 등의 다양한 신체접촉을 시도하기

6. 무조건 울어 버리는 경우

연령 : 만1세

영아가 보육실의 감각·탐색 영역에 앉아 바닥에 쌓기 컵을 옆으로 길게 늘어뜨리고 있다. 그 옆을 다른 또래가 지나가자 갑자기 영아가 울음을 터뜨린다. 교사가 다가가 “○○야, 뭐가 불편하니?”라고 묻자 손가락으로 옆을 지나갔던 또래를 가리킨다. “△△가 불편하게 했어? 어떻게 했는데?”라고 교사가 이야기하자 계속 지나갔던 또래를 가리키며 운다. “○○가 이야기 해 주어야 선생님이 도울 수 있어”라고 교사가 이야기하자 영아는 손가락으로 다시 지나갔던 또래를 가리키며 “나를”하며 손으로 자신의 몸을 친다. 교사가 해당 또래를 쳐다보자 그 영아도 교사를 쳐다본다. 교사가 “○○야, △△가 몸을 치고 갔어?”라고 묻자 영아는 “응”하고 대답한다. 또래는 “아니야”하면서 교사를 가만히 쳐다본다.

가. 원인 분석

- 영아들 중에는 상황에 대한 인지적 이해 능력이 낮아 상황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음.
 - 이와 같은 경우에 특히 영아는 상황을 자신에게 부정적인 상황으로 인식하기 쉬움. 예를 들어, 또래가 옆을 지나가는 것을 자신을 때리려 한다고 생각한다면, 또래가 물건을 짚다가 몸을 건드리면 자신에게 공격적 행동을 나타냈다고 생각하는 경우임.
 - 상황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부정적인 감정의 표현으로 나타나고 영아들은 부정적 감정의 표현 중에 울음을 선택하는 경우가 다수임.
- 언어적으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기 어려워서 언어적 표현의 한계를 느끼고 울음을 선택함(서울시보육정보센터, 2012).
 - 자기의 요구, 불만, 호소 등을 입으로 말하지 않고 우는 것으로 나타내거나 요구함.

- 경험과 기술 부족으로 사회적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이 낮는데 문제 상황에서 우연히 올랐더니 예상 밖의 좋은 결과를 얻어서 잘못된 학습이 강화됨.
 - 울음이 관심을 끌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것을 알고 집중을 얻으려고 사용함(Eva L Essa., 1988).
 - 잘못을 용서받거나 무마되고 난 후 자기방어의 용도로 사용함(이유미 외, 2003).
 -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 우는 것으로 나타내거나 요구함(김재은, 2013).
 - 책임회피의 수단으로써 비난받을 때 울면 상황을 피할 수 있음(김재은, 2013).
- 의사전달 기술이 미숙하기 때문임(이순례 등, 2001).

나. 지도 방법

- 영아에게 정확한 상황 설명하기
 - 상황을 정확히 다시 이해할 수 있도록 교사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상황 설명하기

구체적인 상황설명하기의 예	
상황	영아는 자신의 옆을 지나가는 또래가 자신의 몸을 스쳤을 때 자신을 때렸다고 이해하며 울음을 보인다.
발문	교사는 “○○야, △△가 너를 때렸다고 생각했구나! 그런데 △△는 자동차를 잡으려고 했다. 자동차를 잡으려다가 너의 몸을 살짝 건드렸데”라고 이야기한다.

- 영아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 문장과 표정, 동작과 같은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 모두를 사용하여 설명하기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설명하기의 예	
상황	영아는 자신의 옆을 지나가는 또래가 자신의 몸을 스쳤을 때 자신을 때렸다고 이해하며 울음을 보인다.
발문	교사는 영아에게 움직임을 보이며 설명한다. “○○야, 네 옆에 자동차가 있지. △△가 선생님처럼 자동차를 짚으려다가 ○○의 몸을 건드렸데”

- 상황이 이미 지나간 후 설명하면 영아는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류를 겪을 때마다 지속적이고 즉각적으로 설명하기

- 상황 이해를 돕는 활동 진행하기
 - 1~2세 영아에게는 쉽게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그림책을 선정하여 1:1로 보며 상황에 대해 교사와 함께 이야기하기

그림책 보기의 예	
상황	한 명의 영아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 그림 즉, 한 명의 영아가 놀이하거나, 급간식을 먹는 등의 그림책에서 시작하여 두 명 이상의 영아가 함께 무언가를 하고 있는 그림 즉, 한 명의 영아가 블록을 쌓고 그 옆을 다른 영아가 지나가는 그림, 한 명의 영아가 블록을 쌓고 다른 한 명의 영아가 블록을 쌓고 있는 영아의 옆에 있는 놀잇감을 잡으려고 하는 그림 등을 함께 보며 정확한 상황을 교사와 이야기한다.
발문	“○○야, 그림책 속의 친구들이 무엇을 하고 있지? 이 친구가 옆을 지나가니까 나머지 한 친구가 울고 있네. 왜 울까?”

- 교사는 영아가 그림에 나오는 간단한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돕고 언어로 명료화 해 주기
- 울어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건설적인 대안을 찾도록 도와주기

울음 외의 대안 찾기의 예	
상황	○○가 다른 영아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을 가지려고 하자 다른 영아가 장난감을 들고 자리를 떠났다. 그러자 ○○는 울면서 장난감을 가지고 간 다른 영아를 손으로 지목한다. 교사는 잠시 동안 모르는 체 놔 두었다가 등 뒤에서 어깨를 두드리며 교사를 보게한다.
발문	“○○야, 왜 우는거지? 이유를 말해 줄 수 있어? 말하지 않으면 선생님이 알 수 없잖아.” 이유를 듣고 난 뒤, “아아, 그런 일이라면 울지 않아도 될 걸 그랬구나. 다른 장난감을 같이 찾아보자.” 하고 충분히 격려해준다.

- 우는 원인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기(김재은, 1993)
 - 아이가 슬플 때나 짓궂은 일을 당했을 때, 아플 때, 분할 때 등은 위로해 주기
 -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할 때나 주목을 끌려고 할 때, 책임을 회피하려고 할 때, 자기방어를 하려고 할 때의 울음에는 오히려 위로가 역효과를 내므로 위로해 주지 않기
- 여러 개입이 효과가 없을 시 적극적으로 무시하고, 교사의 개입에 따르는 바람직한 행동을 보일 때 강화해 줌(이순례 등, 2001).

7. 늘 기분이 좋지 않은 경우

연령 : 만2세

오전실내자유놀이 시간에 휴식 영역으로 간다. 쿠션에 기대어 눕는다. 시무룩한 얼굴로 역할·쌓기 영역에서 놀이하는 다른 또래들을 가만히 쳐다본다. 교사가 다가가 “○○가 쉬고 싶구나!”라고 이야기 하자 영아는 고개를 끄덕인다. 교사는 “조금 쉬다가 놀이하러 오렴”하고 이야기 한 후 다른 또래들이 있는 곳으로 간다. 10정도가 지난 후 교사가 다시 가서 “○○야 다 쉬었어. 놀이할까?”라고 묻자 영아는 고개를 젓는다. 영아는 점심을 먹고 나서도 휴식 영역에 누워 있고 오후자유놀이 시간에도 시무룩한 얼굴로 휴식 영역에 누워 있다. 그 다음날도 놀이 시간에 시무룩한 얼굴로 휴식 영역에 있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관찰된다.

가. 원인 분석

- 영아 중에 기질적으로 행복하지 않은 기분(mood)를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있음.
 - 기질적으로 일과가 불규칙적이며 반응성과 민감성이 높은 까다로운 기질의 영아가 행복하지 않은 기분(mood)을 타고 나는 경우가 다수임.
 - 감정이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는 것이라고 생각되나, 4세경에는 말로 호소할 수 있게 되므로 그다지 울지 않는 것이 보통임(이유미 외 2003).
 - 감정면에서 자립성 발달이 다소 더딘 경우가 있음(김재은, 1993).
- 영아-부모 관계가 불안정하여 영아가 늘 우울한 경우가 있음.
 - 부모와의 관계가 불안정하여 부모에게서 만족스러운 정서적 안정감을 갖지 못하는 경우 좋지 않은 기분이 계속 유지됨.
- 특정 시기에 특정한 문제(부모 불화, 이사, 가족의 질병, 동생의 태어남)로 인해 부정적인 기분이 많은 경우도 있음.
 - 부모간의 싸움을 영아가 목격하고 부모의 불화를 인지한다든지, 이사를 해서 생활환경이 갑작스럽게 바뀐다든지, 가족 중에 누가 아파서 가정 분위기가 우울하다든지, 동생의 태어남으로 동생에게 양육자의 관심이 집중된다든지 하는 특정한 문제로 영아가 우울한 정서를 유지하는 경우도 나타남.

나. 지도 방법

□ 개별 영아의 기질 이해하기

- 「아동발달」 등의 이론서를 바탕으로 영아의 기질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를 이해하기
- 기질적 요인으로 인해 영아의 기분이 늘 가라앉는 것이라면, 그로 인해 가장 힘든 사람은 영아 본인임을 이해하고 배려하기

□ 개별 영아의 기질 수용하기

- 기질적으로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은 타고난 것이므로 교사가 이를 바꾸려 하기 보다는 수용하고 이해하는 것이 영아를 보다 더 편안하게 하는 것임을 인식하기

영아의 기분을 읽어 주기의 예	
상황	영아가 침울하고 우는 듯한 표정으로 휴식 영역에 앉아 있다.
발문	교사는 “○○가 휴식 영역에서 쉬고 싶구나!”라고 영아의 기분을 읽어 주며 공감한다는 표정을 짓는다.

- 개별 영아를 관찰하여 영아의 기분이 전환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기질 파악하기

영아의 기분이 전환될 때까지 기다려주기의 예	
상황	영아가 침울하고 우는 듯한 표정으로 휴식 영역에 앉아 있다.
발문	교사는 영아 옆에 앉아서 “그래, 다시 놀이하고 싶으면 오렴. 선생님이 놀이를 도와줄게”라고 이야기 한다.

□ 부모 면담·공동의 해결책 강구하기

- 기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영아의 우울한 분위기가 부모와의 관계에서의 문제인지, 특별한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인지 원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부모 면담 진행하기
- 영아 관찰기록을 부모와 함께 보며 영아의 우는 행동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영아-부모 관계, 가정에서의 특별한 사건 등을 통해 원인을 인식하기
- 부모 면담을 통해 교사와 부모가 원인을 찾는 가운데서 해결책도 함께 구상하기
- 교사는 부모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그 의견에 대한 전문적 조언, 견해를 첨가하기
- 가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어린이집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 가정과 어린이집 모두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찾기

부모 면담·공동의 해결책 강구의 예	
상황	양육자가 교사에게 와서 구체적인 사례를 이야기 하며 도움을 요청한다. “선생님 ○○가 집에서 내내 울음을 보여요. 밥을 먹자해도 울고 이를 닦자 해도 울구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발문	“○○가 우는 행동에 대해 감정을 읽어 주세요. 예를 들어 ○○야 이닦기가 싫구나! 이렇게 아무 것도 하기 싫고 짜증날 때도 있는 거래. 조금 쉬었다가 기분이 좀 나아지면 해볼까?”라고요. 그리고 대안으로 영아에게 선택권을 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칫솔이 여러 개 있어. 그 중에서 ○○가 마음에 드는 칫솔로 닦을 수 있는데라고 이야기 해 주세요.”

- 부모-영아 안정적 관계 형성 유도하기
 - 관찰 결과 영아의 기질이 우는 행동의 원인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원인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부모 면담 실시하기
 - 영아 관찰기록을 부모와 함께 보며 영아의 우는 행동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 영아-부모 관계, 가정에서의 특별한 사건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 부모와 불안정한 관계가 문제라면 교사가 부모가 영아와 안정적인 관계를 맺도록 수용적이고 반응적인 상호작용을 코칭하기
- 특별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도록 기다리기
 - 이사 등의 환경적인 변화가 문제라면 환경 변화에 영아가 서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부모, 교사가 기다려 주기
 - 동생이 양육자에게 주목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동생과 동일한 행동을 하고자 하여 퇴행이 나타나며 울음이 늘어나기 때문에 교사는 동생이 태어나는 것이 영아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줌을 이해하고 수용적인 태도 보이기
 - 가정과 연계하여 부모가 영아에 대해 보다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영아와 1:1 상호작용을 늘릴 수 있도록 돕기

8. 아직 어려서 화를 참을 수 없는 경우

연령 : 만 1세

교사는 낮잠 시간이 끝나가자 커튼을 걷고 불을 켜다. 개별 영아들에게 다가
가 “애들아, 일어나자”라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한다. 영아들이 하나 둘씩
낮잠 매트에서 일어난다. 교사는 “애들아, 선생님이 낮잠 매트 정리할게. 조용한
놀이 해보자”라고 이야기한다. 그 중 한 명의 영아가 눈을 뜨고 일어나더니 발
버둥을 치며 울기 시작한다. 교사가 다가가 “○○가 왜 화가 났을까? 더 자고
싶니?”라고 묻자 반응하지 않고 계속 발버둥을 치며 화를 낸다. “○○가 더 자고
싶으면 누워 있어도 돼”라고 교사가 이야기해도 반응하지 않고 발버둥을 친다.

가) 원인 분석

- 신경학적 미성숙으로 인해 영아가 자신의 분노를 사회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
준에서의 조절이 어려운 경우가 나타남.
 - 목적이 좌절되거나 방해받았을 때 강한 분노로 나타남(이영 외, 2011).
- 행동화하고 난 후 관심을 받거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잘못 강화되어 지속되는
경우가 있음.
- 주변어른의 행동 양식을 모방했을 가능성이 큼(신혜영, 2013).

나. 지도 방법

- 영아가 신경학적으로 성숙될 때까지 기다리기
 - 언어, 인지, 사회, 신체 영역의 신경학적 발달이 진행되는 것처럼 정서영역의
신경학적 성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해하기
 - 신경학적 성숙에는 개인차가 있음을 이해하기
- 영아가 분노를 폭발할 때 영아의 옆에서 영아의 감정을 읽어 주며 감정이 사그
라질 때까지 기다리기
 - 영아가 표현하는 감정을 그대로 읽어 주기

- 분노의 원인을 알면 그 내용을 반영해 읽어 주고 분노의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표현하는 감정 자체를 읽어 주기

감정 읽어 주기의 예	
상황	낮잠 시간이 끝나 모든 영아가 일어났다. 해당 영아도 일어나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한다.
발문	“○○가 더 자고 싶었구나! 기분이 좋지 않구나~ 선생님이 알겠어.”하며 영아의 감정을 읽어 준다.

- 분노 폭발이 사그라질 때까지 영아의 감정을 지속적으로 읽어 주며 옆에서 기다려 주면서 진정시키기

기다려주기의 예	
상황	낮잠 시간이 끝나 모든 영아가 일어났다. 해당 영아도 일어나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한다.
발문	영아가 발버둥을 치고 바닥을 구르면 “○○야, 선생님이 ○○가 발을 구르지 않을 때까지 옆에 있어줄게. 선생님 도움이 필요하면 이야기해”라고 이야기 한다. 영아의 발버둥과 바닥 구름이 잦아들면 “○○야, 선생님이 좀 안아줄까?”라고 이야기하며 영아를 안아 달래주면서 안정감을 갖도록 한다.

-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자해하거나,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등의 행동에 대해서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제한하기

□ 주변 환경 정리하기

- 영아가 분노에 대한 표현 중 발버둥을 치거나 바닥을 구를 때 주변의 사물, 비품에 영아의 신체가 다치지 않도록 주변을 정리하기

주변 정리하기의 예	
상황	놀잇감 다툼으로 영아가 발버둥을 치고 바닥을 구른다.
발문	영아가 발버둥을 치고 바닥을 구르면 “○○가 놀이감을 갖지 못해 속이 많이 상하지. 선생님이 그 마음을 알겠어. 어떻게 하면 기분이 좋아질까?”라고 이야기 하며 주변의 사물을 치운다.

- 분노의 표현으로 가까이에 있는 또래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할 수 있으므로 주변 또래가 피할 수 있도록 하기

가까이에 있는 또래가 물러서도록 하기의 예	
상황	놀잇감 다툼으로 영아가 발버둥을 치고 바닥을 구른다. 분노 폭발을 보이는 영아 옆에 또래가 다가가려고 한다.
발문	교사는 “△△야, ○○가 화가 많이 났어. 옆으로 지나가면 더 화를 낼 것 같아. △△는 끄적이기 하러 가자~”라고 이야기 한다.

- 교사가 모델링을 통해 상황별 정서에 대해 이름붙이기, 변별하기, 정당화해주기를 알려주기

- “속상했지” “서운하구나” “아주 흐뭇하구나” “짜증났나보네” “슬프구나” “화가 났나보네?” 와 같이 영아의 상황에 맞는 감정을 찾아 이름 붙여주기
 - 행동의 원인을 찾아주어 그런 상황에서 해당 감정이 드는 것이 당연함을 인정해주기
 - “친구가 장난감을 뺏으면 속이 상할 수 있어”, “엄마가 가서서 슬프지? 그런데 엄마는 약속한 시간이 되면 00를 만나러 오실거래”, “친구가 나눠줘서 기분이 좋구나? 00가 웃으니까 선생님도 기분이 좋네!”
- 행동화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행동화하더라도 아동 요구가 관철되지 않도록 하여 이 방식을 포기하도록 유도하기
- “00가 속이 상해서 눈물이 자꾸 나는구나. 그런데 00가 운다고 선생님이 다 해결 수가 없어요.”
 - 내용상 제한을 가해야하기 때문에 단호해야 하지만, 태도는 부드러워야 하고 신경질이나 화를 내지 않도록 주의하기

9. 선천적으로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경우

연령 : 만 0세

교사가 영아를 무릎에 안고 누르면 빛이 나는 놀잇감으로 함께 놀이하고 있다. 놀이집 앞의 다른 토레가 넘어지자 교사가 영아에게 “○○야, 잠깐만 △△한테 갔다올게”라고 일어서자 갑자기 울며 바닥을 구르기 시작한다. 교사는 넘어진 토레를 일으켜 세워 안아주고 나서 해당 영아에게 다가간다. 교사는 “○○야, 선생님이 친구가 아파해서 갔다 왔어. 이제 다시 안아줄 수 있는데... 안아줄까?”하고 영아의 어깨에 손을 대자 영아는 머리를 바닥에 박기 시작한다.

가) 원인 분석

- 까다로운 기질을 타고남.
- 높은 민감성, 반응성과 낮은 규칙성 등을 나타냄.
 - 분노의 표현으로 자해를 하는 경우 충동 조절성이 낮을 가능성 있음.

- 부적 정서에 민감함.
 - 어린이집 환경, 또래에게 불편함, 불만을 느끼기 쉬움.
 - 불편함, 불만을 분노로 표현함.
- 가계의 특성이 있음.
 - 부모 면담을 통해 부모도 영아와 마찬가지로 분노 폭발의 성향이 있는지 조심스럽게 확인해야함.
 - 양육대상이 적절하게 감정을 읽어주고 달래주었던 경험이 부족한지 확인함.
 - 부모는 성인이기 때문에 영아보다는 분노 폭발의 빈도와 강도가 약하더라도 분노 조절이 어려운 성향이라면 영아가 유전적으로 분노 조절에 취약한데다가, 환경적으로도 분노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고 폭발하는 성인 모델에 노출되어 있는 셈임. 이 경우 유전적 취약성과 환경적 위험 요인을 모두 가지고 있어 분노 조절이 어려운 경우라 볼 수 있음.

나. 지도 방법

- 까다로운 기질 이해하기
 - 까다로운 영아는 전체 영아의 10% 정도로 나타남. 까다로운 기질의 영아는 신체적으로, 생리적으로 항상 각성되어 있어 조그만 자극에도 금방 반응함.
 - 주위 환경에 민감하지만 자기 주장이 강하여 스스로 일처리를 잘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호기심과 창의력이 높은 편임.
 - 한 가지 일에 강한 집중력을 보이므로 주의를 적절히 전환해주고 하루 일과를 미리 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됨.
 - 까다로운 기질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 이해하기

충동 조절성이 낮은 영아의 예	
상황	미끄럼틀 계단 위를 오르던 영아는 갑자기 아래를 보더니 뛰어 내린다.
발문	영아가 미끄럼틀을 오르기 전에 안전과 관련하여 이야기 한다. “○○야, 미끄럼틀은 계단으로 다니자. 계단 위에서 뛰어 내리면 다칠 수 있어.”

민감성, 반응성이 높은 영아의 예	
상황	놀잇감을 가지고 가다가 지나가는 영아가 살짝 스쳤다. 스친 포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를 지르고 운다.
발문	교사는 “많이 아팠구나! 친구랑 스쳐서 아팠어. 살짝 스친 거라서 조금 있으면 괜 찮아진대”라고 이야기 한다.

- 순한 기질의 영아보다 모든 부분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므로 놀잇감 선택, 공간 이동 등에 대해 다른 영아보다 미리 알려 주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 포대보다 민감하고 반응성이 큰 영아는 주변의 자극이 위협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진정시키기
- 영아의 행동을 가계의 특성으로 이해하고 수용하기
 - 부모 면담을 통해 영아의 기질이 가계에서 연유된 것이 아닌지 확인하기
 - 영아의 분노 폭발이 타고난 특성이므로 쉽게 조절되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여 영아의 감정 상태에 대해서는 이해하나 감정을 행동화(acting out)하는 것은 제한하기
- 부모가 자신의 성격 특성을 이해하도록 코칭하기
 - 부모의 분노 폭발 모습이 영아에게 모델링 효과를 가져다줄을 부모가 인식하도록 부모 면담 진행하기
 - 부모가 자녀의 분노 폭발 모습을 관찰하고 그 모습이 자신의 모습에서 연유했을 수 있음을 인식하도록 돕기
 - 부모 자신이 스스로의 성격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한 성격 검사(예를 들어, MBTI, 애니어그램 등)를 소개하기
 - 성격유형검사, 원가족 경험을 통해 부모의 정서 상태를 알아보고 부모교육을 실시하기
 - 부모 자신이 분노 조절이 어려움을 인정하고 스스로 조절해 볼 수 있도록 부모의 ‘일일분노 저널’쓰기 제안하기
- 까다로운 아이에게 적합한 양육태도를 부모에게 알려주기
 - 주변의 변화를 단계적으로 접하게 하며 미리 계획 알려주기
 - 양육자의 인내심과 침착함을 필요로 하기
 - 영아의 감정을 받아주고 감정에 공감하기

- 영아가 안정감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기
- 영아가 즐거운 감정을 표현하도록 지지하고 격려하기

10. 우연한 반복으로 인한 즐거움이나 위안 받고 싶은 욕구를 자위로 표출하는 경우

연령 : 만 0세 성별 : 여

낮잠을 자던 영아가 눈을 뜬다. 심심한지 손으로 얼굴을 만져보았다가 다리를 만져본다. 영아가 갑자기 침대에 누워 두 다리를 꼬아 올린다. 두 다리에 힘을 주고는 양 손으로 기저귀를 만지기 시작한다. 다리에 힘을 준채 계속 양 손으로 기저귀를 만진다. 교사가 그 모습 보고 “○○야, 잘 잤니? 우리 일어날까?”하고 말한다. 영아는 교사를 쳐다보고 웃는다. 교사가 영아를 안아 놀이 공간으로 이동한다. 놀이 공간 매트 위에 영아를 앉히고 영아가 평소에 좋아하던 딸랑이를 손에 쥐어 준다. 영아는 딸랑이를 흔들며 보더니 다시 매트 위에 누워 다리를 꼬아 올린다. 두 다리에 힘을 주고 기저귀를 계속 만지기 시작한다. 그 다음날도 낮잠 자기 전과 낮잠 자고 일어나서 동일한 행동을 한다.

연령 : 1세 성별 : 여

교사가 영아의 손을 함께 잡고 커다란 종이가 붙여져 있는 바닥에 앉는다. 교사가 영아에게 “크레용으로 끄적여 볼까?”하며 활동을 제안한다. 영아는 크레용 상자에서 파란색 크레용을 들고 종이에 끄적여 본다. 교사는 영아가 끄적여기를 시작한 모습을 살펴보더니 다른 영아들이 놀이하는 곳으로 이동한다. 영아는 이동하는 교사를 보고는 우는 소리를 내며 따라간다. 영아는 교사의 다리에 매달린다. 교사가 “○○가 선생님이랑 함께 있고 싶었구나!”라고 말하며 영아를 안아 올린다. 영아는 우는 소리를 멈추고 교사의 가슴에 자신의 몸을 밀착한다. 빨간 자동차를 서로 가지려고 다투는 다른 영아의 모습을 보고 교사가 “애들아, 여기에도 똑같은 자동차가 있어”라고 말하며 안고 있던 해당 영아를 바닥에 내려 놓고 다투는 영아들에게 간다. 영아는 교사를 보며 “이잉”울음을 보이더니 교구장 모서리에 성기를 문지르기 시작한다. 교사가 다시 영아에게 오자 성기 문지르기를 멈추고 교사에게 다시 안아 달라고 한다.

가. 원인 분석

- 영아들은 보통 15~19개월 때 자위를 시작하며, 이 시기에 자위를 하는 것은 성기 부위를 자극하면서 오는 쾌감과 자신의 몸을 탐구하는 욕구의 결합 때문임.
- 혼자 있거나 무료할 때 자신을 달래주는 수단으로 자위를 하게 됨(이영, 2011).
- 우연한 기회에 성기의 자극으로 쾌감을 느껴 자연스럽게 행하게 됨(이순례 등, 2001).
- 적절한 행위를 구별 못할 경우에 행하게 됨(이순례 등, 2001)
- 호기심과 탐색을 좋아하는 유아의 습성 때문에 행하게 됨(교육부, 1997).

나. 지도 방법

- 자위나 성 관련 문제는 각 유형에 따른 서로 다른 지도법이 있다기보다는 각 유형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공통의 지도법을 제시하기
- 자위로 인한 쾌감을 넘어서는 즐거운 활동 제공하기
 - 영아를 관찰하여 영아가 좋아하는 놀이를 파악하여 영아의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놀이 활동 제공하기

영아가 좋아하는 놀이 활동 제공의 예	
상황	영아가 바닥에 누워 손을 바지 속에서 넣어 성기를 만지고 있다.
발문	교사는 영아가 평소에 선호하는 촉감 공을 꺼내 든다. 교사는 “○○야, 여기 공이 있네. 선생님이 ○○에게 공을 굴려 볼께. ○○가 선생님한테 다시 공을 주렴”라고 이야기한다. 영아는 몸을 일으키고 공을 쳐다본다. 공이 굴러 오자 영아는 바지에서 손을 빼고 공을 잡는다.

- 발달 수준을 파악하고 영아의 발달 수준에서 쉽게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활동 제공하기

영아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 제공의 예	
상황	영아가 역할 영역에서 한 손은 바지 안에 넣어 성기를 만지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강아지 인형을 만지고 있다.
발문	교사는 “선생님은 침대를 만들어서 강아지를 재워줘야지!”라며 옆에서 병행놀이를 시작한다. 해당 남아가 교사의 구성물에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한다. 교사는 “선생님이랑 같이 만들어 볼래? 자, 우리 침대를 만들어보자.”라고 상호작용한다. 영아는 구성을 하기 위해 바지 속에 넣었던 손을 빼다. 완성 후 교사는 “와, 강아지를 톡톡 재워줘야지. ○○가 도와 주니까 금새 만들 수 있었네~”라며 영아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격려한다.

□ 영아의 지루함 덜어줌.

- 낮잠 자기 전, 낮잠에서 깨어났을 때 영아는 쉽게 지루함을 느낄 수 있으므로 교사는 자위를 나타내는 영아 옆에서 토닥여 주거나 두 손을 잡고 자장가를 불러주며, 마사지를 해 주는 등 교사가 함께 시간 보내 주기

함께 시간 보내기의 예	
상황	영아가 낮잠 시간이 되어 매트에 눕는다. 베개 위에 엎드려 눕더니 베개에 몸을 문지르기 시작한다.
발문	교사는 영아의 매트 옆에 앉아 “○○야, 선생님이 토닥토닥해 줄게. 똑바로 누워 보자.”라며 베개를 제자리에 놓고 영아를 똑 바로 눕힌다. 교사는 영아의 가슴을 손으로 가볍게 토닥이며 자장가를 불러준다. 영아가 잠들 때까지 계속 옆에 앉아서 토닥인다.

- 일상생활 활동 진행시 책보기, 감각·탐색 활동 등 조용한 놀이를 함께 제시하여 영아가 개별적으로 교사의 도움을 받아 일상생활을 하고 나머지 영아는 기다리지 않도록 하기

기다리는 시간 줄이기의 예	
상황	여러 명의 영아가 동시에 밥 먹기를 끝내 이 닦기를 하려고 세면대 앞에서 기다린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자 벽면 모서리에 성기를 비비기 시작한다.
발문	교사는 그 중 한 명의 영아는 이를 닦도록 돕고 나머지 영아에게는 “입에 음식물이 묻었네. 선생님이 닦아줄게. 물티슈를 닦고 우리 책보기 할까?”라고 이야기하며 영아가 책보기, 감각·탐색 놀이 등 조용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영아가 성적 호기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보 제공하기

- 0~1세 영아는 정해진 장소에서 기저귀 갈이하기, 개별 영아의 신체 부위 노출을 최소화하기.
- 2세 영아는 나와 다른 성에 대한 그림책 보기, 다른 사람의 몸을 함부로 만지지 않는다는 것 알도록 돕기

다. 유의사항

- 자녀가 자위나 성과 관련된 문제를 보이면 부모는 당황하게 되어 자녀에게 위협을 하거나 처벌을 해서 그 행위를 중단시키고자 함.
- 그러나 많은 연구에서 위협과 처벌은 성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오히려 지나친 위협과 처벌은 영아에게 ‘해서는 안될 짓을 자꾸 하는 나쁜애’라는 죄책감을 심어주고, 그로인한 좌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 자위에 몰두하게 할 수도 있음.
- 성이나 자신의 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할 수도 있어 장기적으로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 은연중에 부모에게 방치되고 있거나 자신이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다고 지각하는 영아들에게서 보다 빈번히 자위행위가 관찰됨.
- 이는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수준과는 무관한 것으로 심리적으로 지각하는 부모와 가정에 관한 부분임.
- 지나치게 자위에 탐닉하는 영아가 있다면 혹시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무서운 부모, 자녀의 성취에 대한 기준이 높아 늘 영아를 평가 절하하는 부모, 너무 바빠 자녀에게 깊이 관심보이기 어려운 부모 밑에서 따뜻한 배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 지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부모-자녀 관계에서 문제가 나타난 것이라면, 교사는 부모에게 영아의 자위는 성인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가 있으며 보다 관심 받고 애정 받고 싶은 욕구의 표현임을 인식시키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너그럽고 수용적인 분위기에서 영아가 부모와 보다 재밌고 즐거운 경험을 해갈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음.

<유아편>

11. 이전 기관에서 좋지 않은 경험을 한 경우

연령 : 만3세

부모와의 입소 전 상담을 통해 해당 유아가 현 어린이집에 오기 전 만 2세 때, 한 달 동안 다른 어린이집에 다녀본 경험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부모는 유아가 이전 어린이집에서 적응 기간에는 어린이집 등원을 특별히 거부하지 않다가 최초 등원 2~3주 후 갑자기 등원시 심하게 울음을 보이며 집에서도 불안정 행동을 보였다고 전달하였다. 부모는 이전 어린이집 교사가 급간식을 매번 다 먹도록 강요하고 영아반인데도 집단 활동을 진행한 것이 그 원인이라고 하였다. 부모가 원인을 파악한 후에 곧장 이전 기관을 퇴소하였고 1년 동안 가정에서 할머니와 지낸 후 현 어린이집에 등원하였다. 유아는 현 어린이집 적응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부터 부모와의 분리시 심한 울음을 보이며 이후 일과 생활도 힘들어 한다.

가. 원인 분석

- 이전 어린이집에서 적응을 하지 못해 어린이집을 옮겨서 현재 어린이집에서 적응을 시도하는 경우, 이전 경험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유아는 이전 어린이집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을 어린이집에 대한 거부와 양육자와의 분리 불안으로 나타냄.
- 이전 어린이집에서 적응하지 못한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음.
 - 교사와 기질적으로 조화되지 않음.
 - 또래 관계에서 부정적인 경험함.
 - 어린이집 하루일과에서 부정적인 경험함.
 - 어린이집 프로그램에서 부정적인 경험함.

나. 지도 방법

- 유아의 특성 이해하기

- 영아의 민감성, 반응성, 활동성, 규칙성 등 기질적 특성과 성격적 특성을 입소 전 면담과 관찰을 통해 이해하기
 - 영아의 기질 및 성격적 특성에 적합한 접근 시도하기
 - 이전 기관에서의 부적응으로 인해 어린이집을 이동했으므로 현재 어린이집 적응에 이전 경험이 부정적 영향을 줄 것임을 인식하기
- 이전 어린이집에서의 부정적 요인 점검하기
- 양육자와의 입소 전 면담을 통해 이전 기관의 하루일과, 프로그램,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나누기
 - 양육자가 유추하는 이전 어린이집에서의 부정적 요인이 무엇인지 이야기 나누기
 - 이전 기관에서 유아가 힘들어했던 요인에 대한 부모의 반응과 기관의 대처 등을 파악하기
 - 양육자와의 입소 전 면담을 통해 이전 어린이집에서의 부정적 요인을 판단하고 현재 어린이집에서 부정적 경험이 될 만한 위험 요인을 찾아 대책 마련해 보기
 - 이전 어린이집에서 이유식, 급·간식 먹기와 관련한 부정적인 경험이 있었던 유아에게는 분리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먹기와 관련된 활동을 소극적으로 제시하고 유아의 욕구를 최대한 배려하기
- 유아에게 일관성 있고 수용적인 태도 유지하기
- 유아의 동일한 행동에 동일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유아 행동에 대한 교사의 태도, 상호작용 지침 마련하기
 - 예를 들어, 급·간식을 거부하는 경우, 한번 맛보도록 권유하지만 권유를 거부할 때는 정리한다라는 기준을 정하면 급·간식 지도를 할 때마다 이 기준에 맞추어 적용하기

일관성 있는 태도 유지의 예	
상황	오전 간식 시간이다. 오전 간식으로 제시된 시금치 죽을 교사가 먹어보자고 하자 유아는 머리를 절레절레 흔든다. 교사가 한번만 맛을 보자고 하자 울음을 터뜨린다.
발문	교사는 “○○야, 시금치 죽을 먹기 싫구나! 그래도 맛은 한번 봐야하는 거래. 한번만 맛을 보면 어떨까? 시금치 죽이 어떤 맛인지 궁금하지 않니?” 라고 말한다.

- 유아의 행동에 대한 수용 범위를 점검하고 유아의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는 한 허용해 줄 수 있도록 수용 범위 결정하기

수용적인 태도 유지의 예	
상황	오전 간식 시간이다. 오전 간식으로 제시된 시금치 죽을 교사가 먹어보라고 하자 유아는 머리를 절레절레 흔든다. 교사가 한번만 맛을 보라고 하자 울음을 터뜨린다.
발문	유아는 교사가 한번 맛을 보자는 제안에도 계속 머리를 양쪽으로 흔들며 울음을 보인다. 교사는 “그래, 맛보기가 싫구나! 알았어. ○○가 맛보고 싶을 때 먹어보자. 조금 있다가 맛보고 싶을 때 선생님한테 얘기해주렴.”이라고 말한다.

- 양육자가 양육자-유아 분리 시 나타낼 수 있는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도록 지도하기
 - 「적응프로그램 동의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여 양육자가 유아와의 분리 단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 양육자-유아 분리 시 나타날 수 있는 유아의 부정적 행동과 표현 즉 울음, 때 쓰기, 양육자에 대한 과도한 집착, 먹는 것 거부, 자다가 깨기 등에 대해 설명하고 양육자의 이해 구하기
- 양육자가 퇴소 결정을 반복하지 않도록 당부하기
 - 재퇴소시 유아에게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즉, 앞으로 더욱 어린이집 적응이 어려워짐, 분리불안의 심화 등을 설명하기
 - 이전 기관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은 양육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므로, 양육자는 새로 만난 교사에게 신뢰감을 보이기보다는 탐색의 자세로 살펴본다는 것을 이해하고 조심스럽게 대하기
 - 어린이집과 교사는 유아의 이전 경험에 대해 숙지하고 이를 제거하고자 노력할 것이나 적응기간 동안 유아가 부정적인 표현, 행동을 나타낼 수 있음을 양육자에게 재설명하고 어린이집 및 교사에 대해 양육자가 신뢰하고 유아의 적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서로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기
 - 양육자의 어린이집과 교사에 대한 신뢰감은 유아에게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상호간의 신뢰와 유아 적응을 위한 상호 노력이 필요함을 알려주기
- 위와 같은 개입이 효과가 없거나 혹은 더 심해진다면 전문가를 찾아볼 것을 고려해야 됨.
- 등원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신체증상이 나타나며(복통이나 두통의 호소 등), 부모와의 분리가 예상되는 상황을 지나치게 힘들어하고, 이와 관련한 악몽을 꾸며, 부모에게 안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걱정하고, 부모가 없으면 잠을 자지 않으려하고, 계속 부모와 함께 있으려 하는 등의 행동이 지속되는 지 점검해야 됨.

12. 울어서 얻고 싶은 것을 해결하는 경우

연령 : 만3세

보육실에서 다른 또래들이 구성해 놓은 블록 집을 발로 차서 무너뜨린다. 또래들이 “선생님, ○○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집을 발로 찼어요.”라고 이야기 한다. 교사가 유아에게 다가가 “○○야, ○○가 친구들이 만들어 놓은 집을 발로 차서 무너뜨렸니?”라고 이야기 하자 갑자기 “엄마, 엄마”라고 울음을 보인다. 교사가 “○○야, 엄마 보고 싶니?”라고 묻자 “응”하며 계속 울음을 보인다. 교사가 “그런데 ○○가 왜 친구들의 블록을 무너뜨렸을까?”라고 이야기 하자 유아는 “엄마가 보고 싶다구”라고 소리 지르며 울음을 보인다. 교사는 더 이상 블록과 관련된 갈등을 이야기 하지 못한다.

가. 원인 분석

- 유아가 우연히 문제 상황에서 울음을 보이자 예상하지도 않았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어 우는 행동이 강화됨.
- 위와 같은 일이 반복되면 문제 상황이 나타날 때마다 얻고 싶은 결과를 획득하고자 함.
- 언어발달이 늦거나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더딘 경우에도 도움을 청하는 방법으로 울음을 선택하기도 함.
- 감정면에서 자립이 다소 늦기 때문에 도피 목적으로 울음을 이용하기도 함. 잘못했을 때 울면 용서받을 수 있고 꾸지람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도 함.

나. 지도 방법

- 관심을 끌기 위한 울음은 무시하고, 울지 않을 때 칭찬해주기
 - 처음 자신의 울음이 무시되면 평소보다 더 크고 오래 울지도 모르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림.
 - 유아가 울음을 그치는 즉시 유아에게 가서 관심을 보이고 얼마나 기쁘게 생각하는지 알려주기

□ 울어도 해결되지 않음을 경험하도록 하기

- 유아에게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물어보기

문제가 무엇인지 물어보기의 예	
상황	또래들의 블록 구성물을 발로 차서 무너뜨린 다음 울음으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다. 교사가 왜 그랬는지를 물어보자 대답하지 않고 “엄마, 엄마”하며 울음을 보인다.
발문	교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야, 선생님은 ○○가 친구들이 만든 집을 왜 발로 찢는지 물어 보았어. 그런데 ○○가 대답하지 않고 울기만하니깐 선생님이 ○○ 마음을 잘 모르잖아. 울지 말고 왜 그랬는지 이야기 해주렴”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 한다.

- 울음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하는 유아에게 울어도 해결되지 않음을 경험하게 하여 우는 행동을 포기하게 하기

울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도록 하기의 예	
상황	또래들의 블록 구성물을 발로 차서 무너뜨린 다음 울음으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다. 교사가 왜 그랬는지를 물어보자 대답하지 않고 “엄마, 엄마”하며 울음을 보인다.
발문	교사는 단호한 태도로 “○○야, ○○가 이야기를 해 주어야 왜 ○○가 블록을 무너뜨렸는지 알 수 있어. 그리고 속상한 친구들에게 ○○가 어떻게 해야할 지 결정할 수 있단다. 계속 울고만 있으면 해결할 수가 없어.”라고 말한다.

□ 안정이 될 때까지 기다려 주기

- 우는 행동을 보일 때 교사는 유아의 옆에서 유아의 우는 행동을 그대로 읽어 주되 울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음을 온화하고 낮은 목소리로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주기

유아의 행동 그대로 읽어 주기의 예	
상황	또래가 가진 놀잇감을 갖고 싶자 또래를 보며 울음을 터뜨린다.
발문	교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가 울고 있네. ○○가 울음을 그치고 이야기 해주면 왜 우는지 알 수 있을 텐데...계속 우는구나!”라고 이야기한다.

- 이 때, 유아를 혼자 두지 않고 교사가 계속 옆에서 함께 있으면서 상호작용해 주기
- 유아의 우는 이유를 교사가 알 수 있더라도 유아가 이야기하기 전에 미리 언급하지 않기
- 유아의 우는 행동을 수용하지 못하여 울기를 중지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은 오히려 유아의 우는 행동을 강화할 수 있음을 인식하기
- 유아에게 우는 행동으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음을 알려 주나 자신에게 무관심하거나 방치해 둔다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유아가 안정될 때까지 옆에서 기다려 주어 유아에게 교사가 자신에게 관심이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유아 옆에서 기다려주기의 예	
상황	또래가 가진 놀잇감을 갖고 싶자 또래를 보며 울음을 터뜨린다.
발문	교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야, ○○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선생님이 기다려 줄게. ○○가 왜 울고 있는지 이야기 하고 싶을 때 선생님에게 이야기 해 줘. 선생님은 계속 옆에 있을 거야.”라고 이야기한다.

□ 울음을 그치고 대안을 찾도록 하기

- 유아가 울어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울음을 그치면 ‘울음을 그침’에 대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드리지 말고 격려해 주기

‘울음 그침’을 격려하기의 예	
상황	급간식 시간에 시금치가 나오자 갑자기 울음을 터뜨린다. 교사는 유아의 행동을 그대로 읽어 주며 옆에서 기다려 준다.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유아는 울음을 멈춘다.
발문	교사는 “○○가 울음을 멈추었네. 힘들었을 텐데 울음을 툽! 그쳤구나!”라며 손으로 토닥여 준다.

- 유아가 원하는 것, 해결하고 싶은 문제,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해 명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울음 외의 대안을 찾아 그 중에서 유아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도록 도와주기

대안 찾기의 예	
상황	급식 시간에 시금치가 나오자 갑자기 울음을 터뜨린다. 교사는 유아의 행동을 그대로 읽어 주며 옆에서 기다려 준다.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유아는 울음을 멈춘다.
발문	“○○가 왜 갑자기 눈물이 났어? 아, 시금치가 먹기 싫었구나!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다른 반찬부터 먹어볼까? 어떤 반찬이 맛있어 보여? ○○가 좋아하는 반찬을 밥에 올려볼까?”

□ 가정에서도 언제 우는지, 울기 전에 무슨 일이 있는지 등을 관찰하도록 하기

- 아이가 조용히 요구할 때는 모른 척 하다 울고 때를 써야 관심을 주지는 않는지, 아이가 울면 부모가 쳐주지는 않는지 등을 살펴보고 부모의 태도가 먼저 바뀌어야 함.

□ 언어발달이 늦거나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더딘 경우에는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할 수 있음.

□ 자기 방어, 도피 방법으로 울음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울음은 자신감이 없고 자기표현을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유아가 속상함을 말로 표현하도록 가르치고 적절한 자기 방어도 할 수 있게 도와줌.

13. 잘 할 수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경우

연령 : 만 5세

미술 영역에 점토와 여러 가지 재료로 자신의 얼굴을 꾸미기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유아는 점토를 들고 미술 영역에 앉아 다른 친구들이 하는 모습을 살펴본다. 교사가 “○○도 점토로 얼굴을 꾸며볼까?”라고 제안하자 “나는 못하는데... 내가 하면 이상한데... 선생님이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 한다. 교사가 “스스로 한번 해 보자”라고 이야기 하자 “난 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라며 시도하지 않으려고 한다. 결국 교사가 함께 하면서 격려하여 완성을 한다. 또래에 비해 기술이 부족해 완성도가 낮긴 하다. 유아는 완성한 작품을 보며 “내가 한 것은 이상해”라고 표현한다.

가. 원인 분석

- 수줍음은 자신감의 부족, 개인적인 부족감, 다른 사람에게 거부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에서 기인될 수 있음(정지선, 1991).
- 유아기에 들어서면 자르기, 오리기, 찢기, 붙이기, 묶기, 벗기 등 다양한 기술과 표현하기, 분류하기, 범주화하기 등과 같은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평가하기도 함.
- 위와 같은 사례의 유아는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의 발달이 비슷한 또래의 유아보다 더디거나 낮아서 활동 수행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경우임.
- 자신의 기술과 능력이 부족한 경우, 타인으로부터 자신이 어떻게 평가될까, 행여 부정적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지나치게 수줍어할 수도 있으며 실제로 자신의 능력을 더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여 수줍음으로 나타나기도 함.

나. 지도 방법

- 성공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활동 수준 조절하기
 - 관찰을 통해 정확한 유아의 발달 수준을 파악하기

- 유아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유아가 비슷한 또래의 평균 발달 수준에서 나타내는 기술과 능력보다 더디거나 낮아서 동일 학급에서 하나의 수준으로 제시된 활동에서는 성공적인 경험을 갖기 어려움을 인식하기
- 동일한 활동을 제시하더라도 활동 재료, 활동 방법을 수준차를 고려하여 다양하게 제시하기
- 수준차를 고려하여 동일 학급에서 서로 다른 다양한 활동을 선택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 가령, 「자동차 모양으로 상자 꾸미기」 활동을 제시할 때 자동차를 직접 가위로 모양대로 잘라 붙이도록 준비한 재료 이외에 자동차 모양으로 미리 잘라져 붙일 수 있는 종이, 접착할 수 있는 다양한 자동차 모양의 스펅글, 자동차 모양 스탬프 등을 준비해 놓아 유아가 스스로의 기술에 맞추어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수준차를 고려한 다양한 활동 개발의 예	
상황	교사는 공을 골대에 넣기 활동을 제안한다. 발로 차서 넣어 보아도 되고 손으로 공을 던져서 넣어 보아도 된다고 설명한다. 유아는 “나는 못해요”라고 이야기 한다.
발문	교사는 “○○야, 공을 한번 골대에 넣어 볼까? ○○가 원하는 방법으로 골대에 공을 넣을 수 있어. 발로 차도되고 손으로 던져 넣어도 된단다. 한번 해 볼래?”라고 말한다.

- 유아가 쉽게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성공적인 경험을 갖는 것은 이후 조금 더 높은 수준의 활동을 접할 때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낮은 수준 활동에서 점차 높은 수준 활동으로 확장시키도록 돕기

낮은 수준 활동에서 높은 수준 활동으로 실행의 예	
상황	교사는 공을 골대에 넣기 활동을 제안한다. 발로 차서 넣어 보아도 되고 손으로 공을 던져서 넣어 보아도 된다고 설명한다. 유아는 “나는 못해요”라고 이야기 한다.
발문	교사는 “○○야, 공을 손으로 잡아서 던져볼까? 선생님과 함께 던져보자.”라며 제안한다. 유아가 손으로 골대에 공을 던져 넣는 것이 익숙해지면 “와, 잘 던진다. 그럼. 이번에는 발로 차서 넣어볼까?”라고 격려하며 높은 수준 활동을 해 볼 수 있도록 한다.

□ 다양한 경험과 자극 제공하기

- 교사는 개별 유아를 잘 관찰하여 유아의 발달 과정에서 촉진될 필요가 있는 기술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극 제공하기
- 어린이집에서 교사에 의한 「다양한 경험 및 자극을 유아에게 제공하기」 개입

에 대하여 부모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 가정에서도 유아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가정과의 연계 예	
상황	유아가 스스로 신발신기를 시도해 보지 않아서 실외놀이터나 산책을 나갈 때 늘 교사의 도움을 기다린다. 또래들은 그 모습을 보고 “○○야, 넌 왜 혼자 신발을 못 신어? 아가 같아”라고 이야기 하고 유아는 속상해한다.
발문	교사는 등하원 시간에 양육자에게 “○○ 어머님! ○○가 혼자 신발을 신지 못한다고 또래들이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많이 속상해 해요. 신발 신기가 잘 안되어 자신감을 잃으니 다른 활동도 스스로 잘 하지 않으려고 하네요. 어린이집에서 ○○에게 스스로 신발을 신을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사가 도와주면 시도해 보려구해요. 가정에서도 ○○가 스스로 신발을 신을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 한다.

14. 주위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에 자신감을 잃는 경우

연령 : 4세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언어 영역에서 글과 그림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친구를 보며 “너는 잘해서 좋겠다. 나도 잘 하고 싶은데...”라고 이야기한다. 교사가 “○○도 ○○가 생각한대로 그리거나 써보면 돼요”라고 제안하자 “난 못해요”라고 대답한다. 교사가 “이건 잘하고 못하는 것이 있는 게 아니야. ○○가 생각한대로 표현하면 돼”라고 하자 “우리 엄마가 글씨 못 쓴다고 소리 질렀어요. 난 잘 못써요.”라고 이야기 한다. 교사의 격려에 힘입어 유아가 글씨를 쓰는데 또래에 비해 또박또박 예쁘게 잘 쓴다. 교사가 하원 시간에 ○○의 어머니를 만나 언어 영역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가 글씨를 모르는 것 때문에 마음이 급해서 요즘 집에서 좀 야단치며 가르쳤더니 그렇군요”라고 답변한다.

가. 원인 분석

- 대인간의 평가와 관련이 있어 양육자를 비롯한 주위 어른이나 교사로부터의 부정적 평가는 유아를 수줍게 만들거나 위축시킬 수 있음.
- 외부로부터의 부정적인 피드백은 유아의 자존감이나 자신감을 떨어뜨려 지나친 수줍음을 초래할 수 있음.

- 실제로 어머니가 자녀에게 비난적 태도를 보이고 부정적 발언을 많이 하는 경우나 거부적 양육태도를 보이는 경우 자녀의 수줍음 정도가 높음(김영숙, 윤여홍, 2009; 박현정, 2013).
- 유아에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하는 양육자 중 일부는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도 있음.
- 양육자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받아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형성할 수 없는 유아에게서 나타날 수 있음.
- 양육자는 대부분 유아 발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영유아의 외모, 기술, 능력, 태도 등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직접적이고 지속적으로 영유아에게 표현함.

나. 지도 방법

- 유아 개별의 구체적인 장점을 찾아 격려하기
 - 유아는 모두 한 가지 이상의 장점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기
 - 교사는 세심한 관찰을 통해 개별 유아의 구체적인 장점을 찾아보기
 - 유아의 아주 구체적인 행동, 기술, 태도 등을 찾아 격려하기

구체적으로 격려하기의 예

상황	유아는 또래가 넘어져 울고 있자 수줍게 다가가 또래를 일으켜 세우고 “울지마”라고 이야기 한다.
발문	“○○가 넘어진 친구를 일으켜 세워주는구나! 친구를 달래주기도 하네. 친구가 많이 고마워하겠다. ○○는 힘든 친구를 정말 잘 도와주는 어린이구나!”

- 양육자에게 유아의 장점 알리기
 - 교사가 세심한 관찰을 통해 파악한 유아의 장점과 자원을 부모에게 구체적으로 소개하기

유아의 장점과 자원을 부모에게 소개하기의 예

상황	하원 시간에 교사가 양육자와 만나 유아의 하루 지낸 이야기를 전달한다.
발문	교사는 “○○가 속상해하거나 힘들어하는 친구를 잘 도와줍니다. 친구가 힘들어하는 부분을 위로하기도 하고 친구의 감정을 이해해서 공감해 주기도 합니다.”라며 유아의 장점을 부모에게 이야기한다.

- 교사가 발견한 유아의 장점과 자원이 유아 발달에 중요한 요인임을 전문적으로 소개하기
- 가정에서도 유아의 장점과 자원을 양육자의 관찰을 통해 찾도록 이야기나누기
- 매일 등·하원 시간에 양육자가 관찰한 내용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관찰 내용 중에 유아의 장점을 찾아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 부모 코칭하기

유아의 장점과 자원을 가정에서 양육자가 찾도록 돕기의 예	
상황	교사가 등·하원 시간에 양육자를 만나 유아에 대해 비정기적 면담을 나눈다.
발문	교사는 “가정에서도 ○○가 동생이나 부모님을 돕거나 감정을 공감해 주는 모습이 관찰되나요? 아직 보시지 못했다면 귀가 후 가정에서 생활할 때 살펴봐 주세요. ○○의 다른 사람을 돕고 이해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라고 이야기한다.

양육자에게 연령에 적합한 발달 정보 제공하기

- 가정과 연계하여서는 양육자가 유아의 발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유아 행동과 태도에 대한 적절한 기대 수준을 갖도록 하기
- 양육자가 유아 발달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유아에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하는 경우, 교사는 유아 연령에 적합한 발달 정보를 가정 통신문,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제공하기
- 양육자가 면담을 통해 유아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끼는 사례를 교사에게 이야기하도록 하고, 교사는 사례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발달이 해당 연령에서 적절함을 이야기 해 주어 양육자가 유아에 대해 적절한 기대 수준을 갖도록 하기

양육자의 스트레스 해결하기

- 교사는 부모 면담을 통해 양육자의 고충과 스트레스를 들어 주어 양육자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돕기
- 교사의 조력으로 양육자의 스트레스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양육자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요청해 보기

15.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일에 너무 부끄러운 경우

연령 : 만3세

등원하는 길에 유아와 유아 어머니가 다른 반 교사를 만난다. 교사가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 ○○야”라고 인사하자 유아의 어머니도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한다. 유아는 그 옆에서 손을 입에 넣고 자신의 치마를 손 끝에 말아 쥐고 뱅뱅 돌린다. 유아의 어머니가 “○○야, △△반 선생님이시네. 인사드려야지”라고 이야기 한다. 유아는 고개를 숙이며 계속 치마 끝을 뱅뱅 돌린다. 유아의 어머니가 계속 인사하라고 이야기하자 유아는 눈물을 보인다. 교사가 “인사하기가 힘들구나! 다음에 인사해 줄래?”하자 유아는 고개를 끄덕인다.

가. 원인 분석

- 수줍음의 원인은 주로 성격에서 찾을 수 있는데 성격이 유전적 특성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수줍음 또한 선천적으로 타고나 이러한 특성을 지닌 영유아는 외부적인 자극에 또래보다 민감함(정일호, 1990에서 재인용).
- 이런 유아는 기질적으로 지나치게 수줍어하여 자기표현이 적으며 새로운 일을 시도하기를 어려워한다는 것을 볼 때 성격이나 기질에서 오는 수줍음으로 진단할 수 있음.
- 가정에서는 다른 또래와 마찬가지로 의사소통을 하지만 기관이나 특정한 상황에서 말을 하지 않거나 겨우 들리는 목소리로 표현하는 경우, 이 반대의 경우에도 선택적 함구증을 의심해볼 수도 있음.
 - 언어발달 시작시기의 충격적 경험(형제출생, 가족의 죽음, 엄마와의 분리), 언어 능력이 늦게 발달하여 놀림받을 것에 대한 대처방안, 발달초기에 나타나는 낯선 사람에 대한 반응이 고착 또는 퇴행된 것이 원인이 되거나 강박장애의 연장선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아동의 불안과 부모 양육태도와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보기도 함.
 - 선택적 함구증을 보이는 유아는 이중적인 특성을 드러내는데 가정 내에서는 부정적, 적대적이고 고집이 세고 조종하려는 반면 낯설거나 새로운 상황에서는 수줍어하고 예민하며, 공포감에 경직되는 특성들이 많이 관찰됨(염숙경, 2002).

나. 지도 방법

유아의 기질적 특성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

타고난 수줍음을 수용하기의 예	
상황	6~7명의 유아들이 모여 한 가지 주제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를 한다. 모두 돌아가면서 주제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해당 유아의 차례가 되었다. 해당 유아는 어색한 미소를 띄우며 몸을 뒤튼다. 다른 유아들이 “야, 빨리 이야기해봐.” “야, 우리 기다리잖아. 빨리 이야기해”라고 말한다
발문	교사는 “○○도 이야기 해 볼래?”하자 유아는 계속 어색한 미소를 띄운다. 교사는 “지금 친구들 앞에서 이야기 하기가 힘드니?”라고 묻자 유아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렇구나! 그럼, 나중에 선생님한테 살짝 이야기 해 줄 수 있어?”라고 하니 고개를 끄덕인다. 교사는 “얘들아, ○○가 지금 이야기하기는 조금 힘이 드나봐. 그런데 선생님한테 따로 이야기 할 수는 있네. 선생님이 ○○이야기 듣고 나중에 놀이 평가 시간에 이야기 전할게”라고 말한다.

새로운 시도를 제안하나 압력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하기

- 유아가 새로운 활동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제안하지만 교사의 제안을 압력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조심하기

새로운 활동 제안하기의 예	
상황	교사가 새로운 조작 놀잇감을 수조작영역에 배치하고 놀이 계획 시간에 소개한다. 자유선택활동 시간이 시작되자 2~3명의 또래가 새로 배치된 조작 놀잇감을 꺼내 놀이한다. 유아는 다른 유아들이 새로운 놀잇감으로 놀이하는 모습을 손가락을 물고 쳐다보고 있다.
발문	“○○야, ○○도 새로운 조작 놀잇감으로 놀이해 볼래? 선생님과 같이 해 보자”

- 지나치게 수줍어서 새로운 활동을 매번 시도하지 않는다면 유아는 적절한 경험과 자극을 받지 못하게 됨을 인식하고 유아가 새로운 활동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안하기
- 유아에게 교사는 ‘힘 있는 존재’로 인식되기 때문에 교사의 제안이 강요로 느껴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조심스럽게 제안하기
- 교사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음을 제안 전에 미리 알리기

교사의 제안이 강요로 느껴지지 않도록 하기의 예	
상황	교사가 새로운 조작 놀잇감을 수조작영역에 배치하고 놀이 계획 시간에 소개한다. 자유선택활동 시간이 시작되자 2~3명의 또래가 새로 배치된 조작 놀잇감을 꺼내 놀이한다. 유아는 다른 유아들이 새로운 놀잇감으로 놀이하는 모습을 손가락을 물고 쳐다보고 있다.

교사의 제안이 강요로 느껴지지 않도록 하기의 예	
발문	교사는 새로운 놀이를 하도록 “○○도 새로운 놀잇감을 해 볼까?” 라고 제안하고 “○○가 놀이해 보고 싶으면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고 ○○가 지금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돼. ○○가 원할 때 놀이하렴”이라고 표현하여 교사의 제안이 강요로 느껴지지 않도록 한다.

- 유아가 새로운 활동을 시도할 때는 구체적인 격려를 통해 강화하기
 - 기질적으로 수줍음이 많아 평소에 새로운 활동 접근이 힘든 영유아가 새로운 활동을 시도했을 때 교사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영유아를 격려함으로써 영유아의 시도를 강화하기
 - 새로운 활동의 강화는 이후에 영유아가 다시 새로운 활동을 시도하는 원동력이 됨을 이해하기

새로운 활동 시도 격려의 예	
상황	또래들이 새로운 놀잇감을 가지고 놀이하는 모습을 몇 일째 살펴보던 유아가 새로운 놀잇감에 다가가 살며시 만져보기 시작한다.
발문	교사는 유아가 놀잇감을 만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관찰하다가 “○○가 새로운 놀잇감을 가지고 놀고 싶구나! 둘이서 같이 하는 게임이네. 선생님이랑 같이할까? 와, ○○의 말이 선생님말보다 앞서 가네~”라고 이야기 한다.

- 선택적 함구증에 대해서는 벌을 주거나 말하도록 해 보상을 주는 것은 불안정을 유발해 오히려 침묵을 유지시키도록 함(염숙경, 2002).
 - 성인과의 비언어적 활동을 격려함. 말할 기회가 주어져야 하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 교사나 부모는 아동에게 정상적으로 말해야 한다.
 - 말할 기회를 주나 강요해서는 안 되며 교사나 부모는 정상적으로 유아에게 말함.
 - 교사와 유아 간에 애착이 성립되면 교사는 조심스럽게 아동이 사적으로 말하도록 격려함. 처음에는 한 단어의 답으로 충분하고 교사가 말하도록 재촉하지 않아야 하고 아동이 불안해하면 비언어적 활동을 계속함.

16. 특별한 사건 때문에 자신감을 잃은 경우

연령 : 만 4세

블록 영역에서 4~5명의 유아가 함께 우리 동네를 구성하고 있다. 그 중 한 유아가 교사에게 다가와서 “친구들이 저 보고 놀려요.”라며 울음을 터뜨린다. 교사가 유아들에게 “너희들이 ○○보고 막 웃었니?”라고 묻자 “우리는 그냥 웃었는데...○○보고 웃은 거 아닌데요”라고 대답한다. 해당 유아는 “아니야, 너희들이 나 보고 놀리면서 웃었잖아”라고 소리친다. 교사는 다른 유아들을 놀이 영역으로 보내고 해당 유아와 이야기 나눈다. “○○는 친구들이 웃는 것이 놀리는 것처럼 느껴졌구나! 그런데 친구들은 놀리려고 한 것이 아니었데”라고 교사가 이야기하자 “아니예요. 놀리려고 한거예요. 지난번에도 그랬구. 그 전에도 그랬어요”라고 이야기 한다. 교사는 “그래, ○○가 많이 속상했구나!”라고 이야기 한다. 하원 시에 부모에게 관찰했던 상황을 이야기하자 부모는 ○○가 동네 놀이터에서 나이 많은 형들에게 놀림을 당한 다음부터 이런 반응이 나타났다고 이야기 한다.

가. 원인 분석

- 특정한 사건 특히 트라우마로 남을 만큼 부정적인 경험이 영유아를 의기소침하고 주눅 들게 만들어 결국 과도한 수줍음을 초래할 수 있음.
- 이는 외부로부터의 부정적인 피드백과 연관이 될 수도 있는데 영유아가 성장과정에서 자신이 스스로 시도한 일이 실패하여 좌절감을 맛보았거나 반복되는 실패 상황이 트라우마로 자리 잡은 경우, 굉장히 무안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경우 뒤에는 동일한 상황이 아니라도 비슷한 상황에 닥치면 대인 관계를 두려워하거나 자신감이 부족하게 되어 과도하게 수줍어할 수 있음.
- 유아는 형들에게 놀림을 당한 후 비슷한 상황에서 자신감을 잃고 스스로 주눅이 드는 모습을 보였으며 적극적인 표현을 하지 못하고 울음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때, 특정 사건이 영유아의 수줍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음.

나. 지도 방법

- 유아에게 지나친 수줍음을 야기 시킨 이전 성장 과정에서의 특정 사건이나 트라우마 파악하기
 - 유아가 특별히 어떤 상황에서 활동을 회피하거나 시도하지 않으려 하는지 지나치게 자신감 없어 하는지를 관찰하기
 -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부모와 면담을 진행하여 교사가 관찰한 것과 같은 특별한 사건이 유아의 성장기에 있었는지 알아보기
 - 유아의 지나친 수줍음을 야기 시킨 관련 사건이 무엇인지 부모와 함께 분석하고 공유하기
- 유아에게 지나친 수줍음을 야기 시킨 유사한 상황에서 성공적인 경험을 하도록 배려하기
 - 유아에게 지나친 수줍음을 야기 시킨 사건에서 유아가 성공적인 경험을 하도록 교사가 세심하게 활동을 조절하고 개입하기
 - 또래가 놀리는 경험이 있어 다른 또래들이 함께 웃고만 있어도 자신을 놀린다고 생각하는 유아가 있다면, 또래의 웃음이 자신을 놀리는 것이 아니라 놀이에서의 즐거움을 표현하는 것임을 알 수 있도록 놀이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기
 - 유아가 관련된 사건에서 경험한 성공적인 경험을 반복하여 경험하여 자신의 인식을 수정할 수 있도록 돕기

관련된 사건에서 성공적인 경험을 갖도록 적절한 개입하기의 예	
상황	교사는 또래들이 웃는 것이 자신을 놀린다고 생각하는 유아에게 블록으로 함께 집을 구성하고 완성된 즐거움을 함께 느끼도록 개입한다.
발문	“○○야, 친구들이랑 함께 집을 다 만들고 나니 너무 즐겁구나. ○○가 웃고 있네. ○○는 왜 웃고 있니? △△도 웃고 있네? ○○야, △△는 왜 웃고 있을까? 그레, △△도 집을 다 만들어서 즐거워서 웃고 있구나!”

17. 강박 성향을 가진 경우

연령 : 만 4세

미술 영역에서 유아가 색종이를 꺼내든다. 종이 접기 전개도를 쳐다보더니 “나는 이 **꽃** 접을 거야”라고 이야기 한다. 사각 색종이의 꼭지점을 맞추려고 한다. 잘 되지 않자 다시 해 본다. “끝이 꼭 맞지 않네” 라며 다시 시도한다. 한참을 **참을 동안 꼭지점**을 맞추려고 하면서 종이접기를 시작하지 못한다. 교사가 “○○야, 끝이 맞는 것 같은데. 반으로 접어보렴”이라고 이야기 하자 “아니예요. 꼭 맞지 않아요”라고 이야기 한다. 시간이 더 흘러도 종이접기를 하지 못한다.

가. 원인 분석

- 유아의 부모 등의 양육자가 강박 행동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유아에게도 강박적 특성이 보일 수 있음.
 - 부모가 지나치게 꼼꼼하거나 깨끗함을 많이 강조하는 등의 강박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우, 유아에게 그 영향이 미쳐 유사한 행동이 나타날 수 있음.
- 양육자의 지나치게 경직되고 융통성 없는 양육태도도 원인이 됨.
- 규칙에 맞게 배열하기, 대칭 맞추기, 의례(ritual)나 의식을 지나치게 준수하려 하기 (예: 점심 먹기나 낮잠 자기 전 자기 나름대로 정해진 순서를 지켜야 하며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시 매우 불안해하고 순서의 처음부터 다시 하고자 해 이로 인한 시간이 많이 소요됨), 순서 지키기 등 다양한 유형으로 강박행동이 나타날 수 있음.
- 또한, 손이 깨끗한데도 자주 손을 씻거나 옷에 조금이라도 더러운 것이 묻으면 갈아입으려고 하며 물과 흙을 가지고 놀이해야 하는 바깥놀이를 하기 싫어하는 증상을 보이기도 함.

나. 지도 방법

- 부모 성향 확인하기
 - 강박 행동을 보이는 유아의 부모에 대해 등하원시 부모 행동을 관찰하거나 부모 면담을 통해 강박 행동과 관련된 부모의 성향을 살펴보기

- 교사회의를 통해 관찰된 부모 성향을 원장, 선임교사와 함께 논의하여, 유아의 강박 행동이 부모로부터 기질적으로 타고난 행동임을 확인하기
 - 부모가 지나치게 경직되어 융통성이 없거나, 통제적인 양육 방식을 갖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여 이런 특성이 유아의 강박 성향을 심화시킬 수 있음을 알리기
- 가정과의 협력으로 유아 강박적 행동 완화시키기
- 유아가 지나치게 더러움을 참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유아가 불안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집안에서 규칙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함(김태훈, 2013).
 - 집안의 규칙을 줄이고 단순화하는 것이 좋으며 융통성을 가지고 유아의 말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함(김태훈, 2013).
 - 부모가 유아의 집착을 억지로 꺾으려고 하지 말고 유아를 안심시키는 데 주력해야 함. “옷에 먼지가 묻어도 괜찮아. 털면 되잖아”, “나쁜 일이 생기지도 않아.”라고 안심을 시켜줌(김태훈, 2013).
- 유아의 개인적 기질 수용하기
- 유아의 강박적 행동이 부모로부터 전해진 것임을 이해하기
 - 관찰, 면담, 교사회의를 통해 부모의 강박 관련 성향이 확인된 강박 행동을 보이는 유아는 기질적으로 강박적 성향을 타고 났음을 이해하기
 - 기질적으로 강박 성향을 타고 났으므로 바꾸려 할 때 오히려 행동이 강화됨을 인식하고 유아의 강박 행동을 수용하기
- | 유아의 강박 행동 수용하기의 예 | |
|-------------------|---|
| 상황 | 유아가 색종이 접기를 하는데 꼭지점을 꼭 맞추려고 계속 활동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
| 발문 | 교사는 “○○야, 색종이 끝이 꼭 맞게 접고 싶구나!. 선생님이 도와 줄까?”라며 활동이 진행되도록 한다. |
- 특정 상황에 유일한 해결책(정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다양한 해결책이 있을 수 있음을 알도록 설명해주기
- 강박증은 어른이 된 후에도 치료가 힘들지만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초기에 바로 잡아주면 쉽게 호전될 수 있기 때문에(김태훈, 2013) 부모가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유아의 강박 증세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된다면 부모에게 알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하는 것도 방법임.
- 유아 강박증은 취학 전이나 학령기 초기의 유아에게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 (김태훈, 2013).
- 이는 정상 발달 과정에서 보일 수 있는 현상이므로 교사나 부모의 관찰을 통해 호전 정도를 살펴봄.

18. 통제해야 안심이 되는 경우

연령 : 만 4세

교사는 놀이 평가 시간이 끝나자 유아들에게 “이제 화장실 들렀다가 실외 놀이터 갈 거예요. 화장실 다녀와서 문 앞에 줄서 보자”라고 이야기 한다. 유아들 중 한 명이 “선생님, 저 화장실 가고 싶지 않아요”라고 이야기 한다. 교사는 “그래? 그럼, 줄을 서 보자”라고 이야기한다. 유아들이 줄을 서고 있는데 갑자기 해당 유아가 “선생님 저는 화장실 다녀오지도 않고 줄을 서요”라고 말한다. 교사가 “응. 화장실 가고 싶지 않데. 그래서 줄을 선거야”라고 대답한다. 해당 유아는 그래도 화를 내며 “야, 왜 화장실 다녀오지 않고 줄을 서냐구. 화장실 다녀와야 줄을 설 수 있다구”라고 말한다. 교사가 다시 한번 왜 그런지 설명을 해도 소리를 지르며 “화장실을 다녀와야 줄을 설 수 있다구요”라고 이야기한다.

가. 원인 분석

- 유아가 원하는 대로 특정한 상황이 통제 되지 않아 유아가 불안감을 느끼게 됨.
- 그 불안감을 주변 환경을 자신이 정한 기준으로 통제하거나 자기 자신의 행동을 일정 방향으로 통제하여 억제하려고 함.

나. 지도 방법

- 유아에게 불안을 상승시키는 요인 확인하기
 - 일상생활과 놀이 활동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강박 행동 사례를 관찰하고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기

- 1회성 행동이 아닌 여러 번 반복되는 행동을 관찰하고 기록하기
- 관찰 기록을 근거로 유아의 강박 행동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는지 공통점을 찾아보기
- 공통점을 분석하여 유아에게 불안을 상승시키는 요인 찾기

□ 유아의 불안 요인을 제거하기

- 확인한 유아의 불안 요인이 어린이집 일과 중과 가정에서의 생활 중에 나타나는 경우 찾아보기
- 최대한 어린이집 일과 중과 가정에서의 생활 중에 유아의 불안 요인이 나타날 수 있는 횟수를 없애거나 줄이기
- 어린이집 규칙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부분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융통성이 필요한 경우 실행 전에 미리 언급하기 등을 통해 불안 요인 제거하기
- 실외놀이 나가기 전에 화장실을 다녀와 줄서기가 어린이집의 규칙인데 화장실을 가고 싶지 않은 또래가 화장실을 가지 않고 줄서기를 한다면 화장실 이동 전에 미리 화장실을 가고 싶지 않은 유아는 가지 않고 줄을 서도 된다고 교사가 언급하여 불안 요인을 제거하기

유아의 불안 요인 어린이집과 가정에서 제거하기의 예

상황	실외놀이터를 나가기 전 교사가 화장실을 다녀와서 줄을 서자고 한다. 유아는 규칙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박 행동을 보인다.
발문	교사는 화장실 다녀와서 줄을 서자고 이야기 하는 동시에 “화장실에 가고 싶지 않은 친구는 바로 줄을 서도 된단다. ○○야, 화장실을 가고 싶은 친구는 화장실 다녀와서 줄을 서고 화장실에 가고 싶지 않은 친구는 바로 줄을 서도 된단다. 우리 모두 똑같이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란다.”라고 이야기 한다.

- 유아의 불안 요인이 어린이집 생활 중에 나타나면 개입하여 제거하기

유아의 불안 요인이 나타날 경우, 즉시 개입하여 제거하기의 예

상황	실외놀이터를 나가기 전 교사가 화장실을 다녀와서 줄을 서자고 한다. 유아는 규칙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박 행동을 보인다.
발문	교사가 미리 화장실 다녀오고 싶지 않으면 바로 줄을 서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경우, 화장실을 다녀오지 않고 줄을 선 친구의 행동을 수용하지 못하는 유아에게 “○○야, 선생님이 바로 이야기 하지 못했는데 화장실 가고 싶지 않은 친구도 있을 수 있어. 그래서 화장실 가고 싶지 않은 친구는 바로 줄을 설 수도 있단다”라고 이야기 한다.

- 실외놀이를 나가기 전에 화장실 다녀오기만을 교사가 언급했는데 화장실을 다녀오고 싶지 않은 또래가 줄을 미리 서서 유아가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되면 즉시 개입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유아가 그 상황을 인정하여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기
- 양육자와 협의하여 가정에서도 불안 요인이 나타나면 개입하여 제거하기
- 여러 노력에도 유아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강박 성향이 더 심해져 생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면 부모에게 전문가를 만나 보도록 권유하기

19. 불안감과 긴장으로 틱(tic) 현상을 보이는 경우

연령 : 만4세

유아가 갑자기 놀이에 잘 참여하지 않고 또래의 놀이를 쳐다보는 시간이 길어졌다. 또래의 놀이를 쳐다보거나 교사와 이야기 할 때 코를 킁킁 거린다. 어린이집 일과나 또래 관계 등에서 변화한 부분이 없어서 부모 면담을 진행하자, 요즘 특정 문제 때문에 부부 사이에 불화가 발생하여 유아 앞에서 자주 큰 소리를 내며 갈등 상황이 있었다고 이야기 한다.

가. 원인 분석

- 틱 현상의 가장 주된 심리적 원인은 해소되지 못한 불안과 긴장임.
-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틱 현상이 나타났다가 1개월 안에 사라지기도 함.
- 이때 유아에게 불안이나 긴장을 일으키는 가장 주된 자료는 가정일 수 있음.
 - 부부 갈등 등 가정불화는 유아에게 불안을 조장하는 대표적인 요인임.
 - 특히, 유아는 가정불화의 원인을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문제의 소지가 많음.
 - 동생의 출산, 주양육자의 변화 등 인적 환경의 변화도 고려해 보아야 함.
- 양육자의 바람직하지 않은 양육태도, 상호작용도 문제가 됨.
 - 양육자가 제한적이며 억압적인 양육태도를 갖고 있다면 유아가 양육자에게 사랑 받는다는 느낌을 받기 어렵고, 적절히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발산하기 어려움.

- 양육자의 덜 민감하고 무감각한 상호작용은 유아가 양육자에게 안정감을 느끼기 어려운 요소가 됨.
- 어린이집의 이동, 거주지의 이동 등 물리적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보아야 함.
- 틱의 원인이 유전과 같은 생물학적인 원인에 있기도 함.
 - 부모 중에 틱이 있으면 자녀에게 틱이 나타나기도 함.

나. 지도 방법

- “눈 깜박이지 마” “쿵쿵대지 마라” 등 틱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제지는 틱을 없애지 못하며 오히려 유아를 긴장하게 해 틱을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음을 부모에게 알리고 협조를 구하기
- 교사도 직접적으로 틱을 지적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 유아를 긴장시키는 요인을 찾아 이를 해결하는데 주력하기
- 직접적인 가정 문제의 해결책을 찾도록 조력을 해야 하며, 가족 구성원들이 유아의 긴장을 심화시키는 행동(인성 높이기, 비난하기 등)을 삼가기
- 부모 교육을 통해 양육자가 바람직한 양육태도,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돕기, 특히 부정적인 감정 표현에 대해 허용하고 용인하는 분위기 조성하기
- 환경 변화가 유아에게 긴장과 불안을 높일 수 있음을 이해하기
- 유아 관찰과 부모 면담을 통해 유아에게 긴장과 불안을 높이는 환경적 요인을 찾기
 - 어린이집의 이동, 교사 교체, 부모 출산 등 유아에게 익숙함과 안정감을 제공했던 물적, 인적 요인의 모든 변화를 검토하기
- 급격한 환경적 변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기
 - 환경 변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가정과 어린이집에서 공유하여 진행하기
 - 어린이집의 이동이 유아에게 불안감을 조장했다면 어린이집 적응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서서히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을 늘리면서 교사에게 안정감을 갖도록 하기
- 양육자와 교사가 유아의 긴장이나 불안을 발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이를 가정과 어린이집에서 적용하기

- 위와 같이 지도할 경우,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1년 이상 지속되거나 음성 틱(“쿵쿵” 등 소리 내는 경우)과 운동 틱(눈을 깜빡이거나 고개를 흔드는 등 몸을 움직이는 경우)이 함께 관찰될 경우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필요함.
 - 틱 증상 외에도 주의력 결핍증, 강박장애, 학습장애, 불안장애 등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필요한 검사를 함께 시행할 수도 있음(조수철, 2007)
- 틱 증상이 유전적인 경우도 있으므로 부모가 죄책감을 가지지 않도록 교사의 조언이 필요하기도 함.
- 틱 현상을 또래가 인지하고 지적할 수 있으므로 일반 유아를 대상으로 지도가 필요함.
 - 또래가 지적하게 되면 유아는 이로 인해 더 긴장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아 틱이 심해질 수 있으므로, 다른 유아들이 틱을 보이는 유아를 놀리거나 지적하지 않도록 교사가 개입해야 됨.

20. 늘 기분이 좋지 않은 경우

연령 : 만5세

유아가 수조작 영역에 앉아 그룹 게임판을 보고 있다. 교사가 다가와 “○○야, 선생님하고 함께 놀이할까?”라고 묻자 교사의 얼굴을 쳐다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떨어뜨린다. 교사가 “○○야, 왜 울어? 무슨 일이 있니? 선생님한테 이야기해보렴”하고 이야기하자 유아는 고개를 좌우로 흔든다. 교사가 재차 묻자 “그냥, 눈물이 나요”라고 유아가 대답한다. 유아는 어린이집 하루 일과 중 대부분의 시간에 눈물을 흘리며, 원내 활동에도 관심이나 의욕이 없다. 다음날도 지속된다.

가. 원인 분석

- 기질적 요인
 - 우울한 기분(mood)를 타고난 경우가 있음.
- 유아-부모 관계가 불안정하여 유아가 늘 우울한 경우가 있음.
 - 부모와의 관계가 불안정하여 부모에게서 만족스러운 정서적 안정감을 갖지 못하는 경우 좋지 않은 기분이 계속 유지됨.

- 부모가 민감하게 유아의 요구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알아차려도 이를 적극적으로 충족시켜주지 못할 때 유아의 우울감이 지속될 수 있음.
- 특정 시기에 특정한 문제(부부 갈등, 부모와의 관계 변화, 부모의 질병, 동생의 출산 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기분이 많은 경우도 있음.
 - 부모간의 싸움을 유아가 목격하고 부모의 불화를 인지한다든지, 이사를 해서 생활환경이 갑작스럽게 바뀐다든지, 가족 중에 누가 아파서 가정 분위기가 우울하다든지, 동생의 태어남으로 동생에게 양육자의 관심이 집중된다든지 하는 특정한 문제로 유아가 우울한 정서를 유지하는 경우도 나타남.
- 우울한 경우, 유아는 짜증이 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고 두통이나 복통 등 신체증상을 호소할 수 있음. 따라서 교사는 유아의 신체적 호소가 지나치거나 잦을 때 심리적 문제와 관련지어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나. 지도 방법

- 개별 유아의 기질 이해하기.
 - 「아동발달」 등의 이론서를 바탕으로 유아의 기질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를 이해하기.
 - 기질적 요인으로 인해 유아의 기분이 늘 가라앉는 것이라면, 그로 인해 가장 힘든 사람은 유아 본인임을 이해하고 배려하기.
- 개별 유아의 기질 수용하기.
 - 기질적으로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은 타고난 것이므로 교사가 이를 바꾸려 하기 보다는 수용하고 이해하는 것이 유아를 보다 더 편안하게 하는 것임을 인식하기.

유아의 기분을 읽어 주기의 예	
상황	유아가 침울하고 우는 듯한 표정으로 휴식 영역에 앉아 있다.
발문	교사는 “○○가 휴식 영역에서 쉬고 싶구나!”라고 유아의 기분을 읽어 주며 공감한다는 표정을 짓는다.

- 개별 유아를 관찰하여 유아의 기분이 전환될 때까지 기다려주기

유아의 기분이 전환될 때까지 기다려주기의 예	
상황	유아가 침울하고 우는 듯한 표정으로 언어 영역에 앉아 책을 들고 있다.
발문	교사는 유아 옆에 앉아서 “기분이 좋지 않구나!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선생님이 옆에 함께 있을까? 들고 있는 책을 함께 읽을 수도 있겠네~”라고 이야기 한다.

□ 부모 면담·공동의 해결책 강구하기.

- 기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유아의 우울한 분위기가 부모와의 관계에서의 문제 인지, 특별한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인지 원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부모 면담 진행하기.
- 유아 관찰기록을 부모와 함께 보며 유아의 우는 행동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유아-부모 관계, 가정에서의 특별한 사건 등을 통해 원인을 인식하기.
- 부모 면담을 통해 교사와 부모가 원인을 찾는 가운데서 해결책도 함께 구상하기.
- 교사는 부모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그 의견에 대한 전문적 조언, 견해를 첨가하기.
- 가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어린이집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 가정과 어린이집 모두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찾기.

부모 면담·공동의 해결책 강구의 예	
상황	교사는 부모에게 유아가 어린이집 일과 중 많은 시간에 울음과 침울한 표정을 나타냄을 이야기하고 가정에서도 그런지 물어본다. 부모가 가정에서도 요즘 동일한 상황이 반복됨을 이야기 한다.
발문	교사는 원인을 찾기 위해 부모에게 “제가 어린이집에서 ○○를 관찰해 보니 특별히 또래 관계 등에서 변화한 것이 없는데요. 혹시 요즘 가정에서 변화한 점이 있나요? 부모님 간의 관계의 변화라든가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 또는 부모님이 편찮으신 곳은 없는지 등이요. 작은 변화라도 함께 이야기 나누면 ○○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 부모-유아 안정적 관계 형성 유도하기.

- 관찰 결과 유아의 기질이 우는 행동의 원인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원인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부모 면담 실시하기.
- 유아 관찰기록을 부모와 함께 보며 유아의 우는 행동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 유아-부모 관계, 가정에서의 특별한 사건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 부모와 불안정한 관계가 문제라면 교사가 부모가 유아와 안정적인 관계를 맺도록 수용적이고 반응적인 상호작용을 코칭하기.

- 특별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도록 기다림.
 - 이사 등의 환경적인 변화가 문제라면 환경 변화에 유아가 서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부모, 교사가 기다려 주기.
 - 동생이 양육자에게 주목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동생과 동일한 행동을 하고자 하여 퇴행이 나타나며 울음이 늘어나기 때문에 교사는 동생이 태어나는 것이 유아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줌을 이해하고 수용적인 태도 보이기.
 - 가정과 연계하여 부모가 유아에 대해 보다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유아와 1:1 상호작용을 늘릴 수 있도록 돕기.
- 교실이나 교사와의 관계에서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도록 돕기
 - 유아가 좋아하거나 관심보일 만한 활동을 고안하여 이를 제안하고 유아를 참여 시키기. 이를 통해 적게라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됨.
 - 우울한 유아는 자칫 주변 사람들의 기분도 저하시켜 또래에게 인기가 없거나 교사도 이런 유아를 반기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럴수록 유아를 쓰다듬거나 안아 주는 등의 신체적 표현으로 친밀감과 따뜻함을 표현할 필요가 있음.
- 위와 같은 개입이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관련 문제행동이 심각해진다면 전문가 평가를 고려해봐야 됨.
- 일과 중 대부분을 심드렁하고 울적하거나 우울한 기분으로 보내고, (의학적인 이유없이 혹은 그에 비해 과하게) 자주 아프며, 신경질이나 짜증이 부쩍 증가하고, 평소에 좋아하던 일에도 흥미와 관심이 저조해지며, 안절부절하거나, 집중력이 떨어지고, 피곤해하고 활기가 없어질 때, 입맛이 없어지거나 체중이 줄 때 혹은 그 반대의 경우가 관찰되는 지 살펴봐야 됨.

21. 기분 변화가 심한 경우

연령 : 만 4세

아침에 등원을 할 때 유아의 어머니가 “선생님 오늘 ○○가 기분이 특별히 좋은 것 같습니다.”라고 말한다. 유아는 보육실로 들어와 가만히 언어 영역에 앉아 책을 집어 든다. 또래가 “○○야, 안녕” 인사하자 유아도 “안녕,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뭐야?” 라고 물어본다. 유아는 곧 미술영역에 가서 종이를 꺼내고는 옆드려서 고개를 들지 않는다. 교사가 “○○야, 왜 그래? 어디가 아프니?” 물어보니 아무런 말없이 고개를 젓는다. 이 후 ○○는 다른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기분이 가라앉아 있다가 오후에는 다시 기분이 좋아져 또래와 즐겁게 활동하였다.

가. 원인 분석

유아의 기질적 특성

- 지나치게 예민하여 주위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감정조절이 어려움.
- 부모나 조부모 혹은 친척 등 가족 내 기분 변화가 잦고 그 폭이 큰 성향을 가진 분이 있을 수 있음.
- 물리적 환경, 양육자, 또래 등의 관계 변화에 민감함
- 동일한 상황, 사건에 또래보다 과도한 반응성을 보임.
- 또래에 비해 자존감이 낮은 경우에도 감정 기복이 심할 수 있음.

정서적 미성숙

- 자신의 기분을 전환하기 어려움.
- 자신의 기분을 상황에 맞게 조절하기 어려움.

- 유아의 특성상 감정 기복이 심해서 슬픔과 기쁨 등의 감정이 쉽게 변하며, 과거에 비해 유아가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므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우울한 모습을 보이기도 함(조운주·최일선, 2008).

나. 지도 방법

- 유아의 기질 이해하기

- 유아 행동 관찰, 양육자와의 면담을 통해 유아의 기질을 파악하기
- 전문 서적을 통해 유아의 기질적 특성 알아보기

□ 유아의 기질 수용하기

- 유아의 행동이 기질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하기
- 유아의 행동이 기질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임으로 단시간에 쉽게 변화할 수 없음을 이해하기
- 유아의 기질을 바꾸기 보다는 수용함으로써 유아의 기분이 조절되도록 돕기

수용하기의 예	
상황	유아가 언어 영역에 가만히 앉아 있다. 교사가 역할 영역에서 “○○야, 옷 사러 오세요. 여기는 옷 가게예요”라고 자연스럽게 참여를 유도해도 쳐다 보지 않는다. 교사가 유아에게 다가가 “○○야, 놀이하고 싶지 않니?”라고 묻자 유아는 고개를 끄덕인다.
발문	교사는 부드러운 목소리와 표정으로 “○○가 지금 놀이하고 싶지 않구나! 왜 그렇지 선생님은 궁금하네. 선생님에게 왜 놀이하고 싶지 않은지 이야기해 줄래?”라고 묻는다. 유아는 “그냥, 기분이 나빠요”라고 대답한다. 교사는 “그렇구나! ○○가 그냥 기분이 나쁘구나! 선생님이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의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선생님이 옆에 있어줄까?”라고 묻자 유아는 고개를 끄덕인다.

□ 물, 모래, 점토, 물감놀이 등 비구조적인 재료의 놀이로 기분 조절하기

- 유아가 조작하는 대로 모양이 바뀌고 결과가 정해지지 않은 비구조적인 재료의 놀이로 기분을 전환하기

비구조적인 재료의 놀이로 기분 조절하기의 예	
상황	유아가 언어 영역에 가만히 앉아 있다. 교사가 “○○야, 우리 함께 놀이할까?”라고 이야기하자 유아는 고개를 젓는다.
발문	교사는 “○○가 지금 놀이하고 싶지 않구나! 선생님이 미술 영역에 여러 가지 색깔 점토를 준비했어. ○○가 만지고 싶은대로 해 볼 수 있는데 놀이 해 볼래? ○○가 기분이 나쁘면 여기 있는 망치로 점토를 쿵!쿵! 두드려 볼 수도 있어. 어때?”라고 이야기 한다. 교사가 유점토를 꺼내 망치로 두드리자 유아가 다가온다.

□ 그림책 등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서 기분 전환 방법 알아보기

- 자신에게 직접 닮친 상황에서 기분을 조절, 전환하기 어려우므로 그림책, 상황극 등을 보고 제 3자의 입장에서 기분을 조절,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돕기

- 유아의 심한 감정 기복은 유아의 식사나 수면, 유아의 또래 관계 등 전반적인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므로 교사의 면밀한 관찰이 요구됨(조운주·최일선, 2008).

22. 정서 발달이 또래에 비해 늦은 경우

연령 : 만 4세

또래가 정성스럽게 그림을 그리고 색칠하고 있는데 실수로 친구의 팔을 쳐서 그림을 망치게 된다. 그림을 그리던 유아는 속상해서 울고 있는데 정작 팔을 친 ○○는 “야, 다시 그리면 되지 뭐 그러냐?”며 속상해서 우는 친구를 오히려 놀린다.

아침에 엄마한테 혼나서 시무룩하게 등원한 친구를 다른 유아들은 위로해주며 양보해 주는데, ○○는 친구의 시무룩한 얼굴을 향해 왜 자신에게 화를 내냐며 때리려는 시늉을 보인다. ○○는 글을 읽고 쓰거나 셈하기 등 인지발달은 또래에 비해 빠르나, 친구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는 서툴러 늘 교사의 개입이 필요하다.

가. 원인 분석

- 유아의 부모 등의 양육자가 유아의 정서적 표현에 부적절하게 반응한 것이 유아의 정서 발달 지연을 초래한 경우임.
- 정서는 성장하면서 분화되고 양육자의 적절한 반응을 통해 발달함.
 - 정서가 분화되는 시기에 양육자가 유아의 정서적 표현을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등의 부적절한 반응을 보이면 정서 발달에 문제가 발생함.
- 유아가 정서 표현을 나타내었을 때 유아의 감정 상태를 읽어 주고 함께 공감해 주며 부정적인 감정을 바람직한 방법으로 표현하도록 모델링을 보여주는 것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서 발달이 지연될 수 있음.

나. 지도 방법

- 유아의 정서 표현, 조절에 대한 양육자의 반응 점검하기

- 양육자의 성격이 반응이 적고 민감성이 떨어지는 경우 유아의 정서 표현, 조절에 적절한 반응을 하지 못함.
 - 부모 면담, 교육이나 등하원시 또는 어린이집 행사 참여 등을 통해 양육자 자신의 정서 표현, 조절 정도를 점검하기
 - 반복 관찰로 양육자의 반응 양식을 파악하고, 이러한 양육자의 반응 양식과 유아의 행동 특성 연결하기
 - 양육자의 반응에 대해 교사회의에서 논의하여 양육자 반응의 부적절성 여부를 확인하기
- 유아의 정서 표현에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코칭하기
- 양육자가 유아의 정서 표현을 정확히 인식하도록 돕기
 - 매일 가정에서 보이는 유아의 정서 표현 사례를 가지고 양육자와 이야기 나누기
 - 양육자가 유아의 정서 표현에 적절한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교사가 모델링 보여 주기
 - 사례에서 나타난 유아의 정서 표현이 어떤 상태인지 언어로 표현해 보도록 돕기.
 - 양육자와 면담을 통해 유아의 정서 표현에 대해 양육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면 좋을지 이야기 하고 모델링 해 주기
- 유아의 정서 표현, 조절 돕기
- 유아가 자신이 나타내는 정서 표현에 이름을 붙일 수 있도록 상황별로 즉시 개입하여 이야기 나누기
 - 교사가 정서에 이름을 붙이기보다는 유아와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자신의 정서에 이름을 붙일 수 있도록 하기
 - 유아가 자신과 상호작용하는 또래가 나타내는 정서를 보고 어떤 정서 표현인지 이름을 붙이도록 하기

상황별 정서에 이름 붙이기의 예

상황	유아가 이젤에 걸린 종이에 물감을 칠하다가 또래 여아의 옷에 물감이 묻힌다. 여아는 “아, 내가 좋아하는 옷인데 물감이 묻었어. 어떻게 하지?”라고 한다. 교사가 다가가 물티슈로 물감을 닦아내고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옷을 닦고 돌아온다.
발문	교사는 유아에게 또래 여아를 가리키며 “○○야, △△가 좋아하는 옷에 물감이 묻었을 때, △△의 기분이 어땠을까? 그래, 많이 속상했겠구나! 그럼 △△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좋을까?”라며 또래 유아의 정서를 느끼고 이름을 붙여 명료화하도록 돕는다.

- 그림책에서 나타나는 인물들의 정서 표현을 보고 정서를 변별해 이름을 붙여 보도록 하기

상황별 정서 변별하기의 예	
상황	유아와 함께 「괴물들이 사는 나라」를 읽고 있다.
발문	교사는 “맥스가 저녁을 먹지 못하고 방에 들어 갔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라고 질문을 던진다. 유아의 대답을 들으며 “그래, 슬펐구나! 기분이 좋지 않은 것 중에 슬픈 거였네”라고 정서에 이름을 붙인다.

- 유아 자신이 상황에 따른 적절한 정서 표현을 나타내었을 때, 공감해 주고 해당 정서 표현이 적절했음을 격려해 주기

상황별 정서 표현, 조절에 정당화해 주기의 예	
상황	또래가 블록을 모두 가지고 가서 유아가 “나도 쓸 수 있게 줘”라고 소리친다.
발문	교사는 “○○가 쓸 수 있는 블록이 모자라서 속상하구나! 그러면 ○○이가 하고싶은 것을 못하니까 속상할 수도 있겠네. 속상해서 친구에게 이야기했구나!”라고 이야기한다.

23. 분노 폭발로 관심을 받고 싶은 경우

연령 : 만 5세

유아가 쌓기 영역에서 자전거 길을 만들고 있다. 원하던 대로 구성이 되지 않는지 “아이 왜 이렇게 안돼”라고 소리를 지른다. 유아는 사각 단위 블록을 손에 들고 자신의 머리를 친다. 옆에 있던 또래가 놀라서 “선생님, ○○가 블록으로 자기 머리를 때려요”라고 이야기 한다. 교사가 그 말을 듣고 “○○야, 다치겠다. 그만해”라고 이야기하자 교사를 힐끗 보더니 다시 블록으로 머리를 때린다. 다른 영역에 있던 또래들이 “○○좀 봐”라고 쳐다보자 다시 자신의 머리를 내려친다.

가. 원인 분석

- 분노 폭발 후 양육자의 특별한 관심을 받거나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경험 이 반복되면서 분노 폭발 행동이 강화되고 지속됨.

나. 지도 방법

- 먼저 유아가 분노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 공감하기
 - 유아의 분노를 인정해주고 공감을 표현하는 것만으로 유아의 분노가 풀리기도 함.
 - 분노를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 유아가 모방 학습할 수 있는 모범적인 방법을 제시하기
 - 화가 났을 때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표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 관심을 끌기 위한 분노 폭발에 관심 철회하기
 - 유아가 부정적인 방법으로라도 양육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지나치게 분노를 보일 때 깜짝 놀라거나 제지하게 되면 그 자체가 유아의 분노 폭발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음을 이해하기
 - 부정적인 반응이라도 관심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반응하지 않도록 하기
 - 분노 폭발로 유아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도록 하기
 - 유아가 자신의 요구 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분노 폭발을 보이려고 하는 행동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
 - 요구 사항을 관철시키는 방법으로 분노 폭발을 실행하지 않도록 미리 상호작용하기
- | 행동화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의 예 | |
|--------------------|---|
| 상황 | 산책을 가기 위해 보육실 문 앞에 줄을 선다. 유아가 갑자기 “야, 내가 먼저 왔다 구. 내가 맨 앞에 설거야”라고 소리를 지른다. 또래가 “아니야, 내가 먼저 왔어”라고 이야기 하자 “내가 먼저 왔어. 비켜”라며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치려 한다. |
| 발문 | 교사는 유아의 손을 잡아 유아가 바닥을 내리 치는 행동을 중지하도록 하며 화난 이유를 언어로 표현하도록 한다. “○○야, 네가 맨 앞에 서고 싶었구나! 그런데 맨 앞에 서기 위해서 소리 지르고 바닥을 내리치는 것은 안돼.” |
- 유아가 자신의 요구 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분노 폭발을 하더라도 그 요구를 들어 주지 않기
 - 분노를 가라앉히고 요구 사항을 교사와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자신의 요구 사항을 교사와 이야기 나누기의 예	
상황	산책을 가기 위해 보육실 문 앞에 줄을 선다. 유아가 갑자기 “야, 내가 먼저 왔다구. 내가 맨 앞에 설거야”라고 소리를 지른다. 또래가 “아니야, 내가 먼저 왔어”라고 이야기 하자 “내가 먼저 왔어. 비켜”라며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치려 한다.
발문	교사는 “소리 지르고 바닥을 내리친다고 해서 맨 앞에 설 순 없어. 자, 맨 앞에 서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선생님하고 이야기 해 볼래?”라고 이야기 한다. 많은 또래들이 기다리고 있어 즉시 이야기를 나누기 어렵다면 “많은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구나! 미안해! 지금은 선생님이 ○○하고 오래 이야기 나누기 어렵구나! 산책가서 놀이를 시작하면 다시 이야기 나누어 보자꾸나”라고 이야기한다.

- 제한하는 행동을 계속 할 때는 타임아웃(time-out)을 할 수도 있음
- 타임아웃은 강화, 보상 및 관심을 잠시 멈추는 것을 의미함(Lynn, 1995, 홍성운·김유미 역, 1998)
 - 나쁜 행동이 일어난 직후(가능한 한 10초 이내)에 강화적이거나 즐거운 상황에서 아이를 빨리 격리시켜서, 강화적이거나 즐겁지 않은 조용하고 지루한 장소에 아이를 두는 것임.
 - 타임아웃을 적용하기에 적절한 행동: 때리기, 성질 부리기, 다른 아이 괴롭히거나 화나게 하기, 화가 나면 고함지르고 괴성 지르기, 장난감 던지거나 뺏거나 부수기, 다른 사람 물거나 물려고 위협하기, 물건 던지기, 침 뱉거나 그러겠다고 위협하기, 꼬집거나 핏대하기, 징징대기, 약 올리기, 욕하기, 경고를 받고 나서도 어른의 대화에 계속 끼어들기
 - 타임아웃을 적용하기에 부적절한 행동: 빠지기, 뿌루통하기, 짜증내기, 옷과 장난감 치우지 않기, 숙제나 각종 연습을 하지 않기, 의존적이거나 수동적인 행동, 혼자 있으려함, 교사가 직접 목격하지 않은 행동
 - 타임아웃의 절차
 - 미리 타임아웃을 정할 대상 행동을 한 가지 정함
 - 그 대상행동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세어 봄
 - 미리 타임아웃 장소로 사용할 따분한 공간을 정함 (무섭거나 재밌는 곳은 안됨)
 - 미리 타임아웃에 대해서 설명함
 - 대상 행동이 나타나면 10초 이내, 10마디 이하를 사용해서 타임아웃 장소로 보냄
 - 휴대용 타이머(타임아웃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 반드시 구비하고 있어야 됨. 아이와 교사 모두에게 정확한 신호가 될 수 있음)로 시간을 맞춤. 연령당 1분씩 타임아웃 장소에 있어야 함.

- 타이머가 울리기까지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말아야 됨.
- 타이머가 울린 후에 타임아웃 장소에 간 이유를 말해보도록 함.

24. 잘못에 대해 제지 받은 경험이 없어 잘못하지 않았다고 우기는 경우

연령 : 만4세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쌓기 영역에서 유아가 갑자기 덤블링을 한다. 교사가 “친구들 놀이에 방해 되니까 덤블링을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 했더니 “나 덤블링 안했어요. 나한테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라며 큰 소리를 지른다. 교사가 “선생님하고 이야기 해 보자. ○○가 쌓기 놀이에 덤블링 하지 않았니?”라고 다시 이야기하자 소리를 지르며 “안했다니까요.”라고 이야기한다. 하원시에 엄마를 만나자 “엄마, 선생님이 나에게 나쁘게 이야기 했어”라고 한다.

가. 원인 분석

- 유아는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점차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중심적 성향에서 벗어남.
- 유아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설명해 주고 잘못된 행동을 계속하지 않도록 양육자가 제지해야 함.
- 또한, 잘못된 행동을 바람직한 행동으로 바꾸어 행동해 보는 경험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함.
- 이런 유아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양육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거나 양육자에 의해 잘못된 행동을 제지를 받고 바람직한 행동으로 시정해 본 경험 부족한 경우에 나타남.

나. 지도 방법

- 양육자 교육하기

- 유아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행동이 양육자가 행동의 제한과 시정에 대한 경험을 적절히 주지 않아서 나타났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기
- 양육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되 전문가적 견해가 보이도록 원인에 저술된 내용을 참조하여 이론적 근거를 들어 설명하기
- 양육자가 유아의 잘못된 행동에 제한을 할 수 있는 ACT(Acceptance, Communication, Target behavior) 방법 교육하기
 - ACT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 A:감정에 대한 수용하기: 감정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음”을 인정하고 알려주기
 - B:제한하기: 감정에 대해서는 수용하지만 행동은 모두 받아줄 수 없음을 명확하게 알리기, 부드럽지만 단호한 태도로 제한 사항에 대해서 언급하기
 - C: 대안행동 제시하기: 잘못된 행동을 대신하면서 감정을 발산할 수 있는 대안행동 제시하기
 - B단계에서 제한한 행동 대신 아동이 자신의 감정을 발산하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행동을 찾아주고 이를 행함으로써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 교사에 의한 적절한 제한하기
 - 교사와 양육자가 일관성 있게 유아의 행동에 대해 대처하기 위하여 양육자와 비정기적 상담을 수시로 진행하기
 - 양육자의 가정에서의 대처에 대해 조언하면서 교사 자신의 유아에 대한 상호작용도 점검하기
 - 양육자와 마찬가지로 ACT방법 실행하기

ACT의 예	
상황	쌓기 영역 교구장에서 블록을 꺼내려다가 또래가 실수로 자신의 블록 구성물을 무너뜨리자 “내가 쌓아 놓은 걸 무너뜨리면 어떡해?”라고 말하며 친구의 블록 구성물을 일부러 무너뜨린다.
발문	교사는 부드러운 목소리와 표정으로 “친구가 실수로 ○○ 탑을 무너뜨려 속상하구나(감정의 수용), 그런데 아무리 화가 나도 일부러 친구의 작품을 망가뜨려서는 안돼(제한에 대한 의사소통), 그 대신 화나는 마음을 블록 쌓았다가 무너뜨리기로 풀거나, 종이 구기기로 풀 수는 있어(대안 행동). ○○이는 무엇을 해보고 싶니?”

25. 이후 상황이 두려워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연령 : 만4세

역할 영역에서 병원 놀이가 진행되고 있다. 유아가 또래와 서로 의사 역할을 하겠다고 이야기 하다가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낸다. 교사가 “너희들, 무슨 일이니?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해 보자”라고 이야기 한다. 유아는 “저 아니에요. 제가 그런거 아니에요”라고 이야기 하며 손을 내젓는다. 교사가 “○○야, ○○야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인지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해 보자는 거야. 우리 함께 이야기 해 볼까?”라고 말하자 고개를 숙이고 입을 꼭 다문다.

가. 원인 분석

- 소심한 성격을 갖고 있고 자기 자신의 능력 등에 대해 자신감이 부족하여, 결과를 알 수 없는 모호한 상황에서는 무조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우가 있음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양육자, 교사 등 성인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거나 성인에 의한 훈계나 질책이 이어질 것이라 생각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음.
- 주위 사람들로부터의 부정적인 피드백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경우에 나타남.

나. 지도 방법

- 유아 개별의 구체적인 장점을 찾아 격려하기
 - 유아는 모두 한 가지 이상의 장점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기
 - 교사는 세심한 관찰을 통해 개별 유아의 구체적인 장점을 찾아보기
 - 단순히 “너는 멋지구나! 잘 할 수 있어”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영유아가 격려받기 보다는 일상적으로 늘 교사가 지나가면서 하는 말로 인식하기 쉬움.
 - 유아의 아주 구체적인 행동, 기술, 태도 등을 찾아 격려하기
- 유아의 장점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 제공하기

- 유아 장점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놀이 활동, 일상생활 활동을 찾아 그 활동을 해보기를 권유하기
- 유아의 장점이 활동에서 드러나면 또래, 교사가 주목하기
- 유아의 장점이 활동 속에서 드러나면 이를 언어, 비언어적으로 표현하여 또래, 교사의 관심이 이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기

유아의 장점이 드러나면 주목하기의 예	
상황	매트 위에서 구르기 활동을 하고 있다. 또래가 옆으로 구르기를 하고 있는데 유아는 앞으로 구르기를 한다. 몸을 동그랗게 굴러서 앞으로 구르기를 하고 있다.
발문	교사는 또래가 유아의 행동을 보도록 유도하며 “○○가 몸을 동그랗게 말아서 앞으로 구르기를 하고 있네. 와, 앞으로 테롤 굴러가네. 애들아, ○○가 몸을 동그랗게 만들어서 앞으로 쑥! 구르기를 하네. 대단하다~”라고 말한다.

- 성취감을 증가 시킬 수 있도록 활동 수준 조절하기
 - 관찰을 통해 정확한 유아의 언어, 인지, 사회, 정서, 신체 발달 수준을 파악하기
 - 파악된 유아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유아가 쉽게 스스로 교사의 큰 도움 없이 수행할 수 있는 활동 제공하기

- 안심시키기
 - 유아에게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음을 유아가 선호하는 대상(교사, 부모 등)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기
 - 유아의 실수에 대한 결과를 설명하며 실수가 엄청난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기

유아가 실수를 가볍게 느끼도록 하기의 예	
상황	미술 영역에서 종이를 자르다가 책상 위에 덮어 놓은 비닐지를 함께 잘랐다.
발문	교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야, 괜찮아. 선생님도 지난번에 미술 영역에서 종이를 자르다가 옆에 있는 다른 색 한지를 함께 자른 적이 있단다. 모두 원하지 않지만 가끔 실수를 한단다.”라고 말한다.

- 교사는 유아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는 일이 어려운 과정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잘못을 힘들게 인정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격려하기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 격려하기의 예	
상황	미술 영역에서 종이를 자르다가 책상 위에 덮어 놓은 비닐지를 함께 잘랐다.
발문	교사는 부드러운 표정과 목소리로 “그래, ○○가 종이와 비닐지를 함께 잘랐구나! ○○가 이야기하기 힘들었을 텐데 먼저 얘기해 주어 정말 선생님은 기쁘구나!”라고 이야기하며 유아를 토닥인다.

-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격려하여, 실수나 잘못을 인정해도 자신이 우려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음을 이해하도록 하고 안심시키기

안심시키기의 예	
상황	유아가 미술 영역에서 종이를 자르다가 책상 위에 덮어 놓은 비닐지를 함께 잘랐다.
발문	교사는 “책상 위에 찢은 비닐지가 오려졌지만 조금 벌어졌을 뿐이네. 우리 함께 테이프를 잘라 붙여보자.”라고 제안하고 유아가 테이프로 비닐을 붙인 후 “금새 붙었네. 별일이 아니구나!”라며 안심시킨다.

26. 마음속에 가득 찬 화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연령 : 만5세

유아가 미술 영역에서 크레파스로 ‘주말 지낸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크레파스를 손에 쥐고 몸을 옆에 돌리던 유아가 옆 또래의 도화지에 크레파스로 줄을 긋는다. 또래가 “야, 내 그림에 그리면 어떡해?”라고 이야기 하자 유아는 들은 채도 하지 않는다. 또래가 울면서 “선생님, ○○가 제 도화지에 그림을 그렸어요”라고 이야기 하자 유아는 또래의 얼굴에 입을 대고 “네가 나를 이상하게 쳐다 보았잖아”라고 소리를 지른다. 교사가 “무슨 일인지 함께 이야기 해 볼까?”라고 이야기 하자 “나는 잘못된 것 없어요. 애가 나를 이상하게 쳐다봐서 그런거예요”라고 이야기 한다.

가. 원인 분석

- 양육자와의 불안정한 관계, 형제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 유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불만이 내적으로 쌓여 항상 화가 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유아가 있음. 이럴 경우 또래들은 별문제 없이 넘어갈 일도 사사건건 트집을 잡거나 사소한 일로도 쉽게 불쾌해짐.
- 자신이 잘못하거나 실수한 상황이 되어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내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화를 폭발시킴.

나. 지도 방법

- 유아의 심리적 불만의 원인 찾기
 - 유아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장면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관찰하고 기록하기
 -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통점을 찾아 원인 파악하기
 - 가정에서 나타나는 유아가 지나치게 고집을 부리는 장면이 있는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는지 양육자와 면담하기
 -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공통점을 찾아 원인 파악하기
- 유아의 불만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어린이집-양육자 공동책 마련하기
 - 유아의 불만 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여 어린이집과 가정에서 공동으로 실행하기
 - 유아의 불만 요인이 양육자와의 불안정한 관계에서 시작된 경우에 양육자가 유아에게 신뢰감과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민감하고 반응적인 상호작용을 하도록 돕기
 - 어린이집에서도 양육자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경험한 즐거운 상호작용 내용을 격려해주기
- 즐겁고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경험 제공하기
 - 유아의 발달 수준에서 쉽게 스스로 할 수 있고 선호하는 활동이어서 두려움 없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 쉽게 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성취감, 만족감 등의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 긍정적인 감정을 언어로 명료화 시켜 주고, 작은 긍정 정서를 증폭시켜 유아가 무심코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기
- 위와 같은 개입이 효과가 없고, 오히려 유아의 문제행동이 더 심해진다면 전문가의 평가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자주 버럭 화를 내고, 어른과 논쟁하고, 적극적으로 어른의 요구나 규칙을 무시하거나 거절하고, 고의적으로 타인을 귀찮게 하며, 자신의 실수나 잘못된 행동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타인에 의해 쉽게 기분이 상하고 쉽게 신경질을 내며, 화내고 원망하고, 양심을 품고 있는 행동이 연령이나 동일한 발달수준의 또래에 비해 더 빈번한지를 고려해봐야 함.

27. 겁이 많아서 새로운 활동을 지나치게 거부하는 경우

연령 : 만4세

수조작 영역에서 주사위 게임을 또래와 유아가 하고 있다. 교사가 다가가 “우리 이 게임 여러 번 해서 익숙해졌지? 좀 더 재미있게 규칙을 바꿔서 해 볼까?”라고 이야기 한다. 또래는 “좋아요. 어떻게 바꿀까요?”이야기 한다. 유아는 “싫어요. 나는 그냥 할래요.”라고 말한다. 교사가 “새로운 규칙을 만들면 더 재미있지 않을까? 우리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 하자 소리를 지르며 “싫다니깐요. 그냥 할래요.”라고 말한다.

가. 원인 분석

- 현재 위험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 활동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여 새로운 상황, 활동을 거부하는 것으로 불안함을 억제함.

나. 지도 방법

- 유아의 기질에 대해 이해하기
 - 유아가 교사의 지도나 제시에 불만을 갖고 저항하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활동, 상황이 두려워 시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 유아의 기질상 새로운 상황, 활동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새로운 것에 대해 탐색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을 인식하기
 - 유아의 기질을 바꾸려하기 보다 유아의 기질을 수용하여 기다려 주기

유아의 기질 수용하기의 예	
상황	오늘 처음 시작하는 신체 게임 활동을 대집단으로 하고 있다. 유아가 끝까지 하지 않겠다고 한다.
발문	교사는 “○○가 게임을 하고 싶지 않구나! 새로운 게임이라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래 친구들이 하는 것을 보렴. 그리고 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렴”라고 부드럽게 이야기 한다.

새로운 활동, 상황에 대해 미리 자세히 설명하기

- 유아가 새로운 활동, 상황을 탐색하는 시간이 길다는 것을 이해하고 다른 또래보다 미리 새로운 활동, 상황에 대해 설명하여 유아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하기

새로운 활동, 상황 미리 설명하기의 예	
상황	수·조작 영역에서 새로운 놀잇감을 배치한다. 교사는 놀이 소개 시간에 대집단으로 새로운 놀잇감을 소개하기 전 유아와 1:1로 새로운 활동에 대해 이야기 한다.
발문	교사는 “○○야, 오늘 수조작 영역에 새로운 교구를 준비했어. 주사위 두 개를 던져서 두 개의 주사위에 그려진 나뭇잎 수만큼 말을 움직이는 게임이야. 오늘 놀이 소개 시간에 이야기 할텐데 ○○에게 먼저 이야기 하는 거야.”라고 부드럽게 이야기한다.

- 새로운 활동, 상황을 유아가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히 설명하기
- 자세한 설명으로 새로운 활동,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면 두려움이 감소될 수 있음을 이해하기

새로운 활동, 상황 자세히 설명하기의 예	
상황	수·조작 영역에서 새로운 놀잇감을 배치한다. 교사는 놀이 소개 시간에 대집단으로 새로운 놀잇감을 소개하기 전 유아와 1:1로 새로운 활동에 대해 이야기 한다.
발문	교사는 “○○야, 놀이 소개 시간에 게임 소개에 대해서 들었지.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어떤 게임인지 이야기해 줄게.”라고 부드러운 태도로 이야기 한다.

유아 참여에 대한 기대치 조정하기

- 유아가 새로운 활동, 상황을 탐색하는 시간이 길고 처음에는 소극적 참여로 일관할 것임을 인식하고 유아 참여에 대한 기대치 낮추기
- 소극적 참여의 시간을 충분히 배려하고 익숙해지면 적극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 유아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격려하기

28. 환경변화로 인해 산만해진 경우

연령 : 만 3세

어머니가 출산하여 산후조리원에서 기거하는 바람에 갑자기 할머니와 함께 어린이집 등하원을 하는 유아가 있다. 이 유아는 어머니가 출산하기 직전 한달 동안은 이모댁에서 등원하였는데 어린이집과 거리가 멀어 지각이 잦고 밤에 잠드는 시간도 늦어졌다 한다. 어느 정도 적응할 무렵 할머니댁으로 옮겨가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아이방이 따로없고 식사, 취침, 놀이 등이 거실에서 모두 이뤄지고 있었다. 이 유아는 최근 놀이 시간에 한 가지 활동에 몰입하여 놀이하지 못하고 영역에 있는 놀잇감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한다. 교사가 “○○야, 여기 역할 영역 음식점으로 오세요. 맛있는 음식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하며 자연스럽게 가작 놀이 참여를 유도하자, 힐끗 쳐다보고 역할 영역에 왔다가 바로 조작 영역으로 가서 끼우기 놀잇감을 꺼내 든다. 끼우기 놀잇감을 쳐다 보다 금세 언어 영역으로 이동한다.

가. 원인 분석

- 유아를 둘러싼 가정환경, 어린이집 환경 등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유아의 스트레스를 유발함.
- 스트레스는 유아의 산만하고 부주의한 행동을 이끌 수 있음.

나. 지도 방법

- 스트레스 원인 찾기
 - 양육자와의 면담을 통해 갑작스러운 환경, 상황 등의 변화 찾기
 - 양육자와의 면담을 통해 갑작스러운 환경, 상황 변화 중 유아에게 스트레스원이 어떤 것인지를 추측해 보기
 - 추측한 내용으로 유아의 행동을 관찰하거나 유아와 이야기 나누어 스트레스원 확인하기

□ 원인에 따른 해결책 마련하기

- 부모의 장기 출장으로 인한 부모의 부재와 양육자 변동이 문제라면 유아에게 부모의 부재에 대해 정확히 다시 설명하고 전화 등을 통해 부모와 잦은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돕기
- 유아의 스트레스 원인을 이해하고 수용해 주기

수용하기의 예	
상황	쌓기 영역 교구장에서 블록을 꺼내려다가 또래가 쌓아 놓은 블록 구성물을 무너뜨렸다. 또래가 “내가 쌓아 놓은 걸 무너뜨리면 어떡해?”라고 이야기하자 유아는 “내가 다른 곳에 쌓았어야지. 왜 나한테 소리질러”라고 말한다.
발문	교사는 부드러운 목소리와 표정으로 “○○야, ○○가 블록을 꺼내고 싶었구나! 블록이 필요했구나!”라고 이야기 한다.

- 갑작스러운 유아의 산만, 부주의에 지나친 관심 표현하지 않기
 - 확인된 스트레스 원인을 최대한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양육자-교사가 함께 모색하기
- 과제나 놀이의 난이도를 조절하거나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 마련하기(양옥승·정채옥·조유나, 2011).
- 주어진 과제나 놀이 상황이 너무 쉽거나 지루한 경우에도 유아가 집중하지 못해 집중하지 못할 수 있음.
 - 외향적인 성향을 가진 유아는 달리기나 스포츠 놀이를 통해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도 좋음.

29. 심리적 문제 때문에 산만한 경우

연령 : 만 4세

유아가 미술 영역에서 가위를 들고 있다. 친구들이 놀이하는 모습을 쳐다보았다가 가위를 보았다가 다시 벽을 보았다가를 한다. 결국 자유선택활동이 끝날 때까지 오리기를 하지 못한다. 하원 시간에 엄마가 데리러 오자 엄마를 본체만체하더니 복도를 끝에서 끝까지 뛰어 다닌다.

가. 원인 분석

- 양육자와의 불안정 애착, 가족 간의 문제 등 심리적 문제가 지속되어 유아에게 우울이나 불안을 야기시켜 일상생활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함.

나. 지도 방법

- 유아의 심리적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함.
 - 양육자와의 면담, 유아 행동 관찰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아가 지닌 심리적 문제의 원인 찾기
 - 유아 심리적 문제의 원인은 단시간에 표면적으로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지속적인 양육자와의 면담, 유아 관찰을 통해 찾아보기
 - 부모의 솔직한 정보제공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교사가 유아에게 갖고 있는 관심과 진정성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 지속적인 양육자와의 면담, 유아 관찰을 통해 유아의 심리적 문제의 원인을 추론하고 확인하기
- 원인에 따른 해결책을 찾음.
 - 심리적 문제를 야기 시키는 원인 감소시키기
 -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온 문제이기 때문에 원인을 단시간에 제거하기 힘들음 이해하기
 - 점차적으로 심리적 문제의 원인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기
 - 유아의 심리적 안녕을 위해 기꺼이 부모와 함께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전달하기
 - 유아가 심리적 문제 때문에 산만, 부주의 행동이 나타남을 이해하고 수용하기
- 어린이집이나 가정에서 차분한 수동적인 놀이를 유도함.
 - 점토로 만두 빚기, 칠판에 그림 그리기, 큰 상자에 작게 자른 색종이 붙이기 등 손가락을 사용해 몰두할 수 있는 활동하기
 - 유아가 수동적인 입장이 되어 듣거나 보는 '수용 놀이'하기
 - 예를 들면, 책을 읽어주거나 음악을 들려주기

- 유아의 산만한 행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부모에게 알려주기
 - 먼저 자녀의 타고난 기질을 인정하도록 함. 부모가 잘못 양육한 것이 아니라 유아의 개인적 기질임을 이해하도록 하며 부모가 자책하지 않고 좀 더 건설적인 방법으로 아이와 소통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려주기
 -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침이나 규칙을 말해줌.
 - 여러 가지 단계의 복합적인 지시나 추상적인 내용은 아이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잘 먹어라”하는 표현보다는 “텔레비전을 끄고 밥 먹자”, “손가락을 들고 밥 먹어라” 등처럼 두 단계로 이루어진 명확한 자극이 도움이 됨.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칙 말해주는 예	
상황	유아가 교실에서 여러 영역을 돌아다니며 기웃거리기만 한다.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고 왔다 갔다를 반복한다. 교사가 “○○야, 하고 싶은 활동이 뭐니?”하고 묻자 “쌓기 영역에서 블록으로 성도 만들고 싶고 그림도 그리고 싶어요.”라고 대답한다.
발문	“○○가 하고 싶은 것이 많구나. 그럼 먼저 쌓기 영역에 가서 블록으로 성을 만들면 선생님이 보러갈게. 그 뒤에 그림을 그려보자. 지금 성 만들기를 시작할까?”라고 하자 ○○는 쌓기 영역에 앉아서 블록을 꺼낸다.

- 유아의 행동에 될 수 있는 한 빨리 반응해주기
- 유아의 긍정적인 행동에 더 반응을 보이도록 안내하기
- 산만한 유아의 경우, 잘못하는 행동에 자꾸 주의를 받게 되면 부정적인 피드백이 상호작용을 차지하게 되어 위축될 수 있음을 알고 긍정적인 행동을 할 때 얼른 칭찬하고 지지해주기
- 기관이나 가정에서 유아의 행동을 재촉하는 경우에도 유아는 집중력을 잃고 산만해질 수 있음(양옥승·정채옥·조유나, 2011).
 - 유아에게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 성인의 생각 속도에 맞추어 빨리빨리 행동할 것을 요구하거나 유아가 실수를 통해 배울 기회를 주지 않아도 집중력이 떨어짐.

30. 성관계 장면을 따라하거나 다른 성의 친구를 궁금해 하는 경우

연령 : 만3세 성별 : 여

낮잠 시간에 유아가 매트에 누워 두 다리를 꼬면서 다리에 힘을 주기 시작한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두 손으로 매트를 잡으며 힘을 준다. 곧 이어 땀이 나고 얼굴이 빨개진다. 교사가 보고 제지할 때까지 그 행동은 계속된다. 하원시에 교사가 부모와 만나 관찰된 상황을 전달한다. 부모는 유아가 밤에 갑자기 잠이 깨서 부부 관계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걱정한다.

연령 : 만5세 성별 : 남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동일 학급 여아가 교사에게 화장실을 가겠다고 한다. 그러자 옆에서 놀이하던 남아도 교사에게 화장실을 가겠다고 한다. 교사가 다녀오라고 한 후 10분이 지나도 돌아오지를 않는다. 궁금한 교사가 화장실로 찾아가니 여아와 남아가 서로 옷을 내리고 성기를 보여주고 있다. 교사가 “얘들아, 뭐하고 있지?”라고 하자 여아가 “○○가 쉬하는데 서로 보여주자고 했어요”라고 말한다. 교사가 남아에게 “△△가 그랬니?”라고 묻자 남이는 “네. 궁금했어요”라고 대답한다.

가. 원인 분석

- 혼자 있거나 무료할 때 자신을 달래주는 수단으로 자위를 하게 됨(이영, 2011).
- 부모의 성관계나 동영상을 보고 무심코 따라 하기도 함.
- 유아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남녀의 몸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에 관심을 가지면서 서로의 성기를 보여주거나 만져보기도 함.
- 기타 이유로는 부모를 화나게 하거나 분노를 표출하는 수단, 심한 정서적 문제가 있는 경우, 몸이 청결하지 않은 경우, 동생이 생기는 등 신변의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 관심을 받고 싶은 경우, 성추행 후유증 등이 있음.

나. 지도 방법

- 자위나 성 관련 문제는 각 유형에 따른 서로 다른 지도법이 있다기 보다는 각 유형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공통의 지도법을 제시하기

- 우연히 시작한 행동이 즐거움을 주어 반복하게 되거나 우연히 부모의 성 관계 또는 동영상 등을 보고 그 행위를 따라하게 되는 등 시작의 원인은 다르나 나타나는 결과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성적 문제의 고착과 성적 호기심으로 표현되기 때문임.

□ 자위하는 것을 보았을 때 너무 끈질기게 주의를 주거나 꾸짖지 않도록 함.

- 가볍게 “하지 말아라” 정도로 말함.
- 사소한 심부름을 시킨다거나 아무렇지 않은 듯이 안아주는 등 아이의 기분을 바꿔주도록 하는 노력하기

□ 자위로 인한 쾌감을 넘어서는 즐거운 활동 제공하기

- 유아를 관찰하여 영아가 좋아하는 놀이를 파악하여 영아의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놀이 활동 제공하기

유아가 선호하는 놀이 활동 제공의 예	
상황	만3세 남아가 쌓기 영역에서 한 손은 바지 안에 넣어 성기를 만지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블록을 쌓아 올리고 있다. 교사가 “○○가 블록을 쌓고 있구나!”라고 이야기 하자 “자동차야”라고 대답한다. 교사는 “그렇구나!”라고 답한다.
발문	교사는 “선생님은 불을 끄는 소방차를 만들어봐요!”라며 옆에서 병행놀이를 시작한다. 해당 남아가 교사의 구성물에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한다. 교사는 “선생님 이랑 같이 만들어 볼래? 자, 우리 사다리를 만들어보자.”라고 상호작용한다. 유아는 구성을 하기 위해 바지 속에 넣었던 손을 빼다.

- 유아의 발달 수준을 파악하고 유아의 발달 수준에서 쉽게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활동 제공하기

유아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 제공의 예	
상황	만3세 남아가 쌓기 영역에서 한 손은 바지 안에 넣어 성기를 만지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블록을 쌓아 올리고 있다. 교사가 “○○가 블록을 쌓고 있구나!”라고 이야기 하자 “자동차야”라고 대답한다. 교사는 “그렇구나!”라고 답한다.
발문	교사는 “○○가 다른 자동차도 만들어볼까?”라고 제안한다. 유아는 잠깐 생각하더니 “이번에는 병원차도 만들 거야.”라고 이야기 한다. 유아는 작은 블록으로 자동차를 길게 만들고 미술영역에서 구급차 표시를 만들어 오더니 자동차에 테이프로 부착한다. 교사는 “와, 구급차네. 아픈 사람을 태우러 가야겠구나! 구급차 표시도 되어 있구나!”라고 격려한다.

□ 유아의 지루함 덜어주기

- 낮잠 자기 전, 낮잠에서 깨어났을 때 유아가 지루함을 느낄 수 있으므로 교사는 자위를 나타내는 유아 옆에서 토닥여 주거나 두 손을 잡고 자장가를 불러 주며, 1:1 상호작용을 주는 등 함께 시간을 보내 주기

함께 시간 보내기의 예	
상황	유아가 낮잠 시간이 되어 매트에 눕는다. 베게 위에 엎드려 눕더니 베게에 몸을 문지르기 시작한다.
발문	교사는 유아의 매트 옆에 앉아 “○○야, 선생님이 토닥토닥해 줄게. 똑 바로 누워 보자.”라며 베게를 제자리에 놓고 유아를 똑 바로 눕힌다. 교사는 유아의 가슴을 손으로 가볍게 토닥이며 자장가를 불러준다. 유아가 잠들 때까지 계속 옆에 앉아서 토닥인다.

- 전이활동이 의미 없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노래 부르기, 동시 읽어 보기, 개별적으로 책 보기 등을 계획하고 진행하기

전이활동 하기의 예	
상황	여러 명의 유아가 동시에 밥 먹기를 끝내 이 닦기를 하려고 세면대 앞에서 기다린다. .
발문	교사는 세면대 수 만큼 유아 수를 조절하고 나머지 유아는 화장실 밖에서 개별적으로 책을 보도록 한다. 교사는 “세면대가 2개라서 2명이 이를 닦을 수 있겠다. 제일 앞에 서 있는 ○○와 △△는 이를 닦고 나머지는 화장실 밖에서 책을 보자. 선생님이 오늘 읽을 책을 바구니에 담아 왔어. 바구니에 있는 책 중에 보고 싶은 책을 차례 차례 골라 읽어 보자.”라고 이야기 한다.

- 유아에게 질문하기, 제안하기, 자료 선택하기 등을 시도하여 유아가 수동적으로 가만히 듣는 것에서 적극적으로 대소집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유아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소집단 활동 진행하기의 예	
상황	대집단 이야기 나누기를 진행하고 있다. 유아가 지루한지 이야기 나누기를 하며 한 손으로 성기를 만진다.
발문	교사는 용판 자료를 보이며 “○○가 앞으로 나와서 다음에 친구들이 볼 그림을 용판에 붙여 줄래?”라고 이야기 한다.

-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성적 호기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보 제공하기
 - 만3세 이상이 되면 점점 성정체감을 형성하게 되므로 나의 성적 특징과 나와 다른 성의 특징에 대해 호기심을 해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 출생과 관련된 내용, 성기의 정확한 명칭과 역할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기
 - 자신의 몸을 소중히 하고 다른 사람의 몸을 함부로 만지지 않음을 이해하도록 지도하기

다. 유의사항

- 자녀가 자위나 성과 관련된 문제를 보이면 부모는 당황하게 되어 자녀에게 위협을 하거나 처벌을 해서 그 행위를 중단시키고자 함.
- 그러나 많은 연구에서 위협과 처벌은 성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오히려 지나친 위협과 처벌은 유아에게 ‘해서는 안될 것을 자꾸 하는 나쁜애’라는 죄책감을 심어주고, 그로인한 좌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 자위에 몰두하게 할 수도 있음.
 - 성이나 자신의 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할 수도 있어 장기적으로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 은연중에 부모에게 방치되고 있거나 자신이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다고 지각하는 유아들에게서 보다 빈번히 자위행위가 관찰됨.
 - 이는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수준과는 무관한 것으로 심리적으로 지각하는 부모와 가정에 관한 부분임
- 지나치게 자위에 탐닉하는 유아가 있다면 혹시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무서운 부모, 자녀의 성취에 대한 기준이 높아 늘 유아를 평가 절하하는 부모, 바쁜 부모 밑에서 따뜻한 배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 지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부모-자녀 관계에서 문제가 나타난 것이라면, 교사는 부모에게 유아의 자위는 성인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가 있으며 보다 관심 받고 애정 받고 싶은 욕구의 표현임을 인식시키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너그럽고 수용적인 분위기에서 유아가 부모와 보다 재밌고 즐거운 경험을 내갈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김재은(1993). 유치원 교사들을 위한 유아 문제 행동의 특징과 지도 방법. 국민서관.
- 김태훈(2013). 결벽증으로 보이는 유아 강박 증세. <http://kimthmd.mdtoday.iamdoctor.com/302>에서 2013년 11월 15일 인출.
- 권정윤(2013). 유아생활지도. 서울: 학지사.
- 보건복지부(2013). 2013년도 보육사업안내.
- 서명원·유경량·채소희(2010). 영유아 생활지도. 양서원.
- 서울시보육정보센터(2012). 좋은교사되기 핸드북.
- 신혜영(2013). 아동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상담. 서울: 파란마음.
- 양옥승·정채옥·조유나(2011). 부모교육 백문백답: 영아기(3~6세 미만) 좋은 부모되기 첫걸음. 굿네이버스.
- 염숙경(2002). 아동의 특성과 문제별 아동상담과 놀이치료. 서울: 상조사.
- 오경자·김영아(2008). K-CBCL 1.5-5 유아 행동 평가척도-부모용. 서울:(주) 휴노.
- 오경자·김영아(2009). K-TRF 1.5-5 유아 행동 평가척도-교사용. 서울:(주) 휴노.
- 오현숙·민병배(2007). 기질 및 성격검사-유아용. 서울:(주)마음사랑.
- 이병준(2013). 영유아기 애착관계 형성을 위한 양육 기술. <http://cafe.daum.net/bluereborn>에서 2013년 10월 17일 인출함.
- 이영·강민주·우현경(2011). 부모교육 백문백답: 영아기(0~3세 미만) 좋은 부모되기 첫 걸음. 굿네이버스.
- 이영훈·주연희·김성수(2007). 유아문제행동의 이해 및 지도. 서울: 태영출판사.
- 이유·류윤석·김오남(2002). 부모교육. 양서원.
- 임은미·강지현·권해수·김광수·김정희·김희수·박승민·여태철·윤경희·이영순·임진영·최지영·최지은·황매향(2013). 인간발달과 상담. 학지사.
- 장세희·오정림·김경민(2013). 아이의 기질을 알면 육아가 쉬워진다. 맘&앙팡 (2013년 9월호).
- 조운주·최일선(2008).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생활지도. 창지사.

최명선·차미숙·김난희(2012). 엄마와 아이 애착 다지기. 아담북스.

Barbara, K. & Judy S. R.(2013). 유아동기 문제행동 예방 및 지도(이병인·윤미경·이지예·강성리 역). 시그마프레스.

Clark. L. (1998). SOS! 부모들을 위한 지침서(홍성운, 김유미 공역.) 서울: 교육과학사.

Eva L. Essa(1988.) 유아행동지도: 생활지도와 문제행동 해결을 위한 지침(지성애 역). 양서원.

부 록

부록 1. 정서발달 관련 검사

- 한국판 유아문제행동척도(K-CBCL 1.5-5)의 교사용(K-Teachers Report Form:K-TRF)을 소개함.
 - Achenbach와 Rescorla(2000)가 개정한 CBCL/TRF를 오경자와 김영아(2008, 2009)가 표준화함.
 - 1.5세-5세 유아의 문제행동을 부모와 교사가 평정함.
 - 유아의 다양한 문제행동을 기술한 99개의 문항과 개인 고유의 문제를 기재한 후 심각도를 표시하도록 한 3개의 문항을 합쳐 총 102 문항으로 구성됨.
 - 하위척도로는 정서적 반응성, 우울/불안, 위축, 신체증상의 호소, 주의집중문제, 수면 문제, 공격적인 행동과 기타 문제들 등의 문제증후군척도가 있음.
 - 각 문제행동 항목에 대하여 0점(전혀 해당되지 않는다)부터 2점(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까지 3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됨.
 - 내재화 문제행동에는 정서적 반응성, 우울/불안, 위축, 신체증상의 호소 척도 등 36문항임.
 - 외현화 문제행동에는 주의집중문제, 공격적인 행동문제 척도 등 24문항이 포함됨.
 - 부모가 평정한 미국판 유아용 CBCL의 내재화 문제행동의 신뢰도는 .89, 외현화 문제행동의 신뢰도는 .92. 국내 표준화 연구에서는 내재화 문제행동의 신뢰도는 .87, 외현화 문제행동의 신뢰도는 .89임.
- 한국판 유아용 기질 및 성격검사(Korean Junior Temperament & Character Inventory)를 소개함.
 - Goth, Cloninger와 Schmeck(2003)이 개발한 Junior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3-6)를 오현숙과 민병배(2007)가 표준화함.
 - 기질 차원과 성격 차원으로 구성됨.
 - 기질차원: 자극추구, 위험회피,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 등 4개 하위척도로 구성됨.

- 성격차원: 자율성, 연대감, 자기초월 등 3개 하위척도로 구성됨.
- 주양육자가 0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4점(매우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반응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 86문항으로 구성.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기질 및 성격 수준이 높음을 의미함.
- 교사나 주양육자 등 성인의 기질 및 성격에 대해서 동일 구조의 척도도 측정 가능함.

제 6부. 각 론 : 언어발달영역

I. 「언어발달영역」 문제행동지도

1. 언어발달영역 문제행동의 이해

□ 발달에 대한 기본 이해

- 대부분의 영유아들은 연령에 따라 발달적 수준이 유사하게 나타나므로 일반적으로 특정시기에 특정 기술과 능력을 기대할 수 있음.
- 생애초기일수록 제 발달영역은 상호관련성이 높음.
- 발달은 대개 일정한 순서가 있고 특정 발달영역이 강조되는 시기가 있으며 예정된 형태를 따라가므로 예측가능하나 연령이 어릴수록 개인차가 많이 나타남.
- 개인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유전, 영양상태, 성별, 사회·경제·문화적 배경 등 매우 다양함.
- 발달은 성숙과 학습의 결과로 성취되므로 다양한 경험과 활동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야 함.
- 언어와 인지행동발달은 감각 운동기 시기에 지각운동 발달이 반드시 선행되지 않으면 발달지체 현상이 초래됨.
- 영아는 생애 첫 2년간 인지의 기초를 이루는 사물인식, 공간지각, 시간개념, 원인과 결과에 대한 기초적 인식력을 후천적 기제인 언어사용을 통해 적극적으로 습득하게 됨.
- 표준발달지표는 특정 시기에 발달을 기대할 수 있는 하나의 지침으로서 발달 수준을 이해하는 참고자료임
- 정상발달 시기를 벗어난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므로 표준발달지표에 준하여 문제 또는 장애등의 판단을 함부로 하여선 안 됨.

□ 언어의 정의

- 언어란 사물, 사건, 생각 등을 표현하고자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말, 문자, 몸짓의 상징체계로서 의사소통의 일차적 수단임.

- 언어는 구어(spoken language)와 문어(written language)의 언어적 요소와 억양, 강세, 속도의 준 언어적 요소, 몸짓, 표정과 같은 비 언어적 요소를 모두 포함함.

□ 언어사용의 목적

- 언어사용의 궁극적 목적은 사람들 간의 생각과 의견과 감정에 따른 의사를 교환하는 것임

□ 언어의 유형

- 언어는 대개 음성언어, 문자언어 또는 이해언어, 표현언어로 그 유형을 구분함
 - 음성언어는 청각적 방법에 의한 언어로서 말하기, 듣기가 해당됨
 - 문자언어는 시각적 기호에 의한 언어로서 읽기, 쓰기가 해당됨
 - 이해언어는 외부에서 받아들인 음성적, 시각적 기호의 해석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수용하는 언어로 듣기와 읽기가 해당됨
 - 표현언어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산출하는 음성적, 시각적 기호를 사용하여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는 언어로 말하기와 쓰기가 해당됨

□ 언어의 구성체계와 숙달과제

- 언어의 구성은 크게 말소리, 형식, 의미, 사용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올바른 언어사용을 위해서는 각각의 구성요인에 따라 소리체계, 문법체계, 의미체계, 사회적 상호작용체계에 대한 숙달이 요구됨
- 말소리
 - 말소리는 언어의 소리체계로서 나/너, 물/불에서처럼 말의 뜻을 구별하여 주는 가장 작은 단위인 음운이나 어조, 강약, 억양이 있어 이들에 대한 특성과 차이에 따른 소리이해 및 소리표현에 대한 숙달이 요구됨
 - 말소리 체계에 대한 숙달을 통해 음절, 단어, 문장을 정확하게 발음하게 되는 것임
 - 예/예, 공/콩
- 형식
 - 형식은 언어의 문법체계로서 구, 절, 문장 구성을 위한 단어의 배열을 의미하며 말의 구조인식 이해와 정확한 어순으로 표현하기에 대한 숙달이 요구됨

- 구조인식이해의 예
사람, 사람들 에서처럼 ‘들’의 조사가 연결된 경우는 여럿을 의미함.
- 어순의 예
‘안 밥 먹어’로 표현하지 않고 ‘밥 안 먹어’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함.

○ 의미

- 의미는 단어나 문장의 의미와 내용에 관한 것으로 의미이해하기, 의미에 맞는 말로 표현하기 등 의미체계에 대한 숙달이 요구됨.
- 의미 이해하기의 예
‘안녕’이라는 말은 헤어짐의 의미함
- 의미에 맞는 말로 표현하기의 예
옷을 가방이라고 하지 않고 가방을 옷이라고 표현하지 않음

○ 사용

- 사용은 의사소통 목적을 위해 상황에 따른 언어사용의 적절성과 관련된 규칙으로서 사회적 상호작용체계 및 말에 포함된 사회적 함축성 이해하기에 대한 숙달이 요구됨
- 상대방 연령과 지위를 고려한 언어사용
- 상대방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반복사용
- 의사소통 시 순서를 지켜 교대하여 말하기
- 상황에 적절한 말로 표현하기
만났을 때 : ‘안녕하세요’, 헤어질 때 : ‘안녕히 계세요’
- 말에 포함된 사회적 함축성 이해하기
‘불이야’라는 말에는 ‘빨리 피하세요’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이해하기

□ 언어의 기능

- 언어의 기능은 사용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함
- 개인의 필요와 욕구와 의도를 표현하는 지시적·도구적 기능
- 생각을 명료화하고 행동을 변화시키고 통제하는 통제적 기능
- 인지적 성장을 위한 발견 및 정보와 관련된 발견적·정보적 기능
- 개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개인적 기능

- 상상에 의해 극놀이를 하거나 이야기를 짓는 등 자신의 세계를 창조하는 상상적 기능
- 다른 사람과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상호작용적 기능

□ 언어관련 문제행동의 이해

○ 문제행동의 이해

- 특정 발달연령대에서 대부분의 또래에서 기대할 수 있는 언어관련 행동들이 학습 및 사회적 관계형성과 유지에 방해가 될 만큼 지나치게 늦거나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이 잦은 빈도로 발생하고 오랜 지속성을 보이는 경우

○ 언어관련 문제행동을 보이는 영·유아의 이해

- 지능이 정상범주에 속함
- 청력에 이상이 없음
- 간질, 뇌성마비, 뇌손상 등 신경학적 이상이 없고 관련 약물복용 경험이 없음
-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에 이상이 없음

□ 언어관련 문제행동을 보이는 영유아의 또래와 다른 언어적 특성

○ 말소리 관련

- 말소리 습득이 또래에 비해 지나치게 늦게 나타남
- 오류형태의 음운사용이 또래에 비해 잦고 지속적으로 나타남

○ 의미관련

- 첫 낱말의 시작은 통상 1세경에 나타나는데 비해 2세경 까지 지연되는 현상이 있음
- 낱말 습득이 늦어지면서 이해 및 표현 어휘수가 저조함
- 조작 가능한 사물에 해당하는 낱말(명사)에 비해 동작과정 상태를 나타내는 낱말(동사)의 습득과 사용이 제한적임
- 낱말 간 연합능력이 지체되면서 어휘사용 시 과잉확대 또는 과잉축소 현상이 지속됨
- 낱말 찾기의 어려움으로 언어사용에서 머뭇거림이나 모호한 표현이 나타남
- 가상적, 은유적 낱말 사용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함
- 낱말의 의미관계 표현이 제한적임

- 형식관련(형태소, 구문)
 - 형태적 특성
 - 격조사, 존칭어미, 시제, 부정어미 등 형태소에 대한 이해와 표현에 어려움이 있음
 - 형태소 사용량이 적음
 - 형태소 중 동사 및 과거형 형태소에 대한 어려움이 큼
 - 형태소 오류에 대한 인식이 없음
 - 구문적 특성
 - 문장구성 시 낱말의 순서(어순)가 부적절함
 - 최소의 낱말로만 문장을 만드는 경향으로 인해 문장의 길이가 짧음
 - 문장 구성 및 접속문 사용에 어려움이 있음
 - 수동문장, 실현 불가능한 문장에 대한 이해가 어려움
 - 어순전락이 생략된 문장에 대한 이해가 어려움
 - 낱말 조합능력은 통상 18개월 전후로 나타나는데 반해 37개월경까지 늦어지는 현상이 보임
- 의사소통관련
 - 또래와의 상호작용 참여가 저조하며 언어적 상호작용이 적음
 - 대화 시 불분명한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분명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저조함
 - 대화 시 상대방이 요구한 명료화에 대한 수정 능력이 저조함
 - 대화 시 듣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저조함
 - 대화 시 듣는 사람에 대한 정보와 듣는 사람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는 능력이 저조함
- 언어관련 문제행동이 영유아에게 미치는 영향
 - 언어행동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로 범주화되어 있으며 언어의 발달이 이루어지는 영유아시기에는 4개의 범주가 매우 밀접한 관계 속에서 상호 영향을 주게 되므로 어느 한 범주에 문제가 있다면 나머지 범주의 발달에도 영향을 주어 전반적인 언어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언어는 영유아들이 또래 간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중요한 매개가 되는 만큼 언어관련 문제가 있을 경우 또래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면서 또래관계 형성 및 유지에 문제가 생기고 사회성 발달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언어는 학습의 수단이 되는 만큼 언어관련 문제가 있을 경우 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학습의 부진을 초래하거나 인지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 언어발달영역 교사 지도 방안

- 지속적인 관찰과 함께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기
 - 영유아 시기는 언어 발달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개인차가 큰 시기인 만큼 교사는 지속적으로 세밀히 관찰한 것에 기초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하되 개인차를 고려하여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줄 필요가 있음
- 문제행동에 대한 세밀한 관찰과 신중한 판단
 - 대개의 경우 어휘는 언어적 의미에서의 문제를 어순, 조사, 시제는 언어형식에서의 문제, 그리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어휘나 문장의 표현 능력은 언어 사용에서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함
 -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을 방치하여 고착되거나 장애행동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일과 및 정기적인 계획안에서 또래들의 수준과 표준발달지표 등을 토대로 영유아들의 언어행동을 민감하게 살펴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언어적 행동을 자극할 수 있는 발달적으로 적합한 환경 조성
 - 발달적으로 적합한 수준에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와 관련된 행동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영유아들의 언어적 행동에 대한 적절한 자극이 지원 될 수 있도록 함
- 언어적 행동을 지원할 수 있는 수용적인 사회적 환경조성
 - 언어관련 문제행동을 가진 유아가 또래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교사는 물론 학급 또래들의 이해를 구하여 수용적인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줄 필요가 있음

- 자신의 현재의 언어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믿음을 갖도록 하여 자신감을 갖고 언어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문제행동의 원인에 기초한 지도
 - 언어관련 문제행동의 원인 파악은 기관과 가정의 물리적 환경, 인적환경은 물론 영유아의 심리적 측면, 신체적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하며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적절한 지도방법을 모색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접근해야 함
- 언어활동에 대한 흥미고취 및 동기부여
 - 언어활동은 영유아의 발달적 수준과 흥미에 기초하여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활동 참여와 학습에 대한 동기를 높여 활동참여에 대한 즐거움과 함께 학습의 효과도 높일 수 있도록 함
- 자연스런 상황으로의 접근 및 올바른 모델링
 - 교사가 유아의 언어적 표현을 단절하면서 개입을 하거나 수정에 대한 지시적 요구를 할 경우 좌절감을 느끼거나 위축될 수 있으므로 보다 자연스런 상황에서의 모델링이 필요함
- 점진적 접근을 통한 성취감 고취 및 자신감 향상
 - 언어적 문제를 가진 영유아들이 관련 문제행동을 극복하기 위해 영유아의 현재 수준에서 보다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단순하면서도 점진적으로 활동을 구성하여 제공함으로써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감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함
- 가정과의 긴밀한 연계
 -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에 대한 기관과 가정에서의 일관성 있는 지도를 위해 가정과 긴밀히 연계하고 부모와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상호 협조적으로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전문적 진단 및 치료 권유
 - 신체기관 및 신경문제로 의료적 진단과 처치가 필요하거나 언어관련 전문 진단 및 치료가 필요 한 경우에는 부모와의 상담을 통해 전문기관에서의 진단과 치료를 권하여 적기에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언어발달영역 문제행동 사례목록

- 말소리(발음, 발성, 유창성), 이해, 표현, 태도의 4가지 유형, 총 28가지 사례를 제시함.
- 영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발음, 이해, 표현, 태도 관련 문제행동을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그 외 문제행동은 유아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행동에 해당함.

〈표 1-3-1〉 언어발달영역 문제행동 사례목록표

구분	번호	문제행동사례	유형
영아	1	- 또래에 비해 상대방이 이해하기 어려운 발음으로 말하는 경우	A. 발음
	2	- 또래와 달리 상대방의 말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B. 이해
	3	- 또래에 비해 질문 또는 지시에 대한 반응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4	- 또래와 달리 의사표현(표정·몸짓·언어)을 전혀 하지않는 경우	C. 표현
	5	- 또래와 달리 울음 또는 몸짓을 이용한 의사표현을 주로 하는 경우	
	6	- 또래에 비해 자신이 만들어낸 어휘(음운적 신어)사용이 빈번한 경우	
	7	- 또래에 비해 주로 한 단어말로 의사표현 하는 경우	D. 태도
	8	- 또래와 달리 징징거리거나 소리 지르는 말투를 주로 사용하는 경우	
	9	- 또래에 비해 대화 시 상대방을 응시하지 못하고 진행되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경우	
	10	- 또래에 비해 그림책이나 인쇄글자에 흥미를 보이지 않는 경우	
		11	- 또래에 비해 쓰기도구 및 사용(끼적이기)에 대해 흥미를 보이지 않는 경우
유아	12	- 아기식 발음으로 말하거나 알아듣기 힘들 만큼 명확하지 않은 발음으로 말하는 경우	A. 발음
	13	- 말할 때 말소리 크기가 지나치게 크거나 작은 경우	발성
	14	- 지나친 군말 사용이나 말더듬으로 말의 흐름이 순조롭지 못한 경우	유창성
	15	- 또래에 비해 대화 및 이야기 나누는 상황에서의 맥락, 지시, 주제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	B. 이해
	16	- 또래에 비해 주변 글자 및 책 읽기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없는 경우	
	17	- 또래에 비해 문학작품 내용에 대한 이해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C. 표현
	18	- 또래에 비해 사용 어휘수가 매우 적은 경우	
	19	- 또래에 비해 언어적 의사표현이 매우 적은 경우	
	20	- 사람들 앞에서 말하려 하지 않는 경우	D. 태도
	21	- 또래에 비해 말한 내용이 정리되지 않아 이해가 어려운 경우	
	22	- 초보적 쓰기를 통한 표현 행동이 전혀 없는 경우	
	23	- 다른 사람의 말을 집중하여 듣지 못하는 경우	
	24	- 말하기 순서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말만 하려는 경향이 심한 경우	
	25	- 유행어 및 비속어를 매우 빈번하게 사용하는 경우	
	26	- 불필요한 말대꾸를 하거나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	
	27	- 또래에 비해 책에 대한 관심이 매우 저조한 경우	
	28	- 또래에 비해 쓰기를 위한 도구 사용에 관심이 없거나 도구사용이 매우 미숙한 경우	

Ⅱ. 「언어발달영역」 문제행동 지도의 실제

1. 노래에 비해 상대방이 이해하기 어려운 발음으로 말하는 경우

분명하지 못한 발음으로 상대가 영아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의 명료도가 현저히 떨어져 알아듣기 힘들게 발음하는 경우

영아 : 땀미~ 어~ 어~

교사 : 응~ 뭐? 왜?

영아 : (가슴을 치며) 떠~ 떠~

교사 : 왜 친구가 떴어?

영아 : (고개를 흔들)

교사 : 그럼 아파? (영아의 요구: “컵 주세요” 엮음)

가. 원인 분석

- 영아가 정확한 발음에 대한 경험을 가지지 못한 경우
 - 언어발달 초기 양질의 언어자극이 부족한 경우
 - 양육자의 발음이 부정확한 경우
 - 양육자의 건강 문제(특히 산후 우울증), 잦은 양육자 교체 등으로 인해 영아가 언어발달 초기에 상호작용할 수 있는 대상과의 언어적 상호작용의 양과 질이 부족한 경우
 - 영아가 언어적인 표현을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
 - 영아의 몸짓이나 부정확한 발음으로 욕구 표현 시에도 양육자는 언어적 상호작용 없이 영아의 욕구를 미리 충족시켜줄 경우 영아는 더 이상 언어적 표현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지도 방법

- 영아의 말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해주며 격려하기
 - 영아의 웅얼이나 말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해주면 그 소리를 모방하여 소리 내는 것에 흥미를 갖게 되므로 영아의 말소리 듣기와 말소리 내기 행동 촉진하기
 - “(영아가 자동차를 가리키며 웅얼이 할 경우) 아~ 자동차!, 자동차네. 00가 좋아하는 자동차구나”
 - 영아가 발음한 것을 정확하게 발음해 주고, 영아가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하고 명확한 언어를 사용하기
- 말하기를 자극할 수 있는 환경 구성하기
 - 영아가 자신의 소리를 만들어 내고 스스로 자기 소리를 듣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 안전 벽거울이 있는 공간에서 영아가 자신의 입모양을 보면서 즐겁게 말소리를 내 볼 수 있도록 함.
 - 다양하고 재미있는 소리가 나는 놀잇감 제공하여 놀잇감에서 나는 소리를 탐색하고 모방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성기관을 사용하는 기회를 갖도록 함.
- 명확한 말소리에 대한 모델 보이기
 - 교사의 입모양을 흉내 낼 수 있도록 천천히 말해주기
 - 말소리에 리듬감을 주고 같은 단어를 반복하기
 - 간단한 단어에 리듬감을 살려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거나 목소리의 높낮이를 조절하여 크게, 작게 소리 내어 보는 놀이를 함.
 - 발음을 명확히 들려주기 위해 강조된 억양과 높은 톤으로 말해주기
 - 영아에게 말할 때 약간은 강조된 억양과 높은 톤으로 말하는 것은 영아들에게 바른 발음을 익히고 동시에 말하기를 시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또박 또박 천천히, 조금 큰 소리로) “우~리~같~이~가~요.”

다. 유의사항

- 영아에게 말소리 반복적으로 강요하지 않기

- 영아가 보이는 말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정확한 발음으로 반복하여 들려주되 영아에게는 반복할 것을 강요하지 않아야 함.
- 바른 발음으로 말하기를 위한 다양한 방법의 동기부여하기
 - 영아들이 상대방이 이해하기 어려운 발음으로 발화를 하더라도 상대의 미소 또는 호의에 따라 영아의 사회적 소통이 가능하다는 신호를 주게 되므로 영아의 바른 말하기를 위한 다양한 방법의 동기부여 전략이 필요함.
- 청력 손실이나 조음장애 등 신체구조상의 문제 여부 관찰하기
 - 조음기관에 이상이 있거나 청력손실 등의 원인으로 바른 조음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2. 또래와 달리 상대방의 말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성인이 하는 말을 듣지 못하거나, 듣지 않아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경우

교사 : ○○야~ ○○야~ 이리 오세요~
영아 : (가만히 앉아있음)
교사 : ○○야~ 선생님한테 와봐~
영아 : (가만히 앉아있음)
교사 : 선생님이 ○○한테 갈까?
영아 : (가만히 앉아있음)

가. 원인 분석

- 지시적·통제적·비일관적 양육 태도
 - 양육자가 영아에 대한 반응성이 낮은 지시적 통제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 (명령, 위협, 체벌, 언어적 협박 등의 사용) "빨리 치워.", "TV 꺼버린다."
 - 양육자의 일관성 없는 양육태도로 인해 영아가 스스로 선택하고 반응보이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두려워하는 경우

- 영아의 욕구가 좌절되고 무시된 것에 대한 불만의 표현
 - 자신이 한 의사표현에 따른 부정적 결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도 관심을 두지 않고 자신도 의사표현에 대한 욕구가 없는 경우
 - 영아의 관심과 흥미가 무시된 경우
 - 자동차에 관심을 보이는 영아의 흥미를 무시한 채 다른 놀이를 제안하고 강요할 경우 흥미가 없어서 반응하지 않는 경우
- 기질적 요인
 - 느린 기질을 가진 영아의 경우
 - 새로운 자극에 대해 반응성이 낮으며, 반복적인 노출 후에 점진적으로 적응하는 것이 특징으로 활동 수준과 기분 표현의 강도가 낮아 상대방의 말소리에 반응하지 않음.

나. 지도 방법

-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분위기 조성하기
 - 성인과 영아의 상호작용 시 말소리 또는 몸짓으로 보인 반응이 미약하더라도 반응을 보였을 경우, 가벼운 스킨십 등 긍정적으로 영아의 반응을 격려해주기
 - 영아의 행동이나 말이 틀렸거나 교사의 의도대로 반응하지 않더라도 영아가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모든 반응을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하기
 - "책상 두드리지 마라" 고 말하는 대신 "책상을 두드리니까 소리가 나네? 북을 두드려도 소리가 난단다, 여기 있는 북을 두드려 볼까?"
- 영아가 관심을 보이는 것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하기
 - 영아는 성인의 시선 이동을 따라가며 반응하기 어려우므로, 성인이 영아의 흥미 대상이 무엇인지 주의를 기울여 영아가 관심 가지는 것을 관찰하며 영아의 관심에 지지해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기
 - 영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에 소리나 몸짓, 눈짓 등의 신호를 하면, 하고 있던 일을 멈추고 영아의 표현에 주의를 기울이며 영아의 눈높이에서 언어적으로 반응 보이기

- (영아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음) "00야, 창문을 두드리니까 푹푹 소리가 나네."
- 영아나 교사, 부모의 목소리를 녹음하여 들어보는 등의 활동을 통해 영아가 듣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 영아가 반응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하기
 - 영아가 사물을 가리키거나 물건에 시선을 보낼 때 주의를 기울이고 함께 보고 있는 것에 대해 영아가 반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 영아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먹을지, 또 무슨 놀잇감을 갖고 놀지를 선택하게 하여 스스로 통제감을 느끼고 선호하는 것을 표현해보도록 하기
 - "00는 지금 봉봉카 말고 시소를 타고 싶었구나. 00가 타고 싶은 시소 타볼까?"
 - 말(몸짓)로 의사표현을 해야 하는 상황을 제공하기
 - 숟가락이 없이 아이스크림 제공하기
 - 신발 한 짝만 놓아두기
 - 느린 기질 영아의 경우 새로운 자극에 대한 적응기간이 오래 걸리므로 끝까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도록 지켜보고, 도움을 청할 때 도와주는 것이 중요함.
- 사람의 말소리, 표정, 몸짓에 관심을 갖도록 지원하기
 - 눈 마주치며 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 경험하기
 - 까꿍놀이 "○○이 없다, 까꿍~ 선생님 없다, 까꿍~"
 - '엄지 어디 있소' 노래 가사에 이름을 넣어 부르기 "'○○이 어디 있소?'
 - 소리내기 게임하기 (교사와 마주보고 앉아 손으로 입을 두드리며) "아바바~"

다. 유의사항

- 영아와 함께 마주하며 할 수 있는 다양한 가정 연계활동 소개하기
 - 어린이집에서 했던 놀이가 가정에서도 연계될 수 있도록 영아가 흥미로워했던 놀이에 대해 안내하기
 - 상대방의 말에 반응하지 않는 자녀에 대한 바람직한 부모의 반응 및 태도 안내하기

– 기다려주기, 유도하기, 다그치지 않기, 칭찬하기 등

□ 영아에게 눈 맞춤을 강요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 영아의 관심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자연스런 자극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나 영아에게 억지로 눈 맞춤을 강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말을 시키거나 따라해 보라고 유도하는 것이 과해지면 영아는 말하기를 거부하거나 지시만을 잘 따르는 수동적인 모습이 반복되게 됨.

□ 긴 문장이나 짧은 문장 여러 개 이어 사용하지 않기

- 영아들의 주의집중 능력의 한계 고려하기
 - 영아들의 짧은 주의집중 능력을 고려하여 한 번에 긴 문장 또는 짧은 문장이라도 이어서 사용하지 않기

□ 청력에 이상이 있는지 살펴보기

- 말을 배우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능력으로 청력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잘 듣지 못하여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음.

3. 도래에 비해 질문 또는 지시에 대한 반응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의 질문이나 지시에 대한 이해 능력이 부족하거나 나타내는 반응이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교사: 무슨 색으로 색칠해볼까?

영아: 머리

영아 : 내꺼야!

교사 : 그래도 친구도 놀고 싶어 하니까 함께 가지고 놀까?

영아 : 왜요?

교사 : 여기에 있는 장난감은 혼자 가지고 노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영아 : 왜요?

교사 : 음~ 이건 ○○이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에 있는 장난감이야.

영아 : 왜요?

가. 원인 분석

- 미성숙한 언어발달로 의미 이해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 행동과 언어를 연결하기 또는 상대방의 메시지를 듣고 해석하는 능력발달이 원만하지 않아 상대방이 한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 ‘듣기(listening)’는 소리를 감지하고(hearing), 주의를 기울이기, 식별하기, 이해하기, 기억하기 등 능동적인 사고와 해석을 필요로 하는 정신 과정이므로 인지와 언어 간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의미에 대한 이해가 어려울 수 있음.
- 부주의한 듣기 태도 및 반응
 -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 주의를 온전히 기울여 메시지에 집중하려는 욕구와 노력이 부족하여 귀담아 듣지 않고 “왜요?”와 같은 의미 없는 반응을 나타내는 경우
- 특정 언어에 대한 흥미
 - 현재 영아가 관심 있는 단어나 문장, 또는 대화법에 대한 일시적인 흥미로 특정 언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왜요?”를 반복해서 사용하기

나. 지도 방법

- 다양한 수준의 듣기 기회 제공하기
 - 다양한 소리나 음악, 동시, 이야기(동화) 등을 자주 들려주어 영아가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즐겁게 듣고 주의를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하기
 - 수동적 듣기뿐만 아니라 지시에 따르기 등 영아가 의도를 갖고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게임과 같은 활동하기

- 교사가 말하는 음의 고저와 소리의 강도를 인식하도록 하기
- ‘출발’ 또는 ‘시작’ 소리 듣고 달리기
- 비행기처럼 날아보는 신체표현을 하면서 말소리의 억양, 크기, 속도에 적절한 변화를 주면서 높게/낮게, 빠르게/천천히 등의 지시어 제시해주기

□ 경청하기의 모델보이기

- 영아의 이야기를 들을 때 교사는 영아와 눈맞춤을 한 상태에서 영아의 말을 잘 듣고 있다는 언어, 비언어적 사인을 보여주기
 - 고개 끄덕이기, 미소 지어주기
 - “아~”, “응~ 그랬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어?”

□ 질문 또는 지시에 알맞은 반응(대답) 보여주기

- 교사가 하게 될 질문에 대한 교사의 생각을 먼저 표현하고 질문하기
 - 사과를 먹으며 “와~ 정말 달콤하다. ○○이도 사과 먹어볼래? 어떤 맛이나?”
- 영아의 발달 수준에 따라 영아의 반응에 대해 역으로 질문해보며 생각해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기
 - 지속적으로 “왜요?”라는 질문하기를 좋아하는 영아에게 “왜일까? ○○이 생각엔 왜 그런 것 같니?”라고 물어보기

□ 영아의 행동을 언어적으로 표현하기

- 행동과 언어를 적절히 연결하는 것이 어려운 영아의 경우, 일상생활 중 영아가 보이는 행동을 교사가 언어적으로 표현해줌으로써 언어와 행동을 바르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하기
 - (영아가 귀가 시 또래에게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고) “○○이가 친구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해주는구나.”
- 실제 영아들이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을 가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하기
 - 손인형, 막대인형 등을 이용해 상황에 따른 질문하고 대답하기

□ 그림책 활용하기

- 일상적이면서도 간단한 대화가 이어지는 그림책을 자주 읽어주고, 익숙해지면 그림책 속 대화의 일부분을 교사와 영아가 번갈아가며 말해보면서 적절한 반응 유도해보기
 - (그림책을 보며) “곰돌이가 토끼에게 인사했어요. 토끼야 안녕? 토끼는 곰돌이에게 뭐라고 말해줬을까?”

□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마련하기

- 교사가 영아의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영아에게 이야기를 할 때 가능한 시선이 분산되지 않고 교사를 바라보며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 마련하기
 - 주변 환경의 자극이 최소화되도록 조용한 영역에서 이야기 나누기
 - 또래의 놀이 상황이 보이지 않는 방향에서 이야기 나누기

다. 유의사항

□ 부모-자녀간의 적절한 의사소통을 위한 가정 연계활동 소개하기

- 가정에서도 부모가 영아와 의사소통할 때 바르게 듣는 태도를 보여주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 가정연계활동으로 듣고 바르게 반응하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듣기 자료와 활동(게임, 신체표현 등)을 소개하기

□ 어린 월령의 영아일수록 친숙한 낱말이나 짧은 문장을 들려주기

- 말하는 사람의 표정과 몸짓, 억양 등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들음으로써 영아가 상대방이 전달하려는 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일시적인 현상에 대해 지나치게 반응하지 않기

- 교사의 질문 또는 지시에 영아가 현재 흥미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반응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억압하지 않기
- 영아기의 발달적 특성상 문장이 완전하지 않거나 잘못된 표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영아가 한 말을 바른 단어와 문장으로 재언해주거나 피드백을 주기

4. 또래와 달리 의사표현(표정·몸짓·언어)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거나 반응하지 않고 몸짓이나 표정으로도 자신의 의사를 전혀 나타내려고 하지 않는 경우

(신체 활동실에서 자동차를 타면서 놀이하다가 내려 근처에 있는 공을 가지고 온다. 그 사이 다른 또래가 와서 자동차를 탐)

영아 : (또래가 자동차를 타는 것을 보면서 또래가 가는 방향을 바라봄)

교사 : ○○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영아 : (교사를 보지 않고 자동차를 봄)

교사 : 자동차가 타고 싶었구나? 저기도 자동차가 있는데 타러 갈까요?

영아 : (교사의 손을 잡음)

교사 : (교사가 자동차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자동차 타고 싶어요?

영아 : (자동차를 탐)

가. 원인 분석

□ 언어자극 경험의 결여 또는 과도함

- 출생 후 영아가 울음, 웅얼이, 몸짓 등의 표현을 시도할 때 부모가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
 - 영아는 성인의 말의 억양이나 표정 등을 통해 언어를 기억하고 습득하므로 부모의 성격이 너무 조용하거나 엄격하여 영아에게 언어자극이나 반응을 주지 못했을 경우
 - 언어사용량이 현저하게 적은 부모의 한자녀 가정 영아는 부모와의 대화 상대가 없어 언어자극의 기회가 제한적인 경우
- 언어자극이 지나치게 과도한 경우

□ 기질적 요인 및 심리적 요인

- 너무 소심하거나 완벽을 추구하는 성향의 영아인 경우

- 불안정 애착으로 정서적인 불안과 더불어 영아기 민감한 상호작용이 어려워 언어 발달이 지연된 경우

□ 인지능력의 문제

- 영아의 모방 능력과 이해 능력이 부족한 경우
 - 언어발달에 있어 중요한 인지 능력은 모방으로 영아는 주 양육자의 언어를 억양과 표정 등으로 기억하여 모방하므로 영아에게 이러한 모방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함.

나. 지도 방법

□ 언어·몸짓·표정에 대한 풍부한 모델 보이기

- 영아기에는 언어뿐 만 아니라 몸짓, 표정 등도 중요한 의사소통 방법이 되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소통할 필요가 있음.
 - “(웃는 모습을 보이면서) 기저귀를 새로 해 주었더니 기분이 좋구나.”
- 양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가 펼치며 까꿍놀이를 반복하여 영아가 말하는 교사의 눈을 볼 수 있도록 하여 눈을 맞추며 이야기함.

□ 소리, 짧은 이야기나 노랫말 등을 즐겁게 듣고 따라 하기

- 영아가 교사가 내는 소리와 몸짓을 모방해 볼 수 있게 함.
 - 영아와 마주 앉아 손을 입에 가져다 대었다가 떼면서 소리를 내는 아바바 놀이
- 짧은 내용의 그림책이나 반복되는 어구의 그림책을 선택하여 들려주고, 영아에게 친숙한 노래 (작은 별, 곰 세 마리 등)를 리듬감 있게 들려주어 즐겁게 듣는 것에 집중하고 따라해 보도록 하기
- 영아들에게 "아기 돼지 삼형제" 동화를 노랫말로 들려주면서 노랫말과 어울리는 손유희 동작을 함께 보여주어 언어활동에 즐겁고 반응적으로 참여해보도록 하기
 - “첫번 째 돼지가 집을 짓는데, 짚으로 차곡차곡 집을 짓는데, 늑대가 달려와 후~! 무너져버렸대요.”
 - “두번 째 돼지가 집을 짓는데, 나무로 차곡차곡 집을 짓는데, 늑대가 달려와 후~! 무너져버렸대요.”

- 교사가 들려주는 동화를 들을 때, 동화 내용의 운율적 특징을 고려하여 그림책의 내용을 영아에게 대화하듯이 들려주기
 - “(까꿍놀이 책을 보며 리듬감 있게) 없다, 없다! 돼지 없다. 없다, 없다! 토끼 없다.”
- 전화놀이를 하면서 “엄마, 아빠, 네.” 등의 짧은 낱말과 문장으로 이야기를 유도하면서 표현하는 즐거움을 경험하는 기회 제공하기
- 영아가 원하는 것에 주목하기
 - 영아가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또 영아의 기분이 어떤지 주의 깊게 관찰하여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 “(소꿍놀이를 하는 영아를 보며) 맛있는 사과를 먹고 있구나.”, “손가락으로 먹고 있구나.”
 - 영아가 교사를 보며 “~니(선생님)” 등의 표현을 하면 ““선생님”하고 불렀구나, 물을 보고 있다면 “물이 먹고 싶구나.” 등으로 영아의 행동을 민감하게 해석하여 적절한 언어표현과 함께 즉시 반응해 주기
- 간단하고 정확하게 말하기
 - 두 돌전의 영아는 어렵고 긴 말을 알아듣지 못하므로 정확하고 짧은 말을 반복적으로 자주 들려주는 것이 좋음.

다. 유의사항

- 영아기 언어발달을 위한 부모의 적절한 반응 안내하기
 - 의사표현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 단순히 언어발달의 시기가 느린 영아의 경우도 있지만, 언어자극이 너무 적거나 과도한 경우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영아가 호기심을 보이는 것에 부모가 반응하며 너무 많은 질문을 하거나, 영아 발달 수준 이상의 것을 묻지 않도록 안내함.
- 부모에게 주지할 내용과 접근방법에 신중하기
 - 대부분의 부모들이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 것을 또래보다 말이 조금 늦다거나 가족력 등으로만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어 의사표현을 전혀 하지 않으면 나타날 수 있는 2차적인 문제(인지, 사회정서 등)를 부모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음.

- 부모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부모와의 면담을 통하여 양육태도, 성장배경 등을 충분히 파악한 후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적절한 안내를 하여야 함.

□ 영아의 표현시도 강요하지 않기

- 영아가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일단 언어로 표현하려고 하고는 것 자체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격려해 주어야 함.
 - 영아가 물을 먹고 싶어 할 때 “물 주세요.”라는 말을 기어이 들어야만 물을 준다면, 영아는 자신이 없으면 아예 표현을 안 하고 물 먹는 것 자체를 포기할 수 있음.
 - 편안하게 “물이 먹고 싶니? 이럴 때는 ‘물 주세요. 물 먹고 싶어요. 물 줘요.’라고 하면 돼.”라고 물을 주기 전에 영아에게 말하는 방법과 내용을 교사가 서너 번 반복하여 들려주는 것이 좋음.

□ 청각 주의력에 문제가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기

- 초기언어습득 시기에 청각주의력은 구어이해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청각적 주의력이 결핍될 경우 구어이해에 어려움을 갖고 언어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

5. 또래와 달리 울음 또는 몸짓을 이용한 의사표현을 주로 하는 경우

소리를 상징적인 단어로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대부분 울음이나 손짓, 표정, 몸짓으로 나타내는 경우

(식판에 놓인 음식을 보며 갑자기 울음을 보임)

영아 : 후...후...

교사 : **야, 왜 그래?

영아 : (음식을 손으로 가리키며) 후...후...

교사 : (영아가 가리킨 음식을 보며)이거 먹기 싫어서 우는 거야?

영아 : (교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울먹거림)

(만 2세 남아)

- 책을 들고 와서 교사에게 내민다.(읽어 달라는 표현)
- 하고 싶은 (갖고 싶은) 놀이감을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가. 원인 분석

□ 인지 능력의 부족

- 인지 발달이 또래보다 늦을 경우
 - 말은 소리를 상징한다는 인지적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인지 발달이 다소 늦을 경우 상징의 이해가 어려워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를 상징적인 단어로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언어표현의 어려움을 지니게 됨.

□ 발달초기의 부적절한 언어 환경의 영향

- 부모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는 경우
 - 영아가 자신의 요구를 표현하기도 전에 부모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는 경우 예를 들어 "지금 쭉 배가 고프겠지." 간식을 먹이고 "간식을 먹었으니 이제 목이 마르겠네"하고 물을 먹임.
- 과잉보호
 - 과잉보호는 영아의 말할 기회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말을 하지 않아도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영아는 애써 의사표현 방법을 배워야하는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됨.
- 영아의 울음이나 웅얼이에 대해 무관심한 경우
 - 울음의 원인을 찾아 즉시적으로 해결해주지 않는다면, 웅얼이에 반응적이지 않을 경우
 - 영아의 의사소통에 비일관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 영아기 빈약한 언어 자극
 - 언어 자극은 언어 발달에 큰 영향을 주는데 자극이 부족하거나 인지를 발달시키고 언어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은 환경에서는 언어를 발달시키기 어려움.

- 적절한 언어를 배울 수 있는 본보기가 없거나, 또는 말을 하려고 할 때 적절한 피드백을 받지 못하거나 제재를 당하는 경우

나. 지도 방법

□ 울음의 정확한 의미 파악하기

- 영아의 요구 및 욕구 이해하고 수용하기
 - 교사는 영아들이 채우고자 또는 이루고자 하는 욕구의 실제에 대해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함.
 - “많이 힘들었구나?”, “그랬구나”, “아팠었구나”, “많이 불편했겠다” 등 영아의 마음 이해하고 반응해주기
- 존재에 대한 인정하기
 - 영아는 종종 울음을 통해 사랑해 달라, 관심을 가져 달라, 자신에게 귀를 기울여 달라 등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고자 함.
 - “괜찮아”, “그래 선생님이 도와줄게”와 더불어 머리 쓰다듬기, 안아주기, 껏속말 해주기, 토닥여주기와 같은 스킨십 해주기
- 영아가 요구하는 것에 대한 감정 상태와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듯 말해주기
 - “○○이 속상한게 있니?”, “뭐가 힘들었어?”, “반찬 먹기가 힘들었구나”, “선생님이 도와줄까?”
- 울음의 차이 이해하기
 - 만 1세 이후의 울음은 영아의 감정이 좀 더 복잡해지는 시기이므로 울음의 이유 또한 거절에 대한 화남의 표현, 하기 싫다는 표현일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함.

□ 언어자극을 제공하고 표현을 격려할 수 있는 편안한 환경 제공하기

- 단어를 익히고 발화해 볼 수 있는 언어적 기회 제공하기
 - 영아가 사물을 인식하고 단어로 명명해 볼 수 있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물(우유, 강아지 등) 그림책 제공하기

- “○○은 놀이터에서 봤던 거네?”, “○○은 -가 좋아하는 물건이다.”
- 영아에 대한 기본적 감정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분위기 조성하기
 - 말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극복 할 수 있는 영아에게 친숙하고 익숙한 환경 제공하기
-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하고 격려하기
 - 처음부터 개방형 질문과 의무적 언어표현을 요구하지 않고 영아의 상황과 감정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며 점진적으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 울음이나 손짓, 몸짓 표현이 아닌 언어적인 표현의 필요성을 영아가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말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성인과의 1:1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가지기
 - 영아가 간단하게 답 할 수 있는 유형으로 질문하고 대답을 하도록 영아의 반응을 격려하기

다. 유의사항

- 부모의 자세 및 본보기 중요성 지속적으로 안내하기
 - 적절한 억양과 분명한 발음, 적당한 말의 속도에 유념하여 대화하기
 - 문장의 길이가 너무 길거나 복잡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 한 번에 너무 많은 지시를 제안하기보다 한 번에 하나의 지시하기 등으로 조절하기
 - 영아의 언어 표현이 서툰고 다시 울음으로 표현되어도 인내심을 갖고 들어주기
 - 영아의 말을 중간에서 끊거나 미리 문장을 대신 말해주어 영아가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심하기
- 울음에 대한 야단, 틀린 의사표현에 대한 지적 지양하기
 - 대부분의 교사나 부모는 영아의 울음은 빨리 그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나 영아가 우는 이유는 다양하고 의사소통의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의사나 감정 표현이 서툰 영아 울음을 소홀히 하거나 야단쳐서는 안 됨.
 - 틀린 의사표현에 대한 지적 지양하기

- 지적 보다는 영아의 말을 바른 말로 다시 한 번 자연스럽게 말해주면서 미소지어주기, 꼬터여주기, 스킨십 등 비언어적 반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6. 또래에 비해 자신이 만들어낸 어휘(음운적 신어) 사용이 빈번한 경우

정확하지 않은 발음, 잘못된 발음, 상대방이 의미를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단어들을 사용하여 말하는 경우

영아 : 한차

교사 : 뭐? 모르겠어...

영아 : 한차

교사 : 한차? 한차가 뭐야~

영아 : 찌~ 찌(손가락으로 가르키며) 한차! → 할아버지 차

가. 원인 분석

- 영아의 부정확한 언어습관에 대한 양육자의 부적절한 반응
 - 부정확한 언어습관을 그대로 두는 경우
 - 영아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시기의 발음은 대부분 부정확하나 이 같은 아기말을 양육자나 주변의 성인이 그대로 모방하게 되면 영아들은 정확하지 않은 어휘를 습득하게 됨.
 - ‘할아버지-하부지’, ‘아이스크림-아끼’
 - 부모가 영아들의 부정확한 음운적 신어를 따라서 사용하고 반복 사용하여 강화시키는 경우
 - ‘찌(고기) 먹을까?’

- 정확한 어휘를 들을 기회가 부족한 경우
 - 잘못된 발음을 하고 있는 양육자로 인한 경우
- 욕구 불만이나 애정 결핍으로 인한 부정확한 발음
 - 영아가 가지고 있는 욕구불만이나 애정 결핍, 어리광 등의 심리적 요인 때문에 부정확한 발음으로 말하는 경우
- 발달 미숙으로 정확한 어휘를 발음하기 어려운 경우
 - 영아는 발달 수준 상 어려운 단어를 정확하게 발음하기 어려우므로, 영아들은 발음하기 길고 어려운 단어의 경우 들리는 대로 말하거나 생략하여 말하기도 함.

나. 지도 방법

- 정확한 발음으로 들려주기
 - 영아가 내는 발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되 정확한 발음으로 다시 들려주기
 - (영아가 아이스크림을 "아끼"라고 말할 때)
 - “○○야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니?”
- 정확한 어휘를 들을 수 있는 기회 제공하기
 - 영아와 의사소통 시 약간은 강조된 억양을 사용하거나, 단어나 음절을 길고 분명하게 말하며 정확한 어휘를 들려주기
 - (교사가 또박또박 천천히, 조금 큰 소리로) “간~식~떡~자”
 - 영아에게 들려주는 짧은 동화나 동시 들려주기, 동요 불러주기, 운율이 담긴 손 유희 등을 활용하여 다양하고 정확한 어휘 들려주기
- 자연스럽게 교정하여 말해주기
 - 영아가 정확하지 않은 어휘를 사용하면, 즉시 교정해 주지 않고 반복의 의미로 강조 없이 자연스럽게 한 번 더 되풀이하면서, 자연스럽게 교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영아: (영아가 컵을 가리키며) “땀미 어~어~”
 - 교사: “아, 컵! 컵을 달라는 이야기구나. 선생님이 컵 줄게”

- 영아: "수배 수배..."

교사: "○○아 수박 먹고 싶다고? 그래, 선생님이 수박 줄게~"

□ 영아를 이해하고 영아의 말을 끝까지 듣기

- 영아가 정확한 발음으로 사물을 발음하거나,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이해해야함.
- 영아기에는 개인차는 있으나 말할 때 단어를 찾기 위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영아가 바르게 표현하지 못해도 교사는 차분하게 들어주어야 함.

□ 발음하기 쉬운 단어로 말할 기회 제공하기

- 영아들 개개인의 발달 수준에 따라 산출하기 쉬운 소리를 파악하여 발음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자신감을 갖고 점진적으로 발화하는 어휘수를 늘려갈 수 있도록 하기
 - 영아가 교사의 발음을 모방해 유사한 소리를 낼 때 적극적으로 격려하기
- 영아들이 놀이 및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정확한 단어를 접하고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 말하기를 자극할 수 있는 주변 환경 구성을 통해 영아가 탐색하며 자연스럽게 어휘를 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다. 유의사항

- 부정확한 어휘사용이나 발음은 시간이 지나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관계로 일반적으로 25~36개월 사이의 발음이나 어휘의 부정확함은 크게 염려할 것이 없으므로 부모가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안내함.
- 영아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 요인 때문에 부정확한 어휘를 쓰는 경우는 대부분 일시적 현상일 수 있으므로 영아가 욕구불만을 갖거나 어리광을 보이게 된 원인을 찾고 심리적 안정을 갖도록 관심을 가져야 함.
- 정확하지 않은 어휘 사용 원인이 언어기관 상의 문제라면 혀의 모양이나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이상이 없는지 상담 받을 것을 부모에게 권유함.

7. 또래에 비해 주로 한 단어말로 의사표현 하는 경우

또래에 비해 의사표현의 발생빈도가 낮고 말소리로 표현 시 단음절, 한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경우

영아: 코(코가 나왔어요)

영아: 문(문이 안열려요)

가. 원인 분석

- 주양육자의 부적절한 언어적 성향
 - 주양육자가 말을 문장으로 정리해서 대화하지 않는 경우
 - 부모의 제한적인 언어적 표현 성향을 모방하는 경우
 - 사물인식, 자신의 환경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조금도 또래에 비하여 뒤떨어지지 않고 발성·발음 기관도 이상이 없다면 부모의 언어적 성향을 자연스럽게 모방할 수 있음.
 - 영아와 상호작용 시 언어적 반응이 아닌 행동으로 반응해 주는 경우
 - 콧물이 나왔을 경우에 양육자가 언어적 표현 없이 콧물을 닦아 줌
- 자신감 결여
 - 말은 하고 싶은 데 잘 안되고 주눅이 들어 더 안 되고, 자신감이 없어져 소극적이 되어 문장으로 된 의사표현하기가 어려운 경우

나. 지도 방법

- 단어습득의 기회 확장시키기
 - 영아가 관심을 갖는 사물에 대해 함께 관심을 갖고 명명해 주거나 영아의 행동을 언어적으로 묘사해 주기

- 영아가 한 말을 기초삼아 어휘를 추가하여 재 진술해 줌으로써 새로운 어휘와 문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하기
 - 영아: “나비 ”
 - 교사: “나비가 예쁘구나 !”, “그래, 노란 나비가 예쁘네.”
- 영아들이 즐길 수 있는 의성어 의태어가 포함된 그림책을 매개로 읽어주면서 단어를 추가하거나 문장으로 소개하면서 어휘력 향상시키기
 - “강아지가 멍~멍 짓고 있네.”
- 영아가 몸짓 아닌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 영아가 몸짓 언어를 사용하거나 한 단어로 표현할 경우 교사가 즉시 알아듣고 반응해주기보다 영아가 원하는 것을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모델을 보이고, 영아의 언어적 행동에 대한 칭찬과 격려와 함께 요구를 들어주기
- 영아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의성어, 의태어 사용 유도하기
 - 영아가 재미있어 하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의성어, 의태어를 자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소리와 동작을 함께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 바른 언어 사용에 대한 모델 보여주기
 - 영아의 언어적 표현이 잘못되었을 경우 매번 즉시적으로 지적하거나 수정할 경우 자신감이 결여되고 위축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표현에 대한 모델을 자연스럽게 제공하기

다. 유의사항

- 영아의 언어발달 속도의 개인차 인정하고 주의 깊게 살펴보기
 - 언어발달 속도에 개인차가 있어 만2세가 되어도 거의 말을 하지 않던 아이가 어느 날 말을 잘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서두르지 말고 지켜보며 기다려 줄 필요가 있으나 만2 무렵에 한 단계에서 오래 정체되면 부모와 함께 유심히 살펴보고 전문적인 언어 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강요나 재촉 자제하기
 - 영아에게 그림책을 보여줄 때 사물에 대한 그림을 동작에 대한 그림보다 먼저 보여주는 것이 좋으나 이때 영아에게 사물의 이름을 말해 볼 것을 강요하지 않아야 함.

- 말이 늦으면 교사나 부모 모두 영아에게 말을 할 것을 재촉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엇보다 말이 늦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를 고민하고 계획하는 것이 필요함.
- 말을 익히는 영아에게 중요한 것은 영아를 바라보는 성인의 눈빛과 표정 그리고 관심이기 때문에 얼굴을 마주할 때 눈빛과 표정에서 영아가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함.

8. 또래와 달리 징징거리거나 소리지르는 말투를 주로 사용하는 경우

언어로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음에도 주로 울음으로 징징거리며 표현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을 빈번히 나타내는 경우

(또래가 놀잇감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다가 갑자기 칭얼거림)

영아 : (우는 소리로) 아~니~야. 아~니~야

교사 : 우는 소리로 말하면 선생님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왜 그러는지 울지말고 이야기 해줄래?

영아 : (계속 징징거리며) 그니까...내~건데~ 자꾸. 만지니까...아

(교실을 돌아다니는 또래를 보며 소리를 지름)

영아 : (발을 동동 구르며) 악~악~

교사 : ○○야, 무슨 일 있니?

영아 : (교사의 대응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또래에게 다가가 소리를 지르며) 악~

가. 원인 분석

언어능력 부족으로 원활하지 않은 의사소통

- 영아 자신이 생각하거나 느끼는 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

- 어떤 주장을 하다가도 소리를 지르는 것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으며, 소리 지르기로 답답함을 해소하기도 함.

□ 욕구 좌절

- 영아의 욕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 영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거나 거부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음.

□ 건강 상태와 사회성 발달 미숙으로 인한 스트레스

- 배가 고프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등 영아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거나 친구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징징거리고 소리지르는 것으로 표현 할 수 있음.
- 영아 스스로 잘하고 싶으나 영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주변 성인의 양육태도나 행동의 영향

- 민감하지 못한 부모의 양육태도로 영아의 요구사항이 제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대한 욕구 불만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징징거리는 모습이 나타나는 경우
- 비일관적 양육태도의 영향으로 강화된 경우
 - 부모가 영아의 징징거림에 일관성 없이 대하면서 한 번 응해 주게 되면 그 행동이 강화될 수 있음.
- 부모나 그 외 성인들이 주변에서 화를 내는 것을 보고 모방하는 경우

나. 지도 방법

□ 교사의 민감성 키우기

- 욕구가 좌절되었거나 불편해서 징징거리는 것일 수 있으며 영아의 상태를 살펴보고 이해하고 도와주기
- 즉시 반응해 주지 않아 영아의 징징거림이 길어지지 않도록 영아의 마음을 잘 헤아려 적절한 반응 즉시 보여주기

□ 부정적인 인식 바꾸기

- 영아들의 언어표현의 미숙으로 이유 있는 요구를 떼쓰는 행동으로 잘못 이해하여 울보 떼쟁이와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되지 않도록 함.

-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분시키기
 -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나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기
 - 안되는 것의 기준은 일관성 있게 지키기
 - 영아에게 대안을 제시하여 영아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 “지금은 OO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이하고 있네. 여기 똑같은 장난감으로 놀이할까? 아니면 OO에게 바꿔달라고 해볼까?”라고 말하며 다른 방안을 제시함.
- 영아가 심리적으로 안정감 느끼도록 하기
 - 영아가 교사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고 안정감을 느끼면 말을 잘 듣고 따르며 교사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 긍정적인 표현과 행동을 나타냄.
 - 부정적인 표현 지양하고 긍정적인 표현 사용하기
 - “또 징징대네, 뚝. 소리지르지마. 안돼.”라고 비난하고 명령하기보다 “마음대로 안돼서 짜증이 났구나, 선생님도 그럴 때가 있어.”
- 주변 환경 바꾸기
 - 놀이경험을 충분히 제공하고 어떤 상황에서 영아가 징징거리거나 소리를 지르는지 관찰하여 상황에 따른 영아의 반응을 예측하고 가능하다면 부정적인 행동을 초래하는 환경을 사전에 통제하기

다. 유의사항

- 대다수의 영아들이 징징거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일차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정으로 볼 수 있으나 징징거리는 행동이 지속되면서 빈번하게 나타난다면 교사나 부모의 일관성 없거나 반응적이지 않은 태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

9. 또래에 비해 대화 시 상대방을 응시하지 못하고 진행되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경우

말하는 상대를 응시하지 않거나 상대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 경우

교사: (간식을 먹지 않고 돌아다니는 ○○에게) ○○아, 앉아서 간식 먹자

○○: (교사의 말을 듣지 않음)

교사: ○○아, 간식 먹을까?

○○: (교사를 쳐다보지 않음)

가. 원인 분석

자기중심적 사고

- 현재의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타인과의 눈 맞춤을 피하고 타인의 말을 듣지 않으려 하는 경우
- 자신이 원하거나 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에만 집중하는 경우

언어 이해 및 표현의 미숙함

- 언어에 대한 이해 능력 발달이 미숙한 경우
 -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언어가 발달되지 않으면 타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듣지 않으려 할 수 있음.
- 영아가 자신의 요구사항들을 언어로 표현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원활한 대화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할 수 있음.

주의력 부족이나 고집이 심한 경우

- 주의력이 부족한 경우 집중시간도 짧고 주의력이 산만하여 상황에 대한 집중이 어려우므로 말을 잘 듣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있음.
- 경쟁적인 성향을 타고난 경우 자신의 의견을 접고 남의 말을 따르는 것을 자신이 진다고 인식하는 경우

-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심하게 떼를 쓰거나 화를 내며 자신의 의견을 계속 고집함.

나. 지도 방법

- 영아의 요구에 경청하고 영아의 바람직한 반응 격려하기
 - 교사가 영아의 요구에 집중하고 경청하는 모델을 보이고 영아가 교사의 말에 반응을 하거나 쳐다 볼 때 칭찬하기
- 의존성과 독립성이 공존하는 시기에 자아에 대한 개념을 확장하고 다른 사람과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위한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기
 - 영아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해준 후, 왜 해야 하는지 혹은 하면 안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기
 - 영아가 이러한 행동을 했을 경우 상대방이 어떤 감정이 드는지 이야기하기
 - “~하면 ~일이 생길 수 있어, ~ 하면 선생님 기분이 ~해.” 등
 - 영아의 요구와 바람을 먼저 인정해 주기
 - 시간을 갖고 영아의 감정을 수용함으로써 영아의 요구를 먼저 배려하고 인정하여 요구는 들어주지 못하더라도 영아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 요구를 들어 줄 수 없는 현재의 상황을 인식시키기
 - 영아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대안을 제시해주기
- 이야기나 상황에 집중하는 경험 제공하기
 - 주의력이 산만한 경우 집중시간이 짧고 상황에 대한 집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영아가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요구할 때 집중하여 들어보고 주변 상황에 대해 집중할 수 있도록 함.

다. 유의사항

- 영아가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행동,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행동은 잘못된 문제 행동으로 간주하기보다, 이 시기 영아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 특성일 수 있음.

- 자기주도성 확장에 따른 영아기의 특징적인 행동일 수 있으므로, 영아 행동에 대한 꾸준한 관찰이 필요함.

10. 또래에 비해 그림책이나 인쇄글자에 흥미를 보이지 않는 경우

평소 그림책에 관심과 흥미가 없으며, 교사가 그림책을 읽어주고자 하면 도망가거나 다른 곳을 바라보고 앉아 있는 등 읽어주는 그림책 듣기를 거부하는 경우 (만2세 영아)

교사: “○○야, 여기 새로운 그림책이 있네? 우리 같이 볼까?”

영아: “싫어요.”

교사: 어? 그림책에 재미있는 그림이 있네? 이것 좀 봐봐.

영아: “안 할 거예요.” (자리를 이동함)

(다른 영아들이 관심을 보이며 다가와 교사가 그림책을 읽어줌. ○○는 전혀 관심 보이지 않고 하던 놀이를 지속함)

가. 원인 분석

- 가정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흥미 반감 및 경험 결여
 - 가정에 너무 많은 양의 그림책이 있거나 영아의 수준에 맞지 않는 책들(그림보다 글자가 많거나 작은 글자로 적힌 책, 과학 전집 등)이 있을 경우
 - 부모가 영아의 연령 및 발달수준에 적합하지 않은 책을 지속적으로 읽어주는 경우
 - TV나 컴퓨터, 스마트폰 등 그림이나 인쇄글자보다 더 자극적인 매체에 먼저 길들여져 있거나 그림책에 대한 경험이 결여되어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우
- 강요에 의한 일방적인 그림책 읽기로 인한 거부감과 스트레스
 - 가정에서 그림책을 읽는 시간이 정해져있거나(영아가 하고 싶은 놀이 시작 전), 시간과 그림책의 권수 등은 영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등 부모의 일방적인 제안과 강요에 의해 책읽기를 하는 경우

- 영아가 보고 싶거나 흥미가 있는 책이 아닌 영아가 보지 않았던 새로운 책을 권하는 부모의 학습 중심적 태도로 영아의 선택권이 제한되거나 수용되지 않는 경험으로 그림책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경우
 - 학습을 조장하는 학습지 형태의 활동지 등의 인쇄물에 대한 부정적 경험의 영향

나. 지도 방법

- 발달에 적합하고 다양한 그림책 제공하기
 - 영아의 발달수준에 적합한 다양한 종류의 그림책(팝업 북, 촉감 책, 소리 나는 책, 글자 없이 그림으로만 이루어진 책,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책 등)을 제공하여 영아가 자연스럽게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돕기
 - 평소 영아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거나 동화를 들려줄 때 책 이외에도 음판 동화, 그림자 동화, 녹음 동화 등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제공하여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기
- 영아의 관심과 흥미 기다리기
 - 영아가 누군가의 강요와 제안이 아닌 자발적 관심과 흥미에 의해 그림책을 볼 수 있을 때까지 교사는 기다려줄 필요가 있으나 영아가 스스로 그림책을 볼 때 과도한 관심을 보이거나 적극적으로 발문하는 등 선부른 개입 하지 않기
 - 초기에는 거리를 두고 영아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미소지어보기 등과 같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격려하면서 영아의 요청이나 질문에 따라 점진적으로 개입함.
- 영아의 선택과 의견 존중하기
 - 영아가 스스로 보고 싶은 그림책을 선택하여 읽어보거나, 교사가 그림책을 읽어주기 위해 그림책을 고를 때 영아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 “어떤 그림책이 마음에 드니? 어떤 그림책이 재미있을 것 같니?”
 - 영아와 함께 그림책을 볼 때 좋아하는 장면이나 등장인물을 선택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행동을 격려하거나, 영아가 직접 책장을 넘길 수 있도록 하기
 - “이 그림책에서 누가 제일 좋으니? 어떤 장면이 재밌었어?”

- 그림책을 활용한 놀이로 즐거움 경험하기
 - 영아와 그림책으로 도미노 놀이를 하거나 머리에 올리고 떨어트리지 않기, 병풍 책으로 집 만들기 등 그림책을 활용한 다양한 놀이를 통하여 그림책과 친숙해 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 "내가 좋아하는 그림책 소개하기"와 같은 또래와 함께 하는 활동을 통해 그림책에 대한 긍정적 감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 “○○야, 선생님이 △△(또래 영아)에게 책을 읽어주고 싶은데 책 한 권만 골라줄래?”
 - 인쇄물에 대한 영아의 흥미와 호기심을 높이기 위해 영아에게 친근한 과자상자, 잡지사진 등의 인쇄물을 활용하기

다. 유의사항

- 영아기 발달에 적합한 언어적 환경 안내하기
 - 필요시 부모와의 면담을 통해 가정 내 과도한 언어자극 환경 변화 및 부모의 태도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안내하기
 - 영아의 발달수준에 적합한 그림책의 종류와 도서목록을 제공하기
 - 영아의 선택과 의견을 존중해줘야 함을 강조하며,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상호작용의 예시 및 그림책을 활용한 놀이 소개하기
- 영아의 반응에 적절한 지도방향 계획하기
 - 영아기의 발달적 특성에 따라 아직은 인쇄글자에 대한 영아의 흥미와 관심이 적으므로 환경인쇄물 등을 활용해 적절히 자극하고, 영아가 반응하는 흥미와 관심에 적절한 지도방향을 계획하도록 함.
- 신체적 건강의 문제
 - 사시, 굴절이상(근시, 원시, 난시) 등 안과적인 건강의 문제로 인해 그림책에 대한 흥미를 보이지 않거나 거부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부모 마음을 세심하게 배려하여 전달함.

11. 또래에 비해 쓰기도구 및 사용(끼적이기)에 대해 흥미를 보이지 않는 경우

또래에 비해 평소 색연필, 크레용 등 쓰기도구 및 사용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없으며,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려 하거나 쓰기도구를 손에 쥐려하지도 않는 경우

교사: “○○아, 우리 엄마아빠께 드릴 선물을 그림으로 그려볼까?”

영아: “선물?”

교사: “응. 여기 색연필이나 크레파스로 그려볼까?”

영아: “음..” (또래 영아들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이동함.)

(다른 영아들이 다양한 쓰기도구를 이용하여 그림을 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옮겨 다른 놀이를 함.)

가. 원인 분석

쓰기 도구에 대한 경험 결여

- 가정에 다양한 쓰기도구나 쓰기관련 활동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여 흥미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
- 영아가 색연필 크레파스 등 다양한 쓰기도구를 이용하여 표현한 끼적이기 활동에 대해 부모가 무관심하거나, 집안에 남겨진 영아의 끼적이기의 흔적들을 싫어하여 나무라거나 행동을 제한한 경우
 - － 쓰기도구 및 사용 자체에 대한 흥미 반감으로 표현활동에 대한 동기가 낮아짐.

주변 환경으로 인한 영아의 스트레스

- 영아의 발달에 적합하지 않은 쓰기도구가 제공되거나 소근육 발달이 미숙한 경우
 - － 소근육 발달이 미숙하여 영아가 쉽게 도구를 잡지 못하고 자꾸 놓칠 수 있다보니 마음껏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게 되면서 쓰기도구를 잡고 사용하는 것 자체에 흥미를 갖지 못할 수 있음.

- 오른손 또는 왼손에 대한 선호와 같은 문화적인 환경의 영향으로 우세손을 바꾸려고 할 경우
 -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쓰기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게 되면서 쓰기도구 및 사용 자체에 대한 흥미를 보이지 않을 수 있음.

나. 지도 방법

- 쓰기도구의 사용이 자유로운 자료와 환경 제공하기
 - 영아가 자유롭게 끼적거리를 할 수 있는 벽, 바닥, 큰 종이, 일정한 장소 등을 마련하여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쓰기도구를 사용해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 영아가 쉽게 잡을 수 있고, 작은 힘에도 색이 선명한 쓰기도구 등 영아의 발달에 적합한 쓰기도구를 제공하기
 - 무독성 크레파스, 크레파스 또는 색이 선명한 색연필 이외에도 붓, 면봉 등 끼적이기가 가능한 다양한 도구를 제공하여 관련 활동 경험하기
- 영아의 관심과 흥미 유도하기
 - 영아에게 무해한 다양한 쓰기도구를 제공하며 쓰기도구를 사용하고 싶도록 영아가 선호하는 그림이나 사진을 출력하여 관심을 유도하기
 - “○○이가 좋아하는 토끼모양의 종이가 있네? 토끼한테 예쁜 옷도 입혀주고 색깔도 칠해줄까?”
 - 다양한 모양의 스티커를 활용한 선 잇기,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쓰기도구와 관련 재료를 자세하게 탐색하도록 돕기
 - “별이랑 세모랑 만날 수 있는 길을 그려보자.”
 - “이 붓은 정말 크다. 붓의 끝을 함께 만져볼까? 느낌이 어때니?”
 - 다양한 모양이 그려진 책을 본 후 쓰기도구를 활용하여 따라 그려 보거나, 점, 선, 면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끼적인 것을 격려하며 자신의 끼적이기에 대해 명명할 수 있도록 관련 상호작용 하기
 - “○○아 무엇을 그리고 있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니? 와~ 정말 자동차가 지나가는 것 같네”, “(호랑이 사진 밑에 끼적이기를 한 영아에게)○○이가 호랑이 그림 밑에 호랑이 라고 썼네. 선생님도 여기에 호랑이라고 적어 볼까?”

- 영아의 쓰기도구를 활용한 끼적이기에 대한 격려하기
 - 영아의 비의도적인 끼적이기에 의미 부여하여 표현과정 자체를 인정하고 격려하며 하나의 작품으로 게시하기
 - “○○이는 무엇을 그렸니? 와~ 기다란 줄이 생겼네? 친구들에게도 함께 보여줄까?”
 - 형태가 명확하지 않는 끼적이기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기
- 영아의 소근육 발달에 도움이 되는 경험 제공하기
 - 소근육 발달을 돕기 위한 활동 제공하기
 - 신문지 찢기, 밀가루 반죽놀이
 - 협응력 발달을 돕기 위한 활동 제공하기
 - 구슬 끼우기, 단추 끼우기, 퍼즐 맞추기 등

다. 유의사항

- 영아의 쓰기발달 단계에 대한 이해하기
 - 아무 의미 없는 낙서로 간주할 수 있는 끼적이기가 쓰기발달 단계에 있어 영아의 자기표현의 첫 단계이므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 준비도 개념의 활동제공 및 발달적 수준에 적합하지 않은 행동 강요하지 않기
 - 영아기는 직접적인 쓰기 보다는 소근육과 협응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준비도 개념의 활동을 풍부하게 경험하도록 함.
 - 쓰기 도구의 사용을 통한 영아의 표현을 존중하고 격려하고자 교사가 "이것도 좀 더 해보자" 등의 표현으로 지나치게 요구할 경우 영아는 자신의 표현이 부족하다 생각하여 흥미와 자존감을 떨어뜨리며 쓰기도구 및 사용에 대한 흥미를 반감시킬 수 있으므로 유의함.

12. 아기식 발음으로 말하거나 알아듣기 힘들 만큼 명확하지 않은 발음으로 말하는 경우

일반아동들에게 기대되어지는 언어음 발달이 정확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로 발음의 대치(고기-도기), 생략(할머니-하머니), 왜곡(맛있어-마시찌) 등의 오류가 심하여 알아듣기 힘든 경우

유아 : 샘미~

교사 : 주섭아 왜?

유아 : 주더비 꺼 주데요

교사 : 주섭이꺼? 주섭이꺼 뭐 달라고? 이거?

유아 : (고개를 흔들) 주더비꺼요

가. 원인 분석

발음의 부적절한 모델

- 발음의 모델인 부모나 주변 사람의 부적절한 발음으로 잘못된 유형을 습득한 경우

퇴행현상

- 갓난 아기가 되어 더 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에 퇴행적 행동으로 아기식 발음을 사용하는 경우

나. 지도 방법

부적절하고 불분명한 발음으로 인해 또래들의 놀림감이 되지 않도록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하기

○ 또래들의 이해 구하기

- 발음의 문제는 불편하지만 부끄러운 일이 아님
- 발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일임

- “00은 말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는 연습이 더 필요한 것 뿐이란다”
- “우리를 중에 자전거를 못 타는 친구도 있고 잘 타는 친구도 있는 것처럼 00이가 지금은 우리들처럼 말하기가 어렵지만 매일 노력하면 조금씩 좋아 질 수 있단다”
-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00에게 도움이 될까?”
- “00의 말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모를 때는 친절하게 다시 물어보고 천천히 말하라고 말해주면 어떨까?”

□ 정확한 발음의 모델링 보이기

- 자연스런 대화 상황에서 가능한 입을 크게 하면서 정확한 말소리 들려주기

□ 즐거운 활동을 매개로 부담감 없이 발음할 기회를 갖고 가능한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 단순하고 반복적인 말소리 내기 활동이 주가 되는 게임하기

– ‘가위 바위 보’, ‘여우야 여우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오리오리사자’

- 한 음으로 노래하기

– ‘나나나’, ‘다다다’, ‘라라라’, ‘사사사’, ‘자자자’

- 정확한 발음 경청하고 따라 하기

– 유아의 부적절하거나 불분명한 발음이 들어간 낱말을 중심으로 교사가 말하고 유아가 따라해 보는 활동을 게임처럼 진행하기

메아리 게임 (eco speech)

(손뼉치기 무릎치기를 교대로 하면서)

‘할아버지-할아버지’, ‘고기가-고기가’, ‘맛있어요-맛있어요’

□ 유아의 부적절하거나 불분명한 발음과 정확한 발음 간의 차이 알기

- 유아가 의도한 발음과 잘 못 발음한 말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카드 짝 짓기 게임

(새를 해로 발음하는 경우 : ‘새’-새 그림 카드 ‘해’-해 그림 카드)

- 규칙적으로 혀 운동하기
 - 이닦기 시간을 이용하여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 혀 내밀기, 혀 구부리기, 양옆으로 움직이기, 위아래로 움직이기

다. 유의사항

- 유아의 부적절하거나 불분명한 발음을 지적하거나 즉시적인 교정을 요구하며 다그치지 않기
- 아기식 발음, 분명하지 않은 발음을 재미있어하면서 따라하거나 유아를 아기취급하면서 아기말로 대화하지 않도록 함
 - '그대찌요?', '아야 해찌요?' '하부지 오셨네'
 - '그랬구나', '아팠니?', '할아버지 오셨네'
- 구강구조의 신체적 결함이 의심될 경우 이비인후과 진단 권유하기
 - 혀가 짧은 경우
 - 입천장의 뼈가 갈라져 구강과 비강의 구분이 없는 경우

13. 말할 때 말소리 크기가 지나치게 크거나 작은 경우

말할 때 말소리를 필요이상 너무 크게 내거나 너무 약하게 내는 등 음의 강도를 조절하지 못하여 상대방이 알아듣는데 방해가 되거나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

가. 원인 분석

- 성격이 급하거나 흥분을 잘하여 늘 큰소리를 내는 경우
-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어 자신감 결여로 말소리를 크게 내지 못하는 경우

- 말하는 상황에 따라 말소리를 크게 또는 작게 조절해야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

나. 지도 방법

-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말할 수 있는 상황 제공하기
 - 흥분된 상태에서는 말하기를 멈추고 심호흡을 몇 번 한 후에 목소리를 작게 하여 말하도록 권함
 - “잠깐만 쉬고 얘기하자” “숨을 크게 쉬어보자, 숨을 쉬고, 숨을 뱉고 ...”
 - “자 이제 조금만 더 작은 소리로 말해보렴”
 - 유아가 목소리를 작게 조절한 것에 대한 느낌이나 결과를 설명해주기
 - “네가 작은 소리고 말해주니 듣기가 참 좋구나”
 - “이렇게 작게 말해주어도 참 잘 들리는데”
- 소심하거나 위축되어 지나치게 작은 소리로 말하는 유아의 경우 부끄러움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갖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매체 활용하기
 - 보여주며 말하기(show and tell)
 - 말할 때 물건이나 인형 등에 의지하여 용기를 내어 좀 더 큰 소리로 말할 수 있는 기회제공하기
 - (유아가 아닌 인형에게 말을 하듯) ‘00야 오늘은 무슨 색 옷을 입고 왔니?’
 - “우리반 친구들이 모두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말해줄래 있니?”
 - “이 물건은 누가 사 주신 거니? ‘이 물건은 무엇을 할 때 사용하는 물건이니?’
 - “조금만 더 큰 소리로 말해주면 저 뒤에 앉아 있는 친구들도 잘 들을 수 있겠다”
 - 유아가 목소리를 크게 조절한 것에 대한 느낌이나 결과 설명해주기
 - “네가 큰 소리로 말해주니 더 잘 들려서 좋단다”
 - “네가 큰 소리로 말해주니 내가 한 말을 더 잘 알 수 있어 좋단다”
- 목소리의 크기에 대한 이해 돕기
 - 녹음기를 이용하여 큰(작은)목소리 비교해보기

- 목소리를 크게, 작게 내보는 노래부르기나 게임하기
 - 달팽이 노래
 - 달팽이 집을 집시다 어여쁘게 집시다
 - 점점 크게(목소리도 크게) 점점작게(목소리도 작게)
 - 점점 크게(목소리도 크게) 점점작게(목소리도 작게)
 - 달팽이 집을 집시다 어여쁘게 집시다
 - 큰 소리 작은 소리 게임하기
 - 큰 북소리에 큰 목소리, 작은 북소리에 작은 목소리
- 말할 때는 상황에 따라 목소리를 크게 내야할 때와 작게 내야할 때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 돕기
 - 큰 목소리로 말해야 할 상황, 작은 목소리로 말해야 할 상황에 대해 이야기 해보기
 - “우리가 큰 목소리로 말해주어야 할 때는 언제일까?”
 - “우리가 큰 목소리로 말해도 좋은 곳은 어디일까?”
 - “우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해주어야 할 때는 언제일까?”
 - “우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해야 좋은 곳은 어디일까?”
- 지나치게 큰 목소리(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친구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 돕기
 - “큰 목소리를 내지 않아도 될 때 큰 목소리로 말을 하면 친구들은 무엇이 불편할까?”
 - “큰 목소리를 내야할 곳에서 너무 작게 말하면 친구들은 무엇이 불편할까?”
- 상황에 따라 목소리 강도를 조절하여 말하는 적절한 모델 보이기

다. 유의사항

- 가정에서도 기관과 동일한 방법으로 유아들을 지도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과 방법을 안내하여 일관성 있는 지도를 꾀함
- 지나치게 크거나 작은 목소리가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것으로 인하여 유아가 또래로부터 비난받지 않도록 유의함

- 후두 및 성대의 이상이나 질환이 의심될 경우 있을 경우 이비인후과 전문의 진단과 도움을 받아 원인을 발견하고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권유하기

14. 지나친 군말사용이나 말더듬 현상으로 말의 흐름이 순조롭지 못한 경우

말의 진행에서 소리, 단어, 절의 반복이나 중모음 '어'의 반복, 첫 음의 자음 길게 끌기, '아-', '에-'의 반복사용 등으로 순조롭지 못한 현상

유아 1 : (유아 2의 카드를 빼앗으며) 너도 있잖아
 유아 2 : 어...어..., 내...내꺼야 ...줘
 유아 1 : 야, 000! 같이 나눠서 해야지.
 유아 2 : 어.... 어.... 어...잡...잡아...잡았잖아
 유아 1 : 너만 하는 거 아니야. 같이 해야지

가. 원인 분석

- 대중매체 및 주변사람의 모방
 - 유아 주변에 말을 더듬는 사람이나 TV 등 대중매체를 통해 본 것을 모방하는 경우
- 말더듬 행동에 대한 지나친 간섭 및 교정
 -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언어사용의 미숙함을 말더듬으로 걱정하여 지나친 관심을 주거나 교정을 목적으로 지나치게 간섭하는 경우
- 심리적, 정서적 불안
 - 욕구불만, 충격, 공포, 불안감, 부적응 등의 심리적 요인에 의한 경우
- 주의집중 시간이 짧고 산만한 경우

나. 지도 방법

- 수용적이고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하기
 - 말의 흐름이 또래와 다르다는 것으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배려하기
 - 교사는 물론 또래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여 말을 더듬는 유아의 현재의 상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 말더듬에 대한 공포, 수치심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 교사와 또래들의 이해 속에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자신의 언어적 표현이 다른 사람과 다르지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알게 하기
- 유아가 하는 말에 관심을 보이고 인내심 갖고 들어주기
 - 상대 유아가 말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고 인내심을 갖고 경청해 줌으로써 말하기를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하기
 - 유아가 하는 말에 관심과 흥미 보이며 이 같은 교사의 행동을 인지할 수 있는 반응 제공하기
 - 눈 마주치기, 끄덕여주기 등의 비언어적 반응하기
 - ‘응~ 그래서?’ ‘그랬구나’, ‘그 다음엔?’ 등의 언어적 반응해주기
- 유아가 하는 말의 흐름이 끊기더라도 말이 단절되지 않도록 눈 마주치기, 끄덕여주기와 같은 비언어적인 반응을 적극 활용하기
- 말하기에 대한 유아의 자신감 키워주기
 - 말하기 상황을 보다 쉽게 조성하여 자신감을 갖고 반응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 물건이나 인형에 의지하여 말하거나 인형과 대화하기
 - 물건 소개하기, 인형이 되어 말하기, 인형의 질문에 답하기
 - “00야 오늘은 어떤 놀이가 제일 재미있었어?”(교사가 인형이 되어 질문하기)
 - “00야 오늘 아침엔 무엇을 먹고 왔니?”(유아는 인형이 되어 대답하기)
 -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집단의 크기를 점진적으로 늘여가기
 - 교사 또는 친구에게 말하기, 몇몇 친구들에게 말하기, 모든 친구들 앞에서 말하기

- 간단한 심부름을 하는 과정을 통해 말하기 기회 제공하기
 - 주방, 원장실, 다른 교실에 말 전달하기, 필요한 도움 요청하기, 필요한 물건 가져오기
 - “집계가 하나 모자라네”
 - “주방에 가서 ‘집계 하나만 주세요’ 하고 가져다 줄 수 있니?”
- 발성 또는 정해진 언어적 표현을 통해 말해 볼 수 있는 기회 제공하기
 - 발성기관을 사용하는 다양한 경험 제공하기
 - 여럿이(혼자)큰 소리로 단음 말해보기, 의성어 흉내내보기, 의태어 동작과 함께 소리내보기, 단음으로 노래하기
- 유아가 관심과 흥미를 보이는 매체나 활동을 활용하여 말하기에 대한 동기부여하기
 - 문학작품을 활용한 말하기 기회 제공하기
 - 여럿이(혼자) 동시(동화책)에 반복되는 의성어, 의태어 따라 읽기
 - 여럿이(혼자) 동시(동화책)에 나오는 단어, 구, 문장 따라 읽어보기

다. 유의사항

- 말을 더듬는 현상은 문장으로 말하기가 시작되는 2세 이후 나타나게 되는데 발달의 과정에서 말하는 능력이 아직 미숙하여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으므로 연령이 어릴수록 2-3개월 지켜볼 필요가 있음
- 말더듬의 원인은 대부분 환경적, 심리적 요인이 복합되어 있으므로 두 가지 측면에 대한 배려를 동시에 해 줄 필요가 있음
- 말을 재촉하거나 대신해 주는 것은 오히려 열등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인내심을 갖고 들어줌
- 언어적 반응의 길이를 간단한 것으로부터 점진적으로 늘여갈 수 있도록 배려함으로써 말하기에 대한 부담 줄여주기
- 개입의 초기일수록 개방적 질문보다는 ‘네’, ‘아니요’로 간단히 답할 수 있도록 질문하기

15. 또래에 비해 대화 및 이야기 나누는 상황에서 맥락·지시·주제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

대화나 이야기 나누는 상황에서 또래 친구들에 비해 이해 어휘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

(어린이집 오면서 보았던 건물, 기관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를 함)

교사 : 오늘 아침에 어린이집에 오면서 어떤 건물이나 기관들을 보았는지 이야기 해볼까?

유아1 : 선생님, 어린이집 앞에 파출소 있어요.

유아2 : **편의점도 있구요, 학원도 있었어요,. 우리 형아 거기 다녀요.

유아3 : 나 오늘 아빠랑 버스타고 왔는데.

교사 : (유아3을 바라보며) 그랬구나. 버스에서 내려서 어린이집까지 걸어오면서 무엇을 보았는지 친구들에게 얘기해줄 수 있어?

유아3 : 이제 엄마랑 올거예요. 오늘 엄마가 아빠랑 가라고 해서 그랬어요.

가. 원인 분석

주의집중 부족

-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지 못하고 주의집중 시간이 짧아 상대방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경험의 부족으로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

- 유아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으로 주제나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자기중심적 성향

- 자신의 욕구나 관심주제 중심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거나 주의를 기울임.

□ 언어 이해력 및 전달력 부족

- 사고에 융통성이 없으며 개념파악 및 이해력, 언어 전달력 부족

나. 지도 방법

□ 주의집중 능력 기르기

- 놀이를 통한 주의집중 능력 기르기
 - 수수께끼 놀이 (소리 내지 않고 입 모양 보고 알아맞히기 등)
 - 전화놀이 (유아와 일대일로 대화하며 경청하는 태도 보여주기)
 - 대화를 하면서 유아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 유아의 말 경청하는 모델링 보이기

- 교사가 먼저 유아의 말에 주의집중 하는 모습을 보이고 교사는 유아가 선택한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며 대화를 나누고 격려하기
 - “ OO이가 OO를 좋아하는구나. 관심이 많구나.”
 -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을 통한 경청하는 태도 보여주기
- 유아와 일대일의 관계를 가져 유아의 개인적인 감정을 존중해주고 관심을 보며 줌으로써 교사와 대화하고 싶은 동기를 유발시키기
- 교사는 유아의 질문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고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해주는 모델링을 자주 보여주기

□ 집단 내 도우미 역할을 통한 자기중심성 탈피에 도움주기

- 집단에서의 역할 분담시키기 (생활 도우미, 동물 돌보미 등)
 - 보육실에서 작은 역할을 맡아 수행해볼 기회를 제공하고 차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낼 수 있도록 함.
 - 유아들이 서로 이야기 나누기를 해보거나 함께 협동하여 작업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제 맥락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함.

□ 언어 이해와 전달 기술 발달시키기

-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사물들을 언어 교육의 자료로 사용하고 언어를 격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 “벽에 걸려있는 시계는 어떻게 움직일까?”
- “오늘 어린이집에 올 때 어떤 신발을 신고 왔니?”
- 교사는 유아의 행동, 언어에 대해 반드시 적절한 피드백을 해주고, 유아가 새로운 단어나 언어개념을 사용하는 것을 강화하여 유아가 자기의 언어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지원하기
- 간단한 언어적 지시 따르기 (한 번에 한 가지 활동만 소개하기)
 - “양말 벗어서 서랍장에 넣으렴.”
(행동을 마친 후) “화장실에 다녀오렴.”
 - 언어 표현 시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간단하게 표현하기
 - 그림이나 사진을 보면서 자신의 경험 이야기하기

다. 유의사항

- 이야기 나누기 시 주제를 분명하게 재전달하기
 - 대소집단 활동으로 이야기나누기 시 유아가 주제나 맥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엉뚱한 대답을 할 때 교사는 유아의 표현을 또래들 앞에서 “그건 아니야”라고 무시하는 언행을 보이지 말아야 함.
 -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강조해 주고 주제와 관련 있는 대답을 짧게 할 수 있도록 해줌.

16. 또래에 비해 주변 글자 및 책읽기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없는 경우

유아가 그림책이나 환경 인쇄물에 관심과 흥미를 전혀 나타내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간식을 먹기 전 유아들이 함께 모여 동화책을 보고 있음. ○○이는 책을 보지 않고 쿠션에 누워 두리번거리다가 옆 친구와 이야기를 함.

교사: “○○야, 어떤 동화책을 보고 있었니?, 선생님과 함께 볼까?”

유아: 잘 모르는데.....

(교사를 피해 다른 책상으로 가 책을 바닥에 내려놓음)

가. 원인 분석

□ 책에 대한 경험 부족

- 어려서부터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거나 주변 성인들이 책을 읽어주는 경험이 부족하여 책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책 읽기에 대한 즐거움을 모르고 흥미가 없는 경우

□ 가정에서의 강압적인 한글교육 및 책읽기 활동으로 인한 거부

- 유아가 책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도 전에 부모가 유아의 독립적인 책읽기를 강요하여 책읽기를 거부하거나 흥미가 낮아질 수 있음.
- 한글교육으로 인해 책 속의 문장읽기, 단어 찾기 등의 활동으로 단순한 글자 배우기 등 주입식 교육을 통해 글자를 읽는 것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가질 수 있음.
- 유아의 발달에 맞지 않은 책을 제공할 경우 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음.

나. 지도 방법

□ 다양한 책을 접할 수 있는 환경 제공하기

- 유아가 좋아하는 관련주제에 따른 다양한 책을 통해 흥미 유발하기
- 유아가 스스로 책을 선택하고 볼 수 있도록 격려하기
 - “○○가 좋아하는 책을 한번 골라볼래?”
 - “○○는 자동차에 관심이 많구나, 선생님도 이 책의 내용이 기대된다.”
- 평소 또래와 친밀한 유아와 함께 책 보기

- 유아의 선택과 흥미를 존중하고 격려하기
- 성인과의 자연스러운 책보기 활동으로 책과 친해지기
 - 스스로 책보기를 어려워하는 유아에게 자연스럽게 접근하여 책 속의 그림을 유아가 추측하여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 “이 장면에서는 어떻게 됐을까?”
 - 책을 함께 보는 과정에서 단순히 책을 읽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아 사회적 상호작용을 많이 하기
 - “반쪽이 마음이 어땠을까?”
 - “그래, ○○의 이야기처럼 반쪽이도 많이 속상했을거야, 혹시 ○○도 반쪽이처럼 그런 속상한 일이 있었니?”
 - 책속의 여러 문장을 소리 내어 유아와 함께 읽어보기
 - 유아의 현재 읽기 수준을 고려하여 활동을 계획하고 진행하기
- 주변에서 친숙한 글자 찾기, 글자를 이용한 다양한 놀이하기
 - 유아가 쉽게 인지하고 있는 글자를 주변에서 찾아 함께 읽어보기
 - 길을 걸어가던 중 “저기, ○○가 좋아하는 자동차의 ‘자’자와 같은 글자가 있네, 그럼 ‘자’자가 또 있는지 함께 찾아볼까?”
 - 유아가 알고 있는 글자를 활용하여 책읽기 활동 외에 평소 유아가 흥미 있어 하는 게임이나 퍼즐, 신체를 이용하여 글자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으로 연결시켜 참여 유도하기
 - (교사가 단어 카드 제시하며) “여기 있는 글자는 어떻게 읽을까?”
 - ‘사자’에서 처럼 ‘사’자가 들어가는 글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다. 유의사항

- 활동 진행 시 유아보다 너무 많이 앞선 또래의 참여로 인해 자칫 흥미를 잃거나 상실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을 고려하여 유아와 비슷한 수준의 유아로 하여금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가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글교육이나 혼자 책읽기 활동 등이 유아의 흥미와 발달수준에 적합한지 검토함.
- 부모가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활동 방법을 안내함.

17. 또래에 비해 문학작품 내용에 대한 이해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이해언어 발달이 미숙하여 그림책의 내용에 대한 이해나 해석이 원활하지 않고 의미 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교사 : (커다란 무 동화를 읽어주고) 할머니는 왜 혼자서 무를 뽑지 못했을까?

유아1 : 너무 커서요

교사 : 어떤 동물들이 할머니를 도와주었니?

유아1: 강아지, 고양이

○○: 공룡

교사 : 동물들이 왜 할머니를 도와주었을까?

○○: 먹고 싶어서요

유아1: 무가 커서 힘을 모으려구요

- 그림책에 대한 경험 및 표현활동의 경험 결여
 - 가정에서 유아가 그림책 읽기, 공연관람 등 문학작품에 대한 경험 및 표현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아 흥미 또는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 경우
 - 유아가 문학작품에 대한 반응을 보였을 때 부모나 교사가 반응해 주지 않았거나 적절하지 않게 반응한 경우
- 유아의 이해 및 집중력 부족
 - 유아의 이해 및 집중력 부족으로 작품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
 - 교사의 문학작품 내용에 대한 교사의 질문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경우

나. 지도 방법

- 일상생활 속에서 문학작품을 통한 즐거운 경험 제공하기
 - 문학작품에 대한 관심이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접근이 쉽고 매력적인 환경 제공하기
- 공연관람 등을 통해 문학작품의 다양성 경험시키기
 - 그림책을 통한 선행 경험 후 뮤지컬, 인형극 등의 관람을 통하여 유아가 접한 문학작품이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음을 경험함.
 - 소극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연관람, 어린이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문학작품과 관련된 활동 참여, 북아트 활동 등을 통해 문학작품을 다양하게 경험하고 표현하고 감상해보기
- 문학작품 경험 시 집중력 높이기 위한 환경 및 분위기 조성하기
 - 유아가 문학작품을 접할 때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 제공하기
- 구체적인 질문을 통한 유아 대답 유도하기
 - 유아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질문하기
 - “커다란 무는 무거워서 혼자 뽑을 수 없었는데~ 처음에는 할아버지, 그 다음에는 할머니, 그 다음에는 아이.... 아이 다음에는 어떤 동물이 도와주었을 까?”
- 다양한 문학작품의 활동 및 표현의 기회 제공하기
 - 문학작품을 듣고 확장활동으로 역할놀이, 미술활동, 수조작 활동, 음률활동 등을 계획하여 문학작품에 대한 이해 및 표현을 격려함으로써 흥미 느낄 수 있도록 하기
 - 역할놀이영역: ‘커다란 무’ 동화를 듣고 난 후 동극으로 표현하기
 - 미술영역: ‘커다란 무’ 동화를 듣고 등장인물 막대인형 만들기
 - 수·조작영역: 판게임을 이용하여 무 모으기(수세기) 게임 활동하기

다. 유의사항

-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인형극, 뮤지컬 등의 다양한 공연관람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고 문학작품과 관련된 가정연계 자료를 소개하여 유아가 사전 경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

18. 또래에 비해 사용 어휘수가 매우 적은 경우

대화나 자기표현으로의 말하기 상황에서 또래 친구들에 비해 사용하는 어휘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

전이활동으로 교사와 유아들이 '시장에 가면' 말 이어가기 게임을 함.
(앞에서 말한 것들을 유아들이 잘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교사가 게시판에 단어를 적어 주고 있었음)

교사 : 시장에 가면 사과도 있다.

유아1 : 시장에 가면 사과도 있고, 포도도 있다.

유아2 : 시장에 가면 사과도 있고, 포도도 있고, 가방도 있다.

유아3 : 시장에 가면 사과도 있고 포도도 있고, 가방도 있고, 신발도 있다.

유아4 : (머뭇거리며) 시장에 가면, 음...모르겠다.

가. 원인 분석

언어적 자극 부족

- 어휘수가 급증하는 시기에 언어적 자극이 풍부하지 못한 환경에서 성장하는 경우 사용 어휘가 부족하기 쉬움.
- 가정에서 부모나 주위의 성인이 사용하는 어휘의 수가 적어 어휘 학습의 기회가 부족할 때 유아의 어휘발달이 제한적일 수 있음.
- 부모의 장애로 인해 언어적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경우 유아의 어휘발달에 영향을 미침.

언어적 사용 기회의 결핍

- 유아가 다양한 어휘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사용 어휘수가 제한적일 수 있음.

유아 개인의 성향에 기인

- 유아가 깊이 생각하거나 새로운 것을 익히는 것을 거부하는 성향을 지님.
- 집중력이 짧아 어휘 학습이 어려울 수 있음.

- 새로운 상황과 낯선 경험을 싫어하고 변화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유아의 경우 늘 사용하는 익숙한 어휘만 사용하려고 그 범위를 확장하지 못함.

나. 지도 방법

- 풍부한 어휘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 구성 및 제공
 - 유아가 다양한 어휘를 경험하도록 이야기나 동화책 읽기 등의 경험을 많이 제공하기
 - 유아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반복적인 노출을 통해 학습이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현장체험 등을 통해 새로운 어휘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마련하기
 - 어휘가 풍부하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친구와 함께하는 기회 만들기
- 다양한 어휘놀이나 동요를 이용하여 어휘 발달 도모
 - 끝말잇기, 다양한 말놀이, 그림 낱말카드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유아의 어휘량을 늘릴 수 있도록 배려함.
 - “리리리자로 끝나는 말은...”
 - 반복적 어휘를 사용하는 동요나 새로운 어휘사용이 많은 동요를 익히면서 어휘 확장을 도모하기
 - “김치를 담그려면, 배추가 있어야지요. 파랗고 싱싱한 배추가 있어야지요...”

다. 유의사항

- 일상생활 통해 자연스러운 시도
 - 다양한 어휘를 연습해 볼 상황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는 것이 도움이 됨.
- 새로운 어휘 사용 시도 시 격려하기
 - 유아가 새로운 어휘 사용을 시도하고 노력할 때 긍정적 반응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임.
- 지적능력 결핍 의심될 때 진단을 고려

- 언어를 학습하는 지적 능력의 결핍으로 어휘수가 제한적일 수도 있음.
- 지적 능력의 결핍이라고 고려될 시에는 유아의 발달에 대한 진단 후 개선 방법을 찾는 적극적인 추후 조치가 필요함.

19. 또래에 비해 언어적 의사표현이 매우 적은 경우

마당에서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을 바라보기만 하는 유아에게 교사가 참여의사를 묻는 상황

교사 : OO야, 너도 그림 그려볼래?

유아 1: (말없이 고개를 끄덕임)

교사 : (붓이 담긴 물통을 건네주며)그림 다 그리면 선생님한테 이야기해줄래?

유아 1: (말없이 웃으며 친구 옆으로 다가가 바라보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함.)

유아 2 ; 야, 너 뭐 그린거야?

유아 1 : 몰라.

교사 : 선생님한테 이야기해줄 수 있어?

유아1 : (한참을 망설이다가)꽃

가. 원인 분석

언어 사용이 제한적인 환경

- 유아가 언어로 의사표현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모들이 미리 알아서 배려해주는 환경에 있는 경우
- 가족구성원들의 언어적 표현이 지극히 적은 경우

대인관계 경험 부족

- 유아가 가족구성원외의 타인과의 상호작용 경험이 적어, 가정 밖에서는 언어적 표현이 적을 수 있음.

- 유아의 강한 내향적 성향
 - 유아의 수줍음이 많고 내향적인 성격 때문에 말할 때 교사와 친구들의 관심이 자신에게 쏠리는 상황을 어려워하여 언어적 표현이 적을 수 있음.
- 부정적 감정
 - 이사, 동생 출생, 부모의 이혼 등 갑작스런 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유아의 언어적 의사 표현을 감소시킬 수 있음.

나. 지도 방법

- 언어사용을 위한 동기부여와 성취감 자극하기
 - 언어사용의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도와 유아가 자발적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언어를 사용해 봄으로써 언어사용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언어사용에 대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음.
- 동극 등 언어를 표현하는 흥미로운 상황 접하기
 - 동화를 동극 형식으로 각색하여 함께 하여 보는 활동이나 수수께끼 등 언어표현의 즐거움을 느끼게 기회를 마련함.
- 친숙한 환경에서 또래와의 상호작용하기
 - 유아가 친숙하고 편안하게 여기는 상황에서 또래와 놀이하면서 자연스럽게 친구와 대화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익혀감.
- 부정적 감정 위로하기
 - 유아의 부정적 정서로 인해 언어적 표현이 적은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처가 필요함.
 - 화나거나 우울한 유아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이 필요함.
 - “OO이 마음이 그랬구나. 선생님이라도 그럴 것 같네.”
 - 유사한 상황을 담은 동화책이나 이야기를 활용함.
 - 원인의 해결이 어려우면 유아의 마음을 그 문제에 몰입하지 않도록 유아의 흥미를 다른 곳으로 유도하도록 함.

□ 적극적으로 듣기

- 유아가 말하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배려하며 유아의 의사표현 시 긍정적인 반응으로 격려하기
 - “그랬구나,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는데...”

다. 유의사항

□ 적절한 교사 개입의 수준 조절 필요

- 유아의 내향적 성향으로 인한 경우라면 과도한 교사의 노력이 유아에게 부담을 주어 유아를 더욱 위축 시킬 수 있으므로 적절한 완급의 조절을 요함.

□ 부모의 협력 지원 요청

- 부모의 언어 표현을 관찰하고 가정 환경적 요인으로 여겨지면 유아의 말 수 적응에 대해 부모와 논의가 필요할 수 있음.
- 부모의 언어적 표현이 제한적인 경우 자녀에게 적절한 언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부모의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함.
 - 부모와 유아가 역할을 나누어 동화 녹음해보기
 - 부모와 함께 녹음한 동화를 친구에게 들려주기

20. 사람들 앞에서 말하려 하지 않는 경우

가족들과는 말도 잘하지만, 낯선 사람이나 대중 앞에서는 말을 하려 하지 않는 경우

교사 : 우와~ 그걸 가지고 왔어. 그게 뭐야? 꽃이야? OO이가 한번 말해볼까?
해바라기

유아 : 얼굴이 빨개지면서 웃기만 한다.

교사 : 선생님이 도와줄게. 같이 말해볼까? 해바라기

유아 :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웃는다)
 교사 : OO이가 말해 주세요. 뭐예요?
 유아 : ...
 친구 : 야~ 말해. 해바라기~
 교사 : 친구들아 우리 같이 말해보자.
 친구 : 해바라기!
 교사 : OO이가 가지고 와서 친구들이 다 같이 볼 수 있었어요.
 OO아 고마워. 다음엔 OO이가 직접 이야기 해주면 좋겠다.

가. 원인 분석

- 유아의 내향적인 성향
 - 집에서는 수다쟁이처럼 말도 많고, 호기심도 많으나 유독 타인들 앞에서는 말하기 어려워하는 것은 대표적인 내향적 유아의 성향임.
- 유아가 지닌 높은 자의식
 - 부모들이 다른 사람 앞에서 자녀를 과시하려 한다거나 유아 스스로 자의식이 높아 타인 앞에서 잘하고 싶은 욕구가 큰 경우 즉각적인 표현이 적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참는 경향이 있어 타인 앞에서 말하기 힘들어 함.
- 유아의 사회성 결여로 인한 정신적 긴장감 또는 압박감
 - 가정에서 가족들 대화가 무리 없으나 가정이외의 곳에서는 긴장감이 높아 위축되는 경우는 가정에서는 유아가 곧 잘 떠들고 말하기 때문에 어린이집과 같은 기관에 들어오기 전에는 잘 드러나지 않던 부분임.
 - 유아 자신을 지나치게 배려해주는 어른들과 주로 생활해왔고, 또래와 사귀어 익숙하지 않아 다른 사람 앞에 설 때 유난히 긴장되어 말하기 힘들.
- 유아의 강한 자기중심적 성향
 - 가정이나 주위의 과보호 속에 주위의 관심이 유아 자신에게 모아져있던 상황을 즐기던 유아의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교사나 또래 친구들의 관심이 자신에게만 집중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함.

나. 지도 방법

- 유아가 위축되지 않도록 민감하게 반응해주기
 - 내성적 성격의 유아는 자기표현도 쉽지 않고, 타인의 반응에 마음이 상하게 쉬우므로 교사의 민감한 보살핌이 필요함.
 - 말하기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또래들의 놀림이나 말하기를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 등은 유아로 하여금 더욱 위축되게 하므로 세심한 배려가 요구됨.
- 사회성 증진 방법 모색하기
 - 일반적으로 어린이집에서 또래와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서서히 개선되어가는 경향을 보이므로 시간을 두고 서서히 살펴볼 수 있음.
 - 유아의 사회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도
 - 사교적이고 언어적 표현이 활발한 친구와 놀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점차 그런 관계 안에서 편안함을 경험하게 되면 긴장감이 줄어들고 관계형성과 유지에 말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이 필요함을 느끼게 됨.
- 과도한 관심을 배제하고 적절한 표현에 칭찬
 - 말하지 않는 행동이 또래 친구들과 교사의 주의를 끄는 행동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대함.
- 일상생활 속 기회를 이용하기
 - 말해야하는 상황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줌.
 - 언어전달이나, 간단한 심부름, 이야기 나누기 시간 등을 이용함.
- 점진적 시도
 - 교사 또는 단짝 친구와 둘이 이야기할 기회부터 시작하여 소집단에서 말하기, 대집단에서 말하기로, 또한 친숙한 집단 앞에서 시작하여 낯선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도록 점진적 발전을 도모하는 방법을 사용함.
 - 교사가 답답하다고 여겨 더 적극적으로 말하기를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아직 이야기할 준비가 안되었구나. 다음에 이야기 해주렴.”
 - “선생님은 ○○ 목소리가 듣고 싶네.”

다. 유의사항

□ 단시간에 급격한 변화 기대 자제하기

- 단시간에 고쳐 보려는 시도는 오히려 아동에게 더 심한 압박감을 줄 수도 있으므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님.
- 교사가 유아의 수줍어하고 말 못하는 행동을 다른 사람 앞에서 지적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이런 행동을 강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함.

21. 또래에 비해 말한 내용이 정리되지 않아 이해가 어려운 경우

유아의 말하는 내용이 정리되지 않아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는지 듣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교사 : (텃밭에 심은 식물들을 보며)우와~ 우리가 심은 토마토가 많이 자랐네. 우리 한번 따 볼까?

유아 1 : 와~ 좋아요, 선생님. 여기는 방울토마토가 한꺼번에 세 개씩 있어요.

교사 : 그렇구나, 색깔은 어때?

유아2 : 빨강계 변했어요.

유아3 : 선생님. 옛날에 나 토마토 먹었을 때 있었는데요... 엄마가 시장에 간다고 해서 고구마도 사고, ...근데 거기에 토마토도 있어서 다음에 사준다고 했구요, ...나중에 할머니 신발도 샀어요.

유아1 : 그게 무슨 말이야

유아2 : 방울토마토 먹어봤다고?

교사 : (유아3를 바라보며) ○○야, 엄마가 사주신 방울토마토 맛은 어땠어?

유아3 : 음...그냥요...나 엄마가 주말농장에 가서 밥 많이 먹었어요. 장화신고 모자도 쓰니까 좋았는데 옥수수 꺾가지고 먹고 있다가 거기 있는 아저씨가 동물 나온다고 그러다가 밤이 되었어요.

가. 원인 분석

- 유아의 집중력 결핍 또는 산만한 성격
 - 대화에 집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변자극에 쉽게 동요되어 자신이 말하는 도중에도 관심이 빠르게 전이됨.
 - 생각의 속도에 말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일 수도 있음.
- 유아의 자기중심적 성향
 -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관점에서 보이는 대로 이해하고 반응하는 자기중심적 성향으로 인해 타인의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키기 어려움.
- 유아의 논리적 이해능력 부족
 - 타인의 이야기나 동화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현재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이전 상황과 다음 상황에 대한 전후 문맥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생각을 발전시키는 능력이 필요함.
 - 이런 경우 타인과의 대화 내용의 전후 상황에 따른 논리적 흐름의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나. 지도 방법

- 집중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 제공하기
 - 다양한 말놀이 기회 마련하기
 - 하나의 주제로만 이야기하기
 - “지금부터는 ‘토마토’ 이야기만 해보자. 누구든지 ‘토마토’와 관련된 이야기만 할 수 있어요.”
- 천천히 다시 말해보도록 요구하기
 - 짧지만 하나의 문장을 끝까지 말하도록 하는 연습 기회를 만들어줌.
 - “그렇구나. OO가 어제 엄마와 시장에 갔었구나. 선생님께서 천천히 다시 말해줄래?”

- 유아로 하여금 자신의 일상에서 일어난 일이나 상황을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움.
 - “그렇구나. 언제 그랬는데?”
- 유아가 말 한 부분 중 이해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 질문하여 유아가 생각을 스스로 발전시키며 자신의 말 한 내용을 구성해가도록 함.
-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 제공하기
 - 자기중심성의 극복을 돕기 위해 동화나 역할극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역할을 바꾸어 생각하는 계기를 제공함.
 - “OO야, 토끼는 지금 어떤 마음일까?”
- 논리성 발달을 위한 놀이 제공하기
 - 유아의 논리성 발달을 돕기 위해 개발된 간단한 교구 등을 이용하여 이야기의 앞 뒤 상황을 이해하고 다음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놀이를 제공함.
 - 놀이 하면서 일어나는 상황과 예측되는 상황을 언어로 표현하도록 유도함.
 - “토끼가 걸어가면서 앞을 안보고 친구와 이야기하면서 가고 있네. OO야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 같아?”

다. 유의사항

- 지지적 자세로 기다리며 듣기
 - 교사는 유아가 문장을 다시 구성하여 천천히 말하도록 격려하고 기다려주며 경청함.
- 수용하고 이해하는 분위기 조성
 - 유아의 언어적 행동으로 인해 무안해지지 않도록 교사는 물론 또래들도 이해하고 수용하는 마음으로 들어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함.

22. 초보적 쓰기를 통한 표현 행동이 전혀 없는 경우

만 5세반에서 어버이날을 앞두고 부모님께 편기쓰기 활동을 진행 중이나 전혀 참여하지 않으려는 경우

교사 : 00야, 여기 00 이름 써볼까?

선생님이 적어 줄게 따라 써볼래?

유아 :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가버림)

가. 원인 분석

- 쓰기 표현으로 인한 부정적 경험
 - 유아의 쓰기 표현으로 인해 무안을 당하거나, 친구들의 놀림을 받는 등의 경험 인해 쓰기를 통한 표현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쓰기에 대한 흥미나 관심 부족
 - 쓰기에 대한 경험이 제한적인 환경에서 써보는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한 경우
- 활동적 성향으로 정적인 활동에 관심이 없는 경우
 - 지나치게 활동적인 유아는 책읽기나 쓰기 등의 정적인 활동에 흥미를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또래에 비해 소근육 발달과 협응력 발달이 미숙한 경우

나. 지도 방법

- 유아의 현재 수준에서 쓰기 격려하기
 - 쓰기발달 수준에 따라 끼적거리거나, 틀린 글자로 쓸 수 있으므로 그것이 유아의 현재 수준이라면 인정하고 수용해주기
 - 유아들로 하여금 또래 친구사이에 나타나는 서로 다른 수준의 쓰기 표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기

- 쓰기 표현에 대한 동기부여하기
 - 식당놀이 메뉴판이나 가게 놀이 간판처럼 유아의 생활 및 놀이에 기반한 쓰기 표현의 필요성 부각시키기
 - 편지 또는 그림편지, 우체국 놀이 등의 놀이 활동으로 쓰기를 지원함.
 - 다른 사람이 쓴 편지를 받아보는 활동을 통해 쓰기로 표현된 의사소통이나 감정의 전달을 경험함.
-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활동적 경험 제공하기
 - 바깥놀이 같이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가진 후 쓰기 표현 활동하기
- 다양한 방법으로 쓰기 표현 해보기
 - 물을 이용하여 쓰기, 자석과 철가루 쓰기, 자모 모형을 활용한 글자 구성 등 직접적이 쓰기 도구가 아닌 도구를 이용하여 쓰기 표현을 흥미롭게 접하게 함.
- 소근육 발달과 협응력 발달을 위한 활동 제공하기
 - 구슬 끼우기, 반죽밀어 자르기, 빨대 자르기, 끈 끼우기 등 손 근육을 섬세하게 사용하는 활동 제공함.

다. 유의사항

- 쓰기와 관련된 준비도 수준의 활동을 충분히 제공
 - 모양변별, 공간감, 방향, 좌우 대칭의 개념을 익히는 활동 기회를 마련함.
- 유아의 쓰기 발달 수준을 파악하여 현재 수준에서 지도하기
 - 끼적거리기, 부적절한 문자 표현, 좌우대칭 혼돈 등 쓰기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오류를 이해하고, 유아의 현재수준에서 쓰기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정확한 쓰기를 강요하지 않는 것이 좋음.

23. 다른 사람의 말을 집중하여 듣지 못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말하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집중하여 듣는 것이 어려운 경우

<사례 1>

교실에서 대집단활동으로 이야기 나누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아는 혼자서 드러누워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집중하여 듣지 않음.

<사례 2>

유아1: (모래놀이 상황) OO야 두꺼비집 만들자. 이렇게, 이렇게 내가 여기서 부터 뚫으니까 넌 그쪽부터와. 망가지지 않게 조심해서 뚫어야해.
그럼 만나자. 그렇지?

OO: ...

유아1: OO야 알았어?

OO: 뭐라고?

가. 원인 분석

- 몰입으로 인한 주위 상황 판단 어려움
 - 자신의 생각이나 어떤 일에 몰입하면 전혀 곁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에 관심을 두지 못함.
- 주의력 부족과 산만함.
 - 주의력이 산만하고 집중 시간이 짧아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하는 경우

나. 지도 방법

- 바르게 듣는 방법을 소개하고 격려하기
 - 타인의 말을 들을 때는 주의를 상대방에게 기울이고, 말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듣고 있음에 대해 적절한 반응을 하면서 들어야함을 유아에게 알려주기
 - 동화책 들려주기 및 이야기 나누기

- 교사가 유아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모델 되어주기
 - 유아와의 대화 시 유아의 눈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끄덕이거나 반응을 보이면서 경청하는 태도의 모델이 되어줌.
- 대화 시 집중하여 듣도록 지원하기
 - 산만하고 집중력이 약한 많은 경우에는 유아가 주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므로 유아의 눈을 보고 주의를 기울일 것을 언어 또는 행동으로 요청함.
 - “OO야 친구가 무슨 이야기를 하나 잘 들어볼까?”
 - 놀이와 게임을 이용하여 주의력을 기를 수 있도록 배려함.
 - 좀 더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유아가 대화 시 잘 듣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때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유아에게 표현함.
- 주의집중을 요하는 활동 경험 제공하기
 - 말할 때 ‘입술모양만 보고 알아맞히기’ 놀이
 - 길지 않은 이야기를 들려주며 특별한 단어가 나올 때 손뼉치기
 - “선생님이 동화책을 읽어주는 동안 ‘빨강이’라는 말이 나올 때 마다 박수를 치기로 할까?”
- 성급한 판단보다는 세심한 관찰을 통해 신중하게 판단하기
 - 산만하고 집중력이 약한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에 대해 의심할 수 있으나, 많은 경우에는 유아가 주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임.

다. 유의사항

- 감기나, 중이염으로 인한 일시적인 청력 이상은 교사의 세심한 관찰을 통해 발견될 수 있음.
- 청력 이상 또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를 가진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권유

- 청력의 손상 또는 이상으로 다른 사람의 말에 집중하지 못함.
-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를 가진 경우 의사소통 시 상대방의 말에 집중 못함.
- 대개의 경우 유아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나타나는 행동이나 또래에 비해 산만하고 주의집중시간이 짧다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를 의심해볼 수 있으므로 부모와의 상담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권유하여 볼 수 있음.

24. 말하기 순서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말만 하려는 경향이 심한 경우

말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다시 말하고 하는 일반적인 말하기의 순서를 기다리지 못하고 또래 유아가 말하는 상황에서 끼어들어 자기말만 하려고 하는 경우

교사 : 물놀이할 때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하는 지 이야기 해 볼까?
 유아 1 : (손을 들어 의사표현을 한 후)저요, 수영복을 입어야 해요.
 그리고. 갑자기 수영을 하면...
 유아 2 : 야, 그건 당연한 거고. 준비운동하고 물에 들어가야 해요.
 유아 1 : 야. 너 내가 말하는 데 왜 끼어들어.
 유아 2 : 뭐. 내가 먼저 말할려고 했는데.
 유아 3 : 선생님. 깊은 곳에서 수영하면...
 유아 2 : 깊은데서 수영하면 빠지죠. 어린이 풀에서 놀아야 해요.
 유아 3 : 내가 말하고 있었는데...

가. 원인 분석

- 대화 시 순서에 대한 이해부족
 - 대화를 할 때에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동안 듣고, 순서를 기다려 이야기해야하는 일반적인 대화의 규칙이 있음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

- 가족구성원 사이 유아의 말을 우선 시 들어주는 분위기
 - 가족 내에서는 유아의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우선으로 들어주는 경우 유아는 대화의 규칙에 대해 학습할 기회가 적고,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 대화 시 자기 말만 하려는 태도로 표현되기도 함.
- 유아의 강한 자기중심성
 - 걷기에 능숙해지고, 언어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며, 배변훈련이 이루어지는 만 2세를 전후하여 자기중심성이 가장 강한 특징을 보임. 그러나 유아는 이후 가족과 또래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서서히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배려하는 방법을 배워가게 됨.
 - 또래보다 자기중심성이 강한 유아의 경우 자기 의사를 표현함. 이러한 성향이 나타나 타인의 입장이나 말할 순서를 고려하지 못하고 자신의 말만하는 것임.

나. 지도 방법

- 대화 시 들어야 할 때와 말해야 할 때 분명히 하기
 - 모형 마이크를 이용하여 말하는 사람은 마이크를 들고 말하고 다음 말할 사람에게 넘겨주면, 다음 사람이 말하는 방법을 통해 대화 시 규칙을 익힘.
- 대화 시 교사가 말할 기회 요청하기
 - 유아가 말할 순서를 고려하지 못하고 자기말만 하는 상황에서 교사는 말할 순서에 대해 유아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기
 - “잠깐만, 지금은 선생님이 말할 차례란다. 기다려줄래?”
- 대화의 순서가 적절하지 않은 상황 경험하기
 - 교사가 자신의 말만하고 계속하는 역할을 하고 유아에게는 말할 기회를 잃은 역할을 경험하게 하고 느낌에 대해 이야기 나눔.
 - “선생님만 계속해서 말하고 00에게는 말도 못하게 했네. 00 마음이 어땠었니?”
 - 유아에게 ‘배려’와 ‘순서 지키기’에 대한 동화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자기말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불쾌한 경험을 줌을 유아 스스로 깨닫도록 도움.

다. 유의사항

□ 가정에서 부모의 지원요청

- 너무 허용적이고 유아 중심인 가정에서 유아의 자기중심성이 극복되기 어려우므로 자기말만 하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시에는 부모의 도움을 청함.

25. 유행어 및 비속어를 매우 빈번하게 사용하는 경우

어린이집에서 TV나 손위 형제자매들을 통해 배운 유행어를 사용하거나 욕이나 속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다른 친구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친구들이 모방하게 하는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례1>

교사 : 오늘 00놀이 해 본 친구 어떻게 놀이했는지 말해줄 수 있니?

유아 1 : 저요. 개~ 재미있었어요.

유아 2 : 그게 뭐야?

유아 1 : 야 그것도 모르냐? 헐~ 대박! 많이 재미있었다는 거지...

<사례 2>

유아 1 : 00야 테이프를 그렇게 많이 쓰면 어떡해?

선생님이 아껴쓰라고 했는데...

유아 2 : 재수 없어. 00년 꺼져. 난 필요하니까 쓰는 거야 넌 안 필요하니까 안 쓰는 거지(옆에 있는 다른 유아에게) 우리가자. 재랑 놀지마~

가. 원인 분석

□ 모방 후 표현

- 유행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어린이집에서 활동적이고 손위형제·자매 또는 손위 친구와 상호작용이 많은 아동에게 빈번하게 나타남. 유행어는 유행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임.

- 유행어와 비속어 사용 후 주위의 반응 즐기기
 - 아동이 유행어를 사용하는 것은 자신의 언어 표현에 민감하고 그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을 즐기는 것임. 우연히 알게 된 어휘와 그 사용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고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상황에 사용해보는 것임.
- 새로운 어휘의 확장
 - 주로 새로운 단어의 사용을 즐기고, 어휘의 확장이 활발한 만 4세~5세경 유행어와 비속어의 사용이 증가하기도 함.
- 유아의 주목받고 싶은 마음
 - 동생의 출생, 어린이집의 환경 변화, 이사 등 주위환경을 갑작스런 변화가 있을 때 유아는 자신의 존재를 주위 성인으로부터 더욱 확인받고자 비속어를 사용함.
- 분노의 표현으로 습관적인 비속어 사용
 - 비속어의 사용을 통해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습관화된 경우

나. 지도 방법

- 무관심한 태도 보이기
 - 유아가 유행어나 특히 비속어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교사나 또래의 반응을 즐기는 경우에 교사는 과하게 화를 내거나 놀라는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무관심하게 대하여 주면 유아가 흥미를 잃어 유행어나 비속어의 사용 빈도를 줄일 수 있음.
- 직접적인 금지 표현하기
 - 유아가 고의로 교사나 다른 유아의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의도를 가지고 비속어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당황하거나 놀라기보다는 단호하고 짧게 비속어 사용을 금지함.
 - “그런 말은 쓰면 안 돼.”
- 유아들이 알고 있는 비속어나 유행어 모아버리기
 - ‘우리가 알고 있는 나쁜 말’에 대해 반에서 유아들과 함께 생각하고, 사용하는 유행어, 비속어 등을 종이에 적고, 다시는 사용하지 않기로 다짐하면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활동을 진행함.

- 유행어를 대치하는 적절한 어휘 제공하기
 - 교사는 자연스럽게 아동이 사용한 유행어나 비속어에 대응하는 바른 표현을 찾아 정정하여 발문하여 줌.
 - 유아 : “개~ 재미있었어요.”
 - 교사 : “정말 재미있었구나.”

다. 유의사항

- 초기 대응 필요성
 - 유행어나 비속어의 사용은 자칫 습관화되기 쉬우므로 사용 시점에 즉시 단호하게 좋지 않은 표현임을 알려주는 것이 좋음
- 유행어나 비속어 습득 가능한 매체이용 피하거나 줄이기
 - 유행어나 비속어를 습득하게 되는 경로인 TV나 스마트폰 등의 이용을 줄이고, 가능하면 부모가 자녀와 함께 보도록 알리기

26. 불필요한 말대꾸를 하거나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

교사나 부모와의 대화에서 말대꾸나 부정적인 표현으로 교사나 부모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경우

교사 : (대집단 활동 중 나이테를 설명하면서) 나무도 우리처럼 나이를 먹어요.

유아1 : 난 그런 거 안 먹어요. 야 넌 먹냐?

유아2 : (동조하면서) 나도 안먹어요.

교사: (간식 후 정리하면서) ○○야, 식판 정리하자.

유아1: 선생님이나 잘 하세요.

가. 원인 분석

주도성 발달의 왜곡된 표현

- 유아의 주도성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주변을 통제하고 싶은 욕구로 인해 성인에게 말대꾸라든지 부정적 언어 표현이 나타나기도 함.

또래, TV·영화, 성인 행동의 모방

- 유아기는 자신이 경험을 통해 직접 학습하기도 하지만 타인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리학습이 가능함.
- 유아는 교사에게 말대꾸하는 또래가 유능해 보일 수도 있고, TV나 일상생활 중 부정적 언어 표현이 멋지게 느껴지기도 하여 모방행동이 나타남.
- 순위 형제자매나 부모의 부정적 언어사용을 모방하는 경우

부적절한 분노의 표현

- 유아가 자신이 화가 났음을 말대꾸나 부정적 언어로 표현하는 경우임.

나. 지도 방법

주도성을 긍정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하기

- 유아에게 주도성을 발휘할 다른 기회를 제공하고 그 성공 경험을 토대로 말대꾸나 부정적 표현이 아닌 건전한 방법을 터득하게 함.
- 당번활동, 동식물 돌보기 등 유아가 자기주도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수행할 수 있는 활동하기

말대꾸나 부정적 반응을 자제할 때 격려하고 지지하기

- 평소 말대꾸가 빈번하던 유아가 말대꾸하지 않는 경우에 그 상황에서 바로 칭찬하고 격려함.
 - “선생님은 ○○이가 이렇게 예의 바르게 있으니 너무 좋단다.”
 - “○○이가 지금 말대꾸를 하지 않았구나. ○○이가 정말 노력하고 있구나.”

말대꾸 당하는 입장에서 감정 표현하기

- 교사가 느끼는 감정을 유아에게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 “선생님은 ○○이가 그렇게 말하니 마음이 많이 아프네.”
- 유아에게 사과 요구하기
 - 말대꾸한 행동에 대해 유아의 사과를 요구할 수도 있음. 거듭되는 경우에는 언어적인 사과 표현이나 사과편지(그림 편지) 등을 요구함.
- 역할극이나 동화를 통해 상대방의 기분 느껴보기
 - 말대꾸를 당하는 상황, 부정적 표현을 당하는 상황을 경험하는 역할극하기
 - “○○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니?”
- ‘말대꾸 안하기’ 규칙 정하고 지키기
 - 존중하고 존중받는 관계가 중요함과 유아들도 교사로부터 존중받고 있음을 설명하고 교실 안에서 ‘말대꾸 안하기’를 규칙으로 함께 정하는 것임.
 - “우리 반에서는 서로 서로 존중합니다. 우리는 어른들께 말대꾸하지 않습니다.”

다. 유의사항

- 감정적 대응 자제하기
 - 유아들의 말대꾸나 부정적 언어표현은 교사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 쉬우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침착하게 반응함.
- 지속해서 일관성 있게 대응하기
 - 반복적인 유아의 말대꾸와 부정적 표현이 계속되는 경우에 교사도 꾸준히 지도하여 일관성 있게 대응해야 함.
- 가정에서의 협력요청
 - 말대꾸가 습관화 되지 않으려면 가정과의 연계지도가 필요하므로 가정의 언어 사용 습관에 대해 점검함.
 - 유아가 바람직하게 TV 시청을 할 수 있도록 부모가 함께 시청 할 것을 권유함.

27. 또래에 비해 책에 대한 관심이 매우 저조한 경우

다른 활동에는 잘 참여하나 책에 대한 관심이 매우 적어 새로운 동화책을 제시하여도 흥미나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우

교사 : OO, 선생님과 동화책 읽을까?

유아 : 아니요. 난 블록놀이 할래요.

교사 : 오늘은 선생님이 OO에게 보여주려고 공룡책 가져왔는데...

유아 : 난 책보는 건 별로예요.

가. 원인 분석

- 책과 관련된 부적절한 환경
 - 책에 대한 친근감 형성 및 기회 부족
 - 영아 시기부터 가정에서 부모와의 책읽기 경험이 부족한 경우 책 자체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수 있음.
 - 책을 통한 즐거움을 느껴 볼 수 있었던 기회 부족
 - 유아의 발달 수준에 맞지 않는 어려운 책을 제공 받음.
- TV나 컴퓨터 같은 강한 자극의 일상화
 - TV나 컴퓨터 같은 영상과 빠른 속도에 익숙해진 유아의 경우 책을 통한 이야기의 전달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음.

나. 지도 방법

- 유아의 관심분야와 책 연결해 주기
 -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느끼는 즐거움을 책으로 전이시키는 방법으로 동물에 관심이 있는 경우 동물에 대한 책을 제공해 줌.
- 규칙적 책읽기 시간 계획하기

- 반 전체가 함께 책 읽는 시간을 정하는 방법으로 유아들이 서로 좋아하는 동화책을 가져오고 좋아하는 이유나 그 내용을 친구들 앞에서 소개해도 좋음.
- 간식 시간 후에는 책보는 시간으로 정하는 등 책 읽는 시간을 정함.

또래와 짝지어 책보기

- '단짝과의 하루'처럼 공동으로 유아들이 2인 1조로 자유 활동을 하는 날을 정함. 책에 대해 관심이 저조한 유아와 책을 좋아하는 또래 친구와 함께 활동하여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임.

개인차를 고려하여 수준에 맞는 적절한 책 제공하기

- 긴 페이지나 문장이 많은 책을 어려워하는 경우에는 짧은 문장의 책을 선택함.

다. 유의사항

지속적으로 꾸준히 지도하여 습관이 되게 하기

- 책에 대한 관심과 즐거움이 책 읽는 습관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지도함이 중요함.

매력적이고 풍부한 책 읽는 환경 제공하기

- 부모와 유아가 책보는 장소 함께 꾸미기
 - 밝고 조용한 장소에 안락한 의자, 동화책 상자 등을 두어 책 읽는 공간을 마련함.
- 도서관이나 서점에 방문하는 기회를 마련함.
- 시간을 정해 가족이 함께 책보기

지나치게 강요하지 않기

- 지나치게 의도적으로 책과 친해지도록 접근하면 유아가 오히려 반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적절한 수준으로 시도하기

28. 또래에 비해 쓰기를 위한 도구 사용에 관심이 없거나 도구 사용이 매우 미숙한 경우

그리고 쓰는 도구(색연필 등)에 관심이 없거나 손에 쥐려고도 하지 않고, 또래에 비해 도구 사용방법을 잘 모르거나 미숙한 경우

교사 : 여기 그림자 글씨로 뭐라고 쓰여 있는 것 같니?

유아 : 음..(그림을 보고) 사과!

교사 : 그림 사과라고 써볼까?

유아 : (마카를 주먹으로 쥐고 그림자 글씨 위에 손을 올리고 가만히 있다.

마카로 “ㅅ”을 쓰다가 그림자 글씨에 색칠하듯 낙서한 후 다른 영역으로 간다.)

가. 원인 분석

또래에 비해 쓰기를 위한 기초 기술 부족

- 손의 움직임을 보며 파악하고 의도한 대로 움직이는 눈과 손의 협응 과정, 손가락 소근육 통제 능력(small motor skill), 손가락을 이용하여 잡는 동작, 적절한 힘으로 쥐는 힘의 안배, 쓰기 도구를 잡는 바른 자세 등에 어려움이 있음.

나. 지도 방법

소근육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활동 제공하기

- 직접적인 쓰기 이전에 소근육을 충분히 사용해 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함.
 - 소근육 발달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블록, 구슬 끼우기, 반죽 자르기, 정해진 선 따라 가위로 자르기 등의 활동 제공하기
- 유아가 흥미를 보이지 않을 경우 활동으로 안내하기
 - “OO야, 함께 해볼까?”

□ 다양한 쓰기 도구 제공하기

- 쓰기 도구자체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여 자연스럽게 도구사용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도구를 변화 있게 제공함.
- 굵기가 다른 색연필, 모양이 재미난 필기도구, 칠판과 백묵, 자석 노트 등을 이용하여 쓰기도구에 변화를 줌.
- 흰색, 사각형의 8절지 크기에서 벗어나, 크기, 모양, 색 등에 변화를 준 종이 제공하기

□ 쓰기도구 사용에 대한 바른 모델 제공하기

- 힘의 안배, 적절한 높이에서 도구잡기, 체중 신지 않고 쓰기도구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바른 자세를 보여줌.
- 잡는 위치와 자세를 익히도록 디자인된 연필에 끼우는 고무깍지 같이 쓰기도구를 바르게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시판되는 도구 활용하기

다. 유의사항

□ 유아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적절한 쓰기도구 제공하기

- 소근육 발달이나 도구의 사용기술이 또래에 비해 부족한 경우 일수록 쓰기도구의 길이가 짧고 심이 얇은 것부터 점진적으로 제공하도록 함.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12).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 권도하(2000). 언어치료-음성장애/언어발달/뇌성마비. 서울: 한국언어치료학회.
- 김수진·신지영(2007). 조음음운장애. 서울: 시그마프레스.
- 김영태(2003). 아동언어장애의 진단 및 치료. 서울: 학지사.
- 김재은(2002). 유아 문제 행동의 특징과 지도 방법 : 유치원 교사들을 위한. 서울: 국민서관.
- 박정옥·김태인(2013). 아동생활지도. 서울: 양서원
- 보건복지부(2013).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교사용 지침서.
- 서명원(2010). 영유아 생활지도 : 영유아 부적응 행동지도 중심으로. 서울: 양서원.
- 신의진(2011). 신의진의 아이심리백과 0-2세편, 0-2세 부모가 꼭 알아야 할 아이 성장에 관한 모든 것. 서울: 걷는나무.
- 신의진(2012). 신의진의 아이심리백과 3-4세편, 3-4세 부모가 꼭 알아야 할 아이 성장에 관한 모든 것. 서울: 걷는나무.
- 신혜영 (2013). 아동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상담. 서울: 파란마음.
- 이소은·이완정·성미영·권기남(2013). 아동생활지도. 서울: 교문사.
- 이영자(2013). 유아언어발달과 지도-제 3판. 서울: 양서원.
- 이지현·마송희·김수영·정정희(2009). 영유아를 위한 언어교육. 서울: 공동체.
- 임경옥·이병인(2010). 장애 영유아 발달 영역별 지침서 1 : 인지. 서울: 학지사.
- 임경옥·이병인(2010). 장애 영유아 발달 영역별 지침서 2 : 수용 언어편. 서울: 학지사.
- 임경옥·이병인(2010). 장애 영유아 발달 영역별 지침서 3 : 표현 언어편. 서울: 학지사.
- 조윤주·최일선(2013).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유아 생활지도. 서울: 창지사.
- 한유미·김혜선·권희경·양연숙·박수진(2006). 영유아언어교육의 이해. 서울: 학지사.
- 홍연숙(2006). 영유아 생활지도. 서울: 공동체.

Dennis M. R.(2011). 아동의 조음음운장애 치료. [Treating Articulation and Phonological Disorders in Children] . (김수진·한진순·박상희 역). 서울: 박학사.(원본 발간일 2008년).

Erika, H. (2006). 언어발달. [Language Development] . (이형진·박영신·김혜리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원본 발간일 2005년).

Robert E. Owens, Jr.(2007). 언어발달. [Language Dvelopment : An Introduction] . (이승복·이희란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본 발간일 2005년).

부 록

부록 1. 영아언어발달지표

○ 조음음운발달

구분	시기	내용				
용알이시기	0-1세	-발성단계(0-1개월) -쿠잉단계(2-3개월) -확장단계(4-6개월) -반복적 용알이단계(6-8개월) -음절성 발음단계(9-12개월)				
초기음운발달	1-2세	자신이 낼 수 있는 소리로만 말하면서 줄여서 말하는 특징이 있음 (음절축약) 컴마(큰엄마), 아찌(아저씨), 합니(할머니)				
후기음운발달	2-7세	-자음발달				
		음소발달단계				
		연령	완전습득연령 95-100%	숙달연령 75-94%	관습적연령 50-74%	출현연령 25-49%
		2세	표,ㅁ,ㅇ	ㅂ,ㅃ,ㄴ,ㄷ, ㄷㅌㅌ ㄱㅌ, ㅋ,ㅎ	ㅈ,ㅉ,ㅊ	ㅅ,ㅆ
		3세	ㅂ,ㅃ,ㄷ,ㅌ	ㅈ,ㅉ,ㅊ,ㅆ	ㅅ	
		4세	ㄷ, ㄱ, ㄷ	ㅅ		
		5세	ㄱ, ㅋ, ㅈ, ㅉ			
6세	ㅅ					
		-명료도발달 1세 : 25%/2세 : 50%/3세 : 75%/4세 : 100%				

○ 언어이해력 발달

구분	시기	내용
말소리 변별기	0-10개월	·말소리 구분 자신에게 말을 거는 사람에 열중하며 반응함 ·억양 및 강세 구분 말소리의 높낮이, 강세 등 다양한 변화가 있는 말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함 ·목소리 변별 소리 중 사람의 목소리에 탐색적이며 특히 엄마(돌보는 사람)목 소리를 구분하여 선호함 ·억양패턴 변별 단어사용 시 억양에 따른 소리 패턴으로 단어 간 경계를 구분하여 이해함(까까 먹자, 까까 맛있니?)

어휘-의미 이해기	10-30개월	·몸짓, 표정, 시선 등 비언어적 단서에 의한 의미이해 ·상황적 단서를 통한 의미 이해 ·상황 및 준 언어적 단서(억양, 강세)에 의한 의미 이해 ·상황 및 준 언어적 단서에 대한 의존 없는 의미 이해
구문-문법적 이해기	30-36개월	·문법형태소(조사, 어미), 구문구조(수동, 능동), 낱말 배열순서(주어+목적어+술어)에 대한 이해

○언어표현력 발달

구분	시기	내용
음성 발달기	0-10개월	·울음 영아의 울음에는 원인과 의미를 담고있어 요구와 느낌을 소통하는 수단으로 기능함 ·가성적 울음 생후 3주경 발성이 나타나면서 울음과 유사하나 울음과는 구분되는 소리를 냄 ·쿠잉 순환적 형태의 개별적 소리를 내는 음성화로 상대와의 상호 교환적 발성도 나타남 아---아, 오---오, 어---어 ·옹알이 생후 7-8개월경 혀와 입술이 발달되면서 자음과 모음이 혼합된 음성적 행동이 나타남 마마마마마마, 다다다다다 ·성인이 한 말 모방하기 10개월경 성인의 말소리를 이해하진 못하지만 의식적으로 모방하는 행동이 나타남
첫 낱말 발화기	10-16개월	·첫 단어 말하기가 나타나면서 실제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함 ·단어의 발음이 불 분명하고 단어의 의미를 성인과 다르게 사용하기도 함
어휘 폭발기	16-24개월	·어휘가 급증하는 시기로 18개월경 습득 어휘가 20단어 내외 이던 것이 2세경에는 200내지 500단어 정도의 어휘를 습득함

부록 2. 포테이지 아동발달지침-언어영역

0~1세

- 1 다른사람의 소리를 반복한다.
- 2 같은 음절을 2~3번 반복한다(마, 마, 마).
- 3 몸짓에 몸짓으로 반응한다.
- 4 몸짓이 함께 수반될 때 간단한 지시를 수행한다.
- 5 "안돼."라고 말했을 때 적어도 75%정도 행동을 멈춘다.
- 6 간단한 질문에 비언어적 반응으로 대답한다.
- 7 2개의 서로 다른 음절들을 말한다.
- 8 타인의 음성 억양을 모방한다.
- 9 물건 혹은 사람에게 명칭을 붙이는데 의미 있게 한 단어를 사용한다.

1~2세

- 10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한 반응으로 소리를 낸다.
- 11 5개의 다른 단어들을 말한다(다른 물건들을 의미하는 같은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다)
- 12 "(조금) 더."를 요구한다.
- 13 "(하나도) 없다." 라고 말한다.
- 14 3개의 다른 언어 지시에 따라 한번에 하나씩 수행한다.
- 15 시키면 "주세요" 혹은 "보여 주세요."라고 한다.
- 16 이름을 말해 줄 때 12개의 친숙한 물건들을 가리킨다.
- 17 이름을 말해 줄 때 책에서 3~5개의 그림을 가리킨다.
- 18 자신의 신체 3부분을 가리킨다.
- 19 요구할 때에 자신의 이름 혹은 별명을 말한다.
- 20 "이것이 무엇이니?"라는 질문에 물건 이름으로 대답한다.
- 21 자신의 필요가 알려지도록 몸짓과 말을 함께 사용한다.
- 22 애완동물을 포함해서 5명의 다른 가족들의 이름을 말한다.
- 23 4가지 장난감 이름을 말한다.
- 24 동물 소리를 내거나 동물 이름 대신에 그 소리를 사용한다.
- 25 일상적인 음식물 몇 가지를 보여 줄 때 이름으로 요구한다.
- 26 단어나 구의 끝에서 억양을 높임으로써 질문을 한다.
- 27 인형 혹은 다른 사람의 신체 3부위 이름을 말한다.

2~3세

- 28 긍정 혹은 부정의 질문에 '예/아니오'로 대답한다.
- 29 두 단어(공, 의자, 내 공)에서 명사 혹은 형용사와 명사를 연결하여 말한다.
- 30 두 단어(아빠 가)에서 명사와 동사를 연결하여 말한다.
- 31 화장실에서 사용되는 단어를 사용한다.
- 32 2단어 표현(여기 의자)에서 '여기' '저기'와 동사 혹은 명사를 연결하여 말한다.
- 33 소유를 표현하기 위해서 두 단어를 연결하여 말한다(아빠 차).
- 34 '없다/아니다'를 사용하여 말한다.
- 35 일상적인 활동에 대해서 "~을 하고 있니?"라는 질문에 대답한다.
- 36 "어디에?"라는 질문에 대답한다.
- 37 아동에게 친숙한 소리를 구별하여 말한다.
- 38 복수형으로 말했을 때 하나 이상의 물건을 준다.
- 39 아동이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을 칭하여 말한다.

2~3세

- 40 물건의 용도가 설명될 때 물건의 그림을 가리킨다.
- 41 나이를 말하기 위해 손가락을 사용한다.
- 42 질문할 때 자신의 성별을 말한다.
- 43 관련된 두 가지 지시를 수행한다.
- 44 "~하는 중이다."의 동사 형태로 말한다.
- 45 복수형으로(책/책들) 말한다.
- 46 "이것이 무엇이지?"라고 질문한다.
- 47 음성 크기를 90% 조절한다.
- 48 '이것' '저것' 을 사용하여 말한다.
- 49 '~이다'를 사용하여("이것은 공이다.") 말한다.
- 50 자신의 이름보다는 '나/나를/내 것'으로 말한다.
- 51 물건을 지적하면서 "~가 아니다."라고 말한다.
- 52 '누구'라는 질문에 이름으로 대답한다.
- 53 명사들의 소유격 형태(아빠의)를 사용하여 말한다.
- 54 몇몇 종류의 명칭을 사용한다.
- 55 가끔 '~할 수 있다' 혹은 '~할 것이다'를 말한다.
- 56 '열렸다' 혹은 '닫혔다'로 표현한다.

3~4세

- 57 의문문 끝에 '~이니?'를 붙여 말한다.
- 58 이야기를 읽어 주는 동안 5분 정도 주의를 기울인다.
- 59 관련 없는 두 가지 지시를 수행한다.
- 60 질문하면 완전한 이름(성 포함)으로 대답한다.
- 61 "어떻게?"라는 간단한 질문에 대답한다.
- 62 과거 형태를 사용하여 말한다.
- 63 바로 전에 경험한 일들을 이야기한다.
- 64 친숙한 물건들이 사용되는 방법을 말한다.
- 65 '하려고 한다/해야 한다/하고 싶다'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표현한다.
- 66 일어난 순서대로 두 가지 사건을 말한다.

4~5세

- 67 일련의 세 가지 지시들을 수행한다.
- 68 수동문에 대한 이해를 보인다(남자/여자 아이가 남자 아이한테 맞았다.)
- 69 요구할 때 물건들/그림들의 쌍을 찾을 수 있다.
- 70 말에서 '할 수 있을 텐데/할 텐데'를 사용한다.
- 71 복합문을 사용한다(내가 공을 쳤는데 길거리에 떨어졌다.)
- 72 요구에 따라 물건의 위와 아래를 찾을 수 있다.
- 73 그림에서 불합리한 점들을 지적할 수 있다.
- 74 '언니(누나)/형(오빠)/동생/할머니/할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 75 비교되는 문장을 제시할 때 반대말을 말한다.
- 76 도움이 되는 그림 없이 친숙한 이야기를 말한다.
- 77 특정한 종류에 속하지 않은 그림의 이름을 말한다.
- 78 2단어의 끝소리가 같은지 다른지를 말한다.
- 79 복문을 사용한다(~때문에 엄마가 나더러 들어오라고 하셨어.).
- 80 소리가 큰지 혹은 작은지를 말할 수 있다.

5~6세

- 81 '조금/많이/여러 개'를 가리킬 수 있다.
- 82 주소를 말한다.
- 83 전화번호를 말한다.
- 84 '가장 많은/가장 적은/조금'을 가리킬 수 있다.
- 85 간단한 농담을 말한다.
- 86 매일의 경험을 말한다.
- 87 '통해서, 멀리/~로부터/~로/~위로' 등을 사용해서 위치 혹은 움직임을 묘사한다.
- 88 "왜?"라는 질문에 이유를 설명한다.
- 89 3~5가지 부분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한데 맞추고 이야기한다.
- 90 단어들을 정의한다.
- 91 '~의 반대'를 말할 수 있다.
- 92 "만약 ~ (계란을 떨어뜨린다)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는 질문에 대답한다.
- 93 어제와 오늘을 의미있게 사용한다.
- 94 새로운 혹은 낯선 단어들의 의미를 묻는다.

제 7부. 각 론 : 인지발달영역

I. 「인지발달영역」 문제행동지도

1. 인지발달영역 문제행동의 이해

□ 발달에 대한 기본 이해¹⁶⁾

- 유전과 환경 모두가 발달에 영향을 미침
 - － 인생 초기의 양육의 질은 인간의 발달, 학습능력, 정서조절능력에 결정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줌
- 문화맥락은 발달과 양육신념 및 실제에 영향을 미침.
 - － 영유아는 가족과 사회맥락 안에서 상호작용하므로 자신이 속한 문화배경은 영유아의 발달 및 양육환경에 영향을 미침
- 자기 조절 능력은 발달의 중요지표 중 하나임
 - － 자기 조절 능력은 영유아가 과제에 집중하도록 하고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의 반응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며 긍정적인 방식으로 정서를 조절하도록 함
- 영유아는 적극적으로 탐색하면서 자신의 발달에 능동적으로 기여함
 - － 특히 영아는 기회가 제공될 때 최상의 학습을 하고 성인과 함께 상호작용할 때 흥미를 유지하며 탐색할 수 있음
- 환경과의 상호작용은 건강한 발달의 토대를 이룸
 - － 영아의 초기 학습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관계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임 이러한 관계능력은 이후의 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침
- 발달에는 개인차가 존재함
 - － 발달의 속도, 성향, 기질 등에는 개인차가 있음을 시사함
- 발달은 연속적이기도 하고 비연속적이기도 함

16) (Shonkoff & Phillips, 2000: pp. 23-32, 이승연 외 역 영아발달과 반응적 교육-관계 중심 접근법- pp. 35 재인용)을 토대로 수정 정리함

- 발달은 경험의 누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질적인 변화에 의해 비연속적으로 나타나기도 함
- 영유아는 상처받기도 쉬우나 원상회복력(탄력성)도 높음
 - 영유아는 적극적으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으므로 취약한 여건에 처했을 때 상처를 받기도 하나, 적절한 조기중재에 의한 원상회복능력 또한 빠를 수 있음
- 영유아의 초기경험이 중요하며, 이후로도 변화가능 함
 - 초기 경험에서 발달은 위한 민감기가 중요하며 교사가 지속적으로 새롭고 유용한 학습을 지원할 경우 발달이 변화가능 함
- 조기 중재는 효과적임
 - 발달 지연이나 문제행동은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질 경우 효과를 볼 수 있음
- 인지발달에 대한 이해
 - 인지발달영역은 생의 초기부터 진행되는 과정으로 신체발달, 사회정서발달, 언어발달 영역과 상호관련성을 가지고 있음
 - 특히 영아시기에는 발달 영역을 구분하여 문제행동으로 인식하는 것에 신중해야함
 - 교사의 통합적인 이해와 발달 지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인지발달영역과 관련된 문제는 발달의 시기와 개인차에 대한 고려를 하여 접근해야 함
 - 영유아 시기는 발달하고 있는 과정이므로 발달지연으로 나타나는 경우라면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변화과정을 추적할 필요가 있음
 - 개인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지관련 문제행동을 접근하도록 함
 - 영아기와 유아기의 인지발달과 학습의 과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대상영속성' 개념은 사람이나 사물이 보이지 않더라도 계속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임 또한 부분과 전체에 대한 이해에 기초가 됨
 -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기 위한 놀이감이나 개인 간의 경험이 중요함

- '도구의 사용' 은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배우게 됨
- '공간의 사용' 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사람은 예측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간을 움직이고 사람의 몸은 전체로서 존재하며 원근에 기초한 이해를 함
- '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영유아는 생의 초기부터 수에 대한 인식이 가능함 이는 환경 간의 관계 속에서 기억에 기초한 발달이 이루어짐
- Piaget의 인지발달이론에서 영아와 유아의 발달은 영유아와 환경 간의 동화와 조절을 통한 상호작용과정에서 평형화를 거친다고 보았음
 - 영유아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하여 성인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인식을 함
 - 영아기의 인지발달은 감각운동기에 해당하며 환경을 만져보고 조작해보면서 인지발달이 이루어짐
 - 유아기의 인지발달은 전조작기에 해당하며 논리적인 연계를 통해 환경과 상호작용 하기보다 눈으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인지적 오류를 범하기 쉬움 자기중심성, 상징성, 전환적 사고, 인공적 사고 등의 특징을 지님
 - 영유아기의 인지발달에서는 구체적 조작기를 통해 서열화, 보존개념, 유목화 등을 획득해 감
- Bandura의 사회학습이론에 기초하여 성인에 대한 모델링과 영유아에 대한 모방능력은 문화전달을 위한 세대 간의 중요한 학습이 이루어짐
- Vygotsky의 사회적 상호작용이론에 기초한 비계설정은 성인이 영유아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임
 - 영유아의 근접발달지대의 이해를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이 일어나기 위한 비계설정은 교사역할에서 중요함
- 마음이론은 영유아가 생각, 신념, 감정, 욕구에 대하여 발달시키는 인식과 이해의 과정을 의미함
 - 마음이론에서 마음과 행동 간의 연결은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함

2. 인지발달영역 문제행동 사례목록

- 자극과 반응, 사람과 사물 인식과 대상영속성, 모방행동 및 표상행동, 대물인지, 기억행동, 주의력, 표상행동 및 예측행동(가상놀이), 분류, 문제 해결력, 이해력 등 이상의 10가지 유형, 총 27가지 사례로 구분됨.
- 영아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극과 반응, 사람과 사물인식과 대상영속성, 모방행동 및 표상행동 관련 문제행동을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그 외 문제행동은 유아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행동에 해당함.

〈표 1-2-1〉 인지발달영역 문제행동 사례목록

구분	번호	행동 목록	유형
영아반	1	- 성인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경우	A. 자극과 반응
	2	- 물건을 보여주거나 소리를 들려주어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	
	3	- 낯선 사람에게 쉽게 안기고 따라가려는 경우	
	4	- '까꿍' 하면 고개를 돌리는 경우	
	5	- 새로운 사물이나 놀이감을 제시해도 관심 없거나 피하는 경우	B. 사람과 사물 인식과 대상영속성
	6	- 대상영속성이 생길 연령에서 놀이감이 사라져도 찾지 않는 경우	
	7	- 팔 다리(또는 소리)를 이용한 간단한 동작을 모방하지 않는 경우	C. 모방행동 및 표상행동
	8	- 영아에게 물건이나 놀이감을 손에 쥐어주기 전에는 탐색하지 않는 경우	
	9	- 토래와 비교하여 지연모방이나 상징놀이를 하지 못하는 경우	
	10	- 교사나 토래의 놀이행동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우	
	11	- 끼적거리기 단계가 변화되지 않는 경우	
유아반	12	- 익숙한 모양(동그라미, 세모, 네모)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	D. 대물인지
	13	- 토래와 비교해서 수저나 가위처럼 일상생활용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14	- 촉각으로 물건을 구분하여 알아맞히지 못하는 경우	
	15	- 간단한 동화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E. 기억행동
	16	- 소개된 활동의 순서를 몰라 망설이는 경우	
	17	- 환경의 변화를 알아보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F. 주의력
	18	- 질문하는 맥락에 관계없이 대답하는 경우	
	19	- 주의집중하지 못하고 행동이 산만한 경우	
	20	- 동화를 들을 때 동화내용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	

(표 I-2-1 계속)

구분	번호	행동 목록	유형
유아 반	21	- 간단한 지시를 따라하지 못하는 경우	G. 표상행동 및 예측행동 (가상놀이)
	22	- 역할놀이 때 정해진 역할을 표현하지 못하고, 단순한 행동을 반복하는 경우	
	23	- 놀이감을 정리할 때 뒤섞어서 정리하거나 다른 영역에 정리하는 경우	H. 분류
	24	- 자신의 물건과 남의 물건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주 바뀌가는 경우	
	25	- 또래와 비교하여 수세기를 못하는 경우	
	26	- 자기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여 토론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I. 문제 해결력
	27	- 이야기의 내용을 순서대로 회상하지 못하거나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	J. 이해력

3. 인지발달영역 교사 지도 방안

지도방안의 중점사항

- 영유아의 인지관련 어려운 행동에 대한 교사의 지도방안은 교사가 자신의 학급의 다른 또래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려움을 지닌 영유아를 개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두어 서술하고자 함
- 교사는 영유아시기의 발달지표를 숙지하고 있다가 영유아를 관찰할 때 활용하도록 하며,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영유아에게 발달지연이 나타나고 있는지 또는 발달의 문제가 관찰되는지 유의하여 살피도록 함
- 영유아의 인지발달에서 어려운 행동을 판단할 때에는 자신의 또래의 발달 수준과 비교하고, 발달지표에 나타난 수준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 영유아가 인지관련 어려움을 나타낼 때 교사가 학급에서 보다 중점을 두어 제공할 수 있는 아래에 제시하였음

적절한 발달지원을 위한 교육적 자극을 제공하기

- 교사는 영유아가 최적의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나 자칫 과도한 자극을 제공하지 않도록 유의함

- 영유아기는 자신의 발달속도에 따라 능동적으로 발달해 나가는 시기이자 개인마다 발달속도에 차이가 나타나는 시기임 이 때 교사가 지나치게 자극을 제공하거나 교사 중심의 상호작용을 시도할 경우 스트레스 유발의 원인이 됨
- 인지발달에 적합한 준비된 환경제공하기
 - 영유아가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찰을 통해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 감각 자극을 지원할 수 있는 탐색 놀이감 또는 운동능력을 증진할 수 있는 대근육 및 조작 놀이감 구성이 요구됨
 -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조성이 되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가 요구됨
 - 영아가 성장하고 발달해감에 따라 환경변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
- 발달을 적절하게 지원하기 위한 관찰하기
 - 영유아마다 관심을 두는 상황, 놀이감, 활동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교사는 각 영유아의 행동을 관찰하다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을 기록해 두도록 함
 - 영유아마다 발달의 속도가 다르므로 적절한 발달의 이정표를 관찰해 두는 것이 중요함
 - 발달지표를 기준으로 발달상 지연이 지속될 경우 조기 개입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발달지연은 아니더라도 영유아가 본인의 속도에 따라 발달해 나가고 있는지 주의깊은 관찰이 필요함
- 감각적 자료를 통한 탐색행동을 지원하기 위한 언어 또는 비언어적으로 상호작용하기
 - 영유아의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해 영유아의 행동을 관찰하며 적절한 시기에 언어 비언어적으로 제안하기를 활용함
 - 영유아가 관심을 보이는 상황, 놀이감, 활동 등을 눈여겨 보아두었다가 탐색할 수 있도록 언어 비언어적으로 상호작용함
- 영유아의 발달을 증진할 수 있는 비계설정하기
 - 영유아의 행동 관찰을 통해 비계설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자신의 지원 계획을 수립함

- 영유아가 흥미를 유지하되 좌절되지 않는 수준의 자료를 제공하여 성취동기를 지원함 이때 적절한 상호작용 행동을 수반하는 것이 필요함
- 일관된 하루일과 유지하기
 - 영유아기는 생활과 밀접한 경험을 통해 기억하기 및 예측하기가 가능하도록 하루일과를 일관성있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 분류, 비교 등 인지개념의 기초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제공하기
 - 인지발달 과정에서 구분하는 행동은 인지개념의 기초를 이루므로 생활 속에서 간단한 기준으로 분류하기, 비교하기 등의 경험이 이루어지도록 기회를 제공함
 - 대상영속성, 원인과 결과의 이해, 공간의 이해, 도구의 사용 등 영유아의 발달의 이정표시기를 파악한 후 영유아를 관찰하다가 이정표 시기가 되었을 때 또는 지연이 발생하였을 때 도움이 되는 인지적 발달을 지원하도록 함
- 조기 개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영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조기발견을 위해 개별적인 관찰과 발달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영유아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운 행동은 조기개입이 효과적이므로 교사의 주의 깊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함

Ⅱ. 「인지발달영역」 문제행동 지도의 실제

1. 성인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경우

25개월인 남아 00이가 어린이집 보육실에서 놀이하고 있다. 같은 놀이감에 30초 이상 눈을 주지 않고 계속 이것저것을 만지며 유희실을 뛰어다니고 있다. 1세 반이 유희실에 나오자 13개월짜리 영아에게 다가가 얼굴을 만지다 웃으면서 민다. 영아가 넘어지자 영아의 머리를 만지고 잠시 있다가 다른 쪽으로 뛰어간다.

교사가 00이를 잡아 “동생을 넘어뜨리면 안 되지.”하고 이야기 하자 “.....” 아무 말 하지 않고, 잠시 눈을 스치듯 맞추다가 눈을 피하고 교사의 손에서 빠져나가 뛰어가서 미끄럼을 탄다. 계속 교사가 따라가서 잡으려고 하자 “아-----” 하는 알아듣기 힘든 소리를 지르며 교사를 피해 도망을 간다. 교사가 잡아 다시 이야기하려 팔을 잡자 눈을 피하며 큰 소리를 지르고 도망을 간다.

가. 원인 분석

가정 환경적인 원인과 부모의 양육 방법

○ 자녀와 관계 맺기 부족

- 어머니는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양육태도를 가지고 있어, 먹거리에만 신경을 썼으며 버릇들이기, 일관적이고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지 못해주었음

○ 행동지도를 하지 않음

- 25개월 동안 영아가 원하는 것은 모두 허용하였으며, 잘못된 행동을 하였을 때 행동을 바로잡아 주려 하기보다는 체벌을 하거나 영아의 요구를 무시하는 방법으로 양육하였음

○ 다양한 자극의 부족

- 놀이에 대한 자극이 부족하여 놀이 방법을 모르는 경우

□ 부모 양육태도 요인

- 어머니의 허용적인 양육태도가 영아의 타인과의 관계알기, 상황 인식하기 등의 인지개념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임

나. 지도 방법

□ 영아의 행동을 관찰하여 목록 만들기

- 상황에 따른 영아의 행동 반응, 공격적인 행동의 빈도, 눈 마주침 정도를 상세히 목록으로 정리하여 영아의 행동을 파악하기

□ 영아의 행동으로 인한 위험한 상황을 없애기

- 영아보다 어린 영아들의 안전이 위협당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어린이집에서 다른 반과의 놀이시간을 조정하여 실시하기
- 영아의 행동을 민감하게 관찰하여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영아의 행동을 제지하기

□ 영아 발달검사 의뢰하기

- 영아의 행동 근거가 인지발달에 기인한 것인지, 부모의 양육 방법에 의한 원인인지 보건소의 영아 발달 검사 의뢰하여 교사가 영아의 발달 수준 인식하기

□ 영아의 인지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놀이 환경 구성하기

- 짧은 시간이라도 자리에 집중하여 앉을 수 있는 밀가루 점토놀이, 풀물감 놀이 등의 부정적 감정 해소에 도움이 되는 놀이를 준비함
- 보조 인력이 있을 경우 영아와 교사와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교사와 둘만의 놀이시간을 마련함

□ 일관적이고 반응적인 상호작용 제공하기

- 교사의 일관적이고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함
- 영아와의 상호작용에서 영아의 마음을 읽어주어 교사와의 신뢰감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함

- “00아! 이 놀이감을 많이 가지고 놀고 싶었구나.”

“동생과 함께 놀고 싶었어? 그럼 이렇게 안아주면 좋겠지?”

○ 영아가 한 행동에서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여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하기

- “와~~~ 친구가 지나갈 수 있도록 발을 비켜주었네. 친구가 참 좋겠는걸!”

“(교사의 손을 허공에서 큰 동그라미를 그리며) 동생을 예뻐하는 마음이 이만큼 있네.”

□ 영아 부모에게 영아가 겪는 어려움을 함께 도와주려한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 부모와 상담 시간을 자주 마련하여 영아의 어려움을 도와주려 한다는 것을 이해시키고 부모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 할 수 있도록 하기

○ 영아의 행동을 상세히 기록하여 특별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 행동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작하여 부모에게 정보 제공하기

○ 부모의 양육방법이 잘못되었다 것을 지적하기 보다 바람직한 양육방법에 대한 내용을 나누며 부모가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함

다. 유의사항

□ 교사는 영아의 행동이 변화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

□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을 자주 마련하여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부모가 과거 양육에 대한 수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2. 물건을 보여주거나 소리를 들려주어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행동

10개월 여아인 00이와 교사가 놀이하고 있다. 선생님이 손에 끼어서 작동하는 작은 인형을 들고 00이에게 “안녕!!” 하고 인사를 한다. 00이는 인형을 잠시 쳐다보더니 눈을 다른 쪽으로 돌린다. 선생님이 다시 인형으로 00이의 볼을 건드리며 “안녕!” 하고 말하자 인형을 바라만 보고 있다. 이때 **이가 소리를 내며 교사를 불러 교사가 그쪽으로 다가가자 00이는 다른 쪽을 바라

본다. 교사가 **이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00이의 뒤쪽으로 가서 인형으로 00이의 목을 건드리면서 “00아!”하고 말을 해도 바라보지 않고 고개를 다른 쪽으로 돌린다.

가. 원인 분석

□ 환경적 요인

- 신생아기의 주 양육자의 잦은 변동으로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
 - 신생아 시기에 양육자가 자주 변동됨
 - 영아의 할머니는 고령으로 신생아인 영아에게 다양한 자극을 주기보다는 기본적인 먹고, 씻기는 등 기본적인 양육을 제공함

□ 기질이나 발달상의 요인

- 주의력의 문제
 - 영아가 다양한 사물에 적극적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함
 - 다양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는 영아의 기질 상의 문제일 수도 있으나 주변의 자극의 부재로 인한 반응이 없는 경우일 수 있음

나. 지도 방법

□ 영아의 반응 자극할 수 있도록 돕기

- 영아가 좋아하는 놀이감을 관찰하여 영아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상호작용 함
 - “00아 보드라운 인형이 있네.”
 - “인형이 00이와 인사하려 하는데!”
 - “어제 봤던 곰 인형이 또 인사를 하러 왔네.”

□ 영아의 발달에 맞게 교사의 움직임 변화시키기

- 영아가 언어적, 신체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속도를 고려하여 놀이감으로 상호 작용 하기

—“강아지 인형이 어디로 갈까? ----천천히 움직이고 있구나.”

— “깡----총 하고 토끼가 뛰--어--가--네.”

- 영아가 좋아하는 놀이감을 영아가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제시하기
 - 교사가 영아를 안고 눈을 맞추면서 놀이감 제공하기
- 자극물을 보여줄 때 외면하거나, 다른 자극물에 관심을 가지면 바로 자극을 주기 보다는 관심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려야 함
 - 영아의 관심수준에 맞춰 지나친 자극을 주지 않도록 하기
 - “00이가 지금을 편히 쉬고 싶구나 ”
 - “00이가 편히 쉬도록 선생님이 기다려 주어야겠네.”
- 자극물의 종류를 사물과 사람 등 (교사의 목소리, 눈빛, 몸의 움직임 등) 다양하게 자극하기
 - “00를 사랑하는 선생님의 목소리를 들어볼까? ”

다. 유의사항

- 부모가 도움의 진행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상세한 안내를 하며, 교사가 영아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부모의 생각을 먼저 듣고 행동지도의 방향을 결정함
- 지도 내용에 따라 나타나는 영아의 변화를 부모에게 상세하게 알려 부모도 영아의 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하도록 함
 - 가정에서 영아의 관심을 유지하는 방법,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사용하는 영아를 도와주는 교육 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가 필요

3. 낯선 사람에게 쉽게 안기고 따라가려는 경우

25개월인 남아 00이가 어린이집 유희실에서 놀이하고 있다. 어린이집에 외부인이 와서 돌아가려 하자 00이는 관심을 가지고 쫓아간다. 교사가 이야기하려 팔을 잡자 눈을 피하며 큰 소리를 지르고 도망을 간다. 외부인이 00이를 안아 주려 하기 손을 벌리고 안긴다.

“나랑 같이 갈래?” 하고 외부인이 말하자 “응 ” 하며 고개를 끄덕인다.
“나랑 가면 안 되는거야.” 하며 00이를 내려놓자, 팔을 벌리고 안아달라고 외부인을 쫓아간다. 외부인이 어린이집에서 나가자 아무 일도 없던 듯이 몸을 돌려 현관에서 교실로 들어간다.

가. 원인 분석

- 가정 환경적인 원인과 부모의 양육 방법
 - 영아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부족함
 - 영아의 부모는 영아에게 관심이 많지 않고 일관적인 양육태도를 가지지 못했음
 - 영아시기에 다른 여러 사람에게 맡겨 길러 안정적인 애착이 형성되지 못함
- 인지 발달상의 문제
 - 익숙한 사람과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지 못하여 생기는 문제인 경우
 - 낯선 사람에 대한 인식에 대한 인지가 발달되지 못해 다른 사람에게 안기거나 불안감 없이 따라가려 하는 행동
 - 안전기지로서의 부모의 부재로 낯선 사람과 불안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나. 지도 방법

- 한 명의 교사와 일관적인 영아와 안정적인 애착 형성하기
 - 영아의 행동에 대한 교사의 일관적인 태도와 스킨십을 보여주어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기
 - “선생님이 사랑하는 00이가 친구들과 사이좋게 놀고 있구나.”
 - “사랑하는 00이 선생님이 꼭 안아주어야겠네. ”
- 놀이감 제공하기
 - 많은 공통점과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예: 같은 모양에 색깔만 다른 놀이감) 다양한 놀이감을 제공하여 사물의 차이점에 대한 인식 자극하기
 - “와! 공이 많구나. 공을 만져보자. 빨간 공, 파란 공 다른 공들이 있네 .”

– “선생님은 파란 공, 00이는 빨간 공”

친숙한 사람과 긍정적인 관계 맺는 경험 제공하기

○ 원장선생님, 다른 반 선생님들과 함께 있는 환경에서 담임교사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인식 자극하기

– “우리 어린이집에는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네. 원장선생님, 00반 선생님 우리 00이의 선생님.”

○ 여러 보육 교직원과 같이 이는 상황에서 담임선생님에게 관심을 표현했을 때 긍정적인 피드백 제공하기.

– “우리 00이가 선생님에게 왔네. 멋진 00이 사랑해”

다. 유의사항

낯선 사람을 불안감 없이 따라간다는 것은 한 사람에 대한 일관적인 애착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일 수 있으므로 영아와 따스하고 긍정적인 애착이 형성될 수 있도록 일관적인 보육을 하는 것이 필요함

지도방법을 사용한 후에도 영아의 행동에 변화가 없을 경우 인지 능력에 대한 전문적인 발달 검사가 필요할 수 있음

영아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하여 가정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함

어린이집에서의 양육방법을 가정에도 연계하여 지속적인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함

부모에게 애착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4. ‘까꿍’ 하면 고개를 돌리는 경우

8개월된 남아인 00이가 어린이집 휴식 영역에서 인형을 안고 뒹굴고 있다. 동물 인형의 수염을 잡아당기면서 놀다가 싫증이 났는지 책꽂이에 꽂인 책을 바라보다가 기어가서 꺼낸다. 교사가 00이 등 뒤에서 “까꿍”하며 00이의 얼굴 쪽으로 고개를 내민다. 00이는 잠시 교사를 바라보다 다시 책을 탐색한다.

교사가 “까꿍”하자 고개를 돌리고 다른 쪽으로 기어간다. 교사가 같은 행동을 반복하여도 00이는 고개를 계속하여 돌리며 관심을 주지 않는다.

가. 원인 분석

□ 소리에 대한 영아 선호의 문제

- 고개를 돌리는 행동이 “까꿍” 하고 말하는 교사의 목소리의 크기, 높낮이, 톤에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인지 관찰
 - 영아의 “까꿍”소리에 대한 경험이 다를 경우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영아의 주 양육자의 목소리, 톤, ‘까꿍’ 놀이의 사전 경험에 대해 조사함

□ 발달, 기질상의 문제

- 사물의 움직임이나 변화에 대한 영아의 관심 수준에 대한 관찰
 - 교사에 자극에 대한 반응 수준을 관찰하여, “까꿍” 놀이에 관심이 없는 것인지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것인지에 대한 민감한 관찰이 필요
- 청각능력의 문제
 - 소리를 잘 들을 수 없어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것인지를 문제에 대한 민감한 관찰이 필요함
 - “까꿍”소리가 아닌 다른 소리나 행동에도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관찰과 평가가 필요함

□ 환경상의 문제

- 사물의 움직임이나 변화에 대한 영아의 관심 수준에 대한 관찰
 - “까꿍”놀이 이외의 교사의 자극에 대한 반응 수준을 관찰하여, ‘까꿍’ 놀이에 관심이 없는 것인지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것인지에 대한 민감한 관찰이 필요
- 주 양육자가 조부모인 사전경험이 ‘까꿍’놀이에 대한 사전 경험이 많지 않은 경우
- 낮가림이 시작되는 6-7개월에 어린이집으로 와서 적응에 문제가 있는 경우

나. 지도 방법

- 영아와 안정적인 관계 노력
 - 영아가 새로운 양육자와 안정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필요한 시기와 과정을 고려하여 천천히 기다려 주는 교사의 태도가 필요함
- 다양한 음성과 몸짓을 변화시켜 영아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노력함
 - “(작은소리로) 00이가 선생님을 쳐다보나? ”까꿍“
 - “(부드러운 목소리로) 00아 선생님이 여기 있네. 선생님을 바라보자 ”
- 비언어적인 상호작용하기
 - 영아가 다른 상황과 사물에 집중해 있는 때는 갑작스러운 자극을 주지 않으며, 영아가 눈길을 주었을 때 부드러운 자극을 주는 것으로 영아의 눈길이 머물 수 있도록 지도함
 - “까꿍” 이라는 언어적인 자극 없이 웃는 얼굴로 터치를 시도하거나, 부드러운 재질의 손가락 인형 등을 사용하여 영아가 자극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

다. 유의사항

- 가정에서도 “까꿍”놀이와 같은 사라졌다 나타나는 놀이를 소개함
- 영아를 안고 ‘까꿍’놀이를 하는 등 심리적으로 안정이 된 상태에서 놀이를 진행하도록 함
- 영아들의 적응에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교사가 조급해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함
- 영아의 행동이 변화 없이 지속될 경우 인지 발달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관찰하도록 함
 - 영아의 “까꿍” 소리에 고개를 돌리는 행동의 빈도와 반응의 정도를 기록화하여 발달의 과정이나 환경상의 문제인지 인지발달의 문제인지를 관찰하여야 함

5. 새로운 사물이나 놀이감을 제시해도 관심 없거나 피하는 경우

새롭게 소개되는 블록에 영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사가 영아들을 부르고 있다. “ 여기 새로운 블록이 있네. 어디 한번 만져볼까?” 하고 교사가 말하자 영아들이 교사의 곁으로 모이기 시작한다. 18개월된 00이는 멀리서 인형을 가지고 놀면서 교사를 잠시 바라본다. 교사가 다시 “00이도 한번 만져볼까?” 하고 권하자 교사를 바라본다. 교사가 가까이 올 것을 권유하자 고개를 돌리고 몸을 돌려 가지고 놀고 있던 인형을 안고 다른 곳으로 간다. 역할놀이 영역에서 인형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재우는 행동을 함

가. 원인 분석

- 영아 관심의 문제
 - 놀이감에 대한 영아의 관심 및 선호가 강한 경우
 - 기존 놀이감에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새로운 놀이감 선택에 어려움을 가질 수 있음
- 새로운 낯선 것에 대한 불안감이 많은 경우
 - 새로운 것에 낯가림이 심해 새로운 것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피하게 되는 경우
 - 기질 상으로 새로운 것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여 새로운 놀이감에 관심을 갖지 않고 피하는 경우
- 특정한 놀이감에 집착하는 문제
 - 과거의 불안한 경험으로 주 양육자 외에는 특정한 놀이감에 집착하게 되어 새로운 놀이감이 있어도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있음
- 기질상의 문제
 - 새로운 것에 적극적인 반응을 하지 않거나 천천히 적응을 하는 기질상의 문제

나. 지도 방법

□ 낯선 놀이감에 관심 자극하기

- 영아가 새로운 놀이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극하기
 - “놀이감에 줄을 달아 영아 앞에 두고 천천히 줄을 잡아 당기면서) 00아! 놀이감이 움직이네. ”
 - “(교사가 새로운 놀이감을 만지며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 놀이감을 흔드니깐 소리가 나는데! .”
 - “(다른 영아를 부르며) **아 여기 재미있는 놀이감을 가지고 놀자 !. ”

□ 낯선 놀이감 자연스럽게 접하기

- 평소에 익숙하게 사용하는 놀이감 사이에 새로운 놀이감을 섞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돕기
 - “00이가 좋아하는 인형이 여기 있네. 옆에는 인형이 좋아하는 작은 가방이 있구나.”
 - “00이가 좋아하는 가방 안에서 (새로운 놀이감을 들며) 이게 나왔네.”

□ 안정적인 애착 형성하기

- 영아의 기본 애착은 대인, 대물에 대한 신뢰감에 영향을 주므로 기본 애착이 잘 형성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관계 형성하기
 - “ (영아를 안아주며) 선생님이 사랑하는 00이가 왔네!. ”
 - “ (영아의 몸을 만져주며) 예쁜)00이는 손, 소리를 잘 듣는 00이의 귀 !. ”

□ 새로운 사물이나 사람과 만나는 경험 제공하기

- 영아의 선택을 관찰하고 낯선 놀이감에 익숙해 질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다. 유의사항

- 영아가 사물에 대한 탐색을 시작할 때 교사는 영아 옆에서 바라봐 줌으로 새로운 사물을 안정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안전기지 역할을 해야 함

- 탐색을 피하는 행동이 영아의 선호도에 의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경우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영아가 성장함에 따라 관심이 없고 탐색을 피하는 행동이 놀이감에 대한 영아의 선호의 영역을 넘어 지속되는지 관찰할 필요가 있음
- 18개월의 영아는 놀이감에 대한 선호가 나타나는 시기이므로 영아가 선호하는 놀이감에 관찰을 통해 교사의 인식이 필요함
- 새로운 것에 관심이 없는 것인지, 그 놀이감이 영아의 흥미를 끌 수 없는 것인지 교사의 관찰이 필요함

6. 대상의 영속성이 생길 연령에서 놀이감이 사라져도 찾지 않는 경우

7개월 영아를 교사가 무릎에 안고 놀이를 하고 있다.
“OO아! 딸랑이에서 소리가 나네.”
“손을 만져보자.”
“OO이도 딸랑이를 흔들어 볼까?”
영아의 눈 앞에서 딸랑이를 흔들며 영아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아는 딸랑이를 보며 즐거운 듯 웃고 있다. 선생님이 눈 앞에서 흔들던 딸랑이를 이불 밑에 숨기고
“딸랑이가 어디로 갔을까?” 하자 잠시 가만히 교사의 무릎에 앉아 있더니 다른 놀이감을 바라보며 기어간다. 형겅인형에 관심을 갖더니 만지기 시작한다.

가. 원인 분석

- 지각적으로 없어진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 없어짐을 지각하지 못하여 행동뿐만 아니라 눈빛이나 손짓으로도 찾으려 하지 않는 경우는 인지적인 발달의 문제로 보임
- 없어진 물건 찾기 활동의 경험이 부족
 - 없어진 놀이감을 찾는 활동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여 활동 방법을 몰라 반응하지 않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

- 대상의 영속성과 관련된 성인의 자극이 부족하여 영아가 반응하지 않는 경우

나. 지도 방법

- 대상의 영속성의 개념이 생길 수 있는 다양한 활동 구성하기
 - 영아에게 물건을 보여주고 눈앞에서 숨긴 후 영아의 반응 자극하기
 - “어? 작은 공이 어디로 갔을까?”
 - “(숨긴 형겔 위를 만지며) 여기 불쑥 튀어나온 것은 뭘까?”
 - “우리 00이도 선생님과 함께 만져볼까?”
-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대상의 영속성의 개념 자극하기
 - 영아가 대상의 영속성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기
 - 지퍼팩의 앞쪽에는 종이나 시트를 붙이고 뒷면은 물건을 볼 수 있도록 투명한 비닐채로 두고 안에 물건을 넣은 후 영아에게 보게 한 후 지퍼팩을 돌려서 물건이 없어지고 나타나는 과정을 경험하게 함
 - “물건이 있네? 없어 졌네!”
 - 이불 안에 숨기기, 형겔 뒤에 숨기기, 손 안에 숨기기, 영아가 입을 옷 안에 숨기기, 상자에 숨기기 등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영아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함
 - “이불이 볼록! 무엇이 있을까?”
 - “이불 속에 인형이 숨겨져 있네.”
 - “강아지 인형이 어디로 갔을까?”
 - “수건 속에 숨었네! 여기 있네-”
 - 위의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여 영아가 관심을 갖도록 도와줌
- 영아의 행동과 눈빛 등 다양한 반응 관찰하기
 - 여러 방법으로 대상의 영속성과 관련된 활동을 하며 영아의 행동과 눈빛 등의 변화를 민감하게 관찰하기
- 영아가 없어진 물건에 관심을 갖거나 찾았을 경우 다양한 자극으로 피드백주기

- 영아가 없어진 물건에 관심을 가지면 언어,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자극하기
 - “와---00이가 없어진 정말 잘 찾았네!”
 - 손뼉을 치며 “찾았네!! 여기 있었구나.”

다. 유의사항

-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영아가 선호하는 물건과 방법알기
- 영아가 선호하는 대상의 영속성과 관련된 활동 제공하기
- 대상의 영속성이 확고해질 월령에도 없어진 물건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찾으려 하지 않을 경우 영아의 발달검사가 필요함

7. 팔, 다리(또는 소리)를 이용한 간단한 동작을 모방하지 않는 경우

어린이집의 유희실 2세 영아반 아이들에게 즐거운 음악을 들려주고 몸을 움직이게 하고 있다. 선생님이 “나비가 훨훨 날아가고 있어요.” 하며 손을 아래 위로 흔들자 다른 영아들은 교사를 모방하여 움직이는데 26개월 영아 00이는 교사를 따라하지 않고 음악에 맞춰 폴짝 뛰고 있었다. 선생님이 “ 커다란 새도 날아가요. ” 하면서 몸을 크게 흔들어도 00이는 사의 동작을 따라하지 않고 몸을 그냥 흔들거나 음악에 맞춰 뛰고 있다.

가. 원인 분석

- 몸의 움직임(소리)의 인식 부족
 - 몸의 움직임(소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같은 방법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
 - 교사나 주변의 소리, 움직임의 자극을 주어도 움직이는 방법을 관찰하여 인식하는 데 문제를 보이는 경우
- 몸의 움직임(소리)의 표현 부족
 - 기질의 문제

- 영아가 기질 상으로 움직이는 것을 선호하지 않아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 경우
- 다른 사람과 같은 방법으로 움직이는 것을 선호하지 않고 영아 본인만의 독특한 움직임을 선호하는 경우
- 영아의 사전 경험의 문제
 - 몸이나 소리로 관찰한 것을 표현해보는 경험이 부족하여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
 - 가정환경이 다양한 표현을 자극하지 않는 경우

나. 지도 방법

- 교사는 행동의 원인이 무엇인지 관찰하기
 - 영아가 움직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지, 표현력이 부족한지 민감한 관찰이 필요함
- 움직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
 - 교사의 움직임을 언어로 표현하여 영아의 움직임을 자극하기
 - “손을 흔들 흔들 흔들 흔들.”
 - “나비처럼 팔랑 해보자.”
 - “깡-----총 깡-----총 깡-----총 선생님과 같이 뛰어볼까?”
 - 교사가 영아의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기
 - “OO아 선생님과 손을 잡고 흔들 흔들 해보자.”
 - “OO이란 잡은 손을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 같은 방법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한 모방인식이 부족
 - 교사의 행동을 천천히 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속도 조절하도록 함
 - 거울을 통해 영아 자신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함
 - 다른 영아들의 움직임 모방 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함
- 영아의 움직임에 칭찬과 격려로 자극하기
 - 영아가 하지 않던 움직임을 할 경우 자극하기

- “우리00이가 열심히 움직이고 있네.”
- “손을 흔들 흔들 하니깐 정말 새 같은데!”
- “(엄지 손가락을 올리며) 열심히 하는 00이 최고!”
- “00이가 나비처럼 날아가고 있구나.”

다. 유의사항

- 영아가 선호하는 움직임이나 소리를 모방 할 수 있도록 선호하는 움직임이나 소리 관찰하여 영아에게 제공하기
- 영아의 모방행동이 없는 이유에 대해 환경적인 요인과 경험적인 요인 관찰하여 상세히 기록 분석하여 다음 자극에 반영하기
- 문제행동으로 보기보다는 어려움을 도와주려는 교사의 태도로 접근하기

8. 영아에게 물건이나 놀이감을 손에 쥐어주기 전에는 탐색하지 않는 경우

10개월의 영아 00이는 바닥을 기어가다가 앉더니 다른 영아가 놀이감을 가지고 놀이하는 것을 바라본다. 교사와 눈이 마주치자 교사를 바라보며 소리를 내어 웃는다. 교사에게 기어와서 교사의 무릎에 앉는다. 교사가 근처에 있는 인형을 영아에게 건네자 손으로 잡고 만지기 시작한다. 인형을 안고 바닥에 뒹군다. 다른 영아들의 놀이를 바라보며 잠시 인형을 가지고 놀이하다가 교사를 바라본다. 교사가 근처에 있는 소리 나는 자동차를 손에 쥐어주자 소리가 신기한 듯 한참 가지고 놀이한다.

가. 원인 분석

- 환경적인 요인
 - 가정환경 문제

- 영아의 가정환경이 놀이감이 너무 많거나 적을 경우 의도적인 선택행동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놀이에 자극을 주어 놀이를 지속시킬 수 있는 성인의 영아에 대한 놀이 자극이 부족한 경우
- 놀이감을 만졌을 때 성인들의 부정적인 (만지지 못하게 한다거나, 놀이감을 치워 놓는 등) 자극이 많았던 경우
- 영아의 기질상의 문제
 - 새로운 놀이감을 적극적인 탐색이 부족한 느린 기질의 영아인 경우

나. 지도 방법

- 영아가 선택할 수 있도록 놀이감 배치하기
 - 영아가 스스로 놀이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영아의 주변에 놀이감을 배치하도록 함
- 영아가 놀이감을 스스로 잡아볼 수 있도록 자극하기
 - 교사가 놀이감을 집어 주지 않고 영아의 손을 함께 잡고 놀이감을 집을 수 있도록 도와줌
 - “00이 자동차 잡아볼까?”
- 영아가 잡은 놀이감을 이용하여 놀이하기
 - “우리 00이가 잡은 자동차 선생님과 같이 놀아볼까?”
 - “부릉 부릉 자동차가 신나게 달려갑니다.”
- 영아가 놀이감에 관심을 보이고 다가갈 때 긍정적인 자극제공
 - 언어적인 자극
 - “00이가 자동차를 잡으러 갑니다.”
 - “우리 00이 자동차를 잘 잡는구나.”
 - 비언어적인 자극
 - 영아를 바라보며 웃어주기

- 놀이감에 관심을 보일 때 부드러운 터치로 긍정적인 자극주기

다. 유의사항

- 영아의 행동변화를 도와줄 수 있는 환경과 자극을 주어도 영아의 의도적인 선택 행동이 나타나는 빈도가 늘지 않을 경우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음
- 영아에게 제공되는 교사의 지도법을 문서로 기록하여 가정과 연계함
- 영아가 가정에서 선호하는 놀이감을 어린이집 놀이감과 섞어 비치하여 영아가 스스로 놀이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극함

9. 또래와 비교하여 자연모방이나 상징놀이를 하지 못하는 경우

15개월 남아인 00이는 역할놀이에서 영아들이 인형을 재우는 행동을 바라보고 있다. 상 위에 놓여있는 컵을 가지고 바닥에 앉더니 컵을 쌓기 시작한다. 컵을 쌓고 무너뜨리는 행동을 반복하더니 다른 영아들이 차려놓은 밥상을 바라본다. 밥상 앞에 앉아 손가락을 들더니 상 위에 손가락을 이용해 지그재그 선을 긋는다. 역할놀이를 할 수 있는 겹과 그릇을 이용하여 쌓거나, 늘어놓는 놀이를 한다. 다른 친구들이 인형을 업는 모습을 보더니 다른 인형을 들고 흔든다. 잠시 인형을 흔들더니 다른 영역으로 이동한다.

가. 원인 분석

- 환경과 경험적인 요인
 - 상징놀이를 할 수 있는 환경적인 조건 부족
 - 어린이집에서 늦게 하원하여 가정에서 상징놀이에 대한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경험 부족
 - 가정에서 상징놀이를 할 수 있는 소품의 부족으로 상징놀이에 대한 표현의 경우가 부족한 경우

- 가정에서 다양한 상징놀이를 하기 보다는 비디오나 TV를 시청하는 시간이 많아 상징놀이에 필수적인 요소인 지연모방을 해 볼 수 있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 부모의 양육태도 요인

- 상징놀이에 대한 부모의 인식의 문제
 - 부모가 놀이에 대해 성역할의 고정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 밥을 차리거나 아가를 업어주는 등의 모방행동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
- 부모가 선호하는 놀이가 영아의 발달을 도와줄 수 없는 경우
 - 부모가 다양한 상징놀이에 대한 관심보다 책을 읽어주는 것을 선호하여 모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경우

□ 영아의 인지 능력 요인

- 영아의 인지 능력이 부족하여 물건에 대한 기능에 관심을 없어 지연모방이나 상징놀이를 하지 않는 경우

나. 지도 방법

□ 다른 영아의 상징놀이에 참여시키기

- 다른 영아들이 상징놀이를 할 때 영아를 참여시켜 상징놀이의 경험 제공하기
 - “**이가 아가를 업어주고 있네. 00이도 업어줘 볼까?”
 - “와~~~ 맛있는 밥을 차렸구나. 00아 선생님과 같이 먹자. 아~~~ ”
 - “우리 00이도 친구들과 함께 밥상 차리기 놀이를 해볼까?”

□ 상징놀이 영아와 함께 민감하게 관찰하기

- 다른 영아들이 상징놀이를 할 때 영아와 함께 관찰하기
 - “쟁반에 컵과 주전자를 담았네.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겠는걸!”
 - “아가 인형을 포대기로 업었구나.”
 - “아가가 코 자게 이불을 덮어주고 있네.”

□ 일상생활 활동을 언어로 자극하기

- 교사는 간식, 낮잠, 점심 먹는 등의 일상적인 경험을 언어로 표현하여 영아가 모방을 할 수 있도록 자극한다.

- “오늘 간식은 과일! 포크랑 접시, 맛있는 사과가 있네.”

- “이불을 목까지 꼭 덮고 따스하게 잠을 자자.”

- 영아의 상징놀이를 하지 않는 행동이 상징놀이에 대한 인식의 부족인지, 표현의 부족인지 관찰해야 함

다. 유의사항

- 가정에서도 영아가 모방이나 상징놀이를 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다양한 놀이감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함
- 영아의 일상생활과 유사할 수 있는 상상(역할)놀이를 준비해 모방행동을 쉽게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영아에게 행동지도에 대한 자극을 주었을 경우 영아의 변화된 행동을 관찰 기록, 평가하여 다음 지도에 활용하도록 함

10. 교사나 또래의 놀이 행동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우

30개월인 00이가 구슬을 줄에 끼우고 있다. 역할놀이 영역에서는 선생님이 영아와 소꿉놀이를 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 과자 얼마예요?” 라고 교사가 묻자 “오백원이예요.”라고 **이가 대답한다. 교사와 다른 영아가 나누는 대화를 듣자 고개를 들어 역할 놀이 영역을 바라보더니 다시 고개를 숙이고 줄에 구슬을 끼운다. 교사와 친구들의 놀이하러 나누는 대화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한참동안 목걸이를 만들더니 다시 풀러 구슬을 바구니에 담는다. 바구니를 교구장에 넣고 끼적이기 영역에 가서 크레용을 집는다.

가. 원인 분석

- 환경적인 요인
 - 외동아로 혼자 놀이한 경험이 많은 경우

- 외동아로 주변에 성인이 많아 놀이의 대상이 되어주기 어려워 혼자 놀이하는 것이 익숙하여 교사나 다른 또래의 놀이행동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우

□ 기질이나 개인적 특성에 관련된 요인

- 혼자 놀이하는 것을 선호하는 영아인 경우
- 사람에 대한 관심보다 놀이감에 대한 관심이 높아 타인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
- 놀이감을 가지고 놀이하는 것을 선호하여 놀이 과정에서 주 양육자 등 사람의 관심을 받지 못해 점차 사람에 대한 관심이 적어진 경우

나. 지도 방법

□ 다른 영아와의 놀이 기회를 제공함

- 영아가 다른 영아나 선생님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놀이 기회를 제공함
 - “00아! 00이가 제일 좋아하는 책을 가지고와 보렴. **이와 함께 읽어 줄게.”
 - “00반 화장실 가기 전에 제일 좋아하는 친구 안아주기!”
 - “(역할놀이에 있는 사과모형을 들고) 아줌마 이 사과 하나 사 주세요!”

□ 타인의 놀이에 관심을 가졌을 때 적절한 자극주기

- 교사나 또래의 놀이에 관심을 가졌을 때 칭찬과 격려로 적절한 관심을 주어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행동이 빈번해 지도록 자극함
 - “00이가 친구놀이 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구나.”
 - “친구와 같이 놀고 싶은가본데?”

□ 영아의 관심이 놀이감에서 사람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자극하기

- 교사는 친구나 선생님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활동 구성하기
 - 교실에 색깔 테이프로 길 모양을 붙여 밟고 움직이다 만나는 친구 안아 주기 등의 활동을 구성하여 영아의 관심을 사람에게 집중 될 수 있도록 자극 함

다. 유의사항

- 교사나 또래의 놀이 행동에 관심을 갖지 않는 유아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다양한 상황에 의한 도움이 필요한 행동인지, 혼자놀이를 즐기는 영아의 특성인지 판단하여야 함.
- 가정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행동이 나타나는지 관찰하여 가정과의 연계가 필요함
-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행동이 지속되고 눈 마주침이 없는 등의 행동이 관찰될 경우 전문가와의 연계를 고려해 보아야 함
- 새로운 것이 관심이 없는 것인지, 그 놀이감이 영아의 흥미를 끌 수 없는 것인지 교사의 관찰이 필요함

11. 끼적거리기 단계가 변화되지 않는 경우

19개월 영아 00이가 벽에 종이를 붙여놓은 끼적거리기 판을 보고 있다. 다른 영아가 끼적거리를 하는 것을 눈여겨 보더니 00이도 크레용을 잡는다. 비어있는 종이에 끼적거리를 한다. 손을 가로로 계속 움직이며 좌우로 선을 그으며 소리를 낸다. “쓱-쓱-- 쓱-쓱-- 쓱-쓱--” 한참 옆으로 선을 긋더니 크레용을 내려놓고 다른 놀이감을 바라보며 간다. 00이가 한 끼적거리는 두달 전과 변화가 없다.

가. 원인 분석

- 발달, 기질상의 요인
 - 영아가 끼적거리를 선호하지 않아 경험 부족으로 같은 모양이 나타나는 경우
 - 끼적거리기에 대한 변화가 없으면 간단한 자조기술의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함
 - 주변의 사물에 대한 인지적인 관심이 부족하여 끼적이기 형태의 변화가 없는 경우

□ 환경적인 요인

- 끼적거리를 할 수 있는 환경적인 자극 부족
 - 가정환경이 영아가 끼적거리기 활동을 할 수 있는 종이, 도구 등이 없어 끼적이기 할 수 없었던 경우
- 끼적거리기의 자신감 부족
 - 가정환경이 주 양육자가 그림을 많이 그려주는 경우 그리기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여 끼적거리기의 형태가 변화되지 않을 수 있음

나. 지도 방법

□ 끼적이기 형태 변화를 위한 다양한 환경 제공

- 끼적이기 판을 벽에, 바닥에 붙여 주어 영아의 끼적이기 행동을 자극함
- 실외놀이 시 나무막대로 모래에 끼적이기, 화장실 사용 시 물로 타일 바닥에 끼적이기, 풀 물감으로 끼적이기, 바깥놀이 벽에 물로 끼적이기, 비닐에 끼적이기, 비누거품으로 욕조에서 끼적이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끼적이기를 할 수 있도록 자극함

□ 주변 사물에 관심 갖게 지도하기

- 주변 사물의 모양을 언어로 표현해 주기
 - “동그란 도너츠가 있네”
 - “손가락 위에 비누거품이 동글동글 손을 씻으라고 하네.”

□ 그리기 도구 없이 손을 끼적이는 행동 자극하기

- 하늘에 손가락으로 끼적이기
 - “하늘에 구름이 동글 동글 떠있네.”
 - “OO아 하늘에 손가락으로 구름모양 그림을 그려보자.”
- 교실의 바닥에 다양한 모양을 색깔테이프로 붙인 후 위에 손가락으로 끼적이기 등의 활동으로 영아의 끼적이기 행동의 변화를 자극함

다. 유의사항

- 가정에서도 영아 스스로 끼적이기를 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주는 행동을 자제할 수 있도록 연계함
- 다양한 방법의 자극에도 불구하고 영아의 끼적이기 행동이 변화되지 않을 경우 다른 신체 미세근육의 발달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찰할 필요가 있음.

12. 익숙한 모양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

4세 여아 00는 주변 환경에서 익숙한 도형을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수과 학영역에서 퍼즐을 맞추는 때 모양 퍼즐을 구분하여 맞추지 못한다. 동그란 모양 퍼즐조각을 네모, 세모 판에 이리저리 돌려 놓다가 다시 제자리에 놓고, 다시 네모모양 퍼즐을 들고 동그라미, 네모, 세모 판에 이리 저리 맞추기를 반복한다.

또한 미술영역에서 다양한 모양의 색종이를 제공하였을 때 교사가 “네모 모양 종이를 들고..”라고 이야기 할 때 대부분의 유아들이 네모모양을 찾더라도 00는 모양을 구분하지 않고 임의의 색종이를 집어들곤 한다. “00야 선생님처럼 네모 모양을 들어볼래?”라고 네모모양 색종이를 보여주면 교사가 제공한 색종이와 바닥에 있는 색종이를 번갈아 쳐다보며 “이거요? 이거요?” 하며 가까운 곳에 있는 모양종이를 들어서 보여준다.

가. 원인 분석

- 지각적으로 구별이 어려운 경우
 - 유아가 지각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구별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생김
 - 익숙한 모양이나 도형을 구별하는 과정에서 시각 자극에 대한 판단에 어려움이 생김
 - 감각을 통한 직접 경험의 부재로 모호한 자극에 대한 구별능력이 저하됨
 - 촉각과 시각, 촉각과 청각 등 감각을 통한 직접 경험이 부족하여 자극에 대하여 구별하지 못함

□ 주의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

- 다양한 자극 가운데 사물의 특징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함
 - 사물의 특징에 주의를 기울이기보다 직관적으로 판단하여 지시를 듣고도 즉각적으로 선택하기를 반복하게 됨

□ 어휘이해력의 문제

- 모양이나 도형에 관련된 어휘능력이 부족함
 - 사물의 명칭, 모양, 도형을 지칭하는 어휘가 부족하여 단어를 듣고도 어떠한 사물을 지칭하는지 구별하기 어려움
- 단어와 사물 간의 관련짓기에 어려움이 있음
 - 사물과 사물을 지칭하는 단어 간에 관계를 짓지 못하여 지속적으로 실수를 반복하게 됨

□ 환경으로 인한 문제

-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짧거나 부재하여 직접 경험이 결여됨
- 유아의 관심이 대중매체에 집중되어 있어 자연이나 생활환경의 사물에 관심을 보이지 않아 지속적으로 경험이 결여됨

나. 지도 방법

□ 감각 경험을 통한 직접 체험의 기회 제공하기

- 유아가 구별할 수 있는 모양의 특징을 파악하여 자료를 제공함
 - “영희야 만져볼까? 손에 만져지니?”
 - “밀가루 반죽으로 모양을 만들어보자. 동그라미도 해볼까?”

□ 유아가 주의를 기울이는 사물로 유아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제안하기

- “새가 날개를 폈네, 날개가 길죽하네?”
- “영희야! 색종이를 골랐구나, 한번 만져볼까? 자 여기는 뽀족하구나?”

□ 어휘력을 증진할 수 있는 상호작용하기

- 사물의 형태나 모양과 관련된 어휘를 언급하며 언어적으로 상호작용함

- “동그란 공을 네모난 상자에 넣어볼까?”
- “토끼는 기다란 귀를 두 개 가졌어요. 동그란 꼬리가 달렸고요.”
- 점진적으로 시각적 자극을 구별할 수 있도록 비계를 설정하기
 - 사물 간의 특징이 분명한 것부터 시작하여 특징이 유사한 것까지 점진적으로 사물을 구분하도록 상호작용 함
 - “공과 종이를 찾아보겠니?”
 - “동그라미와 반원을 찾아보겠니?”

다. 유의사항

- 가정에서도 매체를 활용하기보다 오감을 이용한 직접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전달함
 - 부모가 활용할 수 있는 체험 장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부모가 유아와 다양하게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함
 - 부모가 활용할 수 있는 안내책자, 감각책, 감각놀이감 등을 소개하도록 함
- 발달과정 중에 나타난 지연의 문제는 아닌지 관찰하도록 함
 - 유아를 관찰하는 가운데 사물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 일인지 빈번한 일인지 구분함
 - 사물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나타난다면 지도방안을 참고하여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해야 함 그러나 유아의 지연 행동이 가끔 나타나는 경우라면 교사와 일대일 상호작용을 통해 유아의 점진적인 발달을 지원하도록 함
 - 발달을 지원하면서 유아에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관찰하여 기록함
 - 유아의 행동을 관찰기록으로 남기면서 변화과정을 살펴보도록 함

13. 일상생활용품용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4세 남아인 00는 생활도구의 기능을 알고 이에 적절한 용도로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수저로 반찬을 떠먹으려하고, 가위의 위 아래를 뒤집어 사용하여

종이가 잘려지지 않기도 하며, 가위를 활용하면 쉽게 잘라질 수 있는 종이를 찢으려하기도 한다. 친구들이 철수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지적해도 자신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교사가 도구의 기능에 대하여 언급하면 알아듣는 것처럼 보이거나 도구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짜증을 내거나 좌절한다. 적절한 도구의 이용은 효과적인 학습의 기초라고 볼 수 있는데 철수는 이 부분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가. 원인 분석

- 성마른 기질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성급하게 행동하여 도구보다도 손을 먼저 사용함
 - 주변에 도구가 바로 잡히지 않으면 손으로 사용하고자함
 - 주변에서 보이는 다른 도구를 사용함
 - 다른 유아들은 젓가락이나 포크를 사용하더라도 급한 마음에 숟가락을 사용하여 반찬을 뒤적거림
- 문제해결 방법이 부족한 경우
 - 도구의 사용방법을 알지 못하여 난감해 함
 - 가위를 사용해야 할 상황에서 가위를 이리저리 돌리면서 가위 날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함
 - 도구, 도구의 기능, 도구와의 관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함
 - 도구의 이름이나 구별되는 사용법에 대하여 경험이 제한되거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서 사용방법이나 도구의 편리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알지 못함
- 소근육 조절의 어려움으로 인한 경우
 - 소근육 발달과 조절에 대한 어려움으로 도구사용을 기피하는 경우
 - 가위를 사용해야 할 상황에서 가위를 이리저리 돌리면서 가위날 사용을 하지 못함
- 환경적인 경험 부족으로 인한 문제

- 가정에서부터 도구를 사용하기보다 주로 손을 이용함
 - 생활습관이 형성되어야 하는 시기에 적절한 지도를 받지 못하여 도구이용이 원활하지 않음
- 보육실에서 도구를 활용한 활동의 제공이 제한됨
 - 교사가 제공하는 활동에서 도구를 활용한 활동이 제한되거나 제공되더라도 유아가 선택하지 않아서 경험이 부족함

나. 지도 방법

- 도구사용이 원활하게 되도록 시범을 보이거나 모델링 방법 활용하기
 - 교사가 시범을 보이거나 또래의 행동을 이용하여 도구의 바른 사용법을 보여 주고 모방하도록 함
 - “친구가 가위를 사용하여 종이를 자르고 있네. 너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니? 친구와 함께 가위질을 따라해 보자”
 - “선생님도 친구들처럼 가위를 사용하니 잘 잘라지는구나. 너도 함께 사용해볼까?”
-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토의하기
 - 도구가 필요한 상황에서 다양한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
 - “친구들이 종이나 천을 자르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 “우리가 만들기를 할 때 어떤 도구가 필요한지 이야기 해보자?”
- 소근육을 발달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감각재료를 제공하기
 - 감각을 활용하여 소근육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밀가루 반죽, 찰흙, 플레이 도우 같은 재료를 제공하기
 - “밀가루 반죽으로 주물러 보자. 반죽을 떼어 보자. 잘라도 붙까?”
 - “찰흙으로 늘려보자. 손가락으로 눌러볼까? 반죽을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겠니?”
- 동화와 매체를 활용하여 지식에 대한 질문하기
 - 도구의 종류, 바른 사용법, 편리성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질문을 함
 - “가위가 우리생활에 없어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 “우리생활에 젓가락(수저)는 어떤 도움을 주는 걸까?”
- 일상생활장면이나 도구사용과 관련된 동화를 함께 읽으면서 이야기를 나눔

다. 유의사항

- 교사가 모델링과 모방의 방법을 사용할 때 유아에게 직접 따라하기를 요구하지 않도록 함
 - 또래의 행동을 관찰하고 함께 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유아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도록 함
- 유아가 관심있어하고 익숙한 재료를 제공하도록 함
 - 도구의 종류와 기능 편리성에 대한 지식을 제공할 때 유아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유아가 관심있어 하고 자주 사용하는 도구로부터 시작하도록 함

14. 촉각으로 물건을 구분하여 알아맞히지 못하는 경우

3세 남아인 00는 감각을 통한 탐색이나 조작활동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촉감 상자 활동을 진행할 때 보육실에 있는 단순한 물건을 만져보고 알아맞힐 경우에도 잘 알지 못하는 표정으로 난감해 한다. 이런 오류가 자주 발생하게 되어 또래 친구들로부터 시선을 받고 창호는 스스로 자신감 없어하고 있다.

가. 원인 분석

- 감각 운동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촉감을 느끼는 손의 감각이 둔하여 사물의 구분이 어려움

- 감각기능은 인지발달의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기능임 감각기능이 둔감하다는 것은 주변의 환경에 대한 인식도 분명하게 형성되지 않을 수 있음
- 소근육발달 및 조작능력의 부족으로 인함
 - 소근육 또는 조작능력의 부족으로 손을 이용한 활동에 서툴고 참여하려고 하지 않음
- 환경적인 문제로 인한 경우
 - 손으로 조작하는 놀이감의 제공이 제한된 환경에서 성장
 - 자녀에게 감각놀이감 보다는 주로 그림책을 많이 제공하고, 언어 상호작용을 많이 제공하는 부모와 성장함
- 보육실 환경에서 체험을 제공하는 감각자료보다 평면자료가 주로 배치되어 있음
 - 유아반의 프로그램이 주로 활동지나 학습지 위주의 활동이 진행된다 보니 감각 경험이 상대적으로 제한됨

나. 지도 방법

- 감각기능 증진과 소근육 발달 및 조작능력을 점진적으로 증진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수립하기
 - 발달의 지표를 확인하고 감각의 민감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연속적이고 점차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함
- 감각 및 소근육 관련 활동을 제공하기
 - 감각경험, 소근육활동 등 신체활동을 보장하는 보육계획을 수립함
 -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의 '신체운동 건강'영역의 '신체활동에 참여하기'와 관련된 활동을 보완하도록 함
 - 처음에는 감각적 자극이 확실하게 구별되는 것부터 시작하여 점차 구별이 모호한 것으로 점진적인 경험이 되도록 제공함
- 보육환경 점검하기
 - 보육환경을 점검하여 감각경험을 할 수 있는 교구를 보완하도록 함

- 하루일과의 구성 중에서 평면자료를 이용한 활동의 비중을 줄이고 감각경험을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의 비중을 넓히는 개별적인 방안을 모색함

□ 유아의 호기심과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교사의 질문 및 제안하기

- 철수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심을 보이는 교구를 관찰해 두었다가 이를 제공함
- “친구와 함께 만져보자 영희야 너는 만져보니까 어떤 느낌이야? 창호도 만져보겠니? 어떤 느낌이니?”
- “만지기만 하고서 알아맞출 수 있을까? 창호가 만져보겠니? 아까 만져본 놀이감과 다른 점이 있니?”

다. 유의사항

□ 가정과의 연계로 보육실의 경험을 부모와 공유함

- 유아가 활동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알림장에 부착하고 부모님과 유아의 활동 상황을 공유하도록 함
 - 유아가 감각경험이나 신체활동에 참여한 부분에 대하여 격려하도록 함
- 가정에서 놀이할 수 있는 간단한 교구 또는 활동에 대한 정보를 부모와 공유하도록 함
 - 감각 주머니, 안대 등과 함께 만지기만 하고 알아맞히는 수수께끼 등의 활동이 제공될 수 있음

15. 간단한 동화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4세 00는 집단활동으로 동화듣기 시간에 간단한 동화를 듣고 회상하기를 할 때 내용을 잘 기억해내지 못한다. 다른 또래 유아들이 동화에 나온 주인공, 장면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더라도 00는 친구의 얼굴만 바라보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또한 교사가 언어영역에서 또래 유아들이 보는 동화보다 짧은 동화

를 읽어주더라도 00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듯 보이나 몇 장면을 넘긴 후에 지난 장면의 이야기에 대하여 질문을 하면 “몰라요”라고 대답한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다 보니 이야기를 들을 때 00가 긴장을 하기도 하고, 질문을 받았을 때 위축되는 행동도 보인다. 이와는 반대로 00가 한 두 장면에 대하여만 관심을 보여서 이야기 전체를 순서대로 기억하기보다 자신이 주의를 두었던 한 두 장면의 이야기만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다.

가. 원인 분석

- 주의집중 또는 주의분산이 부족한 경우
 - 그림책을 읽는 동안 이야기의 흐름에 대하여 주의를 주지 않거나 그림장면의 한 부분에만 주의를 집중하여서 전체 이야기로 주의를 분산시키지 못함
 -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사건, 인물들 간의 관계나 사건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
 - 반대로 한 두 인물이나 장면에 주의를 집중하여 전체 이야기로 주의를 돌리지 못하는 경우
- 단기 기억과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주의를 집중하여 이전 장면과 다음 장면 간의 중요내용을 단기간에 기억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음
 - 상황이나 장면을 순서대로 기억하기 위해서 중요내용에 주의를 기울였다가 기억하는 과정이 필요함 기억과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이야기의 주요내용 파악이 어렵고 체계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함
- 책읽기 경험이 부족한 경우
 - 부모와 책읽기 경험이 부족하여 책읽어주고 듣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 그림책 읽기 경험이 부족하여 책읽기에 관심이 없거나 익숙하지 않아 이야기 내용 자체가 생소할 수 있음

나. 지도 방법

- 주의를 집중을 위한 자료제공하기
 - 단순한 내용의 그림책으로 제공하기
 - “어떤 그림이지?”
 - 그림책의 복잡한 그림 중에서 주의를 집중하여 찾아내는 경험을 제공함
 - “율리를 찾아라에서 율리를 찾아보자. 강아지는 어디에 있지?”
- 단순한 자극이 반복되는 그림책 또는 놀이감 제공하기
 - 그림책의 그림이 복잡하기보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장면이 나오는 책을 제공함
 - “이야기를 들어보자. 이야기 등장인물이 다시 나왔네.”
 - “바둑이 다음에 고양이, 고양이 다음에 영희..”
 - 기억하기 놀이감을 제공하여 상호작용하기
 - “뒤집기 게임을 해볼까? 이 자리에 무엇이 있었지?”
 - “자리 기억하기 게임을 해볼까 어느 자리에 곰이 있었지?”
- 간단한 이야기로 구성된 그림책 제공하기
 - 또래와 함께 보는 그림책보다 쉬운 수준의 그림책을 함께 보기
 - 등장하는 인물이 소수이고, 장면이 반복되는 이야기로 구성된 그림책을 제공함
- 어린이집과 가정에서 공유하는 환경을 제공하기
 - 유아가 어린이집에서 즐겨보는 그림책이나 놀이를 부모와 공유하여 집에서 일관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함
 - 가정에서 그림책이나 놀이감이 제공될 경우 가능한 일관된 시간을 정해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제안함
 - 집에서 유아가 관심있게 집중하는 놀이감을 어린이집에서도 활용함

다. 유의사항

- 유아의 호기심과 관심을 촉진하기

- 놀이감이나 그림책이 유아의 호기심이나 관심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함
 - 교사는 관찰을 통하여 유아가 보다 관심을 가지는 소재나 주제를 활용하여 놀이감이나 그림책을 제공하도록 함
 - 예) 동물기억게임, 자동차 기억게임, 동물이 주인공인 환상동화 등
- 다른 유아도 어울릴 수 있도록 배려하기
 - 난이도가 쉬운 놀이감을 선택하다보면 다른 유아와 분리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또래 유아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감을 선택하도록 함
- 주의력 결핍문제가 예견되는 경우 조기에 개입을 위한 관찰기록하기
 - 지나치게 주의집중을 하지 못하거나 주의 분산을 못하는 경우 어떠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행동인지 관찰 기록을 진행함
 - 필요한 경우 조기 개입을 위해 부모와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고 전문적인 기관에 관찰기록과 함께 조기개입을 제안하도록 함

16. 소개된 활동의 순서를 몰라 망설이는 경우

5세 영선이는 친구들과 주사위 게임을 할 때 게임의 방법을 설명해주어도 순서를 인지하거나 기억하지 못한다. 친구들이 방법을 설명해주고 알려주면 이리저리 시도해 보나 순서가 일관되지 않으며, 자발적으로 방법을 순서에 맞게 기억해 내지 못한다. 또한 교사가 대집단 활동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주어도 친구의 반응에 따라 함께 움직이거나 자신이 먼저 하려고 하는 등 활동방법의 순서를 잘 알고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가. 원인 분석

- 성마르거나 경쟁적인 기질
 - 성급한 성향으로 인해 활동 순서를 차근차근 실행하기보다 행동이 앞서서 습관으로 인함

- 교사의 설명이나 지시에 대하여 순서대로 알아듣기보다 일부분만을 선택적으로 듣기 때문임
- 유아가 교사의 설명이나 지시를 듣고 움직이기보다 자신의 생각에 기초하여 지시내용이나 활동방법을 왜곡되게 인지하기 때문임
- 경쟁적인 성향으로 인해 활동을 이해하기에 앞서 행동으로 옮기는 습관으로 인함
 - 또래와 함께할 때 자신이 먼저하고 싶거나 경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마음에 우선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기 때문임

□ 분류하고 구분하여 이해하는 과정에서 어려움

- 활동방법이나 순서를 이해하는 것은 각각의 과정을 구분하거나 분류하여 이해하는 과정이 기초가 되어야 함
- 사회적 관계짓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 또래와 함께하는 과정에서 순서나 차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 일상생활에서 일관되고 안정된 일과진행 경험 부족

- 일관된 하루일과 운영을 경험하는 것은 생활 안에서 일과의 순서를 몸으로 체득하는 과정으로 중요한 경험임
 - 교사가 지나치게 융통적인 일과를 운영하여 유아가 이에 적응이 어려운 경우임

나. 지도 방법

□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며 이를 격려하기

- 천천히 할 수 있도록 시간과 여유를 제공하기
 - “천천히 해도 괜찮아. 어떤 방법으로 하기로 했지? 생각해 볼 수 있니?”
 - “친구들과 선생님이 너를 기다려 줄 수 있단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하기로 하였지?”
- 생각하고 행동한 부분에 대하여 격려해주기
 - “정말 잘 생각해 냈구나. 생각하고 움직이니 잘 할 수 있구나.”

□ 관계, 순서 및 기억을 촉진할 수 있는 놀이제공하기

- 단순한 패턴이 이어지는 놀이감을 제공하기

- “A, B, 다음에 A가 나왔네. 다음은 무엇이 올까?”
- “A, B, B 다음에 A와 B가 나왔네. 다음은 무엇이 올까?”
- 사회적 장면의 순서를 맞추는 놀이감 제공하기
 - “아침에 일어나서 어린이집에 오기까지 그림카드의 순서를 맞추어 볼까?”
 - “옷을 입는 순서에 대한 순서를 맞추어 볼까?”
- 일관된 일과를 운영하여 안정감 있는 일상의 순서 경험하기
 - 가능한 일관성 있는 일과를 유지하여 유아가 하루일과에 대한 순서를 몸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함
 - “다음은 무슨 시간이지? 정리한 다음 화장실 다녀오자.”
- 한 번에 한 가지 지시하기
 -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하여 복합적인 장면의 이해나 순서가 어려운 경우 한번에 한 가지만 지시하여 순서대로 따르는 경험을 하도록 함
 - “이 활동을 하려면, 준비가 필요해. 카드를 가져가겠니? 그 다음으로 친구와 순서를 정하도록 하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 유의사항

- 부모와 유아가 상호작용하는 패턴을 관찰하기
 - 부모도 급한 성향으로 인하여 유아에게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요구할 수 있음
 - 유아가 자신의 부모와 상호작용하는 패턴을 관찰하였다가 교사는 가정에서 유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도록 함
- 또래와의 관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유의하기
 - 유아와 개별 상호작용을 통해 활동방법이나 순서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여 또래와 어울리는 데 소외되지 않도록 유의함

17. 환경의 변화를 알아보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5세 병식이는 보육실 환경이 달라지거나 주변에 변화가 생겨도 잘 알아보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한다. 교사가 “오늘 우리 반에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어디가 달라졌을까?”라고 질문할 경우 또래 유아들은 “커튼이 달라졌어요.,” “게시판이 달라졌어요.”라고 대답하는데 반해서 병식이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모르겠어요.”라고 대답한다.

또한 놀이감이 교체되거나 추가된 경우에도 변화에 또래 유아들은 “블록이 새 것으로 나왔어요.,” “말놀이 판이 달라졌어요.”라고 대답하는 데 반하여 병식이는 변화에 대하여 알아보지 못한다.

가. 원인 분석

□ 관심 또는 주의 부족

- 유아가 자신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 이외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임
 - 유아가 또래와 비교하여 자기중심적인 특성이 강할 경우 관심이 없는 주변 환경이나 특징에 주의를 돌리지 않기 때문임
- 유아의 주의가 산만하여 변화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 전반적으로 주의가 산만하여 환경이나 놀이감의 변화로 인한 차이를 알아채지 못하기 때문임

□ 환경이나 사물의 차이를 구별하여 기억하는 데 어려움

- 특징에 대한 차이나 변화에 대한 차이를 구별하는 데 어려움을 가짐
 - 유아가 맥락과 사물을 분리하여 사물을 기억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가지기 때문임
 - 유아는 영아기부터 주변과 사물을 구분하고, 친숙한 사람과 낯선 사람을 구분하는 등 자신의 주변 환경을 세분화하여 분리하여 인지하고 기억하는 과정을 거침 이 과정에서 사물의 특징과 변화에 대한 차이를 맥락에서 분리하여 기억해야 하나 이 과정에 어려움을 가짐

□ 외부환경의 변화를 인식하는 경험 부족

- 직접 경험하는 일상에서 차이를 인식하고 변화를 인지하는 경험이 부족함

- 계절의 변화, 하루의 변화, 환경의 변화 등 일상과 관련된 변화가 있더라도 이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켜주는 경험이 부족함
- 유아와 함께 생활하는 부모 또는 교사가 환경의 변화에 둔감하기 때문임
 - 계절의 변화, 하루의 변화, 환경의 변화 등 일상과 관련된 변화가 있더라도 부모나 교사 자체가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므로 유아에게 주의를 환기시키지도 못함

나. 지도 방법

- 외부환경의 변화를 인식하도록 구체적인 주의환기 시켜주기
 - 환경의 변화나 놀이감의 변화가 생겼을 때, 유아에게 변화를 알아보도록 구체적인 사인을 제공하여 주의를 환기시켜줌
 - “오늘 우리 방 벽이 어제와 달라졌단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겠니?”
 - “언어영역의 놀이감 바구니 카드가 달라졌네. 어떤 부분이 달라졌을까? 알아볼 수 있겠니?”
 - 계절의 변화, 친구의 옷차림 등 구체적인 일상경험의 변화를 인지하도록 격려하기
 - “언어영역의 놀이감 바구니 카드가 달라졌네. 어떤 부분이 달라졌을까? 알아볼 수 있겠니?”
- 한 가지 특징으로 분류하는 놀이감 제공하기
 - 단순한 특징 또는 한 가지 특징으로 분류할 수 있는 카드를 제공하여 차이를 인식하도록 함
 - “여기 여러 가지 모양의 카드에서 동그라미만 골라줄 수 있니?”
 - “붉은 색이 있는 카드만 모아줄 수 있니?”
- 일상에서 변화 인식하기
 - 계절이나 시간의 변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도록 기회를 제공함
 - “나뭇잎 색깔이 어떻게 달라졌니?”
 - “그림자 모양을 볼까? 네 그림자가 점심 때 바깥놀이 나왔을 때랑 어떻게 달라졌니?”
 - “저녁이 되니 하늘색이 어떻게 되었지?”

다. 유의사항

- 차이와 특징을 구별하는 것이 유아의 취향이나 선호에 관련된 문제는 아닌지 관찰이 필요함
 - 유아에 따라 차이와 특징을 구별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좋아할수 있으나 반대로 과제수행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음
 - － 유아가 주변의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지 않더라도 놀이나 과업에 집중하거나 또래와 어울리는 데 무리가 없다면 좀 더 관찰해 보는 시간이 필요함
 - 주변의 변화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교사의 행동이 유아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의함
- 유아를 돌보는 부모나 교사의 민감한 행동이 요구됨
 - 부모가 주변 환경의 변화에 둔감한 경우 유아에게 변화 또는 차이를 인식하도록 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 부모와 협의하여 산책하기 등 유아와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경험을 하도록 제안함
 - 교사 자신도 변화에 민감하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함
 - － 교사가 계절변화, 주변 환경의 변화 등에 민감해야 유아에게 변화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음

18. 질문하는 맥락에 관계없이 대답하는 경우

5세 창수는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주말에 지낸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친구들은 주말에 지낸 이야기 또는 가족과 함께 한 이야기를 하나 창수는 “오늘 개미가 무리를 지어가요.” 또는 “선생님! 개미가 한 집 에 얼마나 사는 줄 아세요?” 라며 이야기 맥락과 관계없는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이야기를 한다. 이야기 나누기 시간이 지루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맥락과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나 맥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이러한 경우는 이야기 나누기 시간이 아니라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발견되곤 한다.

가. 원인 분석

□ 자기중심적 사고에 집중

- 듣고 적절하게 대답하기보다 자기중심적 사고에 몰입하여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이야기를 주로 이야기하기 때문임
 - 사회적 상호작용에서는 타인의 이야기를 듣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대화의 순서나 대화의 맥락을 이해하게 됨 그러나 타인의 이야기를 듣기 어려우면 맥락에 맞지 않는 주제로 상호작용하게 되고 결국 또래와의 관계로 원활하게 유지하기 어렵게 됨
- 다른 또래와 비교하여 유아기 특성인 자기중심적 사고가 많이 나타난 경우라고 할 수 있음
 - 5세 유치반의 경우라면 전조작기 시기의 특성을 일찍 벗어난 유아와 아직 벗어나지 못한 유아가 공존하고 있을 수 있음

□ 자신의 이야기가 수용되지 못한 이전의 경험

- 자신의 이야기가 주로 수용되지 못하였거나 수용되지 못했다고 인식하고 있어서 우선 자신의 주장을 먼저 하고자 하기 때문임
 -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을 경우 인정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하게 됨

□ 상황이나 맥락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

-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가 부족하여 관심을 두지 못함
 - 경험부족으로 인해 교사 또는 또래가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알지 못하나 자신의 의견은 주장하고 싶은 경우에 해당됨

나. 지도 방법

□ 타인의 관점에 대한 인식하는 역할놀이 제공하기

- 역할놀이나 사회극적 놀이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역할수행을 경험하고 타인의 관점에서 이야기 해보도록 함
 -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필요한데 혹시 해 보겠니?”
 - “소방서 아저씨는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하지?”

- 유아의 이야기를 충분히 수용하는 경험제공하기
 - 유아가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는 경험을 반복하게 되면 타인의 이야기를 듣고 대답하는 행동이 가능함
 - “천천히 이야기해 봐 들어보자.”
 - “먼저 이야기 해보겠니? 그 다음에 선생님도 이야기할게.”
- 직접 간접 경험을 통한 사회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하기
 - 소방서, 병원 등에 대한 현장 학습을 통해 직접 경험으로 사람들 간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도록 함
 - “소방서에는 어떤 일을 하는 분들이 계시니?”
 - “마트에서는 어떤 물건을 살 수 있니?”
 - “엄마와 아빠와 함께 마트에 갔던 기억이 나니?”

다. 유의사항

-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생기는 엉뚱한 반응에 대하여 교사가 놀라거나 실망하는 표정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유의함
 - 교사가 대집단 활동을 운영할 경우 유아의 맥락에 맞지 않는 대답이나 반응이 방해요인이라고 인식할 수 있음 유아의 발달 상황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유아의 입장과 현재 수준을 이해하고 적절한 대처반응을 모색하도록 함
- 배려 받은 유아가 배려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유아행동을 수용하도록 함
 - 수용된 경험이 적은 유아일수록 피해의식을 자지고 자신의 의견을 고집할 수 있음
- 유아가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수준이 또래 유아들의 수준을 훨씬 미치지 못하거나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발달상의 문제를 예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찰기록을 유의하여 하도록 함
 - 사회적 관계에 문제를 지속할 경우 자폐적 성향이나 아스퍼거 증후군¹⁷⁾ 행동

17)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진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느낌을 이해하는 것에 무능하며, 비정상적인 외고집, 언어 소통 기능의 부족, 사회적 신호에 무감각, 도피와 특별히 관심 있는 것에 강박적으로 빠져들 등을 경험한다. 가장 특징적인 문제는 사회적인 상호교류의 장애이다. 아이는 타인과의 의미 있는 사회적 상호 행동을 교환하고 다양한 비언어적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 아스퍼거 증후군의 증상은 세 살 전에는 발견되지 않는다. 어린시절동안 이들은 다른 사람과 같이 있는 것에서 정상적인 관심과 충족이 결핍되어 있을 수 있다. 일부에서는 상상의 놀이가 결여되고,

특성을 보일수도 있으므로 관찰기록을 토대로 조기 개입을 위한 전문가와 논의에 대비해야함.

19. 주의집중하지 못하고 행동이 산만한 경우

4년 6개월 남아인 형식은 교사가 제시한 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산만하게 뒤적거린다. 대집단활동(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교사의 말에 주의집중하지 못하고 옆에 있는 친구에게 장난을 치거나 심할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교실을 돌아다니기도 한다. 보조교사가 들어오는 날에는 보조교사가 형식이 옆에서 주의 집중하도록 유도를 하면 좀 따라오는 편이지만, 보조교사의 도움이 없으면 이내 산만한 행동을 보인다.

가. 원인 분석

- 유아의 집중력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와 같은 장애의 수준이 아니지만, 집중력의 요소 중 어느 하나에 문제가 있는 경우임.
 - 집중력이란? 현재의 상황에 집중하는 순간적인 주의력과 그 집중을 장시간 지속할 수 있는 유지능력, 집중해야 할 필요 요소 단위로 적절히 주의를 분산할 수 있는 능력, 집중할 대상과 그렇지 않은 것을 판단하는 능력, 집중의 대상을 옮길 수 있는 능력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임.
- 인지능력이 또래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호기심이 과도한 경우
 - 일반적으로 영재 특성을 지닌 유아들의 행동 사례로 해당 연령 수준의 과제나 대화에는 관심을 가지지 못하거나 호기심이 매우 강해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탐색하려는 경우임.

또 다른 경우는 상상의 놀이가 반복적으로 될 수 있다. 말하기는 보통 나이에 시작하지만 좋아하는 주제에 대해서 반복적인 대화로 언어의 이상이 있을 수 있다.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진 환자의 대화는 대개 그들 자신을 중심으로 한다. (자료: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www.cdc.go.kr/CDC/contents/CdcKrContentView.jsp?menuIds=HOME001-MNU0001-MNU0760-MNU0768&cid=16930>)

- 신경적인 장애로 주의집중 및 학습능력이 결여된 경우
 - 지능이 낮거나 간질, 뇌성마비 등의 신경적인 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무엇을 해도 언제나 건성이고 특정한 행동을 반복하거나 이름을 불러도 눈 맞춤을 하지 못하는 경우임.
- 부모가 자녀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경험을 많이 한 경우
 -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의 말에 주의집중하지 않거나 경청하지 않는 경험을 오랜 기간 하면서 유아도 남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경청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임.

나. 지도 방법

- 사전경험 제공하기
 - 대집단활동의 주제(일부)를 사전에 미리 경험하게 하여 활동에 친숙해지고 관심을 가지도록 함.
- 또래 도움 제공하기
 - 옆 자리에 친한 친구 또는 바른 태도의 친구를 앉히고 활동에 집중하도록 도움을 주도록 함.
 - (옆에 있는 친구가) “오늘 선생님이 정말 재미있는 얘기 해주신대---, 우리 같이 듣고, 대답해 보자!”
- 또래 모델링하기
 - 교사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바른 자세로 앉은 다른 친구를 칭찬하여 자연스럽게 그 모습을 보고 따라하도록 함.
 - “옆에 있는 친구는 어떻게 하나 잘 보면서 해보자.”
- 활동 난이도 다양하게 제공하기
 - 발달수준 차이에 따른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다양한 난이도의 활동과 과제를 준비하여 제공함.
 - 특히, 높은 인지능력과 과도한 호기심이 원인인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과제를 제공함.

- 대집단활동 전후로 또 다른 유아의 활동과 과제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유아가 자신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흥미있어 하는 수준의 과제를 제공함.
- “여기 선생님이 조금 더 재미있는 책을(자료를/놀잇감을) 줄게, 한번 해보겠니?”
- “다 하고나서 어떤 점이 더 재미있었는지 말해주겠니?”

다. 유의사항

- 집중력이 낮은 원인에 따라 적절한 지도 전략을 활용함.
 - 집중력 자체가 매우 복합적인 요소와 능력으로 발휘되므로, 하위 요소별로 해당 유아가 어느 부분에서 제한점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도함.
- 가정에서 양육 환경 파악 및 가정과 연계 지도를 강화함.
 - 가정에서 부모의 자녀 양육 방식과 태도를 파악하고,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의 지도와 일관성있는 지도가 가능하도록 함.
- 부모 상담시에 가정에서의 부모-자녀 관계 및 대화 방법을 파악하고 지도함.
 - 평소 가정에서 형식이 부모님이 형식이나 어떻게 대화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는지를 파악함.
-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의 말을 경청하도록 유도함.
 - 교사의 말에 주의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청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평소 가정에서 부모-자녀 대화가 잘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임.
 - 남의 말에 주의를 기울여 제대로 듣는 연습을 통한 경청 능력을 기르는 것은 유아의 사회성 증진은 물론 교사의 말에 대한 집중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됨.

20. 동화를 들을 때 동화 내용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

5년 2개월 남아인 도윤이는 교사가 동화를 들려줄 때, 몇 분 후가 지나면 교사를 쳐다보지 않고 동화내용을 귀담아 듣지 않고, 앞 뒤 친구 머리카락이나 옷을 만지거나 기대며 귀찮게 하고 뒤돌아보며 말을 시키곤 한다.

그러다가도 가끔씩 동화와 연관된 단어나 상황이 생각났는지 불쑥불쑥 말하거나 행동을 하여 분위기를 흐트러트리는 경우도 있다. 교사가 동화를 멈추고 도운이를 주시할 때에도 하던 장난을 멈추지 않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말과 행동이 계속되는 경향이 있다.

가. 원인 분석

- 유아의 집중력과 자제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
 -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에는 부주의 유형, 과잉행동-충동 우세형, 복합형 세 가지 유형이 있음.
 - 도운이의 경우는 복합형일 가능성이 있음. 빈도나 정도가 또래에 비해 심하고, 학습 및 또래 관계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면 전문의나 임상심리학자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음.
- 인지능력이 또래보다 많이 낮은 경우
 - 일반적으로 또래보다 인지 능력이 낮으며, 특히 언어 이해력이나 어휘력, 집중력 등이 낮은 유아는 처음 접하는 동화나 학습장면에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처음 듣는 이야기나 내용이 조금 복잡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집중하여 듣고 있기가 어렵고, 간혹 알아듣는 어휘에 대해 관심을 표출하여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경우임.
- 관심을 끌려는 경우
 - 가정에서 긍정적인 방법으로 관심을 받아 보지 못했던 유아들은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관심을 끌고 싶어 함.
 - 교사의 시선을 지속적으로 자신에게 고정시킴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고 싶은 경우임.

나. 지도 방법

- 또래 모델링하기

- 교사가 동화를 읽어 줄 때 주의집중하고, 동화내용에 질문에 대한 주의해서 답변을 하는 친구를 칭찬하여 자연스럽게 그 모습을 보고 따라하도록 함.
 - “(옆 친구 이름)가 자기 생각을 친구들이 들을 수 있게 잘 말해 주었네!!”
 - “다른 친구들 중에도 (옆 친구 이름)처럼 내 생각을 말해보고 싶어요. 하는 친구 있으면 손들어 볼까?”
- 같은 주제의 동화 내용(동화책)을 다양하게 제공하기
 - 유아들의 발달수준 및 인지능력 차이에 따른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유사한 주제의 여러 가지 동화를 준비하여 제공함.
 - 인지능력이 낮은 경우에는 좀 더 쉬운 어휘나 일상적인 단어가 포함된 동화책을 준비해서 읽어 줌.
- 긍정적인 행동으로 관심 끌도록 유도하기
 - 유아가 긍정적인 행동을 할 때 즉시 반응해 주고, 부정적인 행동은 무시하는 등의 일관된 반응을 보여, 부정적인 행동으로 인한 관심끌기는 효과가 없음을 알게 함.
 - “도윤이가 누워있을 때(다른 데 볼 때)는 선생님 눈에 잘 안 보였는데, 바르게 앉아서 대답을 하니깐, 선생님 눈에 정말 잘 보이네!!”
- 스티커 제공하기
 - 분위기를 흐트러트리는 행동이 심할 경우에는 대집단활동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미리 같이 생각해 보고, 어떠한 행동에 칭찬 스티커를 줄지, 어떤 행동을 할 때에 받지 못하는 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함.
 - 유아가 모은 스티커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미리 알려주어 주의력 유지와 충동성 억제 연습이 가능하도록 함.

다. 유의사항

-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극을 줄이고 교수방법의 다양화 등의 전략을 활용함.
 - 이를 위해서는 우선 유아가 어떤 자극에 좀 더 민감하고, 어떤 자극에 집중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관찰이 필요함.
- 부모 상담시에 도윤이의 행동 관찰 기록을 가지고 함께 상의함.

- 평소 기관에서 도윤이의 행동에 대해 객관적으로 관찰한 기록(부주의하고, 과잉행동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의 빈도와 강도 기록)을 부모에게 보여주고, 심한 경우에는 전문가 상담이나 진단을 권유함.
- 교사가 관찰한 것이 가정에서도 일어나는 지 파악한 후 그런 도윤이의 행동을 부모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등을 질문하여 부모의 판단력에 도움을 줌.
- 부모 상담시에 가정에서의 부모-자녀 관계를 파악하고 지도함.
 - 평소 가정에서 부모님이 도윤이의 어떤 행동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지 등을 파악함.

21. 간단한 지시를 따라하지 못하는 경우

3년 8개월 여아인 미나는 1학기가 지나도록 교사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며, 간단한 지시도 따르지를 못한다. 일반적으로 3세 유아라면 교사가 하는 단문의 지시문을 듣고 따라하는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미나는 교사가 지시할 때 잘 듣는 것 같다가도 결과적으로 지시에 따른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 원인 분석

- 어휘력이 부족하여 교사의 지시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 교사가 말한 지시문 중에 포함된 특정 사물이나 물건의 이름이나 동사를 이해하지 못하여 지시를 따르지 못하는 경우임.
 - 특히, 전체 유아나 소집단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지시문은 다른 친구들의 행동을 보고 따라 하기도 하나, 미나 개인에게 별도로 한 지시는 따르지 못함.
- 다른 사람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
 - 자신의 생각이 많고 강해서 남의 말을 듣지 않거나, 또는 가정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할 필요가 없어서 다른 사람이 하는 말 그 자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경험을 많이 하지 못한 경우임.

□ 기관이나 학급의 기본적인 규칙을 따르기 싫어하는 경우

- 기본적으로 정해진 기관이나 학급의 규칙(정리정돈하기, 손씻기, 준비하기, 이동하기, 준비물 챙기기, 친구와 협동하기, 순서를 지키기 등)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경우임.

나. 지도 방법

□ 기본 어휘력 길러주기

- 유아의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사물, 물건 등의 이름을 익히는 놀이나 게임 경험을 많이 제공함.
 - 직접적으로 외우게 하기 보다는 해당 사물이나 물건이 많이 나오는 동화책(그림책)이나 이야기나누기 자료 등을 가지고 재밌게 어휘력을 기르게 함.
 - (미나가 그림책의 사물을 이거, 저거 하고 말할 때, 교사가 의인화법을 사용하여) “미나야, 내 이름을 불러줘, 나도 너처럼 이름이 있거든”
 - (미나가 해당 단어를 사용하면) “어?, 내 이름을 알았네? 내 이름을 불러줘서 고마워!”
 - (동물/과일이름, 또는 동작 명칭을 가지고) “ ‘친구들하고 같이, 나는 OO(하거를)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000 하기 때문입니다’ 게임을 해볼까?”
-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물, 그림, 교사의 몸짓 등의 단서를 제공함으로써 시각적 단서 제공하기 전략을 활용함.
 -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어휘가 나올 때마다 관련 사진이나 그림을 짚어 주면서 연결시켜주고, 교사의 직접적인 동작으로 시연을 보여줌.
 - “미나가 좋아하는 토마토가 (해당 그림을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여기 있네?”
 - “이 중에서 손을 들고 있는 친구는 어떤 친구니? 아!, 여기에 있네!(해당 장면을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손을 들고 있네!”
- 사물의 이름을 말해 봄으로써 사물에 대한 개념과 인식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중요한 동사를 행동과 함께 보여주면서 어휘를 직접적으로 말해 주는 명명하기 전략을 활용함.

- “선생님이 바닥에 있는 블록을 집어 줄게, 선생님과 함께 이 블록으로 예쁜 집을 만들어 볼까?”

직접적인 요청하기

- 유아에게 필요한 지시를 따를 수 있도록 필요시에는 직접적으로 요청함.
 - “미나야! 이 알림장을 네 사물함에 가져다 놓을 수 있겠니?”
 - “미나야!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 동물친구들을 그림책에 있는 숲속 자기집에 데려다 주렴”

학급규칙 정할 때 해당 유아 꼭 참여시키기

- 기본적인 규칙의 필요성과 규칙의 내용을 이해시키고, 학급내에서 꼭 지켜야 할 규칙을 교사가 지시할 때 따를 수 있도록 함.
 - “미나야! 이제 정리할 시간이니, 친구들과 규칙 정한대로 네가 가지고 놀던 놀잇감을 제자리에 정리해 보자.”

다. 유의사항

가정에서 양육 환경 파악 및 가정과 연계 지도를 강화함.

- 가정에서 부모의 자녀 양육 방식과 태도를 파악하고,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의 지도와 일관성있는 지도가 가능하도록 함.

부모 상담시에 가정에서의 부모-자녀 관계 및 대화 방법을 파악하고 지도함.

- 가정에서도 부모가 지시하는 말을 유아가 따를 수 있도록 하고, 부모 역시 교사의 요청을 경청하고 따라주는 경험을 많이 하도록 가정과 연계 지도를 함.

22. 역할놀이때 정해진 역할을 표현하지 못하고, 단순한 행동을 반복하는 경우

3년 11개월 남아인 진수는 다른 친구들과 하는 사회적 놀이에 잘 참여하지 못한다. 특히, 역할놀이를 할 때 단순한 역할 표현도 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주제에 따라 새로운 주제의 역할놀이 환경이 구성되었을 때에도 이전과 동일한 행동과

말을 반복한다. 역할놀이에 참여했을 때에도 친구들과의 역할 상호작용에 따른 대화를 하지 못하고, 단순한 행동과 말을 지속하여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끼워주지 않는 경향이다. 이에 친구들은 진수가 다가와도 관심을 보이지 않게 된다.

가. 원인 분석

- 사회적 상호작용의 의미와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 혼자놀이를 하는 자체가 모두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적어도 만 3세가 되면 다른 사람과의 놀이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함.
 - 집단생활에서 필요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초가 되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친구들과 함께 하는 놀이에 흥미가 없어 함께 하는 역할놀이에서도 그 특성이 나타나는 경우임.
-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경험이 부족하거나 상징적 표상 능력이 부족한 경우
 - 유아의 가정을 포함한 일상생활에서의 경험이 폭이 매우 좁거나, 동화책 등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간접경험의 기회도 적어서 제시된 역할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임.
 -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한 내용을 인지적 사고를 통하여 상징적으로 표상하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임.
- 생각은 있으나 이를 표현하는 데 자신감이 부족한 경우
 - 역할놀이만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과 함께 하는 놀이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데 수줍어하거나 자신감이 없는 경우임.

나. 지도 방법

- 사회적 표상놀이 경험 많이 제공하기
 - 다른 사람이나 친구들과 함께 하는 놀이의 즐거움을 느끼면서 그 안에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반드시 필요함을 느끼게 되는 경험을 많이 하게 함.

- 사회적 상호작용이 있어야 성취할 수 있는 교재·교구를 제시한다거나, 친구와 함께 했을 때 더 즐겁게 진행할 수 있는 놀이와 교재를 제공하여 자연스럽게 상호작용이 유발될 수 있도록 함.
 - “동화책에 나왔던 동물친구들의 흉내를 내면, 다른 친구가 맞추기 게임을 해 볼까?”
- 유아가 경험한 내용을 다양한 방법의 상징적 표상활동으로 나타내보는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함.
 - (3-5명 소집단을 구성하여) “가족들과 갔던 곳을 몸짓과 행동으로만 표현하면, 친구들이 알아맞히는 ‘여기는 어디일까요?’ 게임을 해보자!”
 - “진수는 어디를 갔었는지 한번 몸으로 표현해 보겠니?”
- 일상생활속에서 다양한 역할의 특성을 접하게 하기
 - 가정환경이 다양한 경험을 하기에 제한적일 경우, 기관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 및 문화경험을 하도록 기회를 제공함.
 - 기관의 일정한 인적·물적 여건내에서 유아에게 직접 경험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동화책이나 영상매체를 활용하여 다양한 역할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역할놀이 이전에 별도로 사전경험 제공하기
 - 친구들과의 역할놀이에 바로 참여하게 하기 보다는 주제에 따라 예상되는 역할의 특성을 사전에 교사와 이야기나누는 시간을 가져 해당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여줌.

다. 유의사항

- 역할놀이가 시작되는 상황을 관찰하여, 해당 유아가 사전에 준비한 역할을 자연스럽게 맡을 수 있도록 유도하여 참여하게 함으로써 역할놀이에 대한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함.
- 역할놀이 상황에만 해당 역할 표현을 잘 못하는 것인지를 파악하여 지도함.
 - 다른 활동에서 보다 특히, 역할놀이에서만 표현이 잘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모든 활동에서 친구들과의 대화나 상호작용이 안 되는 것인지를 관찰하여 파악하도록 함.

-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면 사회적 상호작용이 많이 유발되는 친구들과의 놀이 경험을 좀 더 많이 제공함.

-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표현력의 문제인지 파악하여 지도함.
 - 정해진 답이 없는 창의적인 표현을 많이 하게하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했을 때 칭찬을 많이 해주어 표현력과 자신감을 길러주도록 함.

23. 놀이감을 정리할 때 뒤섞어서 정리하거나 다른 영역에 정리하는 경우

4년 3개월 남아인 해진이는 재밌게 놀고 난 후, 정리정돈시간에 놀이감을 제 자리에 정리하지 못하는 행동을 보인다. 교사의 정리정돈 요청에 따라 놀이감을 치우기는 하는데, 정리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게 뒤죽박죽으로 놓거나, 아예 다른 영역에 정리한다. 교사가 다시 확인을 하거나, 친구들이 지적을 하면 그때 지정해 주는 자리에 교구를 가져다 놓는다.

가. 원인 분석

- 유아기 분류개념이 잘 발달하지 않은 경우
 - 만 4세 유아는 사물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구분하여 같은 것끼리 모을 수 있는 분류개념이 발달하는 시기이나, 이 분류개념이 잘 발달하지 않아 놀이감을 같은 종류끼리 구분하여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임.
 - 사물이 가진 크기, 모양, 색깔에 대한 기본적인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별하지 못함.
- 정리정돈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 놀이하는 것에만 흥미있어 하고, 이후에 정리정돈하는 것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 소홀히 지나치는 경우임.
 - 기본생활습관의 문제로서 정리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거나 습관이 들지 않은 경우임.

나. 지도 방법

□ 분류개념을 도울 수 있는 놀이활동 제공하기

- 크기, 모양, 색깔 등의 요소가 포함된 교구 등으로 기본적인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하는 활동을 기초 활동으로 제공함.
 - 다양한 종류의 교재·교구로 하는 놀이활동으로 분류개념을 익힐 수 있도록 함.
 - (기본 색깔(빨강, 노랑, 파랑), 기본 모양(동그라미, 세모, 네모)이 다양한 크기로 포함된 조각모음들을 준비하여) “여기에 어떤 모양들이 있니?, 어떤 색깔들이 있니?, 모두 같으니? 다르니?, 같은 색깔을 한번 찾아볼까? 같은 모양끼리 모아볼까?,
 - “이 두 가지는 어떤 점이 다르니? 어떤 점이 같니?”
 - “해진아, 넌 왜 이렇게 모았니?, 왜 이렇게 모았는지 친구들에게 말해줄 수 있겠니?”

□ 정리정돈의 필요성 인식하도록 하기

- 놀이감 정리정돈은 교실 환경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데도 좋고, 무엇보다도 그 다음에 다시 놀이감을 가지고 놀 때 더욱 편리하다는 것과 다른 친구들이 잘 가지고 놀 수 있도록 배려하는 측면에서도 필요함을 인식하도록 함.
 - “해진아!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 어떤 점이 좋으니? 이렇게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 뭐가 불편하니?”
 - “해진이가 이렇게 정리를 잘 해 놓으면, 다음에 친구들이 가지고 놀 때에도 참 기분이 좋겠구나!”
- 집단생활의 가장 중요한 공동의 규칙으로 정리정돈하기를 유아들끼리 정하게 하고, 학급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또 함께 살아가는 생활속에서 친구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기본생활습관을 기르도록 함.

□ 놀이감 정리를 잘하는 또래 모델링하기

- 해당 위치에 놀이감 정리를 잘하는 친구를 칭찬해 주거나 해당 유아 옆에서 정리정돈을 함께 하도록 지도함.
 - “OO친구가 오늘 정리를 참 잘하네!, 친구들과 정한 규칙을 참 잘 지키니, 우리 반 친구들이 놀 때 참 좋겠다!”

□ 교구장에 놀이감 그림/사진을 붙여주어 정리·정돈을 용이하게 하기

- 놀이감 교구장에 해당 놀이감의 그림이나 사진을 잘 보이게 붙여 두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정리가 용이하도록 지원함.
- 경우에 따라서는 크기 구별이 가능한 실제 크기 본을 붙여 줄 수도 있음.

다. 유의사항

- 잘 하지는 않았더라도 유아가 스스로 정리하려고 한 노력을 칭찬함.
 - 깔끔하게 또 완벽하게 정리하는 것을 기대하기 보다는 유아 수준에서 정리하고자 하는 의도와 노력을 보였을 때는 이에 중점을 두고 칭찬하고 격려함.
- 가정에서도 연계지도가 가능하도록 함.
 - 가정의 일상생활속에서 정리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제자리에 정돈을 잘 했을 때 칭찬을 많이 해서 격려하도록 안내함.
 - 가정에서도 유아가 가지고 놀거나 사용한 동화책이나 놀이감 등을 일정한 장소에 정리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함.
- 주의깊게 관찰하고 여러번 지도를 했지만, 세부적인 교구 구분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하도록 하여, 시각적인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24. 자신의 물건과 남의 물건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주 바뀌는 경우

4년 6개월 여아인 수빈이는 개인 도시락이나 어린이집 가방 등을 종종 친구 것과 바꿔서 집으로 가져가곤 한다. 어린이집에 등원할 때부터 자신의 신발을 정해진 신발장에 넣지 못하거나 걸옷을 벗어 아무렇게나 걸어 두었다가 최근에는 친구 옷을 입고 가려는 것을 옷 주인인 친구가 교사에게 ‘자기 옷을 입고 간다’고 말해서 교사가 수빈이 본인의 옷을 입고 가도록 지도한 경험도 있다.

가. 원인 분석

- ‘자기/내 것’이라는 소유개념이 없는 경우

- ‘내 거’와 ‘네 거’라는 소유개념은 자아개념과 관련된 인지발달과 도덕성 발달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음.
- 단순한 부주의 또는 집중하지 않아서 실수하는 경우
 - 사물이나 물건의 외양이 차이가 많이 나서 사물을 구분하는 어떤 한 가지 준거로도 쉽게 차이점을 구분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자꾸 바뀌간다면 이는 주의집중하지 않거나, 부주의해서 생기는 실수라고 볼 수 있음.
- 물건의 차이점 등을 변별하는 방법 등의 미숙으로 변별을 못하는 경우
 - 유아의 물건은 똑같이 생긴 것들이 많아서 얼핏 보면 누구 것인지 식별이 어려울 수 있음.
 - 즉, 대부분 이름으로 구분할 수밖에 없으므로, 자기 이름 쓴 것을 아직 모르는 경우에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임.
- 자기 것보다 친구 것이 더 좋아 보여서 바꿔서 가져가는 경우
 - 자신의 물건보다 친구의 물건이 더 좋아 보여 한번 가져보고 싶은 욕구에 친구의 물건을 바꿔서 가져가는 경우임.

나. 지도 방법

- 개인 물건에 유아 이름(표) 붙이기
 - 개인 물건에는 큰 글씨로 이름을 붙여주고 자신의 이름을 눈으로 익혀서 변별할 수 있도록 함.
 - 가능하면 유아가 직접 쓴 이름표를 붙여 주어 더욱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함.
- 개인 물건을 분류하거나 챙길 때는 그 행동에 집중하도록 하기
 - 주변에 주의를 끄는 다른 일이 있으면 누구든지 집중력과 변별력이 떨어지므로, 자기 물건을 챙길 때에는 다른 지시나, 자극이 없도록 환경을 조성해 줌.
 - 등원해서 가방을 사물함에 정리해서 넣을 때, 집에 갈 때 옷을 챙겨 입거나, 가방을 챙길 때 다시 한 번 자기 것인지 확인하도록 지도함.
 - “친구들 모두 자기 사물함에 가방을 넣기로 하자. 수빈이가 가방을 어디에 넣는지 한번 볼까?”

- “친구들 가방 색깔이 모두 같으니, 어떻게 자기 가방을 알아보고 챙길 수 있을까?, 그래 좋은 생각인 것 같다. 자기 이름을 한 번 더 보고, 가져가면 되겠구나!”

- 학기 초에는 전체 유아를 대상으로 물건을 챙긴 후에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함.

□ 자신과 남의 물건을 소중히 여기기 활동하기

- 물건을 보고 그 주인을 알아맞히기 게임이나 오래되고 낡았지만 그 사람에게 소중한 물건 발표하기 등의 활동을 통해 소유개념과 도덕성 개념을 일상생활속에서도 적용시켜 나감.
- 나에게 소중한 물건이 있는 것처럼, 친구의 물건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활동을 함.

다. 유의사항

□ 유아의 발달 과정에 실수로 남의 것을 가져가기 등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이해함.

- 다른 친구의 좋아 보이는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문제는 아직 소유개념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으므로 교사는 과민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음.
- 단, 이런 상황에서 교사가 무관심하거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반응을 해서는 안되며, 유아의 발달수준과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도함.

□ 부모와의 상담시 가정과의 연계 지도를 안내함.

- 가정에서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건 외에 소소한 물건이라도 형제간에 각자의 것이 분명한 물건에 대해서는 가정에서도 일관된 지도를 하도록 안내하고 요청함.

25. 또래에 비하여 수세기를 못하는 경우

5년 7개월 여아인 미진 이는 또래에 비해 산술 능력이 매우 떨어진다. 10까지의 수를 세거나 10이내의 수를 가지고 하는 놀이에 참여하지 못하고 자꾸 못한다고 하고 빠지려고 한다. 교사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수세기나 간단한 셈하기 외에도 읽기 및 쓰기에서도 뒤쳐지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이다.

가. 원인 분석

- 뇌손상이나 뇌기능 장애 등으로 지능 수준이 떨어지는 경우
 - 수세기나 셈하기 능력이 매우 낮을 경우, 학습장애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또래 연령에 비해 산술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며, 학습 성취나 일상 생활 속에서의 기본적인 활동이 안 되는 경우임.
- 인지발달 단계에 따른 적합한 교육이나 자극을 받지 못한 경우
 - 유아의 부모나 가정환경 그 자체에 인지적 발달을 자극하는 교육적 경험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임.
 - 처음에는 단순한 수세기를 하다가, 점차 수와 양의 관계, 숫자와 수이름의 관계를 알아가는 단계적 수개념 형성 및 수세기 활동을 많이 접하지 못한 경우
 - 바람직하지 못한 학습 방법을 강요받아, 스스로 판단하거나 분석할 능력을 기르지 못하고, 주어진 과제만을 수동적으로 해온 경우임.

나. 지도 방법

- 수세기 과제 세분화하기
 - 유아가 과제를 어려워하면 대상 과제를 세분화하여 단계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함.
 - 아주 작은 수부터 시작하여 큰 수로 숫자 진행하면서 단계별로 활동함.
 - “여기 컵에 숫자가 적혀 있는데, 이 숫자 크기에 맞게 단추를 넣어 볼까?”
 - “자!, 미진이는 선생님과 같이 먼저 수 개수대로 세어보기를 해볼까?, 다 세어봤으면 이젠 숫자에 맞게 컵에 넣어 보자!”

- “단추가 적게 들어있는 컵부터 많이 들어있는 컵 순서대로 놓아 보겠니?”

□ 시각적 단서 사용하기

○ 숫자와 수 이름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손으로 짚어가면서 짝을 짓는 경험 등을 구체물을 가지고 활동으로 제공함.

- “여기에 있는 블록을 숫자 목걸이의 수만큼 세어서 놓아 보자!, 자, 여기에 3이라고 써 있네? 그럼 세 개를 세어서 맞게 놓아 볼까!”

□ 활동 반복하기

○ 쉬운 수세기 활동도 어려워하는 경우에는 활동에 좀 더 익숙해질 수 있도록 반복하기 전략을 사용함.

□ 교사 모델링 제공하기

○ 수세기 활동에서는 창의적이거나 다양한 수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교사가 보다 정확한 모델링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 “미진아!, 선생님이 하는 것을 보고, 맞게 했는지? 틀리게 했는지? 말해 볼 수 있겠니?”

-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지? 이 중에서 3개만 골라서 여기 3이라는 숫자박스에 넣어 볼게, 잘 보고 따라해 보렴.”

□ 일상 생활속에서 수와 친숙하게 하고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기

○ 유아의 일상 생활속에서 활용되고 있는 수(날짜, 시간, 크기, 길이 등)의 의미와 필요성을 인식하는 동화책이나 이야기나누기 등을 활용한 활동을 제공함.

- “별을 좋아하는 공주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숫자를 모두 별로 바꿔버렸대, 그럼 어떻게 될까?”

- “그럼 우린 어린이집에 갈 시간을, 점심 먹을 시간을, 잠 잘 시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다. 유의사항

□ 부모와의 상담시 가정과의 연계 지도를 안내함.

- 가정의 일상 생활속에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물(그릇, 시계, 계단, 놀이감, 물컵 등)을 가지고 하는 수놀이를 많이 하도록 함.
- 뇌손상이나 뇌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와 상의하여 전문가에게 의뢰하도록 함.

26. 자기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여 토론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5년 10개월 여아인 지연이는 일상적인 친구들과의 놀이에는 잘 참여하지만, 친구들과 하는 소집단 토론에서는 자기 표현을 거의 하지 못한다. 친구들은 토론에서 서로 많이 말하려고 하는 것에 비해 지연이는 자기 순서가 와도 말을 하지 못하고 쭈뼛거리거나 '난 몰라'라고 하며 토론에 참여하지 못할 때가 많다. 교사와의 개별적인 대화에서는 교사가 물어보면 대답도 곧 잘하는데 친구들과의 토론에는 잘 참여하지 못한다.

가. 원인 분석

- 다른 사람이나 친구들의 판단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경우
 - 친구들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면서 뭔가 아주 대단한 말을 할 것이라고 기대할 것에 부담을 갖거나 자신이 어떤 말을 하였을 때 실수하거나 오답을 말할까봐 걱정하는 경우임.
 - 또는 다른 학습 상황이나 부모와의 대화에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자주 받았던 경험이 있을 경우 또다시 좋지 않은 결과가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아예 말을 하지 않는 편을 선택하는 것임.
- 특정한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생각을 하면서 토론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 단답식이거나 일상적인 대화는 가능하지만, 친구들과 생각을 교환하면서 특정한 주제에 대해 문제해결을 해나가는 토론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임.
 - 특히,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상황 수용이 안 되거나 맥락에 맞는 의견을 제시지 못하는 경우임.

나. 지도 방법

- 모두 생김새가 다른 것처럼 생각도 다르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 좋아하는 꽃, 색깔, 나라 등을 발표하는 기회를 갖고 다양한 생김새만큼이나 다양한 생각과 주장이 있으며 그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어떤 문제 해결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경험을 많이 하게 함.
 - 이를 위해서는 교사가 평상시에 어떤 의견이든 경청하고 의견을 말한 것만으로도 격려를 해줄 필요가 있음.
- 토론에서는 정답이 없으며, 여러 가지 의견이 모아질 때 더 좋은 해결 방법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경험 제공하기
 -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 그자체가 매우 의미 있는 일이고, 그런 의견들은 모두 존중된다는 인식을 갖는 기회를 제공함.
 - 다른 의견을 말하는 사람들도 수용하는 분위기와 비난하지 않고 격려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줌.
 - “누구든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단다!, 지연이도 네 생각을 친구들한테 말해 줄 수 있겠니?”
 -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정말 특별한 생각을 했네?”
- 소집단에서 발표 기회를 제공하고, 단순하지만 자신만의 논리성을 갖게 하기
 - 처음부터 여러 명의 토론 집단 구성을 하지 말고, 처음에는 두 명이나 세 명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기회를 갖도록 함.
 - 이때 단순하고 짧지만 완전한 문장으로 말하고, 나름대로의 논리성을 가지는 것을 격려함.
 - 문장 구성이 되면 그 다음에는 “왜냐하면—, —하기 때문에” 등을 추가하여 그렇게 생각한 이유와 기대하는 바에 대해 말해보도록 확장하는 경험을 갖게 함.
 - “아, 그런 생각을 했구나!,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니?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말해 줄 수 있겠니?”
 - “미진이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왜냐하면 0000 하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해 보겠니?”

-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말해 보겠니?”
- 토론한 결과를 발표해 보게 하여, 참여한 모든 친구들의 의견이 합쳐지고 조정되어 문제해결을 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함.
- (새 놀이감을 서로 가지고 놀고 싶어하는 경우에) “우리 친구들이 이 새 놀이감을 서로 사이좋게 가지고 놀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 볼까? 어떻게 가지고 놀면 좋을지 서로 의견을 말해 보기로 하자.”
- “미진이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니? 왜 그렇게 생각했는데? OO가 한 생각과 같으니, 다르니?, 그렇게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
- 자발적 의사표현의 기회와 더불어 의무적 의사표현을 기회도 갖게 하여, 집단에서의 소속감과 집단으로 토론할 때 자신의 역할도 인식할 수 있게 함.

다. 유의사항

- 부모 상담시에 가정에서도 가족간의 토론식 대화를 활성화하도록 안내함.
- 가정에서도 간단한 주제로 가족회의를 해서 의견을 결정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고 하고, 결정한 대로 실천하는 경험을 갖게 하여, 자신도 가족의 일원으로서 토론에 참여하고 기여했다는 소속감과 성취감을 갖도록 함.

27. 이야기의 내용을 순서대로 회상하지 못하거나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

4년 10개월 남아인 정환이는 동화를 들려주고 나서 동화 내용을 물어 보면 거의 대답을 하지 못한다. 이야기에 나온 주인공이 한 일의 순서대로 회상하지 못하며 중간이나 끝에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예측해 보게 하면 논리에 맞지 않게 탈맥락적인 말을 종종 한다. 주말에 집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는 시간에도 순서를 뒤바꾸거나 두서없이 말하여,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말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가. 원인 분석

- 또래에 비해 지능이 낮은 경우
 - 지능이 낮은 경우는 이해력이나 기억력 등에서 낮은 수행을 보임.
 - 또한 동화에 나오는 어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스토리를 잘 못 이해할 수 있음.
 - 순차적으로 기억하는 기억 책략 등에서도 미흡한 경우임.
- 집중력이 부족한 경우
 - 동화나 동화책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청각이나 시각을 이용하여 정보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집중력이 부족한 경우임.
 - 집중력이 부족한 유아는 지속적인 주의력 또한 부족해서 스토리의 일부를 놓쳐버리기 쉬움.
- 자신의 생각에 빠져있는 경우
 - 드물긴 하지만 유아가 우울한 기분 상태이거나 신체적인 질병, 기타 스트레스 여건 등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경우임.

나. 지도 방법

- 활동/과제를 단순화하거나 단서 제공하기
 - 복잡하거나 여러 단계를 거치는 활동/과제/질문을 간략히 단순화하거나 생각을 유도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함.
 - “정환아!, 선생님이 말해 준 동화중에서 맨 처음에 있었던 일이 무엇이었는데 생각해서 말해 보겠니?”
 - “그런데, 그전에 곰돌이가 갔던 곳이 있었는데 그게 어디였을까? 여기 보면 곰돌이가 사과를 들고 있네? 이 사과는 어디에서 났을까?”
- 사전경험 제공하기
 - 처음 들려주는 동화책의 전체 스토리를 사전에 설명해 주어 관심을 갖도록 함으로써 이야기나누기 시간에 이해도와 집중도를 높일 수 있음.

- “정환아!, 이게 선생님이 오늘 들려 줄 동화책인데, 여기에 나오는 공룡이 어딜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대--!, 왜 그랬을까?”
- “마지막엔 공룡이 어디로 갔을지 궁금하지? 그건 조금 이따가 이야기나누기 시간에 친구들과 같이 얘기해 보기로 하자?”

□ 기억력을 기르는 활동 제공하기

- 시간, 장소, 등장 인물, 사건 등에 따라 기억하는 게임 등을 통해 기억하기 전략을 배울 수 있도록 함.
 - 간단한 동화책을 읽은 후에, 동화책 속에 나왔던 사람들, 동물들, 사물들 이름 대기 게임, 사건/시간에 따라 말해보기 게임 등을 많이 제공함.
 - 짝이 있는 다양한 그림/사진카드를 뒤집어서 맞추기 게임 등을 활용함.

다. 유의사항

- 부모 상담시에 가정에서도 일상생활속에서 사건의 순서나 일과의 흐름에 따라 말해보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안내함.
 - 저녁에 잠자기 전에 아침부터 있었던 일들을 순서에 따라 이야기해 보도록 함.
 - 시장/마트에 갔다 왔을 때, 물건을 산 순서나 시간에 흐름에 따른 전후 일들을 회상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함.

참고문헌

- 권정윤·안혜준·송승민·권희경(2013). 유아생활지도. 학지사.
- 김재은(2013). 유치원 교사들을 위한 유아 문제 행동의 특징과 지도 방법. 서울: 국민서관
- 신의진.(2011). 아이심리백과 0-2세편. 걷는나무
- 신의진.(2011). 아이심리백과 3-4세편. 걷는나무
- 신의진.(2011). 아이심리백과 5-6세편. 걷는나무
- 이승연·김은영 외 역(2011). 영아발달과 반응적 교육-관계중심적 접근법- 서울: 학지사.
- 이영훈·주연희·김성수(2011). 유아 문제 행동의 이해 및 지도. 태영출판사.
- 장명립 외 18인(2008). 언어·인지·사회·정서발달 지원 프로그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과학기술부.
- 정옥분(2013). 아동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조운주·최일선(2013).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유아생활지도. 창지사.
- Goldberg, S. (1997). Parent Involvement Begins at Birth: Collaboration Between Parents and Teachers of Children in the Early Years. Allyn & Bacon.

부 록

부록 1. 인지발달지표

0-3개월

- -소리와 촉각에 반응함
- -얼굴, 무늬, 물건을 바라봄
- -움직이는 물건을 따라 눈을 움직임
- -주변 환경을 탐색함

3-6개월

- -자기 손과 손가락을 주시함
- -물건을 입으로 가져감
- -매달려 있는 물건을 향해 손 뻗기
- -물건보다 사람에게 더 관심을 보임
- -시야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반응함
- -물건을 향해 손을 뻗고 잡기
- -물건을 사용하여 소리내기
- -부분적으로 숨겨진 물건 찾기
- -물건이 다시 나타나기를 기대함
- -동시에 두 가지 물건 잡기
-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눈으로 따라감
- -목소리를 흉내 냄
- -동작을 흉내 내고 되풀이함

6-12개월

- -안과 밖에 대한 개념이 생기기 시작함

- -손가락으로 지적하기 시작함
- -결과를 얻기 위해 동작을 수행함
- -감추어진 물건을 열어서 찾기
- -상자 안에 물건 넣기
- -한 물건을 내려놓고 다른 물건을 향해 손 뻗기
- -다양한 방법으로 물건을 탐색함
- -물건의 앞, 뒤, 위, 밑을 이해함
- -두 물건을 서로 부딪치는 흉내 내기
- -낙서를 흉내 냄

1~1.5세

- -시행착오법을 사용함
(시도와 실패를 되풀이함)
- -한 물건을 다른 물건을 만지는 데 사용함
- -물건이 시야를 일부 벗어나도 -물건을 따라 주시함
- -목적물 가지고 물건을 사용함
- -몸동작을 흉내 냄
- -새로운 동작을 흉내 냄
- -집안일을 흉내 냄
- -작은 물건을 조작함

1.5~2세

- -한 물건을 다른 물건에 영향을 주기 위해 사용함
- -물건을 갖기 위해 기어올라감
- -필요하다면 장애물을 피해 옆으로 감
- -기능적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영유아를 사용함
- -기억해서 활동과 말을 흉내냄

2~3세

- -물건의 크기를 이해하기 시작함

- -공간관계를 이해하기 시작함
- -양을 인지하기 시작함
- -유사함을 인지하기 시작함
- -분류하는 것을 시작함
- -일부분/전체의 관계를 이해하기 시작함

3~4세

- -크기를 이해함
- -공간관계를 이해함
- -양을 이해함
- -유사함을 이해함
- -분류하는 것을 이해함
- -일부분/전체의 관계를 이해함
- -차이점과 유사점을 사용해서 비교함

4~5세

- -크기 또는 연속성의 순서를 이해함
- -이야기에서 사건과 사건의 전개 순서를 이해함
- -1:1의 관계를 이해함
- -하위집단을 이해함
- -원인과 결과를 이해함
- -50이상의 수를 셀 수 있음
- -간단한 지시를 이해하고 따름
- -흉내 내는 놀이와 역할 놀이를 함

자료: 영유아 발달이정표(Goldberg, S,1997)

「영유아 문제행동지도 프로그램 개발」
-영유아 문제행동지도를 위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침서-

[연구진]

구분	성명	소속/직위
총괄 책임	이미화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제 1부 총론		
책임연구원	이미화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엄지원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윤지연	육아정책연구소 인턴연구원
	김영란	한국보육진흥원 사원
제 2부 각론: 기본생활영역		
책임연구원	김의향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국장
공동연구원	민미희	서경대학교 대우교수
	김수진	한국보육진흥원 대리
간사	김영란	한국보육진흥원 사원
제 3부 각론: 신체운동발달영역		
책임연구원	김은기	푸르니보육지원재단 상무이사
공동연구원	김은설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손승희	대전청사새롬어린이집 원장
간사	김영란	한국보육진흥원 사원
제 4부 각론: 사회성발달영역		
책임연구원	심미경	인제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이정림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유주연	CJ키즈빌어린이집 원장
간사	엄지원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제 5부 각론: 정서발달영역		
책임연구원	강지현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장혜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서원경	중앙청사어린이집 원장
간사	엄지원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제 6부 각론: 언어발달영역		
책임연구원	유희정	광주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권미경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안현숙	안산삼성어린이집 원장
간사	윤지연	육아정책연구소 인턴연구원
제 7부 각론: 인지발달영역		
책임연구원	최혜영	장원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장명림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정혜원	영등포구보육정보센터 센터장
간사	윤지연	육아정책연구소 인턴연구원

[연구자문진]

구분	성명	소속/직위
제 2부 각론: 기본생활영역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박문성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김일옥	삼육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제 3부 각론: 신체운동발달영역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박문성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김일옥	삼육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김태은	한양사이버대학 아동학과 교수
제 4부 각론: 사회성발달영역		
	최지영	상계백병원 정신과학교실 임상심리실 교수
	김진영	서울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이슬기	서울대병원어린이집 원장
제 5부 각론: 정서발달영역		
	정성훈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교수
	최지영	상계백병원 정신과학교실 임상심리실 교수
	김진영	서울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이슬기	서울대병원어린이집 원장
제 6부 각론: 언어발달영역		
	박주희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손은남	광주대학교 언어치료학과 교수
	신동주	덕성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제 7부 각론: 인지발달영역		
	박주희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박진아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전임강사

- 영유아 문제행동지도 프로그램 개발 -
영유아 문제행동지도를 위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침서

발행일 2013년 11월
발행처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을곡로 75(계동 140-2)
전화: 02) 2023-8944
팩스: 02) 2023-8921
인쇄처 도서출판 한학문화 02) 313-7593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1132-01